

2009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09. 10

금 융 위 원 회





# 총 목 차

(가, 나, 다, 순)

## (I 권)

고 승 덕 의원	.....	1
공 성 진 의원	.....	81
권 택 기 의원	.....	119
김 동 철 의원	.....	313
김 영 선 의원	.....	421
김 용 태 의원	.....	541
박 상 돈 의원	.....	717
박 선 숙 의원	.....	783
신 건 의원	.....	801
신 학 용 의원	.....	1003

## (II 권)

유 원 일 의원	.....	1
이 사 철 의원	.....	415
이 석 현 의원	.....	551
이 성 남 의원	.....	709

## (III 권)

이 성 현 의원	.....	1
이 진 복 의원	.....	157
이 한 구 의원	.....	247
조 경 태 의원	.....	299
조 문 환 의원	.....	631
조 윤 선 의원	.....	963
허 태 열 의원	.....	1029
현 경 병 의원	.....	1075
홍 영 표 의원	.....	1147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이성현 의원	1. 기 제출한 금융위 문서수발대장에 형광펜으로 표 기한 문서의 사본과 그 첨부서류 일체(제출시 문 서수발대장 첨부)	3
	2. 8월과 최근일까지의 금융위 각 실국별 문서수발 대장 일체(출력해서 제출요망)	3
	3. 금융위원장이 결제한 문서 목록	3
	4. 금융위내 공무원 등의 동호인회 현황 및 지원내역	4
	5.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현황	5
	6.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에 대한 금융위의 견해	6
	7. 휴면예금관리재단 현황 및 사업내역 및 주요실적, 금융위가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결산, 예산서 등	7
	8. COS, CDO 등 각 금융회사별 투자내역 및 투자결과	23
	9.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24
	10. 신보와 기보의 통합논의 내역	30
	11. 금융위원회에 접수·이첩되는 민원내역	31
	12. 녹색금융 추진현황	99
	13. 금융중심지 선정 후 해당지역 지원내역 등 활동내역 일체	152
	14. 동아일보 9월4일자에 보도된 '중기, 금융권서 빌린 돈 부동산에 투자' 기사관련 금융위 입장	153
	15. 은행의 소매금융 및 비이자수입확대에 대비한 감 독강화대책	154
	16. 실무 증권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155
이진복 의원	1. 최근 5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159
	2. 최근 5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163
	3. 최근 5년간 연구/조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164
	4.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관련	167
	4-1. 과징금 부과/수납건수 및 건별부과사유(심의일시, 결정일시,부과일시,부과금액, 사건내용,납부결과 등)	167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4-2. 과징금 부과기준 및 판정근거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168
	5.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계획, 실적	177
	6. 작년 은행의 대외채무 정부지급보증에 따른 MOU 체결이후 현재까지 은행의 이행여부 점검현황 및 개선점	218
	7.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설명)받은 내역 및 보고(설명)	239
	8. 쌍용차사태와 관련 금융위가 검토한 내용 및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역	240
	9. 최근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파견 현황 및 파견 후 성과보고서 사본	245
	10. 08년이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246
이한구 의원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원본대조필)	247 249
	B.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인사의 추천 공문서(원본대조필)와 이력사항 - 추천공문, 성명, 주요경력, 추천기관, 추천사유	249
	2. 최근5년간(~2009.8) 과징금 부과실적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등) - 유형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변동현황	253
	3-1. 2008년~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의 구조조정기금 지원규모 - 신규, 증액, 총액, 상환액, 잔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명기할 것	255
	3-2. 2008년~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지주회사 별도 명기)의 ①자본확충펀드, ②대외채무지급보증의 지원 규모	256
	4-1. 2008년~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 구조조정기금 지원시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MOU 사본과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 결과 사본	25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4-2. 2008~2009.8월말 은행별(지주회사 별도 명기)의 ①자본확충펀드, ②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시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MOU사본과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결과 사본	259
	5. 금융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①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 ②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의 추천 공문서와 이력사항	296
조경태 의원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계획서 및 결과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4. 최근 3년간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5. 소관 금융기관 현황 6.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2008.10.1~2009.8.30) 7. 소관 금융기관별 정규직 직원수 및 평균임금(3년간) 8. 소관 금융기관별 비정규직 직원수(2009년 7월 1일 이전/이후)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10. 2009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11.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12. 2009년 민원 처리 사항 13.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14. 소송현황 15.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16. 최근 3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 각 위원회 별 위원명단 : 성명/성별/현직책/거주지/주요경력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율), 서면회의 개최횟수, 각 위원회별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	301 302 332 336 337 356 372 373 374 481 524 592 593 595 597 598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위원회 별 연도별 소요예산</li> </ul>	
	17. 휴면예금관리재단 현황	612
	18. 민간배드뱅크 설립 현황	616
	19. 손보사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책정 현황	622
	20.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장	623
	21. 기업구조조정 현황	624
	22. 구조조정기금 현황	627
	23.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현황 (3년간)	629
조문환 의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 최근 5년간 감사원, 금감원,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 한 각종 정부기관과 위원회로 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내용과 조치 내용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자료 목록 4. 최근 3년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 회실적 5. 최근 금융관련 법률 개정 현황(정책건의 실적 및 내용) 6. 금융위 출범 후 정부출연금(신청금액과 실제 출연액) 7. 최근 3년간 민원내역 8. 최근 5년간 직원 해외 연수비, 연수내용, 연수일정 9. 성과급 지급 현황 10. 퇴직금 지급 현황 1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 임금, 비정규직 근무자 중 해직자 수와 해직사유 12. 금융위 출범 후 정책연구용역 내역(내용, 금액, 수 의계약 건수 및 비율) 13. 임원 업무추진비 금액 및 세부내역 14. 민간 파견 근무자 내역 15. 최근 5년간 내부 비리 적발 건수와 적발 내용, 처리 상황	633 740 741 771 779 783 784 912 913 913 914 915 916 951 95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16. 직원 징계 건수와 징계 사유	953
	17.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수와 비율	954
	18. 금융투자업 접수 및 인가 현황(09.2월 이후)	955
	19. 금융투자회사 신설현황(09.2월 이후)	955
	20. 국내 PEF 설립 현황	959
조운선 의원	1. 자산물품 취득원장	965
	2-1.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 일자별 진행과정	999
	2-2.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산은지주사 주식 출자 규모 를 당초 49%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	1027
	3. 직원 징계 현황 관련	1028
	-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 최근 3년간 피의자 신분 및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된 직원 현황	
허태열 의원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최근 3년간)	1031
	2. 최근 2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1032
	3. 최근 1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 · 제재를 받은 현황	1062
	4.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 선정 향후 계획	1063
	5.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향후 계획(안)	1064
	6.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1065
	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세부계획	1069
	8. 헤지펀드 정의, 유형, 도입 세부 계획안	1070
	9.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의 유형별 과징금 부과내역	1071
	- 시장별 구분, 상품별 구분, 운영별 구분, 관련 대 상자의 국적별 현황	
	- 최근 1년간 건별 사건개요, 피해내역, 자체인지 및 신고접수 구분	
	10.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에서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07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현경병 의원	1. 2008.10월~2009.8월까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해명보도자료 목록	1077
	2.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93
	3. 내 외부 감사 관련	1107
	- 08.9월 09.8월 내외부 감사 수행내역(완료,진행포함), 감사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 완료된 감사의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보고서(담당기관 및 수행장 연락처 포함)	
	4.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1137
	5. 직원 징계 현황 관련	1143
홍영표 의원	6. 임직원 민형사 처벌 관련	1144
	- 임직원 민형사 처벌내역(처벌일,처벌받은 임직원, 처벌사유 및 내용, 이후 조치사항)	
	-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	
	7.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규모와 실적	1145
	1, 2. 08년, 09년 예산서	1149
	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08년~09년 6월)	1150
	4.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포함)등 각종 감사 결과 보고서	1151
	5. 소속 직원 징계현황	1248
	6. 비정규직 고용현황	1249
	7. 과장급 이상 퇴직자 현황	1251
	8.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1252
	9. 금융기관별 DDos 관련 금융기관 피해현황	1255
	10. DDos 등 유사 사례발생에 대비한 위원회의 대응 방안	1255
	11-1.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자격증명, 보유자, 응시자, 합격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256
	11-2.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	1257
	11-3.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자격증명, 보유자, 응시자, 합격자)	1258
	11-4.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자격증별 보유자, 합격자, 응시자)	126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12. 금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단기, 장기대책 구분)	1262
	1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금융회사별(보험사 등 포함) 출연금액 변동 현황 - 2008. 최초 출연일 기준, 2009. 최초 출연일로부터 1년뒤 기준, 2009.9월 25일 기준	1263



# 이 성 헌 의원



1. 기 제출한 금융위 문서수발대장에 형광펜으로 표기한 문서의 사본과 그 첨부서류 일체(제출시 문서수발대장 첨부)
2. 8월과 최근일까지의 금융위 각 실국별 문서수발대장 일체(출력해서 제출요망)
3. 금융위원장이 결제한 문서 목록

☐ 별도 제출

#### 4. 금융위내 공무원 등의 동호인회 현황 및 지원내역

##### 1) 금융위내 공무원 등의 동호인회 현황 및 지원내역

명칭	회장	활동실적	지원내역	비고
금융위원회 축구동호회	사무처장	상·하반기 중앙부처 축구대회 참가	해당사항 없음	

## 5. 국내 생보사의 상장 추진현황

- 생보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개정('07.4.27)된 이후 상장을 추진
- 그러나, 생보사의 상장 여부 및 시기는 개별 생보사가 회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 최근 동양생명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10월중으로 상장이 완료될 예정
  - 다른 생보사들의 구체적인 상장추진 움직임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6.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에 대한 금융위의 견해

-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은행법(§8)에서 정한 은행업 인가기준 등에 적합해야함
  - (인가기준 등)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제한(없음 → 1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고정여신 6개월이상 연체 → 3개월이상, FLC 도입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정상 0.5% → 0.7% 등), 최소 BIS자기자본비율(5%→8%), 자본금요건(40~ 120억원 → 최소 250억원) 등
- 현재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자본건전성 기준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없음
  - 향후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기 원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본확충, 고객기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7. 휴면예금관리재단 현황 및 사업내역 및 주요실적, 금융위가 보고받은 사업계획서, 결산, 예산서 등

### 1. 휴면예금관리재단 일반 현황

#### ① 설립 및 목적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574호)에 의거 '08.3.27일 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08.4.22 설립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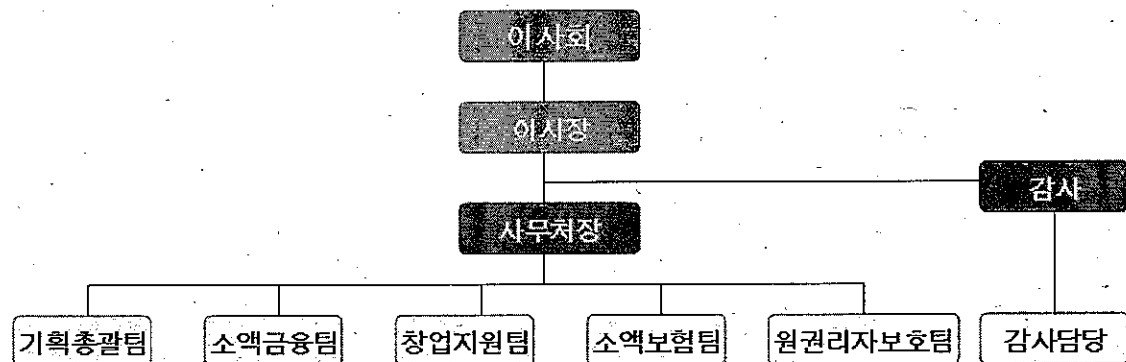
\*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별칭(정관)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

#### ② 조직 구조

-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로 구성
  -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팀으로 구성

<조직도>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직	일반직			
			1급	2급	3급	4~5급
정원	25	1	2	3	4	15

※ 현원 : 17명

### ③ 임원(13명)

- 이사회를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비상근·무보수)
- 이사장(1)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사(11) :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  
금융위 추천 1인, 복지부 추천 2인, 노동부 추천 1인
- 감사(1) : 금융위원회 임명

### ④ 주요 사업

- 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 지급
- ②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사업
  -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 주요사업 실적

☐ 2008년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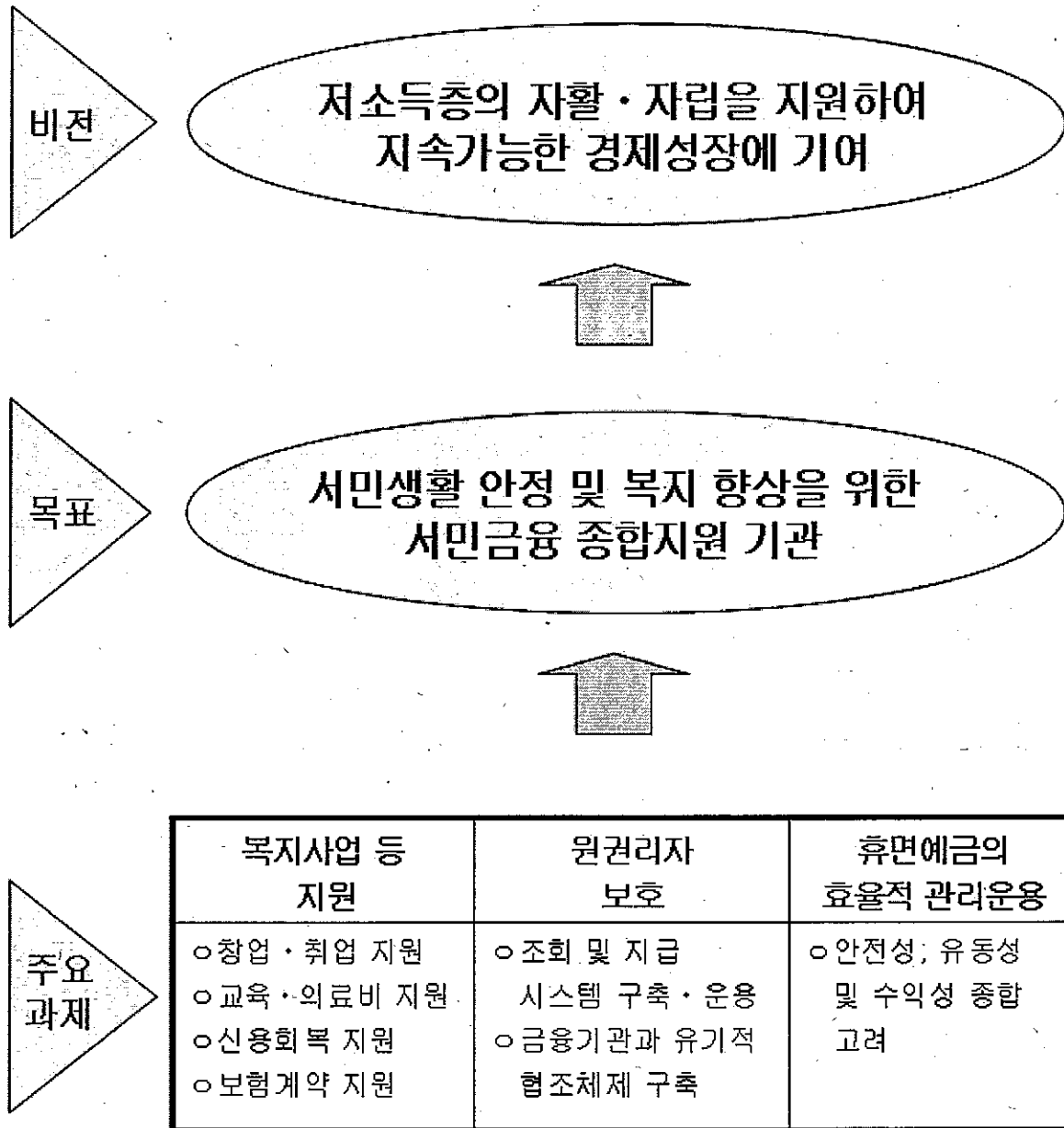
2009년 8월말 기준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대출 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25억원	144명	24.1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6억원	공동체 2개 개인 26명	6억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20억원	11개 기업	15.6억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120억원	4,093명	120억원	
	한미음금융	60억원	60억원	2,594명	60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서울시 14개 자치구 24개 전통시장)	10억원	10억원	408명	10억원	
소액 보험 사업	소계	241억원	241억원	공동체 2개 개인 7,265명 사회적기업 11개	235.7억원	
	13개 보험사	30억원	30억원	총 수혜자 3,323명(빈곤아동 2,005명, 부양자 1,318명 포함)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대출 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해피월드복지재단	5억원	5억원	26명	4.6억원	
	소상공인진흥원	40억원	20억원	78명	14.7억원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억원	5억원	14명	4.1억원	
	신용회복위원회	90억원	90억원	2,894명	89.9억원	
	열매나눔재단	5억원	5억원	6개 기업	5억원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10억원	5억원	1개 기업	1억원	
	민생포럼	10억원	5억원	2개 기업	0.7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90억원	19.5억원	-	-	
소액 보험 사업	소계	260억원	154.5억원	개인 3,012명 사회적기업 9개	120억원	
	보험사	40억원	-	16개 광역시도와 협약 체결 완료 9월말까지 수혜자와 보험계약 체결 예정		

### 3. 소액서민금융재단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1. 사업 목표 및 비전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기반

## 2. 사업추진 기본 방향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 (사업의 투명성 확보) 복지사업자 모집·선정·지원·관리·감독 등 전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 3. 사업추진 방법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출범초기: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범 수준으로 추진
  - 안정·정착기: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추진
  - 사업 확대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사업 위주 추진

#### 4. 복지사업자 지원 사업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먼에금관리재단)				
사업내용	창업·취업 지원자금 신용대출	교육·의료비 등 생활자금 신용대출	금융채무 불이행자 경제적 회생 지원	마이크로 인슈런스 *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복지사업자	대안금융기관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대행창구로 활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등	보험회사
수혜대상	소득기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30만원 미만 (취약계층) 신용기준 : 신용등급 7~10등급 (금융채무불이행자 포함)			

- 복지사업자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과 신용등급(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을 기준으로 설정
  - \* 개념상 저신용계층과 저소득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의 규모가 공히 700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가.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 □ 사업목적

-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

### □ 운용방향

- 창업지원은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활용
  -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창업을 극대화하고 원금 훼손을 최소화
- 취업지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 저소득층이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중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생활자금지원과 연계)

### □ 지원 방식

- 활동 중인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과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
  -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시 보건복지가족부(창업지원), 노동부(취업지원)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첨부하여 지원



## ☐ 지원 규모

-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 다만, 복지사업자별 지원 수준은 개별 복지사업자가 신규 인력·조직의 확대 없이 운용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 창업·취업자금 이외의 복지사업자 자체의 인건비·운영비 별도 무상지원은 배제

## ☐ 지원 금리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동 재원에 수수료(운영비)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 \* 현재 복지사업자(NGO형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6% 이내 수준

## 나.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 ☐ 사업목적

-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자 흡수

### ☐ 운용방향

- 서민금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여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
- 대행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병행

### ☐ 지원 방식

-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전문성을 지닌 서민금융기관을 재단의 지원 자금 대출창구로 활용 추진 계획임

## 다. 신용회복 중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

### □ 사업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

### □ 운용방향

- 신용회복 지원자의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5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재조정 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 □ 지원 규모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소액으로 한정
- 창업 지원은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되 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 지원 금리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
-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책정

## 라.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 사업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 운용방향

- 보험회사가 재단의 수혜대상자 중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Microinsurance)을 개발하여 사업지원 신청 → 재단은 사업 타당성 심사 후 재원을 배분

\*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생아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보육원, 장애인복지단체 등 법인·단체 포함

## □ 지원규모

- 보험권 출연액(기부금 포함)의 이자 수준을 한도\*로 보험회사별 출연실적과 연계하여 배분하고 휴면예금과 구분 처리

\*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신용대출사업과 달리 자금의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 지원방식(가입자 보험료 대납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원금보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

## 5. 원권리자 보호 사업

☐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의 신속·편의성 추구

☐ 휴면예금 지급의 원활화 중점

- 휴면예금 출연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휴면 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출연되기 전·후의 휴면예금을 동시에 일괄 조회토록하여 편의성 제고
- 원권리자 지급요청 시 해당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지급 절차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기관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 금융기관이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주거래은행)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상당액 이체

## 6. 정보화 사업

☐ 복지사업자 지원·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원권리자 보호 증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 (1단계) 출범초기에는 기본적인 재단 관리업무 및 원권리자를 위한 지급업무 등에 필수적인 시스템만 구축하여 운용(2008년)
- (2단계) 복지사업자 및 수혜자의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재단과 복지사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중복지급에 대한 배제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2009년도 이후)

## 7.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예산 내역

###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은행출연금	140,000,000	
보험출연금	60,000,000	
계	200,000,000	

### 2. 지출예산

####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재단사업비	21,000,000	
(은행사업비)	(18,000,000)	
(보험사업비)	(3,000,000)	
재단운영비*	1,991,766	
(자산취득비)	89,000	
(인건비)	922,604	
(일반관리비)	885,316	
(예비비)	94,846	
계	22,991,766	

\*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총당  
(은행 13.9억원, 보험 6.0억원)

## 4. 소액서민금융재단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1. 2009년도 사업계획안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원권리자 보호 강화에도 충실

#### (1)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2009년도 사업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계 획)
	(계 획)	실적	
소액금융	250	241	400
소액보험	30	30	40
합계	280	271	440

##### ①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
- 창업·취업 분야의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

##### ②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 사업지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유망기업이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선·강화

##### ③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복지사업자가 수행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 소액금융 수혜 대상자의 범위 확대

#### ④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광역자치제로의 사업 확대 추진

#### ⑤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 지원금의 증액을 통한 소액보험 사업의 확대
-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한 최적의 수혜자 그룹 선정
- 수혜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험 상품을 개선

### (2)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소액금융사업비에 대해 적정규모\*로 통제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의 안정적 지급을 도모

\* 휴면예금 가용재원의 25% 이내로 사업규모를 제한

- 출연지급정보 등 관련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통합 업무 지원 및 복지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 II. 2009년도 예산안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축 편성
  - 급여 및 제수당은 동결(단, 직원 급여는 호봉승급수준(2%) 반영)
  - 일반관리비도 4% 수준 삭감 등

### <수입 및 지출>

수입(백만원)		지출(백만원)	
기본재산 전입금	40,000	재단사업비	44,000
이자수입	7,597	공사운영비	40,000
은행출연금 이자수익	2,770	기금관리비용	4,000
보험출연금 이자수익	4,827	재단운영비	3,597
수익총계	47,597	비용총계	47,597

## < 붙임 2 > '09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예산 내역

###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비 고
기본재산 전입금	기본재산 전입금	은행출연금 전입금	40,000,000	소액금융사업비
이자수입	이자수입	은행출연금 이자수입	2,822,206	재단운영비
		보험출연금 이자수입	4,842,996	소액보험사업비 : 4,000,000 재단운영비: 842,996
계			47,665,202	

### 2.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9년도 예산액	'08년도 12개월 환산예산액 ( '08년도 예산액 )	증감액	증감율(%)
재단사업비	44,000,000	28,000,000	16,000,000	57.1
소액금융사업비	40,000,000	25,000,000	15,000,000	60.0
소액보험사업비	4,000,000	3,000,000	1,000,000	33.3
재단운영비*	3,665,202	3,997,815 (1,991,766**)	△332,613 (1,673,436)	△8.3 (84.0)
자산취득비	832,525	1,059,200 (89,000)	△226,675 (743,525)	△21.4 (835.4)
인건비	1,235,757	1,171,139 (874,904)	64,618 (360,853)	5.5 (41.2)
일반관리비	1,512,219	1,577,104 (933,016)	△64,885 (579,203)	△4.1 (62.1)
예비비	71,867	190,372 (94,846)	△118,505 (△22,979)	△62.2 (△24.2)
퇴직급여충당금	12,834	-	12,834	-
계	47,665,202	31,997,815 (29,991,766)	15,667,387 (17,673,436)	48.9 (58.9)

\* '08년도 예산은 재단출범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예산임.

\*\* '08년 1월 ~4월까지 집행된 전산장비구입비 970,200천원과 전산업무개발비 242,000천원 포함



## 8. COS, CDO 등 각 금융회사별 투자내역 및 투자결과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07년 3월말		08년 3월말		09년 3월말	
	보장매도	보장매입	보장매도	보장매입	보장매도	보장매입
CDS			199	214	1,590	684
TRS						
CLN			9	628	14	966
합성CDO						
기타						
합계			208	841	1,604	1,649
총계 (매도+매입)			1,049		3,253	

주) 집계 대상은 CDS(Credit Default Swap ; 신용부도스왑), TRS(Total Return Swap ; 총수익스왑), CLN(Credit Linked Note ; 신용연계채권),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및 기타(Credit Linked Deposit ; 신용연계예금 등)

## 9.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 별첨 참조

(별첨)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정완규	1.13~19	뉴욕, LA	Global Public Policy Symposium 참가	3,511
이승우 변영한	2.7~14	뉴욕, 워싱턴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미국 워싱턴)'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11,569
이종화	3.25~29	캐나다	'제 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2,682
이종화	4.1~4.4	인도 뉴델리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1,768
김정률	4.7~13	노르웨이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3,126
전광우 김주현 이현철 오화세	4.15~4.21	뉴욕, 워싱턴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16,874
윤상기	4.23~26	싱가포르	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1,331
이종화	5.5~5.15	제네바, 브뤼셀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3,949
전광우 홍영만 이현철 이명순 이수영 빈현준 장인선	5.25~5.30	프랑스 파리, 영국런던,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42,615
임승태	5.26~29	북경	ADB 워크샵 참석	1,453
이명호	5.27~30	베이징, 칭다오	방중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1,457
김용환 손성은	6.1~5	영국 런던	한·영 미래포럼 참석	8,547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집행액
전광우 유재훈 이현철 고상범 오화세 김태훈	6.12~13	베이징, 상하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8,293
임승태	6.17~6.22	뉴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2,447
박재훈	6.17~22	샌프란 시스코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3,268
이종구	6.18~6.22	런던, 프랑크 푸르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여비 지급	1,988
유재훈	6.25~29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3,142
이종화	6.27~6.29	홍콩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참석	2,994
오화세	7.29~7.31	뉴델리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1,768
김건영	8.23~8.30	호주, 싱가폴, 홍콩	주요국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노력 현지조사	4,116
김현수	8.24~9.2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4,205
전태원	8.25~9.1	핀란드, 스웨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3,059
오유정	8.28~9.5	홍콩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3,147
김선문	8.30~9.7	영국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3,857
홍영만 최유삼	9.15~19	스페인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9,495
김성조	9.20~27	남아공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1,177
권혁세	9.24~26	홍콩	CLSA 홍콩 Investors'forum에 참석	935
최윤정	9.28~10.5	일본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기관 과정 참가	141
이종구 주홍민	10.13~19	헝가리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13,883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진웅섭	10.13~25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10,319
박재훈	10.20~22	동경, 홍콩	한국경제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	2,843
유재훈 조충행 이명호	10.21~22	북경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3,703
전광우 이현철 고상범 신재형	10.22	중국 베이징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6,293
이창용 이동훈 오화세	10.23~25	싱가폴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개최 참석	7,549
전광우 홍영만 최유삼 고상범	10.31~11.1	발리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8,220
이창용 최훈 오화세	11.2~6	뉴욕 보스톤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13,668
김동환	11.10~13	북경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의 참 석	1,581
이호형	11.10~15	파리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3,533
목정민	11.13~21	런던	Glo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4,057
전광우 최훈 이명순 이수영 오화세 신재형	11.16~20	뉴욕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의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20,508
이종구 이현철	11.16~19	런던	한국경제-IR 참석	11,194
김주현	11.25~26	동경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워크샵 참석	1,779
이종구 박영춘 오화세	12.1~3	홍콩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7,021
이현철	12.14~16	홍콩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1,506
김동환	12.15~19	비엔나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담 참석	2,994

# □ 2009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조인강	1.15~17	동경	제4차 고위공무원정책과정 참석	143
이창용	1.28~2.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포럼) 참석	6,692
김동환	2.16 부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부임에 따른 여비	4,933
박진애	2.27~3.2	도쿄	제10차 동경 라운드테이블 참가	2,073
이종구, 신재형	3.11~21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설명회 참석	14,547
이창용, 신현준, 오화세	3.11~15	런던	영국 IR 참석	10,739
전수한	3.10~11	동경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552
이창용 신현준 류근하	3.24~26	홍콩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가	5,673
이종석	4.26~5.3	런던	런던집합연수 참석	4,054
임승태, 서재홍	4.27~5.4	산티아고	세계저축은행 총회 참석	16,283
김선문	4.25~5.1	바젤	국제회계감독기구 6차 정기회의	3,503
김종훈	4.26~5.3	런던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4,048
김승민	5.6~8	싱가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연차총회참석	1,769
김건영	5.10~16	페루	한-페루 FTA 협상	3,259
신현준	5.17~21	호주	한-호주 FTA 협상	2,505
김광수 유영준	5.17~5.21	런던	글로벌금융 시스템개혁 상호협력방안 논의	4,459
진선영	5.17~23	파리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3,467
이종구 신현준 김승민	5.25~29	스위스 프랑스 홍콩	FSB 오리엔테이션 및 관계자 면담	16,598
진동수	6.24~27	스위스	매경포럼 및 FSB 창립총회 참가	30,717

김홍식 신현준 김승민 오화세		프랑스 홍콩		
추경호 김태훈	6.29~7.4	프랑크푸르트 파리	선진국 정책금융공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현황 파악	10,979
류근하	6.30~7.02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가	903
송현도	7.6~9	싱가폴	해운시장 동향 파악, 국외 전문가 치문 프로그램 홍보 관련 참가	1,335
이한진	7.7~7.12	브리스번	제12차 APG 연차총회 참석	2,436

## 10. 신보와 기보의 통합논의 내역

- ☐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기재부, '08.10.10)'의 일환으로 신·기보 통합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신·기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있음
- ☐ 향후 경제상황이 호전된 이후 신·기보의 통합논의를 재개할 예정임



## 11. 금융위원회에 접수·이첩되는 민원내역

- ☐ '0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이첩된 민원건수는 총 3,007건
- ☐ 금융위원회에 접수·이첩되는 민원내역 : 별도 첨부

## 금융위원회에 접수·이첩되는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 제목	처리 내용
1	2009-01-05	긴급 !!!!!!!!!!!!!!! 신용보증기금 횡포 탄원서 !	자체종결
2	2009-01-05	신불자 대출 도움 요청	해결
3	2009-01-05	신불 처우에 대하여	해결
4	2009-01-05	저신용등급자 대출방안	해결
5	2009-01-05	도와주세요?	해결
6	2009-01-05	이추운겨울에	해결
7	2009-01-05	4대강정비, 주식시장활성화, 최저임금제 확대, 외교력강화	상담.안내
8	2009-01-05	연대보증기금	상담.안내
9	2009-01-05	은행의 실명 거래 관련 질의	자체종결
10	2009-01-05	사업재개로 인한 신용보증보험 가입 등의 제재..	상담.안내
11	2009-01-05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한다	상담.안내
12	2009-01-05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개인금융 지원 방법은 없나요?	해결
13	2009-01-05	신용보증기금 보증 건	상담.안내
14	2009-01-05	서민 은행돈좀 빌려 봅시다	해결
15	2009-01-05	자산관리공사의 통장 압류에 대하여	자체종결
16	2009-01-05	다중 채무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7	2009-01-05	민원인을 기망하여 가압류	상담.안내
18	2009-01-05	부동산 폭락에 대한 대책과 경매주택의 문제와 구제안	상담.안내
19	2009-01-05	저신용등급자 대출방안	해결
20	2009-01-05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1	2009-01-05	압류	상담.안내
22	2009-01-05	서민을 두번 울리지 마세요!	해결
23	2009-01-06	보증인에 대한 상환금액 반복청구에 따른 억울함 호소 **** 대출원금 1300만원- 주채무자와 통화시 800만원만 상환하면 채권소멸하기로했는데 이제와서 보증인에게 이자 금액 전액 포함된 2400만원 변제 요구	자체종결
24	2009-01-06	현금지급기 운용방법 개선	해결
25	2009-01-06	기술신보의 구상권 관리등 신용보증과 관련된 채권은 원금 만100%회수된 경우 잔존채무탕감 규정 완화요구	상담.안내
26	2009-01-06	우리나라 서민들을 위해서..대부업과 여신업체를 불법단체 로 만들어주세요..	상담.안내
27	2009-01-06	국유세 변상금 선처	상담.안내
28	2009-01-06	채무 관계로 고민 하고있습니다	상담.안내
29	2009-01-06	종자 돈 좀 빌려주세요.	상담.안내
30	2009-01-06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31	2009-01-06	경제를 살리려면	상담.안내
32	2009-01-06	창업한지 21년된 한 작은 회사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3	2009-01-06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발행관련	해결
34	2009-01-06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지 처분 관련	상담.안내
35	2009-01-06	새희망네트웍 대출자격 건	해결
36	2009-01-07	원금상환및 이자상환과 급여압류에 대하여	상담.안내
37	2009-01-07	사금융으로 죽고싶은 가정	상담.안내
38	2009-01-07	신용보증기금관련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최준필님 접수 사항의 추가 진행사항	상담.안내
39	2009-01-07	정책제안	상담.안내
40	2009-01-07	기술보증기금 지원 이의	상담.안내
41	2009-01-07	은행비리 관련 청원	자체종결
42	2009-01-07	생활자금에관하여	상담.안내

43	2009-01-07	사금융 너무무서워요	상담.안내
44	2009-01-07	사금융추심 및 사채추심	상담.안내
45	2009-01-07	보급자리론(고정금리변환)호소	상담.안내
46	2009-01-07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지원인지 묻고싶습니다.	상담.안내
47	2009-01-07	산업은행 혁신필요	상담.안내
48	2009-01-07	기초수급자 채무 청구관련 이의	상담.안내
49	2009-01-07	증권 파생상품 (옵션투자 관련하여)	정책제안
50	2009-01-08	우리은행 2조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질의)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51	2009-01-08	변상금	상담.안내
52	2009-01-08	압류해제	상담.안내
53	2009-01-08	채권추심 이의	상담.안내
54	2009-01-08	직장 방문 채무독촉..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5	2009-01-08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문제점	해결
56	2009-01-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57	2009-01-08	서민들에 소액 대출길을 열어주시 기바랍니다	해결
58	2009-01-08	부동산 정책, 대출이자 인하	상담.안내
59	2009-01-08	불쾌한민원해결	자체종결
60	2009-01-08	희망모아 라고 아세요?	상담.안내
61	2009-01-08	파산후 면책자들에게 2중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62	2009-01-08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63	2009-01-08	아파트 공매통지서를받고서	상담.안내
64	2009-01-08	등기부압류금액차등적용	자체종결
65	2009-01-08	신용보증기금의 거짓공문	상담.안내
66	2009-01-08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67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8	2009-01-09	은행대출	상담.안내
69	2009-01-09	은행 장기대출 선처	상담.안내
70	2009-01-0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1	2009-01-09	일반서민위한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율 추가인하 요청 (연 7%대 대출이율을 연5% - 연6%로 인하 요망)	상담.안내
72	2009-01-09	딱 1년 전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해결
73	2009-01-09	값아나가는원금만큼 이자가늘어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4	2009-01-09	은행 신용카드 절도범 잡기	해결
75	2009-01-0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76	2009-01-09	자산관리공사 채권 추심원의 부당한 대우	상담.안내
77	2009-01-09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78	2009-01-09	파산.면책을 받았는데요.	상담.안내
79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횡포에대하여	자체종결
80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횡포에대하여억울함을호소함	자체종결
81	2009-01-09	은행예금주의 진정서	상담.안내
82	2009-01-09	서민 죽이는 조회기록 3년은 넘 길어요?	상담.안내
83	2009-01-09	어음 왜 할인안되며 할인료가 사채 선이자 인가요	해결
84	2009-01-09	경제 파산자 구원 시스템 구성	해결
85	2009-01-09	강만수장관님께 공정거래위원회장님께 보내주세요	상담.안내
86	2009-01-09	2년이상 성실 개인회생 이행자 특수기록 삭제???	상담.안내
87	2009-01-09	불법대출업	상담.안내
88	2009-01-09	압류해제	상담.안내
89	2009-01-09	대책좀세워주세요,,,제발	상담.안내
90	2009-01-09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등 이의	자체종결
91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92	2009-01-11	저의 빚(채무)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꼭 도와 두십시오!!!	상담.안내

93	2009-01-12	신용보증기금보증발행서에관한민원	상담.안내
94	2009-01-12	적십자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95	2009-01-12	독촉장발부	상담.안내
96	2009-01-12	금리격변기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배려 요청.	상담.안내
97	2009-01-12	서민에게는 대출도 안되는 대한민국 내조국!!!	상담.안내
98	2009-01-12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국민에게 올수있도록 법률개정을	상담.안내
99	2009-01-12	기술신용 보증	상담.안내
100	2009-01-12	주택대출 인하	상담.안내
101	2009-01-12	금융소외자 대책	해결
102	2009-01-12	높은 이자של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대책 마련해주세요..	상담.안내
103	2009-01-12	cd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상담.안내
104	2009-01-12	자산관리공사에서하는 환승론 시행언제하는지?	해결
105	2009-01-12	세상이 살벌해 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해결
106	2009-01-12	자금지원에대하여	상담.안내
107	2009-01-12	정부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에 관해	자체종결
108	2009-01-12	부실건설회사 퇴출과 관련해서 임대거주민의 임차비 보호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09	2009-01-12	신용정보조회를 하는것이 정당한 건가요?	상담.안내
110	2009-01-12	사금융 추심관한 신고입니다.	상담.안내
111	2009-01-12	신용보증기금보증발행서에관한민원	상담.안내
112	2009-01-13	기부금에 대한 금융 이체수수료 면제에 관한 의견	해결
113	2009-01-13	한국자산공사 철거명령 관련	상담.안내
114	2009-01-13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살린다고 떠들어도 실무는 아니네요...	자체종결
115	2009-01-13	난 믿었소????	상담.안내
116	2009-01-13	신용 기록 회생등 파산 터무니없는답변	상담.안내
117	2009-01-13	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상담.안내
118	2009-01-13	국민 애로사항건의	해결
119	2009-01-13	1차 부도가 난 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발행어음의 유통 개선점에 대하여...	해결
120	2009-01-13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요망	상담.안내
121	2009-01-13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담당자 이름	상담.안내
122	2009-01-13	보증채무에 대한 규정해석을 임의로 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상담.안내
123	2009-01-13	변상금	상담.안내
124	2009-01-13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5	2009-01-13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6	2009-01-14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12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8	2009-01-14	신협 대출 이율	상담.안내
129	2009-01-14	새로출범한 비상경제상황실에 고함(주택자금대출금리 급상승7.18%→8.4% 실태점검요)	상담.안내
130	2009-01-14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상담.안내
131	2009-01-14	연대보증관련 및 B2B자금 유용	상담.안내
132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3	2009-01-14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e-모기지론' 거처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4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5	2009-01-14	한국자산공사 부채로 인한 가압류 해제 요청	상담.안내
136	2009-01-14	고금리 대부업과 제 2금융권 대출이자 조정에 관한 건	상담.안내
13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8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9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0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1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2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3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4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5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6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8	2009-01-14	신용보증서 발행에대하여...	상담.안내
149	2009-01-14	악덕사채업	상담.안내
150	2009-01-1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추진(제7조의2제9호)	해결
151	2009-01-15	증권 찾기	상담.안내
152	2009-01-15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53	2009-01-15	대출이 너무 힘듭니다	상담.안내
154	2009-01-15	본인도 모르는 신용 불량자 원상복귀..	상담.안내
155	2009-01-15	신용보증 기금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요구	상담.안내
156	2009-01-15	한국자산공사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을 낮추어 주십시	상담.안내
157	2009-01-15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4금융때문에 질문좀...	상담.안내
158	2009-01-15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연체자도 아닙니다. 근대 왜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이나 카드신청이 안될가요	상담.안내
159	2009-01-15	신용보증에대한 소원	상담.안내
160	2009-01-15	시급한 민생해결 긴급촉구 건의문	자체종결
161	2009-01-15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해결
162	2009-01-15	불법추심(영업방해및심적인불안감과공포로생계유지를방	상담.안내
163	2009-01-15	불법 추심(너무나 불안해 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164	2009-01-16	채용시 이력서에 관해	상담.안내
165	2009-01-16	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인하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166	2009-01-16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지원	자체종결
167	2009-01-16	고금리	해결
168	2009-01-16	창업지원	상담.안내
169	2009-01-16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70	2009-01-16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中 보증확대 비상조치 시행 시기에 관하여	상담.안내
171	2009-01-16	사채 동결 해 주세요	상담.안내
172	2009-01-16	은행 이자 내기 넘힘드네요...	상담.안내
173	2009-01-1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처럼 동일 조건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담.안내
174	2009-01-16	은행 이자는 왜 꿈쩍도 안하고 오르기만 하나요?	상담.안내
175	2009-01-16	하나은행의 고객에 대한 참담함	자체종결
176	2009-01-16	모기지 대출금리	상담.안내
177	2009-01-16	채무사실 3자 불법고지	상담.안내
178	2009-01-18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섭고 겁나요..ㅠㅠ	상담.안내
179	2009-01-18	불법추심으로고통받고있어요	상담.안내
180	2009-01-19	독촉에 의한 시달림(두려움)	상담.안내
181	2009-01-19	신용불량등제에 관한 행위진정	상담.안내
182	2009-01-19	통장거래내용유출건	상담.안내
183	2009-01-19	은행대출금리	해결
184	2009-01-19	씨앤브이 채무관련	상담.안내
185	2009-01-19	중소기업 애로사항	자체종결
186	2009-01-19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겠습니다	상담.안내
187	2009-01-19	대출방법을바꿔보십이어떨지요	상담.안내
188	2009-01-19	법령에 대한 용어 해석 및 근거 법	상담.안내

189	2009-01-19	(주)빅스유니언의 익명조합원 모집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상담.안내
190	2009-01-19	대통령님을 모시는 분들께....	상담.안내
191	2009-01-19	실질적중소기업(개인)보호기관필요	자체종결
192	2009-01-19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자체종결
193	2009-01-19	서민대출의 사각지대	해결
194	2009-01-19	사각지대의 정책소실과 명분의 허와실	해결
195	2009-01-19	구제금융의 허와실	해결
196	2009-01-19	정말 급박합니다.	상담.안내
197	2009-01-19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해결
198	2009-01-19	사금융 대출 사기 피해 건입니다..	해결
199	2009-01-19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은 형평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담.안내
200	2009-01-19	SK케피탈 신고합니다.ㅠㅠ	상담.안내
201	2009-01-20	압류이의	상담.안내
202	2009-01-20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203	2009-01-20	연체이자계산시 남아있는 원리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담.안내
204	2009-01-20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허용안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05	2009-01-20	부친의 채무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	상담.안내
206	2009-01-20	신분을회복시켜주세요	상담.안내
207	2009-01-20	저리 금융대출 도움 요청	상담.안내
208	2009-01-20	중소기업 자금 대출 및 가계대출금 저리 전환에 대한 정책	해결
209	2009-01-20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고발	자체종결
210	2009-01-20	'패스트트랙' 평가 B등급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지원 거부에 대한 사항	상담.안내
211	2009-01-20	신용보증기금 대출 연장 요청	상담.안내
212	2009-01-20	주택담보대출이자언제쯤 내려갈까?	해결
213	2009-01-20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체종결
214	2009-01-20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에 관한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15	2009-01-21	대한민국의 대통령 의지를 꺾는 작은 공직자의 한마디...	자체종결
216	2009-01-21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희롱당한 일.	자체종결
217	2009-01-21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18	2009-01-21	금융권 대출관련 신용정보조회 에 관해서	상담.안내
219	2009-01-21	은행에선 대출금리를 안내려요..	해결
220	2009-01-21	사채의 고금리가 ..1년간 모든채무를 유예해 주세요	상담.안내
221	2009-01-21	카드론 상환연장	해결
222	2009-01-21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불법 채권추심	상담.안내
223	2009-01-21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224	2009-01-21	은행채무 탕감	상담.안내
225	2009-01-21	1AA-0811-036160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입니다.	자체종결
226	2009-01-22	모기지론	상담.안내
227	2009-01-22	신용위원회 신용회복 후 이력관리에 대하여~~	상담.안내
228	2009-01-22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 건의	상담.안내
229	2009-01-22	금융소외자 대책	해결
230	2009-01-22	정부의 자금 지원책 문제 있다	상담.안내
231	2009-01-22	대출 상담입니다.	상담.안내
232	2009-01-22	중소기업 지원금 에관하여	자체종결
233	2009-01-22	현장의 소리	자체종결
234	2009-01-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담.안내

235	2009-01-22	채무자를 기망한 자산관리공사와 소극적인 민원처리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만	상담.안내
236	2009-01-22	채무해결 호소	상담.안내
237	2009-01-23	보증확대 비상조치..문제 있습니다..	상담.안내
238	2009-01-23	재민원]	상담.안내
239	2009-01-23	새롭게 일어 나고 싶습니다. 도와 줄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0	2009-01-23	정말로 실체가 있는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상담.안내
241	2009-01-23	신용회복의 기회를 앞당겨 주십시오.(간절한마음으로부터드립니다)	상담.안내
242	2009-01-23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지원금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자체종결
243	2009-01-23	운영자금 대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체종결
244	2009-01-23	민간어린이집은 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제한하는가요	상담.안내
245	2009-01-23	절박한 생계대책 ?	상담.안내
246	2009-01-23	청년창업대출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7	2009-01-23	청년창업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8	2009-01-23	청년창업대출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9	2009-01-23	애들과살수있게확인해보시고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50	2009-01-23	은행이 국가의 금리정책에 너무 역행하고 있습니다.	해결
251	2009-01-28	금융계좌 통보 안내	상담.안내
252	2009-01-28	말뿐인 특채신용보증(설날자금)	자체종결
253	2009-01-28	보증제도의 일선에서의 문제점 해결 요청	자체종결
254	2009-01-28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255	2009-01-28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	상담.안내
256	2009-01-28	기업지원	상담.안내
257	2009-01-28	독촉전화로 너무 힘들어요...	상담.안내
258	2009-01-28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259	2009-01-28	한국 자산관리공사 채무에 관하여	상담.안내
260	2009-01-28	군대 입대에 따른 빚문제입니다.	해결
261	2009-01-28	이상합니다	해결
262	2009-01-28	불공정 행위 신고	상담.안내
263	2009-01-28	금융의견	해결
264	2009-01-28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상담.안내
265	2009-01-29	도와주세요~급합니다	상담.안내
266	2009-01-29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요청	상담.안내
267	2009-01-29	빚보증때문에	상담.안내
268	2009-01-29	경매,,,,,	상담.안내
269	2009-01-29	전화내용	상담.안내
270	2009-01-29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1, 2 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상담.안내
271	2009-01-29	자동차 처리건	상담.안내
272	2009-01-29	우경순씨의 민원 제기에 대한 담당 설계사의 억울함 호소	상담.안내
273	2009-01-29	한국자산공사	해결
274	2009-01-29	한국자산공사	해결
275	2009-01-29	가압류해제	상담.안내
276	2009-01-29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상담.안내
277	2009-01-29	중소기업 구제	자체종결
278	2009-01-29	도와주세요...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79	2009-01-29	전국버스조합, 금리, 국가지원, 국방부 행정컴퓨터 오류	해결
280	2009-01-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예고관련 탄원서 제출	해결
281	2009-01-29	등기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담보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는 폐지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282	2009-01-30	피를 말리는 불법추심..정말 죽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83	2009-01-30	불법 추심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네요	상담.안내
284	2009-01-30	중소기업을 올리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85	2009-01-30	힘없는 기업을 올리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86	2009-01-30	답답합니다	상담.안내
287	2009-01-30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애로	자체종결
288	2009-01-30	국민들 피를 빠는 은행계열 파이낸셜사 정리제안	상담.안내
289	2009-01-30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290	2009-01-30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거부에 대한 요청 사항	상담.안내
291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2	2009-01-30	보증서 대출 원금상환후 가압류 해지 요구시 원금상환 추가	자체종결
293	2009-01-30	도와 주세요	상담.안내
294	2009-01-30	설명절 전후 국민여론 동향보고 및 대책제안	상담.안내
295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6	2009-01-30	도움주세요	상담.안내
297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8	2009-01-30	실명확인증표 복사 규정 제공 요청	해결
299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공사자금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300	2009-01-30	역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상담.안내
301	2009-01-30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보증제도	자체종결
302	2009-01-30	파산면책후 예금보험공사의 미등재 부채에 대한 부당한 추	상담.안내
303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4	2009-01-31	협박와 욕설..잦은 전화문자로 업무방해, 공포심유발로.죽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305	2009-01-31	금융소외자 지원	해결
306	2009-01-31	퇴출된 대주건설(시행사-지에스)에 건축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307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8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9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0	2009-02-02	퇴출된 대주건설 수분양자의 호소	상담.안내
311	2009-02-02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상담.안내
312	2009-02-02	신용불량제도 없애주시고 부도난 아파트 정비해서 좋은조건으로 분양해주세요	상담.안내
313	2009-02-02	과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당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	상담.안내
314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5	2009-02-02	산업은행은 공세피오래현장(대주건설, 지에스건설)에 대출을 중지해 주세요	상담.안내
316	2009-02-02	한국주택금융공사마케팅	상담.안내
317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8	2009-02-02	답답	상담.안내
319	2009-02-02	법령및 기타질의	해결
320	2009-02-02	현금지급기개선	해결
321	2009-02-02	유동성자금 긴급지원요청을 위한 호소문	상담.안내



322	2009-02-02	신용불량조기회복건	상담.안내
323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건설사인 대주건설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4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5	2009-02-02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처분 이의	상담.안내
326	2009-02-02	개인의견(용산 철거민 화재 등)	해결
327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8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9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0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1	2009-02-02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불공정 편파 심사 자금거절당하여 심각한 경영위기 당함	상담.안내
332	2009-02-02	제 민원은 반드시 산업은행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333	2009-02-02	정부 퇴출건설기업인 대주건설 자금지원 중단요구	상담.안내
334	2009-02-02	자식들을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35	2009-02-02	페스트 트럭	상담.안내
336	2009-02-02	정리금융공사 관련	상담.안내
337	2009-02-03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8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39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40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41	2009-02-03	정책에 어긋나는 일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은행, 부당한 유동성자금 심사거절당함	상담.안내
342	2009-02-0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자체종결
343	2009-02-03	생활을 못할정도로 불법추심행위를 받고 있습니다.살려주	상담.안내
344	2009-02-03	사문서 도용 및 대부업체 불법 독촉행위	상담.안내
345	2009-02-03	공기업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입니다	상담.안내
346	2009-02-03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체종결
347	2009-02-03	대출상담	자체종결
348	2009-02-03	중소기업 지원 자금 받을수 없나요..	자체종결
349	2009-02-03	보증인이 변제해야할 원금 및 부당한 이자.	상담.안내
350	2009-02-03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안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51	2009-02-03	신용보증 기금의 문제점	자체종결
352	2009-02-03	절실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353	2009-02-03	역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ㅠㅠ	상담.안내
354	2009-02-03	대출하기가 힘듭니다.	상담.안내
355	2009-02-03	보험합의금지급	상담.안내
356	2009-02-04	사기및 욕설	상담.안내
357	2009-02-04	기술보증기금의 불공정한 심사절차과 방식으로 부당한 유동성자금 지원거절당하여 심각한 경영악화위기	상담.안내
358	2009-02-04	영세중소기업 보증확대	자체종결
359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아파트 계약자의 재산을 지켜주세	상담.안내
360	2009-02-04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한금의 문제점	상담.안내
361	2009-02-04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62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63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아파트 계약자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상담.안내
364	2009-02-04	서민금융 지원건	해결
365	2009-02-04	환승론규제완화부탁말씀	해결
366	2009-02-04	자산 관리공사	해결
367	2009-02-04	면책에 따른 문의	자체종결
368	2009-02-05	누굴위한 환승인가.....	해결
369	2009-02-05	채무건	상담.안내
370	2009-02-05	주택금융공사 업무 태만건	상담.안내
371	2009-02-05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채권 포기하기로 했으나 계속 채권추심.	상담.안내
372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3	2009-02-05	패스트 트랙	상담.안내
374	2009-02-05	담보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구제 요청	상담.안내
375	2009-02-05	사채권 피해호소 및 장기저리금융 알선 요청	상담.안내
376	2009-02-05	신보대출	상담.안내
377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8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9	2009-02-05	신용보증기금 추가 보증서 신청건	자체종결
380	2009-02-05	호소문	상담.안내
381	2009-02-05	연대보증채무 관련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호소	상담.안내
382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3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4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5	2009-02-05	부동산매매	상담.안내
386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7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8	2009-02-05	전세대금 대출	상담.안내
389	2009-02-06	장기연체등재삭제	상담.안내
390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1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2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3	2009-02-06	업무범위 및 업무위탁 확대에 관하여	해결
394	2009-02-06	무단신용조회기록내용확인.삭제 거부	상담.안내
395	2009-02-06	은행권 대출 관계 건.	상담.안내
396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7	2009-02-06	1000 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재조정건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398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9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0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1	2009-02-06	월세를 사는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십	상담.안내
402	2009-02-06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자격 심사에 대한 문의	자체종결
403	2009-02-06	신용보증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체종결
404	2009-02-06	개인회생진행자는 소상공위원회에서 대출을 못받는지요	상담.안내
405	2009-02-06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도움안되서 안타깝습니다.	자체종결
406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7	2009-02-06	청와대에 드리는 진정서	상담.안내
408	2009-02-06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상담.안내
409	2009-02-06	대부업 불법추심	상담.안내
410	2009-02-06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채무변제 방법	해결
411	2009-02-06	면책받았는데 계속 불법추심을 합니다.	상담.안내
412	2009-02-06	금융의견	상담.안내
413	2009-02-07	불법 추심에 관한건	상담.안내
414	2009-02-07	자통법 시행에 따른 주식매대워탁업에 대한 세부세칙 시행 여부....	상담.안내
415	2009-02-09	금융거래불량자 등록된 건에 대하여 민원드립니다.	상담.안내
416	2009-02-09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417	2009-02-09	신용회복위원회의 미흡한 민원처리 과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418	2009-02-09	제발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의 아파트 공사를 막아주세	상담.안내
419	2009-02-09	농신보 대출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데도 담보제 공하게 만들어 전제산 압류당함	상담.안내
420	2009-02-09	앞서 보낸 민원 내용에 연관된 1차 민원내용	상담.안내
421	2009-02-09	투기지역해제,역전세대출	상담.안내
422	2009-02-09	불용물품중 관악기에 대한 입찰 정보 및 구매방법	상담.안내
423	2009-02-09	유체동산압류통지서 당분간 보류해 주십시오.	자체종결
424	2009-02-09	3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합니다.	해결
425	2009-02-09	기민원 관련(1BA-0902-001925)	해결
426	2009-02-09	신용보증기금 지원 요청	자체종결
427	2009-02-09	장애인의 신용불량...	상담.안내
428	2009-02-09	저희 외할머니의 집을 찾아주세요..	상담.안내
429	2009-02-09	신보의 고자세 방법좀 내주세요 제발...	자체종결
430	2009-02-09	부당해고 구제신청및 인권회복 탄원서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431	2009-02-09	신용회복기금전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결
432	2009-02-09	97년 당시 금모으기 운동 최초 제안자에 대해 제보합니다.	상담.안내
433	2009-02-09	특건미가입	정책제안
434	2009-02-09	파산,면책결정후 전산기록상 연대보증인 해제를 정중히 당 부드립니다.	상담.안내
435	2009-02-09	집 담보 대출 때문에 자살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436	2009-02-10	이 나라 국민이 할수있고 권익을 찾을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상담.안내
437	2009-02-10	퇴출기업 대주건설의 마지막 부실 졸작 아파트란 꼬리표를 평생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438	2009-02-10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수분양자들을 살려주십시	상담.안내
439	2009-02-10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	상담.안내
440	2009-02-10	정부시행 환승론에 대한 문제점	해결
441	2009-02-10	신용보증기금 대출 불가 정책에 대한 청원	상담.안내
442	2009-02-10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	상담.안내
443	2009-02-10	면책 후 지원제도	상담.안내
444	2009-02-10	이거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나요?	상담.안내
445	2009-02-10	π π	상담.안내

446	2009-02-10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	정책제안
447	2009-02-11	신용카드 미가맹식당 관련	해결
448	2009-02-11	현실은 더 힘들어요	해결
449	2009-02-11	익스프레스에서...	상담.안내
450	2009-02-1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애로사항	상담.안내
451	2009-02-11	금융소외자 대한 문의	해결
452	2009-02-11	창업자금 대출 호소	상담.안내
453	2009-02-11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급애로사항	상담.안내
454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5	2009-02-11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56	2009-02-11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창구에서 날선칼을 휘두르다니	상담.안내
457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8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9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60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61	2009-02-11	산업은행의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말려주세요!!!	상담.안내
462	2009-02-11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자체종결
463	2009-02-11	신용보증기금이라는곳이 이렇게해도 되나요?	상담.안내
464	2009-02-11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자체종결
465	2009-02-11	신용회복 도움요청	상담.안내
466	2009-02-11	신용회복	해결
467	2009-02-11	불법추심에 대해	상담.안내
468	2009-02-12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옵니다 넘 힘들어요	상담.안내
469	2009-02-12	파산 면책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등록 및 채권추심.	상담.안내
470	2009-02-12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71	2009-02-1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72	2009-02-12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상담.안내
473	2009-02-12	대출금리에 대한문의.	해결
474	2009-02-12	국무총리실에 드리는 진정서	상담.안내
475	2009-02-12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76	2009-02-12	혹 여기서도 알수 있나요?	상담.안내
477	2009-02-12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소관)	해결
478	2009-02-12	정부투자기관의 횡포로	상담.안내
479	2009-02-12	신용조회 기록 삭제	상담.안내
480	2009-02-12	개인 신용관련 담당자 분께...	상담.안내
481	2009-02-12	상각분납을 하고자 허위사실을 알린점에대한 도움요청입니	상담.안내
482	2009-02-12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483	2009-02-12	게임제조 수출 자금 부탁해요.	상담.안내
484	2009-02-12	중소기업고객고사시키는신용보증기금직원을고발합니다	상담.안내
485	2009-02-12	동양케피탈 가압류해재권	상담.안내
486	2009-02-12	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건의	해결
487	2009-02-12	주택담보대출금리 관련 구제방법없나요...	해결
488	2009-02-12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 호소	상담.안내
489	2009-02-12	과도한 채권추심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490	2009-02-12	2007년6월 300만원대출후 또다른분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 법인가여?	상담.안내
491	2009-02-13	독과점 주주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자체종결
492	2009-02-13	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의 개선 검토 요청 의 건	자체종결
493	2009-02-13	기준금리인하	해결
494	2009-02-13	금융관련 서비스업인데 금융업이라고 보증서 발급이 안됨	상담.안내
495	2009-02-13	프리보드를 활성화해서 경기부양을..(코스닥처럼..)	상담.안내
496	2009-02-13	협박전화	상담.안내
497	2009-02-13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대출	상담.안내
498	2009-02-13	살기좋은세상	상담.안내
499	2009-02-13	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	자체종결
500	2009-02-13	속도전이 맞는가?	상담.안내
501	2009-02-13	서민 긴급자금 지원제도, 경매집행, 근로감독관, 신불자 소 액대출	해결
502	2009-02-13	보증서나 은행대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503	2009-02-13	자산공사 민원건	상담.안내
504	2009-02-13	소상공인좀살려주세요	자체종결
505	2009-02-13	용자 보증심사 기준에 대하여	자체종결
506	2009-02-13	신용회복관련..	상담.안내
507	2009-02-13	경매진행 선처요망	상담.안내
508	2009-02-13	국가신용회복,...채무상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509	2009-02-13	한 가정의 하소연	상담.안내
510	2009-02-13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상담.안내
511	2009-02-13	산업은행의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갈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말려주세요!!!	상담.안내
512	2009-02-14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513	2009-02-14	심장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께 찾아와서 행패부림.	상담.안내
514	2009-02-14	금융자격증 시험에 관하여...	정책제안
515	2009-02-16	제3자 불법추심	상담.안내
516	2009-02-16	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체종결
517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황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18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황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19	2009-02-16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당성	해결
520	2009-02-16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불이익 규제 조항 에 대하여	상담.안내
521	2009-02-16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522	2009-02-16	유사수신 관련 질의	해결
523	2009-02-16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상담.안내
524	2009-02-16	농신보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525	2009-02-16	부정 채권 추심	상담.안내
526	2009-02-16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주세요	상담.안내
527	2009-02-16	환승론(자산관리공사)의 혜택에서 소외	해결
528	2009-02-16	저 좀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529	2009-02-16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상담.안내
530	2009-02-16	퇴출 건설사 대주건설의 용인 공세피오레 아파트 부실공사 현장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531	2009-02-16	중소기업 활성화방법과 기준변경	자체종결
532	2009-02-16	작금의 시중은행의 금리에 대한 정책제안	해결
533	2009-02-16	진정서	해결
534	2009-02-16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돈놀이를 하는가.....	상담.안내
535	2009-02-16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처분 관련	상담.안내
536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황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37	2009-02-16	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코드번호 1201 을 아시나요?	상담.안내
538	2009-02-16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불이익 규제 조항에 대하여	상담.안내
539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체종결
540	2009-02-16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541	2009-02-16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간	자체종결
542	2009-02-16	대출이자 한시적 인하 원함	해결
543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보증거부 호소	상담.안내
544	2009-02-16	신용보증	자체종결
545	2009-02-16	개정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등록 여부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546	2009-02-16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547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관련	상담.안내
548	2009-02-17	허위 자금문서(위조)와 과다중개수수료 및 사기횡령 악덕금융중개업자	자체종결
549	2009-02-17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자체종결
550	2009-02-17	안녕하세요...핸드폰 연체때문에...해결좀빨리해주세요...	상담.안내
551	2009-02-17	대출요망	상담.안내
552	2009-02-17	어떻게 해야 대출가능한지요.	상담.안내
553	2009-02-17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입한 교재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해결
554	2009-02-17	경기활성화 위한 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0.5% 추가 인하	상담.안내
555	2009-02-17	기술보증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	자체종결
556	2009-02-17	수산업협동조합 과 신용보증기금의 변으로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안내
557	2009-02-17	존경하는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558	2009-02-17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자체종결
559	2009-02-17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입한 교재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해결
560	2009-02-17	신용보증기금과의 어이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쓰러져 가는 대창산업을 구제해 주시길 탄원합니다.	상담.안내
561	2009-02-17	중소 기업 특별 지원자금 대출 건.	상담.안내
562	2009-02-17	자산공사 경매 연기 요청	상담.안내
563	2009-02-17	주택담보대출 또는 국민임대주택	상담.안내
564	2009-02-17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정책제안
565	2009-02-17	정부지원 저신용자 고금리 환승론	해결
566	2009-02-18	사채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대상인지	상담.안내
567	2009-02-18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완보증 제도개선 건의	상담.안내
568	2009-02-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569	2009-02-18	국민자산공사의 전환 대출에 관한 무제점	해결
570	2009-02-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제 완화의 요청글	자체종결
571	2009-02-18	기술보증기금보다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72	2009-02-18	은행신용의 잣대 (대통령께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안내
573	2009-02-18	화끈한 서민지원책요구.	해결
574	2009-02-18	면책자들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	상담.안내
575	2009-02-18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진상규명 및 조사의 건	자체종결
576	2009-02-18	복수거래에 대하여	자체종결
577	2009-02-18	자산관리공사의 부적절한 채무조정	상담.안내
578	2009-02-18	대통령께서 읽어주세요	상담.안내
579	2009-02-18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환승론) 관련 은행의 거부행사권 범	해결
580	2009-02-1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581	2009-02-18	대부업 관련 질의	상담.안내
582	2009-02-18	개인 채무 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상담.안내

583	2009-02-18	영터리 신용보증기금 에대하여	자체종결
584	2009-02-18	보증기금관련	상담.안내
585	2009-02-18	기술보증기금 문턱 철밥통문. 중소기업기술 서민경제 등 돌리는 기관	자체종결
586	2009-02-18	기술보증기금 문턱 철밥통문. 중소기업기술 서민경제 등 돌리는 기관	자체종결
587	2009-02-18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너무 다르네요..	자체종결
588	2009-02-18	중소기업지원	상담.안내
589	2009-02-18	특수기록 삭제 요망	상담.안내
590	2009-02-19	불법추심	상담.안내
591	2009-02-19	대출문자를 보고 주민번호를 알려줬어요	상담.안내
592	2009-02-19	체크카드 사용시 수수료	해결
593	2009-02-19	은행거래를 알수있나요.	상담.안내
594	2009-02-19	금융기관 경매관련	상담.안내
595	2009-02-19	사채 담보대출 은행금리로 전환해주세요.	해결
596	2009-02-19	신용보증서의 발행 조건	자체종결
597	2009-02-19	대통령이시면 국민의 아버지 맞나요?	상담.안내
598	2009-02-19	하급기관까지 전달 되지않는 대통령의정책	상담.안내
599	2009-02-19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600	2009-02-19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601	2009-02-19	불법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피해를 보았습니다.	상담.안내
602	2009-02-19	법령 해당 조항과 유권해석 요청	자체종결
603	2009-02-19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대출금 많은 이자 감면조정 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체종결
604	2009-02-19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PG->쇼핑몰의 대금거래에 대한 문제점(전자상거래 PG사 및 카드사 매매보호서비스 제안)	해결
605	2009-02-19	Fast tract 유동성자금 지원 심사기준과 실효성에 대하여	상담.안내
606	2009-02-19	너무하네요	상담.안내
607	2009-02-19	4금융권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608	2009-02-19	화보법	상담.안내
609	2009-02-19	억울한 신용등급	상담.안내
610	2009-02-19	외감기업의 중간재무제표 작성	상담.안내
611	2009-02-19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612	2009-02-19	주택금융공사의 역전세대출 관련	상담.안내
613	2009-02-19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완보증 제도개선 건의	상담.안내
614	2009-02-19	각 금융회사의 주소 요청	상담.안내
615	2009-02-20	농신보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16	2009-02-20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17	2009-02-20	호소문	상담.안내
618	2009-02-20	전환대출	해결
619	2009-02-20	머칠전 tv에서 청화대에서 도움을 주실수있다 하여 글올림	해결
620	2009-02-20	죽을 지경입니다..	상담.안내
621	2009-02-20	호소문 2	상담.안내
622	2009-02-20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완화 요청	상담.안내
623	2009-02-20	정부와 금융권은 반대다	자체종결
624	2009-02-20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호소	상담.안내
625	2009-02-20	민원처리 법률에 합당한 처리인지 문의	해결
626	2009-02-20	한국은행의 금리는 내리는데 시중은행담보대출은오르는이유는무엇입니까...	상담.안내
627	2009-02-20	신용보증기금 완화조치 관련 (관련 부처에 건의드립니다)	자체종결
628	2009-02-20	신용불량자 사면	해결
629	2009-02-20	국민연금 일시 반환, 역전세 대출	상담.안내

630	2009-02-21	현금서비스와 카드로론	해결
631	2009-02-2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처리문제 개선건의	상담.안내
632	2009-02-21	농협직원의 직무유기	상담.안내
633	2009-02-23	한국산업은행 경비용역 재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탄원	상담.안내
634	2009-02-23	합병으로 인한 변경인가시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635	2009-02-2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불량자 지원 관련	상담.안내
636	2009-02-23	불법채권추심에대해서	상담.안내
637	2009-02-23	신용에관하여	상담.안내
638	2009-02-23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의 환승론의 심사 자격 완화해주십시	해결
639	2009-02-23	이동통신사 횡포 , 경기침체로힘든서민를 더욱힘들게 하는 카드사	상담.안내
640	2009-02-23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641	2009-02-23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상담.안내
642	2009-02-23	에프유에셋이라는 금투자 주식회사관련 건입니다.	상담.안내
643	2009-02-23	정부정책과 현실의 벽	상담.안내
644	2009-02-23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645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지원 대책에 관하여...	자체종결
646	2009-02-23	신용불량자 ...	상담.안내
647	2009-02-23	.	자체종결
648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호소	상담.안내
649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관련	상담.안내
650	2009-02-23	기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시 예탁원 의결권 요청 가능 여부	자체종결
651	2009-02-24	리드코프 대부회사의 불법추심	상담.안내
652	2009-02-24	중소기업창업지원보증서 발급을 원합니다.	상담.안내
653	2009-02-24	정부 방침대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	자체종결
654	2009-02-24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655	2009-02-24	한국은행 금리는 내리는데 시중 은행 금리는 왜 안내리는	상담.안내
656	2009-02-24	싼 이자좀	상담.안내
657	2009-02-24	신용등급에 대해서	상담.안내
658	2009-02-24	추심이 너무심하네요,,,욕설과 죽인다는멘트	상담.안내
659	2009-02-24	신용보증기금 업무 감사 청구	상담.안내
660	2009-02-24	현실과 정부 정책의 벽	상담.안내
661	2009-02-24	과도한 공권력으로 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662	2009-02-24	신용보증재단보증연장의 건	상담.안내
663	2009-02-2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664	2009-02-24	신용보증기금이 은행보다 더욱 무섭다.	상담.안내
665	2009-02-24	보증 채무	상담.안내
666	2009-02-24	신용보증기금의 무성의한 답변과 형식적인 실사	상담.안내
667	2009-02-24	보험 예금전환, 교육자 복직, 물가관리	자체종결
668	2009-02-24	중기지원	자체종결
669	2009-02-24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된 서민들에 대한 신용회복 정책의 문제점.	상담.안내
670	2009-02-24	엔화사태와 허수아비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671	2009-02-25	감사드립니다.	상담.안내
672	2009-02-25	자통법새행으로 개인은 선물환계약이 되지않아 피해를 봄	상담.안내
673	2009-02-25	신용불량기록 삭제요청	상담.안내
674	2009-02-25	기보·신보 지원 요청	자체종결
675	2009-02-25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자체종결
676	2009-02-25	배드뱅크를 모두 상환했는데..	상담.안내
677	2009-02-25	영세기업도 보살펴 주세여....	자체종결
678	2009-02-25	기술신용보증회사 보증 건으로 탄원 올립니다.	자체종결



679	2009-02-25	신용보증기금의서비스개선 및 국가정책완화	자체종결
680	2009-02-25	기업을 도는 정부 출현 기관이지 서민들 죽이는 정부 출현 기관이지	자체종결
681	2009-02-25	대출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해결
682	2009-02-25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683	2009-02-25	희망모아의 채권 추심원의 부당한 대우 관련	상담.안내
684	2009-02-25	새성북연립 재건축조합의 정리금융공사 소유 채무로 인한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685	2009-02-25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에 대한 질의	해결
686	2009-02-25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보증서 발급	상담.안내
687	2009-02-25	벼랑 끝 에서 //급// 도움을 요청 합니다.	상담.안내
688	2009-02-25	호소문	상담.안내
689	2009-02-25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690	2009-02-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사람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691	2009-02-26	가혹합니다	상담.안내
692	2009-02-26	개인신용정보법률위반및 개인회생 추심명령	상담.안내
693	2009-02-26	민원처리 답변은 하지 않고 민원인을 조롱한 공무원을 처벌 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694	2009-02-26	살아갈 구멍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체종결
695	2009-02-26	은행 담보대출금리 7~8%로 서민어려움 극심	상담.안내
696	2009-02-26	금융위원회 일하시는분들은 다 그런가요?...	자체종결
697	2009-02-26	삼성카드가 캡코의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해결
698	2009-02-26	자본시장법 관련 질의	해결
699	2009-02-26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해고 관련	상담.안내
700	2009-02-26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701	2009-02-26	청년창업특례보증에 관해서	자체종결
702	2009-02-26	분할상환 보증채무의 상환시점 연기요청	자체종결
703	2009-02-26	보증기금의횡포	상담.안내
704	2009-02-26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말소	자체종결
705	2009-02-26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자체종결
706	2009-02-26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중개업자 등록 여부	상담.안내
707	2009-02-26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확대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708	2009-02-26	청년창업자금 신청하는데 왜!! 아버지신용을...	자체종결
709	2009-02-26	본인도 모르는보증으로인하여집이강제경매되어억울해서글을올립니다	상담.안내
710	2009-02-26	보증채무에 대한 불법 통장 압류추심건	상담.안내
711	2009-02-26	대통령님께 올리는 마지막 음소의 글	상담.안내
712	2009-02-26	호 소 문	상담.안내
713	2009-02-27	서울신용정보? 기타신용사?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 못하게 조치하십시오.	상담.안내
714	2009-02-27	2월 14일 민원 접수한 사람입니다	상담.안내
715	2009-02-27	기술 보증기금	자체종결
716	2009-02-27	급합니다^^	자체종결
717	2009-02-27	서민들 돈 모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결
718	2009-02-2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19	2009-02-27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업.2금융 전환대출은 빚좋은 개살	해결
720	2009-02-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721	2009-02-27	중소기업 애로사항(신용보증서 관련)해결 요청	자체종결
722	2009-02-27	신용 위기에 몰린 채무자 구제 방안 적극 검토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상담.안내

723	2009-02-27	은행이자 문제, 국민연금 이용 대출은행설립 및 미래 국가 비전사업 제언	해결
724	2009-02-27	자산운용협회 신문기사 스크랩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해결
725	2009-02-27	제발살려주세요	자체종결
726	2009-02-27	I M F 이후 ... 처음으로 나라님께 하고싶은 말	상담.안내
727	2009-02-2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28	2009-02-27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729	2009-02-27	위법여부.	상담.안내
730	2009-02-28	신용보증기금의 설 특례보증 2.12보증확대 지원 지연처리 에 관한건	상담.안내
731	2009-03-02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32	2009-03-02	높은 은행 문턱과 기술신보 보증서 발급거절이유?	상담.안내
733	2009-03-02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자는 외로워....	상담.안내
734	2009-03-02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이로다	상담.안내
735	2009-03-02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상담.안내
736	2009-03-02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한 역전세 대출....	상담.안내
737	2009-03-0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원합니	상담.안내
738	2009-03-02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	상담.안내
739	2009-03-02	카드결재로인한손실	해결
740	2009-03-02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요청	상담.안내
741	2009-03-02	신용보증기금의 배당금 의의신청 검토 요망	상담.안내
742	2009-03-02	국민 숨통조여오는 대출금리 조정바람..	상담.안내
743	2009-03-02	중소기업 금융지원 애로 사항신고	자체종결
744	2009-03-02	단독세대주 저리 융자해주세요	상담.안내
745	2009-03-03	2틀 연체했다고 하루에 문자를 포함 전화가 열통이 넘게 옵 니다.	상담.안내
746	2009-03-03	예금자보호법	상담.안내
747	2009-03-03	사금융피해신고 금감원 신고완료후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 는것임	상담.안내
748	2009-03-03	역전세대출 차별..	상담.안내
749	2009-03-03	서울신용정보? 기타신용사?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 못하게 조치하시오.	상담.안내
750	2009-03-03	호소문	상담.안내
751	2009-03-03	사금융권에 대해	상담.안내
752	2009-03-03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자체종결
753	2009-03-03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754	2009-03-0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질의	상담.안내
755	2009-03-03	신용도가 나쁜 데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안내
756	2009-03-0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등재 관련	상담.안내
757	2009-03-03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758	2009-03-03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해결
759	2009-03-03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해결
760	2009-03-03	너무 힘이 듭니다...	해결
761	2009-03-03	iab-0901-003878	상담.안내
762	2009-03-04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63	2009-03-04	신용회복기금 관련	해결
764	2009-03-04	최근 영국계 HSBC가 증자를 통해 한국 중국등 아시아부문 인수 가능성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해결
765	2009-03-04	1000만원 좀 빌려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상담.안내
766	2009-03-04	법인 대출 에관하여	자체종결
767	2009-03-04	영국 HSBC가 증자를 통해 한국 중국등 아시아부문 인수 가 능성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내은행이	해결

768	2009-03-04	신용보증 연장	자체종결
769	2009-03-04	신용보증기금 연장건	자체종결
770	2009-03-04	우리나라에 저축은행 종류가 몇개나 되지요?	상담.안내
771	2009-03-04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에 대한 민원사항	상담.안내
772	2009-03-04	분식, 시세조정 관련 진정	상담.안내
773	2009-03-0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74	2009-03-04	국민생활 법조항 이중 적용	상담.안내
775	2009-03-04	자산관리공사의연대보증 채무 관련	해결
776	2009-03-04	구체적이고 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	해결
777	2009-03-05	자동차접촉사고 처리	상담.안내
778	2009-03-05	제발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79	2009-03-05	신용회복지원 결정이 난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기간 조정요	상담.안내
780	2009-03-05	도움 요청	상담.안내
781	2009-03-05	3개월 미만 연체 20만 명, 만기 1년 연장 방안 추진에 대해	상담.안내
782	2009-03-05	희망모아 채무재조정	상담.안내
783	2009-03-05	코스콤 인사 관련	상담.안내
784	2009-03-05	캠코의 신용회복기금프로그램	해결
785	2009-03-05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786	2009-03-05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언론플레이 하시는 겁니까??	상담.안내
787	2009-03-05	서민들은 위한답시고 언론플레이 하시는 겁니까??	상담.안내
788	2009-03-05	중소기업이 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담.안내
789	2009-03-05	기보는 당사의 보증평가의 평가과정 세부내용, 평가근거 등을 공개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상담.안내
790	2009-03-05	금융관련 정책 제언	자체종결
791	2009-03-06	중소기업지원건	상담.안내
792	2009-03-06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793	2009-03-06	독산동 산업은행이요	상담.안내
794	2009-03-06	[한국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에 대해	상담.안내
795	2009-03-06	자료요청합니다	상담.안내
796	2009-03-06	신용보증확대조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체종결
797	2009-03-06	대출~	상담.안내
798	2009-03-0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개정안 일부 개정 건의	상담.안내
799	2009-03-0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 유무	해결
800	2009-03-06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801	2009-03-06	보험개발원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802	2009-03-06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관련 질의	해결
803	2009-03-06	자산유동화 관련 질의	상담.안내
804	2009-03-06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추가 연장 제고바랍니다.	상담.안내
805	2009-03-06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만...	상담.안내
806	2009-03-06	신용보증기금에관하여	자체종결
807	2009-03-06	존경하는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808	2009-03-06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809	2009-03-09	청소년 주식투자	상담.안내
810	2009-03-09	1AA-0902-061883/1AA-0902-061884 제대로 처리 해	상담.안내
811	2009-03-09	신용보증사들의 폭리(도와주십시오)	해결
812	2009-03-09	대부업체대출의 은행권전환대출신청건에대하여	해결
813	2009-03-09	제 3자 에게 저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상담.안내
814	2009-03-09	영세업자 지원 요청	상담.안내
815	2009-03-0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816	2009-03-09	연체건으로 인한 보증서 발급불가	자체종결

817	2009-03-09	10년만에 날라온채무 소장	해결
818	2009-03-09	법령 질의	해결
819	2009-03-09	신용불량자들의 추심 면책을.	상담.안내
820	2009-03-09	사업자금 보증지원	상담.안내
821	2009-03-09	자산관리공사 채무 관련	해결
822	2009-03-09	금융실명법 과 유류분법 과 상속인	해결
823	2009-03-09	꼭 좀 도와 주세요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 입니다)	자체종결
824	2009-03-09	은행의 채권매각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원회 반토막 신용회복	상담.안내
825	2009-03-10	2번의민원신청	상담.안내
826	2009-03-10	리드코프 불법추심관련	상담.안내
827	2009-03-10	금융법 위법 유무 문의	상담.안내
828	2009-03-10	장외주식 매매에 관해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829	2009-03-10	연체 사실로 인한 보증서 발급 불가	자체종결
830	2009-03-10	미성년자 통장개설관련	해결
831	2009-03-10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하고 억울한소송(사해행위)	상담.안내
832	2009-03-10	보험압류건	상담.안내
833	2009-03-10	펀드 자산운용사의 수익을 운용성과와 같이 연계시켜야 함	해결
834	2009-03-10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835	2009-03-10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업무처리 너무늦다	상담.안내
836	2009-03-11	압류이의	상담.안내
837	2009-03-11	이자탕감선처	상담.안내
838	2009-03-11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 통보가 전혀 없어서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적용 받지 못하여 행정인의 고지의무를 고발합니다	해결
839	2009-03-11	신용보증기금 횡포의 건	자체종결
840	2009-03-11	은행권의 대출금리 횡포	해결
841	2009-03-11	소기업 의 운영자금 신청의건	자체종결
842	2009-03-11	법령오류 지적	상담.안내
843	2009-03-11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누구??	상담.안내
844	2009-03-11	온누리에어의 거래정지는 소액주주를 죽이는 행위	상담.안내
845	2009-03-11	다중채권구제방안사전신청에 대하여	상담.안내
846	2009-03-11	온누리에어 에 관한 증권거래소측의 업무처리 (너무 다급하 고 억울해요)오늘이 마지막날!!	상담.안내
847	2009-03-11	보험법 위반에 대한 유무사항	상담.안내
848	2009-03-11	보험이의	상담.안내
849	2009-03-11	억울하고 원통하네요	상담.안내
850	2009-03-11	서민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 이라면?	해결
851	2009-03-11	신용보증서 왜이리 늦어지는지?	상담.안내
852	2009-03-11	정책 실패와 규제로 아파트가 3년이나 안팔리니 국가가 사	해결
853	2009-03-11	악랄한 기업사채업자의 횡포에 완전히 무너진 생활	상담.안내
854	2009-03-11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855	2009-03-11	1AA-0903-014852 의 관련 민원 입니다 급합니다 ,	자체종결
856	2009-03-11	중소기업의 어려움	자체종결
857	2009-03-11	신용보증기금,국민은행,하나은행,롯데캐피탈등 연체자정보 등록및 정정파일확인서	상담.안내
858	2009-03-11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들	상담.안내
859	2009-03-11	서민 대출 요망	해결
860	2009-03-11	정부,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통부재의 아쉬움	상담.안내
861	2009-03-11	신용보증기금의 연체자 등록정보와 정정 내용 확인서	상담.안내
862	2009-03-11	키코손실의 회계 처리 관련 질의	상담.안내
863	2009-03-11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864	2009-03-12	대한민국 법원, 소송, 법 (대한민국청년의글)	상담.안내
865	2009-03-12	정부와 보증기관의의 이중잣대	상담.안내
866	2009-03-12	환승론, 대출관련	해결
867	2009-03-12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건	상담.안내
868	2009-03-12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869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은행 대출 DTI등 기타 규제 관련 법 개정 입법처리	상담.안내
870	2009-03-12	진정한 희망의 다짐돌이 절실합니다	상담.안내
871	2009-03-12	정책제언	상담.안내
872	2009-03-12	개인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873	2009-03-12	한마음저축은행 미지급퇴직금 지급요청의 건	상담.안내
874	2009-03-12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875	2009-03-12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876	2009-03-12	온누리 에어 거래 정지에 대해서	상담.안내
877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78	2009-03-12	거래소의 만행으로 울고 있는 소액주주	상담.안내
879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0	2009-03-12	거래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살피주세요!!!!	상담.안내
881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2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3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4	2009-03-12	증권 거래소 탁상 행정 고발	상담.안내
885	2009-03-12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886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7	2009-03-12	소액주주로써 "온누리 에어"관련 부당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888	2009-03-12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889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90	2009-03-12	신용보증기금 이용건	상담.안내
891	2009-03-12	신용등급에관한민원입니다.	상담.안내
892	2009-03-12	불법추심 조사 및 처벌 요망	상담.안내
893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안내
894	2009-03-12	파산면책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기록정보 때문에...	상담.안내
895	2009-03-12	정부의 2.12 대책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확대에 관한사항.	자체종결
896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안내
897	2009-03-12	주택 전세자금 중개 센터 관련 건의	상담.안내
898	2009-03-12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899	2009-03-12	민원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900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 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901	2009-03-13	개인회생대출	상담.안내

902	2009-03-13	온누리에어와 관련된 증권거래소측의 업무처리현황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상담, 안내
903	2009-03-13	신용보증기금	상담, 안내
904	2009-03-13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 안내
905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906	2009-03-13	대부업에 시달리고있는 나이먹은사람입니다	상담, 안내
907	2009-03-13	한국증권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절차	상담, 안내
908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자체종결
909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 안내
910	2009-03-13	농신보의 채무 관련	상담, 안내
911	2009-03-13	개인회생	상담, 안내
912	2009-03-13	고충처리	상담, 안내
913	2009-03-13	부당한 배당 이의 신청	자체종결
914	2009-03-13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무소불위의 한국거래소 권력남용 행태	상담, 안내
915	2009-03-13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무소불위의 한국거래소 권력남용 행태	상담, 안내
916	2009-03-13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젯점	상담, 안내
917	2009-03-16	온누리에어 상폐에 관하여...	상담, 안내
918	2009-03-16	4,4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억울함 호소	상담, 안내
919	2009-03-16	정말 황당합니다.....	상담, 안내
920	2009-03-16	너무 억울하네요..	상담, 안내
921	2009-03-16	창업자금신청하러갔는데말도안되는이유로거절부터하는안동신용보증기금창구직원의횡포	상담, 안내
922	2009-03-16	거래소의 (주)온누리에어 실질심사에 대해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씀 합니다.	상담, 안내
923	2009-03-16	주식대출	해결
924	2009-03-16	신용보증기금설간급자금 말만긴급자금	자체종결
925	2009-03-16	신용보증기금의 불친절	자체종결
926	2009-03-1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도에 관한 민원	자체종결
927	2009-03-16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의	상담, 안내
928	2009-03-16	저금리 담보대출	상담, 안내
929	2009-03-16	7년째 신용불량자...	상담, 안내
930	2009-03-16	우리은행의 8개 금융기관 공적자금 MOU이행 실태에 관하	상담, 안내
931	2009-03-16	내아이의웃음을 지켜주세요. 조금만 시간을주세요.	자체종결
932	2009-03-16	정부에서 파산면책 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	상담, 안내
933	2009-03-16	신용 보증 기금이 김기중씨를 연체자로 등록하고도 부인하는 사실을 고발 합니다.	상담, 안내
934	2009-03-16	수급자중증장애인금융지원제도	해결
935	2009-03-1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 글	상담, 안내
936	2009-03-1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 안내
937	2009-03-16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건	상담, 안내
938	2009-03-16	영주권자 계좌개설(미성년자)시 실명확인방법	해결
939	2009-03-1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체종결
940	2009-03-16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	상담, 안내
941	2009-03-16	중소기업지원의 문제점	상담, 안내
942	2009-03-16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 안내
943	2009-03-16	대출 안내 요망	해결
944	2009-03-16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 보다 높은 한국거래소의 무소불위의 권력 분통이 터집니다..	상담, 안내
945	2009-03-16	온누리에어	상담, 안내

946	2009-03-16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947	2009-03-16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948	2009-03-16	불공정 공시 제발~도와주세요.	자체종결
949	2009-03-16	온누리에어 퇴출 역시 계획적이었군요....	자체종결
950	2009-03-16	온누리에어 퇴출관련 절차상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 호소	자체종결
951	2009-03-16	투명한 진행을	자체종결
952	2009-03-16	좀 도와 주십시오~~정말 긴급한 사항입니다	자체종결
953	2009-03-16	온누리에어 실질심사 과정에 대한 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954	2009-03-16	4,4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억울함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955	2009-03-16	공기업에 횡포를 고발 합니다	자체종결
956	2009-03-16	온누리에어 상장 폐지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부당함을 알립	자체종결
957	2009-03-16	역전세금의 실태..	상담.안내
958	2009-03-16	신용카드 사용정지	자체종결
959	2009-03-16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960	2009-03-16	너무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61	2009-03-16	온누리에어 상장폐지 대상에 대한 건	자체종결
962	2009-03-16	온누리에어~	자체종결
963	2009-03-16	온누리에어 상폐결정에 따른 호소문입니다.	자체종결
964	2009-03-16	년간소득 인정범위	상담.안내
965	2009-03-16	나의메일을...	자체종결
966	2009-03-16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효율성 극대화하자.	상담.안내
967	2009-03-16	불법 여부 확인	해결
968	2009-03-16	서민소액대출	상담.안내
969	2009-03-16	투자 상담사 관련	상담.안내
970	2009-03-1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971	2009-03-1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자체종결
972	2009-03-16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73	2009-03-16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절차로 인한 피	자체종결
974	2009-03-16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75	2009-03-16	제일은행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976	2009-03-16	채권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민원 신고 합니다.	상담.안내
977	2009-03-17	거래소,코스닥본부에게..	자체종결
978	2009-03-17	대부업 불법추심신고	상담.안내
979	2009-03-17	호소문.	자체종결
980	2009-03-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없는 수수료 요구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상담.안내
981	2009-03-17	대출금 갚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982	2009-03-17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983	2009-03-17	금융 지원 방안	상담.안내
984	2009-03-17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	자체종결
985	2009-03-17	어처구니없는 코딩신용보증기금 평택지사의 업무처리행태.	자체종결
986	2009-03-17	산업은행의 기술평가 심사 관련	상담.안내
987	2009-03-17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평가 관련	상담.안내
988	2009-03-17	보십시오. 1,000명의 소액주주들이..	자체종결
989	2009-03-17	대규모 해외공사 (20억 4천만불) 수의계약 체결	상담.안내
990	2009-03-17	거래소,코스닥본부에게..	자체종결
991	2009-03-17	개인회생자의 지원 호소	해결
992	2009-03-17	이자를 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993	2009-03-17	우리기업에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994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5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6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7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8	2009-03-18	증권 거래소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자체종결
999	2009-03-18	소액주주의 하소연	자체종결
1000	2009-03-18	외환거래(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1001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02	2009-03-18	펀드투자권유인의 실명확인권한에 대하여	해결
1003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04	2009-03-18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 관련	해결
1005	2009-0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06	2009-03-18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한국거래소 무소불위의 권력남용 행태	상담.안내
1007	2009-03-18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절차로 인한 피	자체종결
1008	2009-03-18	신용회복 위원회 2년치 선납자도 불량기록 삭제	상담.안내
1009	2009-03-18	진 정 서	해결
1010	2009-03-18	[민원]대출상환에 있어서의 조기상환수수료가 금융업법(?) 위반이 아닌지?	상담.안내
1011	2009-03-18	기업지원	상담.안내
1012	2009-03-18	소액투자자의 억울함	자체종결
1013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14	2009-03-18	한국증권 거래소는 책임져야 한다	자체종결
1015	2009-03-18	안경원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해결
1016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17	2009-03-18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괴로운 대부업의 세계..	상담.안내
1018	2009-03-18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업무방해	상담.안내
1019	2009-03-18	제발 !!!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020	2009-03-18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021	2009-03-18	금융지원	상담.안내
1022	2009-03-18	대출알선에 관하여...	상담.안내
1023	2009-03-18	불법채권추심행위조사해주세요	상담.안내
1024	2009-03-19	빛독촉 협박 제3자집에 방문	상담.안내
1025	2009-03-19	코스닥 실질심사제도 위법에 대해(온누리에어 사건)	자체종결
1026	2009-03-19	주식투자관련	자체종결
1027	2009-03-19	거래소 주식담당자	자체종결
1028	2009-03-19	거래소의 부당한행위를 막아주세요	자체종결
1029	2009-03-19	연채	상담.안내
1030	2009-03-19	뽀뽀한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신청	자체종결
1031	2009-03-19	신용정보 무단조회	자체종결
1032	2009-03-19	희망모아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033	2009-03-19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34	2009-03-19	핸드폰구입도거절당한 신용불량자의 하소연	상담.안내
1035	2009-03-19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자체종결



1036	2009-03-19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37	2009-03-19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결
1038	2009-03-19	어제 이업종 사장들과의 금융감독위 비판보고 및 개선제안	상담.안내
1039	2009-03-19	어제 이업종 사장들과의 금융감독위 비판보고 및 개선제안	상담.안내
1040	2009-03-19	저신용자영업자에살길은....	상담.안내
1041	2009-03-19	강제경매 후 에도 신용불량 등록 당한 불편함	자체종결
1042	2009-03-19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유권 해석	상담.안내
1043	2009-03-19	증권 거래소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자체종결
1044	2009-03-20	투자자 보호를 하라	자체종결
1045	2009-03-20	거래소이사장은 책임을져라	자체종결
1046	2009-03-20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047	2009-03-20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대상 및 조건	상담.안내
1048	2009-03-20	투자는 피눈물 흘린다	자체종결
1049	2009-03-20	도와 주세요....제발요.....부탁입니다..	상담.안내
1050	2009-03-20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자체종결
1051	2009-03-20	개미투자자들을 죽인다	자체종결
1052	2009-03-20	사전동의없이 개인신용조회한것	상담.안내
1053	2009-03-20	한국증권 거래소는 책임져야 한다	자체종결
1054	2009-03-20	투자자 감독소홀 책임져라	자체종결
1055	2009-03-20	투자자 보호를 하라	자체종결
1056	2009-03-20	주택연금 신청 관련	상담.안내
1057	2009-03-20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058	2009-03-20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59	2009-03-20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제도적 모순과 재심요구	상담.안내
1060	2009-03-20	불법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 해옴	상담.안내
1061	2009-03-20	중소기업 금융애로 자금신청	자체종결
1062	2009-03-20	보험관련여부	상담.안내
1063	2009-03-20	개인회생중인자입니다	상담.안내
1064	2009-03-20	예금파해	상담.안내
1065	2009-03-20	기술보증기금의 기업 회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66	2009-03-20	금융위원회가 민원처리 안하고 종결합니다.	자체종결
1067	2009-03-20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068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69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70	2009-03-23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1071	2009-03-23	관리소홀 책임져라	상담.안내
1072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73	2009-03-23	투자상담사 관련 건의	상담.안내
1074	2009-03-23	왜이렇게 늦나요	자체종결
1075	2009-03-23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지연 무능한 업무처리	상담.안내
1076	2009-03-23	이명박대통령님귀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077	2009-03-23	수 많은 직장인들을 구제 하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1078	2009-03-23	도와주십시오	해결
1079	2009-03-23	"소액자산소유자 대출"에 관해서...	상담.안내
1080	2009-03-23	불법추심	상담.안내
1081	2009-03-23	자산관리공사,3월4일민원	상담.안내
1082	2009-03-23	벤처기업인 경영재기	상담.안내

1083	2009-03-23	※즉석 쌀·보리 면류(국수면, 우동면, 떡볶이) 기계 신개발 품에 대하여	상담.안내
1084	2009-03-23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상담.안내
1085	2009-03-23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086	2009-03-23	신용회복기금..	해결
1087	2009-03-2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088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89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90	2009-03-23	씨티파이낸셜(대표:이종명)의 불법추심행위 강력 고발합니다(사업자번호:미상)	상담.안내
1091	2009-03-23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체종결
1092	2009-03-23	온누리에서 상장폐지의 부당성	상담.안내
1093	2009-03-2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에 문제 있습니다.	상담.안내
1094	2009-03-24	너무급합니다. 사금융에서 집으로 찾아와요.	상담.안내
1095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096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097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098	2009-03-24	소액투자자의억울함(한국증권거래소의 횡포)	상담.안내
1099	2009-03-24	1AA-0903-025762와 관련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자체종결
1100	2009-03-24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집과 장모님집에 경매집행중	자체종결
1101	2009-03-24	기술보증기금 팝업창을 지워달라	상담.안내
1102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03	2009-03-24	코딩신용보증기금 이용이 너무 어렵다.	상담.안내
1104	2009-03-24	소액투자자의 억울함(한국거래소의 횡포)	상담.안내
1105	2009-03-24	금융위 산업 금융과 와 서민 금융과 의 업무 처리 과정을 고발 합니다.	상담.안내
1106	2009-03-24	저는 거래정지중인 온누리에어(현 뉴캠시스템셀) 소액 주주 입니다.	상담.안내
1107	2009-03-24	신용정보업법 관련 질의	해결
1108	2009-03-24	실명법 및 사금융 관련 질의	해결
1109	2009-03-2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110	2009-03-24	온누리에어 상폐관련 민원내용	상담.안내
1111	2009-03-24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금융기관(은행,기보,신보)의 보수적이며 제몹사리기식 창구 업무...	상담.안내
1112	2009-03-24	주택담보 노후연금지급제도완화	상담.안내
1113	2009-03-24	신용보증기금...1차서류심사건에관해....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1114	2009-03-24	국유재산 변상금	상담.안내
1115	2009-03-2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상담.안내
1116	2009-03-24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117	2009-03-24	신용보증기금의 번복된 업무처리	상담.안내
1118	2009-03-25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상담.안내
1119	2009-03-25	진동수 위원장의 공매도 재개 검토 발언 배경에 대해	상담.안내
1120	2009-03-25	온누리에어 상폐 관련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1121	2009-03-25	한국거래소횡포	상담.안내
1122	2009-03-25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123	2009-03-25	모든 보증기관 직원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 입니다. 강력추천합니다.	자체종결

1124	2009-03-25	과거을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보고 도움은 줄수 없는지요...~~	자체종결
1125	2009-03-25	과거을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보고 도움은 줄수 없는지요...~~	상담.안내
1126	2009-03-25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127	2009-03-25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자체종결
1128	2009-03-25	주택전세자금 중개센터 관련 건의	상담.안내
1129	2009-03-25	신용보증서발급도 연좌제를 적용한단 말인가?	자체종결
1130	2009-03-25	우유부단한금융위원회	상담.안내
1131	2009-03-25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관련	상담.안내
1132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33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34	2009-03-25	사금융피해신고	상담.안내
1135	2009-03-25	불법추심	상담.안내
1136	2009-03-25	파산 면책 정보의 금융기관 정보 보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137	2009-03-25	잡은 독촉	상담.안내
1138	2009-03-25	이런 행정때문에 참 살기 어렵습니다.	자체종결
1139	2009-03-25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부담함.	상담.안내
1140	2009-03-25	1AA-0903-008871 민원사건의 엉망처리결과에 대하여 재촉구 요청	상담.안내
1141	2009-03-25	대출에 따른 호소문	자체종결
1142	2009-03-25	사금융 대출자는 개인회생이 압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1143	2009-03-25	제발 좀 도와 주세요.	해결
1144	2009-03-25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국가 입찰	자체종결
1145	2009-03-25	외국계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민간배드뱅크 참여에도 결국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안내
1146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47	2009-03-26	왜 서민을 등치냐	상담.안내
1148	2009-03-26	한국 기업 현주소 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149	2009-03-26	한국 회사 현주소가 어디 쯤인지 얼마나 신뢰할수 있는지?	상담.안내
1150	2009-03-26	도움을구합니다	상담.안내
1151	2009-03-26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52	2009-03-26	한국증권거래소 의 횡포	상담.안내
1153	2009-03-26	소상공인의 대출기준은?	상담.안내
1154	2009-03-26	열심히 일하는 조그만 중소기업 직원들이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	자체종결
1155	2009-03-26	증권 거래소의 코스닥 종목 상장폐지 남발할 때인가요?	상담.안내
1156	2009-03-26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57	2009-03-26	연합엠피로 부터 날라온 체납 사실 통보	상담.안내
1158	2009-03-26	신용불량자 등재 삭제는 언제쯤	상담.안내
1159	2009-03-26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상담.안내
1160	2009-03-26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161	2009-03-26	갑자기 상장폐지라니... 이견말도 안됩니다. 이대로 죽고싶지만 가족때문에	상담.안내
1162	2009-03-26	개마들만 올리는 상장기업	상담.안내
1163	2009-03-26	증권 거래소 사장은 퇴진하라	상담.안내
1164	2009-03-26	연25%를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	상담.안내
1165	2009-03-26	(주)대우인터네셔널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 및 대금지급 최	해결

1166	2009-03-2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상담.안내
1167	2009-03-26	한국거래소 아무런 통보 공사 없이 갑자기 거래정지?	상담.안내
1168	2009-03-26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복원	상담.안내
1169	2009-03-26	채무 관련 도움 요청	해결
1170	2009-03-26	어린이집통장개설에있어서...	해결
1171	2009-03-26	금융실명제 해석	해결
1172	2009-03-2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자체종결
1173	2009-03-26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174	2009-03-26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상담.안내
1175	2009-03-26	금융감독원의 민원업무 처리 관련	자체종결
1176	2009-03-27	마지막 희망으로	상담.안내
1177	2009-03-27	공적기관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간 묵혀둔 상속채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체종결
1178	2009-03-27	한국거래소	자체종결
1179	2009-03-27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80	2009-03-27	코스닥 기업 ( 엠트론 )	자체종결
1181	2009-03-27	온누리에어 상폐관련 민원내용 입니다	상담.안내
1182	2009-03-27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1183	2009-03-27	저는 거래정지중인 온누리에어(현 뉴캠진시스템셀) 소액 주주 입니다.	상담.안내
1184	2009-03-27	대부법 및 이자제한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185	2009-03-27	뉴캠진시스템셀(온누리에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186	2009-03-27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 설정 해지 요청	상담.안내
1187	2009-03-27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요청	상담.안내
1188	2009-03-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부 요청	자체종결
1189	2009-03-27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190	2009-03-28	횡령.배임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검사 - 누구를 위한 제도인	자체종결
1191	2009-03-30	1AA-0903-036469 재민원	상담.안내
1192	2009-03-30	답답한 신용보증기금 잔머리의대왕	상담.안내
1193	2009-03-30	사금융 불법추심 신고 (산와머니)	상담.안내
1194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	상담.안내
1195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	상담.안내
1196	2009-03-30	보증보험관련 도움요청	상담.안내
1197	2009-03-30	이사람들을 칭찬해주세요	자체종결
1198	2009-03-30	이해하기 힘든 민원처리 완료건...?	상담.안내
1199	2009-03-30	제발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200	2009-03-30	개인신용정보관련	상담.안내
1201	2009-03-30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은 이자라도 감면시켜주세요	상담.안내
1202	2009-03-30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20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4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5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6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07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08	2009-03-30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09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0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11	2009-03-30	온누리애어 거래정지에 대해	자체종결
1212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13	2009-03-30	뉴캠진시스템셀(온누리애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214	2009-03-30	뉴캠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215	2009-03-30	거래소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6	2009-03-30	온누리애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217	2009-03-30	거래소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8	2009-03-30	소액투자자의 억울함	상담.안내
1219	2009-03-30	온누리애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20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21	2009-03-30	억울합니다... 꼭 처리해 주세요...	자체종결
1222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23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	자체종결
1224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25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26	2009-03-30	온누리애어 상장폐지의 부당성	상담.안내
1227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28	2009-03-30	나라에서 제대로 하는게 있는건니까?	자체종결
1229	2009-03-30	온누리애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30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에 제발 법적 검토좀 해주세요...	자체종결
1231	2009-03-30	이명박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어거지정책을 규탄한다.	자체종결
1232	2009-03-30	거래소의 횡포를 규탄한다... 제발 법 확인좀....	자체종결
1233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34	2009-03-30	그리고 주식시장의 모순을 몇가지 고치고자 제안도 해 봅니	상담.안내
1235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36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37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38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39	2009-03-30	온누리애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40	2009-03-30	힘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체종결
1241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범위반에대한 민원	자체종결
1242	2009-03-30	한국거래소의 국민의 대화 무차별 남용	자체종결
1243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44	2009-03-30	결혼자금이었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자체종결
1245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46	2009-03-30	결혼자금 다 날릴거 같습니다... 제발....	자체종결
1247	2009-03-30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가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종결
124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49	2009-03-30	온누리애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0	2009-03-30	온누리애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종결

1251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52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3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54	2009-03-30	한국거래소 부당함을 호소합니다...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255	2009-03-30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256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7	2009-03-30	이렇게 황당할 수 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통법이란 말이나?	자체종결
125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59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60	2009-03-30	죄없는 소액투자자의 눈물.	자체종결
1261	2009-03-30	횡령으로 인한 상장 폐지를 막아 주세요...	자체종결
1262	2009-03-30	코스닥 분부 님들께 드림	자체종결
1263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반	자체종결
1264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온누리 에어)	자체종결
1265	2009-03-30	온누리 에어 거래정지에 대해...	자체종결
1266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	자체종결
1267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68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69	2009-03-30	뉴캠진시스템셀 (구온누리 에어) 대한 거래소측 행위 억울합니	자체종결
1270	2009-03-30	증권 거래소의 부당함을 탄원합니다!!	자체종결
1271	2009-03-30	채무관련 도움 요청	상담.안내
1272	2009-03-30	한국거래소 행위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1273	2009-03-30	한국거래소 - 개선상황	자체종결
1274	2009-03-30	주식 개인투자자	상담.안내
1275	2009-03-30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관련	해결
1276	2009-03-30	온누리 거래정지의 부당함과 소액주주의 억울함	자체종결
1277	2009-03-30	뉴캠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27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79	2009-03-30	코스닥 시장 거래소의 온누리 에어 거래정지 관련 일련 진행상황을 보며....	자체종결
1280	2009-03-30	온누리 주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1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2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부당함을 고함니다..	상담.안내
1283	2009-03-30	불합리-중소기업금융지원	자체종결
1284	2009-03-30	어리석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285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6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87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	상담.안내
1288	2009-03-30	저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지금 강금되었습니다.	자체종결
1289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0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제발....	자체종결
1291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92	2009-03-30	온누리 에어 거래 중지 관련	자체종결

129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294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5	2009-03-30	우리 온누리에어	자체종결
1296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97	2009-03-30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9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9	2009-03-30	온누리에어 거래 중지 관련	자체종결
1300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켄시스템셀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301	2009-03-30	투자자 보호라 하는데...	자체종결
1302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0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04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05	2009-03-30	한국거래소로 부터 헌법의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306	2009-03-30	뉴켄시스템셀 (구 온누리에어) 한국거래소측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307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08	2009-03-30	한국거래소의부당함	자체종결
1309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뉴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및 상장폐지 진행 관련)	자체종결
1310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311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12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13	2009-03-30	한국 코스닥 부당함을 호소합니다...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4	2009-03-30	한국거래소 부당함을 호소합니다...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5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16	2009-03-30	한국거래소로 부터.. 부당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체종결
1317	2009-03-30	소액주주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8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19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20	2009-03-30	공시보고 투자했는데.. 저의 재산권이 박탈 되었습니까?	자체종결
1321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22	2009-03-31	온누리에어 부당한 상장폐지..	자체종결
1323	2009-03-31	한국거래소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324	2009-03-31	"상장폐지실질심사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25	2009-03-31	구 온누리에서 상장폐지관련.	자체종결
1326	2009-03-31	정상적인 금융거래	상담.안내
1327	2009-03-31	이명박대통령 국민신문고귀하	상담.안내
1328	2009-03-31	부당한 보증채무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제하여주십시오	상담.안내
1329	2009-03-31	뉴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330	2009-03-31	죽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자체종결
1331	2009-03-31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뉴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및 상장폐지 진행 관련)	자체종결

1332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33	2009-03-31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자체종결
1334	2009-03-31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35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336	2009-03-31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337	2009-03-31	기술보증기금을 상전으로 받들어야 기업하기 편한한이유	자체종결
1338	2009-03-31	뉴켄시스템셀(온누리에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339	2009-03-31	기보 자금 유용및 회사 자산 불법 소유권 이전	상담.안내
1340	2009-03-31	신용회복이 않되네요?	상담.안내
1341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42	2009-03-31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1343	2009-03-31	전세보증금에대해서	상담.안내
1344	2009-03-31	믿음	자체종결
1345	2009-03-31	특수건물 손배책의 공제회 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 등	상담.안내
1346	2009-03-31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요청	해결
1347	2009-03-31	역전세대출관련 문의하고자합니다.	상담.안내
1348	2009-04-0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49	2009-04-01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350	2009-04-01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51	2009-04-01	국가가 불쌍한 국민을 협박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352	2009-04-01	신용등급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3	2009-04-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54	2009-04-01	증권거래소 상장폐지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5	2009-04-01	e-모기지론	상담.안내
1356	2009-04-01	한국 거래소의 어의 없는 행동	자체종결
1357	2009-04-01	한국거래소의 남용	자체종결
1358	2009-04-01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자체종결
1359	2009-04-01	제발 살려주십시오... 결혼자금입니다....	자체종결
1360	2009-04-01	BHK주식 소액투자 죽이는 악질기업	상담.안내
1361	2009-04-01	어머니의 자식 사랑법	상담.안내
1362	2009-04-01	어머니의 자식사랑법	상담.안내
1363	2009-04-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64	2009-04-01	주식	자체종결
1365	2009-04-01	전세자금 대출 중개센터 설치 제안서	상담.안내
1366	2009-04-0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관련	자체종결
1367	2009-04-01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고함	상담.안내
1368	2009-04-01	안내문없이 집을 가압류시킴.	상담.안내
1369	2009-04-01	파산신청자로 몰아가는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370	2009-04-01	주택금융공사 민원 처리건 관련 재민원	상담.안내
1371	2009-04-01	신용보증기금이자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72	2009-04-01	정말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상담.안내
1373	2009-04-01	유사 수신행위에 질의....	상담.안내
1374	2009-04-01	대출보증관련	상담.안내
1375	2009-04-02	감사원에서 해결해주세요	상담.안내
1376	2009-04-02	한마음 금융	상담.안내
1377	2009-04-02	흑자 도산	상담.안내



1378	2009-04-02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 관련	자체종결
1379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0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1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2	2009-04-02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업무 관련	상담.안내
1383	2009-04-02	1AA-0903-055578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재촉구	상담.안내
1384	2009-04-03	소비자파산후면책결정 빛좋은개살구!!	상담.안내
1385	2009-04-03	탄원서	상담.안내
1386	2009-04-0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387	2009-04-0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8	2009-04-03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 확인요청	해결
1389	2009-04-03	재답변 요망	상담.안내
1390	2009-04-03	빛때문에 너무힘듭니다. 신용회복기금으로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1391	2009-04-03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관리자도 사람입니다.	상담.안내
1392	2009-04-03	(주)기린	상담.안내
1393	2009-04-05	사람가지고 노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394	2009-04-06	1AA-0903-061690 질문 답 잘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1395	2009-04-06	일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396	2009-04-06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담.안내
1397	2009-04-06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담.안내
1398	2009-04-06	죽고 싶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상담.안내
1399	2009-04-06	저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400	2009-04-06	준신용불량자 처리 검토	상담.안내
1401	2009-04-06	일반 캐피탈의 수수료가 넘 많은것같아서요 대출액의 몇프로인가요	상담.안내
1402	2009-04-0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03	2009-04-0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상담.안내
1404	2009-04-06	법원개인회생자들은.....	상담.안내
1405	2009-04-07	언론보도 와 다른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1406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7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8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9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0	2009-04-07	신용회복및 신용보증의 보증서발급에 불합리	자체종결
1411	2009-04-07	보증기금 보증서 연장 건	상담.안내
1412	2009-04-07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안내
1413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4	2009-04-07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	상담.안내
1415	2009-04-07	채권관리	상담.안내
1416	2009-04-07	자영업자 경영안전 자금 지원에 관하여..	상담.안내
1417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8	2009-04-07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 발행	자체종결
1419	2009-04-07	도움요청의 건	자체종결
1420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21	2009-04-07	전셋방	상담.안내
1422	2009-04-07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423	2009-04-07	강제 집행에 대하여	상담.안내
1424	2009-04-07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해결
1425	2009-04-07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26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27	2009-04-07	불법 채권추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428	2009-04-07	연대보증책임의 한도	상담.안내
1429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0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1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2	2009-04-07	신용회복기금	해결
1433	2009-04-0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4	2009-04-08	행정절차 및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질문 (관인관련)	상담.안내
1435	2009-04-08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436	2009-04-08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437	2009-04-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38	2009-04-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39	2009-04-08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440	2009-04-08	역전세자금 대출 문제점	상담.안내
1441	2009-04-08	금융관행 개선에 대한 건의	상담.안내
1442	2009-04-0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43	2009-04-08	어제 퇴근길 2009/04/06 지하철 여론동향보고 및 개선제	자체종결
1444	2009-04-08	1AA-0903-065123 답변 자꾸 엉터리로 할래??	자체종결
1445	2009-04-08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공 관련	상담.안내
1446	2009-04-08	금융실명제위반여부	해결
1447	2009-04-09	용인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를 처벌해주세요	상담.안내
1448	2009-04-09	가압류 설정금액보다 원금이 늘어난 사유확인	상담.안내
1449	2009-04-09	대출이 불가능!	상담.안내
1450	2009-04-09	아직도 공무원의 고객응대 수준이 이렇다면 되겠습니까?	자체종결
1451	2009-04-09	KIKO관련 신용보증 제도개선요청의건	상담.안내
1452	2009-04-09	진정서 접수 의견	자체종결
1453	2009-04-09	구제금융	상담.안내
1454	2009-04-09	신용보증기금 규제 완화의 신청	상담.안내
1455	2009-04-09	개미들의 억울한 심정	상담.안내
1456	2009-04-0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57	2009-04-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담.안내
1458	2009-04-09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59	2009-04-10	내가 신용불량도 아니고 내 직원이 신용불량이라 안된데 요... 이런 ... +	상담.안내
1460	2009-04-10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담.안내
1461	2009-04-10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1462	2009-04-10	한국거래소의 불법과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1463	2009-04-10	코스닥 (트라이콤) 상장폐지실질심사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1464	2009-04-10	기술보증기금은 부동산담보 보증기금으로 명칭을 바꿔야	상담.안내
1465	2009-04-10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상담.안내
1466	2009-04-10	강제 집행에 대하여	상담.안내

1467	2009-04-10	주택담보대출 약정변경신청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 민원호	상담.안내
1468	2009-04-10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69	2009-04-10	사금융법 제정 등	상담.안내
1470	2009-04-10	맞벌이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1471	2009-04-10	민원실 담당자님께	자체종결
1472	2009-04-13	코스닥 시장 본부 실질대상 심사 항의서	상담.안내
1473	2009-04-13	신용회복기금	해결
1474	2009-04-13	신용보증심의 거절	상담.안내
1475	2009-04-13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476	2009-04-13	신용 불량자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상담.안내
1477	2009-04-13	추심 우편물 받지 안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78	2009-04-13	신용불량해제조건으로 채무일부변제후 재등록	상담.안내
1479	2009-04-13	금융실명제에 관하여..	자체종결
1480	2009-04-13	배드뱅크 신용불량처리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481	2009-04-1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82	2009-04-1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83	2009-04-13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의 거절에 관한 의견	자체종결
1484	2009-04-13	신청인의 아들 허종원의 부채확인서 송부 요청	상담.안내
1485	2009-04-13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1486	2009-04-13	민원 연기의 건	상담.안내
1487	2009-04-13	카드결제에 관해서	해결
1488	2009-04-13	공적자금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의견	상담.안내
1489	2009-04-14	회사에서 받은 봉급도 대출에 통합	상담.안내
1490	2009-04-14	한국거래소의 법을 초월한 월권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자체종결
1491	2009-04-14	자배법을 지키지 않는 동부화재	상담.안내
1492	2009-04-14	코스닥종목의 자강이 상폐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안내
1493	2009-04-14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안내
1494	2009-04-14	부채를 매각 시킨곳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요	상담.안내
1495	2009-04-14	개인 신용관리 요청	자체종결
1496	2009-04-14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금일(04/10) 점심시간 마포소공원	정책제안
1497	2009-04-14	한국자산공사 채무 감면 요청	상담.안내
1498	2009-04-14	신용보증기금의 제대로 된 심사를 원합니다.	자체종결
1499	2009-04-15	거래소의 일방적인 공시위반에 따른 피해 민원	자체종결
1500	2009-04-15	서민과 개미 죽이는 클린코스닥 즉각 중지..	상담.안내
1501	2009-04-15	지입차주 금융지원	상담.안내
1502	2009-04-15	보증채무인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1503	2009-04-15	신용정보회사, 금융권 신용거래 기록 보유 및 활용 개선요	상담.안내
1504	2009-04-15	자동이체에 관한 건	해결
1505	2009-04-15	금융소외권자이면서도 해당이 되지 않아 사채를 써야할것 같습니다	상담.안내
1506	2009-04-15	산와머니 러쉬엔 캐쉬 등 사금융 업체들의 횡포	상담.안내
1507	2009-04-15	새마을금고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해준다기에 .....	상담.안내
1508	2009-04-15	금융감독원 민원 이첩 관련 조치 요청	상담.안내
1509	2009-04-15	민원 연기의 건	상담.안내
1510	2009-04-15	신용보증기금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체종결
1511	2009-04-15	엔화대출자의 정부 지원 호소	상담.안내
1512	2009-04-15	대출에 따른 호소문(2) 유광문	자체종결
1513	2009-04-15	핵심 국책에 관한 제언	상담.안내
1514	2009-04-15	신용회복	해결
1515	2009-04-15	답답한 부산 신용보증기금 배영기 팀장에대해..	상담.안내

1516	2009-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4대 입법목적인 포괄주의, 기능별 규율체제,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강화의 의미를 A4용지 2장 정도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안내
1517	2009-04-16	신용평가에 대하여	상담.안내
1518	2009-04-16	1AA-0904-016437 책임자가 제대로 처리하고 연락해라...	상담.안내
1519	2009-04-16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건	상담.안내
1520	2009-04-16	정확한 현황 조사 및 상장유지 요청	상담.안내
1521	2009-04-16	주식투자에 관한 애로 사항	상담.안내
1522	2009-04-16	보급자리론 상환방식 변경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안내
1523	2009-04-16	신용보증기금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524	2009-04-16	이 불가능 한 환경을 아주 조금만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1525	2009-04-16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상품 판매범위에 대하여	정책제안
1526	2009-04-16	산업은행의 KAI 지분 매각 관련	상담.안내
1527	2009-04-16	금융투자업의 상금감사 자격 요건 관련 질의	자체종결
1528	2009-04-16	사기꾼을 위해서 일하는 신보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신용사회를 위해서	상담.안내
1529	2009-04-16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농락 재산조사	상담.안내
1530	2009-04-16	강남3 구투기지역해제 불가시 생계를 위한 용자의 길은 없는지요	상담.안내
1531	2009-04-16	신용회복	상담.안내
1532	2009-04-16	면책자 대책없으면 국민 우롱하지 마라	상담.안내
1533	2009-04-16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상담.안내
1534	2009-04-16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와 관련하여....	해결
1535	2009-04-16	두기관(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끼리 싸움에 개인의 재산상손실과 정신적 피해	상담.안내
1536	2009-04-16	동양파이낸셜 사채보다 더무섭다	상담.안내
1537	2009-04-16	주식 상장폐지	상담.안내
1538	2009-04-17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539	2009-04-17	대부업 명칭 변경시 고객들의 통지	상담.안내
1540	2009-04-17	상장기업 인수를 위한 펀드조성 방법 문의	해결
1541	2009-04-17	보증채무 이자면제기간중 공동 명의의 지분관계로 이자면제 면책(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542	2009-04-17	개인신용평가에대하여...	상담.안내
1543	2009-04-17	희망모아 협박문건 관련	상담.안내
1544	2009-04-17	국민은행.주택금융공사의 부도덕성	상담.안내
1545	2009-04-1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546	2009-04-17	면책자들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안내
1547	2009-04-17	신용회복.....	해결
1548	2009-04-18	08년 8월26일 면책이 확정 되었으나 채무불이행기록을 삭제 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안내
1549	2009-04-18	신분증과 통장분실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지요..	상담.안내
1550	2009-04-18	사금융에 대한 피해	상담.안내
1551	2009-04-20	명확한 실질심사 요청	상담.안내
1552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 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53	2009-04-20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효력정지 및 해지에 관한진정	상담.안내
1554	2009-04-20	코스닥 상장회사 네오리소스	자체종결
1555	2009-04-20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제.	상담.안내
1556	2009-04-20	코스닥 네오리소스 상장회사	자체종결
1557	2009-04-20	대부업 등록 대상 여부 문의	상담.안내
1558	2009-04-20	대부업체의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상담.안내
1559	2009-04-2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종결

1560	2009-04-20	Synthetic CDO 후순위 보강을 위해 투입한 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1561	2009-04-20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562	2009-04-20	신용보증기금의 이기적인 남용고발	상담.안내
1563	2009-04-20	보증분쟁	상담.안내
1564	2009-04-20	자산관리공사의 비리및 수협비리	상담.안내
1565	2009-04-20	도와주십시오	자체종결
1566	2009-04-20	지급보증요청	상담.안내
1567	2009-04-20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568	2009-04-20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569	2009-04-20	사업경영 애로사항	상담.안내
1570	2009-04-20	연대보증에 대해	상담.안내
1571	2009-04-20	급여미지급청구	자체종결
1572	2009-04-20	저희가족좀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573	2009-04-20	Mtron관련 실질심사대상에 대한 진정서	자체종결
1574	2009-04-20	코스닥업체 엠트론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자체종결
1575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76	2009-04-20	러시앤캐시 구리지점 담당자가 천정엄마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안내
1577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78	2009-04-21	엠트론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체종결
1579	2009-04-21	불법추심 제재좀 해주세여	상담.안내
1580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입니다.	자체종결
1581	2009-04-21	(주)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결정관련 진정서입니다.	자체종결
1582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83	2009-04-21	코스닥 상장기업 MTRON의 실질심사 대상에 대해서...	자체종결
1584	2009-04-21	주식-상장폐지 실질심사중-MTRON	자체종결
1585	2009-04-21	신용보증기금 이용후기	상담.안내
1586	2009-04-21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587	2009-04-21	카드수수료와 대형슈퍼 문제	해결
1588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89	2009-04-21	치욕스럽고 억울 합니다.	상담.안내
1590	2009-04-21	신용보증기금의 횡포(보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건)	상담.안내
1591	2009-04-21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	해결
1592	2009-04-2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593	2009-04-21	산업은행의 기술 재심사 요청	상담.안내
1594	2009-04-21	코스닥 종목인 엠트론의 상장폐지실질검사대상에 대해서	자체종결
1595	2009-04-21	엠트론 상장폐지에 관한 건	자체종결
1596	2009-04-21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효력정지 및 해지에 관한진정	상담.안내
1597	2009-04-21	코스닥 기업 MTRON 상장폐지 심사에 대한 진정	자체종결
1598	2009-04-21	고객을 기만하는 불법추심	상담.안내
1599	2009-04-21	주택담보연금	상담.안내
1600	2009-04-21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 출마자격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01	2009-04-21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602	2009-04-21	입찰이행보증보험의 대표이사 보증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의 한계성. 해결.	자체종결
1603	2009-04-21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국영기업에서 카드제한	해결
1604	2009-04-21	코스닥업체 엠트론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자체종결

1605	2009-04-21	금융지원건	상담.안내
1606	2009-04-21	보험감독업무 개선 관련	상담.안내
1607	2009-04-21	접수번호 1 a a - 0 9 0 4 - 0 0 0 9 8 1 민원 추가사항	상담.안내
1608	2009-04-21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1609	2009-04-22	(주)CLLCD의 부당한 감자를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1610	2009-04-22	농신보자금 변제에대한 요청	자체종결
1611	2009-04-22	엠트론(046320)관련	자체종결
1612	2009-04-22	급성장중인 중소기업을 목조르는 3가지 규제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체종결
1613	2009-04-22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사용에 대한 피해	자체종결
1614	2009-04-22	상장거래폐지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회사입니다	자체종결
1615	2009-04-2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1616	2009-04-22	저소득층 대출에 대하여	해결
1617	2009-04-22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618	2009-04-22	거래소에서 세계1위 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619	2009-04-22	가차명계좌 전면폐지 및 국가운영 신용카드사 설립 운영 관련 건의	해결
1620	2009-04-23	진정 기업의 고충을 헤아리고, 듣고자 하시는 공무원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621	2009-04-23	기업 활동 애로사항 건의	상담.안내
1622	2009-04-23	신용보증기금 심의 기준	상담.안내
1623	2009-04-23	엠트론 실질심사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자체종결
1624	2009-04-23	주택전세자금상환건	상담.안내
1625	2009-04-23	고충	자체종결
1626	2009-04-23	열받네!!!!!!	상담.안내
1627	2009-04-23	지방기업들이 상폐위기에 직면했다.정부는 무얼했는가?	자체종결
1628	2009-04-23	호소드립니다.	자체종결
1629	2009-04-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일부조항변경요구	상담.안내
1630	2009-04-23	대통령 각하 꼭 읽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체종결
1631	2009-04-23	입주자에게 반환할 전세금 대출 도움 요청	상담.안내
1632	2009-04-23	한민족(필독)	상담.안내
1633	2009-04-23	3soft 감사의건거절로 인한 상폐	자체종결
1634	2009-04-23	대부업체(고리사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제안	상담.안내
1635	2009-04-23	3soft 회사 상장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	자체종결
1636	2009-04-23	무조건 상폐는 안됩니다.	자체종결
1637	2009-04-23	코스닥 상장폐지 잘못된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주셔야 합	자체종결
1638	2009-04-23	갑작스런 3soft 상폐결정	자체종결
1639	2009-04-23	2009/04/23 /12:00-13:00 강남성모병원 민정여론보고 및 개선제안	상담.안내
1640	2009-04-23	신용등급회복요청	상담.안내
1641	2009-04-24	코스닥 포넷 (048270) 종목 상장폐지 결정 유보 요청 건	자체종결
1642	2009-04-24	하이력스상폐좀 안됐으면 합니다	자체종결
1643	2009-04-24	자칫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상장기업 실질심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	자체종결
1644	2009-04-24	3SOFT (주)상장폐지에 관하여	자체종결
1645	2009-04-24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등재가 정당하다는 회신이 맞는지?? 유권해석 요망...	상담.안내
1646	2009-04-24	파산면책자 특수기록정보 삭제에 대하여	상담.안내
1647	2009-04-24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탄핵합니다	상담.안내
1648	2009-04-24	신용보증기금 고양지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담.안내
1649	2009-04-24	신용보증기금 이럴수 있는가?	상담.안내

1650	2009-04-24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제20조의 2 등 위반 의심 및 서울보증에 부당한 채권추심 지시	상담.안내
1651	2009-04-24	중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와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2	2009-04-24	중소기업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3	2009-04-24	정부정책으로 인한 상장폐지 (쓰리소프트, IC코퍼레이션, 클투 등)	자체종결
1654	2009-04-24	신용조회기록	상담.안내
1655	2009-04-24	렌터카 회사에서 동의도 없이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상담.안내
1656	2009-04-24	중소 하청 건설업들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7	2009-04-24	2009/04/23 /12:00-13:00 강남성모병원 민정여론보고 및 개선제안	상담.안내
1658	2009-04-24	하이텍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재고요청	자체종결
1659	2009-04-24	이익상실로 인한 불이익 해소	상담.안내
1660	2009-04-24	무차별적인 기업퇴출	자체종결
1661	2009-04-24	기린 회사는 살리는데 투자한 주주는 죽인데요	자체종결
1662	2009-04-24	대한주택보증 공사 중도금 4월13일자부터 백프로 보증	상담.안내
1663	2009-04-24	저의소중한재산 지켜주십시오.	자체종결
1664	2009-04-24	살아보려 몸부림을 치는 신용불량자의 고충을 살펴 주세요	상담.안내
1665	2009-04-24	코스닥 상장 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일방적 피해	자체종결
1666	2009-04-24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자체종결
1667	2009-04-24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에 서민만 죽는다"...소액주주들 반발 확산 (조선닷컴뉴스보도)	자체종결
1668	2009-04-24	이렇게 황당한 일이 !!!	자체종결
1669	2009-04-24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670	2009-04-25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71	2009-04-25	일반법인(XX전자,XX택배 등)이 법인목적추가를 하여 XX은행처럼 새로운 법인 설립없이 은행업 겸업이 가능한가?	상담.안내
1672	2009-04-25	(쥬포넷) 상장폐지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673	2009-04-25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자산관리공사 고객만족팀이 무슨말입니까?	상담.안내
1674	2009-04-27	1201	상담.안내
1675	2009-04-27	소원쯤 들어주세요..	상담.안내
1676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77	2009-04-27	민원접수번호 1 a a -0 9 0 4 - 0 0 0 9 8 1 추가사항	상담.안내
1678	2009-04-27	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당한 채무자 최돈희입니다.	상담.안내
1679	2009-04-27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1680	2009-04-27	신용보증기금 선처	상담.안내
1681	2009-04-27	자산관리공사의 횡포	상담.안내
1682	2009-04-27	상속채무에 관한 채무상속	자체종결
1683	2009-04-27	기술 신보 및 정부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상담.안내
1684	2009-04-27	C & 중공업을 살려주세요 !!!!!	자체종결
1685	2009-04-27	개인정보 이종으로 팔아쳐먹는거도 방치하고 대체 여기가 자유민주국가 맞냐?	자체종결
1686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87	2009-04-27	대부업법 내용중?	상담.안내
1688	2009-04-27	사금융에서 벗어날수있나요.....	상담.안내
1689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90	2009-04-27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1691	2009-04-27	산자부가 소 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692	2009-04-27	코스닥 상장 포넷 횡령 비리.. 고위공무원, 정치인 고발...	자체종결
1693	2009-04-27	서민을 올리는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694	2009-04-27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695	2009-04-27	통장분실	상담.안내
1696	2009-04-27	자산관리공사 실수로 아직도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1697	2009-04-27	억울한 신용불량 등재로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상담.안내
1698	2009-04-27	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당한 채무자 최돈희입니다.	상담.안내
1699	2009-04-28	불법채권추심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담.안내
1700	2009-04-28	자원개발 포넷 관련 산자부 각성하라..산자부 믿었다 소액 주주다죽었다	자체종결
1701	2009-04-28	신용보증기금 연장 거부 관련	자체종결
1702	2009-04-28	상장폐지실질심사.. 너무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703	2009-04-28	저신용등급자 지원제도가 너무 까다롭네요.모두 해당 되도록 해 주세요	해결
1704	2009-04-28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폭언과,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담.안내
1705	2009-04-28	C&중공업(주) 소수주주의 요청	자체종결
1706	2009-04-28	기술신용보증의 억울한 추심행위	상담.안내
1707	2009-04-28	증권거래소는 사기횡령 포넷 전대표 김진도를 도우지 말라	자체종결
1708	2009-04-28	포넷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탄원 진정서	자체종결
1709	2009-04-28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해결
1710	2009-04-28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전액보증에 관하여	상담.안내
1711	2009-04-28	(주)포넷 관련 정치인, 고위공무원 비리 및 주가조작	자체종결
1712	2009-04-28	코스닥상장 포넷 횡령및 비리관련, 고위공무원및 정치인포	자체종결
1713	2009-04-28	(주)포넷관련 정치인, 고위공무원 주가조작및 횡령 관련	자체종결
1714	2009-04-28	채권추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1715	2009-04-28	코스닥 포넷 상장폐지 유예	자체종결
1716	2009-04-28	'포넷' 관련입니다.	자체종결
1717	2009-04-28	통보받지 못한 보증료에 부당한연체이자.	상담.안내
1718	2009-04-29	e-모기지론 이자 납입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719	2009-04-29	대부업체(리드코프)의 과다 추신행위에대해서	상담.안내
1720	2009-04-29	부채잔액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조치 요청	상담.안내
1721	2009-04-29	신용보증기금 정보 도용	상담.안내
1722	2009-04-29	부채 청산 문의	상담.안내
1723	2009-04-29	서민금융프로젝트??	해결
1724	2009-04-29	금융감독원 민원조사 중지된 사안	자체종결
1725	2009-04-29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726	2009-04-29	기업에 압류가 있어도 신용보증서 발급되도록 개선 요청	상담.안내
1727	2009-04-29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728	2009-04-29	신용회복기금 지원에 대한 문의	해결
1729	2009-04-29	전세금 반환액 대출 요청	상담.안내
1730	2009-04-29	중고차 종사원의 할부 수수료에 관한 적법성 질의	상담.안내
1731	2009-04-29	정말이지 하루 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1732	2009-04-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일부조항변경요구	상담.안내
1733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34	2009-04-30	도와주세요. 3soft 경영진. 사기꾼입니다.	상담.안내
1735	2009-04-30	코스닥 상폐대란 관련하여..	상담.안내
1736	2009-04-30	제발 이번 초유의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1737	2009-04-30	대통령님 힘없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38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39	2009-04-30	3SOFT 소액주주-----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740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1	2009-04-30	이번에 상폐당한 3SOFT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742	2009-04-30	3soft란 기업....	상담.안내
1743	2009-04-30	코스닥 상폐대란 관련	상담.안내



1744	2009-04-30	대책없는 서민 죽이기	상담.안내
1745	2009-04-30	ic코퍼레이션 상장폐지된 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46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7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8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9	2009-04-30	증권사기범을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1750	2009-04-30	상폐	상담.안내
1751	2009-04-30	혼자죽어 해결될까, 그렇다고 가족동반자살 해서 끝을볼까,	상담.안내
1752	2009-04-30	코스닥상장폐지기업 조사해주시요.	상담.안내
1753	2009-04-30	믿음에서 출발하여...파탄으로까지...	상담.안내
1754	2009-04-30	상장폐지 (펜텀엔터그룹) 소액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55	2009-04-30	검찰 수사 진행바랍니다	상담.안내
1756	2009-04-30	서민들좀 살려주세요....그리고 한을좀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1757	2009-04-30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상담.안내
1758	2009-04-30	상폐대란	상담.안내
1759	2009-04-30	상장폐지는 힘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상담.안내
1760	2009-04-30	회사 상폐 & 관련	상담.안내
1761	2009-04-30	소액주주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62	2009-04-30	엄벌 바랍니다	상담.안내
1763	2009-04-30	상장폐지 기업 철저히 조사하여 소액주주들 등쳐먹은 범죄자들 쫓 처벌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64	2009-04-30	쿨투 의도적 상장폐기 규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765	2009-04-30	쓰리소프트를 아십니까?	상담.안내
1766	2009-04-30	상폐관련... 피해 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1767	2009-04-30	상장폐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고 답답해서 해결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768	2009-04-30	제발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1769	2009-04-30	수천명의 서민들이 울고있습니다(증권사기 피해신고)	상담.안내
1770	2009-04-30	키코관련 상장폐지 코스닥주 관련	상담.안내
1771	2009-04-30	상폐대란으로 힘없는 개미들 죽어나갑니다	상담.안내
1772	2009-04-30	자강 소액주주입니다.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773	2009-04-30	기관의 공정성과 일관된 업무처리-주식관련	상담.안내
1774	2009-04-30	코스닥 상장폐지대란, 수천명의 서민들이 가정경제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775	2009-04-30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관련한 대표이사 조사 요청건(케이이엔지)	상담.안내
1776	2009-04-30	케이이엔지 소액주주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상담.안내
1777	2009-04-30	모빌링크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만행	상담.안내
1778	2009-04-30	상장폐지를 막아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779	2009-04-30	부당하게 상폐당했습니다.3soft란 회사를 아십니까 소액주주들 보호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80	2009-04-30	3soft주주입니다.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1781	2009-04-30	3soft 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82	2009-04-30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83	2009-04-30	증권범죄 피해를 파헤쳐 주세요!!	상담.안내
1784	2009-04-30	상장폐지..저는 힘없는 대학생입니다.	상담.안내
1785	2009-04-30	상장폐지에 대하여	상담.안내
1786	2009-04-30	수천명의 서민들이 가정경제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787	2009-04-30	3소프트 의 파탄	상담.안내
1788	2009-04-30	살려 주세요~	상담.안내
1789	2009-04-30	저신용자 대출 관련	상담.안내
1790	2009-04-30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791	2009-04-30	부당이자	상담.안내

1792	2009-04-30	면책 받은 자는 왜 금융기관 대출이 안 되는지?	상담.안내
1793	2009-04-30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자체종결
1794	2009-05-01	중국 회사 연합과기 상장	자체종결
1795	2009-05-01	개미 좀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796	2009-05-01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보증출발 박경호 팀장을 고발합니	상담.안내
1797	2009-05-01	서민 소액대출에 대한 문의	해결
1798	2009-05-01	고금리 대출 환승론에 대해서	해결
1799	2009-05-01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상담.안내
1800	2009-05-01	거래소를 어케밀고 투자를하나여	자체종결
1801	2009-05-01	안녕하십니까 유승옥입니다.	상담.안내
1802	2009-05-04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803	2009-05-04	이명박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상담.안내
1804	2009-05-04	파산과 면책 후	상담.안내
1805	2009-05-04	5개월 만에 코스피종목 상폐에 관하여...	자체종결
1806	2009-05-04	신용불량자 회복	상담.안내
1807	2009-05-04	사금융 피해	상담.안내
1808	2009-05-04	2009/05/02/06:00-07:00 보라매공원 트랙 여론보고 및	상담.안내
1809	2009-05-04	명의를 빌려주고 그명의로타인이대출을받은건	상담.안내
1810	2009-05-04	명의를빌려준건	상담.안내
1811	2009-05-04	노후 차량 교체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에 관하여	해결
1812	2009-05-04	보험관계정립	자체종결
1813	2009-05-04	공적자금관리	상담.안내
1814	2009-05-04	"MTRON반드시 상장 유지되어야 한다"	자체종결
1815	2009-05-04	"MTRON은 반드시 상장 유지 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816	2009-05-04	통장확인 건	해결
1817	2009-05-04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818	2009-05-04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상담.안내
1819	2009-05-04	감면 요청	상담.안내
1820	2009-05-04	선처바랍니다 2.	자체종결
1821	2009-05-04	도와주십시오	해결
1822	2009-05-04	과도한 신용조화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823	2009-05-04	신용정보	상담.안내
1824	2009-05-04	중산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25	2009-05-04	사채업법	상담.안내
1826	2009-05-04	독촉전화가 너무 심한데요..	상담.안내
1827	2009-05-04	(쭈)아이비에스코리아 부채현황	상담.안내
1828	2009-05-04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상담.안내
1829	2009-05-04	사채때문에 제 목숨과도 같은 가게를 잃게생겼습니다...도 와주세요..	상담.안내
1830	2009-05-04	금융 계좌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결
1831	2009-05-0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당	상담.안내
1832	2009-05-04	부동산강제집행부당	자체종결
1833	2009-05-06	엠트론은 상장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834	2009-05-06	불법추심	상담.안내
1835	2009-05-06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836	2009-05-06	신용기금 압류?	상담.안내
1837	2009-05-06	관리종목 , 상폐 기준	자체종결
1838	2009-05-06	공매낙찰 후 이해당사자로서 기본 권리인 열람을 하려 했으 나, 열람 협조가 안됨	자체종결
1839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0	2009-05-06	불법사채로인한 급박함 입니다	상담.안내

1841	2009-05-06	대부업 이자율 적용에서 선수이자의 이율적요	상담.안내
1842	2009-05-06	연체이력으로 인한 금융대출 불가	상담.안내
1843	2009-05-06	기술보증기금 연체로 인한 채권보전 가압류 중지 요청	상담.안내
1844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5	2009-05-06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846	2009-05-06	불법 사채업자	상담.안내
1847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8	2009-05-0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료 인상율이 너무 높습니다!!!!	상담.안내
1849	2009-05-06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상담.안내
1850	2009-05-06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1851	2009-05-06	강남구1가구1주택대출규제좀풀어주세요전세안빠져입주해야하는데	상담.안내
1852	2009-05-06	대부업피해	상담.안내
1853	2009-05-06	정한성의 한국 및 세계경제 위기 극복 제안서(제 3차)	상담.안내
1854	2009-05-06	정한성의 한국 및 세계경제 위기 극복 제안서(제 3차)	상담.안내
1855	2009-05-07	구제금융을 받을수없는지요?	상담.안내
1856	2009-05-07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7	2009-05-07	불법사채로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8	2009-05-07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9	2009-05-07	불법사채업자에게 집을 경매 당하게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860	2009-05-07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861	2009-05-07	신용회복 변제중 권저당 설정으로 이사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862	2009-05-07	저신용자대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겁니까	자체종결
1863	2009-05-07	농신보 대출시 호적이 다른 사람의 입보로 인하여 전 재산 압류, 경매위기	상담.안내
1864	2009-05-07	엠트론소액주주 성명서	자체종결
1865	2009-05-07	코스닥 상폐된 건	자체종결
1866	2009-05-07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 희망	상담.안내
1867	2009-05-07	저 신용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은행의 작태	상담.안내
1868	2009-05-07	신용보증기금(테헤란로지점) 부동산가압류건	상담.안내
1869	2009-05-07	매입한 문중당 전소유주의 ,보증으로 경매될상황입니다	자체종결
1870	2009-05-07	적법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자체종결
1871	2009-05-08	환승론 관련	해결
1872	2009-05-08	상장폐지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1873	2009-05-08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상담.안내
1874	2009-05-08	증권거래소 구조조정 추진 요청	상담.안내
1875	2009-05-08	신탁회사의 부동산관리 위탁의 위법성 여부	해결
1876	2009-05-08	이 대통령님, 중산층이 죽습니다.	상담.안내
1877	2009-05-0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건입니다.	상담.안내
1878	2009-05-08	신용보증기금 및 창고 임대 요청	상담.안내
1879	2009-05-08	해외 불법 송금	자체종결
1880	2009-05-08	13억 대출받고 24억을 설정하였다고 24억을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상담.안내
1881	2009-05-08	주식매수청구-07년 12월	자체종결
1882	2009-05-11	신용보증기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련	상담.안내
1883	2009-05-11	파산자 대출	상담.안내
1884	2009-05-11	하이닉스 상생협력 자금 보증 관련	상담.안내
1885	2009-05-11	기업은행 과실로인한 손해	상담.안내
1886	2009-05-11	금융재산	해결
1887	2009-05-11	캐피탈사의 불법추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888	2009-05-11	보증거절 관련..	상담.안내

1889	2009-05-11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1890	2009-05-11	보증에대한 효력상실	상담.안내
1891	2009-05-11	진짜 애가 아프다는데... 정말 화납니다	자체종결
1892	2009-05-11	신용보증기금 제심의 요청건	상담.안내
1893	2009-05-11	동아건설 진정서	자체종결
1894	2009-05-12	노후 차량 교체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에 관하여	해결
1895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6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7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8	2009-05-12	파산후면책에도신용불량	상담.안내
1899	2009-05-12	보증 잘못서 파산자가 된사람이 신용회복을 해서 사업할수 있게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900	2009-05-12	특수채권보유기록	상담.안내
1901	2009-05-12	자산공사 에서 시행하고있는 수급자 채무유예에 대한 모순	상담.안내
1902	2009-05-12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 사항	해결
1903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904	2009-05-12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상담.안내
1905	2009-05-12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906	2009-05-12	신용회복이후	상담.안내
1907	2009-05-13	정부의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상담.안내
1908	2009-05-13	전자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해결
1909	2009-05-13	[금융]전환대출에 대하여...	해결
1910	2009-05-13	정부에서 한다길래 믿고 대출받았던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 [모기지원]에 대한 ...신혼부부의 피눈물.....	상담.안내
1911	2009-05-13	채권추심에아이들가슴에멍드는건	상담.안내
1912	2009-05-13	기술보증기금 보증 관련	자체종결
1913	2009-05-13	한마음금융 (대부신청 이자율)한국자산공사	상담.안내
1914	2009-05-13	신용보증기금 도움 요청	상담.안내
1915	2009-05-13	중소기업 지원 요청	상담.안내
1916	2009-05-13	신용카드 대금입금시 내역정보 표시	해결
1917	2009-05-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보공개창구 불합리한 운용	상담.안내
1918	2009-05-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나친 이자횡포	상담.안내
1919	2009-05-14	대부업....엘하비스트 ...산와머니!!! 잊지않겠습니다	상담.안내
1920	2009-05-14	불법 부동산 가압류 설정	자체종결
1921	2009-05-14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의 실질심사결과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922	2009-05-14	부폐된 코스닥 &머니게임	상담.안내
1923	2009-05-14	보이스피싱을막을수있다	해결
1924	2009-05-14	특수건물(아파트)의 손배책 공제회 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 관한문의 입니다	상담.안내
1925	2009-05-14	파산면책자 금융거래 관련	상담.안내
1926	2009-05-14	채권양도 거절	자체종결
1927	2009-05-14	신용보증기금관련고충	상담.안내
1928	2009-05-14	금융기관 연체이자 적용상 문제점 포괄 검토 요청	상담.안내
1929	2009-05-14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장 관련	상담.안내
1930	2009-05-15	가네	자체종결
1931	2009-05-15	코스닥시장본부의직무유기	자체종결
1932	2009-05-15	왜 민원이 한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나요....?	상담.안내
1933	2009-05-15	1AA-0904-057269 이거 뭐냐?? 장난치냐? 처리한새끼는 대체 누구냐?	자체종결

1934	2009-05-15	CD기비밀번호출방지	해결
1935	2009-05-15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지속적 추심 우편물 발송	상담.안내
1936	2009-05-15	코스닥 본부의 업무태만	자체종결
1937	2009-05-15	대출금리와 저축금리	해결
1938	2009-05-15	은행의대출금리 상한선에 대한생각.	해결
1939	2009-05-15	신용보증기금 피해	상담.안내
1940	2009-05-15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학점 미 인정 사유 및 시정조치 촉구	상담.안내
1941	2009-05-15	자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1942	2009-05-15	코스닥의 헤썬나(036270)는 코스닥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으로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됩니다.	자체종결
1943	2009-05-18	기업사냥꾼들 때문에 서민들만 죽습니다	자체종결
1944	2009-05-18	은행연합회연체기록삭제기간 완화	상담.안내
1945	2009-05-18	주식 공매도제도 허용 할 예정이라는데...	상담.안내
1946	2009-05-18	코스닥의 헤썬나(036270)는 코스닥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으로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됩니다.	자체종결
1947	2009-05-18	안녕하세요 전 소예소액주주 송중선입니다.	자체종결
1948	2009-05-18	신용을 해복해 주세요	상담.안내
1949	2009-05-18	공매도 허용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950	2009-05-18	지디코프(구:네오솔라) 주식 상장폐지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체종결
1951	2009-05-18	사업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려는데....	상담.안내
1952	2009-05-18	코스닥의 헤썬나(036270)는 코스닥본부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으로 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됩니다.	자체종결
1953	2009-05-1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변경으로 상장폐지	자체종결
1954	2009-05-18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독한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955	2009-05-18	신용정보협회의 불친절한 전화대응	상담.안내
1956	2009-05-18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57	2009-05-18	카드 연체에 대해서	상담.안내
1958	2009-05-18	반대매수청구금액-회사미지급시에 관한 명문 규정화	상담.안내
1959	2009-05-18	신용회복을 한 사람을 위한 대출지원	상담.안내
1960	2009-05-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961	2009-05-18	수수료 업주가 아닌 사용자 부담으로 법개정 요구합니다	해결
1962	2009-05-18	화재보험료 납부주체	상담.안내
1963	2009-05-19	자동차사고합의금	자체종결
1964	2009-05-19	소예를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965	2009-05-19	대손처리진행사업무처리절차에대한이의	상담.안내
1966	2009-05-19	대출조건만 알아봐도 신용이 떨어진다?	상담.안내
1967	2009-05-19	한국주택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1968	2009-05-19	2007년도에 유선으로 해결된 상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담.안내
1969	2009-05-19	동결된 은행계좌를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1970	2009-05-19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상담.안내
1971	2009-05-19	은행연합회기록삭제기간 완화 요청	상담.안내
1972	2009-05-19	프리워크 아웃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비 계좌 동결	상담.안내
1973	2009-05-19	IT 전문법인 설립 추진에 따른 법률 위반 여부 질의	상담.안내
1974	2009-05-19	공매도 재허용 관련	해결
1975	2009-05-19	예금보험공사 압류 관련	상담.안내
1976	2009-05-19	자산관리공사 과다 회수 관련	상담.안내
1977	2009-05-20	저축은행의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관련	상담.안내
1978	2009-05-20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1979	2009-05-20	정리금융공사이의	상담.안내
1980	2009-05-20	신용불량자 애게도 구제를....	상담.안내

1981	2009-05-20	무엇인가 잘못된 코스닥 퇴출제도..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자체종결
1982	2009-05-2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83	2009-05-20	정리금융공사의 빚 분할상환 요청!	상담.안내
1984	2009-05-2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85	2009-05-20	서민대출	상담.안내
1986	2009-05-21	™ 인터넷 뱅킹 해킹에 관련하여~~~	해결
1987	2009-05-21	1AA--0905--017516에 대한 질의문답	상담.안내
1988	2009-05-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소홀책임	자체종결
1989	2009-05-21	(주)쓰리웰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의 처사에 관한	상담.안내
1990	2009-05-21	신용보증기금건 탄원서 입니다.	상담.안내
1991	2009-05-21	불법 대부업 사채 근절해 주세요,	상담.안내
1992	2009-05-21	서민대출제도	상담.안내
1993	2009-05-21	저신용자 대출 및 기초수급자 관련 건의	상담.안내
1994	2009-05-21	불법사금융 대책	해결
1995	2009-05-21	지들맘대로하는 국민은행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1996	2009-05-21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상담.안내
1997	2009-05-21	[주택청약종합저축] 영업점별 강제 가입 할당에 대한 피해	자체종결
1998	2009-05-21	대부업체 관련 민원 처리 절차 문의	상담.안내
1999	2009-05-21	신용보증기금때문에 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000	2009-05-21	공매도 허용 철회	해결
2001	2009-05-21	신용회복중인,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안내
2002	2009-05-21	희망모아 에 대해서..	상담.안내
2003	2009-05-21	원금보다 많은 이자	상담.안내
2004	2009-05-21	신용보증기금의 불성실 행태	상담.안내
2005	2009-05-21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상장을 않는이유	해결
2006	2009-05-21	상장폐지3soft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체종결
2007	2009-05-21	금융감독 당국 증권 공매도 금지 해제 발표의건	해결
2008	2009-05-21	저희 회사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009	2009-05-21	신용보증기금 부당 처리 탄원서	상담.안내
2010	2009-05-21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에 관한 탄원서	상담.안내
2011	2009-05-21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상담.안내
2012	2009-05-21	꼭 한번만이라도 읽어봐 주십시오!	자체종결
2013	2009-05-21	카드 발급정지에 대한 제도 문제점 (도와주세요)	해결
2014	2009-05-21	가압류 해제	상담.안내
2015	2009-05-21	공매도 제도 허용 반대	해결
2016	2009-05-2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	해결
2017	2009-05-21	제주시 애월수협 불법대출 검토회의회건	자체종결
2018	2009-05-22	공매도금지 해제 결정과 관련하여	해결
2019	2009-05-22	증권 공매도 해제	해결
2020	2009-05-22	문의 드립니다.	해결
2021	2009-05-22	신용보증에 관하여....	자체종결
2022	2009-05-22	파산면책자들을 위해	상담.안내
2023	2009-05-22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사의 부실	상담.안내
2024	2009-05-22	공매도를 실시하면 안됩니다	해결
2025	2009-05-22	무보증 공모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요청의 건(동산진흥주식회사)	자체종결
2026	2009-05-22	공매도 시행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지요?	해결
2027	2009-05-22	상장폐지...읽어주세요	자체종결
2028	2009-05-22	비울때 우산뺏는 우리나라 은행	상담.안내
2029	2009-05-22	비울때 우산뺏는 은행	상담.안내

2030	2009-05-22	비올때 우산뺏는 우리나라 은행	상담.안내
2031	2009-05-22	연체기록 연합회에삭제요청 속히	상담.안내
2032	2009-05-22	제발 도와주세요...파렴치한 대주주로 인해 저희 가족이 위 협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033	2009-05-22	3soft 상장폐지에 관하여	자체종결
2034	2009-05-22	공매도 문제로 국민의 소리가 았들립니까??	해결
2035	2009-05-22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네요..	상담.안내
2036	2009-05-22	전임대표 연대 보증금액 상환 요청에 따른 조정 요청	상담.안내
2037	2009-05-22	상장사 공시위반 감독의무 유기 고발	자체종결
2038	2009-05-22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39	2009-05-22	코스닥 거래정지 중인 종목의 거래재개	자체종결
2040	2009-05-22	주식반대매수청구관련	상담.안내
2041	2009-05-22	저신용자대출에대해서	상담.안내
2042	2009-05-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 처리 의 순서	자체종결
2043	2009-05-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처리건	자체종결
2044	2009-05-22	대부업 등록 및 재교부 신청 관련 문의	상담.안내
2045	2009-05-22	신용카드연체 및 개인회생	상담.안내
2046	2009-05-2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상담.안내
2047	2009-05-25	정말 저같은 사람은....	상담.안내
2048	2009-05-25	이명박정부, 정말 여러 사람 죽인다.	해결
2049	2009-05-25	존경하는 금융위 원위원장님! 너무 힘들어서 민원 제기합니	자체종결
2050	2009-05-25	민원 처리가 되었나요?	상담.안내
2051	2009-05-25	비영리법인 한국신용교육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상담.안내
2052	2009-05-25	말 바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2053	2009-05-25	강남3구 투기해제 안하려면 사업자들 부동산대출이라도 해 주어야	상담.안내
2054	2009-05-25	은행이신용불량자양산시키는곳,작업도못가지게하는곳입니	상담.안내
2055	2009-05-25	신용정보사의채권추심범위	상담.안내
2056	2009-05-25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관련	해결
2057	2009-05-25	공매도 허용의 배경은 청와대 지시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 인가요?	해결
2058	2009-05-25	기술신용보증의 역올한 추심행위-어의없는 답변과 민원내 용이해부족한 금융위	상담.안내
2059	2009-05-25	서민의 금융 신용관리 평가	상담.안내
2060	2009-05-25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언제 되나요?	자체종결
2061	2009-05-25	저신용자 대출	상담.안내
2062	2009-05-25	저는 IMF때 빌딩신축하다 부도 났어요. 현재 파산면책까지 끝났는데 특수기록때문에...ㅠㅠ	상담.안내
2063	2009-05-25	이자율 문의(2건)	상담.안내
2064	2009-05-25	방법이 없나여?	상담.안내
2065	2009-05-25	파산면책후 대출	상담.안내
2066	2009-05-25	한국주택금융공사 사기	상담.안내
2067	2009-05-25	금감원 홈페이지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한번 보세요. 이번 중시대란의 주범 금융감독원	해결
2068	2009-05-25	중소기업은행의 공장담보 인정비율 상향조정 건의	상담.안내
2069	2009-05-25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해...	상담.안내
2070	2009-05-25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71	2009-05-25	연금저축 가입한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072	2009-05-25	신용정보사와 희망모아의 잘못된 정보공개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2073	2009-05-25	죽기직전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074	2009-05-25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075	2009-05-26	생활고 도움요청	상담.안내
2076	2009-05-26	자산관리공사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관련	상담.안내
2077	2009-05-26	정말 신용 회복 이라도 되나요?	상담.안내
2078	2009-05-26	채무 변제로 인한 마음에 상처는 어떻게 하실건지,.....	상담.안내
2079	2009-05-26	정리금융공사 채권추심에 대한 조사 요청	상담.안내
2080	2009-05-2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조치 관련	상담.안내
2081	2009-05-26	채무불이행자 금융지원 관련	상담.안내
2082	2009-05-26	공매도 관련 의견 표명	해결
2083	2009-05-27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국세환수를 위한 공매처리시 공유자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감정평가이의	상담.안내
2084	2009-05-27	수표발행 수수료를 없애 주세요	상담.안내
2085	2009-05-27	서민 금융 정책	상담.안내
2086	2009-05-27	악덕사채	상담.안내
2087	2009-05-27	창업자금 대출 관련	상담.안내
2088	2009-05-27	채무잔액감면약속불이행	상담.안내
2089	2009-05-27	신용회복 위원회는 누굴 위해 만든건지요	상담.안내
2090	2009-05-27	죄없는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자체종결
2091	2009-05-27	배드뱅크 회원이 이해못하는 처사들...	정책제안
2092	2009-05-27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행 조치 등	상담.안내
2093	2009-05-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자체종결
2094	2009-05-27	채무자관련하여 방치한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95	2009-05-27	대부업 벌금형으로인한 등록증 취소에 관하여	상담.안내
2096	2009-05-27	신용정보 삭제요청에 대한건	상담.안내
2097	2009-05-27	중소기업 어려움 극복 도움요청	상담.안내
2098	2009-05-28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099	2009-05-28	지급명령서	상담.안내
2100	2009-05-28	빚과 간난의 대물림을 막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2101	2009-05-28	신용회복과 관련사항	상담.안내
2102	2009-05-28	메신저 피해 해결방법 문의	해결
2103	2009-05-28	신용회복(대출가능여부확인)	상담.안내
2104	2009-05-28	어떻게해야걱정있고궁금해요	상담.안내
2105	2009-05-28	개인회생중 추심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이 급니다.	상담.안내
2106	2009-05-28	신용 회복	상담.안내
2107	2009-05-28	주식시장 관련 제도 마련 요청	상담.안내
2108	2009-05-28	채권회수의 횡포	상담.안내
2109	2009-05-29	금융기관 이중 인출을 막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2110	2009-05-29	존경 하옵시는 대통령각하	상담.안내
2111	2009-05-29	파산진행중 채무독촉관련건	상담.안내
2112	2009-05-29	채무 상황 문제	상담.안내
2113	2009-05-29	나도 좀 숨을 돌리수 있는 여유가?	상담.안내
2114	2009-05-29	금융권 대출관련	상담.안내
2115	2009-05-29	사채에 간해서	상담.안내
2116	2009-05-29	대부업 관련 행정처분 질의	상담.안내
2117	2009-05-29	방법좀알려주세요	상담.안내
2118	2009-05-29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19	2009-05-29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20	2009-05-29	한 면책자의 고충입니다.	상담.안내
2121	2009-06-01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규정의 불평등 조항	해결
2122	2009-06-01	주식공매도제도 시행 반대	해결
2123	2009-06-01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상담.안내



2124	2009-06-01	이건 도저히..	상담.안내
2125	2009-06-01	도움요청합니다	상담.안내
2126	2009-06-01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록이 2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상담.안내
2127	2009-06-01	기초수급자 신용회복기금 왜안대나요?	상담.안내
2128	2009-06-01	조정을 좀 받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129	2009-06-01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국세환수를 위한 공매처리시 공유자의 재산권보호및 감정평가에대한 이의	상담.안내
2130	2009-06-01	사전채무조정관련	상담.안내
2131	2009-06-01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32	2009-06-01	상장 폐지	해결
2133	2009-06-01	교보생명 관련 민원회신에 대한 의문제기	상담.안내
2134	2009-06-02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 양도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안내
2135	2009-06-02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136	2009-06-02	독촉...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137	2009-06-02	대출보증선처	상담.안내
2138	2009-06-02	신용평가부당	상담.안내
2139	2009-06-02	아파트 매각을 통하여 사업체 구조조정을 하려는데 진짜 안되는것인지요	상담.안내
2140	2009-06-02	파산 면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	상담.안내
2141	2009-06-02	남울주신용협동조합 대출건	상담.안내
2142	2009-06-02	기술보증기금 채권 추심 관련(재민원)	상담.안내
2143	2009-06-02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144	2009-06-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2145	2009-06-02	이중가면의 무서움....	상담.안내
2146	2009-06-02	대출이자 과다	자체종결
2147	2009-06-02	궁금하고 도움 좀 청하려고요~!	상담.안내
2148	2009-06-03	투자권유대행인의 랩어카운트판매	상담.안내
2149	2009-06-0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 및 은행법 제38조 제5호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종결
2150	2009-06-03	고금리전환대출	상담.안내
2151	2009-06-03	기획 마지막 기획(대통령님 보세요)	상담.안내
2152	2009-06-03	자동차처리불만	자체종결
2153	2009-06-03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 요청의 건	상담.안내
2154	2009-06-0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해결
2155	2009-06-0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해결
2156	2009-06-03	대출을 하고싶어요	상담.안내
2157	2009-06-03	군동농협에서 농신보 보증인 을 임의로 세워서 채무자의 부채를 상환 받은건	자체종결
2158	2009-06-03	대부업으로 부터 불법추심의 모욕과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2159	2009-06-03	납입금지급	자체종결
2160	2009-06-04	보증	상담.안내
2161	2009-06-04	불법추심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2162	2009-06-04	무등록 대부업 관련(고금리 사채이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163	2009-06-04	지방화와 신용회복	상담.안내
2164	2009-06-04	서민을 죽이는 시간	상담.안내
2165	2009-06-04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시정요청 및 고발	상담.안내
2166	2009-06-04	신용불량	상담.안내
2167	2009-06-05	범죄자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상담.안내
2168	2009-06-05	금융권을 떠도는 투자확인서에 대한 질문	해결

2169	2009-06-05	신용회복기금... 정말 꼭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170	2009-06-05	연대보증인 구제	상담.안내
2171	2009-06-05	연체기록 유지기간 단축 요청	상담.안내
2172	2009-06-05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조정 관련	상담.안내
2173	2009-06-05	공동주택 화재보험 관련	상담.안내
2174	2009-06-05	무슨제도가 이런지....	상담.안내
2175	2009-06-05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2176	2009-06-05	하자이행증권	상담.안내
2177	2009-06-05	자산관리공사의 DTI규제규정을 재검토요망.	상담.안내
2178	2009-06-08	자동차 보험료 변경에 관하여...	상담.안내
2179	2009-06-08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2180	2009-06-08	인터넷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 문의	해결
2181	2009-06-08	증권거래법위반등	상담.안내
2182	2009-06-08	신용등급 적용의 불합리성	상담.안내
2183	2009-06-08	호소문	해결
2184	2009-06-08	네오리소스 정리매매.가처분청건	해결
2185	2009-06-08	신용보증기금의 Fast track 자금지원의 조속한 실시 요구	상담.안내
2186	2009-06-08	4금융권의 보증채무로 인한 민원	상담.안내
2187	2009-06-09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을 없앤것에 반대합니다.	해결
2188	2009-06-09	서민(저소득층및 생계형 사업자및 저신용자)들의 위한 정부 정책인 캠프의 환승론	해결
2189	2009-06-09	세계은행 창립 관련	상담.안내
2190	2009-06-09	서민전세자금대출,, 왜만든건지요...???...	상담.안내
2191	2009-06-09	대출	해결
2192	2009-06-09	통장을 압류해서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ㅠㅠ	상담.안내
2193	2009-06-09	은행거래내역에 관해서 ...	해결
2194	2009-06-09	금융질서문란자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2195	2009-06-09	금융질서문란자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2196	2009-06-09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꼭 보셔야 합니다 !	상담.안내
2197	2009-06-10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이첩한 사유(교보생명 보험 관련)	상담.안내
2198	2009-06-10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기록 삭제후 재기제 삭제요청	상담.안내
2199	2009-06-10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200	2009-06-10	자산관리공사 채무 유예	상담.안내
2201	2009-06-10	외감법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질의	해결
2202	2009-06-10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가 왔네요.	상담.안내
2203	2009-06-10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해결
2204	2009-06-10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	상담.안내
2205	2009-06-10	제2금융에 대출받은적이 없는데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안내
2206	2009-06-10	(주)코어세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공정시장과-851.2008.5.27일자)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207	2009-06-11	답장이 없어 다시 보냅니다.	상담.안내
2208	2009-06-11	중소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상담	상담.안내
2209	2009-06-11	주택 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2210	2009-06-11	개인정보 누출	자체종결
2211	2009-06-11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민원	상담.안내
2212	2009-06-11	기 제출 민원 관련(1BA-0906-015705 관련)	상담.안내
2213	2009-06-1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14	2009-06-11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15	2009-06-11	서민금융지원 관련	상담.안내
2216	2009-06-11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상담.안내
2217	2009-06-11	LED조명 방열기술에 관하여서는 세계 그 누구와도 견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218	2009-06-12	주택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2219	2009-06-12	은행이의	상담.안내
2220	2009-06-12	채무조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2221	2009-06-12	산업은행의 출자 거부 관련	상담.안내
2222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 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3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 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4	2009-06-12	파산 면책자를 7년동안 묶어 두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	상담.안내
2225	2009-06-12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상담.안내
2226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7	2009-06-12	Fast track 자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상담.안내
2228	2009-06-12	소비자 현혹 후 신용 조회	상담.안내
2229	2009-06-12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상담.안내
2230	2009-06-12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장???	상담.안내
2231	2009-06-12	신용협동조합법 유권 해석 관련	상담.안내
2232	2009-06-15	한국주택금융공사횡포	상담.안내
2233	2009-06-15	민원제기 합니다	상담.안내
2234	2009-06-15	금융감독위원님 보아주세요	상담.안내
2235	2009-06-15	대환대출이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2236	2009-06-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상담.안내
2237	2009-06-15	공모중자시에도 ELS의 기준가조정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요	해결
2238	2009-06-15	기술보증 신청 관련	상담.안내
2239	2009-06-15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관련	상담.안내
2240	2009-06-15	호소	자체종결
2241	2009-06-15	금융위원회 답변 똑바로 해라	상담.안내
2242	2009-06-1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43	2009-06-15	금융감독원 제재업무 공정여부 확인 요청	해결
2244	2009-06-15	부당한 직원행사 관련 진정서	상담.안내
2245	2009-06-16	탄원서를 올립니다.	상담.안내
2246	2009-06-16	○○○○	자체종결
2247	2009-06-16	의료실비 기존가입자 보장축소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2248	2009-06-16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처분의 정당성 여부	상담.안내
2249	2009-06-16	체납세 계좌압류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요청 가능 여부 질의	해결
2250	2009-06-17	고금리전환대출시정	해결
2251	2009-06-1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장여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252	2009-06-17	법인에 대하여 대출실행시 고용대표이사 변경시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2253	2009-06-17	모기자론 관련(실질적인 1주택자)	상담.안내
2254	2009-06-17	신용회복위원회의의 표리부동(황당함)	상담.안내
2255	2009-06-17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2256	2009-06-17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고통지 관련	자체종결
2257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58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59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60	2009-06-17	산업은행의 출자 협조 요청	상담.안내
2261	2009-06-17	주가 액면분할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정책제안
2262	2009-06-17	압류해제	상담.안내
2263	2009-06-18	전세자금 융자 지원건	상담.안내
2264	2009-06-18	학자금대출	상담.안내
2265	2009-06-18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빚줄은 개살구 ㅠ.ㅠ	상담.안내
2266	2009-06-18	신용보증기금 채무연장 거부 관련	상담.안내

2267	2009-06-18	신용보증기금 보증 해제 요청	상담.안내
2268	2009-06-18	민원내용의 보완	상담.안내
2269	2009-06-18	억울합니다.	해결
2270	2009-06-18	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271	2009-06-18	악독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 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2272	2009-06-18	PF 대출 건에관한사항	상담.안내
2273	2009-06-18	억울합니다.	해결
2274	2009-06-18	윙윙 쌍용 제일차 유동화회사	상담.안내
2275	2009-06-1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해결
2276	2009-06-18	아래 사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상담.안내
2277	2009-06-19	공매처분 이의	상담.안내
2278	2009-06-19	긴급 탄원서	해결
2279	2009-06-19	생활자금대출	상담.안내
2280	2009-06-19	계좌추적 어떠한 절차로 진행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결
2281	2009-06-19	못 믿을 정부 금융정책	상담.안내
2282	2009-06-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고 통지 관련	자체종결
2283	2009-06-19	채무불이행자로 물고가려 하나요?...	상담.안내
2284	2009-06-22	보험업법 관련 문의	상담.안내
2285	2009-06-22	증권사 상장공모시 청약자격 차별 및 배정차별에 대한 문의	해결
2286	2009-06-22	키움증권사 hts프로그램 정보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자체종결
2287	2009-06-22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2288	2009-06-22	소액대출질문요	상담.안내
2289	2009-06-22	공무원분들 실적 올리기에 희생양이 된겁니까...	상담.안내
2290	2009-06-22	세상이 싫습니다...	해결
2291	2009-06-22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이참시키지말고 봐주세요 (네오리소스)	해결
2292	2009-06-22	총리님 꼭읽어주세요(네오리소스)	해결
2293	2009-06-22	네오리소스 상폐관련하여~~	해결
2294	2009-06-22	회사로전화하여서 급여압류한다고 협박및3자에게 채무사실을알리고 협박하네요.	상담.안내
2295	2009-06-22	엔화대출 업체입니다.	상담.안내
2296	2009-06-22	코스닥등록기업 네오리소스 주주입니다.	해결
2297	2009-06-22	은행 대출상품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회기록, 신용도 반영을 없애주세요	상담.안내
2298	2009-06-22	어려운 국민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희망모아'	상담.안내
2299	2009-06-22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한 승인 여부 확인 요청	해결
2300	2009-06-22	신용불량조회	상담.안내
2301	2009-06-22	가처분취소요청건	상담.안내
2302	2009-06-22	휴대폰단말기대금	상담.안내
2303	2009-06-23	선납보험료 취소!	자체종결
2304	2009-06-23	대출 보증 기한 연장	자체종결
2305	2009-06-23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 관련	상담.안내
2306	2009-06-23	소액금융대출	상담.안내
2307	2009-06-23	주식공매도 공개	상담.안내
2308	2009-06-23	금융자격증 취득과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309	2009-06-24	채무구상금 손해액 구제신청	상담.안내
2310	2009-06-24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교체 신청	상담.안내
2311	2009-06-24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자체 내부 법령 위반 고발 건	상담.안내
2312	2009-06-24	저소득자대출	상담.안내
2313	2009-06-25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314	2009-06-25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는 지 궁금하군요..	상담.안내
2315	2009-06-25	기술보증기금 채무정리에 대한 변제순위 지정의회의 건	상담.안내
2316	2009-06-25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개선 건의	상담.안내
2317	2009-06-25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318	2009-06-25	대출문의건	상담.안내
2319	2009-06-25	금융실명법 위반행위란?	해결
2320	2009-06-25	수급자	상담.안내
2321	2009-06-26	신탁업 관련 법령 질의	해결
2322	2009-06-26	금융감독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하고 신용회복 조치 청원	상담.안내
2323	2009-06-26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324	2009-06-29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한 법령제정	상담.안내
2325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2326	2009-06-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27	2009-06-29	실손의료비 축소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결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328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29	2009-06-29	서민 대출 관련	해결
2330	2009-06-29	신용불량자 관련	상담.안내
2331	2009-06-29	대부업자의 부당이익금 계산	상담.안내
2332	2009-06-29	개인회생대출	상담.안내
2333	2009-06-29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334	2009-06-29	보험금 환급	자체종결
2335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36	2009-06-29	예금 보험공사 경매취하요청에 도움 주세요.. 200여명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1	자체종결
2337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 주영한 팀장과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38	2009-06-29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변경요청	상담.안내
2339	2009-06-29	자산관리공사전환대출에관하여!!	해결
2340	2009-06-29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상에 문제	해결
2341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42	2009-06-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43	2009-06-29	채권수입 통지 및 채무상환	상담.안내
2344	2009-06-29	네오리소스소액투자자입니다.	해결
2345	2009-06-29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재조정에 대한 문	해결
2346	2009-06-29	말로만신용불량을위하시는지군요	상담.안내
2347	2009-06-3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48	2009-06-30	증권결제 시스템 문제점	해결
2349	2009-06-30	대봉신탁 관련	상담.안내
2350	2009-06-30	일본 돈 환산 지급 요망	자체종결
2351	2009-06-30	민원처리 연장관련	해결
2352	2009-06-30	신용불량자 가장을 위한 금융정책은 없는지요?	상담.안내
2353	2009-06-30	개인회생자 담보대출 은행이자 문제점	상담.안내
2354	2009-06-30	경제적 살인범들 잡아주세요	해결
2355	2009-06-30	억울한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해결
2356	2009-06-30	코스닥 사기 피해 도와 주세요	해결
2357	2009-06-30	단위농협업무처리	자체종결
2358	2009-06-30	감사보고서 적정여부 확인	해결
2359	2009-06-3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2360	2009-06-30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입보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	상담.안내
2361	2009-06-30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입보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	상담.안내
2362	2009-06-30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불법추심에 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63	2009-06-30	질의	자체종결
2364	2009-06-30	대전둔산동 신용보증기금의 횡포에대한 고충	상담.안내
2365	2009-06-30	1AA-0906-032708 질의에 대한 불통보건	상담.안내
2366	2009-06-30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상담.안내
2367	2009-06-30	민원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상담.안내
2368	2009-06-30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불법추심에 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69	2009-06-30	면책자에 대한 완전복권	상담.안내
2370	2009-06-30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상담.안내
2371	2009-06-30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재조정에 대한 문	해결
2372	2009-07-01	면책자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십시오!	상담.안내
2373	2009-07-01	제발 진상을 밝혀 주세요. 사기꾼들이 잘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해결
2374	2009-07-01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2375	2009-07-01	여기가 마지막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
2376	2009-07-01	도와주십시오 ..절망스럽습니다.	해결
2377	2009-07-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매각의 부당한 계약집행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2378	2009-07-01	자산관리공사에 집이 넘어갔는데 은행이자보 더 비싸네요.. 서민들을 위한곳 아닌가요? 공기업인데..	상담.안내
2379	2009-07-01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위한 제도 개선 요망입니다.	상담.안내
2380	2009-07-01	은행연합회 전산기록 미삭제 관련	상담.안내
2381	2009-07-0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압류처분 및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2382	2009-07-0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압류처분 및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2383	2009-07-02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에게 너무한 행정	상담.안내
2384	2009-07-02	신용회복지원자 대출에 대해서	상담.안내
2385	2009-07-02	서민금융	상담.안내
2386	2009-07-02	신용보증기금 채권 추심팀의 횡포	상담.안내
2387	2009-07-02	주택담보대출 규제	상담.안내
2388	2009-07-02	상장폐지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호소문	상담.안내
2389	2009-07-02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저희들 모두 힘을 뭉쳐 싸워 봅니	해결
2390	2009-07-02	솔로몬 캐피탈의 대출과정 업무처리 불량및 상담자 불친절	상담.안내
2391	2009-07-02	다시 일어설수 없는 파산 면책자의삶	상담.안내
2392	2009-07-02	질의	상담.안내
2393	2009-07-02	은행연합회 금융범죄자 코드는 언제쯤 없어 지나요.(금감	상담.안내
2394	2009-07-02	제3자에게 전화해 변제 요청	상담.안내
2395	2009-07-02	고객정보누락 및 고객정보유용	상담.안내
2396	2009-07-02	휴면 주식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해결
2397	2009-07-02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2398	2009-07-02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관련	상담.안내
2399	2009-07-02	상속의무 없는자에게 상속 주장하며 불법채권추심하는 연합에셋(유) 고발	상담.안내
2400	2009-07-02	약8-9년전에해지한인터넷 아직 안넌돈이있다고 연락이계속옵니다	상담.안내
2401	2009-07-02	공인회계사 부정행위 주장 관련 탄원서	자체종결
2402	2009-07-02	채권자에게 돈받고도 신용회복을 안시켜주네요	상담.안내
2403	2009-07-03	영세민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404	2009-07-03	창업 자금 지원 등급 심사 관련	상담.안내
2405	2009-07-03	저 소득층 지원과 신용정보건에 관하여....	상담.안내
2406	2009-07-03	민원제기로 인해 지연된 아파트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상담.안내
2407	2009-07-03	억울하고 분통해서 한번더 글을올립니다 .... 한번만 도와주세요..... 연락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08	2009-07-03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한번더 글을 올립니다 꼭한번더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2409	2009-07-06	일본 화폐 환산 지급 관련 진정	자체종결
2410	2009-07-06	과거 신용불량자는 신용을 회복해도 5 년동안 전과자 인	상담.안내
2411	2009-07-06	핸드폰 결제 유도(신용카드 결제 불가)	해결
2412	2009-07-06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413	2009-07-06	실손보험보장축소	상담.안내
2414	2009-07-06	주식을 찾고 싶은데요	해결
2415	2009-07-06	대부업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416	2009-07-06	배우자에 대한 일상가사채무금 부당청구	상담.안내
2417	2009-07-06	신용회복 중인 사람의 문제점	상담.안내
2418	2009-07-06	실손의료비 보장금액 축소 반대	상담.안내
2419	2009-07-06	법의유연성	자체종결
2420	2009-07-06	공공기금의 가재도구 가압류의 부당성에 대하여	자체종결
2421	2009-07-06	택시기사입니다	상담.안내
2422	2009-07-06	기초수급자신용회복지원	상담.안내
2423	2009-07-06	LTV,DTI 확대시행시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	상담.안내
2424	2009-07-06	전세집이 자산공사로....	상담.안내
2425	2009-07-07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에게 너무나 행정	상담.안내
2426	2009-07-07	피를 토하고 울화가 치밀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정말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상담.안내
2427	2009-07-07	stx그룹	해결
2428	2009-07-07	한국 주택공사직원 인지? 사채업자수준입니다..	상담.안내
2429	2009-07-07	저소득층 소액대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430	2009-07-07	금융위원회 점검 관련	상담.안내
2431	2009-07-07	기보, 신보 관련 연대보증 해제 요청	상담.안내
2432	2009-07-07	대부업체 대출 이자율 관련	상담.안내
2433	2009-07-07	교보생명보험사와의 분쟁 관련	상담.안내
2434	2009-07-08	생,손 통합장해분류표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상담.안내
2435	2009-07-08	파산신청이후	상담.안내
2436	2009-07-08	과거 신용불량자 조회삭제 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437	2009-07-08	소외계층대출	상담.안내
2438	2009-07-08	채무 변제	상담.안내
2439	2009-07-08	배우자신용정보조회	상담.안내
2440	2009-07-08	오페라하우스비상대책	상담.안내
2441	2009-07-08	손해사정사 선임의무	상담.안내
2442	2009-07-08	사채업자보다 더한 한나라 상호 저축은행에 만행에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체종결
2443	2009-07-08	사업자 신용불량	상담.안내
2444	2009-07-08	너무 억울합니다 희망모아에서 해달라는되로 해 주고도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상담.안내
2445	2009-07-0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관련의 건	상담.안내
2446	2009-07-08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제도 운영 관련	상담.안내
2447	2009-07-08	금융감독원에서 간첩사건 피해자 와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회복 희생 조치 요망	상담.안내
2448	2009-07-08	상황을 해도 신용회복은 될수 없단 말입니까?!	상담.안내

2449	2009-07-08	신용회복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2450	2009-07-08	서민을 버랑끝으로 밀어버리는베드뱅크의채권권리	자체종결
2451	2009-07-0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관한 단상	상담.안내
2452	2009-07-09	보험업법 제 185조	상담.안내
2453	2009-07-09	도와주세요 워크아웃부동의로 인한 민원신청입니다	상담.안내
2454	2009-07-09	예전 대환대출 정보 다른 신용회사에 남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455	2009-07-09	질의	상담.안내
2456	2009-07-09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의 과다 부과 및 예치금	자체종결
2457	2009-07-09	보험업법 제4조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2458	2009-07-09	기보, 신보 연대보증 해지 관련	상담.안내
2459	2009-07-09	금융분쟁 재조정 신청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시정 요청	자체종결
2460	2009-07-09	금융질서문란자...삭제기간완화	상담.안내
2461	2009-07-09	제목: 증권시장의 암적 존재 실체파악을 호소 합니다	해결
2462	2009-07-10	법령해석 요청	해결
2463	2009-07-10	주택담보대출규제 서민피해 고려해야....	상담.안내
2464	2009-07-10	한국회계기준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의뢰	해결
2465	2009-07-10	금융거래 적법여부 질의	해결
2466	2009-07-10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문의(코스닥 베리언모어(088810))	해결
2467	2009-07-10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간 신한카드값	상담.안내
2468	2009-07-10	저좀 살려 주세요 ㅠ.ㅠ	상담.안내
2469	2009-07-10	개인 신용 등급으로 인한 카드 발급 문제점	상담.안내
2470	2009-07-10	보험설계사 해고 관련	상담.안내
2471	2009-07-10	주관련 법령명	상담.안내
2472	2009-07-10	손해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및 실손의료비 혜택비율 인하 조정 반대	상담.안내
2473	2009-07-10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개정법령.이란...??	상담.안내
2474	2009-07-10	한마음 금융 채무변제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75	2009-07-10	채무관련(2차)	상담.안내
2476	2009-07-10	국가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상담.안내
2477	2009-07-10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2478	2009-07-10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479	2009-07-10	BHK	상담.안내
2480	2009-07-13	자산관리공사이의	해결
2481	2009-07-13	개인의 금융실명거래 처벌 관계	해결
2482	2009-07-13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 여부	상담.안내
2483	2009-07-13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상담.안내
2484	2009-07-13	서민무보증소액대출에대해서,	상담.안내
2485	2009-07-13	신용보증기금 보증거절에 대한 기가막힌 사연....	상담.안내
2486	2009-07-13	한국주택금융공사 연체료	상담.안내
2487	2009-07-13	탄원서	상담.안내
2488	2009-07-13	경매관련 선처호소	상담.안내
2489	2009-07-13	(은행연합회).문의	자체종결
2490	2009-07-13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91	2009-07-13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상담.안내
2492	2009-07-13	사채업자때문에 죽음을부른사건에대한의논	상담.안내
2493	2009-07-13	간절한 마음!!!	상담.안내
2494	2009-07-14	가정파탄 권하는 사회	상담.안내
2495	2009-07-14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자체종결
2496	2009-07-14	실업자인데,,대출을 받을수가 없어서,,결국엔 금리 40% 사금융을 바라보게 되네요...	상담.안내



2497	2009-07-14	신용등급에대한 사면의견	상담.안내
2498	2009-07-14	500만원 대출 받기 힘드네요	자체종결
2499	2009-07-14	L L L	자체종결
2500	2009-07-1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등재 처사에 대하여	상담.안내
2501	2009-07-15	대출 관련	상담.안내
2502	2009-07-15	금융사 대출조회시	상담.안내
2503	2009-07-15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한 재산 조회 관련..	해결
2504	2009-07-15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한 예금압류 관련..	해결
2505	2009-07-15	대출을받고싶은 데 신용정보 때문에	상담.안내
2506	2009-07-15	신용회복 제도에 대하여	상담.안내
2507	2009-07-15	카드빚을 갚으려하였는데....	자체종결
2508	2009-07-15	신용 회복 요청	상담.안내
2509	2009-07-15	신용조회	상담.안내
2510	2009-07-15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나가 랍니다.	상담.안내
2511	2009-07-15	친권자와 은행	해결
2512	2009-07-15	예금보험공사에 긴급하고 간절한 진정 및 탄원 올립니 다..[탄원서]	해결
2513	2009-07-1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대보증과 신용회복 및 원리금 감면	상담.안내
2514	2009-07-16	전환대출 확대건...연체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2515	2009-07-16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채무 조정 에 관한 무성의 한	상담.안내
2516	2009-07-16	가압류를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2517	2009-07-16	지속민원(3차)	상담.안내
2518	2009-07-16	이명박대통령력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금융위	상담.안내
2519	2009-07-16	채무상환 관련	상담.안내
2520	2009-07-16	교환사채에 대해서	해결
2521	2009-07-16	정말 사기가 판치고 서민들은 살길이없네요.....	상담.안내
2522	2009-07-16	신용회복 관련	상담.안내
2523	2009-07-16	신용회복지원	상담.안내
2524	2009-07-16	법을잘모르는어머님의고통	상담.안내
2525	2009-07-16	대출 관련	상담.안내
2526	2009-07-16	지급보증특약해지시 신용보증기금의 사실확인	상담.안내
2527	2009-07-16	대통령각하	상담.안내
2528	2009-07-16	선물거래시 증거금제도가 꼭필요한건가?	해결
2529	2009-07-17	신용등급과 저신용자 대출	상담.안내
2530	2009-07-17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농,수협 가입 가능여부 문의	상담.안내
2531	2009-07-20	서민 신용대출의 공염불!	상담.안내
2532	2009-07-20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상담.안내
2533	2009-07-20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해결
2534	2009-07-20	위법행위 신고	해결
2535	2009-07-2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536	2009-07-20	금융위원회에대한민원.	상담.안내
2537	2009-07-20	3금융권 대출이자에 대하여....	상담.안내
2538	2009-07-20	금융감독원의 최종입장	자체종결
2539	2009-07-20	민원접수 연장 처리기간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	상담.안내
2540	2009-07-20	신용불량자도 대출좀 받을수없나요	상담.안내
2541	2009-07-20	녹색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관련	자체종결
2542	2009-07-20	빚을 갚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상담.안내
2543	2009-07-20	카드소액결제 안해주면신고한다?	해결
2544	2009-07-20	정부주도 저신용자지원	상담.안내
2545	2009-07-20	공적자금 백서 구입 관련 문의	상담.안내

2546	2009-07-21	생계지원 호소	상담.안내
2547	2009-07-21	여신전문 금융업상 등록회사와 전자금융업법상 등록회사간 결제대행회사의 등록현황	해결
2548	2009-07-21	문자메세지에 속은 운전면허증 팩스사건	해결
2549	2009-07-21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550	2009-07-21	조금더 친절 할 수 있습니다.	자체종결
2551	2009-07-21	*신용회복이 신용을 막는다	상담.안내
2552	2009-07-21	서민지원 말로만 하지말라!	상담.안내
2553	2009-07-21	저신용자 대출에 대하여.....	상담.안내
2554	2009-07-22	금융기관의 영세 상공인들 전세금 환불 탄원서	상담.안내
2555	2009-07-22	제3금융권 대출이자에 대하여....	상담.안내
2556	2009-07-22	대부업 등록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질의	상담.안내
2557	2009-07-22	자산관리공사이의	상담.안내
2558	2009-07-22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상담.안내
2559	2009-07-22	과태료 체납처분	해결
2560	2009-07-22	신용보증기금이의	자체종결
2561	2009-07-22	서민 죽이려는 한마음 금융	상담.안내
2562	2009-07-22	(구)증권업감독규정에 대한 질의	해결
2563	2009-07-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해결
2564	2009-07-22	자산관리공사 채무 조정 요청	상담.안내
2565	2009-07-22	예금보험공사이의	상담.안내
2566	2009-07-22	창업및 일자리창출사업이 실효성이 없는이유 현장에서 다 시 소외되는 이들	상담.안내
2567	2009-07-23	대출선처	상담.안내
2568	2009-07-23	도서 송부의뢰	상담.안내
2569	2009-07-23	부채상환카드도입제	해결
2570	2009-07-23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채무자 가족의 불법 신용정보조화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571	2009-07-23	자산관리공사 채무 상환시일 연장 요청	상담.안내
2572	2009-07-23	2005년 파산면책후 아직까지도 채무상환요청을 하고 있 습니다	자체종결
2573	2009-07-23	정리금융감사실 직원의 기만적인 응대와 법비용증대	상담.안내
2574	2009-07-23	민원번호 1AA-0907-051149 추가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575	2009-07-23	제가 당하고 있는 채권추심이 정당한 것인가요?	상담.안내
2576	2009-07-24	인터넷뱅킹 ActiveX	해결
2577	2009-07-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법률해석 요청	해결
2578	2009-07-24	재산상속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2579	2009-07-2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2580	2009-07-24	신용 정보 탑재	상담.안내
2581	2009-07-24	파산면책	상담.안내
2582	2009-07-24	대부업 대출 이자율 관련	상담.안내
2583	2009-07-24	무능한 예금보험공사	상담.안내
2584	2009-07-24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585	2009-07-24	대출관련	해결
2586	2009-07-24	거짓말만 하는 금융위원회	상담.안내
2587	2009-07-24	금융회사전체	상담.안내
2588	2009-07-24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힘없는 대학생입니다.	상담.안내
2589	2009-07-24	해피텔레콤(삐삐)요금납부에관한건	상담.안내
2590	2009-07-24	서민을위한 금융???	상담.안내
2591	2009-07-24	파산면책자를 위한 대출을 알려주세요	상담.안내

2592	2009-07-28	이 글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상담.안내
2593	2009-07-28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594	2009-07-28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왜이리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는	상담.안내
2595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날까지	상담.안내
2596	2009-07-28	정리금융공사 감사실 직원의 오만불손한 응대와 과도한 법 조치및 법비용발생	상담.안내
2597	2009-07-28	어느 수박장사꾼의 하소연	상담.안내
2598	2009-07-28	담당자의 기만 행위에 분노 하여....	상담.안내
2599	2009-07-28	서민들은 금감원의 실질적인 대부업 조치를 필요로합니다	상담.안내
2600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날까지	상담.안내
2601	2009-07-28	한국주택금융공사 도둑놈들...	상담.안내
2602	2009-07-28	10년전에 종이장이 되어 버린 동화은행 주식을 찾아 주세	해결
2603	2009-07-28	한국 증권 거래소의 보복행정 네오리소스 2번 상장 폐지	해결
2604	2009-07-28	나의제안	상담.안내
2605	2009-07-28	다중 채권 매각자의 신용 회복	상담.안내
2606	2009-07-28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607	2009-07-28	신용불량회복지원	상담.안내
2608	2009-07-28	살곳이 없습니다	상담.안내
2609	2009-07-28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시험 자격?	해결
2610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날까지	상담.안내
2611	2009-07-28	공제가입 시 '화보법'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인정에 관한 질	상담.안내
2612	2009-07-28	무주택조화에 관해서	상담.안내
2613	2009-07-28	신용회복제도를 통하여 완제했는데도 신용회복은 불가능합니까?	상담.안내
2614	2009-07-28	세금채납자신용불량통보유에	상담.안내
2615	2009-07-28	현대 백화점에서 무단으로 제 주민 등록 번호로 자동차 보험 만기일을 알아 봤읍니다.	상담.안내
2616	2009-07-28	전세권(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정분류 등 질의 민원	상담.안내
2617	2009-07-28	백화점 카드 만들때 약관에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점	상담.안내
2618	2009-07-28	베드뱅크의 가혹한 채권 추심이 절망을 부치기는데;;;	상담.안내
2619	2009-07-28	7월17일 어렵게 공공I-PIN 인증까지 받아서 민원을 올렸습니지만 아직까지도	상담.안내
2620	2009-07-28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삭제에 관한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621	2009-07-28	베드뱅크이라는데는 사채업인가????	상담.안내
2622	2009-07-28	민원번호 1AA-0907-047780의 추가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623	2009-07-28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상담.안내
2624	2009-07-29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625	2009-07-29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626	2009-07-29	이동훈주무관님 <1AA-0906-066362> 민원처리 하지도 않고 "처리완료"라고 하면 안됩니다.	상담.안내
2627	2009-07-29	민원업무처리 위반 등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 통보	자체종결
2628	2009-07-29	개인회생신청 불인가에따른 채무분납신청	자체종결
2629	2009-07-29	조회 기록때문에....	상담.안내
2630	2009-07-2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631	2009-07-29	주택연금 취급부서 및 전화번호 요망	상담.안내
2632	2009-07-29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 부담 및 부동산강제경매 문의	상담.안내
2633	2009-07-29	사업자 대출	상담.안내
2634	2009-07-29	금융감독원 간부비리 조사 요청	자체종결
2635	2009-07-29	저소득 담보대출증	상담.안내
2636	2009-07-29	주택자금 대출 분납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637	2009-07-30	상담원 안내 인지 부족으로 신용등급 하락	자체종결
2638	2009-07-30	신용에관하여	상담.안내
2639	2009-07-30	위법행위신고( 09.7.15. 1AA -0907-035048 호 와 관련입	해결
2640	2009-07-30	제발 살려 주세요.	해결
2641	2009-07-30	가계수표제도개선	상담.안내
2642	2009-07-30	너무 힘듭니다.. T.T	상담.안내
2643	2009-07-30	또라이 집단 예금보험공사	자체종결
2644	2009-07-30	8.15특사때 포함해주시면 어떨까요	상담.안내
2645	2009-07-30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보내주마	자체종결
2646	2009-07-31	신용상태 양호하나 임대 차(전대) ,사업자 신뢰감 부족등, 보증신청반려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647	2009-07-31	신용대출에관하여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648	2009-07-31	^^ 도움의 손길	상담.안내
2649	2009-07-31	신용거래정보등재 삭제요청을 묵살하고 있어요	상담.안내
2650	2009-07-31	너무 어렵고 힘든일 어디다 하소연 할 때 도 없어 이렇게..	해결
2651	2009-07-31	신용회복기금 채무 상환 절차 관련	상담.안내
2652	2009-07-31	보험업법감독계정과 보험청약거절	상담.안내
2653	2009-07-31	파산면책건	상담.안내
2654	2009-08-03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기준 여부	해결
2655	2009-08-03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 축소	상담.안내
2656	2009-08-03	장기전세주택 입주관련	해결
2657	2009-08-03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2658	2009-08-03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미전환수수료 부과 이의제기	상담.안내
2659	2009-08-03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의 형평성에 관하여....	상담.안내
2660	2009-08-03	이번 사면은 신용관련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상담.안내
2661	2009-08-03	채무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2662	2009-08-03	개인회생 후 모든 신용거래 불가!	상담.안내
2663	2009-08-03	이명박 대통령님께 호소하는글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실질 심사 관련)	해결
2664	2009-08-03	금융위원회 위원님 제발 저의가족 모두를 살려 주십시오..	해결
2665	2009-08-03	진정서	해결
2666	2009-08-03	윈드 스카이 소액주주	해결
2667	2009-08-03	(주)윈드사카이를 살려주십시오	해결
2668	2009-08-03	(주)윈드스카이 소액투자자 입니다	해결
2669	2009-08-03	대통령님.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주)윈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해결
2670	2009-08-03	대통령할아버지... 저희가족을 구해주세요	해결
2671	2009-08-03	명의 도용 관련	해결
2672	2009-08-04	의료실비 금감원에서 왜 90%로 내리라고 지시하고 난리야	상담.안내
2673	2009-08-04	마일리지 제도 활용방안 제안	해결
2674	2009-08-04	추가대출	상담.안내
2675	2009-08-04	신용회복을 통한 변제 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승인 거절.	상담.안내
2676	2009-08-04	면책자에대한 전세자금대출 차별정책	상담.안내
2677	2009-08-04	임대아파트 입주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2678	2009-08-04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캠코 전환대출에 대한 문의입	상담.안내
2679	2009-08-04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680	2009-08-04	저희 친정 큰댁어른들의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	상담.안내
2681	2009-08-04	개인신용등급을 표시하는 신용평가회사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인 근거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682	2009-08-04	대부업 제한사유 해당 여부 문의	상담.안내
2683	2009-08-05	신용회복을 위해서	자체종결
2684	2009-08-05	희망모아는 절망모아의 거짓된이름인가	상담.안내

2685	2009-08-05	희망모아인지 절망모아인지	상담.안내
2686	2009-08-05	꼭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상담.안내
2687	2009-08-05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 주세요	해결
2688	2009-08-05	억울합니다	해결
2689	2009-08-05	희망이 보이는 회사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해결
2690	2009-08-05	한국거래소에 관한 주식상장 폐지심사결정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결
2691	2009-08-05	주택자금 대출 분납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692	2009-08-05	당신들 다해드세요	상담.안내
2693	2009-08-05	억울한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오	해결
2694	2009-08-05	강제집행 실행 관련	상담.안내
2695	2009-08-05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관련 조사 요청	자체종결
2696	2009-08-05	캠코환승에 대한 건 입니다.	상담.안내
2697	2009-08-05	저소득자대출문의	상담.안내
2698	2009-08-05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간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질의서	상담.안내
2699	2009-08-05	사금융 자동차 담보대출 때문에 글을씁니다	상담.안내
2700	2009-08-06	국민우선주 제도 도입	해결
2701	2009-08-06	신용정보법 제 25조	상담.안내
2702	2009-08-06	윈드스카이 소액주주입니다. 상폐심사관련해 하소연드립니다.	해결
2703	2009-08-06	개인파산 면책후 신불삭제	상담.안내
2704	2009-08-06	죽기전에 마지막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705	2009-08-0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에 대한건	상담.안내
2706	2009-08-06	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방법	해결
2707	2009-08-06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상담.안내
2708	2009-08-06	힘든 경제여건에 경매 남용 고충신고	상담.안내
2709	2009-08-06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저신용자 전환대출에 대해서..	상담.안내
2710	2009-08-06	장난질 하는 신용회복 기금 & 우리 은행	상담.안내
2711	2009-08-06	윈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결
2712	2009-08-06	선처해주세요	해결
2713	2009-08-06	개인의견	상담.안내
2714	2009-08-07	신용거래정보등록자는대출안됨	상담.안내
2715	2009-08-07	신용회복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지원대출이 안되어 막막합니다..	상담.안내
2716	2009-08-07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17	2009-08-07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토지 임차 관련	자체종결
2718	2009-08-07	저소득층 대출 지원 호소	상담.안내
2719	2009-08-07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불만	상담.안내
2720	2009-08-07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사건 조사 요청	자체종결
2721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영주	상담.안내
2722	2009-08-10	의료실비 축소정책에 관해	자체종결
2723	2009-08-10	실손의료(민간의료보험) 축소	자체종결
2724	2009-08-10	체크카드의 정의	해결
2725	2009-08-1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726	2009-08-10	자동차보험 해지	자체종결
2727	2009-08-10	보험모집인의 직위	상담.안내
2728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재산 압류 처분 해지 요청	상담.안내
2729	2009-08-10	법인 통장번호 확인 요청	해결
2730	2009-08-10	대통령 할아버지께	상담.안내
2731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발상의 전환요구	자체종결
2732	2009-08-10	인감도장과 증명서 를 빌려 드렸는데 사망 했어요	상담.안내

2733	2009-08-10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34	2009-08-10	신용카드	해결
2735	2009-08-10	우리나라 대출 이래두 되는건가요	상담.안내
2736	2009-08-11	도와주셔야합니다.법과제도가빈약하여일어나는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	해결
2737	2009-08-11	우이독경 공화국	상담.안내
2738	2009-08-11	"이자율"의 의미?	해결
2739	2009-08-11	엔화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2740	2009-08-12	공인회계사 부정행위 주장 관련	해결
2741	2009-08-12	사채업자보다 더 지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2742	2009-08-1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건	상담.안내
2743	2009-08-12	엔화 차입 관련	상담.안내
2744	2009-08-12	약정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745	2009-08-12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 1팀장	자체종결
2746	2009-08-12	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요청	상담.안내
2747	2009-08-12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제기	해결
2748	2009-08-12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관련 조사 요	자체종결
2749	2009-08-12	신용카드사용에대해서	해결
2750	2009-08-12	신불자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상담.안내
2751	2009-08-12	신용등급에관한건	상담.안내
2752	2009-08-12	신용회복 신청자 복권 및 신용카드 사용 건	상담.안내
2753	2009-08-13	카드연체이자탕감방법있나요	상담.안내
2754	2009-08-13	캠코 환승론의 향후 확대진행에 대한 신청	상담.안내
2755	2009-08-13	채무해결 관련	상담.안내
2756	2009-08-13	대통령님 제송합니다 너무힘드부탁드여서요	상담.안내
2757	2009-08-13	과태료 분할납부가능여부및 소액대출관련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758	2009-08-13	인터넷뱅킹에 대해 몇마디만 해주세요...	해결
2759	2009-08-13	대출관련	상담.안내
2760	2009-08-13	동부화재 신용정보법 제25조에 의거 자료 서면 회신 요구	상담.안내
2761	2009-08-13	캠코 전환대출 문의..	상담.안내
2762	2009-08-13	영세민 소액대출	상담.안내
2763	2009-08-13	캠코 전환대출에 대해 민원 접수합니다.	상담.안내
2764	2009-08-13	'정부지원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자체종결
2765	2009-08-13	어이없는 채권추심	상담.안내
2766	2009-08-13	금융소외자 지원조정 에따른 문의	상담.안내
2767	2009-08-13	사채관련...	상담.안내
2768	2009-08-13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체종결
2769	2009-08-14	안녕 하세욤...	상담.안내
2770	2009-08-14	자필서명없는 연대보증인의 의무	상담.안내
2771	2009-08-14	화재보험 설계사좀 먹게살게 해주세요	상담.안내
2772	2009-08-14	거래소프로그램매매사전매매공시제도	해결
2773	2009-08-14	개인회생자 대출제도 마련시급	상담.안내
2774	2009-08-14	저의 신용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상담.안내
2775	2009-08-14	저의 신용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자체종결
2776	2009-08-14	가압류 해지 요망	상담.안내
2777	2009-08-14	전환대출에 관해서	상담.안내
2778	2009-08-14	FX마진거래 관련 금융위의 관리 범위 질의	해결
2779	2009-08-14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우리은행 사기채권 대질 요청	자체종결
2780	2009-08-14	전환대출 캠코 민원 신청합니다	상담.안내
2781	2009-08-14	저소득층 융자요청	상담.안내

2782	2009-08-14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중 법인의 실명확인 방법	해결
2783	2009-08-14	교보생명 관련 분쟁 민원	자체종결
2784	2009-08-14	개인회생자 절세정책	상담.안내
2785	2009-08-17	유치권 신고 공시 시정 조치의 건	상담.안내
2786	2009-08-17	채무통합/환승론	상담.안내
2787	2009-08-17	채권,채무자의 구분 여부	자체종결
2788	2009-08-17	저신용자들을 위한 전환대출에 대해서.	상담.안내
2789	2009-08-17	금융기관의 낙전에 대한 개선	상담.안내
2790	2009-08-17	연체등록금액 조정건	상담.안내
2791	2009-08-17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면제 요청	상담.안내
2792	2009-08-1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으뜸 상호저축은행 회생지원 건의	해결
2793	2009-08-17	면책기록	상담.안내
2794	2009-08-17	특수기록채권관련	상담.안내
2795	2009-08-17	면책 받았는데 왜 계속 감사 받아야 하나	상담.안내
2796	2009-08-17	특수기록 때문에 살수없다	상담.안내
2797	2009-08-17	생계형 서민대출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는 것인 지요?	상담.안내
2798	2009-08-17	지속민원	자체종결
2799	2009-08-17	무조건 대출 된다고 하고 신용조회건수만 올리는 곳	상담.안내
2800	2009-08-18	대출금완납이 지난 후에도 채무로 기록이되어 있어서 신용 이 하락되었습니다.	상담.안내
2801	2009-08-18	세금 탈루 관련	상담.안내
2802	2009-08-18	리모델링 공사시 화재보험 가입 여부	상담.안내
2803	2009-08-18	대부업등록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대상 범위	상담.안내
2804	2009-08-18	질의서	상담.안내
2805	2009-08-18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의 황당한 요구로 기업경영이 어렵 습니다.	상담.안내
2806	2009-08-18	젊은이의 패기를 꺾는 기술보증기금	자체종결
2807	2009-08-18	대출이 필요해요	상담.안내
2808	2009-08-18	신용회복건	상담.안내
2809	2009-08-18	신용보증기금(제주)	상담.안내
2810	2009-08-18	개인 채무 확인요청	상담.안내
2811	2009-08-18	사이트에 오류가 많아 신고가 무척 어렵고 짜증납니다~ !!!	상담.안내
2812	2009-08-18	대출문의	상담.안내
2813	2009-08-18	윈드스카이 상폐결정	해결
2814	2009-08-18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2815	2009-08-18	과연 이나라의 거래소는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지?????	해결
2816	2009-08-18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해결
2817	2009-08-18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818	2009-08-18	면책후 7년간의 특수기록	상담.안내
2819	2009-08-18	꼭좀부탁드려여	상담.안내
2820	2009-08-18	자산관리공사 채무 상환 요구 관련	상담.안내
2821	2009-08-18	연체 공유	자체종결
2822	2009-08-19	윈드스카이 상폐 결정에 관한 억울함	해결
2823	2009-08-19	윈드스카이상폐에 대한 부당함 진정	해결
2824	2009-08-19	윈드스카이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만행이다...	해결
2825	2009-08-19	증권 거래소만 믿다가 전재산 날렸습니다	해결
2826	2009-08-19	금융권 융자 요청	상담.안내
2827	2009-08-19	부동산 대출규제 건 개선안 요청및 연봉에따른 세제 혜택	상담.안내
2828	2009-08-19	거래소의 부정부패	해결
2829	2009-08-19	정말 돌아버릴정도로 너무하네요	상담.안내

2830	2009-08-19	한국거래소 서종남 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
2831	2009-08-19	거래소 공시 팀장은 너무 합니다. 2009년 반기 회계보고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다.	해결
2832	2009-08-19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래소의 잣대에 여기 선량한 투자자들은 쓰러져 갑니다.	해결
2833	2009-08-19	개미 죽이는 코스닥 거래소 (윈드 스카이)	해결
2834	2009-08-19	상장폐지발표된 윈드스카이(052290)재고요청드립니다	해결
2835	2009-08-19	한국 거래소의 코스닥기업(윈드스카이)상폐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결
2836	2009-08-19	윈드 스카이 상장폐지 사유	해결
2837	2009-08-19	윈드스카이 이렇게 거래소 마음대로 08년도 자료를 가지고 상폐시킬순 없는겁니다.	해결
2838	2009-08-19	거래소직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길거리 나았게 생겼 습니다	해결
2839	2009-08-19	(주)윈드스카이 상장폐지 결과 이의 제기합니다.	해결
2840	2009-08-19	금융감독원 원장님 제발 이글 읽 어 보세요...	해결
2841	2009-08-19	증권 거래소를 신고 합니다.	해결
2842	2009-08-19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 에 주주한명입니다	해결
2843	2009-08-19	거래소의 상폐기준이 뭔가요.. 힘없는 개미 투자자 죽이기 인가요?	해결
2844	2009-08-19	현 거래소의 횡포	해결
2845	2009-08-19	소액주주입니다.	해결
2846	2009-08-19	거래소의 어처구니 없는 심사에 분노합니다.	해결
2847	2009-08-19	주식회사 윈드스카이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감사요청	해결
2848	2009-08-19	주식상장폐지에 대해 의혹	해결
2849	2009-08-19	""금융 거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의 거래 당사자 여부	해결
2850	2009-08-19	한국 증권거래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해결
2851	2009-08-19	코스닥 심사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52	2009-08-19	코스닥 심사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53	2009-08-19	거래소의 횡포가 분명합니다.	해결
2854	2009-08-19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조기상환 이자 관련 문의	상담.안내
2855	2009-08-19	윈드스카이 상폐의 억울함 ....	해결
2856	2009-08-20	불합리한 신용보증기금부천지점	자체종결
2857	2009-08-20	저소득층 대출 관련	상담.안내
2858	2009-08-20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합니다.	해결
2859	2009-08-20	예탁유가증권 전부명령	자체종결
2860	2009-08-20	국민은행 임대아파트 대출후 특수채권 편입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상권 채무	상담.안내
2861	2009-08-20	한국거래소 서종남 공시관리팀장을 직권남용및 직무유기혐의로 신고합니다	해결
2862	2009-08-20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 에 주주한명입니다	해결
2863	2009-08-20	(주)윈드스카이 상장폐지심의 결과에 대해서..	해결
2864	2009-08-20	거래소의 상장폐지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보호 기준이 무엇 인지 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해결
2865	2009-08-20	억울합니다.....서민을 죽이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
2866	2009-08-20	증권거래소의 불투명함을 신고합니다.	해결
2867	2009-08-20	저소득층 금융지원 요청	상담.안내
2868	2009-08-20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 에 주주한명입니다	해결
2869	2009-08-20	자산관리공사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870	2009-08-20	소액투자 관련	해결



2871	2009-08-20	거래소의 부정한 상폐심사결정	해결
2872	2009-08-20	증권 거래소의 상장폐지 잣대	해결
2873	2009-08-20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지급관련인 등록 이의제기	상담.안내
2874	2009-08-20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관련 조사 요	자체종결
2875	2009-08-20	유사 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질의	상담.안내
2876	2009-08-20	## 윈드 스카이가 말도 안되는 거래소의 전봇대로 인해 죽어갑니다.	해결
2877	2009-08-20	윈드스카이 재평가 부탁 드립니다.	해결
2878	2009-08-20	중복된 채권압류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2879	2009-08-20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2880	2009-08-20	신용보증기금시화동지점신해인대리	상담.안내
2881	2009-08-20	2009년 증권거래소의 (주) 윈드스카이 상장폐지결정에 대	해결
2882	2009-08-20	윈드스카이 소액주주로서 상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2883	2009-08-21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결
2884	2009-08-21	신용보증기금의 분할상환계약파기의 부당함에 대한처리요	상담.안내
2885	2009-08-21	거래소의 그릇된 판단과 만행을 고발 합니다.	해결
2886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887	2009-08-21	파산면책자신용불량자 보다못한 삶	상담.안내
2888	2009-08-21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거래소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해결
2889	2009-08-21	거래소 서종남팀장의 주관적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90	2009-08-21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에 대해	해결
2891	2009-08-21	한국거래소의 횡포	해결
2892	2009-08-21	한국 거래소는 청와대 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해결
2893	2009-08-21	거래소 횡포!! 정말 억울하고!! 이가갈리고!! 피가 역류합니	해결
2894	2009-08-21	개인회생제도	상담.안내
2895	2009-08-21	신용등급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상담.안내
2896	2009-08-21	윈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해결
2897	2009-08-21	증권거래소와윈드스카이	해결
2898	2009-08-21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개선해 주십	해결
2899	2009-08-21	증권 거래소의 행포에 서민들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
2900	2009-08-21	(주)윈드스카이의 위법한 상장폐지심사	해결
2901	2009-08-21	코스닥위원회의 전횡	해결
2902	2009-08-21	거래소에말도안되는 상폐진단 조사해주세요	해결
2903	2009-08-21	거래소의 만행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해결
2904	2009-08-21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에 주주한명입니다	해결
2905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 의혹 감사(윈드스카이)	해결
2906	2009-08-21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해결
2907	2009-08-21	직권남용 코스닥거래소	해결
2908	2009-08-21	저소득 생계대출 희망	상담.안내
2909	2009-08-21	대한민국 기술이 유출될수도 ...	해결
2910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11	2009-08-21	으뜸상호저축은행 회생 지원 건의	해결
2912	2009-08-21	한국증권거래소의 잘못된 업무	해결
2913	2009-08-21	이럴순없읍니다	해결
2914	2009-08-21	앞 뒤 좌우 사방팔방도 모르는 거래소 직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결
2915	2009-08-21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대해 민원 올립니다.	해결
2916	2009-08-21	한국 거래소는 청와대 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해결

2917	2009-08-21	국내 대리인이 해외 체류자에게 대리 인출, 송금하는 절차	상담, 안내
2918	2009-08-21	원드스카이(상장사)에 대한 거래소의 만행 폭로	해결
2919	2009-08-21	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 실집심사관련 - 원드스카이	해결
2920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21	2009-08-24	건물매각으로 인한 분쟁	상담, 안내
2922	2009-08-24	7월말 손해보험 보장을 축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백지화 or 유예기간 연장 요망	상담, 안내
2923	2009-08-24	일수, 또는 대부업체	상담, 안내
2924	2009-08-24	7월말 손해보험 보장을 축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상담, 안내
2925	2009-08-24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탕감 및 분 할상환 청원에 관한 건	상담, 안내
2926	2009-08-24	신용불량해제	상담, 안내
2927	2009-08-24	한국 거래소 공지 위반입니다...	해결
2928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렇게 위법하게 나쁜 짓 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해결
2929	2009-08-24	(주)한국거래소의 불법적인 (주)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시도 를 무효화 해 주십시오	해결
2930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주)원드스카이와 주주 들에 대한 위법행위 일정내 역표	해결
2931	2009-08-24	동일채권에 대한 이중채권행사에 관한 피해	상담, 안내
2932	2009-08-24	원드스카이 상장폐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해결
2933	2009-08-24	보험계약에 대한 해제요망	상담, 안내
2934	2009-08-24	신용불량자(연체자)에게도 금융권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배 려을 하여주십시오.	상담, 안내
2935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원드스카이에 한 만행을 파악하여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	해결
2936	2009-08-24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37	2009-08-24	저당차량 소유로 폐차를 못해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	상담, 안내
2938	2009-08-24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압류로 인한 피해	상담, 안내
2939	2009-08-24	상장회사 원드스카이 의 억울함, 분통함...	해결
2940	2009-08-24	각하 단 한번만이라도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해결
2941	2009-08-24	전세자금 대출 관련 신용불량 문제	상담, 안내
2942	2009-08-24	의료실비보험 적용 규정에 대해서..	상담, 안내
2943	2009-08-24	거래소 횡포!! 정말 억울하고!! 이가갈리고!! 피가 역류합니	해결
2944	2009-08-25	거래소에서 상폐이유를 공시하지도 않고 상폐를 결정했습	해결
2945	2009-08-25	파산 후 면책받은 사람들에게도 서민소액대출 기회를 주세	상담, 안내
2946	2009-08-25	국민제안	상담, 안내
2947	2009-08-25	코스닥 공시팀 상폐 면제 기업과 원드 스카이 비교.	해결
2948	2009-08-25	코스닥 주 원드스카이관련 거래소의 상폐결정에 대한 민원	해결
2949	2009-08-25	신용회복원합니다	상담, 안내
2950	2009-08-25	이게 문제 해결인가요?	상담, 안내
2951	2009-08-25	잘 부탁 드립니다	자체종결
2952	2009-08-25	부동산으로 돈버는건 좋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해결
2953	2009-08-25	공매도 관련주 유일엔시스 관련	해결
2954	2009-08-25	[파산면책]을받은특수기록소유자에게도저소득전세자금대 출의길을열어주시기를..	상담, 안내
2955	2009-08-25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오승준씨 보십시오!	상담, 안내
2956	2009-08-25	신용조회및 추심관련	상담, 안내
2957	2009-08-26	차상위 계층으로 긴급 지원을 바랍니다	상담, 안내
2958	2009-08-26	5년동안 한번도 연체 사실 고지 않찬채 지연이자를 내라고 한 경우	상담, 안내

2959	2009-08-26	5년 동안 한번도 연체 사실 고지 하지 않은채 지연이자 배 상요구함	상담.안내
2960	2009-08-26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에 관한 건!	해결
2961	2009-08-26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962	2009-08-26	항암제 세라젠	해결
2963	2009-08-26	특수건물인 경우 수협공제에 화재보험가입가능여부 질의	상담.안내
2964	2009-08-26	지속민원	자체종결
2965	2009-08-26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부당성	해결
2966	2009-08-2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업종별 차이의 구체적 이유	해결
2967	2009-08-26	부당한 채무액에 대한 민원신청합니다.	자체종결
2968	2009-08-26	서민 자금융대환대출 꼭!!!!해주세요	상담.안내
2969	2009-08-26	윈드스카이 주주입니다	해결
2970	2009-08-26	연대보증인 처우에 관하여	상담.안내
2971	2009-08-26	플러스상호저축은행직원들	상담.안내
2972	2009-08-26	전세값상승을 대출규제로 잡겠다니?	상담.안내
2973	2009-08-26	채권 추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2974	2009-08-26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조회	상담.안내
2975	2009-08-26	한국 증권거래소 의 만행	해결
2976	2009-08-26	영업정지된 금융기관과 그 업무 인수 금융기관	상담.안내
2977	2009-08-26	차명계좌의 채무이행책임 관련 문의	해결
2978	2009-08-26	오래된 통장의 돈을 찾기도 어렵고, 50%가 넘는 추정금을 왜 물어야하나요?	해결
2979	2009-08-26	자산공사 직원 직불금 수령 징계 관련	자체종결
2980	2009-08-26	과 시성 소비행태를 억제하고 실질 저축을 높이자 (강화하	상담.안내
2981	2009-08-26	코스닥 공시팀 상폐 면제 기업과 윈드 스카이 비교.	해결
2982	2009-08-26	윈드스카이 상폐건에 대한 서툼장에 대한 조사부탁드립니	해결
2983	2009-08-26	억 올 합 니 다. 다 시 한 번 봐 주 십 시 요.	해결
2984	2009-08-26	한국거래소는 윈드 스카이 회사를 협박 하고 있습니다...	해결
2985	2009-08-26	한국거래소 공지 위반 입니다.....	해결
2986	2009-08-27	해지된 고객 대출계약서 스캔보관도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2987	2009-08-27	정말 없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988	2009-08-27	박물관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까?	상담.안내
2989	2009-08-27	파생결합증권 관련 문의사항	해결
2990	2009-08-27	- 민영의료화 정책 변경 시행 결정후 줄속시행의 문제점	상담.안내
2991	2009-08-27	- 민영의료화 정책 변경 시행 결정후 줄속시행의 문제점.	상담.안내
2992	2009-08-27	재무보고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관련 질의	상담.안내
2993	2009-08-27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건에 대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개질의서(2)	상담.안내
2994	2009-08-27	우리은행건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와 한국자산 관리공사 공개질의서(2)	상담.안내
2995	2009-08-27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건에 대한 공개 질의(자산관리공 사 관련)	자체종결
2996	2009-08-27	워크아웃건설사업활동지원건의	상담.안내
2997	2009-08-27	대부업 법 위반인지여부	상담.안내
2998	2009-08-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담.안내
2999	2009-08-27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제너비오믹스를 꼭 봐 주세요!!!! 제발!!!!!!	해결
3000	2009-08-28	민원처리 관련	상담.안내
3001	2009-08-28	탄원서	상담.안내
3002	2009-08-28	질의내용	상담.안내
3003	2009-08-28	투자금 상환책임 확인 요청	해결
3004	2009-08-28	거래소는 상폐이유 없는 회사를 상폐시키려 합니다.	해결

3005	2009-08-28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조사 요청	자체종결
3006	2009-08-31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매매된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자체종결
3007	2009-08-31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 12. 녹색금융 추진현황

- '08.8.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 '09.1.13일 정부(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09.5.26일 확정
  - 신성장동력 17개분야 중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녹색금융’의 경우,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12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신성장동력 녹색금융분야 세부추진계획

- ① 녹색산업 금융지원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
- ② 배출권시장 활성화
  -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등
- ③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녹색금융현장실무인력양성, 환경정보DB구축 및 녹색인증제도마련 등

\*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고

- '09.7.6일 정부(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

-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

**발전단계별 맞춤형 녹색 자금유입 메커니즘**

- R&D 단계 : 고위험의 장기투자를 요하므로 재정이 위험을 부담
- 상용화 단계 : 시장화 가능성 등에 관한 위험이 크므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성장 단계 :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의 역할 증가
  - \* 필요시 정책금융의 역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위험 경감 유인 제공
- 성숙 단계 : 재정투입 없이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 가능

발전단계	R&D단계	⇨ 상용화 단계	⇨ 성장단계	⇨ 성숙단계
산업예시	수소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명용 LED	하수처리시설
투자방식	투자연계 R&D 매칭 R&BD 매칭펀드	정책자금 · 신용보증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민관 녹색펀드 녹색채권 · 예금 녹색기업 채권 유동화	녹색금융 상품
투자자원	정부 재정 <-----> 민간금융			

- 이러한 자금유입 메커니즘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

\* 자세한 내용은 <별첨 2>를 참고

〈별첨 1〉 신성장동력 녹색금융분야 세부추진계획(주요내용)

---

#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 녹색금융 분야 -

---

‘09. 5

금 융 위 원 회

## 1. 산업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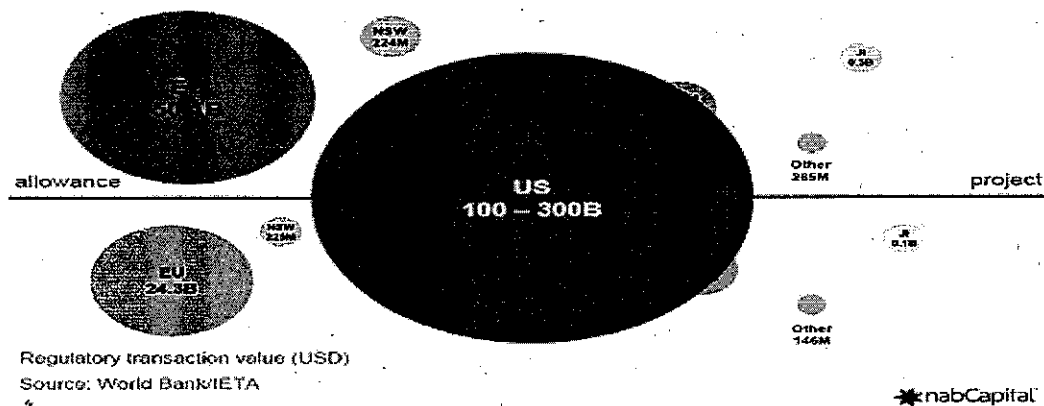
### □ 산업여건 및 구조

####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 ○ 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적으로 급팽창 전망

※ 영국 스턴보고서('06)는 2050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06년 312억달러)이며, 이중 할당량 시장이 504억달러로 약 79%를 차지
- 미국은 할당에 의한 배출권시장 조기 개설('10년경)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도하여 배출권거래소 도입 검토중



####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 저탄소,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금융도 확대될 전망

-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Morgan Stanley, 조블) : ('20) 0.5 ('30) 1.0
- \*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 15.1%(美 Clean Edge社)

##### ○ 향후 금융기관의 이미지와 지속가능 경영전략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차원의 녹색금융 역할도 지속 확대될 전망

※ Citi, BOA, HSBC, BNP파리바, 바클레이, ABN암로, ING 등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Equator Principles('03.6)을 통해 사회·환경적 위험을 평가·심사하여 친환경적 PF 투자 결정



## □ 녹색금융분야 경쟁력 및 성장성

###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 우리나라가 배출권시장을 조기에 개설할 경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흡수 가능

⇒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세계 제2위의 장내파생상품시장(KRX)을 구축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나,

-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음

- 국내 그린에너지 시장규모는 '07년말 현재 GDP의 0.2%(18억불)에 불과하나,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전략(향후 5년간 3조원 투자)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는 급팽창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도 녹색성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금융 수요도 증대할 전망

\* 중국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 특히,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산업분야로 육성 가능

\* 녹색금융은 '최후의 틈새시장'(ultimate niche market)[美 EIM社]

## 2. 핵심장애요인

###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활성화) >

□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다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으로 할당량 시장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
- 배출권할당의 전제조건인 인벤토리 시스템도 구축준비 단계이며, 배출권 거래시스템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음

###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녹색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므로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

#### ① 은행을 통한 녹색기업 자금제공 확대의 제약

- 은행의 자기자본 하락으로 신규 여신확대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녹색기업 여신확대 한계(⇒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② 녹색펀드 도입의 제약

-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금융권의 녹색금융 공감대 형성 미진, 녹색금융 전문가 부족 등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미흡

- 또한, 녹색산업의 투자 자금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이 아직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발달

###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2013년 이후 녹색금융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2008년		2013년		2018년
그린 에너지시장	33.6천억원	⇒	315.6천억원	⇒	702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5천억원	⇒	23.8천억원	⇒	53천억원
국내 고용창출	2.4천명	⇒	22.9천명	⇒	50.9천명

\* 전환수요, 수출 등 중장기 잠재적 수요를 제외한 보수적 전망치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 4. 민·관 역할분담

#### □ 정부 역할

-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배출권 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녹색금융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지원 (예: 재정지원, 상품심사기준 완화 등)
-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 민간 역할

-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녹색금융 자율실천기반 마련
- 녹색기업 여신우대 및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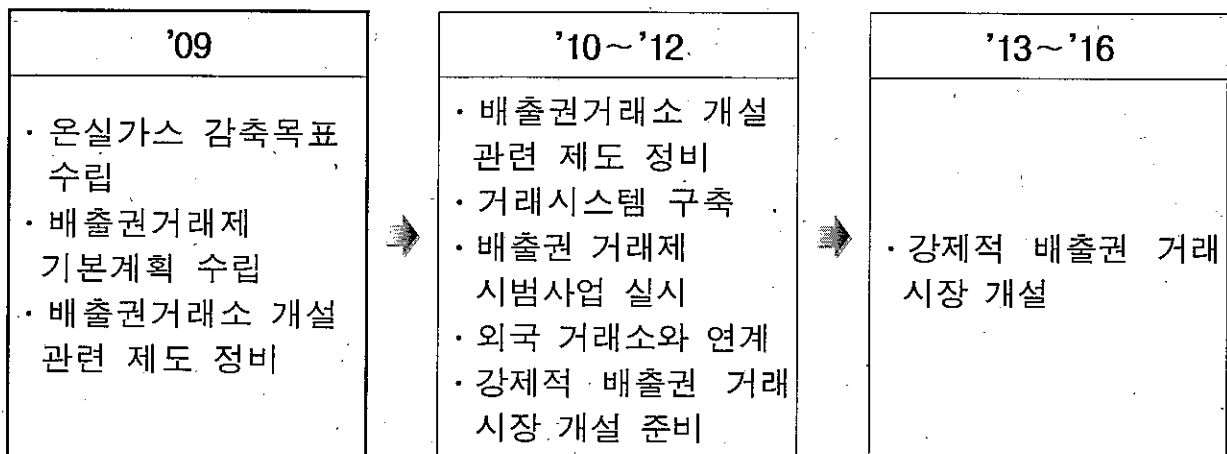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li> <li>·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li> <li>·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Scheme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li> <li>·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li> <li>· 녹색기업 여신우대</li> <li>· 녹색산업 전용펀드 활성화</li> <li>·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li> </ul>

## 5.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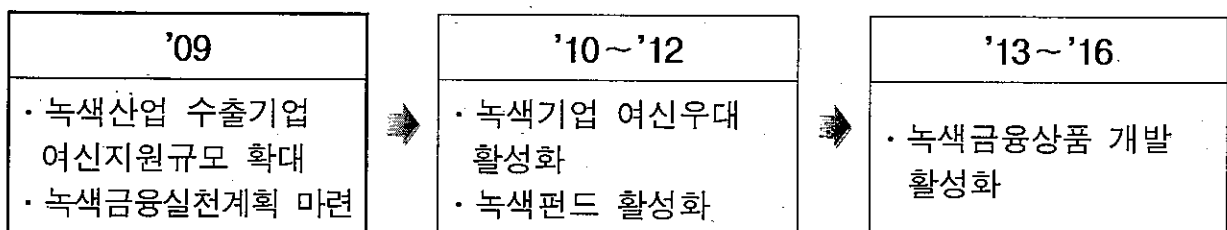
### □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선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육성

- 산업계 협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와도 연계
- 향후 외국거래소와도 연계하고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 배출권시장 개설은 향후 녹색금융시장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배출권 획득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투자사업 촉진
    - 배출권 확보 및 가격 헷징을 위한 파생 녹색금융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관련 등록소, 컨설팅, 정보판매·분석회사 등 활성화



##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 ※ 금융부문별 녹색금융실천계획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 확산
- (은행부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녹색신용(Green Credit)\*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
  - \* 투자 및 대출 심사 시, 환경오염물질 및 오실가스 배출,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 (자본시장 부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녹색산업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법,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주가지수 및 녹색경영실적 지수도 개발
- (수출지원 부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탄소펀드」 설립 추진
- (금융상품 부문)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
-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금융권에 녹색금융 인식확산,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금융투자업 육성)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자원체계도 구축



##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	----	-----	----------	----------	----------------

### 배출권시장 활성화

15-①	기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재정사업 (시범사업)		녹색위 (재정부/지경부/ 환경부/금융위)
15-②	핵심	배출권 거래소 설립	제도개선	12년	녹색위 (재정부/환경부/ 지경부/금융위)

### 녹색산업 금융지원

15-③	핵심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제도개선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④	핵심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 성화	제도개선		금융위 (재정부/지경부/ 환경부)
15-⑤	기반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09년	재정부 (금융위)
15-⑥	기반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기타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15-⑦	기반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기타	09년	금융위
15-⑧	기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⑨	기반	녹색기업 인증제도	제도개선	13년	환경부/지경부/금 융위
15-⑩	기반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구축	재정사업	13년	환경부 (금융위/지경부)
15-⑪	기반	금융투자업 육성	제도개선		금융위 (노동부)
15-⑫	기반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기타	13년	금융위

##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 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할 전망
- (과제내용) '09년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 과제목표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09)

### □ 추진전략 및 방안

#### ① '09년 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감축목표 발표
- \* 감축목표의 설정 방식, 감축 목표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 ② '09년 중 연구용역(고려대, '08.12)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 '10년부터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본격적인 실시 여부는 국제협상 및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

### □ 추진일정

- '09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10년 이후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중심지 구축에 기여
- (과제내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또는 자율적 감축계획에 따라 생성되는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 □ 과제목표

- 탄소배출권 거래 근거 마련(관련 법령) 등 탄소시장 개설 관련 제도 정비
-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과 연결
- 국내 배출권시장을 해외시장과도 연계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 추진전략 및 방안

- (제도 정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위해 회원/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등 시장규정 정비
-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현물 및 파생상품별 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레지스트리 및 신규 배출권거래 회원시스템 연결

### □ 추진일정

-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10~'13)
-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실시('10~'13)
- 배출권 시장 확대 유도('13)

## 15-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제도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 과제의목표

- 은행권의 자발적 여신지원 유도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개선으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성장 지원
- 여신우대 방식(green prime rate, 수수료감면 등 검토)\*의 정형화를 통하여 기업 생산활동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예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 □ 추진전략 및 방안

### ① 은행권 TF구성 및 녹색산업 금융지원 현황, 해외사례 등 조사

- 은행권 녹색금융 지원, 녹색상품(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 조사
- 녹색금융 개념, 지원대상 기업 등 구체화
  - 원칙적으로 시장자율로 정하되, 필요시 녹색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 ② 보증지원 확대 등 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은행의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녹색기업\* 여신 우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설비 투자 등

- 여신심사 및 투자 의사 결정시 사업성 및 환경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녹색기업 여신 실무자의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및 경영 실태평가(CAMELS)시 녹색금융을 위한 경영정책 수립여부, 여신우대 실적, 인프라 구축(전담부서 설치 등) 여부 등을 반영 검토

\*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녹색기업 여신 실행자에 대한 면책 적용 가능

### ③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발표

- 녹색산업 여신우대 추진 등을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09년 중 금융권 자율로 마련 계획)'에 포함

### □ 추진일정

- 은행권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조사,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우대 방안 등 논의 진행('09년 3월~)
-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 각 은행별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실시('10년이후)

## 15-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
- 녹색펀드는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측면에서 기존의 SRI(사회 책임투자)펀드 발전사례 참고
  - \* (우리나라) 대체에너지(41개)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펀드(103개)의 수탁고는 약 3조원
  - \*\* (전세계) SRI펀드자산은 1995년 7조 달러에서 2007년 25.1조 달러로 260% 증가하였고 2005년~2007년 기간 중에는 SRI 자산은 18% 증가한 반면, 전체 펀드자산은 3%증가에 그침

### □ 과제목표

- 녹색산업 전용펀드 신설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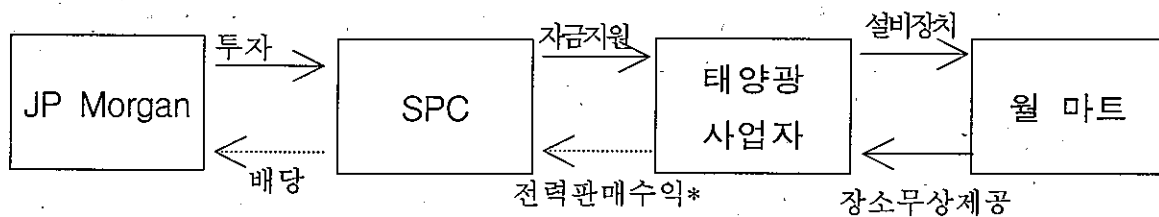
#### 녹색펀드 형태(안) : 예시

- ① 일반주식형투자펀드 (녹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SRI펀드)
- ② Project투자펀드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등으로 투자)
- ③ 녹색금융 연계 특별자산펀드 (탄소배출권 투자, 녹색기업 은행 대출 채권 투자 등)

### □ 추진전략 및 방안

- ①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상품 이외에 다양한 구조의 투자기구를 제공
- ② (새로운 투자 scheme 개발) 시장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 구조를 발굴하여 녹색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 JP모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사례



\* 태양광 생산 전력의 일부는 월마트가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태양광사업자가 판매

- ③ (펀드가입 유인책 필요) 연기금의 녹색펀드 가입시 기금 자산 평가에 가산점 부여방안, 녹색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 검토
- ④ (녹색성장 펀드 운용) 녹색산업은 대부분 시장형성 前 단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정책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 ⑤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확대를 통해 사업의 유동성 확보 및 민간의 투자기회 확대
- ⑥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에너지 절감산업 주도기업과 저탄소 업체를 대상 테마형 특수지수 개발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
- ⑦ (녹색경영역량 인덱스 개발) 사회, 환경, 노사관계 등 녹색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SRI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추진

## □ 추진일정

-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전용펀드 해외사례 수집('09)
- 2,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 결성 완료 추진(~'09.6월)
  - \* '09년 조성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설립하고,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녹색산업투자회사”로 설립
- 녹색산업 전용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09)
-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완료('10)
- SRI 지수 발표('09년) 및 관련 ETF 상장('10년)

## 15-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주관 : 기획재정부, 협조 :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 등에 따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 우리기업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및 EDCF 자금 활용 확대

### □ 과제목표

- '09년중 여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대비 45% 증가한 1조 원 공급 계획
  - 특히 전략지원분야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년 대비 12배가 증가한 3,000억원 지원 예정

### □ 추진전략 및 방안

- 우대금리(20~30bp 우대)·매칭금리적용\* 및 대출지원한도 확대(80%→100%)
  - \* 타 수출신용기관,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및 국제상업은행과 공동지원시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 MDB와의 공동 사업발굴 및 협조융자 적극 추진
- 탄소배출권확보(CDM)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탄소펀드 추진

### □ 추진일정

-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해외배출권 사업) 설립 추진('09)

## 15-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산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
- 녹색지수(Green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과 상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과제목표

- 각 금융사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신상품 연구 또는 개발·판매 유도

※ 녹색 금융상품 예시

- 은행 : 친환경기업 대출용 예금, 하이브리드카 대출, 그린 모기지 등
- 보험 : 자전거 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 보험 등
- 증권 : 녹색지수(Green Index), 녹색산업 업종별 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상장

### □ 추진전략 및 일정

-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 금융회사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 유도 ('09년중)
  - \* 상품개발에 대한 수요도 조사 등 상품 타당성 조사 포함
- 녹색금융 상품 출시 및 활성화 유도('12년 이후)
- 녹색관련 파생결합증권 개발 및 상장('13년 이후)

## 15-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주관 :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업역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자율실천 기반 마련

### □ 과제목표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 정부와 금융기관간 공동 홍보자료 작성
  - \* 예시) 국민은행 : 고객대상 금융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 만화 제작, 그린 금융교육 봉사단 운영 등

### □ 추진전략 및 일정

-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녹색금융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 각 금융업권별로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각 금융회사에 확산('09년부터)
  -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녹색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영업점별 직원교육 등 추진



## 15-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인력 및 석사급 전문가 동시 육성
- (과제내용) 금융업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 과정 운영, 금융분야 MBA에 녹색금융 전문과정 신설,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 검토

### □ 과제목표(성과지표)

- ① 녹색금융분야 현장실무인력 총 600여명\* 양성('10~'13년)

\* 녹색펀드 300명, 배출권거래 150명, 여신 150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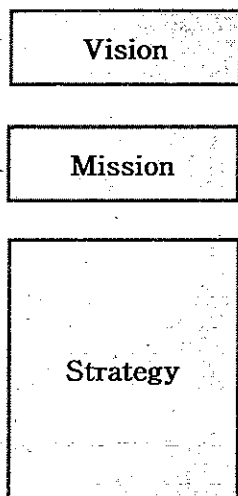
- ② 녹색금융에 특화한 금융MBA 300여명 배출('10~'13년)

- ③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13년이후 배출 추진)

(단위: 명)

	'09	'10	'11	'12	'13	계
현장실무인력	-	100	140	160	200	600
MBA 배출	-	40	60	80	120	300
자격증 도입		(도입검토)			(인원배출)	

### □ 추진전략 및 방안



녹색금융 허브 구축

녹색금융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녹색금융 실무인력

녹색금융 전문가

· 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펀드, 여신, 배출권)

· 금융MBA 과정 신설  
(금융 MBA School  
대상 전문기관 지정)

녹색금융 전문 자격증 도입

□ 추진일정

2009(상)   2009(하)   2010   2011   2012   2013

현장실무  
인력양성

예산협의

프로그램 개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외교육기관 MOU

전문가  
양성

예산협의

특성화 대학 지정

교육과정 운영  
해외MBA School 연계

자격증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도입준비

제도 시행

##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주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확산하기 위한 녹색기업 선정기준 마련 필요
- (과제내용)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을 통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구축

### □ 과제목표(성과지표)

- ‘녹색기업(친환경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 유도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 녹색산업 및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
-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업종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인증시스템 및 녹색기업 인벤토리 구축
  - 녹색기술·제품의 적합성과 녹색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인증

### □ 추진일정

-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09)
-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09~‘10)
-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10)
- 녹색기업 인증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10~‘13)

## 15-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 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기업에 녹색금융상품을 적용시, 금융권 및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당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금융기관의 필요정보: 기업의 환경성과(공정 및 제품 포함) 및 환경리스크 노출 정보, 녹색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녹색기술개발·보유 현황 및 실용화 여부 등

- (과제내용)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공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 과제목표(성과지표)

-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정보 D/B 구축

\* 환경정보 DB 중 녹색기술 DB는 지경부의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을 사용

###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 금융권 및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환경정보 조사 및 연구
- 환경정보를 녹색금융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론 정립
- 기업의 환경정보수집 및 D/B 구축
- 녹색기업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환경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 추진일정

-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정보 조사·연구('09)
- 환경성과/리스크의 화폐가치측정법 개발 등 정보가공 방법론 연구('10)
-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0~'13)

## 15-⑪ 금융투자업의 육성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노동부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큼
  - 향후 M&A 중개 등 IB 업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 증대 등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높은 저축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금융투자업 전진 기지 구축 필요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과제내용)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등

### □ 과제목표(성과지표)

-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도국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인프라 확충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 □ 추진전략 및 방안

### ①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 극대화를 유도
- 헤지펀드 도입 및 사모펀드(PEF) 영업규제 대폭 완화\*  
\*(예시) 차입·영업양수도방식 M&A 허용, 의결권주식 이외 지분증권 투자허용
- 판매채널 다각화(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 ②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 기존 사업장의 퇴직연금 선택·전환 유도
  -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을 통하여 퇴직금의 단기적 매력 감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 가입대상을 자영업 등으로 확대, 퇴직급여 일시금 이외의 본인에 의한 추가부담 허용 등

### ③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외국사들의 애로점에 대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④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 우수 금융전문대학원 및 현장실무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

## □ 추진일정

- 자산운용 등 영업자율성 확대 검토('10년이후)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검토('10년이후)
-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지원('09년이후)

## 15-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주관 : 금융위원회

###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 (추진배경) 중장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녹색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의 녹색금융 수요도 확대될 전망

\* 중국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과제내용)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DB 및 인허가 업무편람 등 금융시장 관련 정보 제공
- 녹색금융 관련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집적하여 신규 진출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유도

### □ 과제목표(성과지표)

- ①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외의 녹색금융 시장정보를 교환
- ② 해외의 금융관련 법규 DB 구축 및 제공
- ③ 실제업무 적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
- ④ 해외진출 사례 수집을 통한 국가·분야별 Best Practice 제공



## □ 추진전략 및 방안

- ① '09년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 실시(상시)
- ② 중국 및 베트남 법규 DB 제공('09년)
- ③ 중국 및 베트남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09년)
- ④ 금융투자회사의 국가별 녹색금융 관련 해외진출 사례를 수집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10년)

##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법규 DB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업무편람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모범사례 제공	모범사례 수집		업데이트 및 모범사례 확대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2009. 7. 6

기 획 재 정 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   경   부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녹색성장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 II. 투자대상의 저변확대

1. 녹색 인증제 도입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3.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4.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 III.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1. R&D 단계
2. 상용화 단계
3. 성장 단계
4. 성숙 단계

〈 핵심 녹색 프로젝트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하이브리드차, LED조명 〉

## IV. 향후 추진계획

## I. 추진배경

- ①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움에 따라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
- ② 그러나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이며 외부효과(사회적 수익 > 사적 수익)가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
- ③ 실제로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녹색여신우대와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금융회사들도 녹색여신과 녹색테마펀드를 출시하고 있으나
  - 아직 지원규모가 적은데다 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고, R&D, 상용화, 성장단계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미진해 녹색산업 발전에 한계

### 녹색분야 금융 활성화의 제약요인

- ① (실물적 요인)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많지 않고, 녹색 프로젝트나 기업의 정의마저 명확하지 않음
- ② (금융적 요인)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나 투자가도 많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
- ③ (정책불확실성) 근본적으로 CO2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 등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녹색분야 투자동인이 미약

④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

- ①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산업의 성장단계별·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
  - 특히 외부효과와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전략적 녹색산업에 대해 집중 지원
- ② (재정과 금융의 역할 분담)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 또는 금융공기업의 역할(catalytic role)로 보완
- ③ (자본시장 적극 활용) 특히 장기·위험자본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수단과 체계를 개발
- ④ (국민의 자발적 참여)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강구(녹색예금·채권 등)

**발전단계별 맞춤형 녹색 자금유입 메커니즘**

- R&D 단계 : 고위험의 장기투자를 요하므로 재정이 위험을 부담
- 상용화 단계 : 시장화 가능성 등에 관한 위험이 크므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
- 성장 단계 :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의 역할 증가
  - \* 필요시 정책금융의 역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위험 경감 유인 제공
- 성숙 단계 : 재정투입 없이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 가능

발전단계	R&D단계	⇨ 상용화 단계	⇨ 성장단계	⇨ 성숙단계
산업예시	수소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명용 LED	하수처리시설
투자방식	투자연계 R&D 매칭 R&BD 매칭펀드	정책자금·신용보증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민관 녹색펀드 녹색채권·예금 녹색기업 채권 유동화	녹색금융 상품
투자자원	정부 재정 <-----> 민간금융			

⑤ 이와 함께 자금유입 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투자대상의 저변확대를 병행

- ① 녹색인증제 도입 ②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 녹색산업 육성 ③ 민자사업과 ESCO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 ◆ 세계 주요국들은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공공부문이 보완적 역할(세제지원 등)을 하면서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하여 녹색채권 발행, 녹색펀드 조성, 여신금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① (네덜란드) 은행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펀드의 지분을 매각하여 녹색사업에 투자 또는 장기저리 대출
  - 자본이득세 면제(채권매입액 등의 1.2%)와 세액공제(1.3%) 혜택을 부여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펀드 지분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
    - \* (단위) 1,000 / 5,000유로券, (기간) 3·5·10년 고정, (금리) 고정
  - 세제혜택으로 시중금리보다 1~2% 낮게 조성된 장기자금을 정부가 녹색인증을 한 프로젝트에 70% 이상 투융자
    - \* 지원 현황 : 95~'05년간 4,500개 프로젝트, 80억 유로 투자
- ② (독일) 정책금융기관(KfW)에서 환경보존·에너지 절감·태양광 발전분야 소규모 투자에 저리 대출(2~5년 거치 10~20년 분할상환)
- ③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에서 에너지효율 주택·빌딩 건축 및 개조에 대해 저리 대출(0.3%p 금리 우대)
  - 민간 금융회사의 에너지 효율주택에 대한 원활한 장기저리 대출을 위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유동화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을 보증
- ④ (캐나다)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지자체·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혁신적인 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펀드를 설립
  - 캐나다 중앙은행의 채권 이자율보다 1.5%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등의 혜택 제공

## II. 투자대상의 저변 확대

- ◆ 새로운 자금유입 메커니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

### 1 | 녹색 인증제 도입

- ① (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 \* 인증대상(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 ② (녹색기업 확인제)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 \* (기업 확인요건 예시)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특정할 필요

- ③ (인증 방식)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 부여

- 인증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
-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은 지경부·환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T/F에서 마련(09.3/4분기)

- \* 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규정 마련

- ④ (세제 지원)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

① (대상 선정·지원)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분야를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

- ① 상용화 단계이거나 향후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 ② 기술선점시 부품·소재·장비의 미래주력 수출품목화가 예상되며
- ③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 ④ 과감한 초기투자로 급속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분야

\* LED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에너지절감은 물론 7.2. 민관합동회의에서 제기된 합성천연가스 등도 검토

⇒ 비전 및 추진전략은 물론 업계 투자어로 해소방안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09.3/4분기)

\* 하이브리드차, LED조명은 별도로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병행(후술)

② (옴부즈만 설치) 녹색산업 투자어로 제기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녹색 옴부즈만』을 녹색위에 설치

③ (프로젝트 생성여건 조성) 규제개선, 수요창출 등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의 생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

#### 프로젝트 생성 기초여건 조성방안

- (규제개선) 현재 200kW 이상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해 예외 인정
  - (수요창출) 지자체·공공기관 기관평가에 친환경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도입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의무발전량 산정시 해상풍력에 가중치 부여와 태양광은 의무발전량을 별도할당
    - 그린홈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고려해 그린홈 등급에 따라 취득등록세(예:10~25%)와 재산세(예:10~25%) 감면 검토
  - (R&D 지원) 국책연구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시험장비 도입과 국제표준화 지원
- ※ 앞으로도 관련대책을 계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



① (민자사업 대상확대)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추가

\*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됨

구분	현행	확대
도로 시설	·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노외주차장 · 지능형 교통체계	· 자전거 도로 (추가)
환경 시설	· 하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 대기 · 수질 등 환경오염 측정망 (추가)
에너지 시설	· 전원설비 · 집단에너지 시설	· 신재생에너지 시설 (추가)

☞ 필요 조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지자체가 역점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우선 사업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민자사업 대상으로 추진

- 이 경우, 자전거 도로 등 비수익 시설은 BTL(Build-Transfer-Lease)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 시설은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

②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

-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 최저 보증료율(0.2%)을 적용(현행 0.2~1.3%)
- 인프라펀드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현행 100억원→50억원)하고, 주식형 이외에 신탁형 펀드도 도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기업) : 기술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① (대상사업·지원확대)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ESCO 대상사업과 재정지원을 확대**

- ESCO 사업대상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CO<sub>2</sub> 저감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

\* (예시) 폐기물 소각열사업,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사업

- ESCO 사업자에 대해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융자를 현재 1,350 억원 수준에서 '13년 2,000억원까지 확대

**② (지원조건 개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에너지 절감설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융자 금리와 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

- ESCO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금리를 0.25%p인하

\* (현행) 국고채 - 1.25% → (개선) 국고채 - 1.5%

- LED 조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 형광등 대체용 LED 투자비 회수기간 : 7~13년

**③ (중소 ESCO 기업지원) 중소 ESCO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

- 중소 ESCO 기업에 대해 대출 등의 경우 보증료를 감면

\* 보증료 : 일반기업(1.2%) 대비 0.2%p 차감하여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

### Ⅲ.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형화

1

#### R&D 단계

◆ 재정부지원을 확대하면서 시장성 확보와 상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활용

- ① 녹색기술 R&D 재정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09년 2.0조원 → '13년 2.8조원)하고, 주요 난제 R&D 성공시 사후보상 제도를 도입
- ②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 조성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녹색분야 정부지원\*과 매칭하여 R&D자금(1천억원)과 상업화를 위한 설비자금(2천억원)을 지원
    -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09년: 1,550억원)의 일환으로 LED응용(250억원), 신재생에너지(250억원), 그린수송시스템(300억원) 정부지원
- ③ 중소기업 녹색 R&D사업에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R&D와 구매조건부 R&D에 재정부지원을 확대
  - (투자연계형 R&D) 민간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재정부지원하는 R&D 사업 중 녹색분야 지원규모와 과제별 지원한도를 확대
    - \* 지원규모 : ('09) 220억원 → ('13) 900억원, 지원한도 : 7.5억원 → 10억원
  - (구매조건부 R&D)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녹색분야 R&D 지원규모와 과제를 확대
    - \* 지원규모(과제수) : ('09) 100억원(25개) → ('13) 550억원(120개)
  - 구매조건부 R&D 과제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2:1 매칭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협력펀드」도 확대
    - \* 펀드 조성규모(누계) : ('09) 130억원 → ('13) 800억원

◆ 모태펀드 출자, 신용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을 통한 정책자금 용자도 확대

### ①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 창업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3년까지 1.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녹색창업기업 펀드, 녹색M&A 펀드 등)

\* 펀드 조성규모(누계) : ('09) 600억원 → ('13) 1.1조원

- 특히 투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확대

\* (현행) 30% → (개선) 최대 50%

### ②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보증지원 규모를 '09년 2.8조원에서 '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
- 특히, 녹색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준비부터 창업초기단계까지 3~5억원 한도로 3년에 걸쳐 맞춤형 보증 지원
  - 보증비율(85 → 90~100%), 보증료(1.2~1.3 → 0.6~1.2%) 등도 우대

### ③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용자규모를 대폭 확대

\* 지원규모(비중) : ('09) 1,300억원(3%) → ('13) 6,600억원(20%)

- 금리우대와 지원한도 확대,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300~600%)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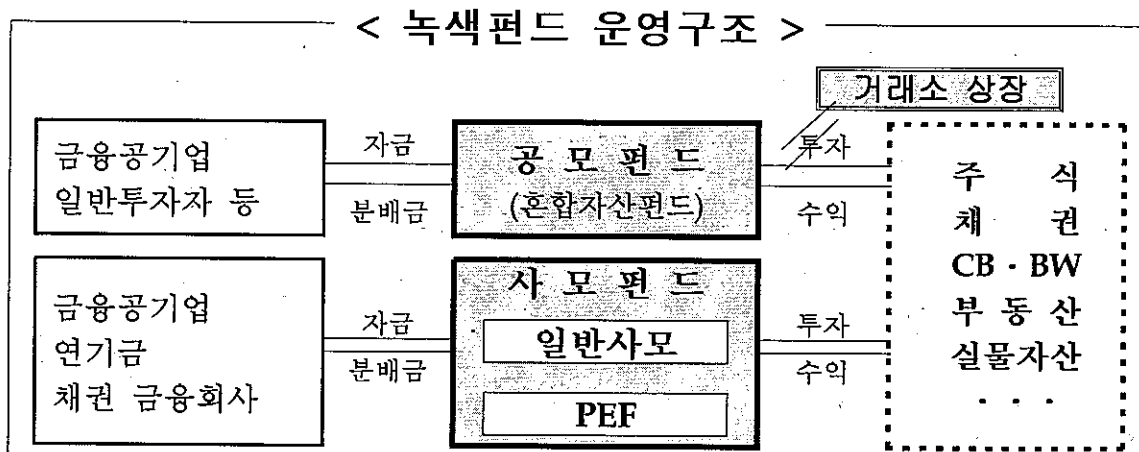
\* 대출금리 우대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0.7%p 차감  
창업자금 지원한도 : 30억원 → 40억원

### ◆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

- 필요시 금융공기업 출자와 신용보강,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 마련

#### ① 녹색펀드 활성화

- (운영구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주식형, 채권형 및 특별자산펀드 등)
- 투자자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의 펀드를 선택하되, 펀드는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함



#### ○ (활성화 촉진방안)

##### ① (세제지원)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저변이 확대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

- 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공제한도 : 1인당 3백만원)
- 배당소득세 비과세(출자금액 한도 : 1인당 3천만원)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② (연기금 등 참여유도)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

-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쪽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③ (투자대상 확대)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 (PEF 자산의 5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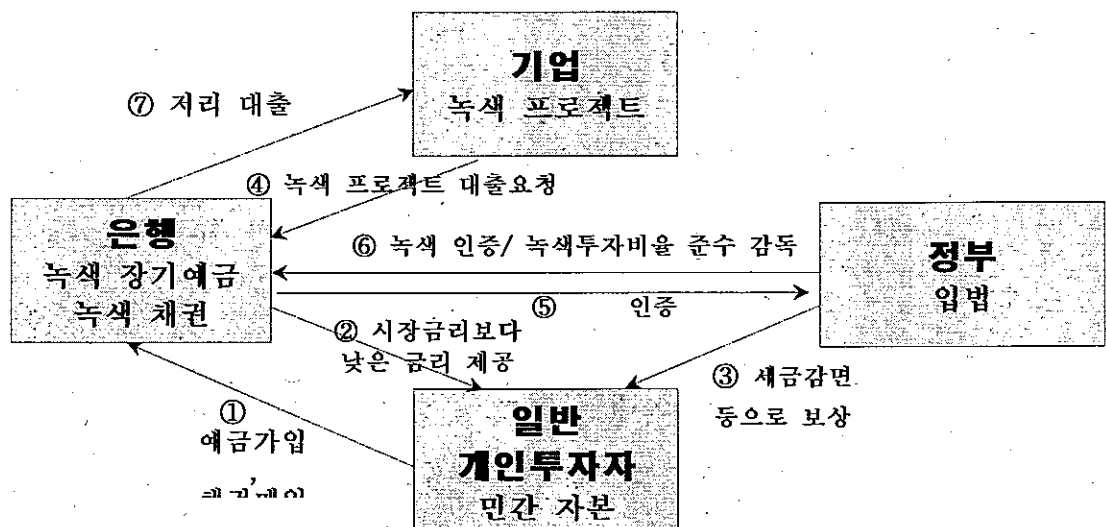
\* 현재 PEF가 민간투자법상 SOC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SOC 직접투자**는 불허

○ (5천억원 규모 펀드조성) 우선 산은과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 금년 하반기중 PEF 형태로 조성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 유도

- 향후 펀드의 운용추이를 보아 펀드규모 확대방안 등 검토

## ②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 (운영구조) 녹색산업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은행 등이 장기예금 또는 채권 발행



- 투자자는 장기저리 예금가입 또는 채권매입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는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
- 은행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녹색프로젝트에 장기 저리로 대출
-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서를 발급

○ (취급기관) 예금 : 은행

채권 : 산은이 우선 발행하고, 일반은행으로 확대  
향후 지자체 등으로 확대도 검토

○ (발행조건) 일반 개인투자자의 장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녹색 장기예금 및 채권의 발행조건(예시)

- ◆ 만기 : 5년 (채권의 경우 3년, 5년)
- ◆ 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금리 이상 수준 적용
- ◆ 개인별 가입(매수)한도 : 2천만원 (채권의 경우, 3천만원)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발행단위를 소액화)

- (세제지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단기 예금(채권) 금리차 등도 감안해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투자대상) 조달자금의 일정부분(예 : 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에 투자
- 다만, 녹색지방채의 경우 조달자금의 100%를 녹색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

### ③ 녹색설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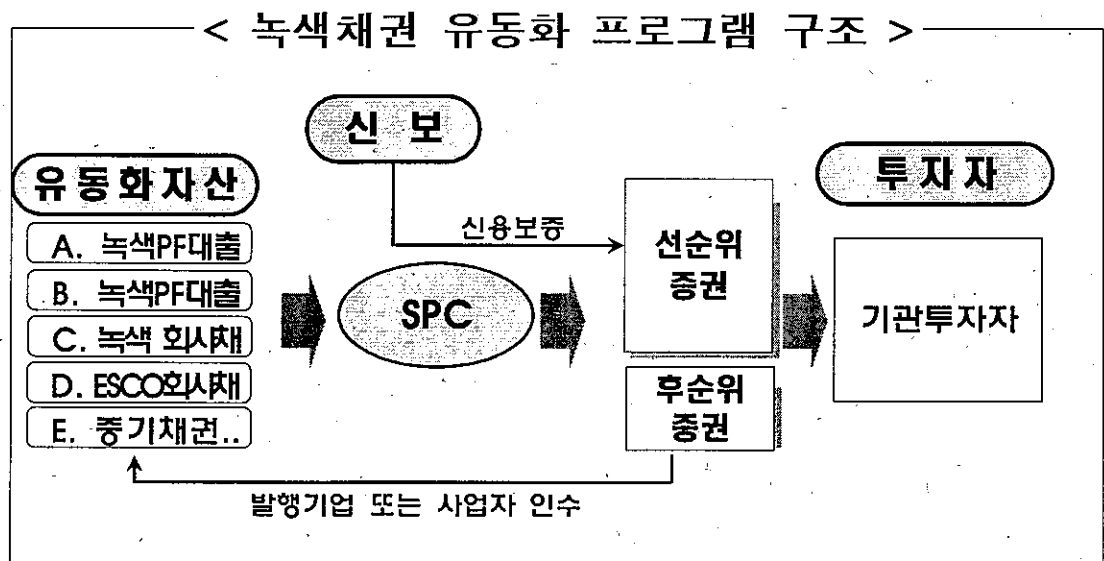
- (재원)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특수목적회사 SPC 설립)하여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설비투자 시행
- (투자위험 분담) 투자에 따르는 손익을 금융기업과 해당기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
- (도덕적 해이 방지) SPC 대출금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한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주로서 연대입보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PF 방식 지원방안(참고 2) 참조

### ④ 녹색 기업채권 및 PF채권 유동화

- (편입방안)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pool) 구성시 녹색 PF채권 및 녹색기업 채권 등 녹색채권 편입비중을 확대

\* (현행) 풀(pool)별 5~9% → ('10년) 20% 이상



- (도덕적 해이 방지) 발행기업 또는 사업자에 대해 후순위 증권 인수 의무 부과



◆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① 탄소금융 육성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거래 근거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 하반기중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
    - '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 준비
  - (탄소회계 도입)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채택
  - (탄소펀드 설립)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축적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 설립(09.10)
    - 수은이 15%를 참여하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
    - 기업의 CDM 사업 초기단계에서 탄소배출권을 할인가격으로 선구매한 후 실제 탄소배출권 발생시 시장매각 또는 보유
-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② 민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SRI) 지수』 개발 및 『녹색 리그테이블』 발표) 기존의 환경,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는 물론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 지수』를 마련
  - 녹색성장투자 우수기업을 『녹색 리그테이블』로 공표하여 여신과 상장심사·퇴출시 우대하고, 상장수수료 납부도 면제
- (녹색경영 정보공시 강화)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에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여 기업들의 정기적인 관련 정보공개를 추진('10년)
-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산업 현황조사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방안을 마련
  - '10년에는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발표하고 '11년에는 관련 신상품(ETF)을 상장
- (인력 양성)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금융MBA에 전문과정을 신설
-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녹색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자 주의환기 조치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
  - 테마관련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투자경보조치 적극 발동과 신속한 조사·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

### ③ 녹색보험상품 보급 확대

-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재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운행거리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
  - 금년말까지 운행거리 측정용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요일제 차량에 시범도입 후('09년 하반기) 제도를 보완하여 '12년이후 본격도입
- (자전거보험) 기 출시된 개인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등 여건을 고려해 자전거 손해·도난담보 도입을 검토

### ④ 녹색 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 확대

- (수출금융) 녹색기업 수출(PF)금융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원전수출에 대해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검토
  - \* 수출금융 : ('09) 1조원 → ('13) 3조원(연평균 30% 확대)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을 확대
    - \* 무담보특례 신용대출 : ('09) 200억원 → ('13) 1,000억원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 그린 ODA 확대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수출 가능성을 제고
    - \* 협조융자 : ('09) 1000억원 → ('13) 4,000억원
- (수출보험) 해외 녹색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해 보증료와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녹색프로젝트의 경우 『완공보증제』를 도입
  - \* 수출보험료 : 20% 할인, 보증한도 :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확대
- (녹색 펀드 투자) 해외 녹색펀드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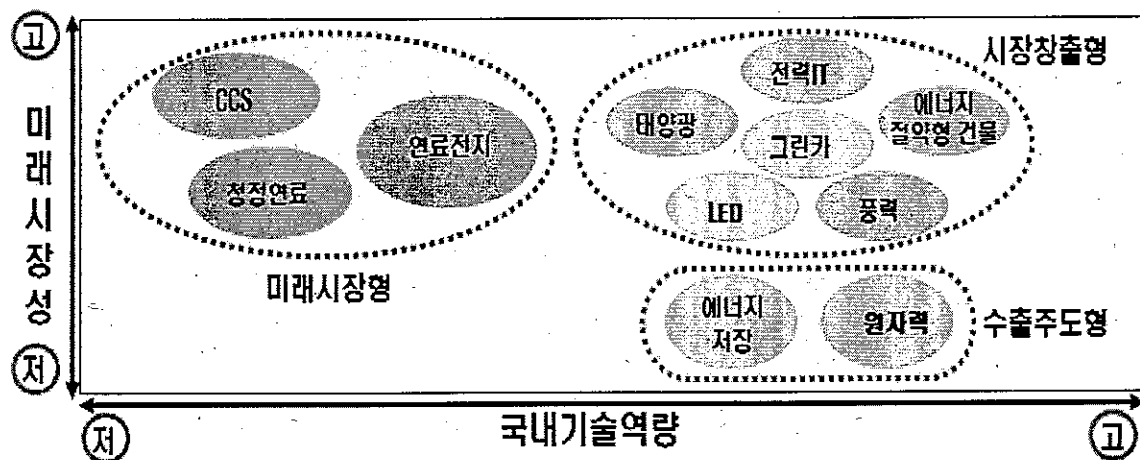
### ⑤ 녹색성장 IR 등을 통해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

## 참고 2

##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파일럿 단계별 금융지원방안

- ① 녹색산업을 시장성과 기술성에 따라 시장창출형 · 수출주도형 · 미래시장형 등 3개 그룹으로 분류 가능

< 국내기술역량 · 미래시장성에 따른 분류 >



- ② 핵심 녹색산업 육성의 4가지 요건(상용화, 수출품목화, 연관효과, 초기투자시 보급가 하락 등)을 충족하면서

- CO<sub>2</sub>저감에도 기여하고 단기간에 시장화되어 산업 · 기술 경쟁력제고 및 고용에 기여하는 하이브리드 차, LED조명을 우선 핵심부문으로 검토하여 파일럿 단계별 금융서비스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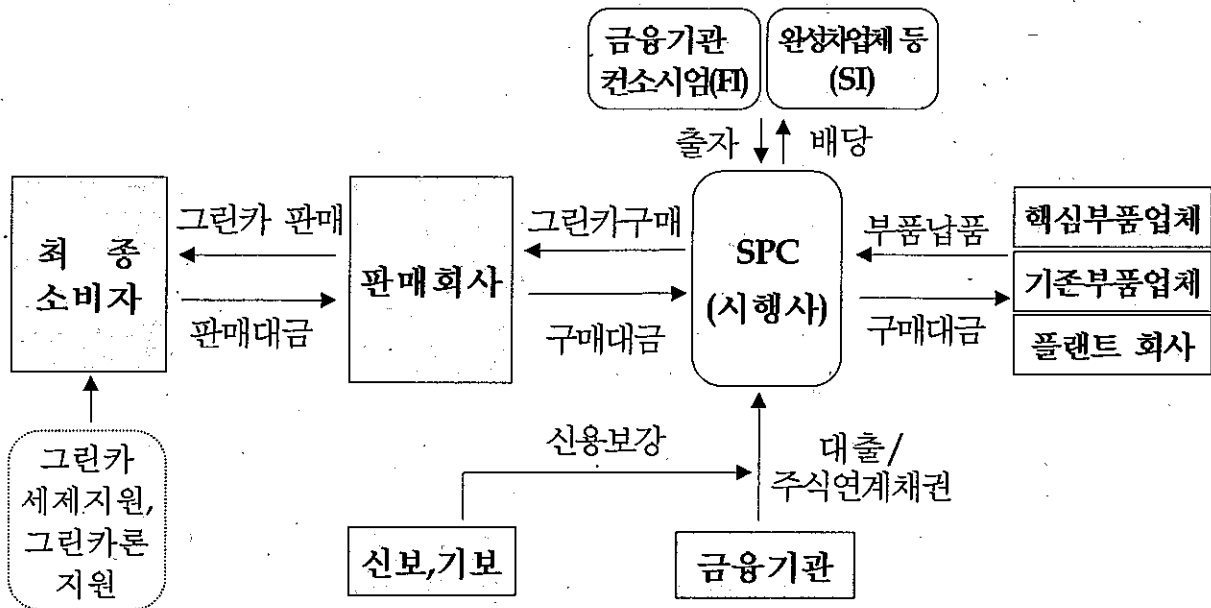
### (1) 상용화 · 성장단계 금융지원 예시 (친환경자동차)

- ◆ 친환경자동차 생산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중요
  -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PF방식(6천억원 규모)으로 지원하고
  -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업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도 도입해 설비 · 운전자금 지원

## ① 설비투자 자금의 PF 방식의 지원

### ○ 금융기업과 완성차 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SPC 설립

- 투자금 이외 소요자금은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대출 및 CB, BW 등 주식관련채 발행)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신·기보가 보증



- SPC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예 : 판매회사의 구매 약정 의무부과, 전략적 투자자의 연대보증 등) 검토

## ② 중소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 인수

- 금융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업체 회사채가 편입된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
- 준거자산의 위험을 분리해 1종(선순위, 안정적) 및 2종(후순위, 투기적) 수익증권을 발행해 위험선호도에 따른 수요 창출

## ③ 중소 협력업체 설비구매를 위한 녹색브리지론 도입

-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체결한 설비계약을 토대로 은행이 협력업체의 설비관련 구매자금을 지원('12년까지 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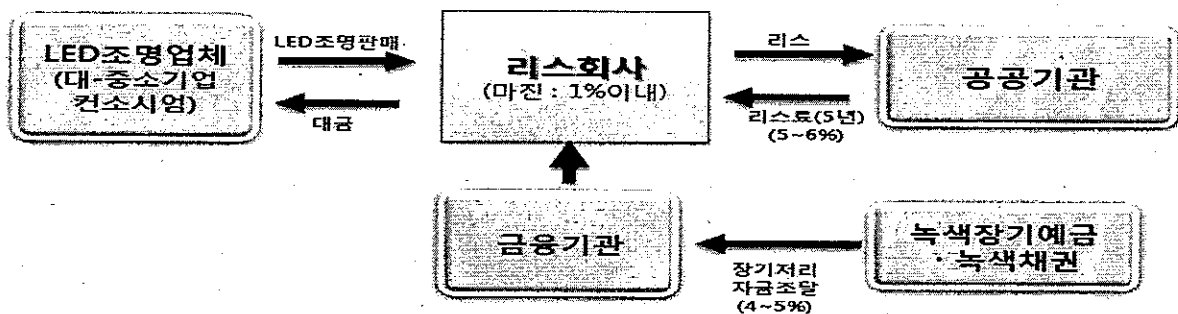
## [2] 성장·성숙단계 금융지원 예시 (LED 조명)

- ◆ LED 조명은 상대적 高價로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필요
-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LED 리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리스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 공급
- LED 교체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해 LED 펀드를 조성

### ① 『공공기관 LED 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리스회사 자금지원

- 리스회사가 LED 조명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업이 장기(예 : 5년) 저리(예 : 1년 만기 대출이자율 수준, 4~5%) 대출

\* 은행은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리스회사 대출



\* 공공기관 부담 리스료 : 5~6%(정부조달 금리 수준), 리스회사 마진 : 1% 이내

⇒ 시범적으로 1천억원(산은 5백억원) 규모의 리스를 추진한 후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하고, '10년부터 본격화

### ②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예 : 백화점, 쇼핑몰 등)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을 검토

### ③ 기업의 LED R&D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과 매칭하여 3천억원 규모의 「R&BD 매칭펀드」에서 R&D 자금과 관련 설비자금도 지원

## IV. 향후 추진계획

① 금번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토대로 해당 부처가 세부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마련 (☞ 참고3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지원방안(지경부), 녹색 인프라의 민간투자대상 확대(재정부), 녹색펀드 조성, 녹색예금·채권 발행(금융위) 등

② 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

○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

③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업계·금융계·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

### 참고 3

###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 1. 투자성 있는 투자대상 저변 확대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① 녹색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09.9월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녹색위 등
② 핵심 녹색산업 육성		
▪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09.9월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
▪ 녹색 옴부즈만 설치	09.9월	녹색위
③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프로젝트 확대		
▪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의 민간투자대상 확대	09.12월	재정부
▪ 인프라펀드 최소자본금 인하 및 신탁형 펀드 도입	09.12월	재정부
④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 ESCO 대상사업 및 용자 확대, 용자조건 개선	09.12월	지경부
▪ ESCO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09.8월	금융위
▪ ESCO 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추가	09.9월	재정부

## 2.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① R&D 단계		
▪ 녹색기술 R&D 지원 규모 확대 및 사후보상제 도입	계속	재정부, 교육부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 조성	09.7월	금융위(산은)
▪ 『투자연계형·구매조건부 R&D』, 『중소기업 전용 R&D 협력펀드』 확대	계속	중소기업청
② 상용화 단계		
▪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09.9월	중소기업청
▪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계속	금융위(신·기보)
▪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계속	중소기업청
③ 성장 단계		
▪ 녹색펀드 설립	09.12월	금융위(산은 등)
▪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09.12월	재정부
▪ PEF에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 허용	09.12월	금융위
▪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09.12월	금융위, 행안부
▪ 녹색 장기예금 및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09.12월	재정부
▪ PF를 통한 녹색성장 분야 신규투자 지원, 녹색 기업 채권 및 PF채권 유동화 확대	계속	금융위
④ 성숙 단계		
▪ 탄소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09.12월	녹색위
▪ 탄소회계 도입	11년 이후	금융위
▪ 탄소펀드 설립	09.10월	재정부(수은), 지경부
▪ 녹색 사회책임투자 지수개발, 녹색경영정보 공시 강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10년 이후	금융위
▪ 증시 불공정거래 방지장치 강화	09.12월	금융위
▪ 녹색 수출금융·보험 지원 확대	계속	재정부, 지경부 (수은, 수보)
▪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 유치	계속	지경부, 금융위
▪ 요일제 자동차보험 시범운영	09.12월	금융위
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하이브리드 차 설비자금 PF 방식 지원(6천억원)	09.12월	금융위
▪ 하이브리드 차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인수 유동화	09.9월	금융위
▪ 하이브리드 차 녹색설비 브릿지론	09.9월	금융위
▪ 공공기관 LED조명 리스방식 도입(1천억원)	09.12월	금융위
▪ 민간에너지 과소비업종 대상 민간 LED펀드 조성검토	09.12월	금융위
▪ 매칭방식으로 LED 기술개발 지원(250억원)	09.8월	금융위



① (국책 금융회사) 여신우대, 녹색PF 확대, 보증확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 투자를 지원중

- (산은) '녹색산업육성 특별시설자금' 1조원을 설정·운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PF방식으로 금융주선

\* 지원실적 : 09.5월말 5,414억원(시설자금), 07~09년 5건 5,700억원(금융주선)

- (기은) 녹색성장기업대출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해 대출한도(소요시설자금의 100%까지 대출) 및 금리(최대 1%p 감면) 등 우대

\* 지원실적 : 09.5월말 3,241억원

- (수은)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해 금리(1~1.5%p 감면), 수수료(0.5%p 감면) 등을 우대

\* 지원실적 : 09.5월말 5,859억원, 지원목표 : 09년 1조원

- (신·기보) 녹색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인하(0.2%p 감면)하고 보증한도를 확대(30억원→최고 100억원)

\* 지원실적 : 09.5월말 각각 1.1조원(신보), 0.8조원(기보)

② (민간 금융회사) 다양한 녹색 우대 금융상품을 운용중

-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자의 일부분을 녹색단체에 기부하는 녹색 예·적금 출시

- 신재생에너지, LED 업체 등 녹색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 녹색산업 관련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출시

\* 대부분 대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등 일반펀드와 거의 차이가 없음

### 13. 금융중심지 선정 후 해당지역 지원내역 등 활동내역 일체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융 및 관련 서비스 업종이 집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홍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 지정 후 지자체의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 구성,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
- 서울('08.9) 및 부산('09.5)에 설치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국내진입에 따른 애로·건의사항을 one-stop 서비스로 처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정에 따른 자체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 14. 동아일보 9월4일자에 보도된 ‘중기, 금융권서 빌린돈 부동산에 투자’ 기사관련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관련 도덕적해이 유형 및 방지대책’을 통보(8.20)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의 용도와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언론이 “중소기업 차입금중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자금비중이 높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의 용도와 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지만
    - 기업의 정상적 투자과정\*에서도 부동산매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비중이 높다고 용도와 유용이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음
- \* 예 : 공장증설을 위한 공장용지 매입 등
- 또한, “금감원이 5~7월 중 중소기업의 용도와 유용사례 162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 해당사례(162건)는 금감원이 연체 중소기업 중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으로 단순분류한 것이며, 실제 용도와 유용한 사례는 아니었음
- \*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신용대출 후 1개월 내 부실화된 경우
- 향후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임

## 15. 은행의 소매금융 및 비이자수입확대에 대비한 감독강화대책

- 자본시장의 발전과 대기업의 직접금융 의존 증가로 은행권이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 등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다만, '04년 이후 외형확대 경쟁 과정에서 중기 대출('04~'08년간 182.9조원 순증), 주택담보대출('04~'08년간 87.3조원 순증) 등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어려움 노정
- 또한,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 다각화 노력도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한 바 있고
  - money-move를 유발하여 은행의 수신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 최근 들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이므로, 은행의 내실경영이 중요하다고 봄
  -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연말 부실채권비율 1% 목표)하는 한편, 자체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자산확대에 대하여는 내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LTV·DTI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
  - 비이자수익 부문의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

## 16. 실무 증권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전망과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수요 증대로 현장의 실무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금년부터 ‘실무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중
  - 금융관련 협회 3개 연수원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마케팅, 자산운용관리 등 금융실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금융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연수 실시중



## 이진복의원





## 1. 최근 5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 □ 별도첨부

#### ○ 2008 자체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사항 각1부

\* 2009년은 아직 미실시

< '08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p>○ [지적사항]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견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p> <p>○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p>	시 정	<p>○ 혁신행정과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체감사 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08.7.10)</p> <p>- 중형(SM5) 2대를 승합차와 경차로 대체</p> <p>- 우리 위원회 소유 아반떼 승용차는 내구연한 만료('09.5)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예정</p>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기타 예산 집행의 불합리	<div>○ [지적사항]</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하였음</li><li>- 정부구매펀드 사용시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 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하였음</li><li>- 조찬비용 및 직원 교육 후 석식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li><li>-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있음</li></ul></div> <div>○ [조치요구사항]</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li><li>-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펀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li><li>-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li><li>-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li></ul></div>	현지조치	<div>○ 혁신행정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치함</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08.7.21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함</li><li>- 정부구매펀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전직원 공지함</li><li>-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시 특근매식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토록 함</li><li>-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에 대하여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 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 반납</li></ul></div>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재 실시 하시기 바람</li> </ul>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장은 '08.12.29 기준으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물품을 등재 조치함</li> </ul>	조치완료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직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li> <li>○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제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li> </ul>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행정과장은 FIU에 대하여 향후(200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에는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본부와 동일하게 보수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사무보조원 보수표 등 관련자료 송부)</li> </ul>	조치완료

## 2. 최근 5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사항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3. 최근 5년간 연구/조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 □ 최근 5년간 연구/조사용역 현황(2005~2009.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용역비
05년	생명보험회사 장래손익 전망	보험과	보험개발원	20
06년	금융규제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금융정책과	한국개발연구원	30
06년	금융집적지역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금융과	한국채권연구원	29.5
06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행정실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60
06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연구	글로벌금융과	한영회계법인	28.5
06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연구	기획행정실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43
06년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도운영과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1
06년	주요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22.5
06년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연구	금융정책과	한국개발연구원	25.5
06년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요인과 대응방안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28
06년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보험과	보험개발원	20
06년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개선 방안	보험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6년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보험과	한국금융연구원	25
06년	갈등사례분석-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은행과	한국조세연구원	9.5
06년	서민금융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중소서민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25
06년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행정인사과	(주)다산이앤이	26
06년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40
07년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한국증권연구원	22
07년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기획행정실	한국금융연구원	33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용역비
07년	역외 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심사분석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8
07년	펀드판매 경로 개선 방안 연구	자산운용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1
07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공정시장과	한국법제연구원	28.5
07년	주요 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 현황 조사	금융정책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3
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기획행정실	삼정KPMG Advisory	28.5
07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기획행정실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33
07년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글로벌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38
07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7년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공정시장과	한국증권연구원	45
07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금융정책과	케이티지 엘에스(주)	10
07년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글로벌금융과	BHP코리아(주)	33
07년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글로벌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19
07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글로벌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29
07년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금융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0
07년	어음제도 개선방안	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14.3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소서민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금융시장분석과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심사분석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

연도	과제명	위탁부서	용역기관	용역비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과	한국금융연구원	30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글로벌금융과	법무법인(유) 태평양	40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금융시장분석과	한국금융연구원	20
08년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금융시장분석과	(사)국제금융센터	46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제도운영과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40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자본시장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2.1
08년	홈페이지 개편	정책홍보팀	(주)사이버이 메지네이션	29.5
08년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감사담당관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1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글로벌금융과	한국개발연구원	19
09년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연구원	30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기획행정실	한국금융연구원	45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금융시장분석과	자본시장연구원	20.5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정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0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국제협력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0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금융과	한국금융연구원	28.8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본시장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0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금융정책과	한국금융연구원	35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32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기획행정실	아주대 산학협력단	35
09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연구원	20

□ 결과보고서 사본 : 별도제출



#### 4.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관련

4-1. 과징금 부과/수납건수 및 건별부과사유(심의일시, 결정일시, 부과일시,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결과 등)

☐ 금융기관에 부과한 과징금은 불임과 같음.

불 임 : 1. 금융기관 과징금 부과현황 1부.

번호	부과지명	심의일시	결정일시	부과일시	최초 부과금	시정내용	납부기한	완납일	부과금 잔액	비고
1	금호생명보험	2004-07-09	2004-07-09	2004-09-06	1,76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11-10	2004-09-13	-	보험과
2	국민은행	2004-09-10	2004-09-10	2004-09-16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20	2004-11-22	-	금융시장과
3	한국생명보험	2004-09-24	2004-09-24	2004-09-30	828,3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12-04	2004-12-06	-	보험과
4	신동아화재보험	2004-09-24	2004-09-24	2004-09-30	3,7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12-04	2004-12-02	-	보험과
5	아메리칸홀어슈어런스	2004-09-24	2004-09-24	2004-09-30	4,5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12-04	2004-12-09	-	보험과
6	하나은행	2004-10-15	2004-10-15	2004-10-20	11,7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12-24	2004-12-24	-	보험과
7	동양파이낸셜	2005-01-21	2005-01-21	2005-01-24	100,000,000	여신전환금통일법 위반	2005-02-18	2005-02-17	-	중소서민과
8	동양생명보험	2005-05-25	2005-05-25	2005-02-28	2,93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5-05-04	2005-05-04	-	보험과
9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2005-09-28	2005-09-28	2005-09-30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04	2005-12-01	-	금융시장과
10	그린화재해상보험(주)	2005-11-11	2005-11-11	2005-11-14	30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1-18	2006-01-18	-	보험과
11	교보생명보험(주)	2005-12-23	2005-12-23	2005-12-23	47,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2-26	2006-02-20	-	보험과
1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06-06-09	2006-06-09	2006-06-09	64,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8-13	2006-08-09	-	보험과
13	LIG손해보험(주)	2006-08-25	2006-08-25	2006-08-28	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11-01	2006-11-01	-	보험과
14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2006-11-22	2006-11-22	2006-11-23	36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27	2007-01-26	-	금융시장과
15	알리안츠생명보험(주)	2007-03-30	2007-03-30	2007-04-02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6-06	2007-06-07	-	보험과
16	서울보증보험(주)	2007-05-11	2007-05-11	2007-05-15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7-19	2007-07-19	-	보험과
17	교보생명보험(주)	2007-08-24	2007-08-24	2007-08-27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보험과
18	우리은행	2008-02-21	2008-02-21	2008-02-22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7	2008-04-24	-	은행과
19	한화손해보험(주)	2008-09-12	2008-09-12	2008-09-17	6,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8-11-21	2008-11-20	-	보험과
20	창주상호저축은행	2009-06-03	2009-06-03	2009-06-05	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0	-	중소서민과
21	한주상호저축은행	2009-06-03	2009-06-03	2009-06-05	71,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1	-	중소서민과
22	교보생명(주)	2009-06-17	2009-06-17	2009-06-18	2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9-08-24	2009-08-18	-	보험과
					12,634,200,000				-	

## 4-2. 과징금 부과기준 및 판정근거

###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9조·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통 칙

가.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 (1) 과징금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 (3)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한다.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 (5)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다.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사.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가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화의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보고 의무의 발생일 전후 각각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10(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중요도	I	II	III	IV	V
기본부과율	100%	80%	60%	40%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위반비율은 아래 위반비율의 2배로 한다.

구분 \ 중요도 위반비율		I	II	III	IV	V
1. 손익사항	위반금액 ÷ (회사규모금액/ 규모조정계수)	16% 이상	16% 미만 8% 이상	8%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2. 손익외 항목의 과대(과소) 계상		64% 이상	64% 미만 32% 이상	32% 미만 16% 이상	16% 미만 8% 이상	8% 미만
3. 우발채무등 주식사항 미기재		80% 이상	8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4. 기타 계량적 위반사항		160% 이상	160% 미만 80% 이상	8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주1. 회사규모금액은 손익사항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주2. 규모조정계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회사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회사규모금액의 범위			규모 조정 계 수
이 상	미 만		기본 + 보간율 × 회사규모금액 범위액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억원 단위금액
0	~	100억원	0.4 -
100억원	~	300억원	0.6 + 0.001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300억원	~	700억원	0.8 + 0.00050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700억원	~	1,000억원	1.0 + 0.00066667 × 7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억원	~	2,000억원	1.2 + 0.0003 ×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억원	~	5,000억원	1.5 + 0.0001 ×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0억원	~	1조원	1.8 + 0.00006 ×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조원	~	2조원	2.1 + 0.00003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2조원	~	5조원	2.4 + 0.00002 × 2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5조원	~		3.0

###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I·II·III·IV·V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구 분 \ 중요도	I	II	III	IV	V
1. 주요경영상황 <sup>주1)</sup>	8배 이상	6배이상 8배미만	4배이상 6배미만	2배이상 4배미만	2배 미만
2. 주가변동률 <sup>주2)</sup>	200/100이상	100/100이상 200/100미만	50/100이상 100/100미만	25/100이상 50/100미만	25/100미만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sup>주3)</sup>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4. 위반행위의 횟수 <sup>주4)</sup>	30회이상	20~29회	10~19회	3~9회	3회미만

주1) 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대상금액(또는 비율)에 대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의 배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2) 공시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주가변동률[(최고주가/최저주가) - 동일업종 지수변동률]을 말한다.

주3)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와 관련된 경우로서 동 위반행위에 대한 예상조치수준에 따라 한다.

주4) 위반행위의 횟수는 조사대상기간중 발생한 동종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위반행위의 유형
I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출을 한 경우
II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III	·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다. 기본부과율의 조정

기본부과율이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부과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본부과율의 1단계 조정폭은 20/100으로 하며, 조정후 기본부과율은

20/100~100/100이내 이어야 한다.

구 분	조 정 기 준	조정범위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li> <li>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li> </ul>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li> <li>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li> </ul>	2단계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li> <li>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li> <li>위반내용이 증권신고서 또는 정기보고서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li> <li>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가 중대하지 않으며 과거 공시위반행위로 행정제재(경고 및 주의 제외) 또는 형사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li> </ul>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도발생,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li> <li>원상회복의 정도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li> </ul>	2단계

## 5. 과징금의 감면

-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
-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감경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가. 최근 2년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회이상의 조치(경고, 주의 제외)를 받은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의 산정은 위 (1)의 기준을 준용한다.
-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외부감사인,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발행인과 당해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 (1)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 (2)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 (3)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 5.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계획, 실적

### 1. 서민정책 현황

####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서민지원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잔여재산 분배금(7천억원)을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 하여 '08.12월부터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시행중
- (채무재조정)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 (전환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의 20%이상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12%(평균) 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
-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환승론) 지원실적('08.12~'09.8)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4,777 건	15,401 건
채권액	2,217억원	1,518억원

##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창업 지원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8.3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09년,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 < 소액서민금융재단 현황 >

	출 연	지 출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04억원</li> <li>- 은행 1,767억원</li> <li>- 보험 917억원</li> <li>- 저축은행 18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1억원</li> <li>- 소액대출 241억원</li> <li>- 소액보험 30억원</li> </ul>
'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9억원</li> <li>- 은행 894억원</li> <li>- 보험 232억원</li> <li>- 저축은행 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0억원</li> <li>- 소액대출 400억원</li> <li>- 소액보험 40억원</li> </ul>

##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장기연체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채무조정을 실시

<최근 3년간(~'09.8)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 현황>

(단위 : 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현황	
연 도	신청자
2006년	85,826
2007년	63,706
2008년	79,144
2009년6월말	55,921
합 계	254,597

-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확대 시행(이자 30%감면, 원금은 최장 8년 분할 상환 등)

\* '09.4.13~8월말, 6,908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 심사중

## □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 ① 불법 고금리사채 피해 축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09.4월 시행)
  - (상호·영업)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 사용, 대부업자의 교육
  -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5백만원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등
  - (이자제한 위반 제재)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 ② 불법 채권추심 피해 방지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09.8월 시행)

- (불법 추심행위\* 제재) 위반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 폭행, 협박 또는 공포감 유발, 채무자 등에게 허위 사실 등 고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 (선의의 채무자 보호) 채무자 요구시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 2. 향후 계획

-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별첨 1 : 미소금융확대방안 보도자료

별첨 2 : 미소금융확대 세부시행 방안

별첨 3 : 미소금융사업 Q&A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9. 17(목) 17:00부터 보도가능



소액서민금융재단  
Microfinance Foundation  
(휴먼에듀관리재단)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책 임 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2156-9850) 소액서민금융재단 장훈기 처장(2084-7905) 문의전화 (국번없이)1600-5500	담 당 자	금융위 주흥만·서재홍사무관(2156-9851~2) 소액서민금융재단 양창엽 팀장(2084-7960)	
배 포 일	2009. 9.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 제 목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
-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 조성·운영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총괄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美少)금융\* 확대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금년 12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

○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 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 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09.8월 현재 서민금융 지원 현황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50,327건, 전환대출(환승론) 14,561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08년~) 120,410건, 개인프리카아웃('09.4~) 4,561건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음



-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08.3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credit Bank)”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3월)

\*\* ‘00~’09년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이상(501억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8~’09년 2년간 공급

-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①규모 미흡\*, ②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③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금번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 2. 추진 내용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재계·금융권 등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토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동 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은 월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제 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 제 2단계로 기 설립 지역법인의 지부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0~300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②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지난 10년간('00~'09)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09.9월 현재, 기 출연액 약 2천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 출연될 것으로 예상

③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아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지원내용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처음 시도

- **일반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

\* 「사회적육성기업법」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노동부장관 인증)

-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

##### ⑤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운영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 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

### 3. 기대효과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 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④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

#### 4. 추진 일정

#####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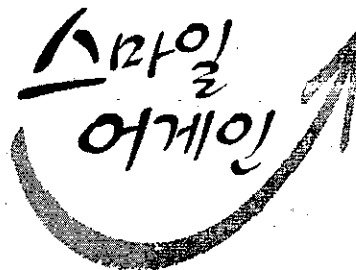
##### ☐ (1단계 사업)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600-5500** (종합안내센터)

※ 별첨 :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소액서민금융재단

**I.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II.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III. 추진 방안**

**IV. 기대효과**

**IV. 추진 일정**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1.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 1.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발전과정

◇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

□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

□ 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확산

\*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뱅크는 '76년 Yunus교수 주도로 창업 자금 지원. 5명 단위의 여성그룹에게 평균 100달러를 무담보 대출하고 자금 상환에 연대책임 부과(회수율 98%) → '83년 은행으로 전환

□ 90년대부터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환

\* 은행 전환 사례: BancoSol(볼리비아), Compartamos (멕시코), Mibanco(페루) 등

□ UN · WB · ADB 등 국제기구의 차관 · 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

○ UN은 '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

○ 특히,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

## 2.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유형

### 가. NGO형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남미 ACCION)

- ☐ (연혁) NGO들이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한 데서 유래
- ☐ (운영) 대출재원은 기업 기부, 정부·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출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

### 나. 조합형 (남미 FINCA Village Bank)

- ☐ (연혁) 각국별로 지역별 유대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협동체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면서 발전(우리나라의 신협)

\* FINCA Village Bank의 경우, 1984년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23개국으로 확산

- ☐ (운영) 대출재원은 조합원 출자금·예금, 금융차입, 기업 기부에 의존하며, 조합원에게 소액(FINCA Village Bank의 경우 50달러)을 대출

### 다. 은행형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Rakyat Indonesia)

- ☐ (연혁) '84년 기존 국영 농업 개발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부(BRI unit desa)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여·수신 제공(우리나라 농수협의 상호금융)

- ☐ (운영) 대출재원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약 75%)에 의존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대출고객을 모니터링

## II.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 1. 현 황

◇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

※ 정부,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만 지원

□ (사업수행기관)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

○ '05년 재정(복지부),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규모가 확대

□ (재원① : 재정) '05년부터 복지부는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8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

\* 지원대상 기관은 '05년에 사회연대은행·신나는 조합 등 2개 단체였으나 '09년 19개 단체로 확대

□ (재원② : 지자체) '09.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자금대출 개시(60억원)

□ (재원③ : 소액서민금융재단) '08.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

○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외에, 지자체(전통시장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도 실시

\* '08년 271억원, '09년 440억원 지원

## 2. 문제점

### ①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 ⇨ 재원 확충 · 다양화

-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움
-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총 인구 및 GDP 대비 수혜자 및 지원액, '08년)
    - 총 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

### ②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이 취약 ⇨ 민간 참여 확대

-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의 소지가 크고,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
- \* (예)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 · 서울시 · 소액 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

### ③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 ⇨ 접근성 제고

-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私금융에까지 의존

◇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신용 서민 ·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활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대책 필요

### Ⅲ. 추진 방안

#### 【 기본 방향 】

- ①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총괄기능 :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 등을 공모하여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수행
  - 재원 배분 기능 :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자금을 배분·지원
- ②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 (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1천억원)
  -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 1조원 이상 (금년중 2천억원)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직접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③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④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금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
  -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

##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의 중추적 기구로 확대·개편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미소금융중앙재단)로 확대·개편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
  -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단의 자체적인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확대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재계·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2.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
  - 동 법인을 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등 자원봉사자 2~5명 등을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금년 12월부터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업무를 시작하되, 2단계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 (1단계: '09.12~'10.5)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추진
  - (2단계: '10.6~) 전국에 걸쳐 법인 설립 및 동 법인의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성

□ 미소금융지점은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를 수행

○ (대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

- 대출재원은 초기 지점당 3~5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 (자활 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마케팅, 재무 및 회계, 고객 서비스 등

○ (상담) ①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부채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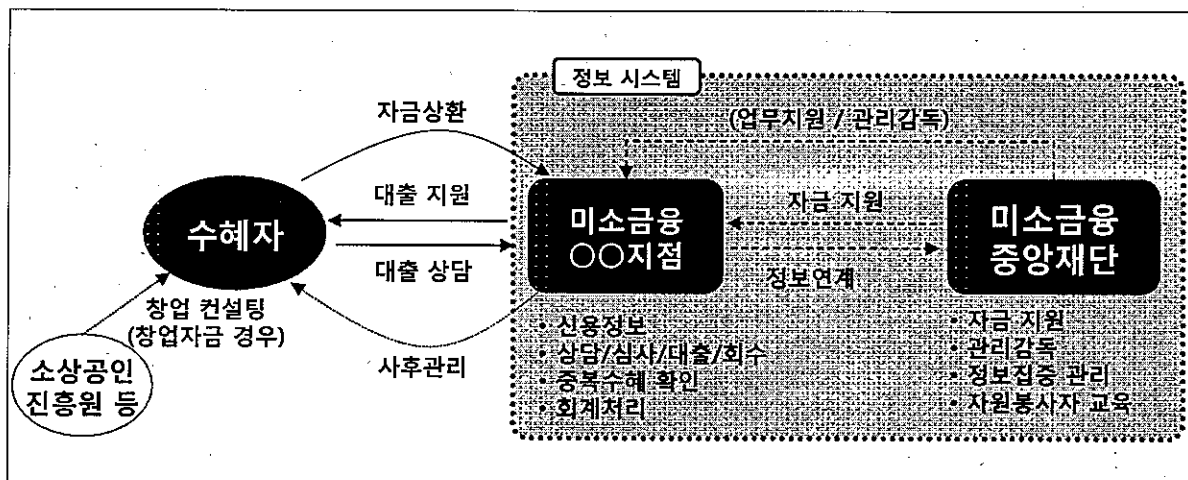
② 자활 컨설팅(소상공인진흥센터 연계)

③ 신복위(채무재조정), 신복기금(전환대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구직)로의 연결·알선

□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 비용이 들지 않는 사무공간을 활용

\* (예시) 전통시장 상가,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허간 활용(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

### < 지역법인 업무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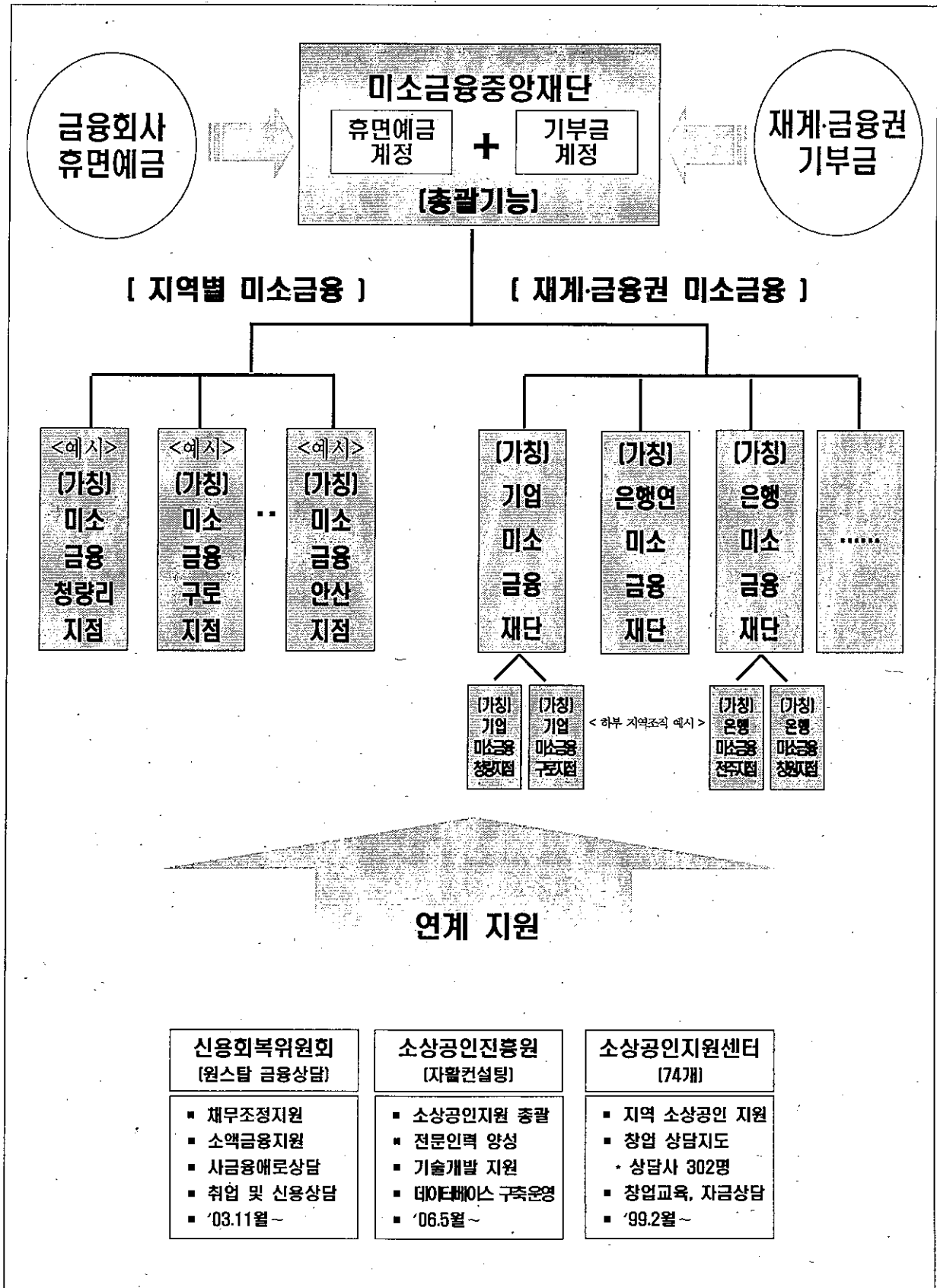


### 3. 재계·금융권의 자율적 미소금융사업 확산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연계
  -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운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미소금융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 추진



## <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체계 >



## 4.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

### 가. 총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 내용을 모델화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 일관성을 제고
-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

#### < 지원내용(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나.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①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이하)

○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컨설팅, 유망사업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행

②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

○ 지원조건 : 상인당 5백만원, 3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현재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인 서울시 및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로 확대

\* (현재) 서울시 24개 시장(10억원) → (내년) 전국 약 200여개 시장(120억원)

③ **프랜차이즈** :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

④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⑤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가 연대보증

⑥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로  
①보육, ②예술·관광 및 운동 ③간병 및 가사지원 ④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비스

## 5.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 □ 미소금융 지점별로 대표자가 주관하여 소요인력을 자체 모집

- 전국 300여개 지점의 소요인력(지점당 2~5명)을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
-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
-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자원봉사 취지를 구현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

### □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

- 추천서 발급 : 복지기관, 금융회사 등 취업을 위한 서류 제출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 발급
- 자활컨설팅 전문인력 교육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문 교육 이수를 거쳐 미소금융지점에 전문인력(RM)으로 파견
-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향후 지역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 6. 자원 조달

□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 (금년중 3천억원이상)

○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약 1조원 (금년중 약 1,000억원)

○ 금융권 기부금 : 약 1조원이상 (금년중 2,000억원이상)

· 금융회사 휴면예금 약 7천억원\* (금년중 약 800억원) 출연

\* '09년까지 누적출연 2,000억원 ('09년 800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억원 규모 출연

· 은행 중심으로 2,500억원이상 (금년중 700억원이상) 출연

·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금년중 500억원) 출연

## 7. 자금 운용

□ 조달된 자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사용

○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은 재계 및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게 다시 배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

□ 미소금융재단은 기존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구분계리하여 재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IV. 기대 효과

---

①(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행

③(나눔·봉사문화 확산)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④(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

## V. 추진 일정

---

### □ 사업 준비 ('09.9~11월)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 (1단계 사업) 미소금융 지점 설립 ('09.12~'10.5)

-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 설립 추진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 1. 개 요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등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중

-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

### 2. 주요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 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 '08년~, 개인워크아웃 120,410명, 개인프리워크아웃 4,561명 등 총 124,971명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 신용회복기금 지원실적 >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0,327 건	14,561 건
채권액	1,880 억원	1,430 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 · 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에 총 271억원 지원

□ 제도금융권을 활용한 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무점포 포함) 특례보증(3.95조원 규모)

\* '09.8월말 현재, 근로자 대출 167억원 / 자영업자 대출 2.8조원

- 14개 시중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판매(희망홀씨대출)

\* '09.8월말 현재, 5,362억원 대출(10만여명)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3.5% → 2.0~2.2%)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국무회의 보고) 시행

-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사금융 피해상당자에 원스탑서비스 제공(금감원)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등

##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00년~’09.7월, 단위 : 억원)

재 원 출 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 간 기 부 금	512	343
재정(복지부,희망키움뱅크)	410	80
휴 면 예 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 자 체(서울시,희망드림뱅크)	60	12
합 계	1,483	772

\*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금액중 재정(복지부),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추정액)

###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개시 연도	용도	재 원	지원액(누계)
신나는 조합	2000	창업 자금  · 사회적 기업 지원	100	45
사회연대은행	2002		250	208
아름다운세상기금	2003		50	12
함께일하는재단	2008		20	15.6
열매나눔재단	2003		30	15.5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2003		8	4
신나는 은행	2005		0.4	0.2
해피월드복지재단	2007		6	5.6
하나희망재단	2008		300	16
소상공인진흥원	2009		60	1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10	2.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10	1
민생포럼	2009		10	0.5
전통시장상인회	2008	생활	100	8.4
신용회복위원회	2006	운영 자금	373	362
한마음금융(자산관리공사)	2008		155.3	60.2
총 계	-	-	1,482.7	771.6

〈별첨 3〉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미소금융사업 Q&A

---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 '08.3월 설립되었으며 휴면예금의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자 지원과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 동 중앙재단이 앞으로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법인과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할 것이며,

○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중앙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09.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09.12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 2단계로 '10.6월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소금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입니다.
  -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관리하고,
  -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참고로,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대출상품(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운영자금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1억원 이내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 자금 지원	5백만원 1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6천만원~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 ☐ 한편,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한편,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③ (나눔·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6. 작년 은행의 대외채무 정부지급보증에 따른 MOU 체결이후 현재까지 은행의 이행여부 점검 현황 및 개선점

□ '08.10월, '09.5월 국회 대외채무지급 보증에 동의에 따라 제시된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2차례 은행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MOU는 금년말까지 운영할 계획

\* 다만, 일부 지급보증이 있는 은행의 경우 보증기간동안 적용

○ MOU 이행결과는 2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첨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지급보증이 연장될 경우 은행권 MOU도 재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국회 동의시 부대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할 것임

※ 첨부 : MOU 이행점검 결과 4건

---

#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 ('08.10.30)

#### ▶ 지급보증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보증대상 :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 보증기간 : '09.6.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를 최대 3년까지 보증
- 보증규모 : US 1,000억\$

### ②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재정부 장관 훈령) 제정 ('08.10.31)

\* 국가보증신청절차, 보증수수료 등 규정

### ③ 금감원장과 각 은행장(총18개 은행)간 MOU 체결 ('08.11.14)

- MOU는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 및 실물경제 유동성지원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

\* 한국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과는 'MOU 2'만 체결

#### ▶ MOU 주요 내용

##### ① MOU I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 지급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및 실물경제 지원용으로만 사용
- 외화조달 자구노력 강화(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

##### ② MOU II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 등)

-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 가계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경영합리화 방안 등

### ④ MOU 이행 상황을 점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사후조치 평가점검반'을 구성
- '사후조치평가회의'를 개최('09.2.4)하여 은행들의 '08.11~12월 이행상황을 점검

## 2.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2.16일 현재까지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없음

○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부보증을 통한 국제채권 발행은 쉽지 않은 상황

\* 리먼사태 이후 정부보증 프로그램은 24개국이 운영중이며, 이중 미국·영국·호주 등 신용등급이 높은(AAA, AA) 12개국에서 약 4천억불 발행 (1.23 현재)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8년 11,12월 실적)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는 이행상태가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의 경우 당초 목표치에 미달(외화자금조달구조개선 및 중기대출 항목)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유동성) 총 50.7억달러를 확보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달성</li><li>(중장기차입비율) 평균 58.4%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4%)를 초과달성</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1.2%로서 목표(85.4%)를 초과달성</li><li>(증가액) 총 4.6조원 증가하여 목표(4.2조원)를 초과달성</li><li>- 다만 일부은행은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등 목표에 미달</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2.7조원</li></ul>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거치기간 연장</th><th>만기연장</th></tr><tr><td>20.0</td><td>1.5</td><td>0.3</td><td>0.9</td><td>22.7</td></tr></table>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모든 은행이 목표달성(목표 8.9조원, 달성 16.4조원)</li></ul> <table><tr><th>구 분</th><th>증자</th><th>후순위채</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목표(A)</td><td>2.5</td><td>6.4</td><td>-</td><td>8.9</td></tr><tr><td>실적(B)</td><td>7.4</td><td>8.6</td><td>0.3</td><td>16.4</td></tr></table>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표(A)	2.5	6.4	-	8.9	실적(B)	7.4	8.6	0.3	16.4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표(A)	2.5	6.4	-	8.9												
실적(B)	7.4	8.6	0.3	16.4												

#### 4. MOU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 다만 지급보증 신청은행이 없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MOU를 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

① 정부·한은의 외화·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의 한도 차감폭을 확대(25%→50%)\* (즉시시행)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 (수출입은행)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실적'이 미흡한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지원시 가산금리 부과 (3월)

②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MOU 이행실적을 반영 (3월)

- '경영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MOU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③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주의환기' 조치 (즉시시행)

- 또한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담당자(RM) 상시지도를 통해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추진을 독려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 ('08.10.30)

\*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부대의견 제시(☞참고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 ▶ 지급보증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보증대상 :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 보증기간 : '09.6.30일까지 차입하는 채무를 최대 3년까지 보증
- 보증규모 : US 1,000억\$

### ② 금감원장과 각 은행장(총18개 은행)간 MOU 체결 ('08.11.14)

- MOU는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 및 실물경제 유동성지원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

\* 한국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과는 'MOU 2'만 체결

#### ▶ MOU 주요 내용

##### ① MOU I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 지급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및 실물경제 지원용으로만 사용
- 외화조달 자구노력 강화(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

##### ② MOU II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 등)

-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은행 경영합리화 방안 등

### ③ '08.11~12월 MOU 이행 상황 점검 및 국회 제출('09.2.18)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합동으로 MOU 이행실적 ('08.11~12월)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국회 제출

#### ▶ 은행들의 08.11~12월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참고1)

- 은행의 이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 임원 보수 수준 10~30% 삭감, 적정자기자본 확충 규모 목표 달성 등
- 다만 일부은행의 경우 목표치에 다소 미달
  - \*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4개 은행), 중소기업 대출 항목(6개 은행)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2월말까지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없음

※ 다만, '09.4월 하나은행이 정부 지급보증을 신청하여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공모채권을 발행[발행금리 6.5%(Libor+490bp)]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1~2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태는 양호하지만 중기대출 항목의 경우 일부은행이 목표치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방안 마련 *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 중장기차입비율은 평균 62.6%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8%)를 초과달성 - 특히 산은 및 수은은 각각 20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 (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2.6%로서 목표(85.8%) 대비 6.8%p 초과달성 ▪ (중기대출비율) 평균 59.8%로서 목표(54.1%)를 초과달성 - 다만 산은·기은·외환·SC제일·수은은 목표에 미달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1.6조원 (단위 : 조원)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기타*</th><th>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h></th><th></th></tr><tr><td>19.4</td><td>0.3</td><td>1.6</td><td>0.3</td><td>21.6</td></tr></table> *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19.4	0.3	1.6	0.3	21.6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19.4	0.3	1.6	0.3	21.6												
경영합리화 추진	▪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08.12월 기완료)															
적정자기 자본 확충	▪ 전체자본확충규모는 2.7조원으로 목표(2.3조원)를 초과달성 (단위 : 조원) <table><tr><th></th><th>증자</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실적</td><td>2.3</td><td>0.4</td><td>2.7</td></tr></table>		증자	신종자본증권	합계	실적	2.3	0.4	2.7							
	증자	신종자본증권	합계													
실적	2.3	0.4	2.7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① 은행자본확충 펀드 지원시 MOU 이행실적에 따라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

\* 실물지원 관련 MOU의 이행실적에 따라 우수群(6개 은행) 및 일반群(8개 은행)으로 분류하고, 신종자본증권 등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②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지원 축소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당초 25%)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MOU 이행실적을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④ 분기별 이행실적 부진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주의환기' 조치

#### 5. 향후 MOU 운용 방향

☐ 지급 보증동의안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MOU 재체결

☐ 현재와 같은 MOU 점검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합동으로 '사후조치 평가점검반'을 운용하여 은행들의 MOU 이행상황을 점검

# 참고 1

## 은행들의 08.11-12월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 방안 마련</li><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화유동성) 총 50.7억달러를 확보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농협은 외화예금 거액인출로 목표 미달</li></ul></li><li>▪ (중장기차입비율) 평균 58.4%로 전체은행 평균목표 (51.4%)를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외환, 우리, 수출입은행은 목표미달</li></ul></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1.2%로서 목표(85.4%)를 초과달성</li><li>▪ (증가액) 총 4.6조원 증가하여 목표(4.2조원)를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일부은행은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등 목표에 미달</li></ul></li><li>*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전북, 대구</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2.7조원</li></ul>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거치기간 연장</th><th>만기연장</th></tr><tr><td>20.0</td><td>1.5</td><td>0.3</td><td>0.9</td><td>22.7</td></tr></table> <p>*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액 등</p>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 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든 은행이 목표달성(목표 8.9조원, 달성 16.4조원)</li></ul> <table><tr><th>구 분</th><th>증자</th><th>후순위채</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목 표</td><td>2.5</td><td>6.4</td><td>-</td><td>8.9</td></tr><tr><td>실 적</td><td>7.4</td><td>8.6</td><td>0.3</td><td>16.4</td></tr></table>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 표	2.5	6.4	-	8.9	실 적	7.4	8.6	0.3	16.4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 표	2.5	6.4	-	8.9												
실 적	7.4	8.6	0.3	16.4												

## 참고 2

## 국회제시 부대의견(08.10.30)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황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 '09.2월말까지 지급보증실적은 없음</li><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li></ul> <table><tr><th></th><th>중기대출 증가액</th><th>평균 중기대출비율</th></tr><tr><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tr><td>09.1.2</td><td>6.7조원</td><td>59.8%</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li></ul> <table><tr><th></th><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tr><tr><td>08.11.12</td><td>22.7조원</td></tr><tr><td>09.1.2</td><td>21.6조원</td></tr></table>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2	6.7조원	59.8%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2	21.6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2	6.7조원	59.8%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2	21.6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li></ul> <table><tr><th></th><th>외화유동성확보*</th><th>중장기차입비율</th></tr><tr><td>08.11.12</td><td>50.7억\$</td><td>58.4%</td></tr><tr><td>09.1.2</td><td>16.6억\$</td><td>62.6%</td></tr></table> <p>* 외화예금 유치,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p>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2	16.6억\$	62.6%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2	16.6억\$	62.6%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화 등 경영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li><li>- 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li><li>① 한은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미준수 은행 지원 축소</li><li>* ('09.3) △6,527억원, (4월) △5,229억원</li><li>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09.2월말 현재 지급보증실적은 없으므로 대지급 발생가능성 없음</li><li>다만 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격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09.24)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li>1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li></ul>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월)

###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li> <li>▪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li> <li>▪ 수출기업 지원(매입외환 증대) 목표(34억\$) 이행의무</li> <li>▪ 가게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li> <li>▪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li> <li>▪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li> </ul>

\* 동 MOU 변경내용은 5월 이후 실적부터 적용하며, 1~4월 실적은 종전 MOU에 의해 점검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6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1~4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중소기업대출 항목의 경우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li><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장기차입비율은 평균 64.1%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9%)를 초과달성</li><li>- 특히 산은 및 수은은 각각 20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2.8%로서 목표(85.4%) 대비 7.4%p 초과달성</li><li>(중기대출비율) 평균 57.1%로서 목표(53.6%)를 초과달성</li><li>- 다만, 산은·수은·기은·대구은행 및 중기대출금액이 감소한 SC제일·외환은행은 목표에 미달</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48.4조원 (단위 : 조원)</li></ul> <table><tr><th colspan="2">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h></th></tr><tr><td>43.3</td><td>0.7</td><td>3.9</td><td></td><td>0.5</td><td>48.4</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li></ul>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43.3	0.7	3.9		0.5	48.4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43.3	0.7	3.9		0.5	48.4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체 자본확충규모는 9.6조원으로 목표(4.6조원)를 초과달성 (단위 : 조원)</li></ul> <table><tr><th></th><th>증 자</th><th>신종자본증권</th><th>후순위채</th><th>합 계</th></tr><tr><td>실 적</td><td>4.1</td><td>4.1</td><td>1.4</td><td>9.6</td></tr></table>		증 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합 계	실 적	4.1	4.1	1.4	9.6						
	증 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합 계													
실 적	4.1	4.1	1.4	9.6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① 은행자본확충 펀드 지원시 MOU 이행실적에 따라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 실물지원 관련 MOU의 이행실적에 따라 우수群 및 일반群으로 분류하고, 신종자본증권 등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②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지원 축소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당초 25%)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MOU 이행실적을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 참 고

## 국회제시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황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table><tr><th></th><th>중기대출 증가액</th><th>평균 중기대출비율</th></tr><tr><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tr><td>09.1~4</td><td>13.8조원</td><td>57.1%</td></tr></table></li><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table><tr><th></th><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tr><tr><td>08.11~12</td><td>22.7조원</td></tr><tr><td>09.1~4</td><td>48.4조원</td></tr></table></li></ul>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4	13.8조원	57.1%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4	48.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4	13.8조원	57.1%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4	48.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table><tr><th></th><th>외화유동성확보*</th><th>중장기차입비율</th></tr><tr><td>08.11~12</td><td>50.7억\$</td><td>58.4%</td></tr><tr><td>09.1~4</td><td>322.4억\$</td><td>64.1%</td></tr></table><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화에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li></ul></li><li>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기능(운영지침반영)</li></ul>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4	322.4억\$	64.1%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4	322.4억\$	64.1%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ul></li><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li></ul></li><li>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ul></li></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li><li>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각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li>1·2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 416)</li></ul>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 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한국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 6월)

###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 5~6월 이행실적은 재체결한 MOU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li> <li>▪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li> <li>▪ 수출기업 지원(매입외환 증가) 목표(34억\$) 이행의무</li> <li>▪ 가계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li> <li>▪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li> <li>▪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li> </ul>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8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5~6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MOU 1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li> <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 </ul>																				
	외화조달 지구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유동성 확보) '09.1~6월중 총 121.2억달러를 확보하여 계획치인 33.8억달러를 초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하나, 전북 및 광주은행은 목표 미달</li> </ul> </li> <li>(중장기차입비율) 평균 74.8%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5.9%)를 초과달성</li> </ul>																				
MOU 2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대출) 중기대출비율은 평균 65.4%로서 목표(48.9%)를 초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외환 및 SC제일은행은 목표 미달</li> </ul> </li> <li>(무역금융) 매입외화평잔은 5~6월 △1.5억달러 감소하였으나 계획 (△3.3억달러) 초과달성</li> </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6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8조원 (단위 : 조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일시상환대출</th> <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 <th rowspan="2">기타</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만기연장</th> <th></th> <th>만기조정</th> <th>거치기간 연장</th> </tr> </thead> <tbody> <tr> <td>25.2</td> <td></td> <td>0.3</td> <td>2.0</td> <td>0.4</td> <td>2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li> </ul>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 <li>* 외환은행의 신입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중 20% 반납완료(5.8일)</li> </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S자기자본비율은 13.1%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li> <li>기본자기자본비율은 9.3%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li> </ul>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지급보증을 받은 하나은행 등의 MOU 1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 촉구 및 개선조치 공문 발송

\* 외화 유동성 확보 금액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

- 최초 위반,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보다는 주의촉구가 바람직

\* 외화자산 감소로 인한 차입규모 축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외화 예수금을 통한 추가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7월말 현재 외화유동성 목표 초과 달성

- 향후 동일사항의 MOU 이행위반이 누적되는 경우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 계획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 MOU2 목표 달성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주의 촉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MOU 이행을 담보

① MOU상 중소기업대출 미흡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서 경영진 면담 실시

② MOU 목표미달 은행에 대해 주의 재촉구 공문 발송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MOU 이행실적을 반영

④ 하반기 중 목표미달 은행들을 중심으로 MOU 이행실태 점검 실시 예정

## 참 고

## 국회제시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환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 <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 <table> <tr> <th></th> <th>중기대출 증가액</th> <th>평균 중기대출비율</th> </tr> <tr> <td>08.11~12</td> <td>4.6조원</td> <td>67.5%</td> </tr> <tr> <td>09.1~6</td> <td>21.7조원</td> <td>65.4%</td> </tr> </table> </li> <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 <table> <tr> <th></th> <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 </tr> <tr> <td>08.11~12</td> <td>22.7조원</td> </tr> <tr> <td>09.1~6</td> <td>76.4조원</td> </tr> </table> </li> </ul>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 <table> <tr> <th></th> <th>외화유동성확보*</th> <th>중장기차입비율</th> </tr> <tr> <td>08.11~12</td> <td>50.7억\$</td> <td>58.4%</td> </tr> <tr> <td>09.1~6</td> <td>121.2억\$</td> <td>74.8%</td> </tr> </table> <p>* 외화예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p> <li>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가능(운영지침반영)</li> </li></ul>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 </ul> </li> <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 *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li> <li>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 </ol> </li> </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li> <li>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 </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 <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 </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각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 58)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 <li>1·2·3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 416, 629)</li> </ul>															



## 7.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설명)받은 내역 및 보고(설명) 문서 사본 일체

□ 그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용차 관련 주요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받은 바 있음

○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별 첨 : 자료 별도제출

## 8. 쌍용차사태와 관련 금융위가 검토한 내용 및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역

□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 Fast Track 프로그램(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신·기보의 일반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중이며\*

\* '09.8월말 현재 신·기보 통해 Fast Track 170억원 포함, 총 5,583억원 지원

○ 특히,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다수 위치한 지자체(경기도·인천시)와 은행이 출연하여 지역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4.23일)·운영중임

\* 지자체와 은행이 각 100억원씩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여, 보증배수 12배(2,400억원) 범위내에서 '완성차업체'가 선정하는 협력업체를 지원('09.8월말 현재 쌍용차 협력사에 53억원 지원)

□ '09.4.24일자 보도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09.4.24일(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			
책임자	우상현 과장(2156-9750) 김창규 과장(2110-5631)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2156-9754) 류재열 사무관(2110-4824)	
배포일	2009. 4. 23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 제목 :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지원

###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최 -

-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윤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09.4.23(목) 지자체·은행·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을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정 부) 이윤호 지경부 장관, 임승태 금융위 상임위원  
(지자체)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금융계)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 이백순 신한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 전무이사, 진병화 기보 이사장, 안택수 신보 이사장

- 금번 협약식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가 각각 50억원을, 은행에서는 기업·농협·신한은행이 1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측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우대를 통해 쌍용차와 GM대우 협력사에 2,4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음

- 그간 정부는 2차에 걸쳐 『상생보증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주력업종의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오고 있음

- 동 상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이 1: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1·2·3차 포함)에 전액 보증(100%)하고 은행이 장기·低利로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음

\* 1차 상생보증 프로그램('09.1.19)

- 대기업 3社(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은행 3社(기업, 신한, 우리은행)가 총 420억원을 특별출연
- 3社의 협력업체에 약 7,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 협력업체 지원현황(4.21 기준) : 현대차(84개 업체, 526억원), 포스코(99개 업체, 906억원), 하이닉스(24개 업체, 427억원)

\*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09.4.9)

- 대기업 5社(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석유화학협회, 은행 4社(우리, 기업, 신한, 외환)가 최대 497억원을 특별출연
- 4社 및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협력업체에 최대 8,200억원의 유동성 지원

- 상생펀드\* 및 1차 상생보증프로그램을 통해 현대·기아차 협력사는 3,640억원이 지원중이며, 르노삼성 협력사의 경우도 제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억원이 지원예정이어서 상당분 협력사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현대·기아차 상생펀드('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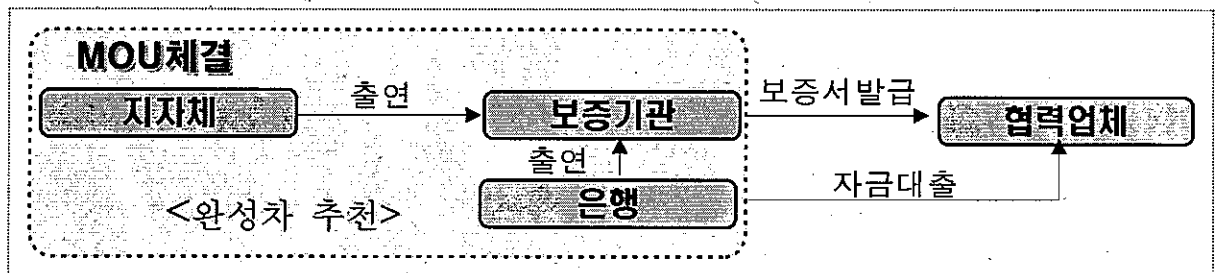
- 현대기아차 200억 출연, 현대·기아차 협력사에 1,000억원 유동성 지원

- 쌍용차 및 GM대우차 협력사의 경우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완성차업체가 협력사에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수 없어,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부, 관련 지자체 및 금융계가 합심하여 자금난 악화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쌍용차와 GM대우차 협력부품사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되었음

□ 금번 추진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경기도 및 인천시가 지원 여력이 부족한 완성차업체를 대신함으로써 특별 출연하여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품협력사를 지원하는 최초 모델로서, 부품업체의 유동성 악화 및 연쇄부도 위기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도 다소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상생 보증펀드’ 구조



□ 상생보증 지원대상은 인천시 및 경기도 관내의 쌍용차와 GM대우 협력사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며,

- 협약 지자체간 또는 타지역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각각 상생보증공급 누계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함으로써, 협약 지자체간 외에도 타지역의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등 주력업종 및 관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별첨>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요

◆ 그간 완성차업체의 경영불안으로 유동성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GM대우 및 쌍용차 협력부품사의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지역상생 보증펀드” 마련)을 위한 MOU 체결

- \* <지역상생 보증펀드> : 지자체-은행이 1:1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여, 보증배수(12배) 범위내에서 완성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 지원
- \* 지자체 : 인천시 및 경기도 각 50억 / 금융기관 : 기업은행(34억), 신한은행(33억), 농협(33억)

\* “상생보증프로그램”: 현대기아차(2,640억, '09.2.25 기시행), 르노삼성(495억, 4월시행)

### □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2009.4.23(목) 14:30~15:00, 그랜드인터콘H 아이리스크롬(2층)

### ○ 참석대상

- 정 부(2명) : 지경부장관(이윤희), 금융위 상임위원(임승태)
- 지자체(2명) : 인천광역시장(안상수), 경기도지사(김문수)
- 금융계(5명) : 농협(김태영) · 신한(이백순) 은행장, 기업(조준희) 전무이사, 기보(진병화) · 신보(안택수)이사장

###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참석자 Tea Time	14:30 ~14:40	10'	자동차 등 최근 실물경기 동향에 대해 환담	
MOU체결 Ceremony	14:40 ~15:00	20'	모두 발언(6')	지경부 장관,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각 2'씩
			MOU 내용 낭독(3')	사회자
			MOU 서명(8')	지자체·금융계 총7명 (장관 임석)
			기념촬영(3')	참석자 전원

\* 사회 :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

## 9. 최근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파견 현황 및 파견 후 성과보고서 사본

### ☐ 파견 현황

성명	휴직기간	휴직기관	근무부서	담당업무
OOO	06.07.10~09.05.15	신영증권	IB본부	M&A, 부동산금융 등
OOO	07.08.02~09.06.29	삼일회계법인	회계자문본부	국제회계기준 및 자본시장 조사·연구
OOO	07.07.03~08.12.03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분석 및 자문
OOO	07.07.20~10.07.19	코너스톤에퀴 티파트너스(주)	운용팀	거시경제 및 기업가치 분석

### ☐ 성과보고서 사본 별도제출

## 10. 08년이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 별도 제출



# 이 한 구 의원



#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원본대조필)

B.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인사의 추천 공문서(원본대조필)와 이력사항  
- 추천공문, 성명, 주요경력, 추천기관, 추천사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원본대조필) : 별첨

□ 공적자금관리위원의 이력사항

성명	주요경력	추천	추천사유
민상기	-한국금융학회 회장('02~'03) -한국경영학회 이사('04~)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現)	대한상공회의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①요건해당자
안종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자문위원(現) -기획예산처기금운영평가단 복지 노동팀장('04)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現)	국회 상임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①요건해당자
윤용만	-한국경제연구학회 총무이사('01~'04)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現)	국회 상임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①요건해당자
임치용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05~'07)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現)	법원행정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②요건해당자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86~)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現)	공인회계사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③요건해당자
박경서	-한국재무학회 부회장(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現)	전국은행연합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3조④요건해당자

[참고] 관련조문

<공적자금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기획재정부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공적자금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계속영업기간·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재무·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경제학·경영학·재무이론·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경제·재무·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금

용·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학을 전공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판연구원 또는 헌법연구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

인 또는 단체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본조신설 2009.7.27]

## 2. 최근5년간(~2009.8) 과징금 부과실적 (부과금액, 징수금액,징수율 등)

### - 유형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변동현황

☐ 최근 5년간 과징금 현황 및 유형별 미수납액은 불임과 같고,

☐ 불납결손액 변동현황

○. 과징금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동안 국회(정무위)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과징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07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자중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무재산, 폐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07년 9건 175백만원, 08년 7건 1,873 백만원을 불납결손처분 하였음.

불 임 :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현황(2005년 ~ 2009년 8월 현재)

부과 년도	부과 당사자	부과 건수	부과금액(원)	납부 건수	납부금액(원)	미납 건수	미납금액(원)	건수대비 수납율	금액대비 수납율	비고
2005	개인	6	146,000,000	5	116,000,000	1	30,000,000	83.3%	79.5%	
	법인	51	4,408,700,000	47	4,119,200,000	4	289,500,000	92.2%	93.4%	
	금융기관	5	3,396,000,000	5	3,396,000,000	0	-	100.0%	100.0%	
	소계	62	7,950,700,000	57	7,631,200,000	5	319,500,000	91.9%	96.0%	
2006	개인	1	10,000,000	1	10,000,000	0	-	100.0%	100.0%	
	법인	27	9,712,300,000	26	8,489,600,000	1	1,222,700,000	96.3%	87.4%	
	금융기관	3	457,000,000	3	457,000,000	0	-	100.0%	100.0%	
	소계	31	10,179,300,000	30	8,956,600,000	1	1,222,700,000	96.8%	88.0%	
2007	개인	9	2,174,700,000	4	78,700,000	5	2,096,000,000	44.4%	3.6%	
	법인	42	7,432,900,000	35	5,702,700,000	7	1,730,200,000	83.3%	76.7%	
	금융기관	3	1,076,000,000	3	1,076,000,000	0	-	100.0%	100.0%	
	소계	54	10,683,600,000	42	6,857,400,000	12	3,826,200,000	77.8%	64.2%	
2008	개인	6	154,000,000	1	10,500,000	5	143,500,000	16.7%	6.8%	
	법인	37	8,649,100,000	22	4,220,082,140	15	4,429,017,860	59.5%	48.8%	
	금융기관	2	2,998,000,000	2	2,998,000,000	0	-	100.0%	100.0%	
	소계	45	11,801,100,000	25	7,228,582,140	20	4,572,517,860	55.6%	61.3%	
2008년까지 합계		192	40,614,700,000	154	30,673,782,140	38	9,940,917,860	80.2%	75.5%	
2009	개인	2	36,000,000	1	16,000,000	1	20,000,000	50.0%	44.4%	
	법인	46	4,129,400,000	12	722,300,000	34	3,407,100,000	26.1%	17.5%	납부기일 미도래 금액 포함
	금융기관	4	241,000,000	3	97,000,000	1	144,000,000	75.0%	40.2%	
	소계	52	4,406,400,000	16	835,300,000	36	3,571,100,000	30.8%	19.0%	
총합계		244	45,021,100,000	170	31,509,082,140	74	13,512,017,860	69.7%	70.0%	



### 3-1. 2008년~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의 구조조정기금 지원규모

- 신규, 증액, 총액, 상환액, 잔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명기할 것

#### □ 구조조정기금 지원규모

- 구조조정기금 설치(09.5월) 후 '09.8월말까지 금융권 PF 채권 매입을 위해 총 4,622억원 지원

< 분기별 / 은행별 기금 지원규모 ('09.8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상환액/ 잔액
		신규	증액	총액	
PF대출채권 인수	우리은행	3,120	-	3,120	해당사항 없음
	농협중앙회	892	-	892	
	광주은행	303	-	303	
	수협중앙회	137	-	137	
	국민은행	124	-	124	
	신한은행	46	-	46	
총 계		4,622	-	4,622	

### 3-2. 2008년 ~ 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지주회사 별도 명기)의 ①자본확충펀드, ②대외채무 지급보증의 지원 규모

#### ① 자본확충펀드

□ 한국은행(10조원) 및 산업은행(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 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을 조성기로 운영계획 발표('09.2.25일)

□ 은행자산 규모에 따라 「펀드」 참여 14개 은행에 대해 12.3조원 한도(credit line) 배정(3.10일)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수협(0.2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경남(0.23조원), 광주(0.17조원), 전북(0.07조원), 제주(0.03조원)

\* 최초 배정후 외환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매입(0.25조원) 자진 철회(3.16일)

\*\* 그룹 I (자산 200조원 이상), 그룹II(200~140), 그룹III(140~50), 그룹IV(50조원 이하)

□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 완료(3.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② 대외채무지급보증**

**□ 09.6월말 기준 : 하나은행**

**① (09.4월) 미화 10억\$**

- 만기 3년, L+490bp 수준, 공모

**② (09.6월) 말레이징킷 10억(미화 2.8억\$ 상당)**

- 만기 3년, L+300bp 수준, 공모

4-1. 2008년~2009.8월말 분기별 은행별 구조조  
정기금 지원시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MOU  
사본과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 결과 사본

☐ 구조조정기금

-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MOU가 없음(해당사항 없음)

4-2. 2008~2009.8월말 은행별(지주회사 별도 명기)의  
 ①자본확충펀드, ②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시 금융  
 감독당국과 맺은 MOU사본과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결과 사본

1 자본확충펀드

□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한 은행과의 MOU(안)\*과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 은행별 MOU 양식은 동일하며 은행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수협(0.2조원), 대구(0.3조원), 부산(0.3조원), 경남(0.23조원), 광주(0.17조원), 전북(0.07조원), 제주(0.03조원)

\* 최초 배정후 외환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매입(0.25조원) 자진 철회(3.16일)

\*\* 그룹 I (자산 200조원 이상), 그룹II(200~140), 그룹III(140~50), 그룹IV(50조원 이하)

[붙임1] 은행자본확충펀드 MOU 사본

[붙임2] 은행자본확충펀드 이행사항 점검결과 사본

2 대외채무지급보증

□ 대외채무지급보증에 참여한 은행과의 MOU(안)과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3]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사본

[붙임4] 대외채무지급보증 이행사항 점검결과 사본

## [붙임1] MOU 사본

###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약정서[案]

OO은행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배정받음에 있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적극적인 기업구조 조정 추진, 자본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 제 1 장 지원한도 및 지원기한

1. OO은행은 총0,000억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정받는다. 다만, 동 한도 중 0,000억원은 신종자본증권, 0,000억원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한도로 한다.

#### 제 2 장 실물경제지원 강화 및 외화조달 노력

2. OO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배정받음으로서 증가한 신용공급여력이 중소기업 신규대출·만기연장·보증, 신용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OO은행은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OO은행은 은행건전성 확보와 실물지원을 강화를 위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5. OO은행은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자금의 용도내 사용 등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3 장 실물지원 실적 등의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6. OO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지원 기간중 상기사항의 이행 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7. OO은행은 제2장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과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 - 부 칙 -

1. 본 약정서의 효력은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와 OO은행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장과 제3장의 실물지원 및 외화조달 실적 관련 자료의 제출과 실적평가는 2009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본 약정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받은 은행은 동 자금의 최종 상환시점에서, 지원받지 않은 은행은 지원한도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일 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OO은행 은행장 OOO

## [첨부] 은행별 실적 상세 점검표

지원 내용		연장 실적	비고
<b>① 중기지원 관련</b>			
- 중기 신규대출 <sup>3)</sup>	MOU <sup>4)</sup> 목표금액 초과분	위험가중치 <sup>2)</sup> 로 가중평균한 지원실적	
- 중기 전환사채 매입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기 출자전환	지원기간 중 증가액		
-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MOU 목표금액 초과분		
- 무역금융 지원	MOU 목표금액 초과분		
- 심/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sup>5)</sup>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소기업지원펀드 (매자년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상생협력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기대출 만기연장	MOU 목표비율 초과분 (신규대출 실적 인정)		
<b>② 기업구조조정<sup>6)</sup> 관련</b>			
-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기간 중 증가액	위험가중치 <sup>2)</sup> 로 가중평균한 지원실적	
-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전입	지원기간 중 증가액 * 보완자본 편입대상은 제외		
- 구조조정 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부실채권 정리 지원 <sup>7)</sup>	지원기간 중 증가액		
<b>③ 외화조달 실적</b>	기간물 조달실적 등	MOU 목표와 연계하여 점검	
<b>④ 은행별 한도 배정금액</b>			

1) '09.3.1일부터 기산, 2) 표준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위가 추후 확정
3) FastTrack, 무역금융지원 등 하위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이하 동일 적용)
4) 은행별 MOU목표 수준 고려
5) 특별출연금만 해당('09.1.1일부터 기산 가능)
6)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적용 대상
7) 추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



##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약정서(案)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배정받음에 있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자본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다 음 —

#### 제 1 장 지원한도 · 기한과 자본확충펀드 사용용도

1.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총 0,000억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정받는다. 다만, 동 한도 중 0,000억원은 OO은행의 신종자본증권, 0,000억원은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한도로 한다.

2. OO금융지주는 제1항의 후순위채 한도를 OO은행 및 OO은행의 기본자본 확충 목적으로 배정받으며, 동 조의 기본자본 확충금액 및 방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제 2 장 실물경제지원 강화 및 외화조달 노력

3. OO은행은 OO금융지주가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배정받음으로서 증가한 신용공급여력이 중소기업 신규대출 · 만기연장 · 보증, 신용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 ·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OO금융지주는 이를 적극 유도한다.

4. OO은행은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OO금융지주는 이를 적극 유도한다.

5.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은행건전성 확보와 실물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6.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자금의 용도내 사용 등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3 장 실물경제 지원 등의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7.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지원기간중 상기사항의 이행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은 제2장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과 동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 - 부 칙 -

1. 본 약정서의 효력은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회'와 OO금융지주 및 OO은행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장과 제3장의 실물지원 및 외화조달 실적 관련 자료의 제출과 실적평가는 2009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본 약정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받은 금융지주 및 은행은 동 자금의 최종 상환시점에서, 지원받지 않은 금융지주 및 은행은 지원한도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일 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은행자본확충펀드운영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OO금융지주 회장 000

OO은행 은행장 000

OO은행 은행장 000

## [첨부] 은행별 실적 상세 점검표

지원 분야		지원금 범위	비고
① 중기지원 관련			
- 중기 신규대출 <sup>3)</sup>	MOU <sup>4)</sup> 목표금액 초과분	위험가중치 <sup>2)</sup> 로 가중평균한 지원실적	
- 중기 전환사채 매입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기 출자전환	지원기간 중 증가액		
-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MOU 목표금액 초과분		
- 무역금융 지원	MOU 목표금액 초과분		
-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sup>5)</sup>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소기업지원펀드 (매자년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상생협력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중기대출 만기연장	MOU 목표비율 초과분 (신규대출 실적 인정)		
② 기업구조조정 <sup>6)</sup> 관련			
-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기간 중 증가액	위험가중치 <sup>2)</sup> 로 가중평균한 지원실적	
-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전입	지원기간 중 증가액 * 보완자본 편입대상은 제외		
- 구조조정 펀드 출자	지원기간 중 증가액		
- 부실채권 정리 지원 <sup>7)</sup>	지원기간 중 증가액		
③ 외화조달 실적	기간물 조달실적 등	MOU 목표와 연계하여 점검	
④ 은행별 한도 배정금액			

- 1) '09.3.1일부터 기산, 2) 표준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위가 추후 확정  
 3) FastTrack, 무역금융지원 등 하위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이하 동일 적용)  
 4) 은행별 MOU목표 수준 고려  
 5) 특별출연금만 해당('09.1.1일부터 기산 가능)  
 6)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적용 대상  
 7) 추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

[붙임2]

---

# **은행자본확충펀드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2009. 9**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 1 자본확충펀드 사용 경과 및 실적점검 방식

## 1) 지원 경과

- 자본확충펀드 지원신청 은행에 대하여 제1차 지원한도 12.3조원 배정('09.3.10)

<자본확충펀드 1차 한도배정 현황>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국민(2조원) 우리(2조원) 신한(2조원)	하나(1.5조원) 기업(1.5조원) 농협(1.5조원)	외환(0.5조원)*	대구( 0.3조원), 부산(0.3조원), 광주(0.17조원), 제주(0.03조원), 전북(0.07조원), 경남(0.23조원), 수협( 0.2조원)

\* 외환은행은 제3차 운영위원회(3.20)에서 배정금액을 0.25조원으로 조정

- 지원한도 12.3조원 중 8개 기관이 발행한 약 4조원의 신종 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09.3.31)

<펀드지원 대상 금융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2) 실적평가 절차

- 각 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실적 등을 펀드 운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 금감원은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펀드 운영위원회에 보고

### 3) 실적평가 방법

#### □ 기본 평가방향

- (평가 항목) 중소기업 대출 등 실질적으로 신규 지원이 이루어진 항목\*만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 예대상계, 대출만기연장, 외화조달 실적 등 펀드 한도배정에 의한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필요시 비계량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 기준) 한도배정(credit-line)에 대응한 위험가중자산 증가분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행의 리스크부담을 고려

#### □ 세부 평가항목 및 항목별 위험 가중치(펀드지원 MOU상 점검항목)

구분	평가항목	위험 가중치
중소기업 등 지원	중소기업 대출	100%
	중기지원 성격의 대기업 대출	100%
	중소기업 직접투자	150%
	중소기업 투자펀드 출자	150%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100%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	1,250%
	수출금융 지원	100%
	서민금융 지원*	75%
	부실우려 차주 지원**	100%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100%
	구조조정 관련 총당금 전입액	1,250%
	부실채권 매각관련 손실 금액	1,250%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금액	150%
	과거 3년 평균 초과 특별상각 · 매각	1,250%

\* 환승론, 저신용자 대상 '희망홀씨' 대출 등

\*\* 프리워크아웃, 자체 신용회복 정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실적 등

## 2

## 은행권 지원실적(은행별 제출자료 단순 합계)

□ 위험가중자산에 근거한 은행별 평가에 앞서 은행의 지원 실적의 단순 합계치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지원내역을 파악

□ '09.3~6월중 지원실적(단순 합계): 23.9조원

○ '09.3~6월 중 은행권은 중소기업지원 19.1조원, 구조조정 지원 4.8조원 등 총 23.9조원을 지원

- (중기지원) 중기 대출 8.5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7.5조원,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2.0조원 등

- (구조조정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4,311억원, 충당금 전입액 1.2조원, 특별상각·매각 3.1조원 등

<'09.3~6월중 지원 실적(단순 합계)>

(단위 : 억원)

분류	지원 항목	3월	4월	5월	6월	합계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대출	36,423	24,081	26,576	(1,600)	85,485
	중기지원 성격의 대기업 대출	50	13	389	1,167	1,575
	중소기업 직접투자	10	0	112	250	372
	중소기업투자펀드출자	10	88	26	71	183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23,364	18,507	14,788	18,211	74,869
	신기보 등 보증기관 특별출연	4,370	6,252	4,269	4,653	19,545
	수출금융 지원*	2,677	707	(5,852)	(4,699)	(659)
	서민금융 지원	512	526	737	1,293	3,059
	부실우려 차주지원	1,804	1,572	1,146	1,558	6,081
	소 계(A)	69,220	51,746	42,192	20,903	190,511
구 조 정 지 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1,316	1,393	386	1,215	4,311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전입액	6,712	1,667	2,128	1,881	12,388
	부실채권 매각 관련 손실 금액	0	0	180	288	468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금액	0	20	0	406	426
	과거 3년 평균 초과 특별상각·매각	9,458	0	2,591	18,506	30,554
	소 계(B)	17,485	3,080	5,285	22,296	48,147
합 계(A+B)		86,706	54,826	47,477	43,199	238,658

\* 수출금융 지원금액은 USD기준 실적에 6월말 기준환율(1284.7₩/\$)을 일괄 적용



**[1] 평가지표 : 지원목표 달성을**

6월말 기준 지원목표 달성률 = 위험가중자산<sup>(i)</sup> ÷ (한도배정액 × 10 × 40%)<sup>(ii)</sup>

(i) 리스크를 감안한 지원실적 평가를 위해 은행이 제출한 실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액」 산정

(ii) BIS비율 10% 유지\* 가정 하에 위험가중자산은 연말까지 자본확충펀드 투입한도의 10배까지 증가 가능

- 3~6월중 지원실적은 총 기간(3~12월)의 40%에 해당하므로 한도배정액 10배의 40%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을 평가

\*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 BIS비율 10% 이상

**[2] 은행별 지원목표 달성률('09.3 ~ 6월)**

- ☐ 은행권 전체: 평균 지원목표 달성률은 199.7%
- ☐ 시중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207.7%
- ☐ 지방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184.2%
- ☐ 특수은행 : 지원목표 달성률은 평균 185.6%

**[3] '09.3월말 실제 펀드지원금액 대비 실물지원 실적평가**

- ☐ 전체 평균: 평균 지원목표 달성률\*은 404.6%

\* '09.3월 펀드에서 실제로 지원한 3.7조원(우리금융지주 지원금액 제외)의 10배의 40%를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률

- ☐ 7개 펀드지원 은행 중 경남은행(87.6%)을 제외하고는 목표 비율 100%를 초과

#### 4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

□ 은행별 지원실적 및 목표 달성률을 지속 점검

- 은행들이 제출한 외화조달 실적 등 기타 항목들은 향후 지원조건 등 결정시 비계량평가지표로 활용

□ 한도배정액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은행에 대한 조치(금감원)

- 실적미진 은행\*에 대해 상반기 실적평가 결과(미진항목 포함)와 실물지원·구조조정 이행 독려 서한 발송

\* 대상은행 : (특수) 수협  
(지방) 경남

- 아울러, 3분기 실적점검 후 한도 축소조정 등 가능성 사전 예고

**[참고1] 지원한도 대비 목표달성율('09.3 ~ 6월)**

(단위 : 억원, %)

분류	지원 금액	위험/중자산 환산금액 (A)	지원한도 ×10×40% (B)		목표 달성률 (C=A/B)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중은행(5개)	130,266	643,727	296,322	349,397	207.7
지방은행(6개)	29,527	81,066	32,522	48,548	184.2
특수은행(3개)	78,866	237,580	87,945	149,638	185.6
합 계	238,658	962,373	416,789	547,583	199.7

**[참고2] 펀드지원 수혜은행의 지원금 대비 목표달성율('09.3 ~ 6월)**

(단위 : 억원, %)

분류	지원 실적	위험/중자산 환산금액 (A)	지원 금액 ×10×40% (B)		목표 달성률 (C=A/B)
			중소 기업	구조 조정	
시중은행(3개)	108,146	502,440	277,063	225,377	523.4
지방은행(2개)	10,966	24,043	11,706	12,339	148.0
특수은행(2개)	13,546	65,276	12,953	52,325	192.0
합 계	132,658	591,759	301,722	290,041	404.6

##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案]

OO은행은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에 따라 정부로부터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한도(000억불)를 부여받음에 있어, 외화운용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금융감독원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다 음 —

#### 제 1 장 외화표시 채무보증에 따른 외화운용 등의 개선

1. OO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외화자금을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기연장 또는 상환 이외의 신규 차입을 위한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OO은행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및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통한 외화조달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3. OO은행은 보증대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정부의 대지급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보유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보증대상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장 양해각서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

4. OO은행은 보증기간 중에 상기사항의 이행을 위한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대외채무 지급보증 한도 축소, 보증수수료를 차등 적용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부 칙 -

1. 본 약정은 금융감독원과 OO은행이 각각 본 약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약정은 정부로부터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의 경우 대외채무 지급보증 효력 만료 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지급보증 효력 만료 시점이 2009년 6월 30일 이전이거나, 정부로부터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은행의 경우 2009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_\_\_\_\_  
(서명 또는 날인)  
OO은행 은행장 ○ ○ ○

일 자 : \_\_\_\_\_

\_\_\_\_\_  
(서명 또는 날인)  
OO은행 이사회 의장 ○ ○ ○

일 자 : \_\_\_\_\_

\_\_\_\_\_  
(서명 또는 날인)  
OO은행 이사 ○ ○ ○

일 자 : \_\_\_\_\_

\_\_\_\_\_  
(서명 또는 날인)  
OO은행 사외이사 ○ ○ ○

일 자 : \_\_\_\_\_

\* 이사회 이사 전원 서명 또는 날인(별지 첨부 가능)

붙임 :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1부

금 융 감 독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

#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 ('08.10.30)

#### ▶ 지급보증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보증대상 :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 보증기간 : '09.6.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를 최대 3년까지 보증
- 보증규모 : US 1,000억\$

### ②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재정부 장관 훈령) 제정 ('08.10.31)

\* 국가보증신청절차, 보증수수료 등 규정

### ③ 금감원장과 각 은행장(총18개 은행)간 MOU 체결 ('08.11.14)

- MOU는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 및 실물경제 유동성지원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

\* 한국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과는 'MOU 2'만 체결

#### ▶ MOU 주요 내용

##### ① MOU I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 지급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및 실물경제 지원용으로만 사용
- 외화조달 자구노력 강화(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

##### ② MOU II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 등)

-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 가계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경영합리화 방안 등

### ④ MOU 이행 상황을 점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사후조치 평가점검반'을 구성
- '사후조치평가회의'를 개최('09.2.4)하여 은행들의 '08.11~12월 이행상황을 점검

## 2.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2.16일 현재까지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없음

○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부보증을 통한 국제채권 발행은 쉽지 않은 상황

\* 리먼사태 이후 정부보증 프로그램은 24개국이 운영중이며, 이중 미국·영국·호주 등 신용등급이 높은(AAA, AA) 12개국에서 약 4천억불 발행 (1.23 현재)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8년 11,12월 실적)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는 이행상태가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의 경우 당초 목표치에 미달(외화자금조달구조개선 및 중기대출 항목)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방안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유동성) 총 50.7억달러를 확보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달성</li><li>(중장기차입비율) 평균 58.4%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4%)를 초과달성</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1.2%로서 목표(85.4%)를 초과달성</li><li>(증가액) 총 4.6조원 증가하여 목표(4.2조원)를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일부은행은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등 목표에 미달</li></ul></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2.7조원</li></ul>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거치기간 연장</th><th>만기연장</th></tr><tr><td>20.0</td><td>1.5</td><td>0.3</td><td>0.9</td><td>22.7</td></tr></table>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모든 은행이 목표달성(목표 8.9조원, 달성 16.4조원)</li></ul> <table><tr><th>구 분</th><th>증자</th><th>후순위채</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목표(A)</td><td>2.5</td><td>6.4</td><td>-</td><td>8.9</td></tr><tr><td>실적(B)</td><td>7.4</td><td>8.6</td><td>0.3</td><td>16.4</td></tr></table>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표(A)	2.5	6.4	-	8.9	실적(B)	7.4	8.6	0.3	16.4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표(A)	2.5	6.4	-	8.9												
실적(B)	7.4	8.6	0.3	16.4												



#### 4. MOU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 다만 지급보증 신청은행이 없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MOU를 이행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

① 정부·한은의 외화·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의 한도 차감폭을 확대(25%→50%)\* (즉시시행)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 (수출입은행)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실적'이 미흡한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지원시 가산금리 부과 (3월)

②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MOU 이행실적을 반영 (3월)

- '경영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MOU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③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주의 환기' 조치 (즉시시행)

- 또한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담당자(RM) 상시지도를 통해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추진을 독려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 ('08.10.30)

\*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부대의견 제시(☞참고 부대의견별 이행상황)

#### ▶ 지급보증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보증대상 :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 보증기간 : '09.6.30일까지 차입하는 채무를 최대 3년까지 보증
- 보증규모 : US 1,000억\$

### ② 금감원장과 각 은행장(총18개 은행)간 MOU 체결 ('08.11.14)

- MOU는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 및 실물경제 유동성지원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

\* 한국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과는 'MOU 2'만 체결

#### ▶ MOU 주요 내용

##### ① MOU I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 지급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및 실물경제 지원용으로만 사용
- 외화조달 자구노력 강화(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

##### ② MOU II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 등)

-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은행 경영합리화 방안 등

### ③ '08.11~12월 MOU 이행 상황 점검 및 국회 제출('09.2.18)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합동으로 MOU 이행실적 ('08.11~12월)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국회 제출

#### ▶ 은행들의 08.11~12월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참고1)

- 은행의 이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 임원 보수 수준 10~30% 삭감, 적정자기자본 확충 규모 목표 달성 등
- 다만 일부은행의 경우 목표치에 다소 미달
  - \*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4개 은행), 중소기업 대출 항목(6개 은행)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2월말까지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없음

※ 다만, '09.4월 하나은행이 정부 지급보증을 신청하여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공모채권을 발행[발행금리 6.5%(Libor+490bp)]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1~2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태는 양호하지만 중기대출 항목의 경우 일부은행이 목표치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장기차입비율은 평균 62.6%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8%)를 초과달성</li><li>- 특히 산은 및 수은은 각각 20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2.6%로서 목표(85.8%) 대비 6.8%p 초과달성</li><li>(중기대출비율) 평균 59.8%로서 목표(54.1%)를 초과달성</li><li>- 다만 산은·기은·외환·SC제일·수은은 목표에 미달</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1.6조원 (단위 : 조원)</li></ul>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r><tr><td>19.4</td><td>0.3</td><td>1.6</td><td>0.3</td><td>21.6</td></tr></table> <p>*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p>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19.4	0.3	1.6	0.3	21.6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19.4	0.3	1.6	0.3	21.6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08.12월 기완료)</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체자본확충규모는 2.7조원으로 목표(2.3조원)를 초과달성 (단위 : 조원)</li></ul> <table><tr><th></th><th>증자</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실적</td><td>2.3</td><td>0.4</td><td>2.7</td></tr></table>		증자	신종자본증권	합계	실적	2.3	0.4	2.7					
	증자	신종자본증권	합계											
실적	2.3	0.4	2.7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① 은행자본확충 펀드 지원시 MOU 이행실적에 따라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

\* 실물지원 관련 MOU의 이행실적에 따라 우수群(6개 은행) 및 일반群(8개 은행)으로 분류하고, 신종자본증권 등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②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지원 축소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당초 25%)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MOU 이행실적을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④ 분기별 이행실적 부진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주의환기' 조치

#### 5. 향후 MOU 운용 방향

□ 지급 보증동의안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MOU 재체결

□ 현재와 같은 MOU 점검 시스템\*을 통해 은행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합동으로 '사후조치 평가점검반'을 운용하여 은행들의 MOU 이행상황을 점검

# 참고 1

## 은행들의 08.11-12월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내부통제 방안 마련</li><li>*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li></ul>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화유동성) 총 50.7억달러를 확보하여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농협은 외화예금 거액인출로 목표 미달</li></ul></li><li>▪ (증장기차입비율) 평균 58.4%로 전체은행 평균목표 (51.4%)를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외환, 우리, 수출입은행은 목표미달</li></ul></li></ul>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1.2%로서 목표(85.4%)를 초과달성</li><li>▪ (증가액) 총 4.6조원 증가하여 목표(4.2조원)를 초과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만 일부은행은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등 목표에 미달</li></ul></li><li>*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전북, 대구</li></ul>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2.7조원</li></ul>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거치기간 연장</th><th>만기연장</th></tr><tr><td>20.0</td><td>1.5</td><td>0.3</td><td>0.9</td><td>22.7</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액 등</li></ul>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20.0	1.5	0.3	0.9	22.7												
경영합리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 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li></ul>															
적정자기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든 은행이 목표달성(목표 8.9조원, 달성 16.4조원)</li></ul> <table><tr><th>구 분</th><th>증자</th><th>후순위채</th><th>신종자본증권</th><th>합계</th></tr><tr><td>목 표</td><td>2.5</td><td>6.4</td><td>-</td><td>8.9</td></tr><tr><td>실 적</td><td>7.4</td><td>8.6</td><td>0.3</td><td>16.4</td></tr></table>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 표	2.5	6.4	-	8.9	실 적	7.4	8.6	0.3	16.4
구 분	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합계												
목 표	2.5	6.4	-	8.9												
실 적	7.4	8.6	0.3	16.4												

## 참고 2

## 국회제시 부대의견(08.10.30)별 이행상황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황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 '09.2월말까지 지급보증실적은 없음</li><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li></ul> <table><tr><td></td><td>중기대출 증가액</td><td>평균 중기대출비율</td></tr><tr><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tr><td>09.1,2</td><td>6.7조원</td><td>59.8%</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li></ul> <table><tr><td></td><td>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d></tr><tr><td>08.11,12</td><td>22.7조원</td></tr><tr><td>09.1,2</td><td>21.6조원</td></tr></table>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2	6.7조원	59.8%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2	21.6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2	6.7조원	59.8%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2	21.6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li></ul> <table><tr><td></td><td>외화유동성확보*</td><td>증장기차입비율</td></tr><tr><td>08.11,12</td><td>50.7억\$</td><td>58.4%</td></tr><tr><td>09.1,2</td><td>16.6억\$</td><td>62.6%</td></tr></table> <p>* 외화예금 유치,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p>		외화유동성확보*	증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2	16.6억\$	62.6%						
	외화유동성확보*	증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2	16.6억\$	62.6%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화 등 경영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li><li>- 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li><li>① 한은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미준수 은행 지원 축소</li><li>* ('09.3) △6,527억원, (4월) △5,229억원</li><li>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09.2월말 현재 지급보증실적은 없으므로 대지급 발생가능성 없음</li><li>다만 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격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09.24)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li>1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li></ul>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월)

###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li> <li>▪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li> <li>▪ 수출기업 지원(매입외환 증기) 목표(34억\$) 이행의무</li> <li>▪ 가게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li> <li>▪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li> <li>▪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li> </ul>

\* 동 MOU 변경내용은 5월 이후 실적부터 적용하며, 1~4월 실적은 종전 MOU에 의해 점검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6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1~4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중소기업대출 항목의 경우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 중장기차입비율은 평균 64.1%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1.9%)를 초과달성 - 특히 산은 및 수은은 각각 20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중기대출)	▪ (만기연장률) 평균 만기연장률은 92.8%로서 목표(85.4%) 대비 7.4%p 초과달성 ▪ (중기대출비율) 평균 57.1%로서 목표(53.6%)를 초과달성 - 다만, 산은·수은·기은·대구은행 및 중기대출금액이 감소한 SC제일·외환은행은 목표에 미달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48.4조원 (단위 : 조원) <table><tr><th colspan="2">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h></th></tr><tr><td>43.3</td><td>0.7</td><td>3.9</td><td></td><td>0.5</td><td>48.4</td></tr></table> *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43.3	0.7	3.9		0.5	48.4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43.3	0.7	3.9		0.5	48.4												
경영합리화 추진	▪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적정자기 자본 확충	▪ 전체 자본확충규모는 9.6조원으로 목표(4.6조원)를 초과달성 (단위 : 조원) <table><tr><th></th><th>증 자</th><th>신종자본증권</th><th>후순위채</th><th>합 계</th></tr><tr><td>실 적</td><td>4.1</td><td>4.1</td><td>1.4</td><td>9.6</td></tr></table>		증 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합 계	실 적	4.1	4.1	1.4	9.6						
	증 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합 계													
실 적	4.1	4.1	1.4	9.6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MOU상 목표를 달성한 은행과 미흡한 은행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MOU 이행을 담보

① 은행자본확충 펀드 지원시 MOU 이행실적에 따라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 실물지원 관련 MOU의 이행실적에 따라 우수群 및 일반群으로 분류하고, 신종자본증권 등 매입 금리를 차등 적용

②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지원시 은행별 차등지원

○ 총액한도대출시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지원 축소

\* 중기대출 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미달한 금액의 50% (당초 25%)를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차감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MOU 이행실적을 평가

\* 은행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황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게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 <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 <table> <tr> <th></th> <th>중기대출 증가액</th> <th>평균 중기대출비율</th> </tr> <tr> <td>08.11~12</td> <td>4.6조원</td> <td>67.5%</td> </tr> <tr> <td>09.1~4</td> <td>13.8조원</td> <td>57.1%</td> </tr> </table> </li> <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 <table> <tr> <th></th> <th>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h> </tr> <tr> <td>08.11~12</td> <td>22.7조원</td> </tr> <tr> <td>09.1~4</td> <td>48.4조원</td> </tr> </table> </li> </ul>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4	13.8조원	57.1%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4	48.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4	13.8조원	57.1%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4	48.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 <table> <tr> <th></th> <th>외화유동성확보*</th> <th>중장기차입비율</th> </tr> <tr> <td>08.11~12</td> <td>50.7억\$</td> <td>58.4%</td> </tr> <tr> <td>09.1~4</td> <td>322.4억\$</td> <td>64.1%</td> </tr> </table> <p>* 외화예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p> </li> <li>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가능(운영지침반영)</li> </ul>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4	322.4억\$	64.1%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4	322.4억\$	64.1%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 </ul> </li> <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li> </ul> </li> <li>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 </ol> </li> </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li> <li>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 </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 <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 </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격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 <li>1·2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고(09.218, 416)</li> </ul>															

---

#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 현황 및 MOU 이행상황 점검 보고**

---

**2009. 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1. 은행 외화표시채무 지급보증 후속조치 추진 경과

## ①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의결('08.10) 및 금감원과 각 은행간 (총18개)간 MOU 체결 ('08.11)

\*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된 'MOU 1'과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관한 'MOU2'로 구분하여 체결하였으며, SC제일과 한국씨티는 'MOU2'만 체결

- 그동안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으로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09.2, 4, 6월)

## ②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 개정('09.4)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금감원-은행간 MOU를 재체결('09.5)

- 5~6월 이행실적은 재체결한 MOU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주요 부대 의견	MOU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자산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조달 및 비핵심외화자산 축소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표(총51.3억\$) 이행의무</li> <li>▪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52.4%) 이행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대출비율 목표(50.4%) 이행의무</li> <li>▪ 수출기업지원(매입외환 증가) 목표(3.4억\$) 이행의무</li> <li>▪ 가계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지원 등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은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보수 및 스톡옵션 조정(10~30% 삭감)</li> <li>▪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를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자기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방지노력 및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지급발생 우려시 은행 보유 외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증대상채무 최우선 상환</li> <li>▪ 외화표시 채권발행시 발행시장에서 거주자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li> </ul>

## 2.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운용현황

□ '09.8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 (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 3. MOU 이행상황 점검 결과('09년 5~6월 실적)

□ 평가 결과 은행들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은행이 목표에 미달

평가 항목		점검 내용																	
M O U 1	지급보증부 외화차입금 용도제한	▪ 지급보증 신청에 대비하여 은행들은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한도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외화조달 지구노력 강화	▪ (외화유동성 확보) '09.1~6월중 총 121.2억달러를 확보하여 계획치인 33.8억달러를 초과달성 - 단, 하나, 전북 및 광주은행은 목표 미달 ▪ (중장기차입비율) 평균 74.8%로 전체은행 평균목표(55.9%)를 초과달성																	
M O U 2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 (중기대출) 중기대출비율은 평균 65.4%로서 목표(48.9%)를 초과달성 - 단, 외환 및 SC제일은행은 목표 미달 ▪ (무역금융) 매입외화평잔은 5~6월 △1.5억달러 감소하였으나 계획 (△3.3억달러) 초과달성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5~6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경감 규모는 총 28조원 (단위 : 조원) <table><tr><th>일시상환대출</th><th colspan="2">분할상환대출</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합계</th></tr><tr><th>만기연장</th><th>만기조정</th><th>거치기간 연장</th></tr><tr><td>25.2</td><td>0.3</td><td>2.0</td><td>0.4</td><td>28.0</td></tr></table> *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액 등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대출		기타*	합계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																	
25.2	0.3	2.0	0.4	28.0															
경영합리화 추진	▪ 은행장·임원 등의 보수수준을 목표(10~30%)대로 삭감하였고 스톡옵션도 10~30% 반납 * 외환은행의 신임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중 20% 반납완료(5.8일)																		
적정자기 자본 확충	▪ BIS자기자본비율은 13.1%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 기본자기자본비율은 9.3%로 각 은행별 목표수준 달성(3월말기준)																		

#### 4. MOU 실적에 따른 후속조치

- 지급보증을 받은 하나은행 등의 MOU 1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 촉구 및 개선조치 공문 발송

\* 외화 유동성 확보 금액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

- 최초 위반,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보다는 주의촉구가 바람직

\* 외화자산 감소로 인한 차입규모 축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외화 예수금을 통한 추가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7월말 현재 외화유동성 목표 초과 달성

- 향후 동일사항의 MOU 이행위반이 누적되는 경우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 계획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 MOU2 목표 달성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주의 촉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MOU 이행을 담보

① MOU상 중소기업대출 미흡 은행에 대해 금감원에서 경영진 면담 실시

② MOU 목표미달 은행에 대해 주의 재촉구 공문 발송

③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MOU 이행실적을 반영

④ 하반기 중 목표미달 은행들을 중심으로 MOU 이행실태 점검 실시 예정



부대 의견	이행 상황															
가. 정부지급보증은 만기도래채무 상황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며, 이번지원을 바탕으로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들은 보증차입금 용도제한 등을 담은 운용지침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li><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실적<table><tr><td></td><td>중기대출 증가액</td><td>평균 중기대출비율</td></tr><tr><td>08.11~12</td><td>4.6조원</td><td>67.5%</td></tr><tr><td>09.1~6</td><td>21.7조원</td><td>65.4%</td></tr></table></li><li>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실적<table><tr><td></td><td>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td></tr><tr><td>08.11~12</td><td>22.7조원</td></tr><tr><td>09.1~6</td><td>76.4조원</td></tr></table></li></ul>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중기대출 증가액	평균 중기대출비율														
08.11~12	4.6조원	67.5%														
09.1~6	21.7조원	65.4%														
	대출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															
08.11~12	22.7조원															
09.1~6	76.4조원															
나. 자구노력(외화자산 매각 등) 및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화 조달 자구노력 실적<table><tr><td></td><td>외화유동성확보*</td><td>중장기차입비율</td></tr><tr><td>08.11~12</td><td>50.7억\$</td><td>58.4%</td></tr><tr><td>09.1~6</td><td>121.2억\$</td><td>74.8%</td></tr></table><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화에수금 증대, Credit Line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li></ul></li><li>시장상황·주채무자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 가능(운영지침반영)</li></ul>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외화유동성확보*	중장기차입비율														
08.11~12	50.7억\$	58.4%														
09.1~6	121.2억\$	74.8%														
다. 은행의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MOU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영합리화방안 실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은행 임원 등 보수수준 삭감(10~30%) 및 스톡옵션 반납(10~30%)</li></ul></li><li>MOU 위반에 대한 제재실적<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자본확충펀드 매입금리 차등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9.3) 신종자본증권 30bp, 후순위채 10bp</li></ul></li><li>② 금감원 '은행경영실태평가' 항목에 MOU 이행실적 추가</li></ul></li></ul>															
라. 대지급 발생 우려시 충당금을 적립,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행사 및 경영진 책임 추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지급 발생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Contingency Plan 등 자체 대책 마련</li><li>정부지급보증 최소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유도</li></ul>															
마. 정부는 선진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일·중과 통화스왑체결(900억\$)</li><li>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G20 논의에 적극 참여</li></ul>															
바. 은행별 MOU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국회보고(격월 또는 국회요청시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계기관 합동 '사후조치평가회의' 개최 (09.24, 415, 58)를 통해 MOU 추진상황 점검</li><li>1·2·3차 점검결과 국회 기보(09.218, 416, 629)</li></ul>															

5. 금융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 ①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
- ②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의 추천 공문서와 이력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 ①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송수신한 공문서 사본

- 대한상공회의소 한상조-제453호(2008.03.24)[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 별송

- ② 09. 8월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의 추천 공문서와 이력사항

- 혁신행정과-336호(2008.03.25)[고위공무원 면직제청 및 임명 추천·제청] : 별송

【참고】

**금융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	성명	비고
위원장	진동수	당연직
부위원장	이창용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허경욱	당연직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당연직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우	당연직
한국은행 부총재	이주열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추천
금융위 상임위원	임승태	금융위원회위원장추천
금융위 비상임위원	채희율	대한상공회의소회장추천



# 조 경 태 의 원



##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원이 09.5.28~7.17까지 금융위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처리중에 있음

##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계획서 및 결과

### □ 별도 첨부

- \* 2008 자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2009 감사계획서 1부, 2008 신용보증기금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부문별 총평]

###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 나. 물품 관리 실태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 **【III】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정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 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급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조정 (월 봉 의 10~100%)	32~ 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 · 업무량 · 업무난이도 · 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의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등록 여부
국 회 재 정 부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지분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계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2007~2009.현재)**

□ 2007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7.24~07.10.8	22	한국증권연구원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7.30~07.12.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9.5~07.12.20	38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펀드판매 경로 개선 방안 연구	07.9.6~07.12.20	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9.21~07.12.20	28.5	한국법제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 현황 조사	07.10.1~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5~07.12.20	28.5	삼정KPMG Advisory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5~07.12.20	3	한국기술교육 대산학협력단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07.10.26~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08.3.4	45	한국증권연구원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7~07.12.7	10	케이티지엘에스(주)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07.12.20	33	BHP코리아(주)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2~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07.12.28	29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07.12.18~08.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어음제도 개선방안	07.2.1~07.4.30	14.3	한국금융연구원

## □ 2008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08.8.29	19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22~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08.8월~08.9월 (2개월)	20	한국금융연구원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08.11.4	46	(사)국제금융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효율화 방안	08.8.13~08.12.12	40	언스트앤영어 드바이저리(주)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편	08.10.31~08.12.20	29.5	(주)사이버이메 지네이션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08.12.26	25.1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08.12.12~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 □ 2009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4.13~	30	자본시장연구원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12.15	45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 효과 분석	09.6.1~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	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6.1~8.3	28.8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16~10.15	3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12.2	32	자본시장연구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09.8.28~12.31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09.9.16~11.15	20	자본시장연구원

#### 4. 최근 3년간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 ☐ 금융위 출범 이후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사례는 없습니다.

## 5. 소관 금융기관 현황

-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18개(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11개)이며, 현황을 첨부합니다.

## 1. 한국산업은행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하여 '54년 4월 1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

### □ 주요기능(사업)

-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화차입 등 산업자금의 조달
- 회사채 주선·인수, PF, M&A, PEF 등 투자금융업무
- 해외채권 발행주선, 해외투자, 자원개발지원 등 국제금융업무
-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 제고 업무 등

### □ 조직 및 인원(09년 현재)

- 조 직 : 9 본부, 21 부·실
- 인 원 : 총 2,133명(임원 11명, 직원 2,122명)

## 2. 중소기업은행 일반 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중소기업은행법
- 설립목적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 주요기능(사업)

-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국고대리점/ 지급승락
- 정부, 한국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

### □ 조직 및 인원 (09.3월말)

- 조 직 : 11사업본부, 1사업단 1연구소 40부서
- 인 원 : 총 7,160명(임원 5명, 직원 7,155명)

### 3. 예금보험공사 일반 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예금자보호법
- 설립목적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 주요기능(사업)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예금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등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10부 5실 1본부
- 인 원 : 총 559명(임원 14명, 직원 545명)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경영정상화 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 주요기능(사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안전망 역할
-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세채납 압류재산 매각 등 국고수입 증대

### □ 조직 및 인원 (2009.6.30 기준)

- 조 직 : 5본부, 23부(실) 9지사
- 인 원 : 정원 1,037명, 현원 914명  
(임원 별도 16명: 상임 8명, 비상임 8명)

## 5.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설립목적 :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 주요기능(사업)

- 보금자리론의 공급과 대출채권의 유동화
- 주택금융신용보증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 조직 및 인원(09년 7월 6일 현재)

- 조 직 : 4본부, 19부서 16영업점(지사13, 채권관리센터3)
- 인 원 : 총 468명(임원 6명, 정규직원 372명, 계약직 90명)



## 6. 신용보증기금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 설립목적
  - 담보능력 취약기업의 채무보증으로 기업 자금유통 원활화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 □ 주요기능

- 신용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시 보증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 운용
- 신용정보 종합관리 : 기업신용정보를 수집·분석·관리
- 기업경영지원 : 중소기업 등 각종 경영컨설팅, 진단지도
- 신용보험 : 중소기업 매출채권 회수불능시 보험금 지급
- 산업기반신용보증 : SOC민간투자사업자 대출시 채무보증

### □ 조직 및 인원 ('08.11월말 기준)

- 조 직 : 4부문, 12부, 3실, 9영업본부
- 인 원 : 총 2,122명(임원 8명(비상임이사제외), 직원 2,114명)

## 7. 기술보증기금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설립목적 : 기술보증제도의 정착·발전으로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 주요기능(사업)

- 기술보증 :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보증
- 기술평가 : 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
- 부수사업 : 구상권관리, 보증연계투자, 벤처·이노비즈기업인증, 기술 및 경영지도, 신용정보관리 등

### □ 조직 및 인원

- 조직 : (본부) 8부 3실, (영업점) 53개
- 인원 : 총 1,061명 (임원 6명, 직원 1,055명)

## 8. 한국거래소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73조
- 설립목적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 □ 주요기능[사업]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5본부 25부 3실 91팀 / 3사무소
- 인 원 : 총 707명(임원 7명, 직원 700명)
  - ※ 기타 본부장보·전문위원 등 제외

## 9. 기은신용정보(주)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정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설립목적 : 신용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감축관리를 통하여 신용사회확립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 주요기능[사업]

- 신용조사
- 채권추심
- 중소기업경영컨설팅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3부 2실 7지점
- 인 원 : 총 61명(임원 2명, 직원 59명)

## 10. 기은캐피탈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설립목적 : 벤처산업의 선도적 육성 및 유통금융의 선진화 추구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 주요기능(사업)

- 벤처투자 / M&A투자
- 팩토링 / 프로젝트 파이낸스
- 할부 / 리스 / 부동산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4본부, 12부, 5지점
- 인 원 : 총 167명(임원 8명, 직원 159명)

## 11. 산은자산운용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집합투자업의 영위

### □ 주요기능[사업]

-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투자자문 / 일임업무 등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7본부, 17팀
- 인 원 : 총 63명(임원 4명, 직원 59명)

## 12. 정리금융공사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
- 설립목적 :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99.12.27에  
금자보호법에 의해 예보가 출자하여(302억원) 설립한 정리  
금융기관

### □ 주요기능[사업]

- 부실금융회사 정리시 미인수 부실자산의 인수 및 관리·회수
- 파산재단 조기종결시 잔여자산의 인수 및 관리·회수
- 예금대지급 및 파산배당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추심 및 소송관리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5 팀 3 T/F팀
- 인 원 : 총 37명(임원 4명, 직원 33명)

### 13. [주]코스콤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증권시장과 증권회사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의 자회사로 설립 (상법 제172조, 제317조)

#### □ 주요기능(사업)

- 국내외 증권선물시장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 국내외 증권·선물회사를 위한 각종 전산솔루션 구축 및 운용
- 국내외 정보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 국내외 증권·선물회사를 위한 통신망 서비스 제공
- 인터넷뱅킹 등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비스 및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업무

#### □ 조직 및 인원

- 조직현황 : 5본부 22팀 1소
- 인원현황 : 임원 5명, 직원 545명(정원)



## 14. 한국기업데이터(주)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04.7월 정부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설립목적 : 기업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상호공유를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거래주체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여신과 기업간 신용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 주요기능(사업)

-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용역 제공업무
- 신용정보를 조사·수집·정리·가공하여 제공하는 업무
- 여신지원, 위험관리솔루션 개발제공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 금융기관, 기업체의 의뢰에 의한 사업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업무

### □ 조직 및 인원 (2008년 12월말)

- 조 직 : 3본부, 3센터, 11팀, 6개 평가지사
- 인 원 : 총 239명(임원 4명, 직원 235명)

## 15. 한국자산신탁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
  - IMF 금융위기 당시 부실화된 부실신탁사 구조조정 지원
    - ※ 대한·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사업 및 채무 양수·정리
  - 부동산신탁 전문기업으로의 육성과 부동산 거래투명성 제고

### □ 주요기능(사업)

- 부동산을 수탁 받아 개발·관리 등을 수행하는 신탁업무 기능
- 개발사업관련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기능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3본부, 2실, 13팀
- 인 원 : 총 83명(임원 7명, 직원 76명)

## 16. 아이비케이시스템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상법
- 설립목적 : 모행과 출자업체의 전산업무 대행,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정보화관련기기의 판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 □ 주요기능(사업)

-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개발수탁, 판매 및 유지보수
- 정보화 관련기기의 판매, 알선, 대여 및 유지보수
-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컨설팅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4본부, 1연구소, 2실, 3부
- 인 원 : 총 347명(임원 2명, 이사대우 1명, 직원 345명)

\* 사외이사 4명, 비상임감사 2명 제외 및 계약직 18명 포함

## 17. 산은캐피탈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설립목적 : 적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 주요기능(사업)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대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관련 업무 등

### □ 조직 및 인원 (2009년 6월 30일자 기준)

- 조 직 : 4본부, 17실 1지점
- 인 원 : 총 185명(임원 4명, 직원 181명)

## 18. 한국예탁결제원 일반현황

---

###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94조
- 설립목적 :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화

### □ 주요기능(사업)

-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및 계좌 간 대체업무
-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기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및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등

###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5본부, 23팀 3지원
- 인 원 : 총 445명(임원 3명, 상무이사 4명, 직원 438명)  
\* 비상임이사 4인 제외

## 6.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

### (2008.10.1~2009.8.30)

#### □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20081001
2	2008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001
3	서울경제(08.10.2 인터넷판), 「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06
4	은행장 간담회 말씀자료 송부	20081006
5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결과	20081006
6	2008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20081006
7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요 현안 설명자료	20081007
8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결과	20081007
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08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009
11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임명	20081010
12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81010
13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20081013
1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개최식 축사	20081013
15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침 확정)	20081014
16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 방안	20081015
17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81016
18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20081019
19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추진	20081019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21
21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20081021
22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20081021
23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20081022
24	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중 협력 관계 강화	20081022
25	네스테크㈜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022

2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022
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022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24
29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자료	20081024
30	외신기자 간담회	20081027
31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	20081028
32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1029
33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주재.참석(10.30 회의 당일)	20081029
34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 강화	20081029
35	24개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20081030
36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아태지역위원회(APRC)회의결과	20081030
37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님 기조연설	20081031
38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심사 실시	20081103
39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20081103
40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1104
4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081104
42	2008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105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5
44	2008.11.5 연합뉴스 '내달부터 금융소외자 빚부담 덜어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20081105
45	㈜포이보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105
46	오바마 후보 당선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20081105
47	11.5(水) 주요 은행장 조찬 간담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20081105
48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20081106
49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50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	20081107
51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081110
52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20081110
53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10
54	Financial Times(11.11,火, 04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인터뷰 기사 보도	20081111
5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20081112

56	신성건설 관련 대응방안(보도 참고자료)	20081112
57	11.12(水) 증권·자산운용 CEO 조찬 간담회 결과	20081112
58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20081113
59	위원장님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20081113
60	업무현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	20081114
61	한국시장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IR' 개최	20081117
62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은행 현장 방문	20081117
63	권혁세 증선위원 「아시아 채권 시장 전망」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1118
64	금융위, 런던·뉴욕 국가 IR (Korea Investors	20081119
65	김용환 금융위원 「채권시장 정책 심포지엄」 축사	20081119
6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119
67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 개정	20081121
68	하나대투증권(주)과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	20081121
69	도이치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1121
70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20081124
7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24
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73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74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오찬 연설자료(국문)	20081125
75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설립	20081126
7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액보험 지원금 교부 및 보험증권 전달식 축사	20081127
77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81128
78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20081201
79	2008. 12. 1. 헤럴드보험대상 축사	20081201
80	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203
81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20081203
82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20081203
8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UBS Korea Conference 오찬 기조	20081204



	연설	
84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20081204
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1205
86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1208
87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20081209
88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209
89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1209
90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0081209
91	'08년 2차 P-CBO 2,500억원 발행	20081210
92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081210
93	(주)파로스이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1210
94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영업 일부정지 조치 연장	20081212
95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	20081212
96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20081212
97	추가 출자·재원 확보 현황	20081215
98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1218
99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환승론 본격 시행 및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개통	20081218
100	제8차 한·일 금융당국 고위급 연례회담, 서울에서 개최	20081219
101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20081222
102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81222
1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6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20081222
107	신종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20081223
108	『실물금융종합지원단』(가칭) 구성을 위한 지경부·금융위간	20081224

	협의	
10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224
11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224
111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	20081224
112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226
113	(전북)전북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1226
114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등 개정	20081226
115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20081230
1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감독 대상」 시상식 축하	20081230
117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20081230
118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20081231
119	2009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20090102
120	09년 금융권 인턴사원 채용 계획	20090105
121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20090105
122	2008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107
123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0108
124	국내은행, 기업 설자금으로 9조 1천억원 지원예정	20090109
125	금융위, 금강원 공동 「IFSB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	20090112
126	제28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112
127	「이슬람금융 세미나」 대통령 축하(금융위원장 대독)	20090113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0113
129	매경 증권인상 축하	20090114
130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	20090114
131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20090114
13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115
13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동향	20090115
134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20090116
135	설 대비, 「원스톱 현장 중기 금융지원반」 운영	20090119
136	中小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20090119

137	권혁세 증선위원,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 축사	20090120
138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120
139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20090120
140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0090121
141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121
142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20090121
143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20090121
14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 추진 계획	20090122
145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20090122
146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8231;개정	20090128
147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128
148	한맥선물(주) 및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090129
1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129
150	2008년 12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20090129
151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20090130
152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202
153	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20090202
154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완료	20090202
155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 강구	20090204
156	금융공공기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 실시	20090205
157	09.1월 중기지원 실적	20090205
158	2008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205
159	권혁세 증선위원, 부산 금융중심지 토론회 기조연설	20090209
160	Moody's, 국내은행 장기외화부채 신용등급 변경의 의미	20090209
161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20090212
162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안내	20090212
1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통일 등	20090212
164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임명	20090212
165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숍 개최 계획	20090213
166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논의결과	20090216

167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20090218
168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20090218
169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218
170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90218
171	에스신용정보(주)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20090218
172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20090219
173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 개혁”관련 UCC 제작	20090219
17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223
175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224
176	수출입 기업 환해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	20090224
177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20090225
178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225
179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90225
18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225
181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20090226
182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90227
183	「은행 자본확충 펀드」 신청 현황	20090227
184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20090304
185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304
186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20090305
187	Wall Street Journal(Asia版)(3.6,金, 11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기고문 보도	20090306
188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20090309
189	09.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20090309
190	서민 고통분담에 금융위 공무원 동참	20090310
191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20090310
192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영국 및 미국 출장	20090311
193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20090311
194	㈜아이씨엠 등 2개사 및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20090311

	조사·감리 결과 조치	
195	Fitch社の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보도참고자료)	20090313
196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20090313
197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20090316
19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316
199	금융위원회 영국 런던 현지 금융·경제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16
20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17
201	2009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317
202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금융기관 방문 실시	20090318
20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318
204	은행자본확충펀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20090320
205	금융위·금감원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20090323
20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324
207	금융위기극복 관련 추경 편성	20090324
208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24
209	글로벌파이낸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	20090325
210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현황(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326
2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326
212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327
213	“금융위기 극복 워크숍”개최	20090327
214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090330
2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31
216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	20090331
217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20090401
218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090401
219	0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시	20090402
220	금융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403

221	북한 로켓발사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0406
22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407
223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090406
224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20090408
225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0408
226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408
227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판매중단 위기」 보도내용 관련	20090408
22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20090409
229	2009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409
230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20090409
231	정무위 업무보고	20090413
232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415
233	리먼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090415
234	금융투자업 인가	20090415
23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90422
236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20090421
237	위기를 기회로 활용,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20090423
238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지원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최 -	20090423
239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90428
240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20090429
241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20090430
242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04
24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4
244	제2차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090506
245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본)허가	20090506
246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	20090506
247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508
248	'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20090512

249	2009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513
250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극복'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개설	20090513
251	(주)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513
252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20090513
25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20090514
254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0090514
255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20090515
256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20090515
257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20090518
258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518
259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20090520
260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20090520
261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090526
262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20090526
26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527
26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27
265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090527
26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20090529
267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초청연설)	20090529
268	축사(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20090603
269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03
27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605
27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20090609
272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20090611
273	'09.5월 중기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20090612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608
275	2009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616
27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20090617
277	(가칭)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20090617

278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617
279	SH&C생명보험(주) 및 KB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20090617
280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17
28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090617
282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617
28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618
284	한국의 금융정책(2009 중앙대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청연설)	20090619
285	보험범죄 근절대책	20090619
286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20090622
287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20090623
288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 참석	20090623
289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 주최 HongKong Business Forum 기조연설)	20090624
290	㈜씨모텍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624
29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624
292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0625
293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20090629
294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진출 및 FSB 창립총회 주요 결정사항	20090629
29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090630
296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 개시	20090701
297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701
29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01
299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	20090701
300	위원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20090703
301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20090703
302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20090706
303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20090707
304	㈜원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708
305	디도스 공격 관련 금융권 비상 대응체제 가동	20090709



306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0709
307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20090710
308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20090710
309	금융위원회 외부 금융전문인력 채용 확대	20090710
310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예정(7.13일)	20090713
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90714
312	임시국회 정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90715
313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716
314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20090716
31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16
316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예바인가 의결	20090716
317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716
318	0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20090717
319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0090722
32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722
3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722
322	舊 ㈜중부상호저축은행[㈜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722
323	금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90722
32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723
325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20090728
326	금융투자업 인가 및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20090729
327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90729
328	국제회계기준(IFRS) 기초연설문	20090729
329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0730
330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090730
331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20090805
332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90806
33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90811

334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20090813
335	산은·기은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설비투자펀드 조성·운영할 계획	20090817
336	200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817
337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최초로 영문 블로그 개설	20090818
338	제 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20090820
339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20090824
340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20090825
341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0826
342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090826
343	금융투자업 인가	20090826
3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90827
34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8

## □ 해명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09
2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13
3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20081013
4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20081014
5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맨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023
6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27
7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LTV 더 푼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28
8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03
9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20081104
10	경향신문 제21면 「‘뒷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뒷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20081106
11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3
12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20081117
13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118
14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20081118
15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9
16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20081120
17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굶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21
18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126
19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127
20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201
21	「연합뉴스‘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203
22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20081205

23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4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을 2% 밀들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5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6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 땀 강제 구조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211
27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20081216
28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20081216
29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20081231
30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31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32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난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33	이데일리, 「금강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34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35	한국경제 「금강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36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37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강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38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39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40	한국일보, 「부실장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41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42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43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자료	20090216
44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45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46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47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48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49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50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51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52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53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허술한 입단속’ 어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54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55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56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57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58	“보험사기 합동조사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59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60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61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62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63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 7. 소관 금융기관별 정규직 직원수 및 평균임금(3년간)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18개이며,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2007		2008		2009	
	정규직 직원수	평균 임금	정규직 직원수	평균 임금	정규직 직원수	평균 임금
산업은행	2,173	92,960	2,190	92,666	2,261	50,895
기업은행	6,678	84,843	7,052	85,634	7,094	81,122
예금보험공사	410	67,995	558	69,943	555	71,591
한국자산관리공사	996	64,064	959	67,796	915	-
한국주택금융공사	395	72,044	416	73,614	399	41,788
신용보증기금	2,144	69,884	2,137	72,263	2,111	64,219
기술보증기금	978	68,689	1,058	68,616	1,073	31,978
한국거래소	696	100,196	707	96,910	699	91,197
산은캐피탈	159	89,171	170	85,437	172	63,313
산은자산운용	40	68,667	46	69,620	58	68,624
기은캐피탈	67	72,408	76	69,657	76	62,719
기은신용정보	35	53,495	43	49,189	46	47,260
IBK시스템	254	41,804	315	44,142	327	42,995
정리금융공사	34	69,256	27	70,547	29	73,270
코스콤	481	91,850	500	84,453	568	76,839
한국자산신탁	79	67,654	78	70,453	75	59,736
한국기업데이터	152	65,402	172	65,060	165	61,516

※ 한국예탁결제원은 기 제출

## 8. 소관 금융기관별 비정규직 직원수(2009년 7월 1일 이전/이후)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18개이며,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단위 : 명)

기관명	2009년 7월 1일 이전 (6월 30일 기준)	2009년 7월 1일 이후 (8월 28일 기준)
한국산업은행	86	59
중소기업은행	1,246	1,223
예금보험공사	28	28
한국자산관리공사	99	52
한국주택금융공사	94	94
신용보증기금	370	359
기술보증기금	34	33
한국거래소	35	35
산은캐피탈	1	1
산은자산운용	-	-
기은캐피탈	72	63
기은신용정보	10	10
IBK시스템	18	15
정리금융공사	4	4
코스콤	62	62
한국자산신탁	11	12
한국기업데이터	73	71

※ 한국에탁결제원은 기 제출

##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경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 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 (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 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 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 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div>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협의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amp; Debt suspension)</li> <li>○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종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 · 재정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li> </ul> </div> <div> <input type="checkbox"/>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정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할 예정</li> </ul> </div>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div>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 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화 · 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li> <li>○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li> </ul>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 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li> <li>○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li> <li>-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li> <li>-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li> </ul> </li> </ul> </li> </ul>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06.12.15)</p> <p><b>&lt;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li> <li>- 김포공항(신한)</li> <li>- 김해공항(신한, 부산)</li> <li>- 대구공항(대구)</li> <li>- 제주공항(제주)</li> </ul> </li> <li>○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li> <li>-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li> </ul> </li> </ul>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li> </ul> </li> <li>○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li> </ul> </li> <li>○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li> </ul>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 권한 보유</li> </ul>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신협·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 *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li> <li>○ 증권·종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li> <li>□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 (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 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li> <li>○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 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li> <li>□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li> </ul>
<p>(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 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li> <li>○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li> <li>○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p> <p>○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p> <p>&lt; T/F 진행 상황 &gt;</p> <p>○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p> <p>*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p> <p>○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p> <p>○ 주요 논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li> <li>-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li> </ul>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p> <p>○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p>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li>□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li> </ul>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li> <li>○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li> </ul> <p>&lt; 추가 통보 인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li> <li>-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li> </ul> <p>※ 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li> </ul>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 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뱅크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li> <li>→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li> </ul> </li> <li>○ 새누리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li> <li>→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li> </ul> </li> </ul> <p>□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li> <li>-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li> <li>-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li> <li>-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li> <li>-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li> <li>-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lt;직무정지 등&gt;를 받은 자)</li> <li>-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li> </ul> </li> <li>*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li> </ul>
<p>(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li> </ul> </li> <li>○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분을 제외하고 있음</li> <li>□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만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ul> </li> </ul>
<p>(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 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li> <li>-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li> </ul>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li> <li>□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li> </ul>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li> <li>*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li> <li>○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li> <li>○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주요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li> </ul>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li> </ul>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ul> </li> <li>*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li> <li>○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li> </ul> </li> </ul>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li> <li><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li> </ul>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li> <li><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li> <li>○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li> <li>○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li> <li>□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li> </ul>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li> <li>○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행을 거칠 예정이며,</li> <li>○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li> </ul>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li> <li>*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li> <li>○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서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TS 등)에 제공</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li> </ul> </li> <li>⇒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월)</li> <li>※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 '06.12월</li> <li>-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07.8월</li> </ul> </li> <li>□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li> </ul> </li> </ul>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li> <li>○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 (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p> <p>□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p> <p>※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p> <p>□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 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p>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 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 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 할 것</p>	<p>□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p> <p>○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p> <p>□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p>○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 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 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li> </ul> <p>□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 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 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li> </ul>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p>□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p> <p>□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li> </ul> <p>*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률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p> <p>□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07.1.31) 도입을 계기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li> <li>○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 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li> <li><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L,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li> <li>○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li> </ul> </li> </ul>
<p>(28) 신협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협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li> <li>○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협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한편, 신협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승인)하였으며</p> <p>○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협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협측의 경영 개선계획이행을 적극 유도하고</p> <p>○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p>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p> <p>○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p> <p>□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p> <p>○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p>○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p> <p>※ 연구용역</p> <p>-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p> <p>-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p>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p>○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p> <p>○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 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li> <li>○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li> </ul> </li> </ul>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li> <li>□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li> <li>○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li> <li>○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p> <p>□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p>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 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06.5월)</p> <p>○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p> <p>&lt;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gt;</p> <p>□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p> <p>○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하는 등의 감독강화</p> <p>○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p> <p>□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p> <p>□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p>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p>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  “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 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p>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li> </ul>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li> <li>○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li> </ul>
<p>(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p>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li> <li>○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이첩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li> </ul>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li> <li>○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li> <li>○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li> </ul> <p>□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p>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처리유형</th><th>2004년</th><th>2005년</th><th>2006년</th></tr> <tr> <td>기소<sup>1)</sup></td><td>85</td><td>76</td><td>30</td></tr> <tr> <td>불기소<sup>2)</sup></td><td>18</td><td>17</td><td>3</td></tr> <tr> <td>수사중<sup>3)</sup></td><td>63</td><td>93</td><td>99</td></tr> <tr> <td>총계</td><td>166</td><td>186</td><td>132</td></tr> </table> <p>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p>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p> <p>※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권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p>
<p>(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p>	<p>□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p> <p>*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p>
<p>(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p>○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li> <li>○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 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li> <li>□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 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li> </ul>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li> <li>○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li> <li>○ 공시·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li> </ul> </li> </ul>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p>○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p>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 계류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b></p> <p>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p> <p>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p> <p>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p> </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li> </ul>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 결과와 재정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 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 - '07.1월중 광고 예정</li> <li>○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07.2월초 개최 예정</li> </ul>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에 건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토록 주기적 교육 실시</li> <li>○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li> </ul> <p>□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 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li> </ul> <p>□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p>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된 시행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li> </ul> <p>□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협의회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10.26)</li> <li>○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회 구성(12.15)</li> <li>□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li> <li>○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li> <li>□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li> </ul>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 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li> <li>○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li> <li>○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 과제를 선정(06)</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ata-bbox="737 824 1442 116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07년 경영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li> <li>•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li> <li>•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li> <li>• 고객만족경영의 실천</li> <li>•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li> </ul> </div>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8.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가조작 혐의 포착 후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홈쇼핑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할 것
- (3)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4)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5)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정책 수립에 있어 사금융 피해에 보다 취약한 여성을 배려한 홍보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 (6) 연대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 카드사가 연회비나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발급 건수만 늘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중 해외겸용카드가 지나치게 많이 발급되고 로열티 지급액이 막대하여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9) 저축은행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검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1)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국내 특성상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12)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00조원에 이르고 최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33%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규정인 30%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 (13)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유착관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윤리 규정을 강화할 것
- (14)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의 대부업 피해 관련 상담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데 상담인력 확충 등 대부업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5)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감원이 자문의 선정내역을 보고 받고 법원과 협력해서 신체 감정의를 자문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6) 주민등록초본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의 구매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호환 불가능한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전체 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사기의 적발통계로 볼 때,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분별력의 저하가 보험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9) 소송지원제도에 의한 분쟁조정실의 소송지원여부는 민원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0) 금융권의 감사 및 내부 통제인에 대한 과도한 장기재임과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21)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부로 취급하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민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3)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 경영평가지 이를 반영하고 보험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4) 펀드 판매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 판매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펀드판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5)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미국 및 일본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26) 대포통장의 발급 및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현금지급기 인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7)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
- (2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의한 검사원 제척제도를 감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부행장 등 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9) 신용카드가 4개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0) 금융환경이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금융사건 또한 더욱 복잡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금융사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1) 무분별한 채권추심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동결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봉급생활자의 급여통장이 동결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칫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결계좌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2)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조건의 변화 시점별 증감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3)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4) 감독분담금 관련, 현재까지는 금감원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감독 분담금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조달하는 만큼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6)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월리암 라이백 고문의 영입을 계기로 하여 향후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7)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하고, 사업비율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



- (38)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 김정민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근저당 설정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39) 금감원의 은행검사결과보고서상 지적 사항을 수합한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 누락 및 자료 부실문제를 지적 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온비드시스템 안전장치 보강, 결재장치 이중화 등을 추진 중인 바,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국유재산 대부 관련 영세민,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3)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인수사업을 조기 정리하여 부채 규모를 축소할 것
- (5)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6)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7) 민간 기업에 비해 낙후된 On-Bid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8)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인 희망모아의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9)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희망모아의 채권심사 재위탁 선정 기준의 조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10)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모아 등의 채무완제시 신용 불량 정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11)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 과잉추심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인터넷입찰 사용자의 정보와 입찰가격 등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 (13) 압류재산 처분업무 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14) 향후 해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15)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부계약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 조치부터 내리는 공사의 행정 집행의 부적정성을 시정할 것
- (16) 해외연수 결과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여행스케줄과 관련 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직원들이 연수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수결과보고서를 첨부할 것
- (17) 공사의 중국진출계획을 포함한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이 부진한 바, 향후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회원권 등이 보유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
- (19)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자금의 규모가 상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2007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가조작 혐의 포착 후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의 조기인지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등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선</li> </ul> </li> <li>○ 중대사건 신속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사건수리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단기매매차익 등 경미사건은 일괄조사 실시</li> </ul> </li> <li>○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 인지시 증권선물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사건초기부터 합동조사를 정례화 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기간을 최소화</li> </ul> </li> </ul> <p>□ 이러한 조사절차의 개선과는 별도로, 불공정 거래 사례연구 등 조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이 신속한 조사절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홈쇼핑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보험상품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쇼핑방송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li> </ul> </li> <li>○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보험상품을 변액보험에서 모든 상품으로 확대</li> <li>○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대상 광고 신청주체를 개별 보험회사에서 보험협회로 변경하고,</li> <li>- 종전 3회 위반시 제재금을 부과하던 것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보험회사, 홈쇼핑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과장·부실광고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07.10, '07.12)</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이 부담</li> <li>- 이해상충소지가 있거나 불공정 거래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 제한</li> </ul> </li> <li>○ 창구판매 임직원 수 제한 등 설계사 실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설계사에게 새로운 취업기회 제공</li> <li>- 현행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 수 제한 (2인이내) 유지</li> <li>- 08.8월 예정대로 교차모집을 실시함으로써 설계사 소득 보전 수단 마련</li> </ul> </li> </ul>
<p>(4)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 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도록 지도</li> </ul>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취급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만큼 향후 카드사별 타당성 판단에 따라 동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정책 수립에 있어 사금융피해에 보다 취약한 여성을 배려한 홍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및 「환승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p> <p>○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및 '환승론' 관련 제도 및 '사금융피해예방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YWCA 등 여성 단체에 배포('08.1월)</p> <p>○ 반상회·백화점 등을 통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p>
<p>(6) 연대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07.12)</p> <p>○ 이를 위해 '08년초부터 금융감독기구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예정</p>
<p>(7)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인력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사례(발생원인, 수법, 감사기법)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병행 운영하고 있음</p> <p>* 교육실적('05~'07) : 592명→643명→615명</p> <p>□ '07.1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 유인을 크게 줄였으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p> <p>□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적발·시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p> <p>○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도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 조직(T/F)을 설치('08. 1. 2)하고 금년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중</p>
<p>(8) 카드사가 연회비나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발급 건수만 늘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중 해외겸용카드가 지나치게 많이 발급되고 로열티 지급액이 막대하여 국부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p>	<p>□ 현재 국내카드사들은 국내외 겸용카드(비자, 마스터 카드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p> <p>○ 국내외 겸용카드의 분담금 요율 및 부과 대상 등 주요 정책은 회원사로 구성된 비자·마스터카드의 본사 및 각 지역 본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분담금 요율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감독기구는 불필요한 해외겸용 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국내전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관련 유의사항을 통보('05.9월)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카드발급 신청시 신청서상에 국내 전용카드 또는 해외 겸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중이며</li> <li>○ 국내외 겸용카드와 국내전용 카드의 연회비 차이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li> </ul> <p>□ 한편, 지도내용 점검결과 여전히 국내전용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5개 카드사에 대하여 지도사항의 적극 이행을 추가권고('08.1.31. 지도공문 발송)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지도할 계획</li> </ul>
<p>(9) 저축은행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점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감사원*은 당해 금융회사 감사 및 상시감시에서 제척하고 있으며</li> </ul> <p>*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감사 경력이 있는 직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별도로 '07.4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제척대상을 금융감독원 출신 경영진·대주주·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에서 근무 또는 고교 동문, 친인척, 전번 검사참여 검사원으로 강화하여 운영중</li> </ul>
(10)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고 있음</li> <li>○ 또한, 30만원 이상 휴면예금도 출현하기 1개월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원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li> </ul> </li> </ul>
(11)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대출이 많은 국내 특성상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대출건수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자산의 부실화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시행('07.1월)</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의 시행으로 여신심사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강화(은행권 '07.3월, 비은행권 '07.8월)</li> <li>○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취급 제한 관련 지도('07.7월)</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1% 미만)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담보인정비율(LTV)도 50% 이하로 대출자산의 부실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나,</p> <p>○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p>
<p>(12)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00조원에 이르고 최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33%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규정인 30%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p>	<p>□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 건당 취급수수료와 기간별 이자수수료로 구성되며</p> <p>○ 수수료율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는 곤란</p> <p>* 현금서비스는 상품 특성상 소액이며 쉽게 대출이 가능한 무담보 초단기 신용공여(30~40일)로서 상품 및 이용자의 특성상 리스크가 크고 카드사도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 적용</p> <p>□ 금융감독기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게 함으로써 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p> <p>○ 과거 일부 겸영은행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겸영은행도 자사 홈페이지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동 비율을 게시토록 지도 실시('05.10월)</p> <p>□ 또한, 카드사의 회원신용평가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회원 신용도별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외국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PMorgan Chase 28.24%(standard)</li> <li>- BOA 22.74%</li> <li>- Citi Bank 22.74%</li> <li>- Capital One 19.8%</li> <li>- AMEX 23.24% (Optima card)</li> </ul>
<p>(13)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유착관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윤리규정을 강화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따른 유착방지를 위해 사적접촉제한제도, 검사원 제척제도 등을 운영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원 제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검증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가동 중 ('08.2월 시행 예정)</li> </ul> <p>□ 한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수립된 재취업 운영원칙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08.1월부터 적용 중</p> <p>※ 재취업 운영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업무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 민원 등 논란소지가 있는 부서 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퇴직후 2년)</li> </ul>
<p>(14)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의 대부업 피해 관련 상담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데 상담인력 확충 등 대부업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역할 수행 및 대부업피해 상담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확충('07.10월)</p> <p>&lt; 대부업 등 사금융관리·감독 인력 충원내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 2명 증원</li> <li>○ 대부업 등 사금융피해상담 : 1명 증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대부업피해자의 전화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화된 상담에 대해서는 주말 등 업무시간외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ARS 상담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08년도 2/4분기중 시행예정)</p>
<p>(15)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감원이 자문의 선정내역을 보고 받고 법원과 협력해서 신체 감정의를 자문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금융감독기구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 선정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p> <p>○ 다만, 매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문의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신체 감정의 선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p>
<p>(16) 주민등록초본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 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p> <p>○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직원(신용정보업 종사자)은 채무자 등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동사무소에 제시하고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감사원에서는 일반인과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위임 계약직 채권추심원)로 하여금 위법한 채권추심활동*을 하도록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재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p> <p>*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등</p> <p>○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등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음('06.11월, '07.2월)</p> <p>○ 다만, 현재 사법당국(1,2심)에서는 위임 계약직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9 ①)에 규정된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상 별도의 허가없이도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등 채권추심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p> <p>* '08.1월 현재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p> <p>□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 남용되지 않도록</p> <p>○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신용정보업 종사자에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교부시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p> <p>○ 신용정보업 종사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의 구매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환 불가능한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전체 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 포인트제도는 카드사가 카드사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p> <p>○ 카드사는 수익에 기여한 고객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인식</p> <p>□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 등 적립 주체에 따라 그 사용대상 등 제반 활용조건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상품별로도 차이가 나는 특성이 있고,</p> <p>○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상 결제매개체 등 유사 성격 서비스의 유통 등을 고려할 때</p> <p>○ 금융감독기구가 그 유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p> <p>□ 금융감독기구는 카드사의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임을 감안하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회원에 대하여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기간, 변경가능성 등)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li> <li>○ 이와 함께 카드사는 유효기간(5년) 경과 등으로 회원의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 소멸 내역을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도 ('05.10월)</li> <li>○ 한편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용 안내장에 포인트제도 운용 관련 세부내용을 고지하고, 카드대금청구서에 포인트 관련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 ('06.3월)</li> <li>□ 또한, 금융감독기구는 포인트제도 개선 T/F(여신금융협회 주관)를 통하여 포인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07.3.19) 하여 표준약관에 반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9. 공정위 심사, '08.4월 시행예정</li> </ul> </li> </ul>
<p>(18) 보험사기의 적발통계로 볼 때,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분별력의 저하가 보험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6월 '보험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li> <li>○ 동 종합대책에 따라 보험사기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험사기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보험사기조사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임</p> <p>※ 보험사기 관련 홍보 및 방지교육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방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li>- 금융감독원 LED 전광판 광고</li> <li>- TV 등 대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 활동, 적발사례 등 홍보</li> <li>- 보험사기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방순회교육 실시</li> <li>- 일반인 대상의 금융소비자교육과정에 보험사기 관련내용 포함 및 강사 지원</li> </ul>
<p>(19) 소송지원제도에 의한 분쟁 조정실의 소송지원여부는 민원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송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기구는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p> <p>○ 사인간 소송에 금융감독기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소송 지원의 합리적인 근거 부여를 위한 엄격한 심의절차가 필요함</p> <p>□ 그간의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소송지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임</p> <p>○ 앞으로 금융감독기구는 소송지원의 요건을 폭넓게 검토하는 등 소송지원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금융권의 감사 및 내부통제인에 대한 과도한 장기재임과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p>□ 금융감독기구는 별도 전담조직(T/F)을 설치('08.1.2)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중인 바,</p> <p>○ 개편작업 추진시 금융권 감사 및 내부통제인의 과도한 장기 재임·연임 방지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p>									
(21)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p>□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p> <p>※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0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산출체계 개선(차량모델별 차등화 등)</li> <li>- 손보업계 자구노력(초과사업비 해소 등) 강화 등</li> </ul> <p>○ 보험업계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임</p> <p>※ 자동차보험 경영실적 개선 추이</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06.4~12월</th><th>07.4~12월(추정)</th></tr> <tr> <td>손해율</td><td>79.3%</td><td>73.7%</td></tr> <tr> <td>영업손익</td><td>△6,909억원</td><td>△3,406억원</td></tr> </table> <p>□ 한편,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보험금 누수를 상당부분 차단할 것으로 기대</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07.11월 시행)</p> <p>* 자동차관리법 : 정비업체의 부당수리 금지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07.7월 시행)</p>	구 분	06.4~12월	07.4~12월(추정)	손해율	79.3%	73.7%	영업손익	△6,909억원	△3,406억원
구 분	06.4~12월	07.4~12월(추정)								
손해율	79.3%	73.7%								
영업손익	△6,909억원	△3,406억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금융감독기구는 자동차 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보험사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p> <p>○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p>
<p>(2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부로 취급하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서민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기시행중</p> <p>[주요 대응방안]</p> <p>○ '06.8월 이후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혼합형 대출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p> <p>* 이에 따라 '07년말 현재 스왑연계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파워론Ⅲ, 신한장기모기지론, 셀프디자인 모기지론, 골드프리미어모기지론 등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중</p> <p>○ 금리변동위험 축소를 위한 금리캡(금리조정 상한) 상품 개발 및 취급 확대의 지속적 유도('07.8월)</p> <p>* 이에 따라 '07년말 현재 은행들은 이자안전지대론, 입주 자안심론, 명품변동금리대출, YES이자안심 모기지론 등 금리상한형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 판매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금리부 대출의 경우 모범기준에 의한 DTI 한도 산출시 기본비율에 5%p 가산 인정('07.3월)</li> <li>○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변동금리대출 상환 원리금 및 적용금리 등의 고객통지 강화('0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거래약정서상의 금리조건에 대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등 금리위험 고지의무 강화</li> <li>- 이자부담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li> <li>-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에 대한 고객 앞 통지 강화</li> <li>-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 설명서 제공</li> <li>-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등</li> </ul> </li> <li>○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한 주택신보의 출연료를 인상(최고 0.163%→0.3%)('07.7월)</li> <li>□ 향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신용 등급별 현황, 금리상승 영향, 리스크 수준 현황, 금리조건 및 만기구조 분석,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 경영평가지 이를 반영하고 보험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p>□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회사 경영평가지 민원 전반에 대하여 비계량항목으로 평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예방 및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외에 공표하고 있는 보험회사 민원 발생 평가시에도 합의권고 수용률 등을 반영하여 회사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li> <li>○ 합의권고 수용률만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li> </ul> <p>□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금융감독기구의 합의권고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li> </ul>
(24) 펀드 판매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 판매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펀드판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펀드 판매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교육이수와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자격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고(간투법 시행령 §55 ②)</li> </ul> <p>* 교과목은 간투법 등 관련법규, 판매행위준칙 및 직업윤리, 영업실무, 상품의 구성·이해, 펀드 운용 업무, 펀드 평가·분석, 투자자분쟁 예방 등으로 구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판매자격을 유지하려면 자격취득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수할 때까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음 (재경부 고시 2006-2호 제6조)</p> <p>※ 외국의 펀드판매 자격 검증시스템 사례</p> <table border="1" data-bbox="738 663 1417 1059"> <thead> <tr> <th data-bbox="738 663 826 712">구분</th><th data-bbox="826 663 1417 712">판 매 자 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38 712 826 846">미국</td><td data-bbox="826 712 1417 846">-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td></tr> <tr> <td data-bbox="738 846 826 958">영국</td><td data-bbox="826 846 1417 958">-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td></tr> <tr> <td data-bbox="738 958 826 1059">일본</td><td data-bbox="826 958 1417 1059">-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td></tr> </tbody> </table> <p>□ 그간 금융감독기구는 펀드판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판매선진화를 계속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바,</p> <p>○ 펀드 투자자 인식이 높아지도록 투자자 교육자료*를 배포해 오고 있으며</p> <p>* 「알기쉬운 펀드투자」('05.9월, '06.11월), 「펀드투자, 이것은 알고 합시다」('08.1월, 투자자교육재단)</p> <p>○ 판매회사 펀드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p> <p>○ '07.4월 판매직원 실명제 시행, '07.12월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 시행*(투자자교육재단) 등 제도보완을 병행하고 있음</p> <p>* 평가항목은 판매임직원 자격소지 현황, 교육·연수 현황 등임</p>	구분	판 매 자 격	미국	-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	영국	-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	일본	-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구분	판 매 자 격								
미국	-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								
영국	-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								
일본	-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판매인력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및 교육효율화 방안(교재단일화)을 마련하여 '08.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p> <p>□ 한편, '09.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부실한 투자 설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판매회사의 자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p>
<p>(25)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미국 및 일본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p>	<p>□ 美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불안이 '08년 들어서도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안전자산 추구성향 강화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증대</p> <p>□ 금융감독기구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표출된 '07.8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점검반」을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실시간 종합모니터링체제를 가동·운영중이며</p> <p>○ '08.1월 중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동 점검반 운영을 강화 (점검반 구성원을 실무자급에서 고위책임자급으로 격상, '08. 1.23)</p> <p>□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구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한편 잠재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및 효과를 예상하여 금융회사, 기업,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유도</p> <p>○ 또한,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방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대포통장의 발급 및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현금지급기 인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7.18)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D/ATM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예금계좌 및 비대면채널 개설요건 강화방안,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함</p> <p>○ 금융감독기구는 '07.9월 현금지급기 1일 이체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1회 이체한도 1천만원→6백만원), 1일 인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p> <p>- 대포통장 개설차단을 위하여 예금계좌개설시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예금계좌 및 비대면채널 개설요건 강화방안을 은행에 통보한 바 있음</p> <p>○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06.7.24. 이근식의원 외 35인 발의)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포통장 양도행위의 처벌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27)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	<p>□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임</p> <p>*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개정안('06.9.22.)</p> <p>○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의한 검사원 제척제도를 감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부행장 등 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07.4월 「상호저축은행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마련, 검사원 제척제도를 강화</p> <p>○ 금융감독원 출신 경영진·대주주·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고교동문, 친인척, 전번검사 참여 검사원은 검사에서 제외</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 임원이 대표이사 등 집행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p> <p>○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제척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직시 담당 부서가 많아 제척대상 검사원이 너무 많아져 검사인력 운용이 곤란하게 됨</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금융권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등 집행임원에 대한 검사원 제척대상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p>
<p>(29) 신용카드가 4개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카드사는 소득, 재산상태, 직업 등의 신상 정보 이외에 과거 거래실적 정보 및 복수카드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카드발급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평가</p> <p>○ 한편, 4장 이상의 복수카드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는 신청자의 금융거래 행태, 대출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감독기구는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때 신상·거래정보 외에 복수카드 소지여부가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 약관심사 제·개정 권한이 주어질 경우 약관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li> <li>○ 또한 카드사 표준약관에 휴면카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여 반영하고 1년이상 무실적 휴면카드에 대하여는 회원의 해지의사 확인 후 카드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인당 카드 발급매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중('08.1.9. 공정위 심사 표준약관에 반영)</li> </ul>
<p>(30) 금융환경이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금융사건 또한 더욱 복잡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금융사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 고품질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인력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직군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수 로드맵을 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비은행, 보험, 증권, 공시·조사 등 4개</li> </ul> </li> <li>○ 국내외 금융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과 협력하여 감독업무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계속 확충</li> <li>○ 선진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검사기법을 습득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고품질·현장연수 위주로 내실화하여 실시</li> <l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홍콩 금융관리국 등의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유관업무 직원들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집중연수 실시 예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1) 무분별한 채권추심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동결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봉급생활자의 급여통장이 동결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칫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결계좌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채권추심목적의 은행계좌 동결은 은행의 재량이 아닌 법원의 압류 혹은 가압류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은 법원의 압류 명령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므로 급여계좌의 지급정지 여부는 은행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li> </ul> <p>※ 은행의 계좌동결 주요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지급제한(법원 압류명령 등)</li> <li>○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권보전</li> <li>○ 기타 금융사고 예방(경찰청 요청 등)</li> </ul> <p>□ 현재 금융감독기구는 은행의 계좌동결 유형별 등록건수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li> </ul>
<p>(32)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조건의 변화시점별 증감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정 기준*의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에 집중한 연체자를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위해 동 연체정보를 제공함</p> <p>* 50만원 초과, 3개월 이상('05.4월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금융거래 및 취업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05.4월 의원 입법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li> </ul> <p>*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발생시 등록</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는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 과거 금융거래 내역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p> <p>※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이 일정기준에 의한 연체정보를 등록·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p> <p>○ 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연체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고객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정보 확충 등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p> <p>○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통계관리를 위해서도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p>
<p>(33)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p>○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p> <p>-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p> <p>-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p> <p>○ 향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08년 상반기)한 이후</p> <p>-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4) 감독분담금 관련, 현재까지는 금감원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감독분담금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승인을 거쳐 편성되고, 결산상 잉여금(총수입 - 총지출경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는 바,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예산안 편성시 익년도 발행 분담금, 자체수입 등을 추계한 후 감독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고</li> <li>○ 일정수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예산의 95~97%수준 이내에서 긴축적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데 기인하는 것임</li> </ul> <p>□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07.8월 마련된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임</p>
<p>(35)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조달하는 만큼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 예산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의 결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07.8)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예산편성소위원회」를 설치·운영('07.9)하여 예산안 수립단계에서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금감원 예·결산 투명성강화방안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획예산처 담당자 및 금융관련협회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크게 확대</li> <li>-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상·총인건비 예산증가율 범위내로 최대한 억제</li> <li>- 감독분담금 요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금융회사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li> </ul>
<p>(36)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월리암 라이백 고문의 영입을 계기로 하여 향후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의 금융허브추진정책 중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리암 라이백 고문 영입 등을 계기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음</li> </ul> </li> <li>□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하여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함('07.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중임</li> </ul> </li> <li>□ 앞으로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관련 법률」이 제정('07.12)됨에 따라 금융허브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임</li> </ul>

## 시정·처리요구사항

- (37)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하고, 사업비율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일부 생보사는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보험료에 포함된 예정사업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권고)하는 것은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보험가격자유화('00.4) 이후 예정사업비 등 보험가격은 보험사가 자율 책정

(단위 : 억원, %)

구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FY03	FY06	증가율	FY03	FY06	증가율
KB	227	4,690	1,966.1	32	621	1,840.6
SH&C	1,128	4,255	277.2	126	390	209.5
PCA	1,381	7,586	449.3	436	2,608	498.2

※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포함

-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보험사에 대한 수시(정기)검사시 실제사업비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 바 있으며
- \* '04 이후 경영유의 1, 기관주의 12, 개선 2, 조치의뢰 1, 현지조치 10
  - 보험계약자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정사업비지수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토록 하고 있음
  - 특히 '07.4 부터는 투자성격이 강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변액유니버설보험과 같이 특별계정 투입원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지도한 바 있음
  - \* 가입설계시 및 판매후 연2회 안내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동 내용을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구는 상품심사시 기존 유사상품과의 사업비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정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고,</p> <p>○ 수시(정기) 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p> <p>○ 상품광고시에도 예정사업비 지수를 공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p>
<p>(38)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 김정민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근거당 설정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p>	<p>□ '05.11월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당시 국민은행의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대출이 국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담보 적격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여신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영유의조치 하였음</p> <p>○ 현재 당해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았으며 대출 원리금도 연체 없이 상환('08.1.20일 현재 15억 → 1.4억원)되고 있는 등 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손실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됨</p> <p>*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형법 제355조 제2항)</p> <p>○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민은행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금감원의 은행검사결과보고서상 지적 사항을 수합한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 누락 및 자료 부실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07년도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의원 요청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자료가 누락되고 추후 재점검도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p> <p>○ 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다량의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p> <p>* 당시 소수의 직원이 제출자료 작성을 위해 1,000여건의 검사보고서 및 약 3,500건의 지적사항 내역을 조사·확인</p> <p>&lt;참고&gt; 은행 검사보고서 및 지적사항 수 (단위 : 건수)</p>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검사보고서</th><th>지적사항</th></tr> <tr> <td>'04.~'07.중</td><td>1,005</td><td>3,444</td></tr> </table> <p>□ 이는 국회의원 요청자료 수에 비해 담당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하는 측면은 있으나</p> <p>○ 당시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조치 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p>	구분	검사보고서	지적사항	'04.~'07.중	1,005	3,444
구분	검사보고서	지적사항					
'04.~'07.중	1,005	3,444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온비드시스템 안전장치 보장, 결재장치 이중화 등을 추진 중인 바,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온비드에서 발생한 장애의 대부분은 사용자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및 저장장치의 일시적 부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장애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이러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부문 25개, 제도·정책부문 10개 등 총 35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li> <li>○ 아울러, 공사는 2007년 11월 하순부터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의 은행과 지불결제 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완료</li> </ul> <p>□ 향후에도 외주관제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통해 온비드 장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p>
<p>(2) 국유재산 대부 관련 영세민,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p>	<p>□ 농민에 대한 대부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경지 대부로 상한선을 농업 수입의 20% 이내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7.1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세민 및 농어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조립 목적의 대부 기간은 10년 장기로, 실경작자 에게는 수의 계약을 통한 대부계약의 연장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대부 조건을 완화하고 있음</li> </ul> <p>□ 향후에도 영세민 및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유재산 이용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대부 방법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총괄청에 건의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농어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li> </ul>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기금보유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자산의 다양화 및 운용기간의 장기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자산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식을 포함한 혼합형 수익증권 운용을 확대하고, 07년12월말 현재 보유자금의 100%를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자금으로 운용</li> </ul> <p>□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용자산 다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p> <p style="margin-left: 20px;">* 컨설팅 기간 : 07.10.08~12.7, 컨설팅 기관 : 한국채권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가능 금융상품 확대, 자산배분 프로세스 개선 등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li> </ul> <p style="margin-left: 20px;">* 자산운용 전문인력 충원(채권운용전문가), 자산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선임(대학교수 2인),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참석</p> <p>□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li> <li>○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li> </ul> <p>□ 따라서, 향후 보유자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시장금리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배당상품의 운용비중 확대 등 운용자산을 다양화하고, 운용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하여 운용할 계획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인수사업을 조기 정리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할 것	<p>□ 한국자산신탁은 자산 1,412억원, 부채 762억원, 자본 650억원으로써 부채 비율은 약 117%*(07.12.31기준 잠정집계)이며,</p> <p>*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07년말 잠정) : 192%</p> <p>○ 이는 부실 신탁사의 구조 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양수한 사업장과 관련되는 사후정산방식[정산시 회수가치가 없을 경우 출자전환(합안사업) 및 채무탕감(양평사업)]의 인수채무에 기인하며 진성채무가 아님</p> <p>[사업별 양수시 대비 현재(07.12.31기준)의 채무내역]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구 분</th><th>인수시</th><th>현재</th><th>비 고</th></tr> <tr> <td rowspan="2">합안사업</td><td>일반차입금</td><td>106</td><td>106</td><td>출자전환조건인수</td></tr> <tr> <td>국민주택기금</td><td>231</td><td>231</td><td>상환대상채무</td></tr> <tr> <td rowspan="2">양평사업</td><td>일반차입금</td><td>170</td><td>123</td><td>사후정산조건인수</td></tr> <tr> <td>미지급이자</td><td>61</td><td>155</td><td>사후정산조건인수</td></tr> <tr> <td rowspan="3">기타</td><td>미지급배당금</td><td>-</td><td>46</td><td>08년, 09년 지급</td></tr> <tr> <td>선 수 금</td><td>-</td><td>56</td><td>매년 증감 발생</td></tr> <tr> <td>미지급비용 등</td><td></td><td>45</td><td>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td></tr> <tr> <td colspan="2">계</td><td>568</td><td>762</td><td></td></tr> </table> <p>□ 차입금 상환(부채규모 축소) 계획</p> <p>○ 합안사업은 임대아파트사업으로 현재 일괄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조기 매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고, 일반 차입금은 인수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방식으로 부채를 축소할 계획</p>	구 분		인수시	현재	비 고	합안사업	일반차입금	106	106	출자전환조건인수	국민주택기금	231	231	상환대상채무	양평사업	일반차입금	170	123	사후정산조건인수	미지급이자	61	155	사후정산조건인수	기타	미지급배당금	-	46	08년, 09년 지급	선 수 금	-	56	매년 증감 발생	미지급비용 등		45	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계		568	762	
구 분		인수시	현재	비 고																																						
합안사업	일반차입금	106	106	출자전환조건인수																																						
	국민주택기금	231	231	상환대상채무																																						
양평사업	일반차입금	170	123	사후정산조건인수																																						
	미지급이자	61	155	사후정산조건인수																																						
기타	미지급배당금	-	46	08년, 09년 지급																																						
	선 수 금	-	56	매년 증감 발생																																						
	미지급비용 등		45	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계		568	76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양평사업은 공원묘지 조성후 분양중에 있으며 추가 자금 부담이 없고, 매년 신탁보수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09년말까지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p> <p>※ 신탁사업은 위탁자 및 이해관계인의 매각처분 요청이 없는 한 사업권 일괄매각 정리가 불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매각 정리는 어려움</p> <p style="text-align: center;">&lt;사업별 상환 계획&gt;</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구 분</th><th>상환액</th><th>상환방법</th></tr> <tr> <td rowspan="3">08년도</td><td rowspan="2">함안사업</td><td>106</td><td>08년 매각후 출자전환</td></tr> <tr> <td>231</td><td>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td></tr> <tr> <td></td><td>양평사업</td><td>60</td><td>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td></tr> <tr> <td>09년도</td><td>양평사업</td><td>63</td><td>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td></tr> <tr> <td>10년이후</td><td>양평사업</td><td>155</td><td>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td></tr> </table> <p>○ 기타 미지급 배당금은 지급계획(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08년도에 23억원, 09년도에 23억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수금 계정은 연차별 당해 계정간 사유 발생시마다 회사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대상금액임</p>	구 분		상환액	상환방법	08년도	함안사업	106	08년 매각후 출자전환	231	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		양평사업	60	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09년도	양평사업	63	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10년이후	양평사업	155	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
구 분		상환액	상환방법																				
08년도	함안사업	106	08년 매각후 출자전환																				
		231	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																				
		양평사업	60	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09년도	양평사업	63	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10년이후	양평사업	155	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																				
(5)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내규 정비를 통한 자체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p> <p>○ 종래의 「검사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인의 직무 권한 강화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규정」 제정(07.12월) 및 「감사규정 시행요령」(08.1월) 제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상시감사 체계 구축 및 감사업무 전산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사이버 상담실(e-카운셀링) 개설·운영(07.11월)</li> <li>○ 임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부패방지 홍보 강화 및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게시판(Whistle blowing)개설·운영(07.12월)</li> <li>○ 「감사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08.3월 완료)</li> </ul>
(6)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여성·장애인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시행(07.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직원 채용시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해 목표할당제 도입·시행(0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2월말 현재 18.8%의 여성고용비율을 2011년까지 20.13%로 확대할 계획</li> </ul> </li> <li>○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적합 직무 개발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력 Pool 활용 등 고용증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현재 1.05%인 고용비율을 의무고용비율(2%)까지 확대를 위한 노력 제고</li> <li>· 채용시 목표할당제 도입(사무지원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규모의 최소 20%를 장애인으로 채용</li> </ul> </li> <li>· 장애인 적합 직무의 적극적 발굴</li> <li>· 신입직원 채용시 전형별 가점 부여</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민간 기업에 비해 낙후된 On-Bid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p>□ 온비드는 공사와 이용기관 등의 구매공고 및 전자 입찰을 지원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법원경매 물건 등 물건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는 민간 정보 제공업체와는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비드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우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li> <li>○ 또한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물건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대한 권고 및 온비드 이용 교육도 병행</li> </ul>
(8)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인 희망모아의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희망모아는 희망모아 콜센터(상환 유도 TM)를 통한 상환 안내, 채무상환 안내장의 주기적 발송, 희망모아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 홍보 방안을 마련·시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신용회복 홍보수첩을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li> </ul> <p>□ 향후에도 지속적인 채무상환 안내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p>
(9)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희망모아의 채권심사 재위탁 선정 기준의 조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p>□ 공사에서는 보조자산관리자(신용정보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적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된 보조자산관리자의 경우 비계량요소인 민원발생 항목에서 감점하는 등 계량요소와 비계량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평가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도 법규위반 사례 및 민원발생 요소 등이 보조자산관리자의 재위탁 선정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li> </ul>
<p>(10)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모아 등의 채무완제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조정약정 체결 즉시 신용평가사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처리하고 있으며</li> <li>○ 채무가 완제되면 채무불이행정보 기록은 완전히 삭제 처리됨</li> <li>□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li> </ul>
<p>(11)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 과잉추심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과잉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자산관리자(신용정보사)에 대하여,</li> <li>○ 월 1회 정기 간담회 및 현장지도를 통한 불법·과잉 추심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민원예방을 위한 채무상환 최고장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패널티 부과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위임계약서」에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li> <li>□ 향후에도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인터넷입찰 사용자의 정보와 입찰가격 등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온비드는 모든 입찰가격 및 중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고, 입찰가격 유출방지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2중의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 및 침입 차단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내·외부의 불법적인 서버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li> <li>○ 은행과의 정보교환시에도 통신보안시스템 체계를 적용하여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온비드의 인터넷입찰 관련 프로그램은 형상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임의 조작 또는 조작 내역을 관리 및 감시함으로써 전산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p> <p style="margin-left: 40px;">*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이력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및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p>
(13) 압류재산 처분업무 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전산시스템 개선에 의한 안정적 업무량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과 전산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하여 압류 후 3개월 경과 시 자동으로 공매진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실익분석 실시(07.10월 시행)</li> <li>○ 실익분석 결과 공매 가능 물건에 대하여 일괄 공매대행 의뢰(08.1월 시행)</li> </ul> <p><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처분업무 확대를 위한 위임업무 다각화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상 경찰청 부과 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실시(07.12월)</li> <li>○ 검찰청 벌과금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대행을 위한 협정 체결(07.12월)</li> <li>○ 공과금·사용료 등에 대한 신규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였고 공매대행의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는 노력 등 진행</li> </ul> <p>□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新조세정리업무시스템(06.11월 구축) 개선 등 사무자동화 제고를 통한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생산성 증진</li> <li>○ 업무시스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의한 비용절감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perless를 통한 사무공간 확보 및 비용절감</li> <li>- 우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공매통지서 등의 발송업무 간소화 및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정원의인력 활용으로 비용절감</li> </ul> </li> </ul> <p>□ 향후 수익제고 및 비용절감을 통한 수지개선을 위하여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무절차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지개선을 도모코자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향후 해외부실자산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p>□ 공사는 국외부실자산 투자 관련 제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준비·실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목표시장인 중국의 투자 위험도를 감안, 중국 4대 국영AMC 보유자산에 대하여 동 기관과의 합작투자 또는 공동 자산관리로 리스크 최소화</li> <li>○ 투자자산 발굴·자금조성의 효율성 및 자산실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금융·실사 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력 체제 구축</li> <li>○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투자 위험관리를 위하여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및 경영관리위원회 등에서 투자계획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의·의결 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효과적인 심의·의결절차 진행을 위해 안전 부의 전 투자 타당성, 자산관리·회수 등 제반절차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li> </ul> </li> </ul> <p>□ 이밖에도 공사는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 또는 AMC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해외 NPL시장에 대한 대응도 및 협상력 등을 제고할 계획</p>
(15)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부계약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 조치부터 내리는 공사의 행정 집행의 부적정성을 시정할 것	<p>□ 무단점유 및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상으로 변상금 확정부과전 무단점유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전 고지절차를 거치고 있고</li> <li>○ 소유권 이전 당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국가포함)임을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li> <li>○ 향후, 변상금 확정부과 및 사인간 거래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홈페이지·국유재산처분시스템(Onbid)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홍보</li> <li>○ 또한, 변상금 확정부과에 대해 무단점유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사유 및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대부계약이 체결된 국유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전대시 대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을 대부 계약시 명시하여 사인간 소유권 이전시 새로운 대부계약의 체결이 필요함을 안내하도록 하겠음</li> </ul> </li> </ul>
<p>(16) 해외연수 결과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여행스케줄과 관련 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직원들이 연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수결과보고서를 첨부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첼린저과정의 경우 연수종료 후 연수결과 보고서(A4 용지 20매 이상)를 제출받아 공사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결과보고서에는 지원팀이 당초 제출한 연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세한 여행 내용을 기재(사진포함)토록 하고 있음</li> </ul>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07. 7월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등록 · 공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연수결과보고서중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 공개를 07.11월 완료</li> </ul> <p>□ 향후에도 공사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연수결과를 적극 공개하겠음</p>
<p>(17) 공사의 중국진출계획을 포함한 해외부실채권 인수 사업이 부진한 바, 향후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국외부실자산 투자를 규정한 공사 법령 개정 후 지난해 규정 정비, 투자협의체 구성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한 공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부실채권 보유국인 중국을 우선시장으로 정하고 동 지역의 NPL투자 위험 등을 감안, 중국 4대 국영 AMC와의 합작투자를 추진</li> <li>○ 특히 동방 AMC 보유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 및 심의 · 의결 절차를 07.11월 완료하였고 입찰 참여를 통해 1,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 (07.11.30)</li> </ul> <p>□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 · 추진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 발굴 및 자금조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경험 보유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확대 · 강화</li> <li>○ 각종 투자관련 사안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과의 상시 협의 · 자문체제 구축으로 투자 계획의 완성도 강화</li> <li>○ 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컨설팅 · 연수사업 수행으로 투자사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li> </ul>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회원권 등이 보유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	<input type="checkbox"/> 골프회원권은 공사 업무 관련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상담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영업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운영  <input type="checkbox"/> 스포츠회원권 운영은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건강 도모에 한하여 운영												
(19)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자금의 규모가 상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관리 전산화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주택자금 관리 방식을 수기 관리 방식에서 99년부터 전산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 중에 있음</li> </ul> <p>* 대출종류, 사용자, 대여기간, 대여금액, 주택 소재지, 권리보전, 이자율, 상환일, 상환금액 등을 주택자금 대여 및 상환시 전산 입력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lt;주택자금 지원 현황(07.12.31현재)&gt;</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th style="width: 30%;">건 수</th><th style="width: 40%;">금 액</th></tr> </thead> <tbody> <tr> <td>임차주택</td><td style="text-align: center;">31건</td><td style="text-align: center;">2,466</td></tr> <tr> <td>전세자금</td><td style="text-align: center;">52건</td><td style="text-align: center;">1,690</td></tr> <tr> <td>구입자금</td><td style="text-align: center;">85건</td><td style="text-align: center;">1,894</td></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향후 동 관리방식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주택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 분	건 수	금 액	임차주택	31건	2,466	전세자금	52건	1,690	구입자금	85건	1,894
구 분	건 수	금 액											
임차주택	31건	2,466											
전세자금	52건	1,690											
구입자금	85건	1,894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3) KIKO(키코) 피해 관련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li> <li>○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li> <li>○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 발표('09.2.19)</li> <li>○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li> <li>○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li> <li>○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li> <li>○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li> <li>○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27)</li> <li>○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li> </ul>
(1)-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6.1)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p>
<p>(1)-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p>	<p>□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p> <p>□ 향후에는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p>
<p>(1)-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p>	<p>□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p> <p>※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소기업금융지원조치</p> <p>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p> <p>* '09.8월말까지 KIKO손실기업 5.3조원 포함 총 20.4조원 지원</p> <p>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09.1.8)</p> <p>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2.12)</p> <p>*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2.19)</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 *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계획) 44조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경기회복,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p>
(1)-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 '09.4.28~ 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제재 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p>
(1)-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p>□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p>
(1)-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말) (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1)-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 '08.11월~'09.3월간 매월 1/5(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2)-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li> </ul>
(2)-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한-일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불로 증액 <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를 2차례 연장('10.2월까지)
(2)-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공기관 평가시 기반영증인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p> <p>※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p>
<p>(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li> <li>-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li> </ul>	<p>□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08.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정보 DB 구축</li> <li>·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li> <li>· 금융사 내부통제강화·시스템리스크 방지: 장기성과등을 감안하도록 파생거래성과보수체계개선, 장내통화선물리모델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개선 추진 등</li> </ul> <p>□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p> <p>□ 특히 파생상품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p>□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p> <p>○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 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p>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p>□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p> <p>○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p>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신용카드의 부채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 제한 관련</p> <p>○ 신용카드의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09.4.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p> <p>* 동 개정안에서 체크·직불카드는 고객의 결제성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되어 과소비 우려 등이 없으므로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지 않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별화 관련</p> <p>○ 최근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재위 논의과정에서 폐기</p> <p>* ('08)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20%→30%)하는 개정안을 김호석·이용섭 의원이 제출</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input type="checkbox"/>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 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업무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제306조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 제307조 :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 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p>○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p>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p>○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p> <p>○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p>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p>-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li> <li>□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li> <li>○ 또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제출 ('09.4월, 권택기 의원)</li> <li>□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li> <li>□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 ('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li> </ul> </li> </ul>
<p>(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08.11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수립하고,</li> <li>○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임원 보수를 평균 10% 대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수립 및 '10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 추진</p>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p> <p>□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금감원, 08.12)</p>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CP발행이 불가능하였음</p> <p>○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포함하여 제출('09.2.10 제출, 정무위 계류중)</p>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p>□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 10. 2009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 별도첨부



2009년 업무계획

---

# 금융위기 극복 방안

---

2008. 12. 18



금융위원회

## **I.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
2. 향후 금융위기 전개방향
3. 금융시장 불안요인 전이경로

## **II. 금융위기 극복 방향**

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2. 금융시장 안정
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
4.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5. 글로벌 협조체계 및 해외 IR 강화
6.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III.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1.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2. 금융교육 강화
3. 판매인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IV.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1. 녹색성장 지원
2. 파생금융상품 감독 및 규제 발전방안
3.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4.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5. G-20 Action Plan의 차질없는 이행·점검

# I.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실물부문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

- 주요국들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 중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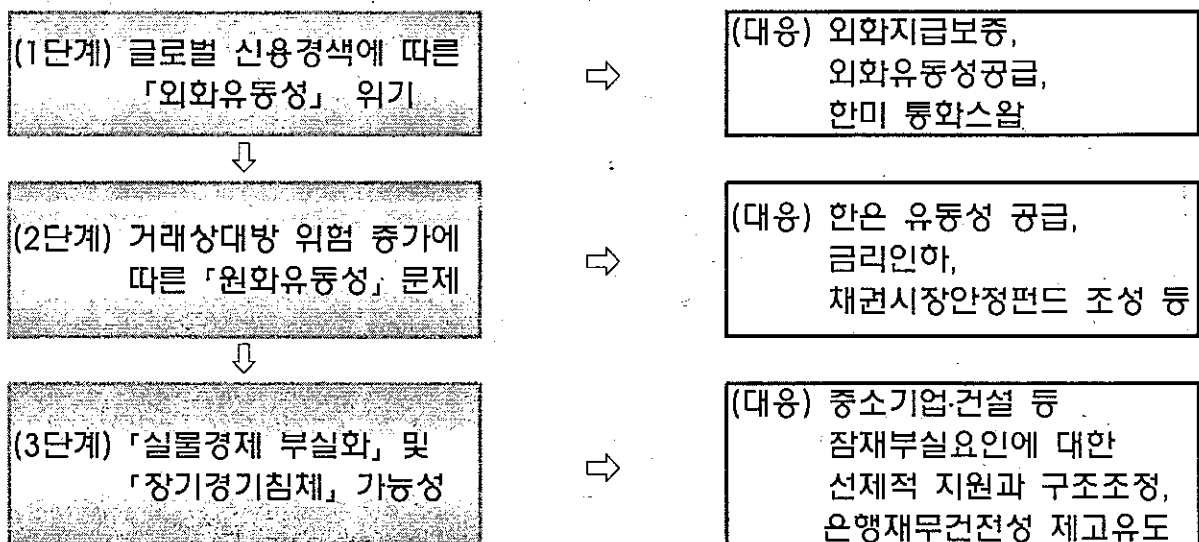
① 미국발 금융 위기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둔화되고 세계  
경제의 동반하락 현상이 확인

-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의  
확대 재생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

\* 정책 금리 인하 및 적극적 유동성 공급, 은행 채무보증, 은행 자본  
확충과 국유화, 주요국간 통화 스왑 등

② 우리 정책 당국은 금융위기 전이와 실물경제 파급을 방지  
하기 위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

### < 금융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



## 〈참고〉 그간 정책대응과 시장 반응

<b>주식 시장</b>	①공매도 한시적 금지(9.30) ②주식형펀드 지원(10.19) ③한미통화스왑(10.30) ④경기활성화방안(11.3) ⑤기업재무개선지원단 등 출범(12월초)	
<b>채권 시장</b>	①회사채펀드지원(10.19) ②한은 RP 지원(10.24, 10.31, 11.11) ③한은 국고채 작매입(11.17) ④채권안정펀드 세부안 마련(12월초). ⑤정책금리인하(225bp)	
<b>외환 시장</b>	①은행차입 지급보증(10.19) ②외화유동성 300억불 공급(10.19) ③한미통화스왑 체결(10.30) ④한미통화스왑 실행 발표(12.1) ⑤한·중, 한·일 통화스왑 확대(12.12)	
<b>단기 금리</b>	①정책금리인하(8.7, 10.9, 10.27, 11.7, 12.11) ②공개시장조작 대상 은행채 등 확대(10.24) ③한은 RP를 통한 단기 시장에 1조 지원(11.11)	
<b>위험 지표</b>	①은행차입 지급보증(10.19) ②공개시장조작 대상 은행채 등 확대(10.24) ③한미통화스왑 체결(10.30) ④경기활성화방안(11.3) ⑤은행권 자본확충등 검토(12월초)	

## 2. 향후 금융위기 전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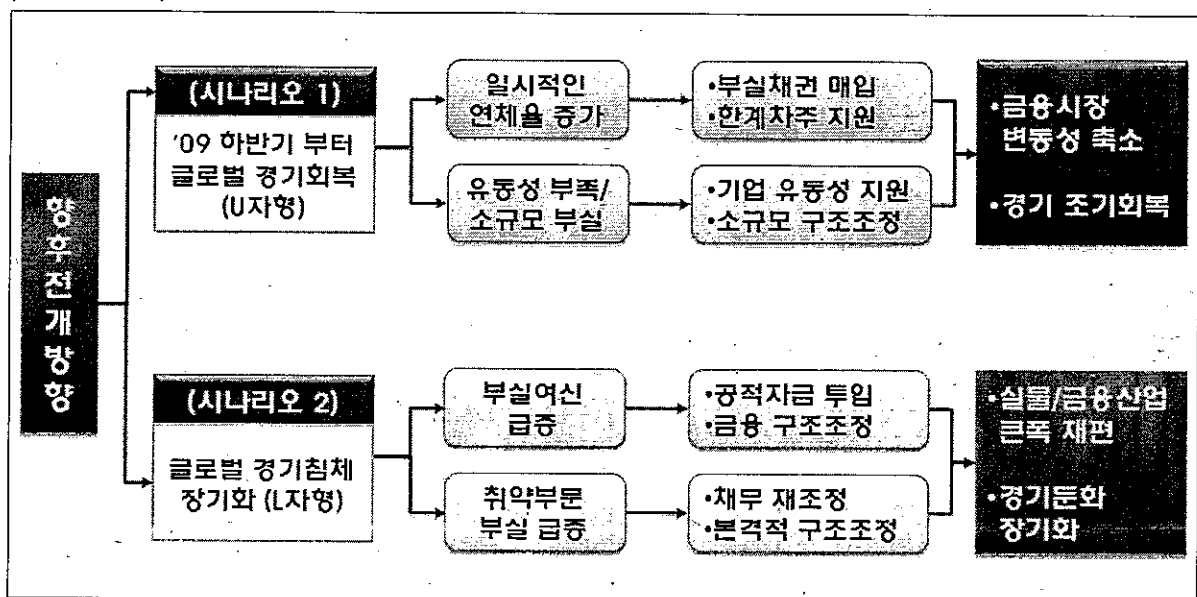
① 현재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둔화로 빠르게 파급되는 모습

- 실물경제 위축이 재차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및 시장 불안 경로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

② 향후 금융위기 향배는 「실물↔금융부실」 악순환(Vicious Circle) 정도에 따라 구분

- (시나리오 I) 국제공조 노력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진정 → 소규모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회복
- (시나리오 II) 금융·실물 악순환 고리 형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실물부문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전개

### < 금융 위기 전개 방향 시나리오 >



③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 등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시나리오 II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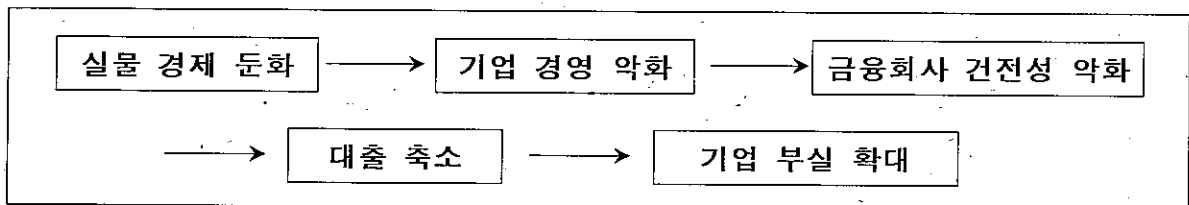


### 3. 금융시장 불안요인 전이 경로

-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 경제 침체(Depression)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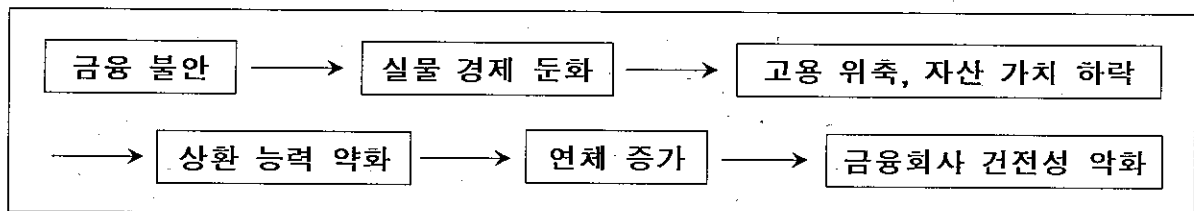
#### ①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 경로

- 기업 경영 악화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기업 부실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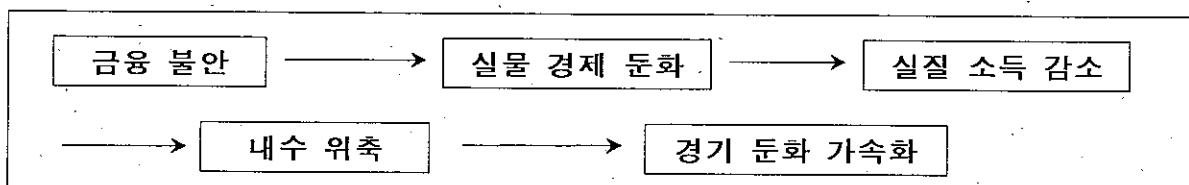
#### ② 가계 부채 상환 능력 악화 경로

- 금융불안에 따른 고용 등 실물 경제 둔화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켜 금융기관 부실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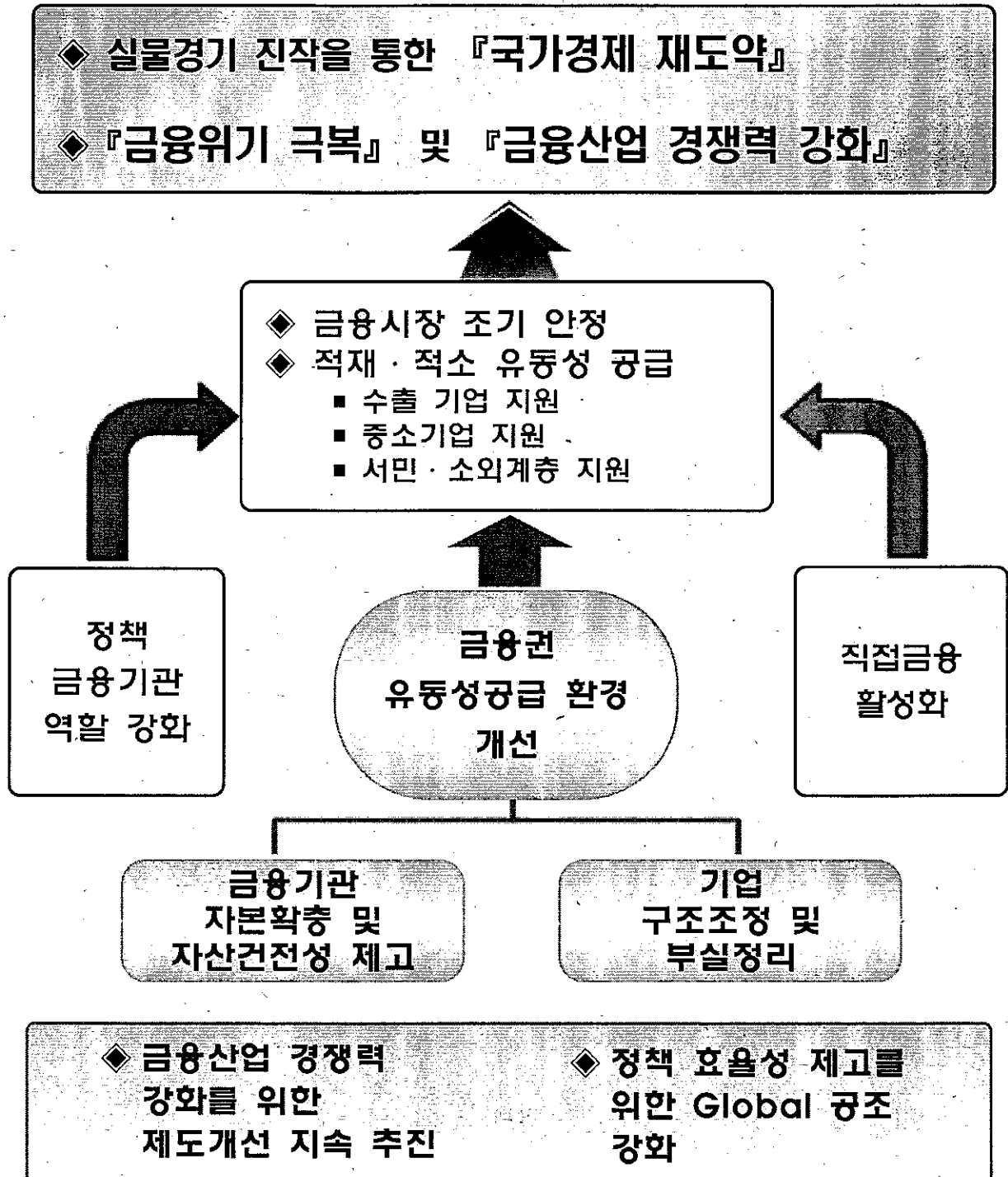
#### ③ 역자산 효과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 경로

- 부동산, 주식등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둔화로 생산, 투자, 수출 부진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 위축 초래



## II. 금융위기 극복 방향

- ◇ 실물부문 '후원자(Patron)'로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
  - '優良'부문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
  - '不實'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동시에 강화

### 가.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system 강화

#### (1)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체계 마련

##### (가) 기업구조조정 지원

#### 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보완하여 거래 기업의 신용위험 상시평가 강화
  - 유동성 지원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조속히 선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처리방침 결정
- 감독당국은 은행의 상시평가 및 사후관리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

#### ②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관련 정부내 부처간 협의·조정기능을 적극 수행
  - 기업재무개선자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적극 지원
  - 금융위원회는 주요기업, 그룹,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

## (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①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기업구조조정에 정통하고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

\* 은행연합회장 등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 반대채권자 채권매입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도 확대 개편

### ②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동 위원회가 채권단내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

-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채권단이 요청할 경우 조정의견을 제시

-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동 위원회間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구조조정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확보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개편</li> <li>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마련</li> </ul>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운영실태 점검	상시평가 적정성 점검	은행별 구조조정 실적점검	상시 구조조정 지속추진

## (2)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원활화

### ① 원활한 중기 자금공급 유도

- '09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 은행권과의 MOU 점검, 국책은행 및 신기보를 통한 자금공급 추진

\* 중기대출 월평균 순증(조원): 1('05)→3.8('06)→5.7('07)→ 4.9('08.11)

- '09년 상반기에 공급규모를 늘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을 조정 →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추진

### ② 서울보증보험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위기로 위축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

\* 자동차할부매출채권을 신규보증하여 할부금융사의 위축된 자동차구매 자금 지원 기능을 보완 등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기업자금 조달 확대방안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높은 수준)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높은 수준)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다소 축소)	은행권 중기자금 공급 (다소 축소)	

### (3)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급등('07년말 대비 50~60% 상승)으로 야기된 기업의 외화환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개선

○ (상장회사·비상장 대기업) 국제회계기준 중 우리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 도입

\*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 허용, 기능통화회계제도 조기도입,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 허용 등

○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 허용

\* 외화 자산·부채 환산시 특정일자(예: '08.6.30) 환율 적용 허용

○ (보완대책)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영향 등을 주식기재토록 하고, G-20회의에서 외화환산 논의 등 추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회계제도 개선	외화환산 회계 기준 개정 완료				

## 나. 잠재부실요인 대책 추진

### (1) 단계별 부동산 PF 대책 마련

#### □ PF대출 상황별로 시장원리에 따른 맞춤대책 마련

\* '08.9말 현재 부동산 PF 규모(99.7조원) : 은행(49.8), 저축은행(12.6), 보험(5.3), 기타(14.0), 유동화증권(18.0)

○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저축은행 '08.12.3 완료)하여 PF대출 연착륙 유도

\* 금융권역별 PF 사업장(은행 1,384개, 저축은행 899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3등급으로 분류

#### 〈사례〉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등급별 맞춤대책 내용

(i) 악화우려(下): 부실화된 대출을 KAMCO에서 일괄매입후 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여 건전성 및 유동화 지원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매각 유도를 위해 사후정산 방식과 손실예상분을 채권으로 교부하고 손실반영을 일시 유보하는 방안 검토

(ii) 주의(中)·정상(上): 은행, 건설사 등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 공사 지속을 위해 PFV 등을 통한 유동화 지원

(iii) 완공단계: 미분양아파트 대책 등으로 대응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부동산PF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 현황 점검</li> <li>은행 PF 실태조사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PF 대출 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PF 대출 대책 추진 현황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관리 강화(연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실 PF 사업장 지속 정리</li> </ul>

## 2. 금융시장 안정

### 가. 신용경색 완화 방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출자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P-CBO, PF ABCP, 여전채 등을 매입

○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로 인해 급격히 줄은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충 → 실물부문으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1차로 5조원 규모의 펀드를  
12.17일 출범

○ '09년 1/4분기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여전채 등 차환물량 중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물량을 우선 매입

#### \* 투자대상 채권

-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 (A+~BBB+: 신용보강후 매입)
- PF-ABCP: 신용등급 A2 이상 (A3: 신용보강후 매입)
- 여전채: 신용등급 AA- 이상 (A+~A-: 신용보강후 매입)
- P-CBO: 신보 신용보강을 통한 중기회사채 유동화증권
- 은행채: AA- 이상

□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잔여분 5조원도 추가  
조성 추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채안펀드 운용	채안펀드 1차분 운용 시작	필요시 잔여분 5조원 중 일부 추가조성			



## 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지원 확대

### ①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 운용

- 증시안정펀드 운용(총 5,150억원)을 통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투자심리 안정 도모

- \* 증권선물거래소, 여탁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 참여  
- 08.11월~09.3월까지 매월 1,030억원씩 투자 (주식 80%, 채권 20%)

### ② 공시부담 경감을 통한 주식발행여건 개선

-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

- \* Well-Known Seasoned Issuers

- \*\*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 완화(2개월→1년→2년) 및 최소발행횟수 제한(3회) 폐지

### ③ 장기회사채펀드 편입채권 확대

-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수요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관련 자율성을 확대\*

- \* (현행) 회사채 위주 → (개선)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 확대

### ④ MMF의 채권 및 CP편입 확대

- MMF 자금이 채권·CP 등으로 운용되도록 MMF에 대해 금융기관 예치(CD 포함) 한도(예: 30%)를 한시적으로 설정

## 5 새로운 채권제도 · 상품 도입

-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를 도입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업어음(CP)의 장점(신속한 자금조달)은 살리면서 단점(배서 양도, 분할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

-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하여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 발행을 지원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증시안정 펀드 운용		08.11~09.3월 까지 매월 1,030억원 투자			
주식발행 여건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장기투자펀드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			
MMF의 채권 및 CP편입확대		관련 법령 개정			
단기사채 제도 도입	전자증권법 제정안 마련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회 제출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단기사채제도 시행(2011년)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지원 TF 운영중 (금감원)			은행들의 구조화커버드 본드 발행을 자속적으로 지원	

## 다. 외화 유동성 지원

### ① 신용공여 한도 예외인정 등 탄력적 대응

- 환율상승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

### ② 외채구조 장기화 유도

- 은행들의 외화 유치노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기물 조달을 통한 외채구조를 개선토록 유도

### ③ 무역업체 등에 대한 은행의 원활한 외화 자금공급 확보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외화유동성 지원		상시	상시	상시	상시

### 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

#### (1) 금융회사 자본 확충

##### (가) 1단계: 자구노력 강화

□ (은행권) 현재 은행권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중

\* 지난 12.3~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적정BIS 비율 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액을 제시하고 자본확충을 권고

○ 산은, 기은, 수은 등 정부계 은행은 정부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확충 실시

○ 은행의 자체적인 증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 (예시) 할인발행 촉진을 위한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 등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 150% 미달사에 대하여 예방적 자본 확충 추진 중

○ 지급여력비율을 15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유도

□ (서민금융기관)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여 이익금 내부유보 강화, 대주주 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지속 지도

\*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별 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한 필요 추가 자본금 규모 예측하여 자본확충 및 배당제한 지도

## (나) 2단계: 자본확충방안 실시

- ①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은행권의 자발적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

\*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동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

- 한국은행(약 10조원 내외 대출), 기관 및 일반투자자(약 8조원 투자), 산업은행(약 2조원 투자)으로부터 조달 (Capital Call 방식)

\* 현재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의 지원 방안을 검토중(금통위 의결사항)

- 지원시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

\* ①자구노력, ②중기 등 실물지원, ③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 ② 저축은행 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업계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 및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향후 2년간 중앙회 지준예탁금 운용수익을 적립(1,000억원 규모)하여 업계자체의 '부실저축은행정상화펀드' 조성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선제적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1월말까지 기준비율 달성 - 투자자모집 및 펀드구성	- 지원희망 은행 접수 및 지원개시			

## (2)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제고

### ①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적극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시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 → 금융회사 잠재부실 요인 감소, 유동성 공급

\* 위기사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 운영(금융위원회 승인)

\*\*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최대 7조원 매입·유동화 가능

### ②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 4천억 자본금 증자(2,600 → 6,600억원)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등을 적극 인수

\*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 증대 : 2조원 → 4~5조원 이상

### ③ 서민금융업권별로 취약부문의 리스크관리를 중점 강화

-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우려시 선제적 대응
- (여전사) 할부채 발행·유통 등 유동성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채권안정펀드에서 여전사 발행 채권을 매입
- (신협)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단위신협의 수익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주담대 유동화		3.5조원		7.0조원	
KAMCO 부실채권 매입	0.9조원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서민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상시	상시	상시	상시	

#### 4.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 (국책은행) 설비투자 유도, 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은·기은의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産銀 자금공급 계획 : (08) 27조원 → (09) 32조원

\* 企銀 자금공급 계획 : (08) 27조원 → (09) 36조원

□ (보증기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보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이상 확대 (42조원→48조원)

\* 신보 : (08) 29.5조원 → (09) 33.5조원 / 기보 : (08) 12.5조원 → (09) 14.5조원

○ 또한 신보 P-CBO 보증은 별도로 2조원 확대(1조원→3조원)

□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PF 부실채권 등 적극 인수 추진

\*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 증대(2조원 → 4~5조원 이상)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09.1 실시),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08.12부터 기실시) 등 정책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

\*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 (08) 4.2조원 → (09) 5.0조원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국책은행 자금공급	5.5조원	34조원	51조원	68조원	
보증기관 보증공급	0.5조원	3조원	4.5조원	6조원	
보금자리론 공급		2.5조원		5.0조원	
자산관리공사	일반부실채권 0.9조원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	

## 5. 글로벌 협조체제 및 해외 IR 강화

### 가. 국제금융공조 강화

①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과제(Action Plan)를 차질 없이 추진

-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민·관 합동 G-20 추진단을 구성하고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점검

② 해외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 해외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교류채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신규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 미국 FRB, 영국 FSA, 러시아·카자흐스탄 금융당국 등

- 해외 고위금융당국자간 회담을 확대하여 hot-line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Individual Global Network)' 강화

③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이슬람 금융권과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아태지역회의 주관(의장국)등 적극적 대외 활동 전개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G20 실천과제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 G20 추진단 확립</li> <li>· 과제별 대응 전략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3.31까지 신속과제 이행 완료</li> <li>· 09.4월 정상 회의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li> </ul>	좌동	좌동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li> <li>· 주요인사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MOU 체결</li> <li>· 영국 FSA MOU 개정</li> <li>· 주요인사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연례 교차 고위급 회담</li> <li>· 주요인사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FRB MOU 체결</li> <li>· 주요인사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다자 MOU 체결</li> <li>· IOSCO MMOU 가입</li> </ul>



## 나. 해외 홍보 IR 강화

### ① 한국경제 해외현지 설명회 개최 활성화

-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현지 설명회를 주기적(예: 반기)으로 개최하여,
  - 해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② 해외 Key Opinion Leader에 대한 맞춤형 해외 IR 실시

- 한국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3대 신평사 및 글로벌 IB의 애널리스트, 학계 전문가 등 핵심 Opinion Leader를 대상으로, 전문적·학술적인 one-on-one 미팅(IR) 실시
  - 신평사의 신용평가 일정,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IR 일정을 운영하되 뉴욕·런던·홍콩·싱가폴 등에 집중

\*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가 주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 감안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해외 홍보 IR 강화		해외 IR 개최		해외 IR 개최	해외 IR 개최 (주기적)

## 6.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가. 가계부담 완화 대책

#### ①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대출 등에 대한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
  - \* 은행별로 만기는 최대 30~35년, 거치기간은 최대 5~10년 연장
- 변동금리부 대출자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금리부담을 완화

#### ②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실시

-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대출조건 재약정시  
'담보인정비율 초과금액'을 100% 보증 (최대 1억원)
  - \* 주택금융공사에서 '09.1월부터 실시 ('09년 5,000억원 지원).  
연간 5~10% 주택가격 하락시 향후 3년간 1.5~4.2조원 보증수요 예상

#### ③ 은행권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 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증감 및 금리 추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은행별 점검·지도

#### ④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대상을 채무액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가계의 금리부담을 완화 ('08년 1천만원)

- \*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2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가계부담 완화대책	· 주담대 만기 및 거치 기간 연장	·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 환승론 확대 시행			

## 나.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 ① 일반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서민대출·소액보험 등 복지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08년 270억원 → '09년 400억원 추가 지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소액보험의 수혜대상 확대,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확대 등

-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사업을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

### ②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지속 추진

- 민간부문의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08.12.19 출범)를 통해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

#### ◇ 금융소외자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 (i)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복지사업을 취업·창업자금 지원 중심으로 편성·운용

##### (ii)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예(졸업후 1년까지),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입할 경우 취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 (iii)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창업정보 제공

### ③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 '대부업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조속한 제·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중

- 대부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무부, 행안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④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정비

- 연체기록 등 부정적 정보 이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긍정적 공공정보\*도 활용토록 하여 신용대출 여건 확대

\* 정부조달실적, 사업장 정보, 수출입 실적, 전력 사용량 등

-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상세정보를 집중하는 등 신용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제도 개선

### ⑤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병행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금융소외자 지원	상 시 (소액서민재단 사업계획 확정)	상 시 (대부업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상 시 (신용회복기금 확대 검토)	상 시 (신용정보 인프라 정비)	상 시

##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자금지원 확대, 보증 수수료 우대 등 국책 금융회사의 금융지원을 확대

○ (산업은행)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시설자금(7조원) 및 우대운영자금(3조원, 중소기업) 등 총 10조원 지원

○ (기업은행)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감면을 위해 300억원 규모 특별 펀드를 조성

○ (신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보증 지원(7.5조원) 및 청년창업특례보증(0.3조원) 운영

\* 39세이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0.3조원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0.5% 고정료율을 특례 적용

○ (기보)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4.8조원을 보증 제공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산업은행 자금지원	0.6조원	5.4조원	7.6조원	10조원	
기업은행 특별펀드		300억원 규모 조성			
창업기업 지원(신보)	0.6조원	3.7조원	5.6조원	7.5조원	
기술창업 지원(기보)	1.3조원	2.6조원	3.7조원	4.8조원	

### Ⅲ.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 ◇ KIKO 및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교훈삼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 강화 추진

#### 1.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 가.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한 대처

- ① 현재 실시 중인 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원 기획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
  -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펀드 판매, 조직적 불완전 판매 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제도 병행
- ②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처리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적극 대응토록 지도
- ③ 금감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목표액 설정·하달, 전략 펀드 집중 판매 지시 등 무리한 영업방식을 지양하도록 지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엄정 제재	검사 완료	엄정 제재	지속	지속	지속
신속한 민원 처리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무리한 영업 지양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나. 불완전 판매 방지 노력 강화

□ 새정부 출범 후, 지속 정비하여 온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펀드 투자자 권익 보장

- 기정비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선 영업창구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점검
- 특히, 미스터리쇼핑(mystery-shopping)제도(08년 도입)의 본격 활용을 통한 사전 점검 강화

### < 새정부 출범후, 강화된 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

- ① 펀드 불완전 판매시 제재 강화(3진 아웃제 도입 등)
- ②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세부준칙 마련
- ③ 펀드별 투자위험등급 표시제 도입
- ④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형사처벌 부과근거 신설 등)
- ⑤ 투자자 자필서명 사항 확대 등

□ 불완전 판매 행태를 영업조직 및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 \* 은행의 영업조직 평가(KPI)시 불완전 판매 행태를 반영하고 관련 민원·분쟁이 많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 인사상 불이익 부과

□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및 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 추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펀드투자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장치 본격 시행(2월)	모니터링 강화	지속	
불완전판매 성과평가 반영	은행 KPI에 반영	지속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2. 금융교육 강화

□ 금융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life cycle를 감안, 금융 유관기관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①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자 금융교육 강화

-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 신용회복위원회: 일반인·청소년 금융교육 연간 890회, 28만여명 등

- 교육수준·지역간 금융 판단 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지방 금융교육 활성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저소득층·복지시설 청소년 금융교육 확대(총 23회), 지역 청소년 금융교실 개최(총 60개반), 기타 소외계층 대상(총 35회)

### ② 학교 금융교육 확대

- 청소년의 금융 마인드 향상을 위해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교과과정에 금융내용 확대⇒ 금감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 ③ 금융소비자 교육 활성화

- 금융교육을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의 일부로 간주하고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금융교육 독려⇒ 금융 관련협회, 대형 금융회사 등

#### 〈추진일정〉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외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학교내 금융교육 활성화	금융소비자 교육 활성화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 3. 판매인력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① 펀드 판매인력의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 제고
  - 판매인력 보수 교육 주기 단축(2년 → 1년)하고, 교육내용 정비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 도모
  - \* 고위험·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전문판매인력만 취급하도록 제도 정비
- ②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 보험중개사 등 전문자격자 채용을 의무화해 전문성 확보
  -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 신설
- ③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판매관련 규율체계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정비
  - \* 자통법에 도입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금융상품 판매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을 모든 금융업권·상품에 도입
  -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별 특성 및 전문성을 반영한 판매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격증 제도를 정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펀드판매 전문성 제고	관련제도 개편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금융상품 판매법 제정		개선방안 마련		법안 국회제출	

## IV.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 1. 녹색성장 지원

#### ①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강화

- (녹색산업 전용펀드 개발)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유도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 \* 대출이자 산정 시 green prime rate 적용, 대출관련 수수료 감면 등  
→ 은행연합회 등 협회 중심으로 우대 framework 설계·배포
-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업종별 주가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 개발·활용 추진

#### ② 녹색금융상품 도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

-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의 자발적 활성화와 동시에 정부의 정책지원도 검토
  - \* 포인트 녹색투자 기부카드, 예금, 펀드 수수료 기부, 에너지효율 주택 할인이율 적용 모기지 등
-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한국형 녹색 금융 개념, 금융권 모범 기준 등 금융업역별 자율실천 기반 마련
  - \* 이를 토대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 (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유도·확산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녹색성장 지원	금융업권별 위킹그룹 구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실천계획 채택 유도		녹색금융 상품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지속 추진

## 2. 파생금융상품 감독 및 규제 발전방안

### 가. 파생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 ☐ 적시모니터링·대응을 위해 취합 정보를 세분화하여 파생거래 DB를 구축하고, 시장참여가·전문가와의 협의 정례화

### 나.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

- ☐ 유통·분쟁 단계에서 상품의 성격·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

\* 고객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고위험파생상품 적색경고제, 신규 상품 취급시 금융투자업자·협회의 자율심의 강화 등

- ☐ 분쟁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

### 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

- ☐ 장기성과와 리스크를 감안하도록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평가와 내부통제를 강화
- ☐ 장외파생거래의 장내화를 유도하고, 파생시장의 운영위험 및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경감·관리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 구축
- ☐ 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 기구의 파생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분담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파생시장 감독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합정보체계 개선방안 마련</li> <li>- 성과보수자율 협약(은행)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규 개정</li> <li>- 정례협의체 구성</li> <li>- 자율규제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화 유도</li> <li>- 시장 변동성인지 지표 개발(증권)</li> </ul>	파생정보 DB구축	파생시장 운영위험/신용위험 경감인프라 단계별 도입

### 3.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발행공시 법제선진화 등 공시 및 회계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

\* (현행) 시장투명성 관련 제도가 국제수준에 미달하거나 불분명 →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화

#### ① 발행공시 법제 선진화

○ 국가별 발행공시 제도의 비교 검토, 관계기관 협의 후 우리 자본시장에 가장 적합한 발행공시 법제 수립

\* 선진국과 비교하면 증권·모집·매출 개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방법 등이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함에도 그간 개선노력이 부족

#### ② 회계제도 개선

○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정착 및 국제적 규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마무리

\* 관련법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회계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회계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 요건 도입 등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공시·회계 제도 정비		발행공시법제 개정안 마련 외감법 시행령 개정		자통법상 발행 공시법제 개정 공인회계사법 개정	

#### 4.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방지

① (전업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 또한, 일률적 규제에서 금융회사의 업종, 인원 및 자산규모, 자산구성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제방식으로 전환

② (은행권: KPI제도 개선)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 및 펀드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성과평가제도 개선

- KPI를 리스크관리, 유동성 확보 등 안정적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수익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개편

\* 은행연합회내 「임직원 보수 및 성과평가 개선」 T/F 운영중 ('08.11.17 구성)

##### KPI 개선방향

- ① 방카슈랑스·펀드·신용카드 발급 등 과목별 성과지표를 폐지
- ② 수익성 지표도 단순 절대 손익이 아닌 수익률, NIM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토록 할 계획
- ③ 예대비율 개선을 위해 영업점별 예대비율을 관리
- ④ KPI 개편으로 중기대출, 서민금융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 실적 등을 KPI에 반영하여 보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09 이후
내부통제 개 선		· 개선안 마련 · 업권별 개정안 마련		·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KPI 제도개선	· 개선방안 마련	· 은행별 개선된 KPI 시행			· 시행 후 개선사항 추가 발굴

## 5. G-20 Action Plan의 차질없는 이행·점검

◇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실천 과제(Action Plan)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①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민·관 합동 G-20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

② 실천과제별 쟁점분석 및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

○ 소관 과제\*별 주요 이슈 및 국제적 논의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전략을 확정

\* 5대 원칙(47개 실천과제) 중 4대 원칙(37개 실천과제)이 금융위 소관 :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 금융감독·규제의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금융당국간) 국제협력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③ 국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

○ 회계기준 등 국제표준규범 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과 사례를 심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관련 건설적인 대안 제시

⇒ 단기과제를 3.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과제 지속 추진

### 〈추진일정〉

	1개월	상반기	3/4분기	연내	2010 이후
G20 실천과제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 G20 추진단 확립</li> <li>과제별 대응 전략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3.31까지 신속과제 이행 완료</li> <li>09.4월 정상 회의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li> </ul>	좌동	좌동

2009년도 상반기  
연두업무계획 추진경과

금융위원회

## <상반기 추진실적>

과 제 명	추진실적
<b>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b>	
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토대를 마련</li> <li>- 민간조정 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장 상근화 및 사무국 확대 개편(1월), 관련 협약 제정 등을 추진(2월)</li> <li>*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협약</li> </ul>
② 기업자금 조달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상반기중 국내 18개 은행 원화 중기대출 16.2조원 순증 (422.4조원→438.6조원)</li> <li>○ Fast Track 프로그램으로 '08.10~'09.6월말까지 총 9,803개사 17.7조원 지원</li> <li>- 동 프로그램 운영기한을 '09.12월까지 연장('09.6)</li> </ul>
③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자산 재평가제, 기능통화제 등 국제회계기준 사항 및 비상장중소기업특정일자('08.6.30) 환율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기준서·해석 등을 개정 공표('09.1.14)</li> </ul>
④ 단계별 부동산 PF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PF대출 대책마련('09.3) 및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한 PF 부실채권 매입</li> </ul>
⑤ 취약산업 종합분석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업종(건설·중소조선·해운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을 추진</li> <li>* 총 277개 업체중 46개(C 32, D 14)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정상 추진중</li> <li>○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업종 특성을 감안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09.4월)</li> <li>*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 조성 등</li> </ul>
<b>2. 금융시장 안정</b>	
① 신용경색 완화 방안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08.12.17)</li> <li>*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5조원)의 75.4%(3.77조원) 투자 완료(6.26)</li> </ul>
②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09.3월간 총 5,1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투자 완료</li> </ul>
③ 장기회사채 펀드 편입채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24, 세법 개정하여 "장기회사채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그 투자대상 자산을 금융권 채권(은행채·금융채 등)에 까지 확대</li> </ul>



과 제 명	추진 실적
④ MMF의 채권 및 CP편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F 자산운용 관련, 채무증권 최소편입 한도(MMF재산의 40%이상)를 설정</li> <li>- 「금융투자업규정」 개정('09.7.6)</li> </ul>
⑤ 새로운 채권상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사채법 제정기본안 마련 중</li> <li>○ 국민은행 10억불 규모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09.5.7)</li> </ul>
⑥ 외화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과 MOU체결('08.11.14)을 통해 중장기 차입비율 목표를 설정</li> <li>○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토록 유도</li> <li>○ 수출입 등 무역금융과 연계, 부득이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토록 개선('08.12.8~)</li> </ul>
<b>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b>	
① 금융회사 자구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은 상반기 중 총 12.8조원의 자체 자본을 확충하여 손실흡수능력과 대외신인도 향상</li> <li>○ 선제적 감독기준(지급여력비율 1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검사, 경영진 면담 등)을 대폭 강화</li> </ul>
② 자본확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li> <li>○ 8개 금융기관에 약 4조원의 자금 지원('09.3.31)</li> <li>*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li> <li>○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해 법인세이연혜택(5년)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09.4.29)</li> <li>○ 구조개선적립금 운영규칙 제정('09.7.1)</li> </ul>
③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적격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6월말 현재 26,643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li> </ul>
④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저축은행 PF부실채권 1.75조원 인수정리('08.12~'09.3)</li> <li>- 은행 및 제2금융권 일반 부실채권 총 1.3조원 인수정리('09년 상반기)</li> <li>○ (구조조정기금) 은행 PF부실채권 0.8조원 인수정리('09.6.29)</li> </ul>
⑤ 서민금융업권별 취약부분의 리스크관리를 중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잠재리스크 요인별 Stress-Test 실시</li> <li>○ 여전사 일일 유동성 점검 및 채안펀드에서 여전채 0.43조원 매입</li> </ul>
⑥ 부실(우려) 금융기관 처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 금융기관인 전북저축은행을 최소비용 원칙하에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저축은행을 설립('08.3.19)하여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완료('09.4.1)</li> </ul>

과 제 명	추진 실적
<b>4.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b>	
①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은행) 산은 21.7조원, 기은 26.1조원 등 총 47.8조원 자금 공급('09.6.30)</li> <li>○ (보증기관) 신·기보 상반기중 보증지원 12.2조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총량 신보 38.6조, 기보 16.6조 등 총 55.2조원('09.6.30)</li> </ul> </li> <li>○ 신보는 상반기 중 P-CBO 1.2조원, 시장안정보증 2.0조원, 은행 자본확충펀드 보증 2.6조원 등 5.8조원 추가 공급</li> </ul>
②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금자리론 18,205억원 지원</li> <li>○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 P-CBO 유동화 5,207억원 보증</li> </ul>
<b>5. 글로벌 협조체제 및 해외 IR강화</b>	
① 국제금융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계 고위인사와 면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 주요국가 재무부 및 금융당국과의 면담(5차례)</li> <li>* UBS, JP Morgan, Citigroup 등 국제금융기관 기관장 및 고위인사 면담(20여 차례)</li> <li>* Fitch, S&amp;P, Moody's 등 신용평가사와의 면담(5차례)</li> <li>* 미국 FRB NY, SF, Dallas 등 중앙은행과의 면담(5차례)</li> </ul> </li> <li>○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09.1.13~14)</li> </ul>
② 해외홍보 IR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3.12~13), 워싱턴(3.15), 홍콩(3.25) 설명회 / 애널리스트 텔레컨퍼런스(4회) 포함</li> </ul> </li> <li>○ Key Opinion Leader 대상 맞춤형 1:1 IR(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싱가폴(1.21~23), 런던/취리히(2.3~5), 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3.12~19), 런던(3.12~13), 홍콩(3.24~26), 홍콩(6.24)</li> <li>* 외신기자 텔레컨퍼런스(4회) 포함</li> </ul> </li> </ul>
③ G-20 Action Plan의 차질없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7개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소관 :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 금융감독·규제의 개선, ③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금융당국간) 국제협력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li> </ul> </li> <li>○ 기재부 내에 G-20기획단 설립(0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G-20기획단에 직원 3명(과장 1, 사무관 2) 파견</li> </ul> </li> <li>○ Working Group 1, G-20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09.4월초)</li> <li>○ G20 정상합의에 따라 G20 권고안에 대한 이행과제를 점검할 국제기구로 '금융안정화포럼(FSB)'이 공식 출범하였고 금융위가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여</li> </ul>

과 제 명	추진 실적
<b>6.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b>	
① 가계부담 완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만기조정, 거치기간 연장('09.1~2월중 21.6조원 규모 지원)</li> <li>○ 국내 은행권은 총 35.9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거치기간 연장을 실시하여 가계부담 부실화를 차단</li> <li>○ 신·기보의 중소기업 보증확대(1/4분기, 6조원), 채권안정펀드운용('08.11~'09.3 297조원) 등을 통해 은행권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li> </ul>
②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서민금융채단 사업규모 대폭 확대*('08년: 271→'09년: 4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서울시→전국 15개 지자체로 확대), 신용회복기간 중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등</li> </ul> </li> <li>○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지원 대상 확대*('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및 채무액 1천만원이하 → 채무액 3천만원 이하</li> </ul> </li> <li>○ 환승론 대상 채무 확대 및 금리인하('09.3/6)</li> <li>○ 개인워크아웃 지속 및 사전 채무조정 시행 방안 마련('09.3월, 대상: 3개월이상~1~3개월미만 연체자)</li> <li>○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대부업법' 제·개정 완료('09.2)</li> <li>○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완료('09.3)</li> </ul>
③ 국책 금융회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8조 지원('09.6말)</li> <li>○ 특별펀드 100억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09.2,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전문 무료취업포털사이트 「잡월드」 구축('09.2)</li> </ul> </li> <li>○ 22개 기업 30백만원 지원('09.6말기준)</li> </ul>
④ 신보 및 기보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보증 6.0조원</li> <li>○ 청년창업특례보증 0.1조원 지원('09.6말)</li> <li>○ 기술창업기업보증 3.7조원 기술창업특례보증 0.7조원 지원('09.6말)</li> </ul>
<b>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교육</b>	
① 기존 불완전 판매에 엄정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검사를 완료(1월)</li> <li>○ 검사 결과 위법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사 기관경고, 2개사 경영유의 등</li> </ul> </li> <li>○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 처리</li> <li>○ 금감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리한 영업방식을 지양하도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미스터리쇼핑 점검항목에 반영</li> </ul> </li> </ul>

과 제 명	추진 실적
② 불완전 판매 방지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보호장치의 본격 시행(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 표준투자권유 준칙 마련</li> </ul> </li> <li>○ 미스터리쇼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09.3~4월 / 대상 :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li> <li>- 개선권고사항 등을 개별 금융회사에 통지</li> </ul> </li> </ul>
③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li> </ul>
④ 금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 총229회, 62,228명에 대해 신용관리 교육 실시</li> <li>- (금감원)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총 71회, 9,766명)</li> </ul> </li> </ul>
⑤ 펀드 및 보험 판매 인력의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2년→1년)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반영('09.2.4)</li> <li>○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심의중('08.12~)</li> <li>○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 검토중</li> </ul> </li> </ul>
⑥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전문판매 관련 연구용역 의뢰</li> </ul>
<b>8. 녹색성장 지원</b>	
①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민간 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금융 세부추진 과제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09.5.26)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09.7.6)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시장 활성화, 녹색산업 금융지원,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3개 분야 12개 세부과제 발굴</li> </ul>
<b>9. 파생금융상품 감독 및 규제</b>	
① 파생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근거사항 개정('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월별거래내역 보고 등</li> </ul> </li> <li>○ 파생상품 취합정보 보고서 서식 개정('09.6)</li> <li>○ '09.4.13부터 주식시장 변동성지표(VIX) 산정·공표</li> <li>○ 정보취합/자료분석 관련 전산 개발 진행중(금감원)</li> </ul>
②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개정 필요사항 개정(7개 조항)('09.1)</li> <li>○ 위험회피기준 마련(시행령개정)('09.1)</li> <li>○ 미스터리쇼핑(고객위장검사), 고위험상품 경고제, 파생판매 자격제도 강화 시행('09.2)</li> <li>○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거래소규정 개정</li> <li>*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 및 적용방법 등</li> </ul>

과 제 명	추진 실적
③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연합회 모범기준안 발표('09.1.30)</li> <li>○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완료(3.4)</li> <li>※ 거래단위인하, 만기다양화, 맞춤형상품/조기인수도제도 도입 등</li> <li>○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제도 도입('09.1)</li> </ul>
④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 기관 기능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파생팀 강화(1팀→2팀)(12월)</li> <li>○ 금융투자협회 파생조직 확대 개편('09.2)</li> <li>○ 금융투자협회 연구조직 확대 개편('09.2)</li> </ul>
<b>10. 공시·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b>	
① 발행공시 법제 선진화	○ KWSI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09.6)
② 회계제도 개선	○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 맞도록 외감법 개정('09.2.3)
<b>11.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b>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11.15일 G-20 정상회담 이후, 금융기관의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이 제기</li> <li>○ '09.4.2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강하고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감독·규제체계를 구축에 대해서 합의</li> </ul>
② KPI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개선' 모범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09.1.30)</li> <li>- 동 모범기준안 바탕으로 은행별로 KPI를 개정하여 시행('09.2말 금감원에 제출)</li> </ul>

## 11.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 별도첨부

# **2009년 여신금융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9.**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여신금융협회 현황**

### **I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부적정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라. 규정 부적정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 I 감사 개요

### 〈 목 적 〉

◇ 여신금융협회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1.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7.6~7.17 (2주간) (예비조사 : '09.6.29(월)~7.3(금))
- ☐ 감사대상업무 : 기관운영 전반 (조직, 인사, 예산, 사업 부분을 포괄)
- ☐ 감사대상기간 : 06.7.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 \* 여신금융협회는 재경부 종합감사('99) 이후 감사 미실시
- ☐ 감사반원 : 6명 (감사담당관 포함 5, 금융결제원 직원 1)

## 2. 감사 방향

- ☐ 여신금융협회가 소규모의 장기 미수감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통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
  - 관련 규정의 완비 및 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정부위탁 업무 및 자율규제 기구 역할 수행 실태

##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98.3월 설립)

###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

### □ 회원사 : 39개사 (카드(5), 리스금융(15), 할부금융(16), 신기술금융(3))

- '09.5월 현재 여신금융사는 총 55개사(협회 가입율 70.9%)

### □ 정원 : 40인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및 직원 38명, 회장 : 비상근)

### □ 주요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지도·권고 등\*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조사·연구, 이용자 민원의 처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 □ 재원조달 및 지출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수입(a)	수입 총액		4,706	5,686	6,587
	회비	카드사	2,765	3,507	3,330
		리스사	732	909	1,093
		할부금융사	819	995	1,293
		신기술금융사	168	188	235
	전기잉여금		222	87	636
지출(b)	지출 총액		4,471	5,328	5,665
	인건비		1,843	2,840	2,316
	홍보비		182	473	269
	용역비		277	197	380
	업무추진비		168	246	321
	회의비		224	293	277
	카드정보관리비		507	623	707
	기타(전산비 등)		1,270	656	1,395
차이(c=a-b)			235	358	922

### Ⅲ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 최근 10여년간 장기미수감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의 경영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함
-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탁업무(경영정보공시),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금융위 정책집행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 감사결과 위탁업무 등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요한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경비집행, 카드관련정보 관리·통제에 일부 문제점 발견
- 주요 발견 위규사항인 IT관련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건의 경우 협회는 금융위의 감사실시계획 통보('09.5) 이후 IT회계의 위규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행함
  - \* '07.10월경 現부회장이 IT사업 회계 위규사항 인지
  - '07.12.28 IT사업 수입·지출 중단 결정
  - '09.2.11 '08년도 결산 이사회에 IT사업 현황 보고
  - '09.6.9 " 신용카드시장단 회의 보고
  - '09.6.16 " 이사회 추가 보고 (관련 임직원 징계)
  - '09.6.23 " 총회 보고 ('03년 이후 IT사업 수입·지출·양여금 처분 승인)
- 장기 미수감 비영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위규관행을 시정하여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감사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금융위 감사로 인해 협회의 예산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보완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 마련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 관련 수입·지출을 총회 승인 없이 편성·집행하고 관련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② 예산편성 및 집행부문의 경우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 지급한 후 지출증빙 미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누락, 예산 집행 후 사후전용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③ 근거규정이 없거나 미흡·불명료한 상태에서 고문·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고 계약조건에 없는 경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
- ④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의 경우 사용자 PC공유 폴더 정보노출 및 DB내 중요정보 암호화 미비 등이 발견되었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IT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협회는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을 인지한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하자를 치유했음을 금융위 감사 착수 이후 보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감사하게 됨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IT 관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 실시

#### [III] 감사 결과

##### <현황>

- 협회가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 위탁하였던 전산업무\*를 '03.8.1 협회가 직접 담당하면서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신용카드가맹점공동망운영사업(신용카드사 결제망 공동사용에 대한 중개수행)  
국세청용역사업(신용카드영수증복권 자료처리용역 수행)  
외환전산망운영사업(여신금융회사와 한국은행간 외환전산망 연결작업 대행)

- 협회는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  
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잉여금 2.9억원은 차기 이월)
-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 인지 이후 IT 관련  
사업 수입의 지출 중단 결정('07.12.28)한 뒤, 자체조사 실시
  - 이사회·신용카드사장단 회의 보고를 거쳐 IT 관련사업 수입·  
지출·잉여금에 대하여 총회 승인('09.6.23)을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행함

## <지적사항>

### ① 총회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및 결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예산총계주의)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03.6.13 신용카드사장단회의에서 IT 관련사업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한 이후, 협회 경영진은 '07년말까지  
별도의 총회 승인 없이 IT 관련사업 예산을 운영('03.8~'07년말)  
함에 따라 「정관」 제36조를 위반함

### ② 수입금 집행 시 예산전용절차 등 미준수 및 방만한 운영

-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협회 예산은 회계간 전용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함

- '03.8~'07년말까지 IT 관련사업 예산 수입 22.6억 중 19.7억원을 부회장 전결로 집행하였으며, 그 중 8.5억\*을 일반회계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용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함

**<전용금액의 사용 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고문료	사무실이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총계
4.8억	1.9억	1.0억	0.4억	0.2억	0.2억	8.5억

**③ 금융위에 예·결산서 미보고**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에 의하여 협회는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주무관청인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협회는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미보고 내역>**

연 도	미보고 사항
'04	결산서
'05	예산서, 결산서
'06	예산서, 결산서
'07	예산서, 결산서

**<조치요구사항>**

- 향후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 전용시 이사회 승인 등 전용절차를 준수하시고
-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정관」 제36조 ② :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결산은 매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u>이사회</u>

-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산운영에 대해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음
- 그러나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바,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집행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이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여타 부문에서도 발생 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필요성 존재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예산과목별 편성 및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감사 인원과 시간의 제약상 업무와 무관한 사용개연성이 존재하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소비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감사

### **[Ⅲ] 감사 결과**

**1****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대내·외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 및 기밀비'로서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함
- 업무추진비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인건비와 달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므로 사용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지적사항>**

- 이사회('03.12.11)에서 임원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기 전까지 임원은 주로 업무용 신용카드(기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옴
- 이사회 의결 이후, '04년부터 매월 상근부회장에 200만원, 상무 이사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5년간 1억 8천만원 지급
-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증빙 없이 처리함에 따라 사용용도 검증이 불가능해짐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시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산출근거 명세)를 작성해야 함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의 팀별 세부내역(간담회, 대국회업무 등) 및 산출근거가 없이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만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편성이 세부항목별 수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

###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건별 세부명세를 작성하시고 세부건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9조 【예산의 작성】 ① 해당 팀장은 제8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

- 「예산회계규정」 제13조는 예산집행시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lt;지적사항&gt;

- '06년~'07년 회의비, 홍보비, 여비교통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부족 금액을 3차례에 걸쳐 사후에 전용

전용일	구분	초과 집행내역
2006.07.01	일반회계 회의비	2006.06.30 현재 44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06.30 현재 12백만원 초과집행
2006.11.01	일반회계 구독료	2006.10.31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복리후생비	2006.10.31 현재 3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10.31 현재 8백만원 초과집행
2007.10.25	일반회계 용역비	2007.09.30 현재 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여비교통비	2007.09.30 현재 0.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구독료	2007.09.30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 예산편성은 총회의 승인(정관 제36조)을 거쳐야 하는 반면, 목간 전용은 부회장 전결(위임전결규정)로 가능하므로 사후 전용이 남용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우려가 존재

## &lt;조치요구 사항&gt;

- 분기나 월별 결산을 통해 향후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의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13조 【집행 원칙】 예산집행은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며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정관 제36조 ②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이사회
	나. 관간 전용	02-04-02	회장		이사회
	다. 항간 전용	02-04-03	회장		이사회
	라. 목간 전용	02-04-04	부회장		

- 협회 특성상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 경우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집행임
- 이에 따라 여비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여비지급규정」 제7조는 식비 등 국외출장시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 경비 일부를 보조시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

### <지적사항>

- 現 부회장의 베이징올림픽 초청행사 참가 출장('08.8.7~11)시, 타 기관 (비자인터내셔널 코리아리미티드)이 숙식 등을 포함한 초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외출장의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
- 따라서, 체재비의 30%인 \$750(\$150×5일)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차감 없이 체재비 전액인 \$2,500(\$500×5일)을 지급하여 「여비지급규정」 제7조 위반
- \* 출장일이 동 규정 신설('08.8.1) 이후임에도, 규정 신설일 이전에 행한 출장 품의('08.6.26)에 따라 체재비 삭감 없이 지급

### <조치요구 사항>

- 여비차감지급 규정을 준수하시어 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여비지급규정」 제7조 【차액여비】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실제 보조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규정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규정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
- 협회는 소규모기관이므로 대규모기관에 비해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바,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함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근거규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거규정 존재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검토
- 특히 채용에 있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위(고문, 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인사 관련규정에 근거하는지를 살핌
- ☐ 아울러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 유무 및 위배 여부, 부적정 존재 여부, 필요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

### **[Ⅲ] 감사 결과**

## 1

##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

□ 임명,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의적인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에 따라야 함

- 협회의 채용은 정관, 인사규정 등 근거규정을 따르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용해야 함

## &lt;지적사항&gt;

□ 협회의 「직제규정」 제3조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에는 사무직원(부장, 팀장, 선임조사역, 조사역)과 별정직원(주임, 연구위원, 연구원)이 있음을 규정

- 따라서 고문, 수석전문위원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인사관련 규정에 채용근거가 없음

\* 여타기관(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정관에 고문임명 근거규정 존재, 수석전문위원은 유사사례 없음

□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승인,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 등을 통해 임명

- 협회는 000 前 부회장이 임기 종료 후 퇴임하면서 이사회('07.3) 결의를 거쳐 임기 1년의 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외홍보활동을 위해 임기 1년의 수석전문위원을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07.1.29)를 거쳐 임명한 바 있음



- 임명계약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자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하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연봉 3천만원, 업무활동비 월 2백만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고문, 수석전문위원 현황>

직위	성명	재직기간	임용사유	임명절차	1년간 소요경비
고문	○○○	2007.4.9~ 2008.4.8	경영자문	이사회승인(2007.3.28)	자문료 연6천만원 업무용차량 리스료
수석 전문위원	○○○	2007.2.13~ 2007.3.12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수석 전문위원	○○○	2007.3.13~ 2007.9.30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비계획적인 인사 운영을 초래하고

- 고문, 수석전문위원의 신분(임직원 여부)이 모호하게 되어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초래
- 향후 직위 과다 운영 등 자의적인 인사 운영 가능성 우려

### <조치요구 사항>

- 향후 자의적인 인사 운영 및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고문, 수석전문위원 등 채용 및 인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2

##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정관 예산회계규정, 「신용카드관리요령」(업무추진비), 「복리후생제도규정」(복리후생비) 등 근거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면 근거규정에 준하는 기준 (예:임명계약조항)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 고문임명계약('07.4.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결)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자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음

## &lt;지적사항&gt;

## ①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법인카드 제공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던 바, 임원(기명법인카드), 부서장(기명법인카드), 부서장 미만 직원(공용법인카드), 고문(기명법인카드)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줌
- ☐ 000 前 고문은 부회장 재임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퇴임 후 고문에 임명('07.4)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재직기간(1년) 동안 업무추진비 1263만원 사용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임명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지급근거 없는 행위

## ②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 협회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자녀학비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 지원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지급대상자는 非명시)
- 협회는 「복리후생제도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해 온 바, '07.9 000 前 고문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상무이사 전결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396만원)
- 「복리후생제도규정」은 지급대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규정의 해석을 통해 지급대상자에 고문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복리후생제도규정」의 근거규정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취업규칙 제1조),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직원임
    - 고문이 전직 임원이라는 점, 임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문은 「인사규정」 제8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고문은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이 아닌 바,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
  -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임명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여타 협회(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고문에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이며, 이는 「복리후생제도규정」이 명시적으로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됨

### **<조치요구 사항>**

- 고문 등에 대해 근거규정·임명계약조건 등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복리후생제도규정」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편향된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여타협회의 경우(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심의

□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를 행할 것을 규정함**

### <지적사항>

□ 협회는 現 부회장 부임이후, 고문에 대한 업무카드 제공을 이유로 당시 000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주의’조치('08.12.10)

○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은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 ('08.12.10)에 따라 경영지원팀장을 징계조치

○ 「인사규정」 해석상 징계시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

-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목적, 진행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체했다고 볼 수도 없음**

\* 인사규정 제22조(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취지는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조치요구 사항>

-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징계 실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직제규정」 제3조 【구성원】 협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집행이사 포함)와 직원을 둔다.
- \* 「취업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인사규정」 제8조 【채용기준】 직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1. 사무직원 : 대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2. 별정직원 : 기사, 비서,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석사이상학력소지자)등②전항에 불구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 「인사규정」 제21조 【표창 및 징계의 실시】 ①표창 및 징계는 이사가 상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회장이 이를 행한다.
- \* 「인사규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라**

## **규정 부적정**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대상에는 근거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근거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조직관리, 예산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되, 특히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예산 집행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협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협회 규정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하여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여타 기관에 비해 「여비지급규정」이 현저히 과도한 여비를 규정하는지 여부를 검토

### **[III] 감사 결과**

- ☐ 「여비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여비(통신비, 접대비)로 구성되며, 교통비와 숙박비, 기타여비는 실비로 지급
- ☐ 식비를 별도로 실비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재비의 주된 용도는 식사 소요비용으로 판단됨

- 협회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단체식사 소요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체재비의 주된 용도는 개인식사 소요비용에 한정

- 「여비지급규정」 별표2는 체재비와 준비금을 직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체재비(일별 \$500), 준비금(\$1200)을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사항>

- 체재비와 준비금 용처를 고려시 「여비지급규정」 별표2의 임원에 대한 체재비와 준비금 책정금액은 과다함
  - (체재비) 체재비의 용처가 단체식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개인식사 소요비용임을 감안하면 일별 \$500은 과다
  - (준비금) 여권 및 입국시증 등 출국수속비(여비지급규정 제16조)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금의 용처가 별로 없음
- 임원에 대한 체재비와 준비금이 여타 협회와 비교시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여행경비가 필요이상으로 지급 됨
  - \* '06~'08년간 여행준비금, 체재금 지급액이 부회장(4,910만원), 상무(2,090만원)

### <협회별 체재비, 준비금 현황>

(단위:\$)

	체재비(일별) * 일비, 식비 포함	준비금	계 (5일 출장 기준시)
여신금융협회	500	1200	3700
은행연합회	290	600	2050
손해보험협회 (부회장기준)	130	750	14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10	600	1150



### **<조치요구 사항>**

-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시어 임원의 체재비, 준비금 금액을 여타 협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 · 통제 업무 부적정**

**1**

**중요정보 유출 관련사항 점검**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및 주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DDoS공격 등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정보 관리실태 및 전산 시스템 보호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 존재
-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실태점검 시행 (2008.5)'과 관련하여 협회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에 명시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사용자PC 내에 저장된 중요정보의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요정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내부 사용자PC 점검 및 서버의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PC에 대하여 샘플링(10%)검사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 : CoolCheck Desktop v.181(개인정보검색 프로그램)
  - 검사대상 : 직원 5명(협회 내 직원 10% 선정)
  - 검사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서 다른 사용자PC로의 공유폴더 접근을 통해 패스워드 설정여부 및 파일실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파일 송수신 및 DB저장시 중요정보 데이터의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샘플링(10%) 검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의 대량 데이터는 PC에 존재하지 않았음

\* 협회보유 중요정보의 과거 유출여부 파악은 개인 이메일 검사 등이 필요한 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대량 보유여부 검사로 같음

#### <중요정보 보관 여부 검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주민등록 번호	법인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기타	계
사용자 A	0	0	2	5	2	0	9
사용자 B	0	0	0	11	0	0	11
사용자 C	0	0	5	0	2	0	7
사용자 D	0	0	0	3	0	0	3
사용자 E	0	0	0	3	0	1	4
계	0	0	7	22	4	1	34

## <지적사항>

### ① 사용자PC 개인정보 검색 및 공유폴더 점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협회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 접속된 사용자PC(35대)의 공유폴더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사용자PC에서 공유폴더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파일이 실행되는 등 정보 노출이 있음

## <조치요구 사항>

- 향후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치 않도록 하며, 필요시 정보 공유폴더에 대해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3. 개인용컴퓨터(PC)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사유·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 승인을 받을 것)

## ② DB 저장시 중요정보 암호화 미적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1항 3호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화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신용카드 정보 및 가맹점 정보 등 업무처리시 협회와 참가기관간 정보송수신의 경우 VPN장비를 통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으나,
- DB 저장 데이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

### <조치요구 사항>

- DB 저장시 중요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해킹 방지대책)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내부사용자에 의한 대량의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관리대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 허가되지 않은 외부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신망 보안대책의 점검 필요성이 있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협회의 「전산업무규정 및 관련 전산보안지침」(2008.12월)의 보안대책 사항에 대해 적절성 확인 및 실시여부 점검
- ☐ 무선공유기 및 자동 무선네트워크 설정 기능에 의한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접속하여 점검 실시

## 〔Ⅲ〕 감사 결과

- ① 사용자PC의 USB, 외장형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통제기준이 없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제받지 않고 사용 가능
- ② 외주용역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외주용역보안관리 대책이 미비함

③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선 LAN사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

- 이에 따라 현재 자동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노트북 등 일반 사용자PC에서 별도의 유선LAN 연결 없이도 무선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 <지적사항>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내부 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치요구 사항>

- 내부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 **2008년 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 보고서**

---

**2009.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신용보증기금 현황**

1. 일반현황
2. 신용보증 지원현황

###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

라. 정/현원 운용 부적절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 감사 개요

### < 목 적 >

- ◇ 산하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1. 감사개요

- ☐ 감사 기간 : '08.11.17 ~ 28 (2주간)
- ☐ 감사반 구성(9명) : 감사담당관실(과장외 3명), 의사운영정보팀(1명), 외부기관(4명 : 금감원·예보·캠코·기은 각1명)
- ☐ 감사방법 : 실지 감사

## 2. 감사대상 부서, 기간 및 업무범위 등

- ☐ 대상부서 : 본부 (비서실, 감사실, 경영지원 및 채권관리부서 등)
- ☐ 대상기간 및 업무범위 : '06~'08.10. 기간중 처리 업무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현황
  - 예산편성·집행현황
  - 인력운영의 적정성
  -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

※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통제(감사) 제도 운영 및 구상채권 관리 등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

## Ⅱ 신용보증기금 현황

### 1. 일반현황

#### □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 조직 및 인원 ('08년 11월말 현재)

##### ○ 조 직

- 본 부 : 5 부문·1 본부·1 연구소
- 영업점 : 9 영업본부, 86 영업점

- 인원(현원) : 총 2,172명 (임원 8명, 직원 2,164명)

#### □ 업 무

-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 등이 있으며 그 중 신용보증업무가 주업무

#### <기금관리 계정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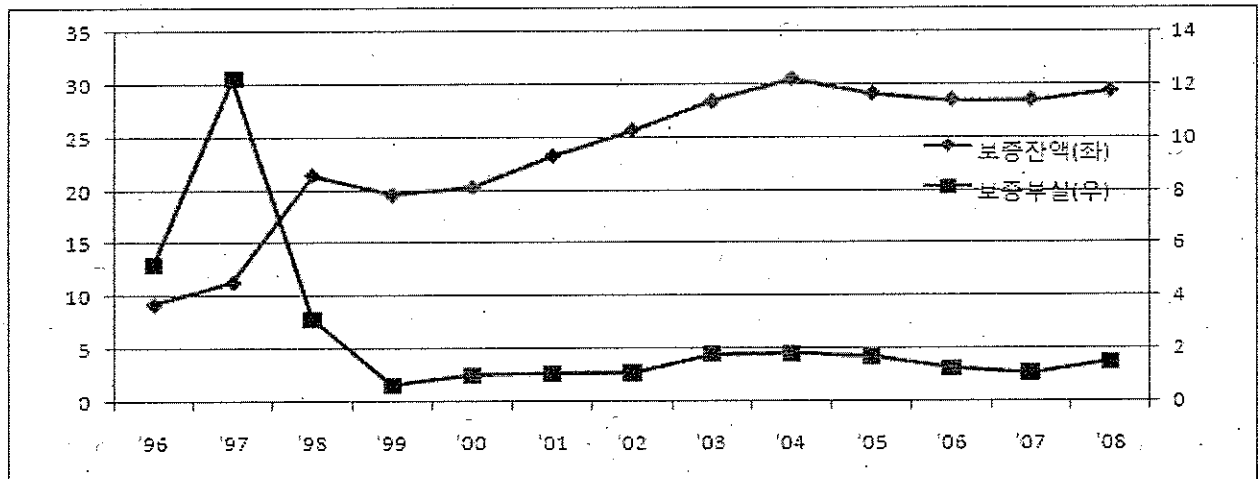
구 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업무감독권	금융위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관리과)
정원(명)	2,141	127	14
보증잔액(억원)	293,583	36,763	9,355

## 2. 신용보증 지원현황

-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보증 지원확대에 따라 보증규모가 급증( 21.5조원('98)→ 30.5조원('04))
- '05년 이후 장기·고액·중복보증의 축소를 통해 보증규모를 축소(30.5조('04)→28.5조('07))
- '08.6월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증공급 규모 확대 노력

<신용보증 잔액 및 부실추이>

(단위 : 조원)



- '08.11월말 현재 보증잔액 29조 3,583억원(전년말대비 +2.9%)중 대출보증이 24.6조원(83.9%)임
- 보증업체수 : 직접보증 184,778개, 위탁보증 5,321개, 재보증 1,126개
- 평균보증비율<sup>1)</sup>은 83.5%, 보증한도<sup>2)</sup>는 95%이며, 평균보증료율은 1.36% 수준 ('08.11월 기준)

1) '보증금잔액 / 대출금잔액' (100% 전액보증 대상(이행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제외)

2) '08.11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85%에서 95%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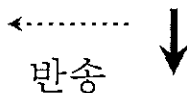
## 〈참고〉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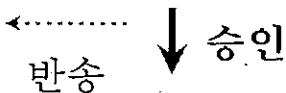
- 보증신청 : 인터넷 or 영업점 방문
- 담당팀 배정 : 영업점장이 배정
- 보증상담 : 고객팀장과 고객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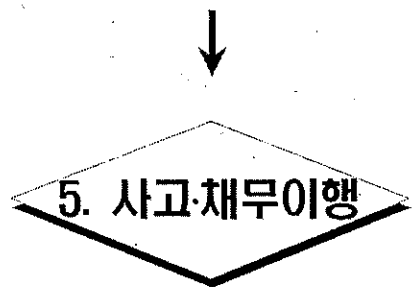
- 자료수집 : 직접수집 & 고객제출
-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 신용조사서 작성 : 간이 or 표준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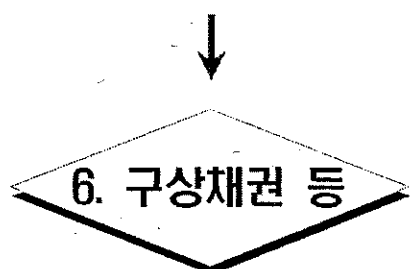
- 신용평가등급 산출 : CCRS or SBSS
- 보증한도 검토 및 심사검토표 작성
- 심사의견 개진 : 담당자 종합의견



- 신용보증 약정 : 채무관계자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 전자 or 서면보증서
- 보증료 수납 : 온라인입금 or 신용카드 가능



- 보증사고 : 당좌부도, 연체 등
- 채무이행심사 : 보증채무 이행 요구  
적정성 심사 등
-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  
회사에 변제



-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리
-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은 상각처리
- 상각 후 10년 경과하면 민간채권 추심  
회사에 회수 위임

### Ⅲ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국회 공기업 특위('08.8월)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 내부통제시스템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코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공공기관 監事 직무평가결과('08.6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용보증기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및 P-CBO 발행 등 신용보증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예산집행부문과 구상채권 관리부문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 監事가 취임초기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② 예산집행부문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잘못된 자금지출,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문제가 있었음
- ③ 인력운영 부문의 경우 현원 대비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잉여인건비를 급여인상에 반영하는 등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며
- ④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의 경우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보증채무 이행 관련 양도 담보물 관리의 부적정 등이 발견되었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금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내용중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감사직무의 독립성, 감사실 운영, 자체감사 실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실적 등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

#### (Ⅲ) 감사 결과

- ☐ 신용보증기금은 監事의 직무 및 감사실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예산·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기준 마련 또는 감사(감사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연수·감사원 특정 감사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자체감사의 경우 '07년 41회, '08년(6월말현재) 24회 실시하였는 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됨
    - 감사원 등 외부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
  - 다만, 監事가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던 것은 감사직무 독립성 등을 훼손한 행위가 있었음



##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신용보증기금의 監事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결과, 연기금 부문(12개 기관)에서 1위를 획득한 바 있음 ('08.6월)
- 따라서 監事의 직무수행 실적이 다른 금융공기업에 전파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監事가 취임초기 신보 노조에게 취임 1년 경과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을 인지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감사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신용보증기금 監事는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임명 ('06.12.1)\*을 받은 후 신보 노동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자, '1년후 중간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조에게 제출하고 출근을 시작하였음

\* 신용보증기금 감사 임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었으나(신보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7.4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공운법 제26조제4항)하도록 변경

- 신보 노조는 監事 취임 1년 후('08.2.18~20) **확약서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監事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 결과, 모집단 2,046명(임원, 임금피크제 및 휴직자 제외)중 1,064명이 응답 (응답률 52.0%)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60%를 상회하고, 긍정적 응답은 10% 미만

- 신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음('08.6월)

- 평가결과 총 67.5점을 획득(100점 만점)하였는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부문에서 우수(B<sup>+</sup>)하였고,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부문이 저조(C<sup>0</sup>)하였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평가 결과**

구분	기관 수	1위 점수	평균
1분류 기관 (검사 및 문화·국민 부문)	9	76.2	67.4
2분류 기관 (산업 및 교육·연구 부문)	10	80.7	68.8
3분류 기관 (신보 등 연기금 부문)	12	67.5	56.6

- 신보 노조는 '08.9.22부터 노조전임자(6명) 주도하에 감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감사실 출입을 봉쇄

- 신보 경영진은 노조에게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監事의 정상적 직무수행에 협조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촉구

\* 일부 노조원이 노조 전임자에 동조하여 감사퇴진을 위한 궤기대회 등에 참여하였으나, 일과 전·후 등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은 발견치 못함

- 신보 외부에서 직무를 수행해 오던 監事는 금융위 감사가 실시 되면서부터 노조의 출근저지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재개

## <지적사항>

- **(확약서 제출 행위)** 監事는 재경부장관에 의하여 신보의 상임감사에 임명되었음에도 임면권자가 아닌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확약한 것은 법에 의한 임면권자의 고유권한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음
- **(확약서 제출의 영향)** 노조에게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노조의 여론이나 반발을 염려해야 하는 등 감사직무의 독립성<sup>\*</sup>을 훼손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을 유발하는 결과 초래
  - \* 監事는 감사기준(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유지 등)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야 함 (공운법 제32조,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제8조)
  - 노조의 정당하지 못한 의견표출을 정당화시켰으며 향후 임원인사시에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신보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여타 신보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
- **(監事の 태도)** 감사반은 監事에게 확약서의 작성 여부·경위·내용 등과 이로 인한 감사의 독립성 훼손 등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의견을 묻는 질문서를 송부했으나,
  - 監事は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확약서 원본이 없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만을 계속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아니 하였음

□ (종합 결론) 監事는 감사직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신보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감사 취임 직후 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에게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 노조의 단체행동을 유발하여 임직원과의 마찰을 초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현 상황으로 보아 監事는 노조뿐만 아니라 신보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 신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으나, 監事 문제가 기관역량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국회(공기업 특위)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었음
- 감사원이 '08.3~4월중 신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가급적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신보가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한 바 있어, 동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의 개선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과목별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는바 특히 소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중 감사
- 또한, 법인카드 사용관행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실시 이후 '08.6~8월(3개월)중 본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전표와 사용 목적·장소·일시·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① 예산과목에 부적합한 용도로 예산 집행

- 신용보증기금 예산운용요령 제4조제2항 별표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집행 용도를 달리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 대외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 경비
- 회 의 비 : 운영위원회, 부점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간담회 등 통상적인 대내외 회의비

- 신용보증기금은 '07.1.1~'08.8.31 기간중 업무추진비는 5,904건 1,18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비는 동 기간중 5,434건 1,13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7년		'08.1~8말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업무추진비	3,791	780	2,113	403	5,904	1,183
회의비	3,551	741	1,883	394	5,434	1,135
계	7,342	1,521	3,996	797	11,338	2,318

#### <지적사항>

- 예산집행은 예산운용요령에 명시된 예산과목별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바, '07.1.1~'08.8.31 기간동안의 업무추진비 총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 영업부·서부기업지원단·강남영업본부 등은 부서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회식 등 회의비 성격의 경비 268건 20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업무추진비 총건수의 4.5%, 총집행액의 1.3%)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현황

(단위:건, 백만원)

본점		영업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	2	240	18	268	20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②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7조제3호는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최근의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분할결제 사례 516건, 103백만원을 적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음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신용보증기금) 제8조에 의하면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 신보는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실명 미서명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음
- 신보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의 분할결제 행위 및 실명 미서명 관행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8.6.1~'08.8.31(3개월) 기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 실시

### <지적사항>

- ① (분할결제) 동일장소에서 동일시간에 집행한 금액\*을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한 사례가 87건(분할결제전 37건, 11백만원) 발견되었음

\* 계정이 다르거나 예산과목이 다른 지출을 동일카드로 사용한 사례는 제외

- 본점(10건)보다는 주로 지점(77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아직도 일선기관에서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



② (실명 미서명)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 2과목에 대하여 본점의 법인카드 전표를 조사한 결과,

- 실명 미서명 사례\*가 전체건수의 1/4을 상회하고 있어 자체감사 실시전(5월)과 비교시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인재개발부, 신보, Kodit 등으로 서명

-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체감사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직원들의 규정준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미서명 현황

(단위: 건, %)

구분	'08.5월	'08.6월	'08.7월	'08.8월
법인카드 결제건수(A)	432	497	446	502
실명 미서명 건수(B)	135	138	115	123
실명 미서명 비중(B/A)	31.3	27.8	25.8	24.5

\*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집계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향후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동일건에 대하여 분할결제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통보)
- 법인카드 전표에는 반드시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토록 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일반지침 제9호 : 구매카드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 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 **◀ 법인카드 사용기준 (신용보증기금)**

- 제7조제3호 : 1건의 거래를 여러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해서는 아니됨
- 제8조제1항 : 법인카드 사용자는 매출전표에 본인의 실명으로 서명해야 함

## **라. 정/현원 운용 부적정**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초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인 신보의 인력운용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신보용보증기금의 정/현원 운용의 적정성 및 정/현원 차로 발생하는 남은 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정/현원 인력운용 현황 및 인건비 예산편성과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정/현원 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의 집행 및 부서별 인력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감사

### **[III] 감사 결과**

#### ☐ 정/현원 개요

- 정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는 인력운용 한도로서 조직신설·통폐합 등의 경우 총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됨
  - 현원은 실제운용하고 있는 정규직 인원
  - 비정규직은 정원외로 운용되는 한시적근로자 등 계약직을 말함
- 정/현원 현황: 정원 2,141명, 현원 2,005명, 差 136명
  - 정/현원 차이를 살펴보면 본부와 영업본부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반면, 연수·파견·휴직과 영업지점은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용

(‘08.10말 기준, 신용보험 및 SOC보증 제외)

		본 부	영업본부	연수·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채권추심팀, 소송지원 팀 포함)
정원(A)	2,141	303	62	71*	1,705
현원(B)	2,005	307	63	56	1,579
差(B-A)	△136	4	1	△15	△126

\* 연수 30명, 파견 9명, 휴직 21명, 별정직 현원 미충원 11명

## □ 인건비 편성 및 집행

○ 정부는 05년 이후 기금의 총인건비를 전년도 총인건비예산의 일정률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

- 기금(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기금과 협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 04년까지(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이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함

## <연도별 정/현원 및 인건비 편성·집행 추이>

	정원	현원	정/현원 차이	인건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1인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순증(%)	잔액
04년	2,147	2,085	△ 62	120,952	120,669	57.9		283
05년	2,131	2,030	△101	130,106	130,026	64.1	10.7	80
06년	2,131	1,999	△132	132,579	131,249	65.7	2.5	1,330
07년	2,141	2,003	△138	138,879	138,787	69.3	5.5	92
08.10월	2,141	2,005	△136	137,941	113,007	56.4	-	24,934

\* 퇴직급여 및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임

\*\* 08년 1인당 평균임금(4급 25호봉) 69.6백만원

## <지적사항>

□ (현원대비 정원의 과다채정 운용 문제) 신보는 05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예산을 정부의 가이드라인(04년도 인건비예산 총액의 3%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 정원 2,131명보다 101명 적은 현원 2,0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예산 전액을 집행\* 하였으며

\* 05년도 1인당 임금증가율이 10.7%에 달하게 됨

- 이후에도 07년까지 현원 27명을 추가로 감축<sup>1)</sup>하면서도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05~ 07년 기간중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총 7%증가하였으나, 1인당 집행된 인건비는 총 18.7%인상<sup>2)</sup>되었음

1) 정규직 퇴직/채용: 31/0명(06년), 31/35(07년)

2)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3.0%(05년), 2.0%(06년), 2.0%(07년) 증가해 온데 비해 1인당 집행인건비는 10.7%(05년), 2.5%(06년), 5.5%(07년) 증가

- 이러한 정/현원 및 인건비 운용의 결과 감사일 현재 인건비 예산은 여유분이 없는 상태이나, 정원은 현원에 비해 과다 채정하여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보는 감사일 이후 경영효율화를 위해 09년부터 12년까지 정원의 13.3%(304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중(08.12월, 경영효율화 방안)

□ (영업지점 인원부족) 또한, 신보의 주요사업이 보증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점의 인원을 정원보다 100명이상 적게 운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

\* 영업지점(정/현원): 05년(1,717/1,547), 06년(1,695/1,533), 07년(1,709/1,540),  
08년(1,705/1,579)

본 부(정/현원) : 05년(329/340), 06년(330/333), 07년(323/326), 08년(303/307)

연수·파견·휴직(정/현원): 05년(34/89), 06년(35/68), 07년(37/66)

08년(71/56) : 08년 육아휴직 및 임금피크제 전직예정인원 등  
증가에 따라 정원 증원

### <조치요구 사항>

- ☐ 신용보증기금이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수감으로 인한 보증지원업무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보증기업의 부실로 인해 기금이 기업을 대신해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구상채권의 관리업무와 관련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대위변제 현황, 구상채권(상각채권 포함) 현황 및 구상채권 회수금의 회계처리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고, 상각채권 관리의 적정성, 대위변제 시기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집중 감사

### **(Ⅲ) 감사 결과**

#### **①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상각채권 관리 개요

- (개념) 상각채권은 기금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적어 상각 처리한 채권

- 상각기준 :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 구상채권(자산)에서 상각되는 채권은 재무제표상 주식으로 표기

- 「직제규정」에서는 용어를 '상각채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상권관리규정」에서는 '특수채권'으로 사용

- (상각채권 현황) 08.10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는 354조원, 보증사고금액은 21.5조원이며, 대위변제한 금액은 21.9조원으로 동 금액만큼 채무자에 대해 구상채권을 소유

- 구상채권을 상각한 상각채권규모는 12.4조원으로 기본재산 (3.7조원)의 약 3.4배에 이르며 매년 1조원 수준씩 증가 추세

(조원, 08.10말 현재)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구상채권 잔액	상각채권 잔액
354	21.5	21.9	6.8	3.0	12.4

\* 06년 1.3조원, 07년 1.4조원, 08년 1.0조원 상각 처리

- 채권규모증가와 더불어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라 채무상환 기피 분위기가 나타나고, 채무관련자도 계속 증가

	2005년 (명)	2006년 (명)	2007년 (명)	08.10월말 (명)
계 (전년대비 증가)	318,024	330,489 (12,465)	337,044 (6,555)	340,224 (3,180)
주채무자	155,712	161,879	165,007	166,346
연대보증인	162,312	168,610	172,037	173,878



- (상각채권 회수체계) 신보는 상각채권 사후관리업무를 영업점과 채권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이중 상각채권 회수업무는 상각 후 1년간은 영업점에서, 그 이후 10년까지는 채권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최근(08.2월)에는 상각처리 후 10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고 있음

1단계		⇒	2단계		⇒	3단계	
시기	상각 후 1년		상각 후 평균 10년			상각 후 11년 이후	
관리	영 업 점		채권관리팀(21개)			위임 (4개 신용정보회사) (고려, 나라, 미래, 솔로몬)	
규모	3조원		7조원			2조원	
회수	148억(06), 293억(07)		858억(06), 914억(07)			19억(08)	

### <지적사항>

- (회수부진) 상각채권 회수는 12조원(07년말 11.5조원)의 채권 중 연간 1천억원 수준을 회수(회수율 1.0%수준)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위임을 통한 회수는 2조원의 채권 중 연 19억원(회수율 0.1%수준) 회수에 그치고 있음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다수의 상각채권을 장기간 보유·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용어혼용) 신보는 '상각채권'과 '특수채권'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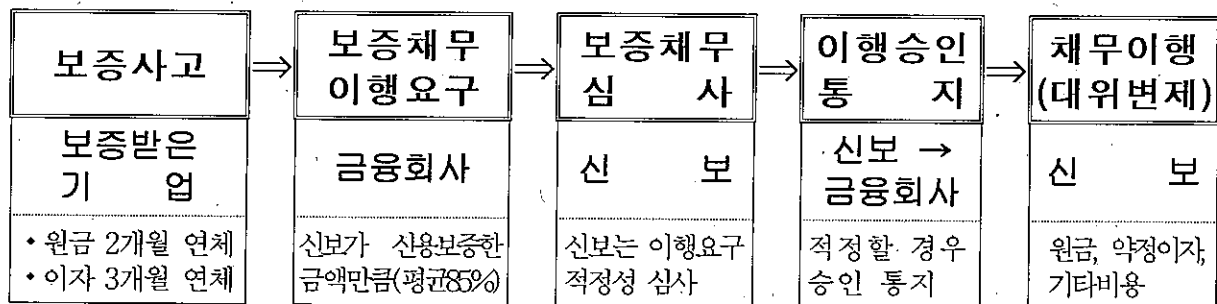
### <조치요구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구상채권을 상각한 채권을 '상각채권'과 '특수채권'으로 혼용하고 있는 바, 용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2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 <보증채무이행 절차>

-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신보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 신보는 자체심사를 거쳐 승인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



### <지적사항>

- 2007.1.1. 이후 신보가 보증채무이행 승인일(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일까지 10일 이상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한 사례(최장 53일)는 33건 3,972백만원임
- 이중 우편물발송을 지연하여 이행승인통지를 지연한 것은 20건 3,510백만원이며, 이로 인해 약정이자 약 10백만원 추가 부담
- \* 신보는 보증사고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494억원) 부담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약정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채무이행을 승인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

#### **<양도담보물 관리 개요>**

- (개념) 양도담보물은 신보가 보증사고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인수한 기계시설 등 동산
- (회계처리)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은 '양도담보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분보증\*일 경우,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

\* 통상 보증금액의 85%는 신보가 보증, 나머지는 취급금융기관이 신용보증

#### **<지적사항>**

- 2006.1.1 이후 신보가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아 매각한 감정가액 30백만원이상 양도담보물은 78건
-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을 이전계약서상의 정산예정일보다 7일 이상 지체하여 정산한 경우가 20건이 있었음
- \* 사례) 시화지점 (주)○○○관련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이전계약서상 정산예정일보다 196일 경과 정산 (운용수익 약 158만원)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 정산이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 사전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 <가수금 회계처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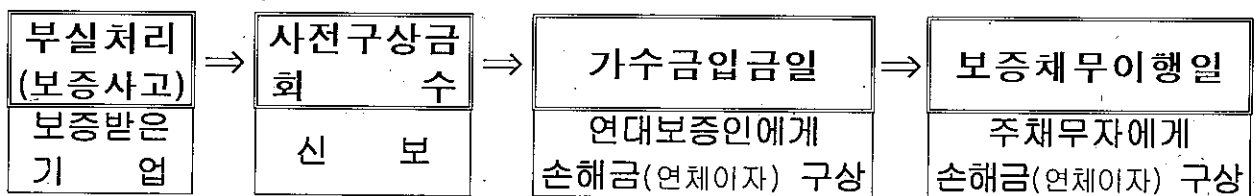
○ 가수금은 출납과양금, 유형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 중 일부 수입금 등 정당계정 처리를 보류하는 일시수입금(신보 회계처리기준 제57조)

○ 신보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 이행과 동시에 구상채권 등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 바,

\* 주채무 이행의무위반, 폐업, 3개월이상 휴업 등의 사유가 생긴 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금액만큼 사전상환의무 부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 연대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였다가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부터 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를 가수금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반면,

-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약정이자를 보증채무이행일자에 회계처리함



##### <지적사항>

○ 2006.1.1 ~ 2008.10.31 채무관계자로부터 입금된 가수금 중 1천만원이상 1개월이상 경과(최장 2년9개월) 정리된 가수금은 185건 85억원(평균 4,600만원/건)이며, 동 가수금이 정리되기까지 신보는 여유자금으로 운용 회계처리 (평균금라: 07년 4.54%, 08년 5.67%)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사전상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동일성과 형평성을 결여

○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면제한 사례

(주)△△△산업개발(대표 ○○○)의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개발(주)로부터 2006.1.25. 965,393,064원을 가수금계정에 입금하고, 2007.3.26. 동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당초 가수금입금일자로 기산일 처리하였음 (원금상환일로 처리했을 경우  $168,613,172\text{원} = 965,393,064\text{원} \times 425\text{일} / 365\text{일} \times 15\%$ )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부과한 사례

(주)☆☆☆상사(대표 □□□)의 구상권 회수와 관련하여 2006.6.8. ◇◇◇으로부터 42,000,000원을 회수하여 당일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였고, 91일 경과한 2006.9.7. 동 가수금으로 보증채무 원금 37,725,025원과 대지급금 4,274,975원을 정리하였으며, 보증채무 원금상환에 충당된 가수금 37,725,025원에 대하여도 원금상환일인 2006.9.7.까지 주채무약정이자 ( $1,410,810\text{원} = 37,725,025\text{원} \times 91\text{일} / 365\text{일} \times 15\%$ )를 부과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2항)

※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 처리하였다가 주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로 주채무 약정이자를 회계처리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한 사전구상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구상채권 등에 충당할 경우, 가수금 입금일로부터 보증채무상환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채무관련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참고〉

##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일련 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1	<p>◇ 監事의 처신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임면권을 침해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초래</li> </ul>
2	<p>◇ 예산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p> <p>①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집행용도가 상이함에도 이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 (통보)</p> <p>②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을 2~3개의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법인카드 사용시 동일건 분할 결제 금지 (통보)</p> <p>③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사용시에는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서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p> <p>⇒ 법인카드 사용시 사용자의 실명을 서명 (통보)</p>
3	<p>◇ 정/현원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대비 현원을 과소(정원의 6.3%)하게 운영하고 그 잉여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인력을 운용</li> </ul> <p>⇒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마련 (권고)</p>

일련 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4	<p>◇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p> <p>① 상각채권 규모는 12조원이나 되는 반면, 연간 회수는 1천억원 수준에 불과(회수율 1% 수준)</p> <p>⇒ 상각채권의 회수증대 방안 강구 (권고)</p> <p>② 동일한 채권을 직제규정은 상각채권으로, 구상권관리규정은 특수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용어상 혼란을 야기</p> <p>⇒ 혼용 사용하는 용어(상각채권과 특수채권)를 정비 (권고)</p>
5	<p>◇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 부적정</p> <p>- 보증채무 이행사유가 발생시 약정기한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불필요하게 연체이자 부담</p> <p>⇒ 보증채무 이행 업무의 적시처리 (통보)</p>
6	<p>◇ 보증채무 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p> <p>-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지체 없이 채권기관과 정산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p> <p>⇒ 양도담보물 정산업무를 적시 처리 (통보)</p>
7	<p>◇ 구상권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p> <p>- 구상권 가수금 처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약정 이자를 가수금 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 하는 반면, 주채무자에게는 보증채무 이행일자로 회계처리 하여 형평성 결여</p> <p>⇒ 사전 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 개선 (권고)</p>



###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통보사항은 즉시조치

나. 권고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12. 2009년 민원 처리 사항

□ 2009년 8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의 민원처리 사항

(2009.1.1 ~ 2009.8.31 접수기준)

	해결*	자체종결**	상담·안내	정책제안	합계
건수	443건	602건	1,953건	9건	3,007건

\* 해결 : 민원요지충족, 절충안 합의, 기관간 조정사안, 법제도상 수용불가, 법제도상 수용근거 부재 및 상충, 수사·소송·사인간의 분쟁, 민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름

\*\* 자체종결 : 민원취하 / 착수전 해결, 민원인 불명, 민원요지 불명, 동일민원 기처리, 선정기원 및 단순의견 개진

## 13.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동 현황

### □ 시행령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3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5	휴먼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2008.02.29
6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0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7.29	2009.02.04
1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11.11	2008.12.22
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17	2008.12.17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4.06	2009.05.07
14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4.21	2009.04.22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7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06	2009.05.08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2	금융자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29	자산유통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5.29	2009.06.01
3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	2009.05.29	2009.06.01
3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09	2009.06.09
3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6.30	2009.07.0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01	2009.07.01
3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28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3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3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7.27	2009.07.31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5	2009.08.07
4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08.06	2009.08.07
4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08.13	2009.08.13

## □ 시행규칙 변동

순번	법령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2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4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6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0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03	2008.03.03
1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8.08.04	2009.02.04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8.04	2009.02.04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3.31	2009.03.31
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24	2009.08.24

## 14. 소송현황

### □ 최근 5년간 소송처리 현황

< 연도별 소송사건 처리 현황<sup>1)</sup> >

(단위 : 건)

구 분	합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합계 (2005~'09.8월)	67	8	2	50	2	5	10.4%
2005년	12	5	-	7	-	-	-
2006년	15	2	2	10	-	1	6.7%
2007년	10	-	-	7	1	2	30.0%
2008년	24	1	-	20	1	2	12.5%
2009.1~8월	6	-	-	6	-	-	-

주) 1) 종결사건 기준(최종확정 판결, 화해결정 수용은 일부 패소로 간주하여 처리)

<참고>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제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6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00000가 제재 과징을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6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0000외 1명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법무법인 세종	1심: 승 2심: 패 3심: 진행 중
2006	손해배상	000이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승 3심: 진행 중
200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00000 외 1명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일부 패 2심: 진행 중
2008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000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의 취소요구	정부법무 공단	1심: 금융위 패 2심: 진행 중

재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소송담당	진행 내역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제재를 받은 00000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승 2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은 00000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0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취소 요구	"	1심: 진행 중
200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8	손해배상(기)	000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몰어 손해배상 요구	금감원 (비용없음)	1심: 진행 중
2009	감리결과 조치 취소	000이 회계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000는 00상호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소 제기	"	1심: 승 2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정직조치요구처분 취소	000는 00증권(주) 00지점 과장으로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한위반으로 정직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20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000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 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15.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자	재취업기관
000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16. 최근 3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 각 위원회 별 위원명단 : 성명/성별/현직책/거주지/주요경력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율), 서면회의 개최횟수, 각 위원회별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
- 각 위원회 별 연도별 소요예산

### A. 공자위

####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공적자금상환기본법 제10조) 위원현황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포함 위원8인(당연직 6인, 민간위촉 2인)

구 분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거주지
당연 (공무원)	이창용	남	금융위 부위원장	07.12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04.7 국민경제지문회의 위원 94.2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
"	추경호	남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09.2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05.10 재정부 금융정책과장	서울시
"	김용환	남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09.2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경기도
당연	이광준	남	한국은행 부총재보	09.4 한국은행 부총재보 07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서울시
"	조인제	남	예금보험공사 이사	08.8 예금보험공사 이사	경기도
"	권경성	남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08.6 자산관리공사 이사	서울시
위촉 (민간인)	안수현 (08.8.6~ 10.8.5)	여	외국어대 법대 교수	04. 충북대 법대교수 07.10외국어대 법대교수 05~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서울시
"	이용모 (09.2.4~ 11.2.3)	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대신증권 재무분석가	서울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4. 한국은행 부총재보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5.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으로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으로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 ☐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위원회명	07	08	09
기금운용심의회	2	4	3

#### ☐ 참석자수(율)

- 매년 약 2~3회 정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참석자수 통계는 없음

#### ☐ 서면회의 개최횟수, 자료제출건수, 존폐여부

위원회명	서면회의횟수	자료제출건수	존폐여부
기금운용심의회	9	9	존치

#### ☐ 연도별 소요예산

- 별도 예산 없음

\*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2명) 안전검토수당(15만원/1회 지급)에 대한 예산이 기금운영비에 60만원/년 씩 편성됨

## B. 공정시장과

### 1. 최근 3년간 기관내 위원회 현황

####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 ☐ 위원명단

- 당연직 위원(4인) : 증선위 상임위원(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감독원 조사담당부원장보
- 위촉직 위원(3인) : 금융관련법령 또는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3인
- 위원의 실명 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 및 읍, 서면회의 횟수,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

연도	2007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11회	13회(서면 포함)	8회
참석자 수(참석율)	6.7명(96%)	6명(86%)	5.6명(80%)
서면회의 횟수	0	1	0
서면회의 안건	0	1	0

☐ 소요예산

- 소요예산은 2007년 5,270,000원, 2008년 5,910,000원, 2009년 8월 현재 3,57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

☐ 위원명단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성명	성별	소속/직위	주요경력
김주현	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前 금융정책국장
홍영만	男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前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주영섭	男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前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김호중	男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前 감사원 자문위원
윤경식	男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前 공정위 경제정책자문위원
이병우	男	대한생명보험 상무	現 기준원 자문위원회 위원
최외홍	男	삼성벤처투자 사장	前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조현연	女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現 기재부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
백복현	男	서울대학교 교수	現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정도진	男	중앙대학교 교수	現 한국회계학회 이사
안영균	男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前 회계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 및 읍, 서면회의 횟수,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일) 이후 실적 기준)

연도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4회	2회
참석자 수(참석률)	8.7명(79%)	8명(73%)
서면회의 횟수	0	0
서면회의 안건	0	0

□ 소요예산

- 소요예산은 2008년 3,400,000원, 2009년 9월 현재 1,87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감리위원회 >

□ 위원명단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 09.9.30 현재 1명 궐석 중

성명	성별	소속/직위	주요경력
김주현	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홍영만	男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김호중	男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감사원 자문위원
원정연	男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장	증권감독원 전문심의위원
박재환	男	중앙대 상경대 교수	한공회 윤리기준위원회 윤리위원
오승돈	男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위 심판관리 2 담당관
전영순	女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박순철	男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궐석			

- ☐ 회의개최 횟수, 참석자수 및 율, 서면회의 횟수,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현재 존폐여부(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일) 이후 실적 기준)

연도	2008	2009.8
회의개최 횟수	7회	6회
참석자 수(참석율)	7.3명(81%)	8명(89%)
서면회의 횟수	0	0
서면회의 안건	0	0

- ☐ 소요예산

- 소요예산은 2008년 3,740,000원, 2009년 9월 현재 4,08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C. 국제협력팀

□ 명 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능)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심의
- (위원) 민간위원 10인, 당연직위원 15인(명단 별첨)
- (개최실적)

연번	개최일	회의명	구분	참석율
1	20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80%
2	2008. 7. 30	제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3	2008. 12. 3	제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84%
4	2009. 1. 21	제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100%
5	2009. 5. 14	제5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 (위원회 총예산) 2009년도 34,650천원

[첨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현황, '09.8.31 >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민간 위원 (10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동원금융지주 사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한국지점 대표	동서증권 영업총괄본부장
	윤영각	삼정KPMG그룹 대표	삼정컨설팅 대표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화재 대표이사
	전성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감위 비상임위원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R.클렘코스키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학장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한미은행장
당연직 (정부 6인)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출입은행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당연직 (유관 기관 9인)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유성	산업은행총재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수출입은행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은행 감사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정환	한국거래소이사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장	한화손해보험 부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D.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명 칭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위 심사를 받아야 함
- (기능)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 대상, 존속기한 등에 대한 부처 심사의견 결정
- (위원) 민간위원 7인, 내부위원 2인(사무처장, 기획조정관)
  - \* 위원장 : 민관공동위원장(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 사무처장)

###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성명	현직책	주요경력	거주지
외부 (7인)	박재하(남)	금융연구원 부원장	· 재경부장관 자문관	서울시
	홍우선(남)	KIS 채권평가 사장	· 한신평 평가팀장	서울시
	이태열(남)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김성용(남)	성대 법대 교수	· 법무법인 우현·지산 대표변호사	서울시
	김현숙(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KDI 연구원	서울시
	이갑재(남)	삼일회계법인 전문	·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회 자문위원	서울시
	전병준(남)	매일경제 금융부장	· 매경 뉴욕특파원 · 매경 정치부장	서울시
내부 (2인)	권혁세(남)	금융위 사무처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
	조인강(남)	금융위 기획조정관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	서울시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실적

-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자체규제심사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차례('08년 11차례\*, '09년 10차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 대면심의 3회, 서면심의 8회
  - \*\*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8회

□ 2009년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예산

- 총 5,100천원(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2,100천원, 안전사례검토금 3,000천원)

## E. 자본시장과

### ①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성별	현직	거주지	주요경력
조재호	남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	1995~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8~현재 SK텔레콤 사외이사 2007~현재 경희학원 재단이사 1988~1994 뉴욕시립 대학교 바루크대학 교수 1977~1980 한국개발금융 (장기신용은행 전신) 심사부
서동우	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	2007~현재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 2005~2007 연기금 투자폴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06~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회 위원
서지희	여	삼정회계법인 파트너(상무)	서울	2001~현재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재 상무이사) 2007~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심리위원회 위원 2006~현재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2004~2005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04~2006 금융감독위원회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정태명	남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서울	1995~현재 성균관대 교수 2008~현재 부의장, OECD 정보보호분과 2007~현재 한국CPO 협의회 의장 2001~현재 기술검토인증위원회(국가정보원) 자문위원
신성환	남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서울	1995~현재 홍익대 교수 2008~현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 한국선물학회 이사 1993~1995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재인	남	단국대 경영정보학 교수	서울	1992~현재 단국대 교수 2005~현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2005~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자문위원 2002~현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김명직	남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서울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2002~현재 한국선물학회 편집위원장

## ② 시장효율화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존폐여부

### ☐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개최 횟수	회차	참석 인원	참석율	서면회의 횟수	서면회의 자료제출 건수
2009년	1회	1차	7명	100%(7/7)	-	-
2008년	6회	1차(서면)	-	-	1회	1건
		2차	7명	78%(7/9)		-
		3차	7명	78%(7/9)		-
		4차	9명	100%(9/9)		-
		5차	9명	100%(9/9)		-
		6차	8명	89%(8/9)		-
2007년	4회	1차	8명	89%(8/9)	-	-
		2차	8명	89%(8/9)		-
		3차	8명	89%(8/9)		-
		4차	8명	89%(8/9)		-
2006년	4회	1차	6명	67%(6/9)	2회	-
		2차(서면)	-	-		1건
		3차	7명	78%(7/9)		-
		4차(서면)	-	-		2건

### ☐ 존폐 여부

- 관련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설치)되고 있음

\* 제414조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위원회별 소요 예산

☐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F. 중소기업금융과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

### 《 대부업정책협의회 위원 현황 》

성명(나이)	현 직	주 요 학 력	주 요 경 력
위원장	1명		
진동수(60)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 경제학과	○'08 한국수출입은행장 ○'06 재정경제부 제2차관
당연직	4명		
이용걸(52)	기획재정부 차관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同행정대학원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과	○'08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07.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황희철(52)	법무부 차관	○경동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미시간대 법학과 수료	○'09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08 광주지검 검사장
강병규(55)	행정안전부 차관	○경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 정책학과	○'0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0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장
손인옥(5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독일 콘스탄츠대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07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06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대부업 정책협의회의 개최현황 및 출석현황

《 대부업정책협의회 참석 현황 》

\* 제1차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06.12.27)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참석

\*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07.6.5)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조실 기획차장 참석

	회의일자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공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제3차	'07.11.5	○	부위원장	○	제2차관	부위원장	x
제4차	'08.1.29	○	부위원장	차관	균형발전 지원본부장	사무처장	x

	회의일자	금융위원장	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제5차	'08.6.3	부위원장	담당과장	x	담당과장	담당과장
제6차	'08.9.9	부위원장	경제정책국장	x	지역발전정책 국장	x
제7차	'08.12.15	부위원장	차관보	x	지역경제발전 과장	x
제8차	'09.3.30	부위원장	자금시장과장	x	x	약관제도과장
제9차	'09.4.24	○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지역경제과장	사무처장

## 17. 휴면예금관리재단 현황

### ① 설립 및 목적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 8574호)에 의거 '08.3.27일 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08.4.22 설립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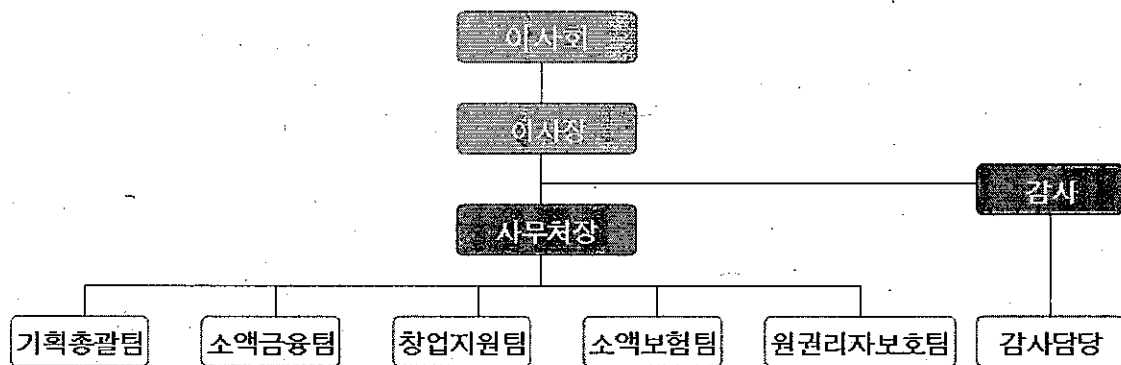
\*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별칭(정관)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

### ② 조직 구조

-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로 구성
  -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팀으로 구성

<조직도>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직	일반직			
			1급	2급	3급	4~5급
정원	25	1	2	3	4	15

※ 현원 : 17명

### ③ 임원(13명)

- 이사회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비상근·무보수)
- 이사장(1)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이사(11) :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  
위원장,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 금융위  
추천 1인, 복지부 추천 2인, 노동부 추천 1인
- 감사(1) : 금융위원회 임명

### ④ 주요 사업

- 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 지급
- ②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사업
  -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참고) 주요사업 실적

□ 2008년도 사업

2009년 8월말 기준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내 출 현 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25억원	144명	24.1억원	
	신나는조합	6억원	6억원	공동체 2개 개인 26명	6억원	
	함께일하는재단	20억원	20억원	11개 기업	15.6억원	
	신용회복위원회	120억원	120억원	4,093명	12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60억원	2,594명	60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서울시 14개 자치구 24개 전통시장)	10억원	10억원	408명	10억원	
소액 보험 사업	소계	241억원	241억원	공동체 2개 개인 7,265명 사회적기업 11개	235.7억원	
	13개 보험사	30억원	30억원	총 수혜자 3,323명(빈곤아동 2,005명, 부양자 1,318명 포함)		



□ 2009년도 사업


2009년 8월말 기준

구분	복지사업자	지원금		대출현황		비고
		배정	교부	인원	금액	
소액 금융 사업	해피월드복지재단	5억원	5억원	26명	4.6억원	
	소상공인진흥원	40억원	20억원	78명	14.7억원	
	한국범무보호 복지공단	10억원	5억원	14명	4.1억원	
	신용회복위원회	90억원	90억원	2,894명	89.9억원	
	열매나눔재단	5억원	5억원	6개 기업	5억원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10억원	5억원	1개 기업	1억원	
	민생포럼	10억원	5억원	2개 기업	0.7억원	
	전통시장소액대출	90억원	19.5억원	-	-	
	소계	260억원	154.5억원	개인 3,012명 사회적기업 9개	120억원	
소액 보험 사업	보험사	40억원	-	16개 광역시도와 협약 체결 완료 9월말까지 수혜자와 보험계약 체결 예정		

## 18. 민간배드뱅크 설립 현황

- 은행연합회는 '09.3월부터 외부전문기관, 주요 은행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 지난 8.20일 민간배드뱅크 참여 6개 은행(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첨부 : 민간배드뱅크 관련 '09.8.20일자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b>전국은행연합회</b>	<b>報道資料</b>		<b>은행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단체</b>
	<b>보도일시</b>	<b>배포시 부터</b>	
<b>작성일</b>	2009년 8월 20일	<b>작성부서</b>	여신제도부
<b>담당자</b>	마상천 부장(3705-5704)	<b>작성자</b>	이인균 부부장(3705-5223)

## 제 목 :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09. 8. 20일(목)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양해각서 체결 경위]

- 지난 2. 15일 「금융당국 및 주요은행 은행장 합동 워크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기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외부전문기관, 주요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설립방안을 마련
- 7. 30일 금융당국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배드뱅크 설립계획 보고

### － 민간 배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 정리 노력 확대

- 최근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1.5조원을 투자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9월 설립 목표)

□ 배드뱅크 설립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은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주요사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 관리 및 처분 업무
- 법적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존속기간 : 5년(2014년까지)
- 총 투자약정액 : 1조 5천억원(Capital Call 방식에 의해 투자)
  - 출자금 1조원, 대출금 5천억원
  - 지분율
    - 신한, 하나, 기업, 국민 : 각각 17.5%
    - 농협, 우리 : 각각 15.0%
  - 배드뱅크 설립 후 외부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출자은행 지분의 일부를 양도
- 부실채권매입 예상규모 : 약 5조원
- 지배구조
  - 주주총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장)
  - 이사회
    - 대표이사(의장),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 감사(상근)
  - 공정가치심의위원회
    - 구성 :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
    - 기능
      - 부실채권평가기관(회계법인 등) 선정 기준 차문
      - 부실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부실채권 매입관련 제도 및 실무 개선사항 자문
- 설립예정일 : 본계약 체결, 관계기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9.30 일 설립 목표

## □ 기대효과

- 민간 자원에 의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가능
-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실물경제지원 여력 확충
- 공적자금으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상호보완기능 수행
-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붙임 : 민간 배드뱅크 설립관련 Q&A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연소식’과 ‘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민간 배드뱅크 설립관련 Q&A**

### **1. 배드뱅크에서 처리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배드뱅크의 부실채권 매입구조와 현 부실채권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배드뱅크가 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투자금액(1.5조원)의 3배 이상인 약 5조원 정도로 예상됨
- 배드뱅크 설립 후 1~2년 후부터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revolving)가 가능하고, 자체 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를 높일 경우 추가적인 부실채권 정리도 가능할 전망

### **2. 배드뱅크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True Sale이 가능한 구조인가?**

-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한 True Sale 여부는 매각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매도 후 매도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배드뱅크는 매각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에 관한 권리와 위험 일체를 양수받아 자체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

3. 은행이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일시 Parking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매각 은행과는 별개의 법적 실체임
- 회계적으로도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 권리와 위험 일체가 이전되는 True Sale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부실채권의 Parking 문제는 발생할 수 없음

4. 은행이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각할 의도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고가에 매입할 경우 배드뱅크의 자산가치가 축소되어 그만큼 출자은행의 지분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출자은행의 입장에서 고가로 매각할 유인이 없음
- 배드뱅크는 독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출자구조 상 특정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배드뱅크는 모럴해저드 방지 및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임
  - 사외이사(2명) 및 상근감사제 채택
  - 부실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아울러, 배드뱅크 설립 후 외부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배드뱅크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계획임. 끝.

## 19. 손보사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책정 현황

- 10.1일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손보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 10.1일 이후에는 모든 손보사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입원의료비의 10% 자기부담금을 책정하여 운영할 계획

###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

	10.1일 이전	10.1일 이후
입 원	자기부담 없음 (항문질환, 치과 등은 제외)	○ 보장대상 의료비의 10% 자기부담 (단, 200만원 상한)
외 래 (방문회당)	5천 원 ~ 1만원 자기부담 (보험사 자율)	○ 의원 : 1만원, 병원 : 1.5만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자기부담
약제비 (방문회당)		○ 8천 원 자기부담



## 20.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장

- 현물과 선물에 동시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거래세 부과시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또한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등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21. 기업구조조정 현황

### < 추진 배경 >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
  - 특히, 건설 등 일부업종의 부실 심화와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
- 이에,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구성('08.11월)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중
  - 건설·해운 등 부실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대기업그룹·개별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
  -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 독려
  - 이와 함께,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

## 〈 기업구조조정 세부 추진현황 〉

### 1. 업종별 구조조정

-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77개사중 46개사(C 32, D 14)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건설(평가대상 162개중 29개), 조선(24개중 7개), 해운(91개중 10개)

- 채권단과 워크아웃 업체는 MOU체결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채무재조정 및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중
  - 이에 따라, 일부(6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완료
  - 한편, D등급 업체(14개)는 경매 등 채권회수(7개), 기업회생절차(3개), 파산신청·자체매각 등 기타 절차(4개사) 진행중

### 2. 대기업그룹 구조조정

- 유동성 우려 등이 제기된 9개 대기업그룹과 채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6.1일)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약정 체결 그룹을 중심으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적극 이행중
- 주채권은행을 통해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

### 3. 개별 대기업(여신 500억원이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은 대기업('09년 1,422개)을 대상으로 정기(매년 4~6월중)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년에는 조속히 평가를 완료(6.10일)하고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 추이(개)

: '06년 3(C 3) → '07년 7(C 6, D 1) → '08년 0 → '09년 33(C 22, D 11)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 협의,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위한 구조조정 절차를 정상 추진중

\* 22개 워크아웃 대상 업체중 3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8개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실사 등을 진행중

### 4. 중소기업(여신 500억원미만) 구조조정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속하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 기업의 여신 규모 등에 따라 11월말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순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

\* 1차 :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7.15일 평가완료)

2차 : 30억원이상(9월말), 3차 : 10억원이상 등(11월말)

□ 1차 평가결과, 861개사중 113개사(C 77, D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

□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여신 30억원이상 외감업체(15,618개)중 1,46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중

## 22. 구조조정기금 현황

### A. 공자위

- ☐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09.5.13)
- ☐ 40조원 한도(09-10)내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수요에 따라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09.8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6,604억원
  - 현재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7척의 선박을 매입하는데 1,91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 \* 매입한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선박운용회사에 70억원 출자
  - 은행권 PF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1차로 8,164억원을 인수하는데 4,622억원 투입

#### < 기금 집행계획 및 실적 ('09.8월말 현재) >

구 분	집행계획	집행실적
금융구조조정지원	150,000억원	4,622억원
기업구조조정지원	50,000억원	1,982억원
계	200,000억원	6,604억원

## B. 금융정책과

### ☐ 조성 및 집행실적 없음

- 금융안정기금 조성은 향후 자본확충펀드 소진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

### 23.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현황(3년간)

- ☐ 최근 3년간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 조 문 환 의 원



##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 별도 첨부

- 2006년 국감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2007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 200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경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 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 (10) 수도권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 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 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 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협의 진행중</p> <p style="margin-left: 20px;">*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amp; Debt suspension)</p> <p style="margin-left: 20px;">○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종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 · 재정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p> <p><input type="checkbox"/>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p> <p style="margin-left: 20px;">○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정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할 예정</p>
<p>(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 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p> <p style="margin-left: 20px;">○ 국제화 · 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p> <p style="margin-left: 20px;">○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 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li> </ul> </li> <li>○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li> <li>-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li> <li>-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li> </ul> </li> </ul>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 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06.12.15)</p> <p>&lt;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li> <li>- 감포공항(신한)</li> <li>- 김해공항(신한, 부산)</li> <li>- 대구공항(대구)</li> <li>- 제주공항(제주)</li> </ul> </li> <li>○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li> <li>-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li> </ul> </li> </ul>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li> </ul> </li> <li>○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li> <li>※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li> <li>○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li> </ul>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 권한 보유</li> </ul>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신협·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 *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 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li> <li>○ 증권·종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li> <li>□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 (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 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li> <li>○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 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li> <li>□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li> </ul>
<p>(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 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li> <li>○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li> <li>○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p> <p>○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p> <p>&lt; T/F 진행 상황 &gt;</p> <p>○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p> <p>*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p> <p>○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p> <p>○ 주요 논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li> <li>-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li> </ul>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p> <p>○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p>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li>□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공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li> </ul>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li> </ul> </li> <li>&lt; 추가 통보 인원 &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li> <li>-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li> </ul> </li> <li>※-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li> <li>□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li> </ul>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 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뱅크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li> <li>→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li> </ul> </li> <li>○ 새누리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li> <li>→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li> </ul> </li> </ul> <p>□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li> <li>-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li> <li>-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li> <li>-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li> <li>-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li> <li>-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lt;직무정지 등&gt;를 받은 자)</li> <li>-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li> </ul> </li> <li>*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li> </ul>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li> </ul> </li> <li>○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분을 제외하고 있음</li> <li>□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만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ul> </li> </ul>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 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li> <li>-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li> </ul>
<p>(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li> <li>□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li> </ul>
<p>(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li> <li>*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li> <li>○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li> <li>○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 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 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 (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주요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li> </ul>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li> </ul> <p>□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lt;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li> <li>*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li> </ul> </li> <li>○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li> </ul> </li> </ul>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li> <li><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li> </ul>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li> <li><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li> <li>○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li> <li>○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li> <li>□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li> </ul>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li> <li>○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칠 예정이며,</li> <li>○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li> </ul>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li> <li>*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li> <li>○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서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IS 등)에 제공</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p> <p>-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p> <p>⇒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월)</p> <p>※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p> <p>-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 '06.12월</p> <p>-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07.8월</p> <p>□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p> <p>○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p>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p> <p>○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p> <p>※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 (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p> <p>□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p> <p>※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p> <p>□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 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p>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 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 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 할 것</p>	<p>□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p> <p>○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p> <p>□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p>○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 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 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li> </ul> <p>□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 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 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li> </ul>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p>□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p> <p>□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li> </ul> <p style="margin-left: 40px;">*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률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p> <p>□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07.1.31) 도입을 계기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li> <li>○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li> </ul> </li> <li>□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L,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li> <li>○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li> </ul> </li> </ul>
<p>(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li> <li>○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li> </ul> </li> <li>□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탁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한편, 신험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승인)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험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험측의 경영 개선계획이행을 적극 유도하고</li> <li>○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험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li> </ul>
<p>(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li> </ul> <p>□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li> </ul> <p>※ 연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li> <li>-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li> </ul>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li> </ul> <p>□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감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 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li> <li>○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li> </ul> </li> </ul>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li> <li>□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li> <li>○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li> <li>○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p> <p>□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p>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06.5월)</p> <p>○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p> <p><b>&lt;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gt;</b></p> <p>□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p> <p>○ 가격덤펍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하는 등의 감독강화</p> <p>○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p> <p>□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p> <p>□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p> <p>&lt; 향후 추진계획 &gt;</p> <p><input type="checkbox"/>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p>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 “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p>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li> </ul>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li> <li>○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li> </ul>
<p>(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p>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li> <li>○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첩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li> </ul> <p>□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p>□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li> </ul> <p>□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li> <li>○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li> <li>○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li> </ul> <p>□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p>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처리유형</th><th>2004년</th><th>2005년</th><th>2006년</th></tr> </thead> <tbody> <tr> <td>기소<sup>1)</sup></td><td>85</td><td>76</td><td>30</td></tr> <tr> <td>불기소<sup>2)</sup></td><td>18</td><td>17</td><td>3</td></tr> <tr> <td>수사중<sup>3)</sup></td><td>63</td><td>93</td><td>99</td></tr> <tr> <td>총계</td><td>166</td><td>186</td><td>132</td></tr> </tbody> </table> <p>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p>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sup>1)</sup>	85	76	30																		
불기소 <sup>2)</sup>	18	17	3																		
수사중 <sup>3)</sup>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p> <p>※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권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p>
<p>(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p>	<p>□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p> <p>*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p>
<p>(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p>○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li> <li>○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 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li> <li>□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 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li> </ul>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li> <li>○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li> <li>○ 공시·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li> </ul> </li> </ul>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p>□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p>○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p>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 계류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b></p> <p>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p> <p>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p> <p>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p> </div>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p>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p>○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p>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p>(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 결과와 재정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 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p> <p>○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 - '07.1월중 광고 예정</p> <p>○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07.2월초 개최 예정</p>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p>○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에 건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토록 주기적 교육 실시</li> <li>○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li> </ul> <p>□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 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li> </ul> <p>□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p> <p>→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p>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li> </ul> <p>□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협의회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범무법인 선정(10.26)</li> <li>○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회 구성(12.15)</li> <li>□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li> </ul> </li> <li>□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li> </ul>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 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li> <li>○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li> <li>○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 과제를 선정(06)</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ata-bbox="730 831 1437 11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07년 경영목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li> <li>•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li> <li>•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li> <li>• 고객만족경영의 실천</li> <li>•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li> </ul> </div>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8.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가조작 혐의 포착 후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홈쇼핑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할 것
- (3)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 (4)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5)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정책 수립에 있어 사금융 피해에 보다 취약한 여성을 배려한 홍보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 (6) 연대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 카드사가 연회비나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발급 건수만 늘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중 해외검용카드가 지나치게 많이 발급되고 로열티 지급액이 막대하여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9) 저축은행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검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1)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국내 특성상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12)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00조원에 이르고 최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33%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규정인 30%를 초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
- (13)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유착관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윤리 규정을 강화할 것
- (14)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의 대부업 피해 관련 상담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데 상담인력 확충 등 대부업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5)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감원이 자문의 선정내역을 보고 받고 법원과 협력해서 신체 감정의를 자문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16) 주민등록초본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의 구매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호환 불가능한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전체 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8) 보험사기의 적발통계로 볼 때,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분별력의 저하가 보험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9) 소송지원제도에 의한 분쟁조정실의 소송지원여부는 민원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0) 금융권의 감사 및 내부 통제인에 대한 과도한 장기재임과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21)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부로 취급하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민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3)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보험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4) 펀드 판매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 판매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펀드판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5)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미국 및 일본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26) 대포통장의 발급 및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현금지급기 인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7)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
- (2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의한 검사원 제척제도를 감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부행장 등 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9) 신용카드가 4개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0) 금융환경이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금융사건 또한 더욱 복잡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금융사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1) 무분별한 채권추심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동결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봉급생활자의 급여통장이 동결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칫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결계좌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2)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조건의 변화 시점별 증감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3)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4) 감독분담금 관련, 현재까지는 금감원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감독 분담금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5)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조달하는 만큼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6)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윌리엄 라이백 고문의 영입을 계기로 하여 향후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7)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하고, 사업비율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

- (38)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 김정민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근거당 설정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39) 금감원의 은행검사결과보고서상 지적 사항을 수합한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 누락 및 자료 부실문제를 지적 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온비드시스템 안전장치 보강, 결재장치 이중화 등을 추진 중인 바,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국유재산 대부 관련 영세민,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3)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인수사업을 조기 정리하여 부채 규모를 축소할 것
- (5)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6)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7) 민간 기업에 비해 낙후된 On-Bid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8)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인 희망모아의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9)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희망모아의 채권심사 재위탁 선정 기준의 조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10)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모아 등의 채무완제시 신용 불량 정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11)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 과잉추심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2) 인터넷입찰 사용자의 정보와 입찰가격 등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 (13) 압류재산 처분업무 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14) 향후 해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15)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부계약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 조치부터 내리는 공사의 행정 집행의 부적정성을 시정할 것
- (16) 해외연수 결과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여행스케줄과 관련 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직원들이 연수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수결과보고서를 첨부할 것
- (17) 공사의 중국진출계획을 포함한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이 부진한 바, 향후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회원권 등이 보유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
- (19)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자금의 규모가 상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2007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가조작 혐의 포착 후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의 조기인지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등 증시 환경변화에 맞춰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선</li> </ul> </li> <li>○ 중대사건 신속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사건수리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단기매매차익 등 경미사건은 일괄조사 실시</li> </ul> </li> <li>○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사건 인지시 증권선물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사건초기부터 합동조사를 정례화 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기간을 최소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조사절차의 개선과는 별도로, 불공정 거래 사례연구 등 조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이 신속한 조사절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홈쇼핑보험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보험상품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쇼핑방송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li> </ul> </li> <li>○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보험상품을 변액보험에서 모든 상품으로 확대</li> <li>○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대상 광고 선정주체를 개별 보험회사에서 보험협회로 변경하고,</li> <li>- 종전 3회 위반시 제재금을 부과하던 것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보험회사, 홈쇼핑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과장·부실광고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07.10, '07.12)</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이 부담</li> <li>- 이해상충소지가 있거나 불공정 거래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 제한</li> </ul> </li> <li>○ 창구판매 임직원 수 제한 등 설계사 실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설계사에게 새로운 취업기회 제공</li> <li>- 현행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 수 제한 (2인이내) 유지</li> <li>- 08.8월 예정대로 교차모집을 실시함으로써 설계사 소득 보전 수단 마련</li> </ul> </li> </ul>
<p>(4)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 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DCDS)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도록 지도</li> </ul>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취급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만큼 향후 카드사별 타당성 판단에 따라 동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강화'정책 수립에 있어 사금융피해에 보다 취약한 여성을 배려한 홍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p>□ 금융감독원은 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및 「환승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p> <p>○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및 '환승론' 관련 제도 및 '사금융피해예방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YWCA 등 여성 단체에 배포('08.1월)</p> <p>○ 반상회·백화점 등을 통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p>
(6) 연대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대체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게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07.12)</p> <p>○ 이를 위해 '08년초부터 금융감독기구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예정</p>
(7)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인력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사례(발생원인, 수법, 감사기법)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병행 운영하고 있음</p> <p>* 교육실적('05~'07) : 592명→643명→615명</p> <p>□ '07.1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 유인을 크게 줄였으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p> <p>□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적발·시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p> <p>○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 조직(T/F)을 설치('08. 1. 2)하고 금년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중</p>
<p>(8) 카드사가 연회비나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 발급 건수만 늘리기 때문에, 신용카드 중 해외겸용카드가 지나치게 많이 발급되고 로열티 지급액이 막대하여 국부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p>	<p>□ 현재 국내카드사들은 국내외 겸용카드(비자, 마스터 카드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p> <p>○ 국내외 겸용카드의 분담금 요율 및 부과 대상 등 주요 정책은 회원사로 구성된 비자·마스터카드의 본사 및 각 지역 본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분담금 요율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감독기구는 불필요한 해외검용 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국내전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관련 유의사항을 통보('05.9월)하고</p> <p>○ 회원의 카드발급 신청시 신청서상에 국내 전용카드 또는 해외 검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중이며</p> <p>○ 국내외 검용카드와 국내전용 카드의 연회비 차이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p> <p>□ 한편, 지도내용 점검결과 여전히 국내전용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5개 카드사에 대하여 지도사항의 적극 이행을 추가권고 ('08.1.31. 지도공문 발송)하였음</p> <p>○ 향후에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지도할 계획</p>
<p>(9) 저축은행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검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경영진이 감독기구 출신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p> <p>○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에서 제척하고 있으며</p> <p>*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검사 경력이 있는 직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별도로 '07.4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제척대상을 금융감독원 출신 경영진·대주주·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에서 근무 또는 고교 동문, 친인척, 전번 검사참여 검사원으로 강화하여 운영중</li> </ul>
(10)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li> <li>○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고 있음</li> <li>○ 또한, 30만원 이상 휴면예금도 출현하기 1개월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원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li> </ul>
(11)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대출이 많은 국내 특성상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대출건수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자산의 부실화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중</li> <li>○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시행('07.1월)</li> <li>○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의 시행으로 여신심사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강화(은행권 '07.3월, 비은행권 '07.8월)</li> <li>○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취급 제한 관련 지도('07.7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1% 미만)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담보인정비율(LTV)도 50% 이하로 대출자산의 부실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나,</p> <p>○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p>
<p>(12)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00조원에 이르고 최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33%에 이르러 이자제한법의 규정인 30%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자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p>	<p>□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 건당 취급수수료와 기간별 이자수수료로 구성되며</p> <p>○ 수수료율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는 곤란</p> <p>* 현금서비스는 상품 특성상 소액이며 쉽게 대출이 가능한 무담보 초단기 신용공여(30~40일)로서 상품 및 이용자의 특성상 리스크가 크고 카드사도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 적용</p> <p>□ 금융감독기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게 함으로써 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p> <p>○ 과거 일부 겸영은행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겸영은행도 자사 홈페이지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동 비율을 게시토록 지도 실시('05.10월)</p> <p>□ 또한, 카드사의 회원신용평가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회원 신용도별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외국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PMorgan Chase 28.24%(standard)</li> <li>- BOA 22.74%</li> <li>- Citi Bank 22.74%</li> <li>- Capital One 19.8%</li> <li>- AMEX 23.24% (Optima card)</li> </ul>
<p>(13)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유착관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윤리규정을 강화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따른 유착방지를 위해 사적접촉제한제도, 검사원 제척제도 등을 운영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원 제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검증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가동 중 ('08.2월 시행 예정)</li> </ul> <p>□ 한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수립된 재취업 운영원칙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08.1월부터 적용 중</p> <p>※ 재취업 운영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업무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 민원 등 논란소지가 있는 부서 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퇴직후 2년)</li> </ul>
<p>(14)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의 대부업 피해 관련 상담직원이 2명에 불과하여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데 상담인력 확충 등 대부업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역할 수행 및 대부업피해 상담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확충('07.10월)</p> <p>&lt; 대부업 등 사금융관리·감독 인력 충원내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 2명 증원</li> <li>○ 대부업 등 사금융피해상담 : 1명 증원</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대부업피해자의 전화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화된 상담에 대해서는 주말 등 업무시간외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ARS 상담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08년도 2/4분기중 시행예정)</p>
<p>(15) 손해보험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감원이 자문의 선정내역을 보고 받고 법원과 협력해서 신체 감정의를 자문의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금융감독기구가 법원의 신체 감정의 선정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p> <p>○ 다만, 매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문의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신체 감정의 선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p>
<p>(16) 주민등록초본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 정보유출 및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p> <p>○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직원(신용정보업 종사자)은 채무자 등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동사무소에 제시하고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감사원에서는 일반인과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위임 계약직 채권추심원)로 하여금 위법한 채권추심활동*을 하도록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재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p> <p>* 채무자 등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등</p> <p>○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등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음('06.11월, '07.2월)</p> <p>○ 다만, 현재 사범당국(1,2심)에서는 위임 계약직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9 ①)에 규정된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상 별도의 허가없이도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 등 채권추심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p> <p>* '08.1월 현재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p> <p>□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 남용되지 않도록</p> <p>○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신용정보업 종사자에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교부시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p> <p>○ 신용정보업 종사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의 구매에 현금처럼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환 불가능한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전체 통화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 포인트제도는 카드사가 카드사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는 수익에 기여한 고객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인식</li> </ul> <p>□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 등 적립 주체에 따라 그 사용대상 등 제반 활용조건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상품별로도 차이가 나는 특성이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상 결제매개체 등 유사 성격 서비스의 유통 등을 고려할 때</li> <li>○ 금융감독기구가 그 유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됨</li> </ul> <p>□ 금융감독기구는 카드사의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임을 감안하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회원에 대하여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기간, 변경가능성 등)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li> <li>○ 이와 함께 카드사는 유효기간(5년) 경과 등으로 회원의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 소멸 내역을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도 ('05.10월)</li> <li>○ 한편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용 안내장에 포인트제도 운용 관련 세부내용을 고지하고, 카드대금청구서에 포인트 관련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 ('06.3월)</li> <li>□ 또한, 금융감독기구는 포인트제도 개선 T/F(여신금융협회 주관)를 통하여 포인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07.3.19) 하여 표준약관에 반영*하였음 * '08.1.9. 공정위 심사, '08.4월 시행예정</li> </ul>
<p>(18) 보험사기의 적발통계로 볼 때,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분별력의 저하가 보험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6월 '보험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li> <li>○ 동 종합대책에 따라 보험사기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험사기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보험사기조사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임</p> <p>※ 보험사기 관련 홍보 및 방지교육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방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li> <li>- 금융감독원 LED 전광판 광고</li> <li>- TV 등 대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 활동, 적발사례 등 홍보</li> <li>- 보험사기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방순회교육 실시</li> <li>- 일반인 대상의 금융소비자교육과정에 보험사기 관련내용 포함 및 강사 지원</li> </ul>
<p>(19) 소송지원제도에 의한 분쟁조정실의 소송지원여부는 민원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기구는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p> <p>○ 사인간 소송에 금융감독기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소송지원의 합리적인 근거 부여를 위한 엄격한 심의절차가 필요함</p> <p>□ 그간의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소송지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임</p> <p>○ 앞으로 금융감독기구는 소송지원의 요건을 폭넓게 검토하는 등 소송지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금융권의 감사 및 내부통제인에 대한 과도한 장기재임과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p>□ 금융감독기구는 별도 전담조직(T/F)을 설치('08.1.2)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중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작업 추진시 금융권 감사 및 내부통제인의 과도한 장기 재임·연임 방지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li> </ul>									
(21)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p>□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0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산출체계 개선(차량모델별 차등화 등)</li> <li>- 손보업계 자구노력(초과사업비 해소 등) 강화 등</li> </ul> </li> <li>○ 보험업계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임</li> <li>※ 자동차보험 경영실적 개선 추이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06.4~12월</th><th>07.4~12월(추정)</th></tr> <tr> <td>손해율</td><td>79.3%</td><td>73.7%</td></tr> <tr> <td>영업손익</td><td>△6,909억원</td><td>△3,406억원</td></tr> </table> </li> </ul> <p>□ 한편, 의료기관의 치료비 허위·과잉청구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보험금 누수를 상당부분 차단할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07.11월 시행)</li> <li>* 자동차관리법 : 정비업체의 부당수리 금지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07.7월 시행)</li> </ul>	구 분	06.4~12월	07.4~12월(추정)	손해율	79.3%	73.7%	영업손익	△6,909억원	△3,406억원
구 분	06.4~12월	07.4~12월(추정)								
손해율	79.3%	73.7%								
영업손익	△6,909억원	△3,406억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금융감독기구는 자동차 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보험사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p> <p>○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p>
<p>(2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부로 취급하여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민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기시행중</p> <p>[주요 대응방안]</p> <p>○ '06.8월 이후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혼합형 대출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p> <p>* 이에 따라 '07년말 현재 스왑연계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파워론Ⅲ, 신한장기모기지론, 셀프디자인 모기지론, 골드프리미어모기지론 등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중</p> <p>○ 금리변동위험 축소를 위한 금리캡(금리조정 상한) 상품 개발 및 취급 확대의 지속적 유도('07.8월)</p> <p>* 이에 따라 '07년말 현재 은행들은 이자안전지대론, 입주 자안심론, 명품변동금리대출, YES이자안심 모기지론 등 금리상한형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 판매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금리부 대출의 경우 모범기준에 의한 DTI 한도 산출시 기본비율에 5%p 가산 인정('07.3월)</li> <li>○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변동금리대출 상환 원리금 및 적용금리 등의 고객통지 강화 ('0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거래약정서상의 금리조건에 대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등 금리위험 고지의무 강화</li> <li>- 이자부담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li> <li>-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에 대한 고객 앞 통지 강화</li> <li>-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 설명서 제공</li> <li>-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등</li> </ul> </li> <li>○ 변동금리부대출에 대한 주택신보의 출연료율 인상(최고 0.163%→0.3%)('07.7월)</li> <li>□ 향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신용 등급별 현황, 금리상승 영향, 리스크 수준 현황, 금리조건 및 만기구조 분석,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험사 경영평가지 이를 반영하고 보험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회사 경영평가지 민원 전반에 대하여 비계량항목으로 평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예방 및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외에 공표하고 있는 보험회사 민원 발생 평가시에도 합의권고 수용률 등을 반영하여 회사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li> <li>○ 합의권고 수용률만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li> </ul> <p>□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금융감독기구의 합의권고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li> </ul>
<p>(24) 펀드 판매원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 판매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펀드판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펀드 판매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교육이수와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자격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고(간투법 시행령 §55 ②)</li> </ul> <p>* 교과목은 간투법 등 관련법규, 판매행위준칙 및 직업윤리, 영업실무, 상품의 구성·이해, 펀드 운용업무, 펀드 평가·분석, 투자자분쟁 예방 등으로 구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판매자격을 유지하려면 자격취득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수할 때까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음 (재정부 고시 2006-2호 제6조)</p> <p>※ 외국의 펀드판매 자격 검증시스템 사례</p> <table border="1" data-bbox="742 649 1420 1041"> <thead> <tr> <th>구분</th><th>판 매 자 격</th></tr> </thead> <tbody> <tr> <td>미국</td><td>-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td></tr> <tr> <td>영국</td><td>-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td></tr> <tr> <td>일본</td><td>-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td></tr> </tbody> </table> <p>□ 그간 금융감독기구는 펀드판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판매선진화를 계속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바,</p> <p>○ 펀드 투자자 인식이 높아지도록 투자자 교육자료*를 배포해 오고 있으며</p> <p>* 「알기쉬운 펀드투자」('05.9월, '06.11월), 「펀드투자, 이것은 알고 합시다」('08.1월, 투자자교육재단)</p> <p>○ 판매회사 펀드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p> <p>○ '07.4월 판매직원 실명제 시행, '07.12월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 시행*(투자자교육재단) 등 제도보완을 병행하고 있음</p> <p>* 평가항목은 판매임직원 자격소지 현황, 교육·연수 현황 등임</p>	구분	판 매 자 격	미국	-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	영국	-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	일본	-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구분	판 매 자 격								
미국	-시험합격 (객관식 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 2년 후 120일 이내,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								
영국	-시험합격 (객관식 50~100문항, 70점 이상) -보수교육은 의무사항 아님								
일본	-시험합격 (합격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 -보수교육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판매 인력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및 교육효율화 방안(교제단일화)을 마련하여 '08.2월 부터 시행할 예정임</li> <li>□ 한편, '09.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부실한 투자 설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판매회사의 자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li> </ul>
<p>(25)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미국 및 일본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 불안이 '08년 들어서도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안전자산 추구성향 강화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증대</li> <li>□ 금융감독기구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표출된 '07.8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점검반」을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실시간 종합 모니터링체제를 가동·운영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월 중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동 점검반 운영을 강화 (점검반 구성원을 실무자급에서 고위책임자급으로 격상, '08. 1.23)</li> </ul> </li> <li>□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구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한편 잠재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및 효과를 예상하여 금융회사, 기업,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유도</li> <li>○ 또한,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방침</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대포통장의 발급 및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현금지급기 인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7.18)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D/ATM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예금계좌 및 비대면채널 개설요건 강화방안,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함</p> <p>○ 금융감독기구는 '07.9월 현금지급기 1일 이체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1회 이체한도 1천만원→6백만원), 1일 인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p> <p>- 대포통장 개설차단을 위하여 예금계좌개설시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예금계좌 및 비대면채널 개설요건 강화방안을 은행에 통보한 바 있음</p> <p>○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06.7.24. 이근식의원 외 35인 발의)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포통장 양도행위의 처벌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27)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조사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p>	<p>□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임</p> <p>*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개정안('06.9.22.)</p> <p>○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 의한 검사원 제척제도를 감사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부행장 등 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07.4월 「상호저축은행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마련, 검사원 제척제도를 강화</p> <p>○ 금융감독원 출신 경영진·대주주·감사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고교동문, 친인척, 전번검사 참여 검사원은 검사에서 제외</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 임원이 대표이사 등 집행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p> <p>○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제척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직시 담당 부서가 많아 제척대상 검사원이 너무 많아져 검사인력 운용이 곤란하게 됨</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금융권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등 집행임원에 대한 검사원 제척대상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p>
<p>(29) 신용카드가 4개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카드사는 소득, 재산상태, 직업 등의 신상 정보 이외에 과거 거래실적 정보 및 복수카드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카드발급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평가</p> <p>○ 한편, 4장 이상의 복수카드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는 신청자의 금융거래 행태, 대출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감독기구는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때 신상·거래정보 외에 복수카드 소지여부가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 약관심사 제·개정 권한이 주어질 경우 약관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li> <li>○ 또한 카드사 표준약관에 휴면카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여 반영하고 1년이상 무실적 휴면카드에 대하여는 회원의 해지의사 확인 후 카드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인당 카드 발급매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중('08.1.9. 공정위 심사 표준약관에 반영)</li> </ul>
<p>(30) 금융환경이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금융사건 또한 더욱 복잡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금융사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금융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 고품질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인력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직군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수 로드맵을 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비은행, 보험, 증권, 공시·조사 등 4개</li> </ul> </li> <li>○ 국내외 금융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과 협력하여 감독업무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을 계속 확충</li> <li>○ 선진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검사기법을 습득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고품질·현장연수 위주로 내실화하여 실시</li> <l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홍콩 금융관리국 등의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유관업무 직원들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집중연수 실시 예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1) 무분별한 채권추심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동결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봉급생활자의 급여통장이 동결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칫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결계좌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채권추심목적의 은행계좌 동결은 은행의 재량이 아닌 법원의 압류 혹은 가압류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권은 법원의 압류 명령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므로 급여계좌의 지급정지 여부는 은행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li> </ul> <p>※ 은행의 계좌동결 주요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지급제한(법원 압류명령 등)</li> <li>○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권보전</li> <li>○ 기타 금융사고 예방(경찰청 요청 등)</li> </ul> <p>□ 현재 금융감독기구는 은행의 계좌동결 유형별 등록건수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li> </ul>
<p>(32)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조건의 변화시점별 증감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정 기준*의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연체자를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위해 동 연체정보를 제공함</p> <p>* 50만원 초과, 3개월 이상('05.4월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금융거래 및 취업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05.4월 의원 입법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li> </ul> <p>*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발생시 등록</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는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 과거 금융거래 내역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p> <p>※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이 일정기준에 의한 연체정보를 등록·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p> <p>○ 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연체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고객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정보 확충 등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p> <p>○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통계관리를 위해서도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p>
<p>(33)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 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p>○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li> <li>-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li> </ul> <p>○ 향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08년 상반기)한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4) 감독분담금 관련, 현재까지는 금감원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감독분담금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승인을 거쳐 편성되고, 결산상 잉여금(총수입 - 총지출경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는 바,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예산안 편성시 익년도 발행 분담금, 자체수입 등을 추계한 후 감독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고</li> <li>○ 일정수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예산의 95~97%수준 이내에서 긴축적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데 기인하는 것임</li> </ul> <p>□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07.8월 마련된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임</p>
<p>(35)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조달하는 만큼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감독원 예산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의 결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 예·결산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07.8)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설치·운영('07.9)하여 예산안 수립단계에서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금감원 예·결산 투명성강화방안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획예산처 담당자 및 금융관련협회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크게 확대</li> <li>-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상 총인건비 예산 증가율 범위내로 최대한 억제</li> <li>- 감독분담금 요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금융회사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li> </ul>
<p>(36)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월리암 라이백 고문의 영입을 계기로 하여 향후 아시아의 금융허브추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의 금융허브추진정책 중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리암 라이백 고문 영입 등을 계기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음</li> </ul> </li> <li>□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하여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함('07.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중임</li> </ul> </li> <li>□ 앞으로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관한 법률」이 제정('07.12)됨에 따라 금융허브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7)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200%가 넘는 경우와 같이 비상식적으로 예정사업비를 증가시킨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 혹은 권고하고, 이러한 보험사들에 대해 사업비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하고, 사업비율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	<p>□ 최근 3년간 예정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일부 생보사는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보험료에 포함된 예정사업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p> <p>○ 예정사업비 증가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령(권고)하는 것은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p> <p>* 보험가격자유화('00.4) 이후 예정사업비 등 보험가격은 보험사가 자율 책정</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수입보험료</th><th colspan="3">예정사업비</th></tr> <tr> <th>FY03</th><th>FY06</th><th>증가율</th><th>FY03</th><th>FY06</th><th>증가율</th></tr> </thead> <tbody> <tr> <td>KB</td><td>227</td><td>4,690</td><td>1,966.1</td><td>32</td><td>621</td><td>1,840.6</td></tr> <tr> <td>SH&amp;C</td><td>1,128</td><td>4,255</td><td>277.2</td><td>126</td><td>390</td><td>209.5</td></tr> <tr> <td>PCA</td><td>1,381</td><td>7,586</td><td>449.3</td><td>436</td><td>2,608</td><td>498.2</td></tr> </tbody> </table> <p>※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포함</p> <p>□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보험사에 대한 수시(정기)검사시 실제사업비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 바 있으며</p> <p>* '04 이후 경영유의 1, 기관주의 12, 개선 2, 조치의뢰 1, 현지조치 10</p> <p>○ 보험계약자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정사업비지수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토록 하고 있음</p> <p>○ 특히 '07.4 부터는 투자성격이 강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변액유니버설보험과 같이 특별계정 투입원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지도한 바 있음</p> <p>* 가입설계시 및 판매후 연2회 안내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동 내용을 반영</p>	구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FY03	FY06	증가율	FY03	FY06	증가율	KB	227	4,690	1,966.1	32	621	1,840.6	SH&C	1,128	4,255	277.2	126	390	209.5	PCA	1,381	7,586	449.3	436	2,608	498.2
구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FY03	FY06	증가율	FY03	FY06	증가율																													
KB	227	4,690	1,966.1	32	621	1,840.6																													
SH&C	1,128	4,255	277.2	126	390	209.5																													
PCA	1,381	7,586	449.3	436	2,608	498.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구는 상품심사시 기존 유사상품과의 사업비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정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고,</p> <p>○ 수시(정기) 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p> <p>○ 상품광고시에도 예정사업비 지수를 공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p>
<p>(38)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 김정민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건물을 근저당 설정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p>	<p>□ '05.11월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당시 국민은행의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대한 대출이 국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담보 적격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여신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영유의조치 하였음</p> <p>○ 현재 당해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았으며 대출 원리금도 연체 없이 상환('08.1.20일 현재 15억 → 1.4억원)되고 있는 등 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손실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됨</p> <p>*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형법 제355조 제2항)</p> <p>○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민은행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p>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금감원의 은행검사결과보고서상 지적 사항을 수합한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 누락 및 자료 부실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07년도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의원 요청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자료가 누락되고 추후 재점검도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p> <p>○ 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다량의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p> <p>* 당시 소수의 직원이 제출자료 작성을 위해 1,000여건의 검사보고서 및 약 3,500건의 지적사항 내역을 조사 · 확인</p> <p>&lt;참고&gt; 은행 검사보고서 및 지적사항 수 (단위 : 건수)</p> <table> <tr> <th>구분</th> <th>검사보고서</th> <th>지적사항</th> </tr> <tr> <td>'04.~'07.중</td> <td>1,005</td> <td>3,444</td> </tr> </table> <p>□ 이는 국회의원 요청자료 수에 비해 담당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하는 측면은 있으나</p> <p>○ 당시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조치 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p>	구분	검사보고서	지적사항	'04.~'07.중	1,005	3,444
구분	검사보고서	지적사항					
'04.~'07.중	1,005	3,444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온비드시스템 안전장치 보강, 결재장치 이중화 등을 추진 중인 바,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온비드에서 발생한 장애의 대부분은 사용자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및 저장장치의 일시적 부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장애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이러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부문 25개, 제도·정책부문 10개 등 총 35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li> <li>○ 아울러, 공사는 2007년 11월 하순부터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의 은행과 지불결제 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완료</li> </ul> <p>□ 향후에도 외주관제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통해 온비드 장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p>
<p>(2) 국유재산 대부 관련 영세민,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p>	<p>□ 농민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경지 대부료 상한선을 농업 수입의 20% 이내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7.1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세민 및 농어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조립 목적의 대부 기간은 10년 장기로, 실경작자 에게는 수의 계약을 통한 대부계약의 연장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대부 조건을 완화하고 있음</li> </ul> <p>□ 향후에도 영세민 및 농어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유재산 이용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대부 방법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총괄청에 건의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농어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기금보유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자산의 다양화 및 운용기간의 장기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자산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식을 포함한 혼합형 수익증권 운용을 확대하고, 07년12월말 현재 보유자금의 100%를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자금으로 운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용자산 다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p> <p>* 컨설팅 기간 : 07.10.08~12.7, 컨설팅 기관 : 한국채권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가능 금융상품 확대, 자산배분 프로세스 개선 등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li> </ul> <p>* 자산운용 전문인력 충원(채권운용전문가), 자산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선임(대학교수 2인),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참석</p> <p><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li> <li>○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li> </ul>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향후 보유자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시장금리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배당상품의 운용비중 확대 등 운용자산을 다양화하고, 운용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하여 운용할 계획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인수사업을 조기 정리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할 것	<p>□ 한국자산신탁은 자산 1,412억원, 부채 762억원, 자본 650억원으로써 부채 비율은 약 117%* (07.12.31기준 잠정집계)이며,</p> <p>*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07년말 잠정) : 192%</p> <p>○ 이는 부실 신탁사의 구조 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양수한 사업장과 관련되는 사후정산방식[정산시 회수가치가 없을 경우 출자전환(합안사업) 및 채무탕감(양평사업)]의 인수채무에 기인하며 진성채무가 아님</p> <p>[사업별 양수시 대비 현재(07.12.31기준)의 채무내역]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구 분</th><th>인수시</th><th>현재</th><th>비 고</th></tr> <tr> <td rowspan="2">합안사업</td><td>일반차입금</td><td>106</td><td>106</td><td>출자전환조건인수</td></tr> <tr> <td>국민주택기금</td><td>231</td><td>231</td><td>상환대상채무</td></tr> <tr> <td rowspan="2">양평사업</td><td>일반차입금</td><td>170</td><td>123</td><td>사후정산조건인수</td></tr> <tr> <td>미지급이자</td><td>61</td><td>155</td><td>사후정산조건인수</td></tr> <tr> <td rowspan="3">기타</td><td>미지급배당금</td><td>-</td><td>46</td><td>08년, 09년 지급</td></tr> <tr> <td>선 수 금</td><td>-</td><td>56</td><td>매년 증감 발생</td></tr> <tr> <td>미지급비용 등</td><td></td><td>45</td><td>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td></tr> <tr> <td colspan="2">계</td><td>568</td><td>762</td><td></td></tr> </table> <p>□ 차입금 상환(부채규모 축소) 계획</p> <p>○ 합안사업은 임대아파트사업으로 현재 일괄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조기 매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고, 일반 차입금은 인수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방식으로 부채를 축소할 계획</p>	구 분		인수시	현재	비 고	합안사업	일반차입금	106	106	출자전환조건인수	국민주택기금	231	231	상환대상채무	양평사업	일반차입금	170	123	사후정산조건인수	미지급이자	61	155	사후정산조건인수	기타	미지급배당금	-	46	08년, 09년 지급	선 수 금	-	56	매년 증감 발생	미지급비용 등		45	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계		568	762	
구 분		인수시	현재	비 고																																						
합안사업	일반차입금	106	106	출자전환조건인수																																						
	국민주택기금	231	231	상환대상채무																																						
양평사업	일반차입금	170	123	사후정산조건인수																																						
	미지급이자	61	155	사후정산조건인수																																						
기타	미지급배당금	-	46	08년, 09년 지급																																						
	선 수 금	-	56	매년 증감 발생																																						
	미지급비용 등		45	상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계		568	76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양평사업은 공원묘지 조성후 분양중에 있으며 추가 자금 부담이 없고, 매년 신탁보수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09년말까지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p> <p>※ 신탁사업은 위탁자 및 이해관계인의 매각처분 요청이 없는 한 사업권 일괄매각 정리가 불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매각 정리는 어려움</p> <p style="text-align: center;">&lt;사업별 상환 계획&gt;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th><th style="width: 10%;">분</th><th style="width: 10%;">상환액</th><th style="width: 70%;">상환방법</th></tr> <tr> <td rowspan="3">08년도</td><td rowspan="2">함안사업</td><td>106</td><td>08년 매각후 출자전환</td></tr> <tr> <td>231</td><td>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td></tr> <tr> <td></td><td>양평사업</td><td>60</td><td>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td></tr> <tr> <td>09년도</td><td>양평사업</td><td>63</td><td>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td></tr> <tr> <td>10년이후</td><td>양평사업</td><td>155</td><td>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td></tr> </table> <p>○ 기타 미지급 배당금은 지급계획(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08년도에 23억원, 09년도에 23억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수금 계정은 연차별 당해 계정간 사유 발생시마다 회사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대상금액임</p>	구	분	상환액	상환방법	08년도	함안사업	106	08년 매각후 출자전환	231	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		양평사업	60	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09년도	양평사업	63	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10년이후	양평사업	155	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
구	분	상환액	상환방법																				
08년도	함안사업	106	08년 매각후 출자전환																				
		231	08년중 일괄매각으로 상환																				
		양평사업	60	08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09년도	양평사업	63	09년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10년이후	양평사업	155	미지급이자 추정액으로 사업정리시 처리																				
(5)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른 내규 정비를 통한 자체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p> <p>○ 종래의 「검사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인의 직무 권한 강화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규정」 제정(07.12월) 및 「감사규정 시행요령」(08.1월) 제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상시감사 체계 구축 및 감사업무 전산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사이버 상담실(e-카운셀링) 개설·운영(07.11월)</li> <li>○ 임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부패방지 홍보 강화 및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게시판(Whistle blowing)개설·운영(07.12월)</li> <li>○ 「감사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08.3월 완료)</li> </ul>
(6)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p>□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여성·장애인 고용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시행(07.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직원 채용시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해 목표할당제 도입·시행(0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2월말 현재 18.8%의 여성고용비율을 2011년까지 20.13%로 확대할 계획</li> </ul> </li> <li>○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적합 직무 개발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력 Pool 활용 등 고용증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현재 1.05%인 고용비율을 의무고용비율(2%)까지 확대를 위한 노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시 목표할당제 도입(사무지원직 등)</li> <li>* 채용규모의 최소 20%를 장애인으로 채용</li> <li>· 장애인 적합 직무의 적극적 발굴</li> <li>· 신입직원 채용시 전형별 가점 부여</li> </ul> </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민간 기업에 비해 낙후된 On-Bid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p><input type="checkbox"/> 온비드는 공사와 이용기관 등의 구매공고 및 전자 입찰을 지원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법원경매 물건 등 물건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는 민간 정보 제공업체와는 차이가 있음</p> <p>○ 온비드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우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p> <p>○ 또한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물건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대한 권고 및 온비드 이용 교육도 병행</p>
(8)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인 희망모아의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희망모아는 희망모아 콜센터(상환 유도 TM)를 통한 상환 안내, 채무상환 안내장의 주기적 발송, 희망모아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 홍보 방안을 마련·시행중</p> <p>○ 또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신용회복 홍보수첩을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지속적인 채무상환 안내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p>
(9)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하여 희망모아의 채권심사 재위탁 선정 기준의 조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공사에서는 보조자산관리자(신용정보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적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p> <p>○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된 보조자산관리자의 경우 비계량요소인 민원발생 항목에서 감점하는 등 계량요소와 비계량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평가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도 법규위반 사례 및 민원발생 요소 등이 보조자산관리자의 재위탁 선정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li> </ul>
<p>(10)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모아 등의 채무완제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조정약정 체결 즉시 신용평가사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처리하고 있으며</li> <li>○ 채무가 완제되면 채무불이행정보 기록은 완전히 삭제 처리됨</li> <li>□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li> </ul>
<p>(11)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 과잉추심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불법·과잉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자산관리자(신용정보사)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정기 간담회 및 현장지도를 통한 불법·과잉 추심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 민원예방을 위한 채무상환 최고장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li> <li>○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페널티 부과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위임계약서」에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li> </ul> </li> <li>□ 향후에도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인터넷입찰 사용자의 정보와 입찰가격 등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p>	<p>□ 온비드는 모든 입찰가격 및 중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고, 입찰가격 유출방지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2중의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 및 침입 차단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내·외부의 불법적인 서버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li> <li>○ 은행과의 정보교환시에도 통신보안시스템 체계를 적용하여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li> </ul> <p>□ 온비드의 인터넷입찰 관련 프로그램은 형상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임의 조작 또는 조작 내역을 관리 및 감시함으로써 전산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p> <p style="margin-left: 20px;">*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이력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p> <p>□ 공사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및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p>
<p>(13) 압류재산 처분업무 부문의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전산시스템 개선에 의한 안정적 업무량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과 전산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하여 압류 후 3개월 경과 시 자동으로 공매진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실익분석 실시(07.10월 시행)</li> <li>○ 실익분석 결과 공매 가능 물건에 대하여 일괄 공매대행 의뢰(08.1월 시행)</li> </ul> <p>□ 압류재산 처분업무 확대를 위한 위임업무 다각화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상 경찰청 부과 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실시(07.12월)</li> <li>○ 검찰청 벌과금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대행을 위한 협정 체결(07.12월)</li> <li>○ 공과금·사용료 등에 대한 신규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였고 공매대행의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는 노력 등 진행</li> </ul> <p>□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新조세정리업무시스템(06.11월 구축) 개선 등 사무자동화 제고를 통한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생산성 증진</li> <li>○ 업무시스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의한 비용절감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perless를 통한 사무공간 확보 및 비용절감</li> <li>- 우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공매통지서 등의 발송업무 간소화 및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정원외인력 활용으로 비용절감</li> </ul> </li> </ul> <p>□ 향후 수익제고 및 비용절감을 통한 수지개선을 위하여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무절차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지개선을 도모코자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향후 해외부실자산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p>□ 공사는 국외부실자산 투자 관련 제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준비·실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목표시장인 중국의 투자 위험도를 감안, 중국 4대 국영AMC 보유자산에 대하여 동기관과의 합작투자 또는 공동 자산관리로 리스크 최소화</li> <li>○ 투자자산 발굴·자금조성의 효율성 및 자산실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금융·실사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력 체제 구축</li> <li>○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투자 위험관리를 위하여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및 경영관리위원회 등에서 투자계획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의·의결 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효과적인 심의·의결절차 진행을 위해 안전 부의 전 투자 타당성, 자산관리·회수 등 제반절차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li> </ul> </li> </ul> <p>□ 이밖에도 공사는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 또는 AMC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해외 NPL시장에 대한 대응도 및 협상력 등을 제고할 계획</p>
(15)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부계약에 대한 안내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 조치부터 내리는 공사의 행정 집행의 부적정성을 시정할 것	<p>□ 무단점유 및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상으로 변상금 확정부과전 무단점유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전 고지절차를 거치고 있고</li> <li>○ 소유권 이전 당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국가포함)임을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li> <li>○ 향후, 변상금 확정부과 및 사인간 거래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홈페이지·국유재산처분시스템(Onbid)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홍보</li> <li>○ 또한, 변상금 확정부과에 대해 무단점유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사유 및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li> <li>- 특히 대부계약이 체결된 국유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전대시 대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을 대부 계약시 명시하여 사인간 소유권 이전시 새로운 대부계약의 체결이 필요함을 안내하도록 하겠음</li> </ul>
<p>(16) 해외연수 결과를 공개할 때 구체적인 여행스케줄과 관련 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직원들이 연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수결과보고서를 첨부할 것</p>	<p>□ 글로벌첼린저과정의 경우 연수종료 후 연수결과 보고서(A4 용지 20매 이상)를 제출받아 공사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결과보고서에는 지원팀이 당초 제출한 연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세한 여행 내용을 기재(사진포함)토록 하고 있음</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07. 7월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등록·공개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연수결과보고서중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공개를 07.11월 완료</li> </ul> <p>□ 향후에도 공사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연수결과를 적극 공개하겠음</p>
<p>(17) 공사의 중국진출계획을 포함한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이 부진한 바, 향후 해외부실채권 인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국외부실자산 투자를 규정한 공사 법령 개정 후 지난해 규정 정비, 투자협의체 구성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한 공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부실채권 보유국인 중국을 우선시장으로 정하고 동 지역의 NPL투자 위험 등을 감안, 중국 4대 국영 AMC와의 합작투자를 추진</li> <li>○ 특히 동방 AMC 보유 부실채권에 대해 자산실사 및 심의·의결 절차를 07.11월 완료하였고 입찰 참여를 통해 1,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07.11.30)</li> </ul> <p>□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 발굴 및 자금조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경험 보유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확대·강화</li> <li>○ 각종 투자관련 사안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과의 상시 협의·자문체제 구축으로 투자계획의 완성도 강화</li> <li>○ 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컨설팅·연수사업 수행으로 투자사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회원권 등이 보유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	<input type="checkbox"/> 골프회원권은 공사 업무 관련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상담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영업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운영 <input type="checkbox"/> 스포츠회원권 운영은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건강도모에 한하여 운영												
(19)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자금의 규모가 상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관리 전산화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주택자금 관리 방식을 수기 관리 방식에서 99년부터 전산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 중에 있음</li> </ul> <p>* 대출종류, 사용자, 대여기간, 대여금액, 주택 소재지, 권리보전, 이자율, 상환일, 상환금액 등을 주택자금 대여 및 상환시 전산 입력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lt;주택자금 지원 현황(07.12.31현재)&gt;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th>건 수</th><th>금 액</th></tr> <tr> <td>임차주택</td><td>31건</td><td>2,466</td></tr> <tr> <td>전세자금</td><td>52건</td><td>1,690</td></tr> <tr> <td>구입자금</td><td>85건</td><td>1,894</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향후 동 관리방식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주택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 분	건 수	금 액	임차주택	31건	2,466	전세자금	52건	1,690	구입자금	85건	1,894
구 분	건 수	금 액											
임차주택	31건	2,466											
전세자금	52건	1,690											
구입자금	85건	1,894											



#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3) KIKO(키코) 피해 관련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li> <li>○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li> <li>○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 발표('09.2.19)</li> <li>○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li> <li>○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li> <li>○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li> <li>○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li> <li>○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27)</li> <li>○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li> </ul>
(1)-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6.1)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
(1)-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는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
(1)-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소기업금융지원조치 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 * '09.8월말까지 KIKO손실기업 5.3조원 포함 총 20.4조원 지원 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09.1.8) 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2.12) *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2.19)</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p> <p>*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계획) 44조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경기회복,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p>
(1)-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 '09.4.28~ 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제재 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p>
(1)-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p>□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p>
(1)-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말) (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1)-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영 - '08.11월~'09.3월간 매월 1/5(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2)-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li> </ul>
(2)-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한-일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불로 증액 <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를 2차례 연장('10.2월까지)
(2)-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공기관 평가시 기반영중인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평가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p> <p>※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p>
<p>(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li> <li>-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li> </ul>	<p>□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정보 DB 구축</li> <li>·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li> <li>· 금융사 내부통제강화·시스템리스크 방지: 장기성과등을 감안하도록 파생거래성과보수체계개선, 장내통화선물리모델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개선 추진 등</li> </ul> <p>□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p> <p>□ 특히 파생상품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p>□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p> <p>○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 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p>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p>□ 현재 대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p> <p>○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p>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신용카드의 부채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 제한 관련</p> <p>○ 신용카드의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09.4.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p> <p>* 동 개정안에서 체크·직불카드는 고객의 결제성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되어 과소비 우려 등이 없으므로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지 않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별화 관련</p> <p>○ 최근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재위 논의과정에서 폐기</p> <p>* ('08)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20%→30%)하는 개정안을 김효석·이용섭 의원이 제출</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input type="checkbox"/>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 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여, 그 외 업무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6조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li> <li>* 제307조 :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 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p>(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p>○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p>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p>○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p> <p>○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p>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p>-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li> <li>□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li> <li>○ 또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제출 ('09.4월, 권택기 의원)</li> <li>□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li> <li>□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li> </ul> <p>*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 ('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p>
<p>(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08.11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수립하고,</li> <li>○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수립 및 '10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 추진</p>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p> <p><input type="checkbox"/>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금감원, 08.12)</p>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CP발행이 불가능하였음</p> <p>○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포함하여 제출('09.2.10 제출, 정무위 계류중)</p>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p><input type="checkbox"/>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2. 최근 5년간 감사원, 금감원,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과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내용과 조치 내용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3.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자료 목록

- 별도첨부('2008금융위자체감사결과보고서' 1건)

#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부문별 총평]

###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사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 <별표2>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 나. 물품 관리 실태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 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 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 · 업무량 · 업무난이도 · 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경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등록 여부
국 민 영 조 편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x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 25 - 8. 24	28,500		x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x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x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 26 - 8. 25	19,000		x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 21 - 12. 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x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x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비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x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x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x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x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x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x	x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 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성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 24 - 10. 8	22,000		○
					773,800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 4. 최근 3년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회실적

##### A. 공자위

□ 위원회 명칭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 설치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0조

□ 위원 현황 :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포함 위원 8인(당연직 6인, 민간위촉 2인)

□ '07년~현재 회의개최 실적

차수	일자	안 건
7	07.2.27	· 2006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8	07.6.28	· 2008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9	08.2.15	· 2007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
10	08.6.30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1	08.7.5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2	08.9.29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13	09.2.13	· 2008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 심의
14	09.3.17	· 2009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15	09.6.23	· 2010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계획

[참고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한다.

## B. 자본시장과

□ 위원회 명칭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현황

- 설치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6조제5항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1조
- 성격 : 불공정거래·공시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사전심  
의하기 위한 증선위 자문기구
-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4인) : 증선위 상임위원 (위원장), 금융위 자  
본시장국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감독원 조사담당부원장보
  - 위촉직 위원(3인) : 금융관련법령 또는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3인

#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연도별 개최 실적('06~'09.6)

연도	차수	일자	처리안건수
2008	1차	1.23	15
2008	2차	3.19	52
2008	3차	4.14	20
2008	4차	5.8	8
2008	5차	6.13	26
2008	6차	7.11	10
2008	7차	8.8	26
2008	서면1차	8.29	1
2008	8차	9.11	26
2008	9차	10.9	35
2008	10차	11.6	11
2008	11차	11.12	1
2008	12차	12.11	25
2008년 소계			256
2009	1차	1.8	13
2009	2차	2.12	20
2009	3차	3.12	16
2009	4차	4.16	5
2009	5차	5.14	25
2009	6차	6.11	9
2009년 소계			88

### C. 공정시장과

□ 위원회 명칭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 소관 위원회 명, 근거법 및 회의실적(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일) 이후 실적 기준)

위원회 명	근거법규	회의실적(대면회의)	
		'08년	'09년(8월현재)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 ~ 37조	4회	2회
감리위원회	"	7회	6회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연도별 개최 실적

구 분	회 차	2008년		2009년	
		개최일	대면/서면	개최일	대면/서면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1회	7.10	대 면	3.3	대 면
	2회	9.23	"	7.21	"
	3회	10.21	"		
	4회	12.16	"		
감리위원회	1회	4.10	대 면	1.29	대 면
	2회	5.30	"	2.26	"
	3회	7.10	"	5. 7	"
	4회	8.21	"	5.28	"
	5회	10. 2	"	7. 3	"
	6회	10.28	"	7.21, 7.23	"
	7회	11.27	"		



## D.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위원회 명칭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위 심사를 받아야 함
- (위원) 민간위원 7인, 내부위원 2인(사무처장, 기획조정관)
  - \* 위원장 : 민관공동위원장(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 사무처장)
- (기능)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 대상, 존속기한 등에 대한 부처 심사의견 결정

### □ 위원회 개최 실적

-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1차례('08년 11차례, '09년 10차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 E. 국제협력팀

☐ 위원회 명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위원회 현황

- (법적근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능)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심의
- (위원) 민간위원 10인, 당연직위원 15인(명단 별첨)
- (개최실적)

연번	개최일	회의명	구분	참석율
1	2008. 6. 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80%
2	2008. 7. 30	제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3	2008. 12. 3	제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84%
4	2009. 1. 21	제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100%
5	2009. 5. 14	제5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면	92%

- (위원회 총예산) 2009년도 34,650천원

## F. 자본시장과

###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명칭 : 시장효율화 위원회

○ 근거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 제414조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 :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분야 민간전문가 7인이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그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

### □ 위원회 개최실적

연도차수	회의형태	개최실적
'06년	집회	2회
	서면	2회
'07년	집회	4회
'08년	서면	1회
	집회	6회
'09년	집회	1회

## G. 중소기업금융과

□ 위원회 명칭 : 대부업정책협의회

□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 현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효율적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설치
-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

□ 대부업 정책협의회 운영현황

회의명	개최일자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06.12.27
제2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7.6.5
제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7.11.5
제4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8.1.29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8.6.3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8.9.9
제7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8.12.15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9.3.30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09.4.24

## 5. 최근 금융관련 법률 개정 현황(정책건의 실적 및 내용)

### □ 2009년도 법률 제·개정 현황

법률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 내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9.01.21	대부중개업 등록제 실시 등 이용자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1	개정	'09.01.30	양벌규정 정비
		'09.02.03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절차규정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09.02.03	헤지펀드제도 도입 및 상장법인 특례규정 등 보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09.02.03	국제회계기준 도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09.02.06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09.02.06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시,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09.02.06	성과공유형(투자유선부) 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09.02.06	"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09.02.06	수권자본금 확대 및 규제 완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	'09.02.06	여유자금의 주식·회사채 매입 허용 등 규제완화

법률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 내용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	'09.04.01	산은의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9.04.01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09.05.13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 기금 설치 및 수권자본금 확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09.05.21	산은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09.05.27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 기금 설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	'09.05.27	공자위 부활,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 관리대상에 포함
은행법1(금산분리)	개정	'09.06.09	은행주식 소유규제 완화 (4→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09.07.31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4→9%),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 □ 2008년도 법률 제·개정 현황

법률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08.1.17	신협중앙회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 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8.2.29	금융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08.2.2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08.2.29	경영관리위원회 위원 수 축소(11인→ 9인)
은행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보험업법	개정	08.3.14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 신설, 배당보험 이외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근거 마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신탁업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08.3.14	임원결격 요건 강화
		08.3.28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부보유주식 처분시한(5년이내) 폐지 등
법률명	분류	일자	주요 내용

증권거래법	개정	08.3.14	주권상장법인에 외국주권 및 DR상장 법인 포함
		08.3.21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외감법 준용
선물거래법	개정	08.3.14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08.3.28	임원결격 요건 강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개정	08.3.21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시 감사인의 잘못을 금융기관이 입증
예금자보호법	개정	08.9.26	예금보험료를 한도(0.5%) 적용기한을 2011.8.31일까지 3년 연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08.12.26	양벌규정 정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08.12.31	양벌규정 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08.12.31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대포통장 양수·도 및 알선 행위 금지와 처벌 강화



## 6. 금융위 출범 후 정부출연금(신청금액과 실제 출연액)

### □ 금융위 출범 이후 정부출연금(신청금액과 실제 출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금액	예산반영액 (실제출연금)	비 고
2008년	98,206	98,206 (97,006)	
2009년	69,000	69,000	

### □ 정책연구용역 내역

구 분	내 용	금 액 (백만원)	수의계약 건 수	수의계약 비율(%)	비 고
2008년	금융관련 정책연구과제 12건	358	7건(6건*)	58.3(50*)	
2009년	금융관련 정책연구과제 11건	346.3	9건(6건*)	81.8(54.5*)	09.30 기준

\* 경쟁입찰하였으나,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된 연구용역 제외시

## 7. 최근 3년간 민원내역

###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07.1.1일부터 '08.2월말까지 舊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는 총 1,461건, 舊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223건의 민원 접수·처리
-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이후 '09.8월말까지 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총 5,798건

### ☐ 최근 3년간 민원내역 : 별도 첨부

# 200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처리내용
1	2007-01-02	소기업의 감사 자격질의	상담.안내
2	2007-01-02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담.안내
3	2007-01-02	본인의채우는 회복이가능 하지만 보증때문에 회복이 않되니	상담.안내
4	2007-01-02	유권해석요	상담.안내
5	2007-01-0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제한 부당	자체종결
6	2007-01-02	부동산 정책관련	상담.안내
7	2007-01-02	증권회사 임직원의 외국회사 주식 매매 가능 여부	자체종결
8	2007-01-02	채무금	상담.안내
9	2007-01-02	예보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진행 관련	상담.안내
10	2007-01-03	한국은행이 해야할 일	상담.안내
11	2007-01-03	저희집에 근저당을 풀어주셔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담.안내
12	2007-01-03	금융거래사건 너무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3	2007-01-03	국세체납으로	상담.안내
14	2007-01-03	개인의 신용정보조치가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15	2007-01-03	증권거래법 문의	자체종결
16	2007-01-03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자 조건 불합리성에 관하여(확대 필요)	상담.안내
17	2007-01-03	㈜에이스상호저축은행 관련	상담.안내
18	2007-01-03	제일신협외 부당행위 진정	상담.안내
19	2007-01-04	수급자 (신용불량자채무변제계획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0	2007-01-04	항고장	자체종결
21	2007-01-04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에 대한 해석	상담.안내
22	2007-01-04	신용 조회 기록 삭제	상담.안내
23	2007-01-04	개인신용정보 무단도용 행위시정	상담.안내
24	2007-01-05	1,면책자의신용조회삭제의건 2,면책자의학자금대출희망사항	상담.안내
25	2007-01-05	선량한 채무자를 고소하다니요	상담.안내
26	2007-01-05	-	자체종결
27	2007-01-05	개인정보 유출에따른 급여압류 건	자체종결
28	2007-01-05	특수 건물을 취급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는	상담.안내
29	2007-01-08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내용과 관련	상담.안내
30	2007-01-08	기술신용보증기금 불법 및 피해사례 고발	상담.안내
31	2007-01-08	표시,광고위반 대부업자 행정처분 관련 질의	자체종결
32	2007-01-09	자본시장 통합법과 저축은행	상담.안내
33	2007-01-09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교체 불가에대하여	상담.안내
34	2007-01-09	부당한 이자상환요구	상담.안내
35	2007-01-09	전당포를 대부업으로 등록을 받을수 있는지요?	자체종결
36	2007-01-09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적법질차 준수여부.	상담.안내
37	2007-01-09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으로 임직원에게 인	자체종결
38	2007-01-09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	상담.안내
39	2007-01-09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 관련하여.	자체종결
40	2007-01-09	제2금융권의 은행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상담.안내
41	2007-01-09	단위조합에 대한 신탁중앙회의 강제 출자금 증자요구	상담.안내
42	2007-01-10	보육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요청	상담.안내
43	2007-01-10	하이도탈	상담.안내
44	2007-01-10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여부	자체종결
45	2007-01-10	e모기지론 12월28일 금리인하 불구 시스템이 않되 금리 차등적	상담.안내
46	2007-01-10	e모기지론 자위로 위탁판매자 변경하고, 기존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안내
47	2007-01-10	e모기지론 12월28일 금리인하 불구 시스템이 않되 금리 차등적	상담.안내
48	2007-01-10	법령의 해석 및 적용(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선임)	상담.안내
49	2007-01-10	증권거래법 제191조 19 제3항 해석관련 질의	자체종결
50	2007-01-1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질	상담.안내
51	2007-01-11	한국산업은행 지하식당은 보안이 그렇게 필요한 곳인가요????	상담.안내
52	2007-01-11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운용가능여부	상담.안내
53	2007-01-11	신용카드와 할인카드 중복 사용건에 대하여	자체종결
54	2007-01-11	빌딩 매수관련 재경부 심사승인관련건	자체종결
55	2007-01-12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질의	상담.안내
56	2007-01-12	공개매수자의 전부매수의무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57	2007-01-12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정책제안
58	2007-01-12	증권거래법 191조의 19 제2항 제3항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59	2007-01-12	채무자변경, 신용불량등록유예	자체종결
60	2007-01-12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9 제2항, 제 3항 관련 질의	자체종결
61	2007-01-15	판매인력평가시험	자체종결
62	2007-01-15	합작공장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및 자사주 처분 관련 질의	상담.안내
63	2007-01-15	부당수령금 반환요청	상담.안내
64	2007-01-15	보험업법상 자회사 제한(보험제도와)	상담.안내
65	2007-01-15	자본시장통합법과 저축은행의 펀드판매여부	상담.안내
66	2007-01-15	증권거래법 191조의 19 제2항 제3항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67	2007-01-16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해석요청	상담.안내
68	2007-01-16	-	상담.안내
69	2007-01-16	국내 회사가 해외(홍콩)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	상담.안내
70	2007-01-16	한국은행 직원이 그렇게 높으신분인줄 몰랐습니다.	상담.안내
71	2007-01-16	대부업 관련 질의	상담.안내
72	2007-01-16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정책제안
73	2007-01-17	각 금융기관 지역집포에서 "지역사랑통장개설"가능성에 대한	상담.안내
74	2007-01-17	공인회계사 시험자격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75	2007-01-18	저축은행 파산 후	상담.안내
76	2007-01-18	신용규약의 적용문제	상담.안내
77	2007-01-18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와, 재질의 사항]스톡옵션 관련...	상담.안내
78	2007-01-18	공개매수자의 전부매수의무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79	2007-01-18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9 제2항, 3항 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80	2007-01-19	금융실명거래 부연 설명 요청드립니다.	자체종결
81	2007-01-19	금융실명거래의 부연 설명 요청	자체종결
82	2007-01-19	금융실명거래 부연 설명 요청드립니다.	자체종결
83	2007-01-19	외국대학 학점인정	상담.안내
84	2007-01-19	채권 정보를 알고싶어요.	자체종결
85	2007-01-19	한정상속승인과 판결내용 승복 관계	상담.안내
86	2007-01-19	대출보증서발급	상담.안내
87	2007-01-22	반드시 조사를.....	자체종결
88	2007-01-22	유권해석 요	상담.안내
89	2007-01-22	금융실명거래 부연 설명 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90	2007-01-22	금융실명거래 부연 설명 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91	2007-01-22	답답해서 문의 한번 드려 봅니다.	자체종결
92	2007-01-22	억울합니다.제발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3	2007-01-22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여부..	자체종결
94	2007-01-22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해제 이행 요청의 건	자체종결
95	2007-01-23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해제 이행 요청의 건	자체종결
96	2007-01-23	합작공장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및 자사주 처분 관련 질의	상담.안내
97	2007-01-23	증권거래법시행령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해석 질의	상담.안내
98	2007-01-23	신용규약조회	상담.안내
99	2007-01-23	시중은행 부동산 직거래 사업 중지검토 요청	상담.안내
100	2007-01-2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01	2007-01-24	<증권거래법 관련> 사외이사 결원 시 총족 기한	상담.안내
102	2007-01-24	국내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추이 자료	자체종결
103	2007-01-24	외국법인이 발행한 펀드연계 구조화증권이 증권거래법상 유가	상담.안내
104	2007-01-24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결격 요건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05	2007-01-2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석	상담.안내
106	2007-01-25	상근감사 결격 여부 관련	상담.안내
107	2007-01-25	안녕하세요...	자체종결
108	2007-01-25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관련 질의	자체종결
109	2007-01-25	임의단체 계좌개설시 단체명 부기 관련 질의	자체종결
110	2007-01-25	원금미회수로 인한 이자발생부분 책임여부	상담.안내
111	2007-01-25	상법 상 주주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112	2007-01-26	여전법 19조 4항의 해석	상담.안내
113	2007-01-26	정부 구조조정물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자체종결
114	2007-01-26	-	자체종결
115	2007-01-26	신용불량이란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116	2007-01-29	재정 경제부에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자체종결
117	2007-01-29	어이없는일을당했습니다!!!	상담.안내
118	2007-01-29	체크카드 발급조건 관련 문의	자체종결
119	2007-01-29	올바른 행정을 가로막는 이런 부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안내

120	2007-01-29	보험업법 제 116조 관련	자체종결
121	2007-01-29	카드빚 변제	자체종결
122	2007-01-29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	자체종결
123	2007-01-29	코스닥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상담,안내
124	2007-01-29	채무내용삭제 요청과 불법신용조회를 삼가해 주세요.	상담,안내
125	2007-01-29	부당 월급차압 행정조치	상담,안내
126	2007-01-30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담,안내
127	2007-01-30	접속이 너무너무 안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상담,안내
128	2007-01-30	대부업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체종결
129	2007-01-30	금융기관 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자체종결
130	2007-01-30	카드수수료 전가의 정의	자체종결
131	2007-01-31	2007년1월22일신권 배부에 관하여..	상담,안내
132	2007-01-31	신용회복에 관한 질의 및 해결요망	상담,안내
133	2007-01-31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134	2007-01-31	증권제도과 문서 N.386(2006.4.7)에 대한 추가 서면 민원질의	상담,안내
135	2007-02-01	상호저축은행법37조1항의 반대해석 등과 관련한 법령해석회신의 통지	상담,안내
136	2007-02-01	학자금 대출이 되려 댓이 되네요	자체종결
137	2007-02-01	한중상호저축은행 파산 (현 예금보험공사)	해결
138	2007-02-01	금융거래정보등	자체종결
139	2007-02-0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7 관련 질의	상담,안내
140	2007-02-02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지	자체종결
141	2007-02-02	저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자체종결
142	2007-02-02	회사의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관련	해결
143	2007-02-02	신용회복자또다시 신용불량자로나오는이유	자체종결
144	2007-02-02	소수주주권의 행사	상담,안내
145	2007-02-02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신용불량자라 하여 전세자금대출도 안	상담,안내
146	2007-02-05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을 적용대상 문의	상담,안내
147	2007-02-0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에 관하여.	상담,안내
148	2007-02-05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대여금)에 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149	2007-02-05	제일은행 노후생활연금신탁 상품, 만기 수령액과 계약당시의 수령액 차이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50	2007-02-06	[유권해석 질의] 동물병원의 동물의료보험 운영이 보험업법 위	자체종결
151	2007-02-06	주주의 책임 한계	상담,안내
152	2007-02-06	불법대출	자체종결
153	2007-02-06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대한 추가 질의	상담,안내
154	2007-02-06	부당한 연체정보 삭제요청	상담,안내
155	2007-02-06	메리츠화재해상보험(株)사 당사자 "자부담 금 250만원" "형령의혹" 등에 관하여	상담,안내
156	2007-02-07	조사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요청	상담,안내
157	2007-02-07	외국법인이 발행한 펀드연계 구조화증권이 증권거래법상 유가	상담,안내
158	2007-02-07	역올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59	2007-02-0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관한 질문	상담,안내
160	2007-02-07	감사위원중 회계재무 전문가의 자격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1	2007-02-07	지폐가 바뀌면서 파산지경 임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62	2007-02-08	주식매수선택권	상담,안내
163	2007-02-08	신용보증 기금 다니는 제 친구가 제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네	상담,안내
164	2007-02-08	은행보증제도 신용불량제도 개선요구 건	상담,안내
165	2007-02-08	실험중앙회의 전국 단위조합에 대한 강제 출자금 증자요구 부당성 지적 및 시정요구 건	상담,안내
166	2007-02-08	정부가조조정물건의 매수절차	상담,안내
167	2007-02-09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68	2007-02-09	기업은행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상담,안내
169	2007-02-09	기업은행장 선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상담,안내
170	2007-02-09	신용불량자들에 관한 의견	상담,안내
171	2007-02-12	이유가안되는보증서발급불가	상담,안내
172	2007-02-12	기업은행장 임명과 관련된 모든 기준과 실체를 공개하라!	상담,안내
173	2007-02-12	Daum상품권, Daum캐쉬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상담,안내
174	2007-02-12	기업은행장 임명과 관련된 모든 기준과 실체를 공개하라!	상담,안내
175	2007-02-12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관련 문의	상담,안내
176	2007-02-12	자기앞 수표 발행자의 지급거절 사유의 한계	상담,안내
177	2007-02-13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2항 1호 해석에 관한 건	해결
178	2007-02-13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2항 1호 해석에 대한 건	자체종결

179	2007-02-13	보증인도 모르는 대출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80	2007-02-13	화재보험 가입회사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81	2007-02-13	신용보증기금의 구분별한 기업유형위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의 조사 진정	상담.안내
182	2007-02-13	적대적 M&A로 부터 기업을 구하는 sos펀드	자체종결
183	2007-02-13	조폐공사 직원채용 문제.	상담.안내
184	2007-02-13	금융실명법 관련	상담.안내
185	2007-02-1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 및 제한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186	2007-02-14	증권회사 임직원의 해외상장 외국법인 주식 매입 가능 여부	상담.안내
187	2007-02-14	스위스은행 한국 Korea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6조 5천억 달러의 내용 요청	상담.안내
188	2007-02-15	채무감면특별조치	상담.안내
189	2007-02-15	신용보증기금 채무에 대하여	상담.안내
190	2007-02-15	예금잔고 지급	상담.안내
191	2007-02-16	은행법 등 개정시 용어정의 수정 및 통일	상담.안내
192	2007-02-16	화보법상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문의	상담.안내
193	2007-02-20	우리나라 검제를 위하여~	상담.안내
194	2007-02-20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인에 대한 이종청구 여부를 판단해주세요	상담.안내
195	2007-02-20	무상증자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여부	상담.안내
196	2007-02-20	대부업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197	2007-02-21	CPA시험 재외유학생 학점인정에 대해	상담.안내
198	2007-02-21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보증불이행 정보가 삭제 안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99	2007-02-21	공동사업자중 1사람의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차량구입대금	자체종결
200	2007-02-21	예보의 신뢰성 의심	상담.안내
201	2007-02-21	보증인에게 보증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상담.안내
202	2007-02-21	주식매수선택권 및 BOC(Board of Commissioner)관련	상담.안내
203	2007-02-22	금융실명법 관련 정보제공동의에 관한 건	자체종결
204	2007-02-22	감사의 자격 및 겸임 가능 여부	상담.안내
205	2007-02-22	간접투자상품판매교육 수강에 관해..	상담.안내
206	2007-02-22	주주에 관련된 상법관련 문의	상담.안내
207	2007-02-22	무상증자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수량 조정 가능여부 문	상담.안내
208	2007-02-22	장애자 증여세 면제	상담.안내
209	2007-02-22	삼성카드사와의 분쟁	상담.안내
210	2007-02-2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불법채권 추심고발	상담.안내
211	2007-02-22	연금수급자도 역모기지원에 신청가능 여부	상담.안내
212	2007-02-23	벤처패자부활제도개선안	상담.안내
213	2007-02-23	신용정보 조회 제한에 관하여	상담.안내
214	2007-02-23	간접투자증권 교육	상담.안내
215	2007-02-23	신용불량제도 관련 질문	상담.안내
216	2007-02-23	금융실명제 개선건	상담.안내
217	2007-02-23	부당한 신용 관리 대상 지정	상담.안내
218	2007-02-23	너무한 채권회수 조치	상담.안내
219	2007-02-26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후...	상담.안내
220	2007-02-26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조문 해석 요청	상담.안내
221	2007-02-27	영업 정지된 상호 저축 은행에서의 휴먼 예금 환수	상담.안내
222	2007-02-27	서민금융	상담.안내
223	2007-02-27	경기도분당 좋은저축은행 파산은 부당 예금자손실을 막아주세	상담.안내
224	2007-02-27	보증인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	상담.안내
225	2007-02-27	억울합니다. 우리나라는 빚 잘 갚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런	상담.안내
226	2007-02-28	희생절차신청 기업의 채무감면 및 출자전환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27	2007-02-28	변액보험펀드의 투자제한 사항-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자체종결
228	2007-02-28	신용조회및신용회복 방법	자체종결
229	2007-02-28	주식회사 코로신의 불법행위 관련	상담.안내
230	2007-03-02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31	2007-03-02	운전면허증의 실명증표 사용에 대한 문의	자체종결
232	2007-03-02	증권전산 코스콤 담당	상담.안내
233	2007-03-02	증권전산은 코스콤이 담당	상담.안내
234	2007-03-05	재산권의압류	상담.안내
235	2007-03-05	대부중개업등록	자체종결
236	2007-03-06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문의사항	상담.안내
237	2007-03-06	사금융 법정 최고 여자를	상담.안내
238	2007-03-06	변액보험펀드의 투자제한 사항	상담.안내
239	2007-03-0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40	2007-03-06	시간이 촉박합니다.	상담.안내
241	2007-03-07	예금액 상환	상담.안내
242	2007-03-07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 공유기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43	2007-03-08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담.안내
244	2007-03-08	아파트 가져분에 대한 이의 제기 건등..	상담.안내
245	2007-03-08	채권처리 문제때문인데요..	자체종결
246	2007-03-08	문의	상담.안내
247	2007-03-08	보험기간 만기 후 지급금액에 대한 기만행위	상담.안내
248	2007-03-09	어린이집의 금융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 가능범위 확인	자체종결
249	2007-03-09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횡포	상담.안내
250	2007-03-12	신 기보 출연료관련	상담.안내
251	2007-03-12	신용불량자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252	2007-03-12	진정서	상담.안내
253	2007-03-12	채권 매입 사업의 인허가 사업 여부 질의	상담.안내
254	2007-03-12	e-money(전자 코인 )발행요건	자체종결
255	2007-03-12	화폐관련의견개진	상담.안내
256	2007-03-12	은행에서 본인 확인	상담.안내
257	2007-03-12	남청주 신탁직원 및 신탁중앙회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한 긴급 조치 요청	상담.안내
258	2007-03-12	신보직원의 횡포	상담.안내
259	2007-03-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정정 요청	상담.안내
260	2007-03-12	예탁신탁 관련	상담.안내
261	2007-03-13	신권지폐가 생각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상담.안내
262	2007-03-13	신권유통에따른 자판기지폐교체...	상담.안내
263	2007-03-13	국고	상담.안내
264	2007-03-13	대부업을 등록할때 영업소 위치 관련.	자체종결
265	2007-03-13	진정서	상담.안내
266	2007-03-13	진정서	자체종결
267	2007-03-13	신용보증기금 직원 횡포 시정	상담.안내
268	2007-03-13	금융실명법관련 질의	상담.안내
269	2007-03-1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질의	상담.안내
270	2007-03-14	전당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체종결
271	2007-03-15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	상담.안내
272	2007-03-15	증권관련 정부정책 이행촉구	상담.안내
273	2007-03-16	채무 할부 상환	상담.안내
274	2007-03-19	식별정보 관련 유권해석 의뢰	상담.안내
275	2007-03-19	가맹점 할인카드 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76	2007-03-20	이런 경우도 대부업에 속하는지요?	자체종결
277	2007-03-20	증권거래소에 정보공개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상담.안내
278	2007-03-20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대출의 상계처리 요망	상담.안내
279	2007-03-20	일괄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문의	상담.안내
280	2007-03-21	이러한 법인이 유사수신행위에 걸리는 지	상담.안내
281	2007-03-21	자회사의 기준	상담.안내
282	2007-03-21	천원권과 만원권의 색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283	2007-03-22	백화점상품권은 개인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지요	상담.안내
284	2007-03-22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규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285	2007-03-22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286	2007-03-22	가족 대리인 예금거래시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상담.안내
287	2007-03-23	사교육비 문제/국책은행 민영화로 철밥통깨자	상담.안내
288	2007-03-23	사외이사 선임 관련 증권거래법 규정 유권해석 요청의 건	상담.안내
289	2007-03-23	파산, 면책시 위임한채권의 파기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	상담.안내
290	2007-03-23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관해	상담.안내
291	2007-03-26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로의 전환	상담.안내
292	2007-03-26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분류와 종류	상담.안내
293	2007-03-26	고속도로 통행료의 신용카드 사용불가 시정필요.	상담.안내
294	2007-03-26	조폐공사 직원 정대중 부장의 말..	자체종결
295	2007-03-26	보험대리행 관련 법률 질의	상담.안내
296	2007-03-27	주택금융공사 e모기지론의 결제일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상담.안내
297	2007-03-27	민원인을 우롱?	상담.안내
298	2007-03-27	CPA시험에서 유학생 학점 인정	상담.안내
299	2007-03-27	홍익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상담.안내
300	2007-03-27	실명거래 규정상의 연결계좌 개설 여부 문의	상담.안내
301	2007-03-27	보험회사 식별정보 정확성 유무 판별에 관한 건	상담.안내

302	2007-03-27	민원건	상담.안내
303	2007-03-27	전세권 및 근저당설정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상담.안내
304	2007-03-28	대부업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305	2007-03-28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마진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306	2007-03-28	직원배포용 신 화폐집에 관해..	상담.안내
307	2007-03-28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사실 여부 확인의	상담.안내
308	2007-03-28	금융권대출시 대부업 조회기록으로 신용등급우수자 반려	상담.안내
309	2007-03-28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계좌 조회에 관하여	자체종결
310	2007-03-28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보증에 대한 책임범위 질의서	상담.안내
311	2007-03-29	개인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차주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 가능여부	상담.안내
312	2007-03-29	신용불량이력 보존기관에 관하여	상담.안내
313	2007-03-30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하	자체종결
314	2007-03-30	화폐철 배부에 대한 재질의 및 홍보실장의 민원처리 불만	상담.안내
315	2007-03-30	전세권 및 근저당설정권 처분금지가처분에 다른 진정	상담.안내
316	2007-03-30	대부(대출) 중개업 문의.....	상담.안내
317	2007-03-30	대부(대출)중개업...문의	상담.안내
318	2007-03-30	신용회복은 말로만 하나요?	상담.안내
319	2007-04-02	보험제도과에 대부업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320	2007-04-02	재경부 보험제도과에 대부업관련 질의합니다(질의보충)	자체종결
321	2007-04-02	보험제도과 문의 (대부업법 3조 1항 관련)	자체종결
322	2007-04-02	(최종수정)재경부 보험제도과에 대한 대부업법 관련 질의	자체종결
323	2007-04-02	대부업부 3조 1항 관련 문의(보험제도과)	자체종결
324	2007-04-02	신용불량 등제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325	2007-04-02	흥익저축은행 영업정지	상담.안내
326	2007-04-02	압류이의	상담.안내
327	2007-04-0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격 관련 질의	상담.안내
328	2007-04-04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담.안내
329	2007-04-04	신용보증기금 압류관련	상담.안내
330	2007-04-04	스위스 은행 관련	상담.안내
331	2007-04-04	금융신용경색 관련 규제이후의 금융거래관련 질의	상담.안내
332	2007-04-04	대부업 관련	상담.안내
333	2007-04-05	회사의 신용도 평가	상담.안내
334	2007-04-05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335	2007-04-05	예금 제3자 대리거래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체종결
336	2007-04-05	재무설계를 하는 공인원 자격증에 있는지의 여부	상담.안내
337	2007-04-05	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상담.안내
338	2007-04-05	의무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 유지비 지출 거부 등	상담.안내
339	2007-04-0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340	2007-04-06	조폐공사 화폐집에 관해	상담.안내
341	2007-04-06	사업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여부 확인의 건	상담.안내
342	2007-04-09	간투법의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질의 입니다.	상담.안내
343	2007-04-09	대부업부 3조 1항 관련 문의(보험제도과)	상담.안내
344	2007-04-09	대부업관련 질의입니다.	자체종결
345	2007-04-09	희생자원건의	상담.안내
346	2007-04-09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상담.안내
347	2007-04-09	신용보증기금 규정의 위반 및 담당들의 과도한 업무횟포	상담.안내
348	2007-04-10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종결
349	2007-04-10	연대보증제도.	상담.안내
350	2007-04-10	우리나라 금융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담.안내
351	2007-04-10	재정경제부에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상담.안내
352	2007-04-10	금융실명거래 관련 은행에서 송금시 명의기재 관련	상담.안내
353	2007-04-11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추심 중단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되니까?	상담.안내
354	2007-04-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대출금 상환잔액 확인서 발급이 비밀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55	2007-04-12	전자금융거래법관련 질의의 건(은행제도과)	상담.안내
356	2007-04-12	폐기 관련	자체종결
357	2007-04-12	조폐공사의건	상담.안내
358	2007-04-13	황당한 신보변명에 대한 이의제기-2007. 04. 09. 접수번호	상담.안내
359	2007-04-13	임대주택 화재보험관련	상담.안내
360	2007-04-13	법령상의 금전단위를 따로 두자는 제안..	상담.안내
361	2007-04-13	임대주택화재보험	상담.안내
362	2007-04-13	할인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	자체종결



363	2007-04-16	외국인합자회사의 거부권 행사 지분 비율에 대한 문의	상담, 안내
364	2007-04-16	가압류해제 요청-2007. 04. 09. 접수번호 536호 관련	상담, 안내
365	2007-04-16	외환에 대해서	자체종결
366	2007-04-16	코스닥 추가 조작 관리위원회(가칭)설치 제의	상담, 안내
367	2007-04-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수량 조정 가능 여부	상담, 안내
368	2007-04-16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대한 탄원서	상담, 안내
369	2007-04-16	농신보에 변제한	자체종결
370	2007-04-16	중도상환수수료 강제징수의 건	상담, 안내
371	2007-04-17	농신보에 변제한 사유	상담, 안내
372	2007-04-17	대출을 받으면 상환할 능력은 있지만~~	상담, 안내
373	2007-04-18	제 2 금융권의 부당한 이자	상담, 안내
374	2007-04-18	재정경제부에서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각종금융회사의 신용정보의 제공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담, 안내
375	2007-04-18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대한 질의	상담, 안내
376	2007-04-19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건.	상담, 안내
377	2007-04-19	외국인투자업무시 실명 확인 서류에 대한 문제	자체종결
378	2007-04-19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요율	상담, 안내
379	2007-04-19	도와주세요	상담, 안내
380	2007-04-19	종업원의 일괄계좌 개설과 관련한 질의	자체종결
381	2007-04-19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양도양수 승인 취소요청	상담, 안내
382	2007-04-19	기술보증기금의 지나친 근거당권 설정, 가압류 등의 요구	상담, 안내
383	2007-04-20	법령상의 금전단위.	상담, 안내
384	2007-04-20	법령상의 금전단위(첨언)	상담, 안내
385	2007-04-20	은행업문 단축에 따른 효율적 운영 체제	상담, 안내
386	2007-04-20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유권해석 요청)	자체종결
387	2007-04-20	C2자금(총액한도대출) 업무개선 요청	자체종결
388	2007-04-20	신용불량자가 될수 뿐이 없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상담, 안내
389	2007-04-20	투자일임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질문	자체종결
390	2007-04-20	개인사업자 인증서 중복의 건	자체종결
391	2007-04-20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시스템	상담, 안내
392	2007-04-20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관련	상담, 안내
393	2007-04-23	파산 후 누락채권 처리문제..부탁드립니다 꼭...	상담, 안내
394	2007-04-24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요 여부	상담, 안내
395	2007-04-24	대부업 관련	자체종결
396	2007-04-24	제 신상정보에 다른사람의 기록이 청구되어 있습니다,,삭제하여주세요	상담, 안내
397	2007-04-24	증권시장명칭의견	상담, 안내
398	2007-04-2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안내
399	2007-04-25	금융실명제 관련 문의사항	상담, 안내
400	2007-04-25	대부업 등록 관련 영업장소는 가정집도 가능한지요?	상담, 안내
401	2007-04-25	도와주세요	상담, 안내
402	2007-04-25	채무상환	상담, 안내
403	2007-04-25	압류해제	상담, 안내
404	2007-04-25	기보 전주지점에 설정해제 요청 관련	상담, 안내
405	2007-04-26	제발!! 이젠 맘 편히 살고 싶습니다.	상담, 안내
406	2007-04-26	2007년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사업 허가권에 관련된 질의	상담, 안내
407	2007-04-26	2007년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사업 허가권에 관련된 질의	상담, 안내
408	2007-04-26	기술신용보증기금 조사 요청	상담, 안내
409	2007-04-26	예금보험공사이의	상담, 안내
410	2007-04-26	개인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여부	상담, 안내
411	2007-04-26	대부업 관련 유권해석 문의	자체종결
412	2007-04-26	기술보증기금의 지나친 근거당 설정, 가압류 등의 요구	상담, 안내
413	2007-04-26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	상담, 안내
414	2007-04-27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건	상담, 안내
415	2007-04-27	신용보증기금 송파지점 업무불만 민원	해결
416	2007-04-30	ABS, MBS가 증권거래법상 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담, 안내
417	2007-04-30	대출제도개선 등	상담, 안내
418	2007-04-30	대부업법시행이전 전당포영업허가를 받은 전당포업체도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상담, 안내
419	2007-05-01	농협계좌유출 및 사이버해킹에 대한 책임 및 담당직원 대응	해결
420	2007-05-0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종결
421	2007-05-01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재 일정기준에 의한 감독자란?	상담, 안내
422	2007-05-02	역모기지론	자체종결
423	2007-05-02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행사에 대한 질의	상담, 안내

424	2007-05-02	금융신용경색관련 규제이후의 금융거래 관련 유권해석 질의	상담.안내
425	2007-05-02	대부업 관련 유권해석 질의(대부거래의 채권참가방식 적용관련)	상담.안내
426	2007-05-03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를	자체종결
427	2007-05-03	외부감사인 교체의 건	상담.안내
428	2007-05-03	리디노미네이션(화폐절상) 을 해야 하는 이유!	상담.안내
429	2007-05-03	고액권 발행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이제는 종이 화폐 대	상담.안내
430	2007-05-03	cd금리는 계속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상담.안내
431	2007-05-03	고액권발행은 아날로그식 발상입니다.	상담.안내
432	2007-05-04	신용정보 무단검색	상담.안내
433	2007-05-04	역모기지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434	2007-05-04	탈세와 뇌물의 도구로 쓰일 10만원고액권 발행 중단	상담.안내
435	2007-05-04	상장법인의 신설인적분할합병시 합병가액의 산정시 증권거래법 의 적용여부	상담.안내
436	2007-05-04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437	2007-05-07	채무 년.월.일 과 금액줄알려주세요	상담.안내
438	2007-05-07	공과금 및 지로 용지에 대한 제안	상담.안내
439	2007-05-07	고액화폐도안에 대한 건의	상담.안내
440	2007-05-08	조폐공사의 사기 공모전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441	2007-05-08	향후 발생할 금융정보 제공 가능 여부	자체종결
442	2007-05-08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벌칙에 대한 유권질의해석 정해요청건	상담.안내
443	2007-05-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의 유권해석	자체종결
444	2007-05-09	신용회복위원회란?	상담.안내
445	2007-05-09	공과금 및 지로 용지	상담.안내
446	2007-05-09	공과금 및 지로 용지	상담.안내
447	2007-05-09	고려신용정보 관련 탄원	상담.안내
448	2007-05-10	휴먼카드 관리 간편화 방안	상담.안내
449	2007-05-10	신용카드최소금액설정	상담.안내
450	2007-05-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유권해석	상담.안내
451	2007-05-11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이 되었다면...	상담.안내
452	2007-05-11	주택청약시 신용불량자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신용불	상담.안내
453	2007-05-14	유관순열사 추상 추천	상담.안내
454	2007-05-14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서 상담문의	상담.안내
455	2007-05-14	정신지체자 예금계좌 개설	상담.안내
456	2007-05-14	재정경제부 보험제도와 여신전문금융업 법률 담당자님께..	상담.안내
457	2007-05-14	(탄원서)국방의무를 막은 재정경제부, 농신보	상담.안내
458	2007-05-14	(탄원서)국방의무를 재정경제부, 농신보 저지당하다.	상담.안내
459	2007-05-14	커피.음료 자동자판기 지폐기에 관하여	상담.안내
460	2007-05-14	상품권법에 대하여	상담.안내
461	2007-05-14	화폐관련 접예 관한 제안	상담.안내
462	2007-05-14	화폐 인물에 대해	상담.안내
463	2007-05-14	대부업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상담.안내
464	2007-05-15	재정경제부령찾기	상담.안내
465	2007-05-15	재평가 불가 통보에 대한 의견	상담.안내
466	2007-05-15	인터넷뱅킹사용이안되 전화를하니 너무나 뻔뻔해하는 금융결제 원상담원..	상담.안내
467	2007-05-15	국방의무를 막은 재정경제부, 농신보의 횡포 (환경부에서 알고 있었야!)	상담.안내
468	2007-05-15	파산.면책 서류준비간소화에 필요한 채권자 청구일원화	상담.안내
469	2007-05-16	은행연합회의 졸속 업무 처리	상담.안내
470	2007-05-16	신용불량자 제도 문제점	상담.안내
471	2007-05-16	예금보험공사의 서민에 고통주는 불합리한 행정진행방식	상담.안내
472	2007-05-16	금융실명제도에서 가족계좌 개설시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유효 기간 확인 요청	상담.안내
473	2007-05-16	신용불량제 제도 문제점	상담.안내
474	2007-05-16	(탄원서)국방의무를 막은 재정경제부; 농신보의 횡포 기획예산 처에서 알고 있었야!	상담.안내
475	2007-05-16	(탄원서)국방의무를 막은 재정경제부, 농신보의 횡포(여성가족 부도 알아야!)	상담.안내
476	2007-05-17	임대아파트	상담.안내
477	2007-05-17	간접투자증권 상품 판매인력 교육이수 제도관련 요청질의.	상담.안내
478	2007-05-17	제4금융권의 고액 금리 연66%	상담.안내
479	2007-05-17	금융실명법 위반한 신한은행 고발	상담.안내
480	2007-05-18	부산 전포동 667-16번지 이오스프라자 건축주명의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481	2007-05-18	신용불량자 제도 문제점	상담.안내

482	2007-05-18	기술보증기 100% 안되면 세계 초일류 기술을 팔아 버리겠다.	상담.안내
483	2007-05-18	투자자문사 등록요건 유지여부	상담.안내
484	2007-05-1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23조와 제24조의 해석의	상담.안내
485	2007-05-18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인터넷 쇼핑물 거래형태 관련 문의	상담.안내
486	2007-05-18	장애인 취업관련 민원	상담.안내
487	2007-05-18	교보생명 상장 중지요청에 관한 건	상담.안내
488	2007-05-21	팔은 안으로 굽는다.	상담.안내
489	2007-05-21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제4호 관련 문의	상담.안내
490	2007-05-2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에 관해.	상담.안내
491	2007-05-21	신보 출연료 관련	상담.안내
492	2007-05-21	법률 유권해석	상담.안내
493	2007-05-21	유권해석	상담.안내
494	2007-05-21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495	2007-05-21	부실채권 유상 매수 관련 질의	상담.안내
496	2007-05-22	농신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자체종결
497	2007-05-22	믿어도 될까요?	상담.안내
498	2007-05-22	부천신용보증기금의 잘못된 원금적용의 민원 입니다.	상담.안내
499	2007-05-23	불법 아닌가요?	상담.안내
500	2007-05-23	누가 신용정보사들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팔아먹게 허가해주었는가??	상담.안내
501	2007-05-23	신용불량제도 문제점 추가 질의	상담.안내
502	2007-05-23	채무상환관련	상담.안내
503	2007-05-23	신용불량 제도 문제점 개정 요청	상담.안내
504	2007-05-23	누가 신용정보사들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팔아먹게 허가해주었는가??	상담.안내
505	2007-05-25	제정경제부의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안내
506	2007-05-25	누가 신용정보사들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팔아먹게 허가해주었는가??	상담.안내
507	2007-05-25	금융기관채무자내용목록	상담.안내
508	2007-05-25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509	2007-05-25	국내 PB(Private Banking)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상담.안내
510	2007-05-25	법령해석 의뢰요청	상담.안내
511	2007-05-28	무료보험가입문의	상담.안내
512	2007-05-28	금융사및 카드사 부채내역	상담.안내
513	2007-05-28	금융사.카드사	상담.안내
514	2007-05-28	진정서	상담.안내
515	2007-05-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	상담.안내
516	2007-05-28	유상증자시 스톡옵션행사가격조정을 안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517	2007-05-28	조폐공사의 사기공모전 재민원	상담.안내
518	2007-05-2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문의	상담.안내
519	2007-05-28	대부업 등록 여부	상담.안내
520	2007-05-28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안내
521	2007-05-28	채무 관련 의 건	상담.안내
522	2007-05-28	금융거래정보 무단제공 관련	상담.안내
523	2007-05-29	은행대출금리	상담.안내
524	2007-05-29	제정 경제부로 이관된 건 확인 하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525	2007-05-29	연대보증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상담.안내
526	2007-05-29	진정서	상담.안내
527	2007-05-29	신용불량자를 돕자	상담.안내
528	2007-05-29	개인신용을 좀 더 너그럽게..	상담.안내
529	2007-05-29	대포폰과 대포통장등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	상담.안내
530	2007-05-30	에금보험공사의 부당한 가압류	상담.안내
531	2007-05-30	신용보증기금은 잘못이 없나요?	상담.안내
532	2007-05-30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고 가압류를잡나요?	상담.안내
533	2007-05-30	금융실명법	상담.안내
534	2007-05-30	간투상품 판매인력교육에 대한 교육기관 범위 확대	상담.안내
535	2007-05-30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관련 문의	상담.안내
536	2007-05-30	말고도 먼 신용회복의 길	상담.안내
537	2007-05-30	금감원의 민원회신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538	2007-05-31	여신전문금융업상 결제대행 해당 여부 문의	상담.안내
539	2007-05-31	자기앞수표 배서 확인 관련	상담.안내
540	2007-05-31	청구금액	상담.안내
541	2007-06-01	어제 받은 민원답변에 대한 재질문	상담.안내

542	2007-06-01	파산면책자의 특수기록이 너무 가혹합니다	상담.안내
543	2007-06-01	저의 파산면책자의 특수기록관리가 너무 가혹합니다	상담.안내
544	2007-06-01	실명전환 업무 관련 질의	자체종결
545	2007-06-01	대부업체 이자 40%정책에 대한 제안서...	상담.안내
546	2007-06-04	주택금융공사 독촉	상담.안내
547	2007-06-04	금융거래법에 대하여	상담.안내
548	2007-06-04	대부업체 위반	상담.안내
549	2007-06-04	편의 전쟁	상담.안내
550	2007-06-04	노동조합의 대부행위 관련	상담.안내
551	2007-06-04	은행 저축예금의 서비스제공 무대요건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상담.안내
552	2007-06-04	연예인대부광고	상담.안내
553	2007-06-04	대부업(일수)의 이자율 OECD기준	상담.안내
554	2007-06-04	(주)정리금융공사 대표님에 대한 직무불성실과 직무태만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555	2007-06-0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	자체종결
556	2007-06-05	간접투자증권 상품 판매인력 교육이수	상담.안내
557	2007-06-05	오픈마켓 PG사 등록업체 선정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558	2007-06-05	KTF 신규 개통시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로 인해 신용도 하락	상담.안내
559	2007-06-05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560	2007-06-05	답답해서 올립니다.	상담.안내
561	2007-06-05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 가능주체에 대한 문의	자체종결
562	2007-06-05	대부업 법적 연이율좀 더 낮춰 주세요...	상담.안내
563	2007-06-05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상담.안내
564	2007-06-07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완화	상담.안내
565	2007-06-07	금융소외계층지원	해결
566	2007-06-07	보증기금	자체종결
567	2007-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상담.안내
568	2007-06-07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상담.안내
569	2007-06-07	신용카드단말기도입	상담.안내
570	2007-06-07	결제대행 해당 여부 추가 문의	해결
571	2007-06-07	국방의무를 막은 재경부 농신보의 철폐	상담.안내
572	2007-06-07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573	2007-06-08	카드 결제대행업체에 수수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574	2007-06-08	유권해석	상담.안내
575	2007-06-08	감사 해임 관련	상담.안내
576	2007-06-08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해석상 문제점	상담.안내
577	2007-06-08	은행연합회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기록 삭제 요구	상담.안내
578	2007-06-08	ktf의 동의없는 신용정보조회관련	상담.안내
579	2007-06-08	이월맨 어떡하나요?	상담.안내
580	2007-06-08	부도덕한 금융자 신고(기보 인천지점)	상담.안내
581	2007-06-11	무역중개업관련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582	2007-06-11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583	2007-06-11	해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84	2007-06-12	신용보증기금 대구복지점 변대수씨의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해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상담.안내
585	2007-06-12	신불자보다 못한 신불자	상담.안내
586	2007-06-12	대중매체 특히 TV에서 나오는 대출광고에 관하여	상담.안내
587	2007-06-12	새 화폐 인출도안 선정에 대한 청원	상담.안내
588	2007-06-12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등록 소관부처	상담.안내
589	2007-06-13	사모펀드에 관하여...	상담.안내
590	2007-06-13	신용보증기금이의	상담.안내
591	2007-06-13	신용보증기금 대구복지점 변대수씨의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담.안내
592	2007-06-13	재심소장 인천지방법원2007재심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당	상담.안내
593	2007-06-13	도외주십시오	상담.안내
594	2007-06-13	문중 돈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방법은?	상담.안내
595	2007-06-14	공인회계사합격증	상담.안내
596	2007-06-14	익명조합과 유가 증권 신고서	상담.안내
597	2007-06-14	연대보증건	상담.안내
598	2007-06-14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주채무자에대한 채권 회수 노력문제건	상담.안내
599	2007-06-15	폐사가 서비스중인 "다음캐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00	2007-06-15	대부업이자관련-보험제도과	상담.안내
601	2007-06-15	결제대행업	상담.안내
602	2007-06-18	채무 이자가 부당해서..	상담.안내
603	2007-06-18	사채이자의 폭리	상담.안내
604	2007-06-19	채무상환금액 확인 요청	상담.안내

605	2007-06-19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및 답변해주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 총규표님. 안녕하십니까?	상담.안내
606	2007-06-19	퇴직연금과 보험 보호되는지요?	상담.안내
607	2007-06-19	kit에 휴대전화 가입했는데 저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상담.안내
608	2007-06-19	새 화폐 인물도안 선정	상담.안내
609	2007-06-20	Grameen Bank의 성공요인와 사회투자재단의 성공 요인	상담.안내
610	2007-06-20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에 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611	2007-06-20	과도한 이자율은 불공정거래입니다.	상담.안내
612	2007-06-20	(탄원서)국방의무를 재정경제부, 농신보 저지당하다.	상담.안내
613	2007-06-20	신용조회 및 정부대책방안	상담.안내
614	2007-06-20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관련	상담.안내
615	2007-06-20	파산면책 후 특수코드(1201) 에 관하여	상담.안내
616	2007-06-20	주식매수선택권 조정 관련	상담.안내
617	2007-06-21	2AA-0706-022211 처리에 대한 재문의	상담.안내
618	2007-06-21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하여	상담.안내
619	2007-06-21	2번 민원제기한 정의헌입니다.	상담.안내
620	2007-06-21	금융 정책	상담.안내
621	2007-06-21	대부업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22	2007-06-22	서민잡는 이자 이자 탕감 850만원	상담.안내
623	2007-06-22	가압류해제	상담.안내
624	2007-06-22	신용 불량자 고용에 관하여	상담.안내
625	2007-06-25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626	2007-06-25	무보증소액대출에 대한 안내	상담.안내
627	2007-06-25	할부거래법과 신용카드법	상담.안내
628	2007-06-26	우둔한 죄밖에 없는데요	상담.안내
629	2007-06-26	모순많은 신용평가....	상담.안내
630	2007-06-26	대부업 이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상담.안내
631	2007-06-26	대부업법 관련	상담.안내
632	2007-06-27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633	2007-06-27	대출원리금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여부 (유권해석)	상담.안내
634	2007-06-27	용도변경을위해서....	상담.안내
635	2007-06-28	살길이 너무 막막 합니다	상담.안내
636	2007-06-28	<역모기지론 대상 65세이상고령자의 6억이하 주택 소유 현황 > 자료 알려주세요 ~	상담.안내
637	2007-06-29	부도난 남편회사 주주가 아닌 아내의 보증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나요.	상담.안내
638	2007-06-29	남편회사 무주주에 감사로 올려있다 부도가 났을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나요	상담.안내
639	2007-06-29	카드수수료 인하	상담.안내
640	2007-06-29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기준	상담.안내
641	2007-06-29	돈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라~	상담.안내
642	2007-06-29	고금리 대부업 허가폐지	상담.안내
643	2007-06-29	쓰레기봉투 판매시 신용카드 구매에 대하여	상담.안내
644	2007-07-02	보험료 카드결제...그리고 재경부 공무원에게	상담.안내
645	2007-07-02	어음보증서 발행에 대한 질의(신보 원주지점)	상담.안내
646	2007-07-03	신용보증기금의 이자율과 담당직원의 직무태도	상담.안내
647	2007-07-03	신용보증기금의 이자율과 담당직원의 직무태도	상담.안내
648	2007-07-03	"법법법 회원에 대한 외상판매"가 "어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 카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49	2007-07-03	금융기관 휴면계좌 지급방식 개선	상담.안내
650	2007-07-03	재정경제부의 압류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651	2007-07-03	대부업체의 전주는 대부업등록을 해야 합니까??	상담.안내
652	2007-07-03	역모기지론 시행관련	상담.안내
653	2007-07-03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기업평가 업무가 가능한 기관은?	상담.안내
654	2007-07-0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기관에 가압류 해제에 관한 선처 요청	상담.안내
655	2007-07-04	신용보증기금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	상담.안내
656	2007-07-04	대부업 등록에 관한 질문	상담.안내
657	2007-07-04	천대받은 60대 초반	상담.안내
658	2007-07-04	㈜케이엔티 광주지점의 익명 조합투자 설명회 관련	상담.안내
659	2007-07-04	신용보증기금의 회수보증제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60	2007-07-04	상록수 제일 유통화 전문회사의 채무변제 관련	상담.안내
661	2007-07-05	증권 감독위원회 없애버려야한다	상담.안내
662	2007-07-05	대부업 등록에 관하여	상담.안내
663	2007-07-05	보험 설계사 판매사 등록관련	상담.안내
664	2007-07-05	역모기지론에 관해서	상담.안내
665	2007-07-06	대부업발표에 관하여	상담.안내
666	2007-07-06	신용보증기금 황의돌직원..개인정보조회 남용	상담.안내
667	2007-07-06	비상장법인의 금감위등록 여부	상담.안내

668	2007-07-06	신용불량 제등록	상담.안내
669	2007-07-06	전자금융거래법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관련	상담.안내
670	2007-07-06	급여 임원의 퇴직시 개인 입보 해지에 관한 건	상담.안내
671	2007-07-06	예보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해고 관련	상담.안내
672	2007-07-09	보증인 보증해지 구제요청 건입니다	상담.안내
673	2007-07-09	상품권 사기	상담.안내
674	2007-07-09	[질의] 증권회사의 상품권 위탁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	상담.안내
675	2007-07-09	경매취하에 대하여	상담.안내
676	2007-07-09	장기전세자금 대출관련 정부정책 의문사항	상담.안내
677	2007-07-10	어음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제도의 형편성	상담.안내
678	2007-07-10	2.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부동산가압류	상담.안내
679	2007-07-10	대부업	상담.안내
680	2007-07-10	개인 정보 유출 건	상담.안내
681	2007-07-10	신용보증료 관련하여	상담.안내
682	2007-07-10	법이우선인지 사회정의가우선인지요...	상담.안내
683	2007-07-11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 계약	상담.안내
684	2007-07-11	신용보증기금 추심팀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	상담.안내
685	2007-07-11	보급자리론 대출 자격 규제 개선 요구	상담.안내
686	2007-07-11	보급자리론의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 건의	상담.안내
687	2007-07-11	대부업 이자를 축소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688	2007-07-11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관련 유권해석 의뢰	상담.안내
689	2007-07-11	채권추심	상담.안내
690	2007-07-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운용 상의 규제 개선 제안	상담.안내
691	2007-07-1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운영상의 규제 합리화 제안	상담.안내
692	2007-07-11	분당 좋은저축은행 진행과정 부당행위	상담.안내
693	2007-07-11	대부업체 관련	상담.안내
694	2007-07-12	간접투자상품판매교육에 대하여	상담.안내
695	2007-07-12	주식 주문세 대하여	상담.안내
696	2007-07-12	비금융권 회사의 상품교환권 지급행위 가능여부	상담.안내
697	2007-07-12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상담.안내
698	2007-07-12	카드수수료를 조정	상담.안내
699	2007-07-12	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대출 개선 제안	상담.안내
700	2007-07-12	통장개설 관련 금융실명제	상담.안내
701	2007-07-12	지역난방 증시상장 반대의견 송부	상담.안내
702	2007-07-12	지역난방 증시상장 반대의견 송부	상담.안내
703	2007-07-13	대부업 등록기준?	상담.안내
704	2007-07-13	신용카드사용 적용범위 질의	상담.안내
705	2007-07-13	특수건물 "병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706	2007-07-16	민원재기했던 추심이 또 자행됨	상담.안내
707	2007-07-16	삼화상호저축은행이 민원인에게 와서 청구서 받아가지조	상담.안내
708	2007-07-16	법인인 주요주주(특수관계인포함)에 대한 자금대여,지급보증 가능여부 질의	상담.안내
709	2007-07-16	말도 안되는 주문세 도입~!	상담.안내
710	2007-07-16	[ 주식 주문당, 수수료?? 말이 됩니까?? ]	상담.안내
711	2007-07-16	(필독)==주식=주문세== 절대반대=	상담.안내
712	2007-07-16	주문건당 수수료정수 반대...	상담.안내
713	2007-07-16	[ 주식 주문당, 수수료?? 말이 됩니까?? ]	상담.안내
714	2007-07-16	세금 만드는 방법이 치졸하게 보입니다.	상담.안내
715	2007-07-16	입법 예고된 연 49% 상한금리 반대	상담.안내
716	2007-07-18	주택연금제도에대하여	상담.안내
717	2007-07-18	호반리젠시빌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상담.안내
718	2007-07-18	상품권의 재활용 여부	상담.안내
719	2007-07-18	과태료 처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담.안내
720	2007-07-18	카드결제	상담.안내
721	2007-07-18	신보의 가압류 해지 관련	상담.안내
722	2007-07-19	변.제.각.서 ..이런서류에 사인을 해줘야할지.	상담.안내
723	2007-07-19	계좌번호를 공개해주십시오.	상담.안내
724	2007-07-20	주택연금(역모기지론)제도 보완 건의에 관한 건	상담.안내
725	2007-07-20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가압류와 연체이자	상담.안내
726	2007-07-20	보험업법 개정 요구	상담.안내
727	2007-07-20	건당 주문세라는게 시행된다는데 대체 이게 뭘소린가요?	상담.안내
728	2007-07-20	주택금융공사 이모기지론의 대출금리 인상 적용자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729	2007-07-20	e-모기지론 금리인상 적용기준 및 시기 조정	상담.안내
730	2007-07-20	주택금융공사의 불합리한 금리인상	상담.안내
731	2007-07-20	모기지론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732	2007-07-20	주택금융공사의 말없는 금리인상...	상담.안내
733	2007-07-20	역모기지 관련	상담.안내
734	2007-07-20	재경부 정책 가정파탄 집단인가?	상담.안내

735	2007-07-23	주식 주문시마다 수수료부과한다니.....	상담.안내
736	2007-07-23	4.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상담.안내
737	2007-07-23	유권해석	상담.안내
738	2007-07-23	금융공사의 앞뒤없는 금리인상.....	상담.안내
739	2007-07-23	금일 원칙없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인상에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담.안내
740	2007-07-23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인상	상담.안내
741	2007-07-23	e-모기지론 관련하여	상담.안내
742	2007-07-23	사금융 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743	2007-07-23	한국주택금융공사 e-모기지 금리인상의 件	상담.안내
744	2007-07-23	금리인상에 따른 모기지론 대출금리 상향조정 건....	상담.안내
745	2007-07-23	주택금융공사 금리인상건	상담.안내
746	2007-07-23	주택금융공사의 부당한 모기지론 금리인상	상담.안내
747	2007-07-23	주택공사의 이모기지론, 날치기 금리인상에 항의합니다	상담.안내
748	2007-07-23	한국금융주택공사의 부당한 금리인상공지	상담.안내
749	2007-07-23	유예기간 없이 촉박하게 이모기지론을 인상하여, 대출신청자에게 혼선을 준 담당자를 민원신청합니다.	상담.안내
750	2007-07-23	e-모기지론 금리인상 재고 요청	상담.안내
751	2007-07-23	e-mortgage론 금리 기습 인상관련	상담.안내
752	2007-07-23	보증자리론의 금리인상에 대하여...	상담.안내
753	2007-07-23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기관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754	2007-07-23	한국주택금융공사 e-모기지론의 갑작스런 금리인상	상담.안내
755	2007-07-23	주택금융공사 이모기지론의 대출금리 인상 적용자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756	2007-07-23	<이모기지론> 금리 인상 적용날짜 왜이래요?	상담.안내
757	2007-07-23	주택금융공사 금리인상	상담.안내
758	2007-07-23	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인상 적용 시 기 계약자의 금리인상은 부당합니다.	상담.안내
759	2007-07-23	승인까지다받고 갑자기 금리인상이라니.....	상담.안내
760	2007-07-23	이모기지론 대출금리...인상..	상담.안내
761	2007-07-23	고작 생각해낸게 주식 주문건마다 세금 붙이겠다?	상담.안내
762	2007-07-23	연대 보증	상담.안내
763	2007-07-23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인상건	상담.안내
764	2007-07-23	보험업 관련	상담.안내
765	2007-07-24	대부업자의 정의와 처벌	상담.안내
766	2007-07-24	3.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부동산 가압류	상담.안내
767	2007-07-24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상담.안내
768	2007-07-24	신용카드사용 적용범위 제질의	상담.안내
769	2007-07-24	채무변제후 채무청구	상담.안내
770	2007-07-24	중고차할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품질보증 시행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771	2007-07-24	시설대여업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772	2007-07-24	한국기업데이타㈜의 부당행위 조사요망	상담.안내
773	2007-07-24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록 건	상담.안내
774	2007-07-24	신용협동조합법 유권해석 상담	상담.안내
775	2007-07-25	금리인상	상담.안내
776	2007-07-25	주식거래 수수료(주문시에도) 반대	상담.안내
777	2007-07-25	e 모기지론 금리인상건을 4일만에 변경한 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778	2007-07-25	e모기지론 금리인상 관련	상담.안내
779	2007-07-25	휴먼자금 대출 방법건	상담.안내
780	2007-07-25	공인회계사법 관련질의	상담.안내
781	2007-07-25	은행법제2조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782	2007-07-25	금융권에서 발생한 이자부분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783	2007-07-25	채무관련정보	상담.안내
784	2007-07-26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정부기관 너무 합니다.	상담.안내
785	2007-07-26	보험사가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해도 되나요 ?	상담.안내
786	2007-07-26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상담.안내
787	2007-07-27	신용보증기금-연대보증인	상담.안내
788	2007-07-27	자동차 시설대여업 관련 문의 사항	상담.안내
789	2007-07-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관련 구체적 업무절차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790	2007-07-30	판공비가 유부녀 유혹비인가?	상담.안내
791	2007-07-30	신보보증기금의 횡포...사채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상담.안내
792	2007-07-30	신협의 부채 관계	상담.안내
793	2007-07-30	이사회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일	상담.안내
794	2007-07-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사항 등)에서 말하는 주식취득	상담.안내
795	2007-07-31	모기지론 금리인상 이랬다 저랬다	상담.안내
796	2007-07-31	계좌개설 정보 삭제 가부	상담.안내
797	2007-07-31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관련 횡포	상담.안내
798	2007-07-31	성과보종료 귀속시기	상담.안내
799	2007-07-31	2000년도 "LG Card"보험가입 확인 재요청	상담.안내

800	2007-07-31	이백수 보험 재무부 인가여부 확인	상담.안내
801	2007-08-01	e-모기지 피해사항	상담.안내
802	2007-08-01	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자격시험 문의	상담.안내
803	2007-08-01	금융실명제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804	2007-08-01	보험금 지급관련(교보생명)	상담.안내
805	2007-08-02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806	2007-08-02	간접투자상품교육에 관하여	상담.안내
807	2007-08-02	전세자금 대출이 공금합니다.	상담.안내
808	2007-08-02	사회복지법인 원생 보통예금통장개설시 실명확인??	상담.안내
809	2007-08-03	민원답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합니다.(1AA-0707-037492)	상담.안내
810	2007-08-03	전세자금대출 왜안되는지...	상담.안내
811	2007-08-03	증여세 감면을 위한 부동산신탁방안질의	상담.안내
812	2007-08-03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대출 관련 문의	상담.안내
813	2007-08-03	신용불량자가 폐지된 신용 불량자 제도 해당 여부	상담.안내
814	2007-08-03	신용보증기금 취하 건 관련	상담.안내
815	2007-08-06	호가창 변경을 통한 허수주문 방지책및 주문세관련 소액 단기, 분산투자자에 대한 변론	상담.안내
816	2007-08-06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후 무책임	상담.안내
817	2007-08-06	신용회복 지원	상담.안내
818	2007-08-06	신용보증기금의 압류건	상담.안내
819	2007-08-06	장애인 부동산 신탁을 받아줄수 있는 업체명단 요청	상담.안내
820	2007-08-07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담.안내
821	2007-08-07	금융분업	상담.안내
822	2007-08-07	사채업자와 다름바없이 원금보다 많은 7년의 연체이자를 다 받겠다니요?	상담.안내
823	2007-08-07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824	2007-08-0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모순...바로잡아주심	상담.안내
825	2007-08-07	비조합이 참여한 결의(투표)가 유효한가의 건	상담.안내
826	2007-08-08	대부업법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827	2007-08-08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관련	상담.안내
828	2007-08-08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급여 압류 독촉 건	상담.안내
829	2007-08-08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예외로 대상인가요?	상담.안내
830	2007-08-08	진정서	상담.안내
831	2007-08-08	미래에셋생명FC취업	상담.안내
832	2007-08-08	대부업법 시행령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833	2007-08-08	기 신보 관련 민원	상담.안내
834	2007-08-08	좋은 저축은행 관련	상담.안내
835	2007-08-09	파산후 면책 ...면책후 불이익	상담.안내
836	2007-08-09	핸드폰 연체료 때문에 ..	상담.안내
837	2007-08-09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838	2007-08-09	개인정보 무단사용	상담.안내
839	2007-08-09	할인점의 무료배송제도와 신용카드 수수료좀 낮춰주세요	상담.안내
840	2007-08-1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해결
841	2007-08-10	대부업 이자율 소급...	해결
842	2007-08-10	2.예금보험공사 가압류 추가민원	상담.안내
843	2007-08-10	신용보증기금의 태도	상담.안내
844	2007-08-10	대부업 변경등록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요청	상담.안내
845	2007-08-10	통보없이 이자인상...	상담.안내
846	2007-08-10	예금보험공사 가압류 추가민원	상담.안내
847	2007-08-10	금융결제원건물 이전 건의	해결
848	2007-08-10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해결
849	2007-08-10	2.예금보험공사 가압류 추가민원	상담.안내
850	2007-08-10	신체 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관련 질의사항	상담.안내
851	2007-08-13	억울한 신용불량	상담.안내
852	2007-08-13	불안한 금융시장	상담.안내
853	2007-08-13	속타는 애기좀 들어보실래요...	상담.안내
854	2007-08-13	차명거래 과태료처분	상담.안내
855	2007-08-13	불법추심	상담.안내
856	2007-08-13	신용카드결제에 관한 사항	상담.안내
857	2007-08-13	대부업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상담.안내
858	2007-08-14	현금아닌 카드로 세금 납부에 대하여..	상담.안내
859	2007-08-14	2002년 대출건인데요.....	상담.안내
860	2007-08-14	대출이 안되요.	상담.안내
861	2007-08-14	주택연금 제도 개선	상담.안내
862	2007-08-14	국민신용정보(위)의 사기행각 고소	상담.안내
863	2007-08-14	베드뱅크 희망모아 부채탕감 관련	상담.안내
864	2007-08-14	예보의 불법적인 동아생명인수로 인한 진정인의 책임부분 최소화 요청	상담.안내



865	2007-08-16	자사주 직접 취득기간중 또는 완료후 금전신탁해지를 위한 자사주 매각 가능여부	상담.안내
866	2007-08-16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하는지요.	상담.안내
867	2007-08-16	암류이의	상담.안내
868	2007-08-16	금전신탁 자사주 매각 및 해지 관련	상담.안내
869	2007-08-16	주식 액면분할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870	2007-08-16	서울남부지방법원김정석집행관님과 부산상호저축은행(서울신용정보)정보주씨	상담.안내
871	2007-08-16	금융시장 정책	상담.안내
872	2007-08-16	채무불이행자등록후	상담.안내
873	2007-08-17	취업선처	상담.안내
874	2007-08-17	기업구조조정촉진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담.안내
875	2007-08-17	비상근 감사를 상근 감사로 임명 할려고 합니다.	상담.안내
876	2007-08-20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의 보증대출 관련 부조리 신고	상담.안내
877	2007-08-20	주식시장 규제의 대상을 큰 자본으로 투자하는 불공정투자자들로 한정하자.	상담.안내
878	2007-08-20	재경부 사항맞게 하셨지만 발표문(=내용문)은 아니라는 것입니	상담.안내
879	2007-08-20	변화된 주식환경	상담.안내
880	2007-08-20	고유토지 소유자의 주택연금 신청서, 민원상담 응대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 요청	상담.안내
881	2007-08-20	관계기업의 매출 불인정	상담.안내
882	2007-08-20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여부	상담.안내
883	2007-08-20	은행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건	상담.안내
884	2007-08-21	주택연금신청 심사 방법(공유물) 개선요청	상담.안내
885	2007-08-21	공유토지 소유자의 주택연금 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요청	상담.안내
886	2007-08-21	예금통장	상담.안내
887	2007-08-21	자사주 취득/처분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888	2007-08-21	제3자발행 상품권발행시 관련	상담.안내
889	2007-08-21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890	2007-08-21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거래	상담.안내
891	2007-08-21	증권거래법 191조의 19 제1항 2호의 유권해석 관련	상담.안내
892	2007-08-21	서민을 울리며 채무금 회수하는 정리금융공사	상담.안내
893	2007-08-22	이미 대출이 확정된 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신보로 부담 주체의 건	상담.안내
894	2007-08-22	연대보증인의 채무잔액에 대하여	상담.안내
895	2007-08-22	자사주 금전신탁계약 만기 해지 가능여부 문의	상담.안내
896	2007-08-22	신권발행후 착오를 이용한 사건....	상담.안내
897	2007-08-23	답변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상담.안내
898	2007-08-23	신보 출연료와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상담.안내
899	2007-08-23	하이토타 상품권에 대하여	상담.안내
900	2007-08-23	고객권발행 반대에 대한 대책	상담.안내
901	2007-08-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절차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902	2007-08-23	금리인하 요구	상담.안내
903	2007-08-23	학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함	상담.안내
904	2007-08-23	연금대출	상담.안내
905	2007-08-23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모기지론 징구 서류 관련	상담.안내
906	2007-08-24	신용회복가입기관확대에 대하여	상담.안내
907	2007-08-24	신보 인천서지점의 보증대출 관련 부조리 신고	상담.안내
908	2007-08-27	사외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상담.안내
909	2007-08-27	빌라 가치분 신청 취소 요구	상담.안내
910	2007-08-27	전자금융화폐법에 통과한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911	2007-08-27	상품권 발행관련	상담.안내
912	2007-08-27	대부업 직권취소에 다른 행정절차	상담.안내
913	2007-08-28	학자금원금 상환연장	상담.안내
914	2007-08-28	고액신권 신사임당 초상 추천	상담.안내
915	2007-08-28	상품권 미사용잔액 환불가능여부	상담.안내
916	2007-08-28	선물거래법상 유사해외선물거래 관련 질의	상담.안내
917	2007-08-28	나스닥 직 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 및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인정 및 세제 혜택부여 가능 여부 질의	상담.안내
918	2007-08-29	3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준외 28명입니다	상담.안내
919	2007-08-29	다음 내용을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920	2007-08-29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행위	상담.안내
921	2007-08-29	롯데홈쇼핑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데 등기비 돌려서 보내야 결제완료가 됨	상담.안내
922	2007-08-29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관련 질의	상담.안내
923	2007-08-29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상담.안내
924	2007-08-30	현행법과 자동법에서의 최저 자본금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상담.안내
925	2007-08-30	부당한 강제경매를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926	2007-08-30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개정 요망	상담.안내
927	2007-08-30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처리를 늦게 접수시켜주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928	2007-08-30	신용보증기금의 주식회사 대영에 대한 보증서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및 탄원	상담.안내
929	2007-08-30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처리를 늦게 접수시켜주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930	2007-08-30	단기매매차의 반환제도 유권해석 관련 질의	상담.안내
931	2007-08-30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932	2007-08-30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요청 진정	상담.안내
933	2007-08-31	경매 예납 잔금 환급 요청	상담.안내
934	2007-08-31	책임보험과태료의 금융자산조회 가능 여부?	상담.안내
935	2007-08-31	화보법 제 5조에 의해서 농협공제와 수협공제가 특수건물 취급에 관한 건	상담.안내
936	2007-09-03	계좌조회	상담.안내
937	2007-09-03	서민금융정책현황	상담.안내
938	2007-09-03	주택청약팀의 불손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상담.안내
939	2007-09-03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	상담.안내
940	2007-09-03	계열사와의 거래	상담.안내
941	2007-09-03	배당소득에 해당되나요	상담.안내
942	2007-09-03	Aig손해보험(주)관련	상담.안내
943	2007-09-04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 및 문제점	상담.안내
944	2007-09-04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상담.안내
945	2007-09-04	화의기업에 대한 처리건	상담.안내
946	2007-09-04	상품권 발행 최대 한도 문의	상담.안내
947	2007-09-04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하 "자발적 퇴사자")의 스톱옵션 행사가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948	2007-09-05	보증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요청입니다.	상담.안내
949	2007-09-05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 보증정보 삭제요청 지연에 대한 질	상담.안내
950	2007-09-05	론스타	상담.안내
951	2007-09-06	핸드폰미납요금	상담.안내
952	2007-09-06	보증인의 미자필 무동의 대출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953	2007-09-06	채무 보증에 따른 피해	상담.안내
954	2007-09-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제 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 공시)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상담.안내
955	2007-09-07	유가 증권 및 선물 거래소 개선 희망사항	상담.안내
956	2007-09-10	개인회생자의 신용제도 이용	상담.안내
957	2007-09-10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 해당 여부	상담.안내
958	2007-09-10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상담.안내
959	2007-09-11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2항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960	2007-09-12	대부업등록시 외국법인 한국지점 임원의 해석에 관한 사항	상담.안내
961	2007-09-12	재정경제부에서 지침 내린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건에 대해	상담.안내
962	2007-09-12	신보 창원지점으로 부터의 분할 상환 약정 파기 관련	상담.안내
963	2007-09-13	대부업법 위반자 영업정지 처분 문의	상담.안내
964	2007-09-14	신용연계채권의 유가증권 해당여부 확인요망	상담.안내
965	2007-09-14	채무번제이의	상담.안내
966	2007-09-17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기업을 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967	2007-09-17	세금우대저축자료 활용범위에 대하여....	상담.안내
968	2007-09-17	삼일회계법인의 재경관리사.회계관리1,2급 시험에 대한 시정	상담.안내
969	2007-09-17	법인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상담.안내
970	2007-09-17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상담.안내
971	2007-09-17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허용범위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972	2007-09-18	생명보험 카드 납부	상담.안내
973	2007-09-18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974	2007-09-18	지로 명의 변경 관련 서류 열람.	해결
975	2007-09-18	대부업이율조정의 건	상담.안내
976	2007-09-18	잔존채권	상담.안내
977	2007-09-18	금융실명법 및 차명예금주에 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978	2007-09-18	주택금융공사 관련	상담.안내
979	2007-09-18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운영의 개선 요청	상담.안내
980	2007-09-19	신용연계채권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 및 하위분류	상담.안내
981	2007-09-19	왕따당하는 직불카드	상담.안내
982	2007-09-19	금융실명제에 따른 업무처리 정당여부 질의	해결
983	2007-09-19	금융실명제 관련	해결
984	2007-09-19	금융정보제공 요청 관련 문의(은행제도과)	해결
985	2007-09-19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타인계좌로 송금시	해결
986	2007-09-19	스톡옵션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987	2007-09-20	금융기관이란?	상담.안내
988	2007-09-20	구두상품권 의 문제점	상담.안내
989	2007-09-20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업무 질의	상담.안내

990	2007-09-20	신용정보동의에 관한 법률	상담.안내
991	2007-09-20	채무상환을 본인에게 알릴의무를 소홀히한점	상담.안내
992	2007-09-20	신용불량 개발자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상담.안내
993	2007-09-21	증권거래법 해석	상담.안내
994	2007-09-21	금융실명제 관련 해석 요청	상담.안내
995	2007-09-27	신용불량자에 관하여...	상담.안내
996	2007-09-27	대부업관련입니다	상담.안내
997	2007-09-27	민원처리방식 개선제안	상담.안내
998	2007-09-27	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장님께 올리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999	2007-09-28	대부업 무등록에 대하여	상담.안내
1000	2007-09-28	이사간 주소지로의 법원 우편물 발송이 적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001	2007-09-28	파산한 금고에 예치한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상담.안내
1002	2007-10-01	외국기업국내지사대부업등록제한의거	상담.안내
1003	2007-10-01	특수건물화재보험 농협화재 가입시 화보법 위배 여부	상담.안내
1004	2007-10-01	은행법 중 부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005	2007-10-01	주식상장반대	상담.안내
1006	2007-10-02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상담.안내
1007	2007-10-0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말소에관하여	상담.안내
1008	2007-10-02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09	2007-10-02	화폐인물추진	상담.안내
1010	2007-10-04	코스피선물시장의 유관기관수수료에 관한 제안	상담.안내
1011	2007-10-04	무상중자시 주식매수선택권 조정가능 여부	상담.안내
1012	2007-10-04	행정벌의 병과여부	상담.안내
1013	2007-10-04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014	2007-10-0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을 적용여부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15	2007-10-05	증권거래법 적용여부	상담.안내
1016	2007-10-05	대한민국 정부 50주년 기념 증정홍보용(프루프) 기념주화 구합	상담.안내
1017	2007-10-08	개정 대부업법시행령에관한 질의	상담.안내
1018	2007-10-08	너무 억울해요	상담.안내
1019	2007-10-08	금융실명거래 관련 문의	상담.안내
1020	2007-10-08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21	2007-10-08	사실 증권/채권투자연구소 설립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1022	2007-10-08	보증이의	상담.안내
1023	2007-10-08	대부업 연 이자율	상담.안내
1024	2007-10-08	채권 회수 방법이 적법한것인지	상담.안내
1025	2007-10-08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26	2007-10-08	억울한 보증관계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1027	2007-10-08	분할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법	상담.안내
1028	2007-10-08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29	2007-10-09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30	2007-10-09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31	2007-10-09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32	2007-10-09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해석등에 관한 질문 및	상담.안내
1033	2007-10-09	조속히 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034	2007-10-10	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상담.안내
1035	2007-10-10	CMA관련 질의 - 간접투자자구에 편입가능 여부 유권해석	상담.안내
1036	2007-10-10	증권거래법 유권해석 의뢰	상담.안내
1037	2007-10-10	오류로 등재된 신용불량기록 삭제처리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1038	2007-10-10	오류 인해 등,해제된 불량정보 삭제문의	상담.안내
1039	2007-10-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중 행사자의 퇴사로 인한 잔여 행사주식의 행사 가능여부?	상담.안내
1040	2007-10-10	해동상호신용금고가 정리금융공사로넘어간후	상담.안내
1041	2007-10-10	해동상호신용금고 부도로 인한 채무불이행건으로 과다한 이자가 청구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상담.안내
1042	2007-10-11	장기저리 대출을	상담.안내
1043	2007-10-11	주택화재보험 가입건	상담.안내
1044	2007-10-11	해동상호신용금고 채무 이행 권고 결정 통보에 관한 이의 제기	상담.안내
1045	2007-10-12	농기부채 결감 누락의 건!!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046	2007-10-12	적자 한은 이렇게 잘못가는데 정부에선 뭐합니까?	상담.안내
1047	2007-10-15	제목 :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048	2007-10-16	상속포기 판결이후 대위변제금 상환 추심행위	상담.안내
1049	2007-10-16	본인동의없는신용	상담.안내
1050	2007-10-16	유엔 납품 계약서를 받았는데도 원자재 구입 자금이 없어 포기할 상황	상담.안내
1051	2007-10-17	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1052	2007-10-17	정말 힘들게합니다^^	상담.안내
1053	2007-10-17	자살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054	2007-10-17	역모기지론	상담.안내
1055	2007-10-17	나의채무가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상담.안내
1056	2007-10-17	무상증자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조정 가능여	상담.안내
1057	2007-10-17	역모기지론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058	2007-10-17	금융사기 사건에 따른 고민 고충 해결 청원서	상담.안내
1059	2007-10-18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용자가 내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해결
1060	2007-10-18	신용보증기금 악성거래처 방지	상담.안내
1061	2007-10-18	역모기지론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062	2007-10-18	주택금융신용보증의 유효기간	상담.안내
1063	2007-10-18	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한 부적격 관련	상담.안내
1064	2007-10-18	부당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여 발생된 제3자의 피해 발생 신고 관련 등	상담.안내
1065	2007-10-19	1AA-0706-043556 민원의 채무 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재민원	상담.안내
1066	2007-10-19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상담.안내
1067	2007-10-19	실명미확인 수익증권계좌의 임의처분	해결
1068	2007-10-19	억울합니다...제발..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상담.안내
1069	2007-10-19	보증이의	상담.안내
1070	2007-10-19	어찌 이렇수가 있습니까? 7년을 기다렸는데..	상담.안내
1071	2007-10-19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한 가정을 파괴한 박수철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072	2007-10-19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질의 입니다..	상담.안내
1073	2007-10-19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신청에 대한 진정서	상담.안내
1074	2007-10-22	고액권 모델입니다.	상담.안내
1075	2007-10-22	옥황상제 타이틀로..	상담.안내
1076	2007-10-22	신용대출보증 및 정부재산 경매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077	2007-10-23	신용보증기금 관련...끝까지 읽어보세요.	상담.안내
1078	2007-10-23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79	2007-10-23	고액권 모델입니다2	상담.안내
1080	2007-10-23	억울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081	2007-10-23	대부업등록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보유)해야 하는지요.	해결
1082	2007-10-23	다른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 소송에서 해결 하라니	상담.안내
1083	2007-10-23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84	2007-10-24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요	상담.안내
1085	2007-10-24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86	2007-10-24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87	2007-10-24	제목 :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 라니요?	상담.안내
1088	2007-10-24	보험업법 시행령53조3항 개정할것을 건의합니다.	상담.안내
1089	2007-10-24	제목 :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 라니요???	상담.안내
1090	2007-10-24	신용불량자에게도 나눔 경영을,	상담.안내
1091	2007-10-24	정부는 서민의 금한 자금 유통을 풀 방도를 마련하여야 합니 다.(한도 100만원~200만원)	상담.안내
1092	2007-10-24	부당한 은행의 자동이체 시스템에 대해	상담.안내
1093	2007-10-24	국민주책채권 매입의무 관련	상담.안내
1094	2007-10-25	예금보험공사이의	상담.안내
1095	2007-10-25	보험대리점 자격자의 간접투자증권능력평사시험 응시 불가사유	상담.안내
1096	2007-10-25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97	2007-10-25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98	2007-10-25	다른 사람이 형사고소 당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니	상담.안내
1099	2007-10-25	신용보증기금 이래도 됩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담.안내
1100	2007-10-25	(질의)제휴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및 이차적 사용의 적법성	상담.안내
1101	2007-10-25	리스차량 명의이전 관련	해결
1102	2007-10-25	새한 매각과 관련한 탄원서 제출	상담.안내
1103	2007-10-26	알려주세요...	상담.안내
1104	2007-10-26	금융기관 말만 믿고 다른사람을 고소했다니까요	상담.안내
1105	2007-10-26	펀드상품의 방문(출장) 판매 거부	해결
1106	2007-10-26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문의	해결
1107	2007-10-26	서울보증보험 부평지점과의 보증계약 관련	상담.안내
1108	2007-10-29	한국은행 강릉본부 태백분실 조치	상담.안내
1109	2007-10-29	금융기관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고소했다니까요	상담.안내
1110	2007-10-29	금융기관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고소 했단니까요;;;	상담.안내
1111	2007-10-29	1980년대 자료에대해서	상담.안내
1112	2007-10-29	두번째 문의	상담.안내
1113	2007-10-29	고액권모델로 신사임당 추천	상담.안내
1114	2007-10-29	특수채의 종류	해결
1115	2007-10-29	간접투자기구에서의 CLN(Credit Linked Note) 투자가가능여부	상담.안내
1116	2007-10-29	금융기관을 믿고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을 고소했답니 다!!!!(1AA-0710-034280) 민원처리결과에대한 재민원입니다)	상담.안내

1117	2007-10-30	공인회계사법 제6조 1항 유권해석	해결
1118	2007-10-30	저번주에 올렸던 민원에 이어서...담당자:홍규표님 보세요.	상담.안내
1119	2007-10-30	국책은행	상담.안내
1120	2007-10-30	대한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인지???	해결
1121	2007-10-30	신규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 요청	상담.안내
1122	2007-10-30	1654번과 동일 문서	상담.안내
1123	2007-10-30	증권거래법 제 88조에 따른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124	2007-10-31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채무보증인의 책무	상담.안내
1125	2007-11-01	차명거래시 본인의 동의하에 만들어 타인이 사용하는게 적합한지 여부?	해결
1126	2007-11-01	금융자산 조회	해결
1127	2007-11-02	대부업 관련입니다.	자체종결
1128	2007-11-02	면책확정문을 fax로 보냈는데도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자체종결
1129	2007-11-02	고액권 인물선정	상담.안내
1130	2007-11-05	경북상호저축은행 진행	상담.안내
1131	2007-11-05	경북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후 영업정상화 시기	상담.안내
1132	2007-11-05	신보(KODIT) 내지 기보(KIBO)는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을 보장 받은 기관인지요?	상담.안내
1133	2007-11-06	[기술신용보증기금]파산 면책 후 계속되는 소송	자체종결
1134	2007-11-06	대위변제의무 부존재	상담.안내
1135	2007-11-06	1964년 대비 2007년 화폐가치의 변동률에 대하여	상담.안내
1136	2007-11-07	2009년 발행5만원권 초상인물 공청회개최 요청	상담.안내
1137	2007-11-0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 중 명칭 사용 부분	해결
1138	2007-11-07	경북상호신용금고 영업정상화 시기	상담.안내
1139	2007-11-07	질의	상담.안내
1140	2007-11-07	상장법인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및 산정방법	상담.안내
1141	2007-11-07	보험이의	상담.안내
1142	2007-11-08	신주를 대가로 하는 교환공개매수의 실시주체 관련 질의	해결
1143	2007-11-08	가족에게 불법추심	상담.안내
1144	2007-11-0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조건	상담.안내
1145	2007-11-1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잘못된 추심	상담.안내
1146	2007-11-12	신용연계채권(증권)에 대해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여부	상담.안내
1147	2007-11-12	채무불이행자 취업제한에 대한 기업	상담.안내
1148	2007-11-13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	상담.안내
1149	2007-11-13	금융거래 관련	상담.안내
1150	2007-11-14	신용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1151	2007-11-14	고액권 화폐 관련	상담.안내
1152	2007-11-14	거래소법 개정반대	상담.안내
1153	2007-11-15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안내
1154	2007-11-15	빚 갚아도 그 신용등급 때문에.....	상담.안내
1155	2007-11-15	질의	해결
1156	2007-11-15	일수는 이자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걸니까	상담.안내
1157	2007-11-15	시각장애인 촉각으로 지폐구분 거의 불가능, '지폐의 점' 결국 전신적 발상일 뿐	상담.안내
1158	2007-11-15	대부업 등록 및 폐업시 기존 대부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해결
1159	2007-11-15	파산면책받은 사람의 은행연합회 기록삭제 제도건의	상담.안내
1160	2007-11-16	채무조정	상담.안내
1161	2007-11-16	고액권 화폐 인물 신사임당 선정에 대한 부당성	상담.안내
1162	2007-11-16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6년동안 방치후 연대보증인에게만 강요합니다	상담.안내
1163	2007-11-19	불법추심활동	상담.안내
1164	2007-11-19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	해결
1165	2007-11-19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	해결
1166	2007-11-20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에 대한 질문	상담.안내
1167	2007-11-20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업무처리	해결
1168	2007-11-20	민간 사단법인 관련담당부처를 알고 싶습니다. ㅠ ㅠ	해결
1169	2007-11-20	전자금융업자 등록과 관련한 재무건전성 산정에 대한 질의	해결
1170	2007-11-21	채무불이행자등록해제	상담.안내
1171	2007-11-21	고액권발행 관련 위폐유통 차단 방안	상담.안내
1172	2007-11-21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문의	해결
1173	2007-11-2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개선 필요	상담.안내
1174	2007-11-21	변제한사람 금융기관&카드사의 연체기록 삭제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175	2007-11-23	개인신용정보 활용가능 범위	상담.안내
1176	2007-11-23	송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상담.안내
1177	2007-11-23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등의 금지에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178	2007-11-26	불법강제퇴출 5개은행 보상방안 요구	상담.안내
1179	2007-11-26	국책은행 은행경영실적평가	상담.안내

1180	2007-11-26	은행보유 개인정보 삭제 가능 여부	상담.안내
1181	2007-11-26	반사회적 기업 롯데카드회사에 대해 제안하러 합니다...	상담.안내
1182	2007-11-26	소액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의 발목을 붙드는 반사회적기업 롯데카드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183	2007-11-27	비안간적인민원처리	상담.안내
1184	2007-11-27	난무하는 대출 중개업자 및 개인 신용정보 관리 체제의 현실화	상담.안내
1185	2007-11-27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사해행위라는 소장이 받았습니)	상담.안내
1186	2007-11-27	사금융	상담.안내
1187	2007-11-27	자산2조원이상 상장법인의 의무사항 이행시절	상담.안내
1188	2007-11-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조 제2항의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총액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1189	2007-11-27	파출 실명확인자의 범위	상담.안내
1190	2007-11-29	[문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소멸시기	상담.안내
1191	2007-11-29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상담.안내
1192	2007-11-29	아파트 계약후 중도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상담.안내
1193	2007-11-30	파산 면책자 줄 같이 살아갈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세요	상담.안내
1194	2007-11-30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1195	2007-12-03	채무상환 관련	상담.안내
1196	2007-12-03	금융거래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질의	상담.안내
1197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198	2007-12-03	주택금융공사 전산장애오류를 왜 국민은행 잘못으로 떠넘기는지.힘없는 서민은 길가로 나왔습니다	상담.안내
1199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0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1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2	2007-12-03	제목 :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3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 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4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5	2007-12-03	★ 금융자격증의 빠른 통폐합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1206	2007-12-03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인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07	2007-12-04	어음에 관하여...	상담.안내
1208	2007-12-04	금융업 진출에 대한 문의사항	상담.안내
1209	2007-12-04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10	2007-12-04	예금보험공사에 보관중이었던 64건의 사문서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상담.안내
1211	2007-12-04	금융기관의 거래신청서 원본 및 사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담.안내
1212	2007-12-04	은행대출금리인상폭에 일반인다죽는다	상담.안내
1213	2007-12-04	공과금자동납기에 넣을 모든 '지로용지'의 명시성 제고	상담.안내
1214	2007-12-04	[공과금자동납기]활용을 쉽게하는 지로용지의 양식변경 제안	상담.안내
1215	2007-12-04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 운용 관련 행정질의	상담.안내
1216	2007-12-05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 운용 관련 행정질의	상담.안내
1217	2007-12-05	신용보증기금의채무	상담.안내
1218	2007-12-05	금융실명제에 의한 예금주명 표기방법	상담.안내
1219	2007-12-06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안내
1220	2007-12-0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221	2007-12-06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 시 6년초과 감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상담.안내
1222	2007-12-06	간접자산운용업법시행령개정	상담.안내
1223	2007-12-06	자금지원 요청	상담.안내
1224	2007-12-07	신용보증기금의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및 민원신청	상담.안내
1225	2007-12-07	외감법상 6개 사업연도 계속 감사금지 위반 여부	상담.안내
1226	2007-12-07	장기주택마련저축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토록...	상담.안내
1227	2007-12-07	사외이사 선임시기 관련 유권해석 요청	상담.안내
1228	2007-12-07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요청	상담.안내
1229	2007-12-07	중소기업을 힘들게하는 신보	상담.안내
1230	2007-12-07	신한은행의 근로자 우대저축 만기후 연장이율	상담.안내
1231	2007-12-10	신용보증기금의 ?포	상담.안내
1232	2007-12-10	제3자를 무고하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질른 일이었습니다.	상담.안내

1233	2007-12-10	은행경영평가	상담.안내
1234	2007-12-10	1947년 만든 예금 통장 금액 인출 문의(구 고양금융조합은행지소 통장)	상담.안내
1235	2007-12-10	금융중개업등록제도로 흡수	상담.안내
1236	2007-12-10	대부업이자율!!	상담.안내
1237	2007-12-10	역모기지론수해	상담.안내
1238	2007-12-10	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세입자의 공동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의 무가 있는지요?	상담.안내
1239	2007-12-11	자통법 관련 질의사항	상담.안내
1240	2007-12-11	신용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건	상담.안내
1241	2007-12-11	10만원권 지폐	상담.안내
1242	2007-12-11	일제강점기 예금 반환	상담.안내
1243	2007-12-11	질의	상담.안내
1244	2007-12-11	제주안덕 신탁의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상담.안내
1245	2007-12-12	금융소득자료 본인 통보 관련 금융실명거래법 저촉 여부	상담.안내
1246	2007-12-12	신용 불량자들의 삶의 불안정	상담.안내
1247	2007-12-12	감사의 자격	상담.안내
1248	2007-12-12	유권해석	상담.안내
1249	2007-12-12	채무분할약정을 이행하라는 신보의 폭력행위	상담.안내
1250	2007-12-12	정보청구에 따른 대구은행의 추궁	상담.안내
1251	2007-12-13	은행업무에 관하여 호주와의 관계	상담.안내
1252	2007-12-1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인정 법률 시행 일시	상담.안내
1253	2007-12-13	공적자금 손실관련 민원질의서	상담.안내
1254	2007-12-14	(질의) 한국증시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상담.안내
1255	2007-12-14	서민을 위하고 신용회복 돕는다면 한마음금융 배당금은 안찾고 상환요구만 합니다.	상담.안내
1256	2007-12-14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257	2007-12-14	신용보증기금의 오락가락하는 업무처리	상담.안내
1258	2007-12-14	몇 년이 지난후 한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우편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 신용불량자 및 금융거래까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1259	2007-12-17	자산운용업법시행령과 관련된 인력수급 및 세무관련 법령개정	상담.안내
1260	2007-12-17	자산운용업법관련 수익증권 영업직원 세무관련 조항 개정	상담.안내
1261	2007-12-17	일반운용전문인력 등록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262	2007-12-17	5만원 권과 10만원 권을 만드시기를 마세요!	상담.안내
1263	2007-12-17	나라신용정보(정리금융공사)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금의 2배나 되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1264	2007-12-17	사채시장광고에 대하여	상담.안내
1265	2007-12-17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시기	상담.안내
1266	2007-12-18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상담.안내
1267	2007-12-18	무상증자와 스톡옵션	상담.안내
1268	2007-12-18	정보청구에 따른 대구은행의 추궁	상담.안내
1269	2007-12-20	보험업법상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해당 여부	상담.안내
1270	2007-12-20	보험업법상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해당여부	상담.안내
1271	2007-12-20	신용보증의건	상담.안내
1272	2007-12-21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 시정 촉구	상담.안내
1273	2007-12-21	예금보험공사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상담.안내
1274	2007-12-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관련	상담.안내
1275	2007-12-21	지급준비를 인하로 중소기업 과 서민자금 동맥경화 해결	상담.안내
1276	2007-12-21	신용보증기금 운영의 문제점	상담.안내
1277	2007-12-21	기술신용보증기금제도개선	상담.안내
1278	2007-12-24	기념화폐(주화)	상담.안내
1279	2007-12-26	신용회복중앙인에 대한 제조적인보완책미련	상담.안내
1280	2007-12-27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관련건	상담.안내
1281	2007-12-27	금융실명제 관련	상담.안내
1282	2007-12-28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질의	상담.안내
1283	2007-12-31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의무 규정 위반시 행정조치등	상담.안내
1284	2007-12-31	태안지역생활안전자금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1285	2007-12-31	저의 형을 재발 살려 주세요	상담.안내
1286	2007-12-31	신용등급에대해서건의합니다	상담.안내
1287	2007-12-31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288	2007-12-31	자동차보험업법 시행규칙의 자격증 면제관련 개선건의	상담.안내

##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처리내용
1	2007-01-02	변액유니버설가족사랑보험소송	자체종결
2	2007-01-02	금감원보험업무 불만	상담.안내
3	2007-01-03	채무부존재 확인	상담.안내
4	2007-01-04	이행(하자)보증보험금 청구 지급지연	자체종결
5	2007-01-08	부당한 연체정보의 삭제요청	상담.안내
6	2007-01-12	보험금 청구 및 약관에 관한 질의	자체종결
7	2007-01-16	기업회계기준	상담.안내
8	2007-01-17	1AA-0610-031088 등 민원 신청처와 접수처가 바뀌는 이유?	상담.안내
9	2007-01-23	면담신청서 제출	상담.안내
10	2007-01-25	보험가입내역조회	자체종결
11	2007-01-25	아파트가격안정요청등	상담.안내
12	2007-01-29	파산면책확정후 대출정보삭제를 계속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3	2007-01-30	보험관련 민원제기	자체종결
14	2007-01-30	3.1절 조합활동 간부중 형사상징제자 특별사면의뢰	상담.안내
15	2007-01-30	3.1절 금융기관 임직원 특별사면 의뢰	상담.안내
16	2007-02-01	신용조회	자체종결
17	2007-02-07	면책후 신용불량이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8	2007-02-07	금융업체의 부당한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19	2007-02-12	민원신청	자체종결
20	2007-02-12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대출장동연장시 연대보증인의 채무관계	자체종결
21	2007-02-12	신용불량 해제 요청 거절 당했습니다...	상담.안내
22	2007-02-12	신용불량 해제 요청 거절 당했습니다.	상담.안내
23	2007-02-12	3.1절 금융기관 임직원 사면요청	상담.안내
24	2007-02-13	예전에 민원 신청했던 사람인데요..궁금한 점이...	상담.안내
25	2007-02-21	플러스저축은행 재심요청	상담.안내
26	2007-02-26	친분을 이용한 보험사기	자체종결
27	2007-02-26	차량할부금건(차량결함)	상담.안내
28	2007-02-28	광주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노조입장	자체종결
29	2007-03-05	광주은행장 연임반대	자체종결
30	2007-03-06	보험금 원금 반환청구 요청문의	자체종결
31	2007-03-09	1999년에평화은행130만원45일연체바로상환했습니다 그러나지 금까지 신용불량자라니..	상담.안내
32	2007-03-09	불법추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자체종결
33	2007-03-16	'상담민원' 신청의 건	상담.안내
34	2007-03-16	신탁대출 관련 질의	상담.안내
35	2007-03-2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36	2007-03-23	무허가 채권추심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7	2007-03-28	은행사기	해결
38	2007-03-28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39	2007-04-04	보증인 번재의무	상담.안내
40	2007-04-05	" 父 " 사망에 따른 금융기관 잔고 조회	상담.안내
41	2007-04-05	금융 조회	상담.안내
42	2007-04-06	보험금 지급보류 삼성화재와 에스아이에스의 상반된반응..	자체종결
43	2007-04-06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44	2007-04-06	금융권과 같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가의 PF 지급 요청	자체종결
45	2007-04-06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종결
46	2007-04-06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	자체종결
47	2007-04-06	금융권 PF 금지요청에 관한 민원	자체종결
48	2007-04-06	은행직원이 몰래 타인의 계좌조회를 했다면...	자체종결
49	2007-04-06	선린신탁 인가취소요구	상담.안내
50	2007-04-09	가입된 연금보험의 역을함을 호소 합니다	자체종결
51	2007-04-12	현금보관증 법률해석	상담.안내
52	2007-04-16	민원접수에 대해서....	상담.안내
53	2007-04-17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54	2007-05-02	금융권 자동화기기(ATM)에 관한 제언	상담.안내
55	2007-05-11	보험가입여부건	자체종결
56	2007-05-16	그지같은 현행법 좀 바꿔주세요 민사소송및 카드빚에대한 조항	해결
57	2007-05-17	다시 한번 우리 은진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세요!	상담.안내
58	2007-05-22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지침 문의	자체종결
59	2007-06-01	교보생명상장반대	상담.안내
60	2007-06-1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안내



61	2007-06-13	이런경우도 민원제기가 되나요?	자체종결
62	2007-06-15	한국자산공사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심합니다.	해결
63	2007-06-18	범국민적 범국가적이면서	자체종결
64	2007-06-18	제3자독촉	자체종결
65	2007-06-18	금감위 비은행감독과-442호. 2007.05.09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종결
66	2007-06-18	손보사 상호협정 관련	상담.안내
67	2007-06-18	건의문 송부	상담.안내
68	2007-06-19	보험사기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1	자체종결
69	2007-06-21	(주)대한투자신탁운용 매각 관련	상담.안내
70	2007-06-21	UBS로의 대투운용 매각 반대	상담.안내
71	2007-06-21	UBS로의 대투운용 매각 반대	상담.안내
72	2007-06-21	한국 자산관리공사	해결
73	2007-06-25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허가업무	해결
74	2007-06-26	질의(보험)	상담.안내
75	2007-06-27	신용조회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해결
76	2007-06-28	콜로	자체종결
77	2007-07-02	론스타 관련	상담.안내
78	2007-07-02	자산관리공사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79	2007-07-04	한국자산공사 너무심합니다	해결
80	2007-07-05	매번 금감위직원은 공무원보다 더 크다.매번 일어나는 일	상담.안내
81	2007-07-05	면담관련	상담.안내
82	2007-07-16	면담거부	상담.안내
83	2007-07-18	공익회수분을 최소한 100억여원 저해한 캠코의 투자관리부장의 주도적이고 선동적인 선관주의 의무위반과 이를 두둔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캠코검사부장을 고발	상담.안내
84	2007-07-23	전기위협 1편	자체종결
85	2007-07-23	기민원처리이의제기	상담.안내
86	2007-07-23	면담요청거부	상담.안내
87	2007-07-27	캠코의 CRC제도 문제점을 악용한 구태의연 선관주의 의무위반 부당업무로 상당한 공익회수 누수분에 대한 배임혐의 철저 관리	상담.안내
88	2007-07-31	보험관련	상담.안내
89	2007-08-03	보험관련질의(건교부경유)	상담.안내
90	2007-08-0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 2 의 해석	자체종결
91	2007-08-07	에이디칩스소송	상담.안내
92	2007-08-08	2002년 금감위의 에이디칩스 고발로 인한 피해 보상	해결
93	2007-08-14	저축은행	상담.안내
94	2007-08-20	투기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주택담보대출비율을 려야한다	자체종결
95	2007-08-24	신용회복위원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해결
96	2007-08-31	ㅎ	자체종결
97	2007-09-03	보험업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한 동법 벌칙의 과태료 부과	자체종결
98	2007-09-04	높아만가는 금리인상에 힘들하루하루...	자체종결
99	2007-09-11	국민은행장 연임반대	상담.안내
100	2007-09-12	대부업체 신용조회 삭제 요청	상담.안내
101	2007-09-12	경남은행 분리매각 건의	상담.안내
102	2007-09-12	신탁실행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3	2007-09-17	화물공제	자체종결
104	2007-09-18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	자체종결
105	2007-09-18	사모투자펀드(PEF)로 우리금융지주(주) 경영권 인수가능여부??	상담.안내
106	2007-09-20	고객을 우롱하는 스카니아파이낸스	자체종결
107	2007-09-20	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지	상담.안내
108	2007-10-01	청원	상담.안내
109	2007-10-02	면담요구	상담.안내
110	2007-10-04	호소문	상담.안내
111	2007-10-05	호소문	상담.안내
112	2007-10-05	사실확인요청서	상담.안내
113	2007-10-08	호소문	상담.안내
114	2007-10-09	우리금융지주(주) 인수부 PEF 설립관련 추가 민원제기	상담.안내
115	2007-10-09	호소문	상담.안내
116	2007-10-10	거래정지를 풀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해결
117	2007-10-10	소환문	상담.안내
118	2007-10-10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19	2007-10-11	주택화재보험 가입건	해결
120	2007-10-11	호소문	상담.안내

121	2007-10-12	호소문	상담.안내
122	2007-10-15	호소문	상담.안내
123	2007-10-17	호소문	상담.안내
124	2007-10-18	호소문	상담.안내
125	2007-10-19	호소문	상담.안내
126	2007-10-22	호소문	상담.안내
127	2007-10-24	호소문	상담.안내
128	2007-10-24	호소문	상담.안내
129	2007-10-30	호소문	상담.안내
130	2007-10-30	호소문	상담.안내
131	2007-10-30	호소문	상담.안내
132	2007-10-30	호소문	상담.안내
133	2007-10-31	호소문	상담.안내
134	2007-11-01	호소문	상담.안내
135	2007-11-02	호소문	상담.안내
136	2007-11-05	호소문	상담.안내
137	2007-11-05	호소문	상담.안내
138	2007-11-07	호소문	상담.안내
139	2007-11-08	교육금고 지점에 따른 지역조합 포함 여부	상담.안내
140	2007-11-08	호소문	상담.안내
141	2007-11-09	호소문	상담.안내
142	2007-11-12	호소문	상담.안내
143	2007-11-13	호소문	상담.안내
144	2007-11-14	호소문	상담.안내
145	2007-11-14	상장회사에 채무사항공시에서 연결채무재표의 주재무재표화를 적절한 증권거래법 시행령등 입법 철회	상담.안내
146	2007-11-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을 이첩시키면 끝나는 것인가?	해결
147	2007-11-15	호소문	상담.안내
148	2007-11-16	방카슈랑스	상담.안내
149	2007-11-19	채권추심	상담.안내
150	2007-11-19	증권 가격제한폭 폐지 반대합니다.	해결
151	2007-11-19	상한가폐지 반대	해결
152	2007-11-19	호소문	상담.안내
153	2007-11-19	호소문	상담.안내
154	2007-11-20	호소문	상담.안내
155	2007-11-20	호소문	상담.안내
156	2007-11-20	호소문	상담.안내
157	2007-11-20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형법 법률위반진정서 및 내용증명	상담.안내
158	2007-11-21	주식거래 상한가 폐지에 대한 ..	해결
159	2007-11-21	호소문	상담.안내
160	2007-11-22	호소문	상담.안내
161	2007-11-26	개인 회생을 저버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해결
162	2007-11-26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 개정	해결
163	2007-11-26	호소문	상담.안내
164	2007-11-26	호소문	상담.안내
165	2007-11-26	호소문	상담.안내
166	2007-11-26	사실확인 요청서 (범죄관리 시스템 )	상담.안내
167	2007-11-28	호소문	상담.안내
168	2007-12-03	민원에대한 성의없는 답변	자체종결
169	2007-12-03	호소문	상담.안내
170	2007-12-03	호소문	상담.안내
171	2007-12-03	호소문	상담.안내
172	2007-12-05	호소문	상담.안내
173	2007-12-05	호소문	상담.안내
174	2007-12-06	사단법인 해당부서와 담당자 선정 요청.	해결
175	2007-12-06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의 "채무승인"강요의 부도덕한 속임수 시정요청	상담.안내
176	2007-12-07	호소문	상담.안내
177	2007-12-07	호소문	상담.안내
178	2007-12-10	호소문	상담.안내
179	2007-12-11	호소문	상담.안내
180	2007-12-12	호소문	상담.안내
181	2007-12-13	호소문	상담.안내
182	2007-12-14	호소문	상담.안내
183	2007-12-17	호소문	상담.안내

184	2007-12-18	민원제목 및 내용 없음	자체종결
185	2007-12-21	호소문	상담.안내
186	2007-12-24	호소문	상담.안내
187	2007-12-26	우리투자증권 사장 연임 반대	상담.안내
188	2007-12-26	호소문	상담.안내
189	2007-12-27	시설대여업 등록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90	2007-12-27	국가에 대한 손해행위 형법 법률위반 추완 항고 사기 347조, 공문서 행사법 255조	상담.안내
191	2007-12-27	호소문	상담.안내
192	2007-12-28	호소문	상담.안내

## 2008.1 ~ 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처리내용
1	2008-01-02	10만원권 지폐 대응여지도 삼입을 막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2	2008-01-02	이런 제안 한번 해봅니다..	상담.안내
3	2008-01-02	휴먼계좌의 돈.. 간단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상담.안내
4	2008-01-02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수수료 관련...	상담.안내
5	2008-01-02	손해사정 자격증 면제 관련	상담.안내
6	2008-01-03	신용회복을 위한 대출증액기회	상담.안내
7	2008-01-03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8	2008-01-03	신용카드 도 전자기재 에 속하는지요?	상담.안내
9	2008-01-03	요즘 은행들은 동전을 기피합니다.	상담.안내
10	2008-01-03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이 되었는데요...	상담.안내
11	2008-01-03	IMF 부채해결 요청	상담.안내
12	2008-01-03	일자리 정보에 신용불량자 지원불가? 에 관하여...	상담.안내
13	2008-01-03	보험회사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해당여부	상담.안내
14	2008-01-03	대구은행의 공동명의예금에 관하여	상담.안내
15	2008-01-04	대부업법의 사실상대부업자의 의미	상담.안내
16	2008-01-04	시설대여업자의 차량대여시 운운리스관련 여부.	상담.안내
17	2008-01-0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2의 3항 개정 요구	상담.안내
18	2008-01-04	수고하십니다. 지금 금융소외자 사면이라는 기사를보고	상담.안내
19	2008-01-04	보증인에 대한 가혹한 불법추심 막아주세요.제3자에대한 전화압박도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20	2008-01-07	연체기록 정말 이거 뭘니까?	상담.안내
21	2008-01-07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단서 각호 확대 개정	상담.안내
22	2008-01-07	방카슈랑스철회하지 말아주십시오.	상담.안내
23	2008-01-07	피투자회사의 연결대상여부	상담.안내
24	2008-01-08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가압류	상담.안내
25	2008-01-08	기술보증기금의 기만행위	상담.안내
26	2008-01-09	보증인에 대한 불법추심막아 주세요.제3자에 대한 전화압박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27	2008-01-09	신용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상담.안내
28	2008-01-09	자사주신탁 동시 매입/매도 가능 여부	상담.안내
29	2008-01-09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사회제도	상담.안내
30	2008-01-09	현대캐피탈 개인신용불량조회 이후 금감원답변	상담.안내
31	2008-01-09	보험업법 입법예고관련(손해사정사 개정관련)	상담.안내
32	2008-01-09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상담.안내
33	2008-01-10	역모기지론 대상 탄원서	상담.안내
34	2008-01-10	파산한 신용금고의 파산후 5년 동안의 이자를 다 변제해야 하나요?	상담.안내
35	2008-01-10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6	2008-01-10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상담.안내
37	2008-01-11	대구은행의 공동명의예금에 관한 재질의	상담.안내
38	2008-01-11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자격	상담.안내
39	2008-01-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해석과 위반여부	상담.안내
40	2008-01-11	기술보증기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재판부의 비 정상적인 행위	상담.안내
41	2008-01-11	고지서를 발행하실때 좀더 정확하게 명시해주십시오.	상담.안내
42	2008-01-14	스톡옵션	상담.안내
43	2008-01-14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44	2008-01-14	강제집행정지 및 채무이행유예 요청서	상담.안내
45	2008-01-14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전세자금대출 포함여부에 관한 건	상담.안내
46	2008-01-14	증권 거래법 제 191조 1항 제 1호 특수관계인에 대한금지사항 예	상담.안내
47	2008-01-14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48	2008-01-14	전자화폐법을 만들어주세요.	상담.안내
49	2008-01-14	전자화폐법을 만들어주세요	상담.안내
50	2008-01-14	화폐제작 및 호적법 관련	상담.안내
51	2008-01-15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상담.안내
52	2008-01-15	가압류 해지를 해주세요.	상담.안내
53	2008-01-15	자꾸 민원드려 죄송합니다	상담.안내
54	2008-01-16	창업자의 대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담.안내
55	2008-01-16	채권추심처리이의	상담.안내
56	2008-01-16	태안 사고 금융지원	상담.안내
57	2008-01-16	감사위원 선임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상담.안내
58	2008-01-16	유사수산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주세요	상담.안내

59	2008-01-16	신용보증기금 관련(신보직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조회 및 신용정보)	상담.안내
60	2008-01-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1	2008-01-17	자통법 관련	상담.안내
62	2008-01-17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규정에 정한 직무제한	상담.안내
63	2008-01-18	공공부문 비정규직입니다.	상담.안내
64	2008-01-18	저축은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담.안내
65	2008-01-18	각급 법인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외국표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66	2008-01-21	해동상호신용금고 피해자...	상담.안내
67	2008-01-21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68	2008-01-21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정책제안
69	2008-01-21	고용 연장 재계약 호소	상담.안내
70	2008-01-23	부동산가압류 정당한가요?	상담.안내
71	2008-01-23	정기주총을 통해 설치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이 가능한가요?	상담.안내
72	2008-01-24	금융실명제 저축여부 확인	상담.안내
73	2008-01-24	감사 자격에 대한 문의 (상근감사/비상근감사)	상담.안내
74	2008-01-25	민원처리에 대해...	상담.안내
75	2008-01-25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 금융시스템	상담.안내
76	2008-01-25	채무불이행등재관한이의	상담.안내
77	2008-01-25	천원권 내용수정(퇴계선생 출생사망년도)	상담.안내
78	2008-01-25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 금융시스템	상담.안내
79	2008-01-28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80	2008-01-28	신용보증기금은 악덕기업이다.	상담.안내
81	2008-01-28	억울한 입장을 호소합니다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82	2008-01-28	연금압류해제	상담.안내
83	2008-01-28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계약일자 차별화 가능 여부	상담.안내
84	2008-01-28	동업업은 신용정보 금융정보조회 통지 요구권	상담.안내
85	2008-01-29	(주)중앙씨앤아이의 하이토탈상품권 손해보상	상담.안내
86	2008-01-29	금융지주회사 거래의 편리성	상담.안내
87	2008-01-29	명의인이 특정되지않은 금융정보제공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안내
88	2008-01-29	연체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상담.안내
89	2008-01-30	신용보증기금 구로지점 너무합니다	상담.안내
90	2008-01-30	신용불량자 구제 요청	상담.안내
91	2008-01-30	보증인	상담.안내
92	2008-01-30	외환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93	2008-01-30	감사위원의 재선임여부	상담.안내
94	2008-01-30	농신보 관련	상담.안내
95	2008-01-30	가압류를 통한 채권회수	상담.안내
96	2008-01-31	금융거래정보제공문의	상담.안내
97	2008-01-31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안내
98	2008-01-31	어쩌다가 언론에게 정보를 유출을 하셨습니까?.....	상담.안내
99	2008-01-31	공과금양식 통일건	상담.안내
100	2008-01-31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상담.안내
101	2008-01-31	신보의 완제된 채무의 재변제	상담.안내
102	2008-01-31	국민신용정보의 채권수입 관련	상담.안내
103	2008-02-01	어쩌다가 언론에게 유출관련해서 올린 추가 로 올린 내용	상담.안내
104	2008-02-01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안내
105	2008-02-01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중 OBU단말기 포함 여부	상담.안내
106	2008-02-01	면책자 특수기록으로 인한 피해 구제	상담.안내
107	2008-02-01	자통법 시행내용중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08	2008-02-01	대출금 상환관련	상담.안내
109	2008-02-01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보낸 채무독촉문자	상담.안내
110	2008-02-01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보낸 채무독촉문자	상담.안내
111	2008-02-04	신불자 구제	상담.안내
112	2008-02-04	실명제 및 금융정보관련	상담.안내
113	2008-02-04	해외 프랜차이즈	상담.안내
114	2008-02-05	3만불 시대를 위한 한국의 금융허브 과연 가능한가?	상담.안내
115	2008-02-05	5대 민생경제 관련법 개정촉구	상담.안내
116	2008-02-0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17	2008-02-05	말뚝인 정부학자금대출	상담.안내
118	2008-02-05	자동차 리스시명의 발급 제작중으로 이용자명의 등록가능여부의 법령	상담.안내
119	2008-02-11	특별자산투자신탁의 대상자산 관련 질의	상담.안내
120	2008-02-11	(주)만도 지분매각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상담.안내
121	2008-02-11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상담.안내

122	2008-02-1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신청대상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제한규정에 대해서..	상담.안내
123	2008-02-11	강탈하는.통신사업자.들방치하는.정책.	상담.안내
124	2008-02-11	금융투자사(증권업등) 직원의 주식 직접투자에 관련된 문의 입니다.	상담.안내
125	2008-02-11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CD금리가 은행마다 달라도 되나요?	상담.안내
126	2008-02-12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주식 직접투자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127	2008-02-12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28	2008-02-1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 해석(최대주주등의 의결권 제한 관련)	상담.안내
129	2008-02-12	아버지에통장에대해서	상담.안내
130	2008-02-12	채무에관한협박	상담.안내
131	2008-02-12	연대보증 해지건	상담.안내
132	2008-02-12	연결범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33	2008-02-12	입법청원에 대한 추가정보 긴급제공	상담.안내
134	2008-02-12	삼성화재해상보험㈜ 손해배상 관련	상담.안내
135	2008-02-13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안내
136	2008-02-13	보험업 관련 문의	상담.안내
137	2008-02-1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38	2008-02-14	휴면계좌 반환	상담.안내
139	2008-02-14	신용등급이 낮으면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하나?	상담.안내
140	2008-02-15	동산은닉.금융실명법.	상담.안내
141	2008-02-15	대부업위반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42	2008-02-15	금융 거래시 통장 명의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143	2008-02-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상담.안내
144	2008-02-18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안내
145	2008-02-1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담.안내
146	2008-02-18	연대보증인 상환해야 될 범위?	상담.안내
147	2008-02-19	신용보증기금 불법추심에 대한 청원	상담.안내
148	2008-02-19	용어 해석	상담.안내
149	2008-02-19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150	2008-02-19	주식매수선택권	상담.안내
151	2008-02-19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대한 진정 및 제언	상담.안내
152	2008-02-20	신용보증기금이의	상담.안내
153	2008-02-20	정말너무합니다	상담.안내
154	2008-02-20	대부업법위반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55	2008-02-21	제도의 율가미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56	2008-02-21	면책후 기록삭제가 안되어있음	상담.안내
157	2008-02-21	실명법 계속거래의 범위	상담.안내
158	2008-02-21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련 적법성 여부	상담.안내
159	2008-02-21	전세자금	상담.안내
160	2008-02-21	유가증권 해당 여부	상담.안내
161	2008-02-22	금융시설	상담.안내
162	2008-02-22	금융자격증 통합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담.안내
163	2008-02-22	조선식산은행주권회복	상담.안내
164	2008-02-22	잘못된 법을 고쳐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	상담.안내
165	2008-02-2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신요금체납자의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166	2008-02-22	상장법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167	2008-02-22	정책개선과제 건의서 제출의 건	상담.안내
168	2008-02-25	국내 어음제도 없앨 수는 없나?	상담.안내
169	2008-02-25	대부업 관련 문의	상담.안내
170	2008-02-26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표 구입시 신용결제 불가관련 문의	상담.안내
171	2008-02-26	저축은행 영업정지	상담.안내
172	2008-02-26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관하여...	상담.안내
173	2008-05-30	제3자에게 채무독촉	상담.안내

## 2008.1 ~ 2월 금융감독위원회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처리내용
1	2008-01-02	호소문	상담.안내
2	2008-01-02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장에게 바라는 글	상담.안내
3	2008-01-02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형법 법률위반 추완 항고 사기 347조, 공문서 행사법 255조	상담.안내
4	2008-01-03	도사가스 요금인하 등	해결
5	2008-01-03	호소문	상담.안내
6	2008-01-04	시설대여업자의 차량대여시 운용리스관련 여부.	해결
7	2008-01-08	질의	상담.안내
8	2008-01-08	호소문	상담.안내
9	2008-01-08	증권거래서조사(CP관련)	상담.안내
10	2008-01-08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 관련	상담.안내
11	2008-01-09	호소문	상담.안내
12	2008-01-10	호소문	상담.안내
13	2008-01-11	호소문	상담.안내
14	2008-01-17	증권거래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15	2008-01-17	한국기업평가 부당 신용평가	상담.안내
16	2008-01-18	대부업 위반 조치 요청	상담.안내
17	2008-01-23	부당은행 대출금 처리	상담.안내
18	2008-01-2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체에 관한 질의	해결
19	2008-01-30	터미널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상담.안내
20	2008-01-31	보험피해	상담.안내
21	2008-02-11	투자일임과 위탁운용	자체종결
22	2008-02-11	입원의료비 180일 한도의 정확한 해석	상담.안내
23	2008-02-13	해외 비영리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절차	해결
24	2008-02-13	상환된 연대보증인의 신용회복 요청	해결
25	2008-02-15	은행 도난 보상 관련	상담.안내
26	2008-02-18	연대보증인의 연체기록 5년간 관리 부당성 제기	해결
27	2008-02-18	펀드 보수·수수료 합리화방안은 언제쯤 발표되는지 질의.	상담.안내
28	2008-02-22	최소한의 신용 안전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해결
29	2008-02-22	회사 회생	상담.안내
30	2008-02-27	펀드 보수·수수료 합리화방안 발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담.안내
31	2008-02-28	ㅇㅇ	자체종결

## 2008.3 ~ 12월 금융위원회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처리내용
1	2008-03-04	중앙종합금융증권서신->인치사,박세영->응가로,	자체종결
2	2008-03-04	신용불량자 구제에 관한 제안	상담.안내
3	2008-03-04	연대보증인의 연체기록 5년간 관리부당성 제기	해결
4	2008-03-04	탄원서	해결
5	2008-03-04	사채업자이자법이 이상하여	상담.안내
6	2008-03-04	채무불이행자등재	상담.안내
7	2008-03-04	이자제한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상담.안내
8	2008-03-04	보험판매 플라자 제도에 대하여	정책제안
9	2008-03-05	카드발급때 신용조회는 몇번인가요?	상담.안내
10	2008-03-05	하나티비 동의없는 신용정보조회	상담.안내
11	2008-03-05	보험업법 해석 관련	상담.안내
12	2008-03-05	은행연체기록 삭제	상담.안내
13	2008-03-05	신용정보조회	상담.안내
14	2008-03-05	신불자에 관한 건의	정책제안
15	2008-03-05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처리...	상담.안내
16	2008-03-05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17	2008-03-05	정부조직개편 에 따른 휴우증이 현실이 되어서는 않된다 하여 글올립니다	해결
18	2008-03-05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상담.안내
19	2008-03-05	2000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해결
20	2008-03-05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제시 요망	상담.안내
21	2008-03-06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상환	해결
22	2008-03-06	엘지파워콤이 맘대로신용조회하네요	상담.안내
23	2008-03-06	금융[대출업무소견]	상담.안내
24	2008-03-06	상품권 액면가와 영수증발급가의 차이에 대한 법적해석 확인바람.	상담.안내
25	2008-03-06	상품권법 유권해석 요청 민원 또 국세청에 보냈네.. --;;	상담.안내
26	2008-03-06	불법채권추심	해결
27	2008-03-06	사채업자너무합니다	상담.안내
28	2008-03-06	건의서(지식경제부 경위)	상담.안내
29	2008-03-07	제 2금융권 대출 금리	상담.안내
30	2008-03-07	카드회사와 사금융업체..	상담.안내
31	2008-03-07	15층밀 임대아파트화재보험미가입.(화재시대형사고)	자체종결
32	2008-03-10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항에 대한 질의 사항	해결
33	2008-03-10	신용불량자의 취업에 관하여	상담.안내
34	2008-03-10	건의서	해결
35	2008-03-10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가압류	상담.안내
36	2008-03-10	대한생명보험금 지급관련 사정 및 개선 요구	상담.안내
37	2008-03-11	신용불량	상담.안내
38	2008-03-11	신용불량의 해제의건에대한 건의	상담.안내
39	2008-03-11	기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40	2008-03-11	저희 회사 좀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41	2008-03-11	보증서 발급 회피	상담.안내
42	2008-03-11	2,3년 전에 면책된 것을 계속 불법추심을 하네요.....	해결
43	2008-03-11	2007. 8. 7자 당초 신고분중 내용상의 변동이 있어 "추가"	해결
44	2008-03-11	금융소외자	상담.안내
45	2008-03-12	전자금융거래법이 뭤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상담.안내
46	2008-03-12	풍력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해외펀드사 투자 제약	자체종결
47	2008-03-12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중단사유가 궁금합니다	자체종결
48	2008-03-17	기업은행,,금융감독위원회,,	자체종결
49	2008-03-18	제발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상담.안내
50	2008-03-18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식구들한테 전화해서~~참	자체종결
51	2008-03-18	기아자동차의 횡포	자체종결
52	2008-03-18	엔화대출 한국은행 항의방문자모집	자체종결
53	2008-03-18	민원신청 해결되었습니다.	해결
54	2008-03-18	파산은행피해	해결
55	2008-03-19	서울보증보험 직원과의 통화내용	자체종결
56	2008-03-19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부서에 대한 질문	해결
57	2008-03-20	공인회계사 경력1차시험연제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58	2008-03-20	개인회생중아파트담보대출건	상담.안내
59	2008-03-20	개인회생중아파트담보대출	상담.안내



60	2008-03-20	황당한 휴면에금찾기	상담.안내
61	2008-03-20	신탁직원의 허위 채무독촉	상담.안내
62	2008-03-20	특파(악어, 타조)핸드백 제조 업체입니다.	자체종결
63	2008-03-20	맞지못할 금융감독위	자체종결
64	2008-03-20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30% 상환에 대하여	자체종결
65	2008-03-21	티티시아이를 상장폐지시켜주세요	해결
66	2008-03-21	돈이 남의 계좌로 들어간것 같아요.	상담.안내
67	2008-03-21	광복이전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돈 찾을수 있나요?	상담.안내
68	2008-03-21	광복이전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돈 찾을수 있나요?	상담.안내
69	2008-03-21	신용불량	해결
70	2008-03-21	신용불량자에게 은행대출 왜 안해주죠	해결
71	2008-03-21	와이프가 저를 떠나준게 너무도 고맙습니다 .....	해결
72	2008-03-21	현재의 금융제도, 은행권대출제도를 수정해주십시오.	해결
73	2008-03-2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	해결
74	2008-03-21	신용불량자의 이룰 수 없는 꿈	해결
75	2008-03-21	카드사 채권추심에 대해 대한민국평범한주부의 생각.....	해결
76	2008-03-21	언제까지 신용불량자를 만드시나요?	해결
77	2008-03-21	한신평 신용평가기준개선 부탁.-중소기업인입장(증거자료)	해결
78	2008-03-24	코스닥등록업체인 한국오발의 유상증자관련한 내용입니다.	해결
79	2008-03-24	IMF 도산자 구제 하여주시시오	해결
80	2008-03-24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
81	2008-03-24	중앙신용정보 박상정의 무례한 언행	상담.안내
82	2008-03-24	중앙신용정보 박상정의 무례한 언행	상담.안내
83	2008-03-24	제3자에 대한 채무고지	상담.안내
84	2008-03-24	금융기관의 부당행위	해결
85	2008-03-25	100% 부정금전인출 잠재일당	해결
86	2008-03-25	창업자금대한 고의로 현대표가 보증사고를내어 집이 강매 되고 현대표가주식도 빼앗고 대표이사직빼앗긴일	해결
87	2008-03-25	신용보증기금 창업스쿨 대상자 선정	해결
88	2008-03-25	120만원 이하 급여통장 압류, 구조 바랍니다.	해결
89	2008-03-25	해동상호신용금고 채권 청구권(채권 부당 청구권 시정요구)	해결
90	2008-03-25	간접투자증권교육이수 후 등록에 관한 질문	해결
91	2008-03-25	대통령 각하께	해결
92	2008-03-25	파산면책자은행신용거래불량해지건	해결
93	2008-03-25	도시가사 요금납부방법 바꾸어주세요	해결
94	2008-03-25	미용업의 간이과세, 일반과세, 카드수수료.	해결
95	2008-03-25	국민혈세가낭비되고있습니다....	자체종결
96	2008-03-25	신용불량자구제-신용보증기금은제외인가?	해결
97	2008-03-25	주식차명계좌 거래사실 인지에 대해...	상담.안내
98	2008-03-25	금융관련 제안	해결
99	2008-03-25	금융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결
100	2008-03-25	보증인의 딸의 채무에 대해서 강압적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01	2008-03-25	사업자 긴급대출 필요성	해결
102	2008-03-25	대통령 각하께	자체종결
103	2008-03-25	탄원서	해결
104	2008-03-25	무자격자 에게 신용카드발급에대해 금융감독원장님께올리는 진정서	상담.안내
105	2008-03-25	고리사채보다 더 무서운 공공사업	해결
106	2008-03-2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상담.안내
107	2008-03-25	금융권의 횡포?? 정말 싫네요....	자체종결
108	2008-03-25	신용회복위원회문제점 보안	정책제안
109	2008-03-26	개인신용 등급에 대하여	상담.안내
110	2008-03-26	대출 좀 되게해주세요	해결
111	2008-03-26	손해배상	해결
112	2008-03-26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질의사항	자체종결
113	2008-03-26	주택연금보험 관련	해결
114	2008-03-26	주택연금보험 관련	자체종결
115	2008-03-26	역모기지론 대상연령 인하	자체종결
116	2008-03-26	대위변제를 시키면서도 저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아습니다	해결
117	2008-03-26	파산면책이후 연합회의 전산누락및 책임전가	상담.안내
118	2008-03-26	법인세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조항 실무적용	자체종결
119	2008-03-26	대출채무보증 이자감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의 추정되는 불법추심 및 사해행위	해결

120	2008-03-26	신용에관하여	해결
121	2008-03-26	창업자금 지원	해결
122	2008-03-26	대부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안내
123	2008-03-26	이명박대통령의 경제 관련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상담.안내
124	2008-03-26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은행계좌 유지 문제..	자체종결
125	2008-03-26	매출액 기준 금융시스템 개선 제안	해결
126	2008-03-26	개인신용정보 임의 조회	해결
127	2008-03-26	금융문란질서 기록 해제 방법	해결
128	2008-03-26	신용정보에 관하여..	해결
129	2008-03-26	휴대전화로대출신청하라고조회건수만올라	해결
130	2008-03-26	성실납부 개인회생자의 금융활동을 도와주시지요.	해결
131	2008-03-26	역시 어려운 규제	해결
132	2008-03-26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개선방안	해결
133	2008-03-26	금융피해자들좀 살려주세요	해결
134	2008-03-27	파산자 은행대출 지원	해결
135	2008-03-27	이명박대통령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해결
136	2008-03-27	신용불량자 배드뱅크 더 신용불량자 만들어요 개선좀해주	해결
137	2008-03-27	10년동안 신용불량자의 회생을위해....	해결
138	2008-03-27	참 대통령 말한 마디가 이렇게도 될수가 있군요	해결
139	2008-03-27	개인회생인들에게 희망을...	해결
140	2008-03-27	신용불량자도 은행대출 받게해주세요.	해결
141	2008-03-27	추가질문	해결
142	2008-03-27	상장회사 주주총회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문의	자체종결
143	2008-03-27	이자제한법 관련 문의	해결
144	2008-03-27	교통사고 피해	상담.안내
145	2008-03-27	개인정보 - 추심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 했는지에 대한 소명 요구	상담.안내
146	2008-03-27	산업은행이 민영화가되면 서민들은 이제 무조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상담.안내
147	2008-03-27	개인 신용등급 및 신용회복 관련 민원 요청	해결
148	2008-03-27	교직원 대출	해결
149	2008-03-27	카드결제시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50	2008-03-27	신용불량자 입니다..	정책제안
151	2008-03-27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한국 자산공사 이길 바	해결
152	2008-03-27	대부업체불법추심때문에정말미치겠습니다.	해결
153	2008-03-27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이 카드로 결제가 안되는 이유?	해결
154	2008-03-27	모기지론( e-모기지론포함) 신규대출 금리인하 요청의 건	해결
155	2008-03-27	모기지론( e-모기지론포함) 신규대출 금리인하 요청의 건	해결
156	2008-03-27	공무원들의 한심한자태	해결
157	2008-03-27	너무합니다.	해결
158	2008-03-27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한국자산신탁)에 대한 경영침해 행위관련	상담.안내
159	2008-03-27	연대보증인 연체기록 5년간의 관리부당성	상담.안내
160	2008-03-27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161	2008-03-27	이의제기서	상담.안내
162	2008-03-27	안녕하십니까?	상담.안내
163	2008-03-27	금융감독위원 민원 담당자님께	상담.안내
164	2008-03-28	대출전화지갑습니다	해결
165	2008-03-28	파산후면책이후의 신용상태에대해서 선저해 줄수있는 방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166	2008-03-28	일제강점기 보험금 지급 특별법 제정요망	상담.안내
167	2008-03-28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해결
168	2008-03-28	신용회복지원확정 후 계속적인 채무상환독촉(한국자산관리공사)	해결
169	2008-03-28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미련	정책제안
170	2008-03-28	회사운영자금및정책자금사용방법	해결
171	2008-03-28	이명박 대통령님! 신불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2	2008-03-28	금융문란이라니???	해결
173	2008-03-28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에관하여~~~~~	정책제안
174	2008-03-28	전세대출 집주인확약서	해결
175	2008-03-28	은행의 민영화에대한 의견	상담.안내
176	2008-03-28	신용회복 취소	상담.안내
177	2008-03-28	정말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78	2008-03-28	신용 불량자 규제방법	정책제안
179	2008-03-28	도움을청합니다.	정책제안

180	2008-03-28	자동차 사고 보상에 대한 부당함	해결
181	2008-03-28	역 모기지에 대해서	해결
182	2008-03-28	여수신용보증기금의 부정한방법의 부실떠넘기기	해결
183	2008-03-31	뉴 스타트 2008 듣는순간 희망이 있었는데.....	해결
184	2008-03-31	신용불량 해결요청	상담.안내
185	2008-03-31	민원취하	해결
186	2008-03-31	말도 안되는 신용불량자 정책	해결
187	2008-03-31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국세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인정치 않고 실명인증 거부함.	자체종결
188	2008-03-31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여쭙니다.	해결
189	2008-03-31	영세수출업자에 대한 우리은행의 행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90	2008-03-31	보증 보험 관련	상담.안내
191	2008-03-31	신용보증기금 융자신청관련 민원신청	해결
192	2008-03-31	범칙금, 등록금 등 카드 납부	해결
193	2008-03-31	대통령선거때 공약한 신용불량 대책은?	상담.안내
194	2008-03-31	궁금합니다.	해결
195	2008-03-31	신규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상담.안내
196	2008-03-31	신보 천안지사 미상담내용 임의 허위게재	해결
197	2008-03-31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에 행정실수	해결
198	2008-03-31	대출규제 완화	해결
199	2008-03-31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해결
200	2008-03-31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믿고 한표 찍었는데....	해결
201	2008-03-31	배드뱅크 상환중 신용등급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202	2008-03-31	문의드립니다	해결
203	2008-03-31	이명박 정부<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각성하라!!	상담.안내
204	2008-03-31	파산한 사람들도 일할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상담.안내
205	2008-04-01	신용보증기금 보증업무 관련하여	상담.안내
206	2008-04-01	서민은 지금 경제적인것도 힘들고 마음도 힘이 듭니다...	상담.안내
207	2008-04-01	신용보증기금 살여주세요	해결
208	2008-04-01	신용보증기금 살여주세요	자체종결
209	2008-04-01	개인파산, 면책자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상담.안내
210	2008-04-01	신용회복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상담.안내
211	2008-04-01	금융소외자	해결
212	2008-04-01	투기 지역내 대출	해결
213	2008-04-01	신용불량자 구제-연체사실등록해제	해결
214	2008-04-01	신용보증기금 담보설정	상담.안내
215	2008-04-01	신용보증 기금 문제(반월지점)	상담.안내
216	2008-04-01	정상적인 곳에선 대출이 안되요!도와주세요	정책제안
217	2008-04-01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제3자 채권변제요구와 부동산 가압류 철회 요구를 요구하며	해결
218	2008-04-01	신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 간소화 적용: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19	2008-04-01	2008년 1000억 수출 목표를 추진중인 소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무역 금융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림	상담.안내
220	2008-04-01	보월료 지급요청	상담.안내
221	2008-04-01	서민대출및 소외층 구제방안	정책제안
222	2008-04-01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자체종결
223	2008-04-01	신용회복프로그램보완 관련 (한국일보 3/28 보도내용) 관련한 문의 입니다.	상담.안내
224	2008-04-01	개인회생진행자도 신용카드 사용이 되게 해주세요	상담.안내
225	2008-04-01	주권 상장폐지의 억울함 (한도하이테크)	해결
226	2008-04-01	사기사건 계좌정보 요청	해결
227	2008-04-01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해결
228	2008-04-01	접수번호 1AA-0803-050887 답변!	해결
229	2008-04-01	개인회생 절차중인 자의 신용정보 관련	상담.안내
230	2008-04-01	개념을 상실한 신용보증기금의 연행에 대한 민원신청	상담.안내
231	2008-04-01	신용회복 지원	해결
232	2008-04-01	금융감독위 직원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233	2008-04-01	정확한신용불량해지날자	해결
234	2008-04-01	신용불량자 관련	해결
235	2008-04-01	무지한 백성이 죄인이로소이다	상담.안내
236	2008-04-02	제목 : 한도하이테크 상장폐지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업무태만 진정	해결
237	2008-04-03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투명성 제고	해결
238	2008-04-03	제일화재 진정서	상담.안내

239	2008-04-03	금융기관의 출금관리 소홀로 인한 예금자 재산손실 피해구	상담.안내
240	2008-04-03	진정서	상담.안내
241	2008-04-03	금융감독위원장님!	상담.안내
242	2008-04-03	저축은행관련 진정서	상담.안내
243	2008-04-03	대부업법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244	2008-04-03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요청서	상담.안내
245	2008-04-04	신용불량	상담.안내
246	2008-04-04	주택담보대출에관해서	상담.안내
247	2008-04-04	금융감독원직원과태료 및....	상담.안내
248	2008-04-04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249	2008-04-04	신용회복	해결
250	2008-04-04	코스닥 등록업체인 한국오발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임	자체종결
251	2008-04-04	가진자들의 꽃놀이패!!	상담.안내
252	2008-04-04	휴먼 예금 보험금	해결
253	2008-04-04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상담.안내
254	2008-04-04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상담.안내
255	2008-04-04	한국 자산공사의 횡포	해결
256	2008-04-0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어시 배우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상담.안내
257	2008-04-04	은행	상담.안내
258	2008-04-04	답답합니다.	상담.안내
259	2008-04-04	대출을 받고싶었요	상담.안내
260	2008-04-04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투명성 제고 요청] 민원 처리 지연	상담.안내
261	2008-04-04	금융실명제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262	2008-04-0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의 횡포에 대한 조치요구	상담.안내
263	2008-04-04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거절 조치요구	상담.안내
264	2008-04-04	자산관리회사(씨러스)에 대한 사업승인 철회요청	상담.안내
265	2008-04-07	근저당설정권	상담.안내
266	2008-04-07	주식매수선택권 가격 및 수량 변경	해결
267	2008-04-07	도와 주세요	상담.안내
268	2008-04-07	상근감사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해결
269	2008-04-07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보증인	상담.안내
270	2008-04-07	패션 뷰티끄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71	2008-04-07	신용불량자는 4대보험가입된데서일할수 있는지요	상담.안내
272	2008-04-07	코스닥 - 두림티앤씨 조사 요함	해결
273	2008-04-07	대출	상담.안내
274	2008-04-07	신용불량건	상담.안내
275	2008-04-07	부탁드립니다	해결
276	2008-04-07	소유권반환소송	상담.안내
277	2008-04-07	신용 회복에 관한 건	상담.안내
278	2008-04-07	지로용지 규격통일	해결
279	2008-04-07	'메가뱅크' 메가론급 투쟁 부를 것!	상담.안내
280	2008-04-07	'메가뱅크' 메가론급 투쟁 부를 것!	상담.안내
281	2008-04-07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82	2008-04-07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상담.안내
283	2008-04-07	대부업등록 요부	해결
284	2008-04-07	고소 하려구 합니다.	해결
285	2008-04-07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재산 강제집행	상담.안내
286	2008-04-07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관련	상담.안내
287	2008-04-07	자동차보험 관련	상담.안내
288	2008-04-07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289	2008-04-07	교보생명 관련	상담.안내
290	2008-04-07	삼성생명 관련	상담.안내
291	2008-04-08	IT 인터넷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따른 보충질의	상담.안내
292	2008-04-08	대리점으로전환	상담.안내
293	2008-04-08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	상담.안내
294	2008-04-08	몇년전의 보증채무에 관해...	상담.안내
295	2008-04-08	보험계약 취소건	자체종결
296	2008-04-08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권력기관인가요? 서민의 편에서 일하 는 곳인가요?	상담.안내
297	2008-04-08	한텔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자체종결
298	2008-04-08	본인 확인 증명서	해결
299	2008-04-08	실기주의 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상담.안내
300	2008-04-08	권리락 당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301	2008-04-08	국가발전관련 제안	해결

302	2008-04-08	예금보험공사 의 예금자보호 법률 을 이용하여 부당행위 불	해결
303	2008-04-08	3자고지및 대위변제유도	자체종결
304	2008-04-08	각하께서하신말씀이아직까지공무원되시는분들은경외기모 양입니다	자체종결
305	2008-04-08	휴먼예금보험금 지급 시효일	해결
306	2008-04-08	전세 자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달게끔.....	상담.안내
307	2008-04-08	주택공사에서.전세자금 압류로 이사를못가게 됐었습니다	해결
308	2008-04-08	중국 사기단이 대한민국 영토까지 침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해결
309	2008-04-08	플래닛82 상폐금지	해결
310	2008-04-08	주)플래닛82 회사 상장폐지금지 요청 탄원	해결
311	2008-04-08	코스닥 상장기업 플래닛82와 관련된 진상을 밝혀달라!	해결
312	2008-04-08	코스닥 상장 플래닛 82 기술의 진위여부와 자살상폐의혹에	해결
313	2008-04-08	이명박대통령님 !플래닛82(주)SMPD를 살려주십시오	해결
314	2008-04-08	한국기업데이터(주)의 사업성검토 업무 가능 여부	상담.안내
315	2008-04-08	한텔소액주주 6천명과 그 가족 2만명의 억울함을 씀 합니	해결
316	2008-04-08	선처바랍니다	상담.안내
317	2008-04-08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18	2008-04-08	금융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반박	상담.안내
319	2008-04-08	금융위원회 답변에 대한 반박	상담.안내
320	2008-04-08	코스닥 등록종목 **플래닛82** 소액 주주입니다	해결
321	2008-04-08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급합니다	상담.안내
322	2008-04-08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신용평가제도 불합리	상담.안내
323	2008-04-10	질문드립니다.	해결
324	2008-04-10	제가모르는은행개설통장에관해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325	2008-04-10	근무지를 알아내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공급합니다	해결
326	2008-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공급한 점	자체종결
327	2008-04-10	소유권에 대하여	해결
328	2008-04-10	아동양육비를 압류 할 수 있나요	해결
329	2008-04-10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향	상담.안내
330	2008-04-10	신용카드 결제 거부	상담.안내
331	2008-04-1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e-모기지론)신규 대출시 금 리인하를 요구합니다.	상담.안내
332	2008-04-10	공동주택화재보험가입관련	상담.안내
333	2008-04-10	중국 사기단이 대한민국 영토까지 침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2)	해결
334	2008-04-10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상담.안내
335	2008-04-10	특수기록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관관계를 차단해 주세요	상담.안내
336	2008-04-10	신용보증기금 보증관련	상담.안내
337	2008-04-10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상담.안내
338	2008-04-11	노인네 휴대폰하나 바꿔주질못하네요	상담.안내
339	2008-04-11	소액서민금융재단	상담.안내
340	2008-04-11	서민주택융자이자경감바람	상담.안내
341	2008-04-11	개인회생	자체종결
342	2008-04-11	학원 통신 병원 약국... 관련 광고에 관하여	상담.안내
343	2008-04-11	법인대리점(GA)의 경영 관련 질의	해결
344	2008-04-1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상담.안내
345	2008-04-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은행이자세금 민원드립니다	상담.안내
346	2008-04-11	[주택공사 모기지론 신규대출 금리인하]서민경제를 위한	상담.안내
347	2008-04-11	채권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려 상황이 곤란합니다	상담.안내
348	2008-04-11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선하라	상담.안내
349	2008-04-11	보험료 카드결제에 관한 건	상담.안내
350	2008-04-11	취발유 경유 판매의 신용카드 수수료적용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
351	2008-04-11	은행 대출관련...	상담.안내
352	2008-04-11	대출사실 타인고지로인한 피해	상담.안내
353	2008-04-11	채무연체에 대한 신용불량 선처(생보산업)	상담.안내
354	2008-04-14	폐업한 사금융회사	해결
355	2008-04-14	불법 신용평가조치	상담.안내
356	2008-04-14	플래닛82 자살상폐를 막아 주십시오!! 제발~	해결
357	2008-04-1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기준 답변에 대한 재질의	상담.안내
358	2008-04-14	죽죽전화함에 일을 할수도 없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	상담.안내
359	2008-04-14	카드금액으로인해서법으로넘어가서....	상담.안내
360	2008-04-14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해결

361	2008-04-14	동의없는 신용조회(하나로텔레콤)	상담.안내
362	2008-04-14	신용불량자들을위해서.....	상담.안내
363	2008-04-14	은행 업무 관련 문의	해결
364	2008-04-14	국민제안 신청에 대한 제신청	상담.안내
365	2008-04-14	다시한번 간곡히 머리 조아려 선처바랍니다	상담.안내
366	2008-04-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송철회 및 친절한 상담부탁드립니다	해결
367	2008-04-14	말뿐인 신용회복	상담.안내
368	2008-04-14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철회 부탁드립니다.	해결
369	2008-04-14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못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370	2008-04-14	(주)정리금융공사 관련 진정	해결
371	2008-04-14	모욕감 그자체...	상담.안내
372	2008-04-14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탄원서(LIG손해보험사)	상담.안내
373	2008-04-14	채무변제 환급요청 (채권자: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374	2008-04-14	자산관리공사 인사	상담.안내
375	2008-04-14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376	2008-04-15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에 대한 질문	상담.안내
377	2008-04-15	주택금융공사 시행'역모기지론' 관련 탄원	상담.안내
378	2008-04-15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	해결
379	2008-04-15	일반적인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기입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상담.안내
380	2008-04-15	제가 1등공신 인지도 모릅니다.	상담.안내
381	2008-04-15	은행에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용심사가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상담.안내
382	2008-04-15	신용회복 완료자 불량거래 미삭제로 두번 죽이는경	상담.안내
383	2008-04-15	백만인서명운동법을 몰래라도 만들어주세요	상담.안내
384	2008-04-15	정당한 회계의 변경 문의	상담.안내
385	2008-04-15	카드단말기 임대 사용했는데 명의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결
386	2008-04-15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387	2008-04-16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88	2008-04-16	채권자가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제 3자에게 돈을	상담.안내
389	2008-04-16	신용회복에대하여	상담.안내
390	2008-04-16	법규 임의해석	상담.안내
391	2008-04-16	신용카드 적립	상담.안내
392	2008-04-16	직접말소에 대해서	해결
393	2008-04-16	분할상환 거절의 건	해결
394	2008-04-16	채권 주심에 대해서..	상담.안내
395	2008-04-16	이 많은 국가기관 중에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해결
396	2008-04-16	이 많은 국가기관 중에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해결
397	2008-04-16	신용회복하기가 너무어려워	해결
398	2008-04-16	신용회복	상담.안내
399	2008-04-16	채무변제 환급요청 (채권자: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400	2008-04-17	대출 회사	해결
401	2008-04-17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에 대한 질의	해결
402	2008-04-17	채권을 헐값에 산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상담.안내
403	2008-04-17	금융실명제관련 질의	상담.안내
404	2008-04-17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교체 관련	상담.안내
405	2008-04-17	자산관리공사 인사관련	상담.안내
406	2008-04-17	교통사고 피해보상분쟁(제일화제)	상담.안내
407	2008-04-17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당행위 진정	상담.안내
408	2008-04-18	자통법 내용 문의	지체종결
409	2008-04-18	농협 계좌 거래 조회 관련	상담.안내
410	2008-04-21	신용 연체자 통장 지급 정지에 대한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411	2008-04-21	現金流通이 經濟回生の 一等 功臣이다	상담.안내
412	2008-04-21	주택법제55조의2 2항규정 미가입시, 주택법시행령제72조의2 2항규정 미제출시 처벌규정 또는 불이익 여부?	상담.안내
413	2008-04-21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증보험과 주택법제55조의2 2항규정 보증보험의 차이점은???	상담.안내
414	2008-04-21	통합	상담.안내
415	2008-04-21	(36계) SH공사에 인감 안 띄어준다고,	지체종결
416	2008-04-21	대한금융회사란	상담.안내
417	2008-04-21	대한자산관리(주)회사의 협박문편지발송	상담.안내
418	2008-04-21	아들파산면책 및 임대아파트 구입 부탁 등	상담.안내
419	2008-04-21	공장재가동 요청	상담.안내

420	2008-04-21	특허기술사용 진파 요청	상담.안내
421	2008-04-21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관련(메르치화재해상보험)	상담.안내
422	2008-04-21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한 해석 질의(㈜롯데햄)	상담.안내
423	2008-04-22	옥션 웹사이트 개인 정보 누출 신고	상담.안내
424	2008-04-22	동화은행 주식에대하여	해결
425	2008-04-22	면책이후에도 계속되는 불법추심과 소송행위를 엄벌해주세요	상담.안내
426	2008-04-22	말도안되는 신문고~~~~~	해결
427	2008-04-22	새정부 들어 더욱심해진 채권추심	상담.안내
428	2008-04-22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안에 대하여	상담.안내
429	2008-04-22	곧 신용 불량자가 될러구 하는 청년입니다.....	상담.안내
430	2008-04-22	팩스넷 테이크시스템 종목게시판 주가에 관한 허위무미 유	자체종결
431	2008-04-22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432	2008-04-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문의	자체종결
433	2008-04-22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채무조정건입니다.	해결
434	2008-04-22	사채 이자제한 등 제언	해결
435	2008-04-22	채권 추심사에서 이런것두 가능한가요	상담.안내
436	2008-04-22	부채 해결 방법 문의	상담.안내
437	2008-04-22	보험업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질의	해결
438	2008-04-22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권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439	2008-04-22	연대보증인 관리소홀(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안내
440	2008-04-22	신용보증서 발급 기피	상담.안내
441	2008-04-22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상담.안내
442	2008-04-22	신용 보증기금 안산지점의 업무 처리에 대한점	상담.안내
443	2008-04-22	금융실명제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결
444	2008-04-22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채무조정건입니다.	해결
445	2008-04-2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거부(㈜대경하이텍)	상담.안내
446	2008-04-22	보험해약 원금 미보장(대한생명)	상담.안내
447	2008-04-23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해서....	해결
448	2008-04-23	가스사용량감면및할인혜택	상담.안내
449	2008-04-23	공매 이의신청	해결
450	2008-04-2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451	2008-04-23	무등록대부업자에 관한 문의	해결
452	2008-04-23	2007년 10월 23일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일법예고 관련	상담.안내
453	2008-04-23	여신전문금융업법	상담.안내
454	2008-04-23	살만하면....	해결
455	2008-04-23	살만하면.....	해결
456	2008-04-23	부탁드립니다.저희가정을	상담.안내
457	2008-04-23	명의자 핸드폰을 사용하고있다고하여 협박성전화를함	상담.안내
458	2008-04-23	신불자의 고민	상담.안내
459	2008-04-23	살만하면.....	해결
460	2008-04-23	살만하면....	해결
461	2008-04-23	신보대출 및 일반대출	상담.안내
462	2008-04-2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축소	상담.안내
463	2008-04-23	전화 불법추심	해결
464	2008-04-23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해결
465	2008-04-23	신용보증기금 채무보증 관련	상담.안내
466	2008-04-2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반대	상담.안내
467	2008-04-24	변제자의 신용 회복	상담.안내
468	2008-04-24	자통법-부동산전문운용사 등록요건	자체종결
469	2008-04-24	이명박 대통령 귀하	상담.안내
470	2008-04-24	대부업등록 업무 문의	해결
471	2008-04-24	다시 글을 올립니다...	해결
472	2008-04-24	남편의 채무 때문에 채권추심하는 분께서 저를 괴롭힙니다.	상담.안내
473	2008-04-24	파산면책받은 사람이 기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상담.안내
474	2008-04-24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민원에있어서 정경심의민원건 은두 번다시없어야되고 개선되어야합니다.	자체종결
475	2008-04-24	기업인의 채무변제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관리가 기업을 죽입니다.	상담.안내
476	2008-04-24	금융 상품 취급 Portal Site 허가 및 구축, 서비스 제공	해결
477	2008-04-24	보증금이있는 구제자들 대출도와주세요	상담.안내
478	2008-04-24	신용조회등제관련	상담.안내
479	2008-04-24	역모기지론 대상 제한 이의(오피스텔)	상담.안내
480	2008-04-24	보험업법 위반관련 조사요청	상담.안내
481	2008-04-25	[질의]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해결
482	2008-04-25	[질의]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자체종결

483	2008-04-25	매리츠화재의 말도안되는 보험료자동이체. 자들맘대로 돈을 통장에서 빼가네	자체종결
484	2008-04-25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485	2008-04-25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범위	해결
486	2008-04-25	기술보증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추심요구	상담.안내
487	2008-04-25	채무탕감에 대하여	자체종결
488	2008-04-25	신용카드에 사진 박기	상담.안내
489	2008-04-25	집으로 통보가..	상담.안내
490	2008-04-25	뉴스타트2008 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491	2008-04-25	세광조선 기술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담보권 발소 요청	자체종결
492	2008-04-25	개인 채권자의 채권추심기관 이용	상담.안내
493	2008-04-25	신용관리 대상에 묶여 대출불가...-T	상담.안내
494	2008-04-2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채업자시켜서 돈받아내고 있어요...	해결
495	2008-04-25	피해보상요구	상담.안내
496	2008-04-25	병원 치료비 및 채무관련 진정	상담.안내
497	2008-04-25	국가의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저소득층 금융지원및자활센터의 문제점을 수정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498	2008-04-25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499	2008-04-25	제가원하는건....	상담.안내
500	2008-04-25	신용보증기금 민원처리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501	2008-04-25	소액서민금융재단	상담.안내
502	2008-04-25	신용보증기금대출건....	상담.안내
503	2008-04-25	채권추심에 대하여....	상담.안내
504	2008-04-25	우리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법안이 마련되면 않되나요	상담.안내
505	2008-04-25	신용불량자 회복건	상담.안내
506	2008-04-25	LIG의 부당한 업무처리(교통사고 보상)	상담.안내
507	2008-04-25	신용보증기금 구상금에 대한 진정(대경토건)	상담.안내
508	2008-04-25	보험회사 상호사용관련 확인요청	상담.안내
509	2008-04-28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상담.안내
510	2008-04-28	외국에서 저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허락없이 사용되어 신고 합니다.	해결
511	2008-04-28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512	2008-04-28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513	2008-04-28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514	2008-04-28	금융상품판매관련자격 시행개선	상담.안내
515	2008-04-28	전화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합니다.	해결
516	2008-04-28	금산 분리 정책 건의	해결
517	2008-04-28	해외사업자에게 본국은행 용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
518	2008-04-28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19	2008-04-28	사람보구 죽으라는 건지	상담.안내
520	2008-04-28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521	2008-04-28	위탁판매	상담.안내
522	2008-04-28	사채광고에 대하여 ....	해결
523	2008-04-28	6억이상아파트당첨자	해결
524	2008-04-28	해와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해결
525	2008-04-28	신용불량 구제	상담.안내
526	2008-04-28	이명박 대통령 귀하	상담.안내
527	2008-04-28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입니다.	해결
528	2008-04-28	신용불량자의 막대한 생계 및 신불자를 양산하는 구조 폐지	상담.안내
529	2008-04-28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의 사용에 관하여	해결
530	2008-04-2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결
531	2008-04-28	민사채권추심 금지법안 진행상황 문의	상담.안내
532	2008-04-28	불법 개인정보요구 채권추심 및 업무방해	상담.안내
533	2008-04-28	신용불량자의 생계곤란 호소	상담.안내
534	2008-04-28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요망	상담.안내
535	2008-04-28	연체기록에 따른 대출거부 관련(신용보증재단)	상담.안내
536	2008-04-29	피민원인 사망에 따른 국내 금융자산 현황확인차.	상담.안내
537	2008-04-29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책에 대한 제안	상담.안내
538	2008-04-29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539	2008-04-29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540	2008-04-29	신용회복 (서민은 울고있습니다)	상담.안내
541	2008-04-29	벤처인증지원	상담.안내



542	2008-04-29	대형헬스클럽에 관련된 사기피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543	2008-04-29	신용보증기금의 불법신용조치	상담.안내
544	2008-04-29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담.안내
545	2008-04-29	채권매입행위 인가여부 질의(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7	상담.안내
546	2008-04-29	신보 김해지점의 부당한 업무(보증인 신원 미확인)	상담.안내
547	2008-04-30	불법추심 산와마니.	상담.안내
548	2008-04-30	한화손해보험 승인수납	자체종결
549	2008-04-30	사업자금지원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해결
550	2008-04-30	사금융변창	해결
551	2008-04-30	별급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여부	상담.안내
552	2008-04-30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적 업무처리 직원에 대해 문책 요망 합니다	해결
553	2008-04-30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상담.안내
554	2008-04-30	부동산 펀드 중 회사형 펀드 관련 문의	해결
555	2008-04-30	관계회사 대여금 대여결정이 증권거래법 191조 19에 위반 되는지 여부	자체종결
556	2008-04-30	감면 요청합니다	해결
557	2008-04-30	생계형신용보증서 운영을 탄력성있게 해주십시오	상담.안내
558	2008-04-30	장외파생금융거래요 불공정탄원서(씨티은행,SC제일은행)	상담.안내
559	2008-04-30	금감원 직원 비위관련	상담.안내
560	2008-05-01	카드결제거부	상담.안내
561	2008-05-01	이명박 대통령 귀하	상담.안내
562	2008-05-01	이명박 대통령 귀하	상담.안내
563	2008-05-01	신용카드회사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해주세요	상담.안내
564	2008-05-01	금융거래정보제공 해당여부	해결
565	2008-05-0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상담.안내
566	2008-05-0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담.안내
567	2008-05-01	채권추심 직원의 도를 넘어선 추심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며 재발방지 꼭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68	2008-05-01	주택담보대출비용	해결
569	2008-05-01	부당한 보험보상금 산정 관련(동부화재)	상담.안내
570	2008-05-01	보험 보상 거절에 대한 항의	상담.안내
571	2008-05-02	국가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건의 등	해결
572	2008-05-02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573	2008-05-02	이명박 대통령님께 - 아래의 글을 잘 살펴 보시기를 희망함	자체종결
574	2008-05-02	생활안전자금예의한만원	상담.안내
575	2008-05-02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연임 희망	상담.안내
576	2008-05-02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송동식씨에게	상담.안내
577	2008-05-02	기술평가보증증권	자체종결
578	2008-05-02	억울하게 당한 실향민을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579	2008-05-02	신용보증기금의 잘못된 급여압류	상담.안내
580	2008-05-02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업무지연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해결
581	2008-05-02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건의	상담.안내
582	2008-05-06	신용보증기금 이의	자체종결
583	2008-05-06	천기업 정책과 무역 금융	상담.안내
584	2008-05-06	신용불량자사면 그리고 도덕적해이	상담.안내
585	2008-05-06	동남은행	상담.안내
586	2008-05-06	연대보증인의억울함을 없애주세요	해결
587	2008-05-06	채무금관련 진정	해결
588	2008-05-06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기간연장에 대한 위헌판결과 과다 채무상환	상담.안내
589	2008-05-06	송송관련건	해결
590	2008-05-06	금융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종결
591	2008-05-06	금융실령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질의(우리투자	상담.안내
592	2008-05-06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때문에 세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593	2008-05-07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불이행에 따른 채무 1억원 손실 회복 요청	상담.안내
594	2008-05-07	사체하는사람이괴롭혀요	상담.안내
595	2008-05-07	외환은행 조기 매각 시 우리의 대응방향	자체종결
596	2008-05-07	토지공유지분 금융규제 정비요청	해결
597	2008-05-07	...이명박정부 보시오.....	상담.안내
598	2008-05-07	자동이체 해지	해결
599	2008-05-07	대우조선해양[주]을 국민기업으로 만듭시다.	상담.안내
600	2008-05-07	신용보증기금 좀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상담.안내

601	2008-05-07	모친이 불법추심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상담.안내
602	2008-05-07	신용보증기금을 다녀와서..	상담.안내
603	2008-05-08	대부업체지만말은좀삼가해야지요.	상담.안내
604	2008-05-07	신용회복채권 재조정 요청	상담.안내
605	2008-05-08	대부업체지만말은좀삼가해야지요.	상담.안내
606	2008-05-08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보증에 대하여	상담.안내
607	2008-05-0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문의	해결
608	2008-05-08	.....이명박 대통령 귀하.....	상담.안내
609	2008-05-08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은 대출이힘드어요???	상담.안내
610	2008-05-08	신용불량 정보 조회	상담.안내
611	2008-05-08	금융기관 가게대출과 관련한 질의	해결
612	2008-05-08	산업은행 총재 인사관련	상담.안내
613	2008-05-09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축소계획 철회 요청	상담.안내
614	2008-05-0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3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해석상의 질의	해결
615	2008-05-09	신용보증기금 완전 사금융식 친절도를 나타냅니다.	상담.안내
616	2008-05-09	기술보증기금에서 황당한일이..	상담.안내
617	2008-05-09	대출정보.연체기록 삭제관련	해결
618	2008-05-09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소관관서의 장의 범위	해결
619	2008-05-09	리드코프 사용하지 맙시다.	상담.안내
620	2008-05-09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질문	해결
621	2008-05-09	신용회복 보장 관련건	상담.안내
622	2008-05-09	답변바랍니다.	해결
623	2008-05-09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624	2008-05-10	아무 말 없이 만져서 통증이 생겼는데,	자체종결
625	2008-05-10	신용불량자 구제요청	상담.안내
626	2008-05-10	미자필...??!!	상담.안내
627	2008-05-13	보험 교차판매 조기 허용	상담.안내
628	2008-05-13	타인의서류를지참하여려쉬앤캐쉬등대출회사에서명의도용으로사기대출받음	상담.안내
629	2008-05-13	신용정보상의 "신용회복중" 기록 삭제 추진사항	상담.안내
630	2008-05-13	대부업조회기록으로인한 피해구제요청	상담.안내
631	2008-05-13	개인신용회복에관한건	상담.안내
632	2008-05-13	일방적, 불공정한 이자조정중제요청.	상담.안내
633	2008-05-13	전혀 알지못하는 채권자와 채무액.	상담.안내
634	2008-05-13	열심히 성실하게 신용회복중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상담.안내
635	2008-05-13	유사수신과 선수금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해결
636	2008-05-13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637	2008-05-13	자통법 시행 관련 질의 2 가지	해결
638	2008-05-13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진정	상담.안내
639	2008-05-13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640	2008-05-13	대우조선 해양(주) 대각관련 사항	상담.안내
641	2008-05-13	금전신탁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후 취득분에 대한 이익소속 가능성	해결
642	2008-05-13	신보의 채무조정 요청(분쟁조정신청서)	상담.안내
643	2008-05-13	은행대출 인보증 질의	상담.안내
644	2008-05-13	금감원 공시심사실의 감사요구	상담.안내
645	2008-05-14	정당한 서류발송거부하는 하나로텔레콤	자체종결
646	2008-05-14	민원을 취하합니다...	자체종결
647	2008-05-14	서민금융재단에대하여	상담.안내
648	2008-05-14	관계회사에 금전대여시 해당 법령위반여부를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해결
649	2008-05-14	개인금융정보 확인 방법	상담.안내
650	2008-05-14	은행법 관련 질의	해결
651	2008-05-14	신용회복 서민금융 관련	상담.안내
652	2008-05-14	상품권은 유통업체의 탈세용인가??	상담.안내
653	2008-05-14	자동차구입시 법인카드로 구매불가능이유	상담.안내
654	2008-05-14	증권거래 관련 문의(법관련)	자체종결
655	2008-05-14	이번08년05월06일 신설된 주식선물의 상품	해결
656	2008-05-14	신용불량자 감면혜택관련	상담.안내
657	2008-05-14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불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의 건 진 정 서	상담.안내
658	2008-05-14	메리츠화재의 보험계약(화재보험)무배당성공파트너보험	상담.안내
659	2008-05-15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결

660	2008-05-15	제 동의없이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상담.안내
661	2008-05-15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해결
662	2008-05-15	한국자산관리공사 무담보채권성과관리실의 업무태만	해결
663	2008-05-15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664	2008-05-15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상담.안내
665	2008-05-15	원더풀 채권추심 이래도 되는건가요	해결
666	2008-05-15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대우(광진지점)	상담.안내
667	2008-05-15	새마을금고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행안부 공동접수)	상담.안내
668	2008-05-16	석유값 100원이상 내릴수 있는 방법	자체종결
669	2008-05-16	08년05월6일주식선물의보완설명	해결
670	2008-05-16	감독기관에서 예보는 영업정지 5년이넘은 피해자들의 청산 금을 조속히 완결 해 주도록 도와주세요.	해결
671	2008-05-16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	해결
672	2008-05-16	잠시있던곳(공익근무했던곳)에 전화해서~	상담.안내
673	2008-05-16	보증서발급요청	상담.안내
674	2008-05-16	신탁업 등록여부 질의	해결
675	2008-05-16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대우(광진지점)	상담.안내
676	2008-05-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질의	상담.안내
677	2008-05-19	보이스 피싱 사기 당한 돈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대한민 국에 살겠습니까?	해결
678	2008-05-19	은행에 사업자금 대출하러 갔다가 신용등급만 하락됐네요	상담.안내
679	2008-05-19	직장인에게 은행휴무	해결
680	2008-05-19	불법 채심	상담.안내
681	2008-05-19	불법 채심..	상담.안내
682	2008-05-19	신용불량자구제	상담.안내
683	2008-05-19	통신요금 연체자 구제!	상담.안내
684	2008-05-19	영업정지 된지 만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안하는 예 금보험공사를 바로 잡아주세요.	자체종결
685	2008-05-19	공갈 욕설	상담.안내
686	2008-05-19	개인신용에 관한 글	상담.안내
687	2008-05-19	사채업자같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상담.안내
688	2008-05-19	소송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는 의미에서 중재요청합니다.	상담.안내
689	2008-05-19	증권거래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자체종결
690	2008-05-19	신용등급한등상승	상담.안내
691	2008-05-19	이자 갚다가 원금은 몇배??	상담.안내
692	2008-05-19	주유소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기름을 넣는 것 같습니다..	자체종결
693	2008-05-19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자료 공개 요청	상담.안내
694	2008-05-20	법령 해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법	상담.안내
695	2008-05-20	외환은행의 매각반대 (HSBC매각)	상담.안내
696	2008-05-20	카드결제 문의	상담.안내
697	2008-05-20	신용기금 상담후 글을 올립니다	자체종결
698	2008-05-20	소액카드결제외려움	상담.안내
699	2008-05-20	은행대출상담사 등록관련한 질문	해결
700	2008-05-20	대출 신청에 대해..	해결
701	2008-05-20	금액차감	자체종결
702	2008-05-20	금융기관의 인사청탁관련 호소, 개혁요청	상담.안내
703	2008-05-21	무차별 홍보 자제 요청	해결
704	2008-05-21	중소기업 회생 선처	자체종결
705	2008-05-21	불법채권추심	상담.안내
706	2008-05-21	부채증명수수료 과다청구는 문제가 있다.	상담.안내
707	2008-05-21	외부감사 대상여부	상담.안내
708	2008-05-21	광주은행장 선임과 관련 노동조합 입장진 서명지 전달	상담.안내
709	2008-05-21	보증기금 및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자체종결
710	2008-05-21	기업분석자료 영리목적 무단판매에 대한 의견	상담.안내
711	2008-05-21	생활자금	상담.안내
712	2008-05-21	이런거는 불법추심아닙니까?	상담.안내
713	2008-05-21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올립니다.	상담.안내
714	2008-05-21	보증인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나요?...	상담.안내
715	2008-05-21	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가능여부 질의(금융 실명제관련)	해결
716	2008-05-22	개인회생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717	2008-05-22	저 좀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18	2008-05-22	생활보호신용불량자	상담.안내
719	2008-05-22	정부산하기관 전자일괄방식 개선 요청건	해결
720	2008-05-22	사금융 이자에 대해 궁금 합니다	상담.안내

721	2008-05-22	삼성카드	상담.안내
722	2008-05-22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담.안내
723	2008-05-22	채무분할납부 요청	자체종결
724	2008-05-22	개인신용 정보(신용등급)에 관한 개선요청	상담.안내
725	2008-05-22	불법 추심 관련 민원 제기	상담.안내
726	2008-05-22	신용회복지원신청	상담.안내
727	2008-05-22	제3자 불법 추심	해결
728	2008-05-22	희망모아 불법추심 및 강제 경매	해결
729	2008-05-22	불법추심	상담.안내
730	2008-05-23	신용불량자 금융지원 관련	상담.안내
731	2008-05-23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732	2008-05-23	채권 추심에 관해	상담.안내
733	2008-05-23	매일되는 독촉전화	상담.안내
734	2008-05-23	사금융 사용과 신용조화에 대해서..	상담.안내
735	2008-05-23	카드연체	상담.안내
736	2008-05-23	사회적~지지 서비스 개정 강화 요청 합니다.	해결
737	2008-05-23	개인신용정보도용및개인사생활침해	상담.안내
738	2008-05-26	금융규제완화는 신용에 또 신용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739	2008-05-26	신규증권사 13개 인.허가 개인투자자 증권주 죽이기	해결
740	2008-05-26	원금상환만으로 선처해주시면 안되나요	해결
741	2008-05-26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742	2008-05-26	DTI의 문제점	해결
743	2008-05-26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입찰건에 대해서...	해결
744	2008-05-26	보증인 계좌압류	상담.안내
745	2008-05-26	보험 자필에 대하여...	상담.안내
746	2008-05-26	같은 내용으로 두번이나 걸음하지 않도록 선도조취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747	2008-05-26	창업활성화, 공기업 및 금융시스템 관련 정책제안	상담.안내
748	2008-05-26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보증거부(원주지점)	상담.안내
749	2008-05-26	보험금 인상에 따른 자료요청(무성의)	상담.안내
750	2008-05-27	수치심 유발...	상담.안내
751	2008-05-27	퇴직한 등기이사의 퇴직 전 임해보증채무의 존재 여부 확인	상담.안내
752	2008-05-27	2005년 7월 파산후 다시 번제요청건	상담.안내
753	2008-05-27	정부의 서민금융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하여 문의와 답변 바랍니다.	해결
754	2008-05-27	보험료 카드납부 어려움 의	상담.안내
755	2008-05-27	고달픈 삶	상담.안내
756	2008-05-27	금융소득세원천징수	해결
757	2008-05-27	원금상환희망	해결
758	2008-05-27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해결
759	2008-05-27	신용등급에 관하여	상담.안내
760	2008-05-27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761	2008-05-27	2008년4월14일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한달이 넘어도 소식 이없어 다시보내오니 성실한 답변부탁해요	해결
762	2008-05-27	신용카드 표준약관 질의(표준약관 제22조 비밀번호 관련해	상담.안내
763	2008-05-28	신불자 정책입안시 참조.	상담.안내
764	2008-05-28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 신청	해결
765	2008-05-28	면책자에 대한 금융 제재	상담.안내
766	2008-05-28	포괄정보제공동의서의 유효성 여부문의	해결
767	2008-05-28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형적 탁상행정 고발	해결
768	2008-05-28	주택 매매 규제 완화 건	해결
769	2008-05-28	외부감사의무화 대상 완화 관련 정책방향	자체종결
770	2008-05-28	폭리 이자 관련 문의	상담.안내
771	2008-05-28	신용정보회사의 질의(희망모아유통화자산관리,우리신용정	상담.안내
772	2008-05-29	금융기관의 연체독촉시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상담.안내
773	2008-05-29	겁이 나서 못살겠어요	상담.안내
774	2008-05-29	주택부금까지...	해결
775	2008-05-29	현실을 역행하는 한 부도덕한 CEO를 고발 합니다	상담.안내
776	2008-05-29	신용조화와 신용등급에 대한 질문	상담.안내
777	2008-05-29	1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해결
778	2008-05-29	은행 계좌를 7년여간 도용당한 일입니다.	상담.안내
779	2008-05-29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상담.안내
780	2008-05-29	등기	자체종결
781	2008-05-29	여신금융업법 관련 가맹점(회사)과 회원(고객) 간의 상거래 행위 질의	상담.안내

782	2008-05-29	정리금융공사 법률 추가질의	상담,안내
783	2008-05-30	은행 제발급 수수료...	해결
784	2008-05-30	카드빚 변제관련 탄원	상담,안내
785	2008-05-30	예금자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결
786	2008-05-30	저신용자 환승론(소액서민금융재단)에 관해서...	상담,안내
787	2008-05-30	배상금 이자면제 요청	해결
788	2008-05-30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에 관한 한국선물협회에 관한 문제점	해결
789	2008-05-30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불량등재	상담,안내
790	2008-05-30	업무관련 질의	자체종결
791	2008-05-30	신용등급조정	상담,안내
792	2008-05-30	제3자에게 채무독촉	정책제안
793	2008-06-02	부당한 신용정보 조회 관련	상담,안내
794	2008-06-02	보험 계약 관련 청원	상담,안내
795	2008-06-02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 사용 불가 관련 청원	상담,안내
796	2008-06-02	자산관리 공사의 매각 선처 및 자금전환 호소	자체종결
797	2008-06-02	베트남편드 환매거부에 대한 청원	자체종결
798	2008-06-02	신용불량자 구제 호소	상담,안내
799	2008-06-02	신용불량자의 연체 이자 감면 요청	상담,안내
800	2008-06-02	개인신용정보 관리개선 및 대출한도 등 개선 요망	상담,안내
801	2008-06-02	유사수신 관련 질의	상담,안내
802	2008-06-02	전화 사기 피해 구제 호소	상담,안내
803	2008-06-02	보증채무에 관련 피해 호소	정책제안
804	2008-06-02	신용정보 보존 기간 문의	상담,안내
805	2008-06-02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불법추심 및 사채이자 요구	자체종결
806	2008-06-02	파산면책자가 제도권으로 들어갈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담,안내
807	2008-06-02	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에 대해서	해결
808	2008-06-02	신불자 기록 삭제	상담,안내
809	2008-06-02	개인회생	상담,안내
810	2008-06-02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자체종결
811	2008-06-02	신용 사면에 대하여	상담,안내
812	2008-06-0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25조 관련	해결
813	2008-06-02	신용 불량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814	2008-06-02	대부업체의 이자를 관련 청원	상담,안내
815	2008-06-03	동의 없이 진행된 신용조회...	상담,안내
816	2008-06-03	신용회복 기록 삭제 요청	상담,안내
817	2008-06-03	신용불량자의 지원 정책 관련 청원	상담,안내
818	2008-06-03	증권 거래 관련 질의	해결
819	2008-06-03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청원	해결
820	2008-06-03	주식정보 제공 관련 질의	해결
821	2008-06-03	대부업체의 피해 호소	상담,안내
822	2008-06-04	외부감사 대상 관련 호소	상담,안내
823	2008-06-04	보험료 전액 및 법정이자 반환 요청	자체종결
824	2008-06-04	개인회생신청후 계속되는 전화	상담,안내
825	2008-06-04	삼성폭탄에 집이 부서졌네요 ..?우의독경에 마의동풍이라?	상담,안내
826	2008-06-04	개인회생제	상담,안내
827	2008-06-04	사금융사용자및 신용경계인에관해서 몇자적어 봅니다.	해결
828	2008-06-04	채무불이행해제	상담,안내
829	2008-06-04	"신용회복지원 중"기록 삭제관련입니다	상담,안내
830	2008-06-04	면책자의 지원 호소	상담,안내
831	2008-06-04	신용불량기록삭제 1년으로 완화	상담,안내
832	2008-06-04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정보 삭제 해주세요	상담,안내
833	2008-06-04	신용불량삭제건에대한질의	상담,안내
834	2008-06-04	송금오류에 따른 금액 반환 불이행	상담,안내
835	2008-06-04	십여년전의 보증채무	상담,안내
836	2008-06-04	산업은행의 민영화 관련 건의	상담,안내
837	2008-06-04	광주은행의 인사 관련 건의	상담,안내
838	2008-06-04	금융실명제 관련 질의입니다.	해결
839	2008-06-04	신청번호 오류	상담,안내
840	2008-06-04	손.생명보험 교차판매건에 대해서	자체종결
841	2008-06-04	신용정보제도에 관하여	상담,안내
842	2008-06-05	신용불량관련 질의	상담,안내
843	2008-06-05	보험사 대주주 승인 관련 질의	상담,안내
844	2008-06-05	사금융피해	상담,안내

845	2008-06-05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위반되는지	상담.안내
846	2008-06-05	채무관련 제도개선 건의	상담.안내
847	2008-06-05	대출요청	상담.안내
848	2008-06-05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난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자체종결
849	2008-06-05	사금융 이래도 됩니까	상담.안내
850	2008-06-05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입니다.	상담.안내
851	2008-06-05	"신용회복 중" 기록 삭제 대상인 우수 신용회복자의 기준에 대한 건의	상담.안내
852	2008-06-09	전자금융법 관련 피해 호소	상담.안내
853	2008-06-09	대부업 피해 호소	상담.안내
854	2008-06-09	파산금고의 청산인 사퇴 요청	상담.안내
855	2008-06-09	주가 조작 조사 요청	자체종결
856	2008-06-09	은행의 파산에 따른 피해자의 절규	해결
857	2008-06-09	보험 청약서 자필 서명 대필	자체종결
858	2008-06-09	이번 신용회복중 기록 삭제에 관해서요...	상담.안내
859	2008-06-09	바람직한 외화은행 지분 재매각에 관한 정책제안서	해결
860	2008-06-09	기술보증기금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 및 해결 요청	상담.안내
861	2008-06-09	서민경제 활성화 를 위 한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상담.안내
862	2008-06-09	신용보증기금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자체종결
863	2008-06-09	제일화재대주주승인시기에 대한 궁금점..	상담.안내
864	2008-06-09	서민은행 활성화를위한건	상담.안내
865	2008-06-09	자산관리공사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	해결
866	2008-06-09	사금융 환승론 관련 질의	상담.안내
867	2008-06-09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조정 호소	자체종결
868	2008-06-09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마련 요청	해결
869	2008-06-09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청원	해결
870	2008-06-09	채무 변제 관련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871	2008-06-09	대출연장 요청	자체종결
872	2008-06-09	보험 분쟁 관련 도움 요청	상담.안내
873	2008-06-10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청원	상담.안내
874	2008-06-10	파산,면책자 특수기록정보에 대해	상담.안내
875	2008-06-10	여신전문업의 고금리 피해 호소	상담.안내
876	2008-06-10	신탁 영업권 확대에 대한 문의 ?	상담.안내
877	2008-06-10	보증 채무자의 피해 구제 요청	상담.안내
878	2008-06-10	제 3자 불법추심에 대해서...	상담.안내
879	2008-06-10	제일화재대주주승인상정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880	2008-06-10	PEF 지분구성시 인수대상회사의 임직원의 적격투자자 해당 여부?	해결
881	2008-06-10	허울뿐인 신용불량 기록삭제	상담.안내
882	2008-06-10	자금 지원 호소	상담.안내
883	2008-06-10	은행 통장의 발급 수수료 관련 청원	해결
884	2008-06-10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호소	자체종결
885	2008-06-10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작업 납품물품대금 청구	상담.안내
886	2008-06-10	카드 결제 관련 청원	상담.안내
887	2008-06-11	대부업 환승론 관련 질의	해결
888	2008-06-11	통장 송금내역 확인(2000~2002년)	상담.안내
889	2008-06-11	사람 잡는 자산관리공사 외 채권추심회사	해결
890	2008-06-11	대부업대출 관련 질의	해결
891	2008-06-11	신용조화삭제요청	상담.안내
892	2008-06-11	무허가 대부업체 신용불량으로 올린경우	상담.안내
893	2008-06-11	신용불량자 구제 호소	상담.안내
894	2008-06-11	간투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895	2008-06-12	통계법,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법 전문 요청	상담.안내
896	2008-06-12	신용정보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897	2008-06-12	보험사의 대주주 승인 상정 날짜 질의	자체종결
898	2008-06-12	면책후 불법 추심과 불법 양도 행위	상담.안내
899	2008-06-12	소위 신불자 기록삭제는 공정한가?	상담.안내
900	2008-06-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901	2008-06-12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902	2008-06-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에관한법률 질의	해결
903	2008-06-12	선물시장 개선을 바라면서..	해결
904	2008-06-12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당업무처리 및 농지원부 조사	해결
905	2008-06-12	자산관리공사 부당한 업무처리 및 농지원부 취득 조사	해결

906	2008-06-13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해결
907	2008-06-13	간투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908	2008-06-13	대출 호소	정책제안
909	2008-06-13	불법 채권 추심의 피해 호소	상담.안내
910	2008-06-13	청년 사업 자금 지원 호소	해결
911	2008-06-13	신용회복 기록 추가삭제 건에 관하여...	상담.안내
912	2008-06-13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관련 청원	해결
913	2008-06-13	보증기관 통합 재고건의 청원에 관한 건	상담.안내
914	2008-06-13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915	2008-06-13	계열사 자금대여 행위 가능 여부	자체종결
916	2008-06-13	사채해결을 위한 은행대출 요청	정책제안
917	2008-06-13	면책자를 위한 정책	상담.안내
918	2008-06-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에관한법률 질의	해결
919	2008-06-16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920	2008-06-16	연결대상 종속회사 해당 여부 질의	상담.안내
921	2008-06-16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대우	상담.안내
922	2008-06-16	인터넷은행 관련 건의	해결
923	2008-06-16	대출 할부금 연체로 인한 법정 소송 관련 및 가정 내방으로 인한 통보	상담.안내
924	2008-06-16	10년 이상 된 차량의 보험료 추가인상	상담.안내
925	2008-06-16	텔레뱅킹 업무 관련 건의	상담.안내
926	2008-06-16	유사수신에 관련하여	해결
927	2008-06-16	부동산활성화대책 제안.	해결
928	2008-06-16	대부업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피해 호소	해결
929	2008-06-16	서민용자금 지원 관련 건의	상담.안내
930	2008-06-16	면책후 연체정보기록삭제에 관해서요	상담.안내
931	2008-06-16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계약해지 위기	상담.안내
932	2008-06-16	2년 신용회복지원 추가건	상담.안내
933	2008-06-16	신용회복 혜택 개인회생하진 분에게도 주세요	정책제안
934	2008-06-16	생명보험 대리점 지사(지점) 등록에 대한 건	해결
935	2008-06-16	신용회복 기록 삭제 관련 청원	상담.안내
936	2008-06-16	거스름돈 또는 동전의 마일리지 적립	해결
937	2008-06-17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938	2008-06-17	개인회생제도진행자에 관하여,	상담.안내
939	2008-06-17	개인 회생 특수 기로 정보 삭제 기간 단축에 대하여	상담.안내
940	2008-06-17	신용불량제도개선	상담.안내
941	2008-06-17	은행의 통장 재발급 수수료 관련	해결
942	2008-06-17	지난번 올린 글에 대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943	2008-06-17	제발 대출규제주세요	해결
944	2008-06-17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사채이자 요구	자체종결
945	2008-06-17	신용보증직원이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상담.안내
946	2008-06-17	대주로서의 자료요청 가능방법	자체종결
947	2008-06-17	어울 업무 관련 청원	자체종결
948	2008-06-17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관련 건의	상담.안내
949	2008-06-17	청년 창업대출에 관해서요	상담.안내
950	2008-06-17	사전동의서(개별보증용)	상담.안내
951	2008-06-17	진행상황 통보방식	상담.안내
952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3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4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5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6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7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8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59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60	2008-06-18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61	2008-06-18	사금융의 지나친 이자율 관련	상담.안내
962	2008-06-18	대출요건 미해당에 대한 선처	상담.안내
963	2008-06-18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결
964	2008-06-18	신용불량자의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965	2008-06-18	금융기관 대출 관련	해결
966	2008-06-18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967	2008-06-18	(주)에스에스에너지 회사에 관한 문의	해결
968	2008-06-18	이번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중 삭제 건에 관한 역올한 일입니	상담.안내

969	2008-06-18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970	2008-06-18	남편의 신용불량시 아내의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상담,안내
971	2008-06-18	KB국민은행 KB지주회장의 자리KB국민은행	상담,안내
972	2008-06-18	영세업체에대한 신용카드 및 은행 수수료 인하	해결
973	2008-06-19	금감원 부원장 인사 관련	상담,안내
974	2008-06-19	금융결제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975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부당한 채권 관리	상담,안내
976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77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78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79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0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1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2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3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4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5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6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7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8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89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90	2008-06-19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991	2008-06-19	창업대출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992	2008-06-19	기술보증 기금의 문제점	자체종결
993	2008-06-19	개인회생..불이익	상담,안내
994	2008-06-19	신불자 구명에개하여...	상담,안내
995	2008-06-19	자산관리공사에서 신복위 신청을 막고 원금과 이자를 요구 하며 경매한다합니다.	해결
996	2008-06-19	대출 받기도 힘들고 양도소득세때에 집팔기가 힘드네여,	상담,안내
997	2008-06-19	신용회복 기록 삭제 관련 청원	상담,안내
998	2008-06-19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999	2008-06-20	희망모아의 채무 호소	상담,안내
1000	2008-06-20	주택금융공사의 계약직원 해고 통보 관련	상담,안내
1001	2008-06-20	신용회복이 뭔가요?	상담,안내
1002	2008-06-20	신용회복지원금 기록삭제	상담,안내
1003	2008-06-20	국유재산관리	해결
1004	2008-06-20	국민연금 은행 예금 채권압류관련 채권추심 및 채권존부 확인 적정성 여부	해결
1005	2008-06-20	보험업법상 약관의 인가규정에 대한 질문	상담,안내
1006	2008-06-20	개인회생 신청후 사채 이율 및 추심 독촉	상담,안내
1007	2008-06-20	고급리에 대한 질의	해결
1008	2008-06-20	2008년6월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2년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상담,안내
1009	2008-06-20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결
1010	2008-06-20	부당해고	해결
1011	2008-06-20	부당해고	해결
1012	2008-06-20	공공기간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인회고통보	해결
1013	2008-06-20	보험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14	2008-06-23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건의	상담,안내
1015	2008-06-23	금융실명 거래시 실명증표 사본의 적법성	정책제안
1016	2008-06-23	상장법인의 유상 증자를 막아달라는 요청	상담,안내
1017	2008-06-23	MBO PEF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해결
1018	2008-06-23	정보제공 가능 여부	해결
1019	2008-06-23	신용보증기금 채무상환에 따른 약정변경이 불공정합니다.	상담,안내
1020	2008-06-23	보증기관 통합 재고건의 청원에 관한 건	상담,안내
1021	2008-06-23	대부업체 대출질차상의 문제점 점검해주세요.	상담,안내
1022	2008-06-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종결
1023	2008-06-23	신용회복	상담,안내
1024	2008-06-24	은행 및 보험사의 주소 요청	상담,안내
1025	2008-06-24	신불기록 삭제 요청	상담,안내
1026	2008-06-24	신용회복지원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1027	2008-06-24	신용회복	상담,안내
1028	2008-06-24	기술신보 너무합니다.	상담,안내
1029	2008-06-24	신용보증기금 보증건	상담,안내
1030	2008-06-24	유권질의-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가능 여부	해결



1031	2008-06-24	신불자 구제방안은 없는지요	상담.안내
1032	2008-06-24	신용회복자도 대출이 되게해주세요	상담.안내
1033	2008-06-24	외국인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방법 질의	해결
1034	2008-06-25	제일화재에속았습니다.	자체종결
1035	2008-06-25	메리츠화재보험 관련	상담.안내
1036	2008-06-25	간투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37	2008-06-25	간투법 관련 질의	해결
1038	2008-06-25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관련	상담.안내
1039	2008-06-25	은행 등에서 고객에 대한 본인임을 확인절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준수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해결
1040	2008-06-25	소액 신용 재단 운영 관련 건의	상담.안내
1041	2008-06-25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하고 악랄한 채권추심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042	2008-06-25	대출 수수료 문의 급해요..	해결
1043	2008-06-25	급여압류	자체종결
1044	2008-06-25	실명법의 실지명의 확인 관련 질의	해결
1045	2008-06-25	지로남부사이트 가입시 본인성명확인 대조 없이 가입되는 보안이 의심스러운 사이트..	해결
1046	2008-06-25	신용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결
1047	2008-06-25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에 관해	해결
1048	2008-06-25	개인 신용정보 공유를 막아달라는 요청	상담.안내
1049	2008-06-25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청원	해결
1050	2008-06-25	수형자 석방요청 및 자금대부 요청	상담.안내
1051	2008-06-26	금융권에 기록내용 삭제문의	상담.안내
1052	2008-06-26	신용보증기금 이래도 되는건가요 ?	상담.안내
1053	2008-06-26	외국법인의 계좌 대리인 개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해결
1054	2008-06-26	생명보험 결제	해결
1055	2008-06-26	신용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내 신용정보 문의	상담.안내
1056	2008-06-2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 관련 문의	해결
1057	2008-06-26	주가에 관한 질문이요	자체종결
1058	2008-06-26	현금 배당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1059	2008-06-26	국세 체납에 대하여..	해결
1060	2008-06-26	하나파이낸셜이라는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취소를 하였습니다	상담.안내
1061	2008-06-26	인터넷편드로 영화제작비용 모집에 대하여..	자체종결
1062	2008-06-27	비상장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상담.안내
1063	2008-06-27	실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1064	2008-06-27	카드설계사	자체종결
1065	2008-06-27	보험사 직원의 인사발령 관련 청원	상담.안내
1066	2008-06-27	채권추신기관의 불법 개인 신용정보에 관한건	해결
1067	2008-06-27	소액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건의	해결
1068	2008-06-27	신원회복지원중 특수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1069	2008-06-30	금융권의 정보공유에 대한 불이익	상담.안내
1070	2008-06-30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1071	2008-06-30	보증기금(신보,기보)통폐합반대의견	상담.안내
1072	2008-06-30	자산관리공사로 인한 보행불편	해결
1073	2008-06-30	개인회생사람의 신용정보는 삭제가 안되는지요	상담.안내
1074	2008-06-30	신용카드사의 지나친 채권 추심 피해 호소	상담.안내
1075	2008-06-30	진정한 신용회복은 언제??	상담.안내
1076	2008-06-30	불쌍한 신불자가	상담.안내
1077	2008-06-30	신용불량자 삭제건	상담.안내
1078	2008-06-30	카드수수료3%아십니까?	해결
1079	2008-06-30	카드발급 문의	해결
1080	2008-06-30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081	2008-07-01	제휴카드 모집관련 질의	해결
1082	2008-07-0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호 규정을 위반 여부	상담.안내
1083	2008-07-01	은행예금 상속자 지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1084	2008-07-01	이런 제도는 만들 수 없나요??	상담.안내
1085	2008-07-01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조사 검토	상담.안내
1086	2008-07-01	청년 신용불량자에 관한 제안드려요..	상담.안내
1087	2008-07-02	신용 등급 및 연체관련 하여...	상담.안내
1088	2008-07-02	금융거래 안됨	상담.안내
1089	2008-07-02	신용불량 기록삭제	상담.안내
1090	2008-07-02	주식 대차거래 폐지를 건의합니다.	상담.안내
1091	2008-07-02	보증기금의 상각채권회수비를 제고 방안	상담.안내
1092	2008-07-02	ㅈㅈ	자체종결

1093	2008-07-02	분당상호저축은행 5천만원 이상 예금자입니다.	상담.안내
1094	2008-07-02	실명증표 불법 복사 행위 5	해결
1095	2008-07-02	실명증표 불법 복사 행위 7	자체종결
1096	2008-07-02	신용불량자의 고통은 세상 어느것보다 고통스럽고 짐그림	상담.안내
1097	2008-07-02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반대하며..	상담.안내
1098	2008-07-02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상담.안내
1099	2008-07-02	지나친 이자율	상담.안내
1100	2008-07-0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에 관하여	해결
1101	2008-07-03	손보사의 간접손해 처리 방안	상담.안내
1102	2008-07-03	통장해지 거부	자체종결
1103	2008-07-03	신용불량자로 살아간다는것	상담.안내
1104	2008-07-03	면책자 신용사면	상담.안내
1105	2008-07-03	면책자 신용사면	상담.안내
1106	2008-07-03	환율안정과 경상수지 안정을 위해 외국인들에게 주식과 투자를 장려할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제안
1107	2008-07-03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아 주십시오!!!	정책제안
1108	2008-07-03	창업대출건으로...	상담.안내
1109	2008-07-03	무분별한 제3금융사 무서류 대출 제한해 주세요..	상담.안내
1110	2008-07-03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111	2008-07-03	신용보증 사고처리에 대하여	상담.안내
1112	2008-07-03	보증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113	2008-07-03	금융정보요청	상담.안내
1114	2008-07-03	신용회복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상담.안내
1115	2008-07-04	채무내역 조회	상담.안내
1116	2008-07-04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결
1117	2008-07-04	주식시장의 대주제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1118	2008-07-05	기술신용보증기금관련	상담.안내
1119	2008-07-07	질의	상담.안내
1120	2008-07-07	질의	상담.안내
1121	2008-07-07	새마을금고 펀드 판매 인허가...	자체종결
1122	2008-07-07	신용회복의 제도와 기회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합니다.	상담.안내
1123	2008-07-07	진정서	해결
1124	2008-07-07	규제 좀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1125	2008-07-07	새마을금고의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판매기관 제외와 관	자체종결
1126	2008-07-07	소액연체자에 관한 건의	상담.안내
1127	2008-07-07	집합투자증권 판매 지정기관의뢰건	자체종결
1128	2008-07-07	새마을금고 펀드판매기관 제외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체종결
1129	2008-07-07	인터넷 온라인 뱅킹에 실수로 입금 잘못했는데 지금정지는 안된다?	상담.안내
1130	2008-07-07	건전한 서민 금융기관들을 확대하는 정부라면...	자체종결
1131	2008-07-07	금융위원회에 건의합니다.	자체종결
1132	2008-07-07	대출제도에 관한 문의	상담.안내
1133	2008-07-07	새마을금고 펀드판매 허용	자체종결
1134	2008-07-07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으로 지정건의	자체종결
1135	2008-07-07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기관 지정	자체종결
1136	2008-07-07	새마을금고만 펀드 판매를 제외한 까닭?	자체종결
1137	2008-07-07	모기지 대출시 감정평가제도 개선	해결
1138	2008-07-07	제3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했습니다.	상담.안내
1139	2008-07-07	영화펀드에 대한 문의	자체종결
1140	2008-07-07	도와 주세요 .절실 합니다....	상담.안내
1141	2008-07-07	아파트 금융규제 철폐및 1가구2주택자 종과세 폐지요청	해결
1142	2008-07-07	지금은 신용회복중이라 전세....	상담.안내
1143	2008-07-07	잠재적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방안	상담.안내
1144	2008-07-07	주택금융공사의 부당한 계약직 해고	해결
1145	2008-07-08	금융감독위원회	상담.안내
1146	2008-07-08	서민 고통해결과 경제활성화 위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해결
1147	2008-07-08	자녀의 불법대출 등 방지	상담.안내
1148	2008-07-08	돈빨리 돌려받아야하는데..	상담.안내
1149	2008-07-08	소액서민금융재단	상담.안내
1150	2008-07-08	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151	2008-07-08	새마을금고 펀드판매허용요청	자체종결
1152	2008-07-08	경제 관련분야 추천 교수 제안.	상담.안내
1153	2008-07-08	지금정지 신청의 효력에 대해서	상담.안내
1154	2008-07-08	신용사면?	상담.안내

1155	2008-07-08	금융연체제도의 개선을 바랍니다.	상담.안내
1156	2008-07-08	낙하산 감사 외압과 음모의 실체를 밝혀라!	상담.안내
1157	2008-07-08	주택금융공사의 인권만행	해결
1158	2008-07-08	새마을금고"펀드"판매의 건	자체종결
1159	2008-07-08	개인정보(대출관련)자료를 임의로 열람 관련	상담.안내
1160	2008-07-08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계약해지 민원에 대한 의의신청	상담.안내
1161	2008-07-09	왕따 새마을금고?	자체종결
1162	2008-07-09	신용불량자 면해주세요	상담.안내
1163	2008-07-09	HD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현대카드채권매각팀	상담.안내
1164	2008-07-09	임차인의 보증금 담보 대출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상담.안내
1165	2008-07-09	주택담보노후연금에관해 자세히알고싶군요	상담.안내
1166	2008-07-09	새마을금고 펀드판매제외건	자체종결
1167	2008-07-09	새마을금고도 펀드판매할수 있게끔.....	자체종결
1168	2008-07-09	새마을금고에서도 펀드판매 허용해주세요요	자체종결
1169	2008-07-09	소기업애로	상담.안내
1170	2008-07-09	주택금융공사의 부당한 비정규직 해고	해결
1171	2008-07-09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방제비용 지원 요청	상담.안내
1172	2008-07-09	대부업계의 사내재형저축 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1173	2008-07-09	신용불량, 사금융이용자 구제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상담.안내
1174	2008-07-09	신용회복 기록삭제에 대한 건의	상담.안내
1175	2008-07-09	분당 좋은저축은행의 부당한 파산 이외제기	해결
1176	2008-07-10	농신보의 채무 분할 상환 호소	상담.안내
1177	2008-07-10	협박	해결
1178	2008-07-10	캐피탈 업체에서 연체중인데 추심으로 생활이 불편합니다	상담.안내
1179	2008-07-10	고리사채이자..	상담.안내
1180	2008-07-10	방제자재 대금 청구 관련	상담.안내
1181	2008-07-10	새마을금고의 펀드 판매에 관해	자체종결
1182	2008-07-10	새마을금고 펀드판매 제외 관련(건)	자체종결
1183	2008-07-10	고유가대책 제안....	해결
1184	2008-07-10	새마을금고 펀드 판매기관 추가지정의 건의	자체종결
1185	2008-07-10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지정의 건	자체종결
1186	2008-07-10	명의도용에 의한 통장개설	해결
1187	2008-07-10	신불자구제의 형평성 관련	상담.안내
1188	2008-07-10	환불기간 내의 환불요청 요구에 대한 협회의 환불 거절	해결
1189	2008-07-10	새마을금고 펀드판매 불허에 관하여....	자체종결
1190	2008-07-11	영동한사람에게 부동산가압류접수한 신용보증기금에 민원	상담.안내
1191	2008-07-11	ICM(038710)의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청	상담.안내
1192	2008-07-11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신용카드로발급	해결
1193	2008-07-11	개인파산 후 면책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간 단축 민원	상담.안내
1194	2008-07-11	국민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결
1195	2008-07-11	자료요청, 신용등급 하락요인 및 기타 금융 대출내역	상담.안내
1196	2008-07-11	보험금 환수	자체종결
1197	2008-07-12	대차거래 제도 폐지	상담.안내
1198	2008-07-14	저축 새마을금고도 펀드를 팔게 해주세요	자체종결
1199	2008-07-14	생계형 파산면책자 신용회복	상담.안내
1200	2008-07-14	성실한 신용회복지원자들의 기록 삭제에 관하여...	상담.안내
1201	2008-07-14	쇼핑타워 분양에 따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결
1202	2008-07-14	토로스쇼핑타워 '분양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주세요	해결
1203	2008-07-14	1997년 법령시행으로 전 지침은 무효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39조3항을 적용 또는 준용토록 조치건의	해결
1204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판매기관제외....???	자체종결
1205	2008-07-14	새마을금고의 펀드판매 제외에 대하여	자체종결
1206	2008-07-14	새마을금고 판매허용	자체종결
1207	2008-07-14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08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제외...	자체종결
1209	2008-07-14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0	2008-07-1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1	2008-07-14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2	2008-07-14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3	2008-07-1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지정의 건	자체종결
1214	2008-07-1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5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제외	자체종결
1216	2008-07-1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추가지정 건의	자체종결
1217	2008-07-1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	자체종결

1218	2008-07-14	'09.2 중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폐지되는 법률들은?	해결
1219	2008-07-14	은행	상담.안내
1220	2008-07-14	신용 불량 지정에 대하여	상담.안내
1221	2008-07-14	집합투자증권판매기관지정건의	자체종결
1222	2008-07-14	간접투자증권판매기관제외	자체종결
1223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판매기관 제외?	자체종결
1224	2008-07-14	현재 각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팔고있는 펀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책제안
1225	2008-07-14	파생상품 선물시장 개선희망 件	자체종결
1226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판매 제외 이유는..	자체종결
1227	2008-07-14	펀드	자체종결
1228	2008-07-14	새마을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기관지정요청	자체종결
1229	2008-07-14	새마을금고 펀드판매 요청	자체종결
1230	2008-07-15	분당 좋은저축은행의 부당한 파산	해결
1231	2008-07-15	예금자 보호와 관련.	상담.안내
1232	2008-07-15	질의	상담.안내
1233	2008-07-15	탄원서	해결
1234	2008-07-15	신용불량 등재 이후 10년이 지나 해지되었는데 다시 신용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1235	2008-07-15	중소기업(보증관련)	상담.안내
1236	2008-07-15	일부면책금에 대하여..	해결
1237	2008-07-16	자동차보험	상담.안내
1238	2008-07-16	DTI제도폐지로 .... 부동산시장 왜곡 막아야	해결
1239	2008-07-16	연체정보삭제방법	상담.안내
1240	2008-07-16	민원답변 꼬라지 하곤...	해결
1241	2008-07-16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질의	상담.안내
1242	2008-07-16	종합 선진 금고를 꿈꾸며..	자체종결
1243	2008-07-16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상담.안내
1244	2008-07-16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자체종결
1245	2008-07-16	금융업투자규정에 관한 의경제출	자체종결
1246	2008-07-16	학자금 때문에 취직 못하냐??	해결
1247	2008-07-16	이제 한계입니다.제발 구제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1248	2008-07-16	면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상담.안내
1249	2008-07-16	소상공인 불안이나 고충제안이 6월말부로....	상담.안내
1250	2008-07-16	신용정보업법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251	2008-07-16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분할 상환	해결
1252	2008-07-16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253	2008-07-17	아파트 담보대출 및 충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해결
1254	2008-07-17	증권거래 대주(공매도)제도 폐지 요청	상담.안내
1255	2008-07-17	금융분쟁조정	자체종결
1256	2008-07-17	65세이상 노인들의 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 차별화를 고발합니다.	해결
1257	2008-07-17	독고 - 청와대 전달내용 입니다.	상담.안내
1258	2008-07-17	사채피해	상담.안내
1259	2008-07-17	주택담보대출의차등금리	해결
1260	2008-07-17	신용보증기금 제도	자체종결
1261	2008-07-17	자산관리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해결
1262	2008-07-17	제3금융업계의 횡포(사채)	상담.안내
1263	2008-07-17	보험 분쟁 관련	상담.안내
1264	2008-07-17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재회부 요청	자체종결
1265	2008-07-17	SEC 공매도제한조치에 관하여	자체종결
1266	2008-07-17	대출비중 축소반대	해결
1267	2008-07-17	카드수수료	해결
1268	2008-07-17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해결
1269	2008-07-18	중소 기업인의 한	상담.안내
1270	2008-07-18	해도해도 너무 하십니다~	해결
1271	2008-07-18	사외이사의 중도 사임으로 인한 결원	상담.안내
1272	2008-07-18	증권시장 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주식시장 붕괴위험	정책제안
1273	2008-07-18	주식공매도폐지해주세요	정책제안
1274	2008-07-18	국민을 섬기는 것?	상담.안내
1275	2008-07-18	불합리한 공매도제도에 대한 재검토,불법행위 즉각조사요	자체종결
1276	2008-07-18	외국인 공매도 제도	자체종결
1277	2008-07-18	증권거래시 대차거래 제도 폐지의 건	정책제안
1278	2008-07-18	대차거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정책제안
1279	2008-07-18	대차거래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시켜 주십시오	자체종결

1280	2008-07-21	외국인 대차거래에 의한 공매도 중지 요청의 건	자체종결
1281	2008-07-21	서민금융기관 고객 차별	자체종결
1282	2008-07-21	서민금융기관 고객차별	자체종결
1283	2008-07-21	공공펀드 조성하여 시장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정책제안
1284	2008-07-21	금감원에 민원신청하였으나 금융위서관이라며...답변받지 못하여 이곳에재신청합니다	상담.안내
1285	2008-07-21	저희 할머니즘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286	2008-07-21	주식 대차거래제도 좀 없애주세요.	정책제안
1287	2008-07-21	미국의 공매도/대차거래 규제와 풍선효과	자체종결
1288	2008-07-21	외국인 주식 대차거래(공매도)폐지하거나 거래 요건을 강화 하기 바랍니다.	정책제안
1289	2008-07-21	대차거래와 공매도 제한을 요청합니다.	자체종결
1290	2008-07-21	주식시장에서 대차거래, 공매도 제도 폐지하라~	자체종결
1291	2008-07-21	공인회계사법 개정 이후 경과사항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1292	2008-07-21	신용불량자 구제책..국민연금..	해결
1293	2008-07-21	신용정보업 중 신용평가업 승인 받은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 나요?	상담.안내
1294	2008-07-21	신용회복을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상담.안내
1295	2008-07-21	입금내역 설명	상담.안내
1296	2008-07-21	연대보증 변경 불합리 약관	자체종결
1297	2008-07-21	새마을금고 실명제 위반	해결
1298	2008-07-21	금융감독원의 보험분쟁 업무 처리	자체종결
1299	2008-07-21	농신보의 관련	상담.안내
1300	2008-07-21	기보의 부당한 채권 관리	상담.안내
1301	2008-07-21	국민연금 대출	해결
1302	2008-07-22	체크카드 결제하려고 하니깐 부가세 3000원을 저한테 부담 하여 결제하라고 합니다.	해결
1303	2008-07-22	잘 처리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304	2008-07-22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305	2008-07-22	살려 주세요	해결
1306	2008-07-22	기초수급자들의 신불자 문제	상담.안내
1307	2008-07-22	낙하산 인사 끝장 볼 때까지 투쟁한다!	상담.안내
1308	2008-07-22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신청에관한 이의신청서	해결
1309	2008-07-22	금융감독원에서 허동진과 그 일가족 신용회복 시켜 주십시오	상담.안내
1310	2008-07-22	청원서	상담.안내
1311	2008-07-22	9,250조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종결
1312	2008-07-22	주식 공매도 제도폐지 요청	자체종결
1313	2008-07-22	외국인 대차거래에 의한 공매도 중지 요청의 건	자체종결
1314	2008-07-22	금융감독원에서 허동진과 그 일가족 신용회복 시켜 주십시오	상담.안내
1315	2008-07-22	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주택담보대출(DTI) 규제완화 및 대출금리인하)	해결
1316	2008-07-22	현 시점의 증시불안에 대해 제안을 해 봅니다	정책제안
1317	2008-07-22	대출 기간별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법규위반 여부	상담.안내
1318	2008-07-22	대차거래 ~~ 공매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자체종결
1319	2008-07-23	신용불량자해지	자체종결
1320	2008-07-23	불이익당하고있습니다	해결
1321	2008-07-23	공매 취소처분	해결
1322	2008-07-23	외국 세력에 이용 당하는 공매도 제도	자체종결
1323	2008-07-23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24	2008-07-23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통폐합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1325	2008-07-23	증권거래법대한것	자체종결
1326	2008-07-23	S&B forex .법적 문제 없는 외환 딜러 회사인지 등록원회사	상담.안내
1327	2008-07-23	신용불량자 구제 호소	상담.안내
1328	2008-07-24	아직도 공공연한 실적강요!	상담.안내
1329	2008-07-24	영화투자금 유치에 따른 법적해석	해결
1330	2008-07-2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매처분 즉각이행 촉구와 채 무변제 이행 가능 조치 보장	상담.안내
1331	2008-07-24	집에경매가들어와서 찾아가애원올했는데 천만원을 초입금 하면 분할신청을 해준다기에 어렵게 차까지혈값에 팔아서 만들어 찾아가니 큰돈 5300만원을 일시상환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우롱당한느낌입니다 저희민원을 잘 해 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32	2008-07-24	저희 할머니즘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333	2008-07-24	객관적인 재평가를 요청합니다.	자체종결
1334	2008-07-24	방금 SBS 뉴스추적 을 보고 올립니다...	자체종결

1335	2008-07-24	금융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	상담.안내
1336	2008-07-24	신용평가기관의 개인 신용등급산정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337	2008-07-24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채권관리	상담.안내
1338	2008-07-24	영화투자금 유치	자체종결
1339	2008-07-24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모기지론 관련)	해결
1340	2008-07-24	개인신용정보관리 개선	상담.안내
1341	2008-07-24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 요청	해결
1342	2008-07-24	개인정보관리 개선	상담.안내
1343	2008-07-24	신불자 탕감소식..연대보증인은 어떨지요?	상담.안내
1344	2008-07-24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채권관리	해결
1345	2008-07-25	민원번호 1AA-0807-050165 관련 첩언(개인신용평가관련)	상담.안내
1346	2008-07-25	신용회복 이후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상담.안내
1347	2008-07-25	한마음금융분할납부문제입니다	해결
1348	2008-07-25	잘못된 개인회생제도 서민경제에 진정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 제시	상담.안내
1349	2008-07-25	개인 신용불량 채권 인수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0	2008-07-25	신용카드 연체	상담.안내
1351	2008-07-25	개인회생한 사람들이 재가해서 사업을 할때 신용보증기금 활용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2	2008-07-25	법인대표자의 신용회복의 건	상담.안내
1353	2008-07-25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상담.안내
1354	2008-07-25	능력 있는자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경제에 도움될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1355	2008-07-25	고통증들어주사요	상담.안내
1356	2008-07-25	상속인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질의(실명법 관련)	해결
1357	2008-07-28	산업은행이 폰뱅킹이 안되다니...	상담.안내
1358	2008-07-28	본인동의 없는 신용조회	상담.안내
1359	2008-07-28	자산관리공사 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사후 조치가 안되어 입은 피해	해결
1360	2008-07-28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지분 매각의 어려움	해결
1361	2008-07-28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담.안내
1362	2008-07-28	일반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담.안내
1363	2008-07-28	파산,면책 후 언제 신용이 풀리는지요	상담.안내
1364	2008-07-28	사실확인요청서	상담.안내
1365	2008-07-28	기술신보/신용보증기금 통폐합 반대	상담.안내
1366	2008-07-28	보험사의횡포	상담.안내
1367	2008-07-28	불가안정대책	해결
1368	2008-07-28	불법유사수신행위	상담.안내
1369	2008-07-29	개인신용 회생한 사람들이 재가해서 사업을 할때 신용보증기금 활용에 대하여.	상담.안내
1370	2008-07-29	재래시장 활성화의 건	해결
1371	2008-07-29	금융결제원의 횡포	해결
1372	2008-07-29	제핸폰.집.회사로 전화가 계속와요..무섭습니다.	상담.안내
1373	2008-07-29	e-금융민원센터 시험	상담.안내
1374	2008-07-30	국가 경쟁력 강화에 따른 보완책	상담.안내
1375	2008-07-30	호소문(씨애헌중공업)	상담.안내
1376	2008-07-30	대부업체 관련	상담.안내
1377	2008-07-30	힘든서민의 신 문 고~~	상담.안내
1378	2008-07-30	보험업법 시행령53조3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1379	2008-07-30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금지업종 타당성여부	상담.안내
1380	2008-07-31	은행과장	해결
1381	2008-07-31	금융다단계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1382	2008-07-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383	2008-07-31	사회적으로 약자인 신용불량자에게 왜 높은이자를	상담.안내
1384	2008-07-31	대체 왜 어려십니까?	상담.안내
1385	2008-07-31	준신용불량자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86	2008-07-31	채무성실이행자불이익	상담.안내
1387	2008-08-01	중고차구입시 연대보증건	자체종결
1388	2008-08-01	중소기업인의 절규	상담.안내
1389	2008-08-01	신용보증기금의 지나치 채권추심	상담.안내
1390	2008-08-01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 질의	상담.안내
1391	2008-08-01	국가투자기관의 보증채무자 처리방안	상담.안내
1392	2008-08-01	해제기간없이 신용등록삭제	상담.안내
1393	2008-08-01	대부조회기록 삭제나 비공개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1394	2008-08-01	과거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삭제 가능한 지요	상담.안내

1395	2008-08-01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채관관리	해결
1396	2008-08-01	원금연체적용일에 따른 높은 연체이자	상담.안내
1397	2008-08-01	신용보증기금 관련 질의	상담.안내
1398	2008-08-01	신용불량자의고통(억울함)	상담.안내
1399	2008-08-03	추심 관련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1400	2008-08-03	kt을신고합니다	자체종결
1401	2008-08-03	(모기지론상품) 대상주택의 주택담보가치평가에 개별감정 평가 추가요청	해결
1402	2008-08-03	희망모아 채무관련..보복성, 채무불이행정보등록	해결
1403	2008-08-03	60프로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상담.안내
1404	2008-08-04	한정승인후 채무불이행	자체종결
1405	2008-08-04	파산면책기록으로인한 불이익	상담.안내
1406	2008-08-04	채무불이행기록	상담.안내
1407	2008-08-04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408	2008-08-04	일반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담.안내
1409	2008-08-04	자영업자좀 구제해 주세요	상담.안내
1410	2008-08-04	출자전환	상담.안내
1411	2008-08-04	BW 출자전환에 관하여.	상담.안내
1412	2008-08-04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채권 추심	해결
1413	2008-08-04	대차거래 및 외국인 공매도 관련, 금산분리관련, 증권 산업 육성 관련	자체종결
1414	2008-08-04	보증기관 통폐합과 관련 건의문	상담.안내
1415	2008-08-04	사금융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상담.안내
1416	2008-08-05	2008년 하반기 금융위 입법계획 문의	상담.안내
1417	2008-08-05	부산금융감독원 서라성 선생님께	자체종결
1418	2008-08-05	금융실명법 완화 및 조건분리지역직불금 지급조건에 대한	상담.안내
1419	2008-08-05	대부업대출문의	상담.안내
1420	2008-08-05	민원건이 접수된건지 모르겠네요	자체종결
1421	2008-08-05	기술보증기금의 지점이 아닌 본사담당자 또는 상위기관에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1422	2008-08-05	신용보증기금 관련 질의	상담.안내
1423	2008-08-05	16층이상 아파트가 농협공제에 화재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상담.안내
1424	2008-08-05	본인 동의없이 대부 조회기록 남김	상담.안내
1425	2008-08-05	관용차량공매시 관련정보 개선요망	해결
1426	2008-08-05	외환은행의 승인 심사 관련	해결
1427	2008-08-05	신용회복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1428	2008-08-05	외환은행의 승인심사 관련	상담.안내
1429	2008-08-05	코스닥 퇴출 요건 강화 뉴스 관련	상담.안내
1430	2008-08-05	기업자금	해결
1431	2008-08-06	기업은행의 1/4 감자 관련	상담.안내
1432	2008-08-06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채권 관리	해결
1433	2008-08-06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에 대한 요청	상담.안내
1434	2008-08-06	비상장기업 외부감사 제도에대한 진정서	상담.안내
1435	2008-08-10	금리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셨나요.	상담.안내
1436	2008-08-10	저희할머니좀도와주세요 한경심[430524-2567315]	상담.안내
1437	2008-08-10	전남편이 제 통장에 돈을 빼갔어요,	상담.안내
1438	2008-08-10	자살하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439	2008-08-10	전당포 이자 계산법 합법성 여부	상담.안내
1440	2008-08-10	원금보장	자체종결
1441	2008-08-10	과거 노무현정부와 현재 이명박정부와 무엇이 비교되는줄 아십니까?	상담.안내
1442	2008-08-1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443	2008-08-10	신용카드 모집행위 관련	해결
1444	2008-08-10	정말 서민에게 맞는 서민 소액대출제도를 만들어 주세	상담.안내
1445	2008-08-10	대출금연장관련	자체종결
1446	2008-08-10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건	상담.안내
1447	2008-08-10	보증기관 통합 관련 탄원서	상담.안내
1448	2008-08-10	후유장해청구	상담.안내
1449	2008-08-10	전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담을 주는 행위의 정당 여부	상담.안내
1450	2008-08-11	기보, 신보의 통합 반대	상담.안내
1451	2008-08-11	환해지 파생상품의 피해 업체 구제 호소	상담.안내
1452	2008-08-11	금융거래정보 통보 방식 관련	해결
1453	2008-08-11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 조사 요청	상담.안내
1454	2008-08-11	실명법 관련 질의	해결

1455	2008-08-11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질의	해결
1456	2008-08-11	여신전문업법 관련 질의	해결
1457	2008-08-11	처분조건부 대출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해결
1458	2008-08-11	비상장기업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진정	상담.안내
1459	2008-08-11	이명박 대통령님 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안내
1460	2008-08-11	증권사 지급결제망 가입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원가를 공개해주세요.	상담.안내
1461	2008-08-11	죽고만싶다	상담.안내
1462	2008-08-11	지난금요일올린 민원	상담.안내
1463	2008-08-11	외환 딜러로 투자자 모집중인데 믿을 수 있는공인기관인가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1464	2008-08-11	신용조회기록 미삭제에 대한 민원신청	상담.안내
1465	2008-08-11	서민경제활성화방안	상담.안내
1466	2008-08-11	외부 감사 기업 대상 관련	상담.안내
1467	2008-08-11	대부업체의 불법신용조회	상담.안내
1468	2008-08-12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상담.안내
1469	2008-08-12	금감위의 은행에 대한 국민 불편	상담.안내
1470	2008-08-12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문제관련 등	상담.안내
1471	2008-08-12	처분조건부 대출 완화 요청	해결
1472	2008-08-12	신용정보 유출 및 대출관련정보 유출....	상담.안내
1473	2008-08-12	억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74	2008-08-13	7	자체종결
1475	2008-08-13	신용 회복 지원 중 전세 자금 대출	상담.안내
1476	2008-08-13	시아버지보충	상담.안내
1477	2008-08-13	자격증유지비라는게 말이 됩니까!!	해결
1478	2008-08-13	화재보험고발	자체종결
1479	2008-08-14	개인신용회복	상담.안내
1480	2008-08-14	갑상선 암에 대하여...	상담.안내
1481	2008-08-14	파산면책후 여신거래	상담.안내
1482	2008-08-14	개인회생 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남은 기간 사면을 바	상담.안내
1483	2008-08-14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파산 면책 해당자에게도 ....	상담.안내
1484	2008-08-14	기술신용보증과 신용보증 합병 관련 탄원	상담.안내
1485	2008-08-14	보증기금 통합반대	상담.안내
1486	2008-08-14	신용정보사의 업무 관련 질의	상담.안내
1487	2008-08-14	금융 실명법 개정 건의	해결
1488	2008-08-16	삼자고지	상담.안내
1489	2008-08-16	신용카드가맹점의 현금할인 허용에 대해 의견입니다.	해결
1490	2008-08-18	죽고싶어요	상담.안내
1491	2008-08-18	신용불량자조회	상담.안내
1492	2008-08-18	사채 똑바루 잡아바~~~~~	상담.안내
1493	2008-08-18	키코사태	해결
1494	2008-08-18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고객 할인검토	해결
1495	2008-08-18	대출때문에 넘 힘들어요	상담.안내
1496	2008-08-18	알지못하는 신용정보와 부당한 부채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	자체종결
1497	2008-08-18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98	2008-08-18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1499	2008-08-18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1500	2008-08-18	신용회복 지원 소식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담.안내
1501	2008-08-18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502	2008-08-18	불법대출 광고	상담.안내
1503	2008-08-18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채우불이행 등재	상담.안내
1504	2008-08-18	금융감독원의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1505	2008-08-19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1506	2008-08-19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507	2008-08-1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1508	2008-08-19	금융기관의 부수업무 중 네비세이브카드 발급시 네비게이 션 판매 포함 여부	해결
1509	2008-08-19	불안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담.안내
1510	2008-08-19	제조업 영세사업자 신용보증 건	상담.안내
1511	2008-08-19	금융소외자의 기본권 침해	상담.안내
1512	2008-08-19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안내
1513	2008-08-19	당사 설계사에대한 청약철회제하에 대한 부당함.	상담.안내
1514	2008-08-19	대우조선해양 M&A 관련...	상담.안내
1515	2008-08-19	답답한 마음	상담.안내
1516	2008-08-19	비상장법인 외부감사 제도 관련	상담.안내



1517	2008-08-20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518	2008-08-20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상담.안내
1519	2008-08-20	꼭 읽어주세요...	상담.안내
1520	2008-08-20	머슴들이 기업을 살려다오.	상담.안내
1521	2008-08-20	뉴스타트 2008 정책 일환인 국민연금 대여금 신용회복에	상담.안내
1522	2008-08-20	공매도 및 대차거래 폐지 제안	자체종결
1523	2008-08-20	처분조건부대출자민원 해결	상담.안내
1524	2008-08-20	대출제도완화건의	상담.안내
1525	2008-08-20	금융관련 상속이의신청	자체종결
1526	2008-08-20	부동산 활성화 대책 차라리 내놓칠 마라!	자체종결
1527	2008-08-20	신용불량제도 개선 요청	상담.안내
1528	2008-08-21	신용회복에대한불만토로	상담.안내
1529	2008-08-21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상담.안내
1530	2008-08-21	부산은행의 대출이자 관련	상담.안내
1531	2008-08-21	질의	상담.안내
1532	2008-08-21	공매도제도 폐지 요청합니다.	자체종결
1533	2008-08-22	제3자 채무누설	상담.안내
1534	2008-08-22	참담하게 죽어나가는 자영업자들을 희생하는 길 !	상담.안내
1535	2008-08-22	주택거래 활성화 정부 대책전 제안	해결
1536	2008-08-22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담.안내
1537	2008-08-22	빚 갚고 신용회복하면 은행 거래 할 수있도록 법이 완화	상담.안내
1538	2008-08-22	채무자 및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1539	2008-08-22	(접수번호 1AA-0808-001765)에 대한 추가민원	상담.안내
1540	2008-08-22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1541	2008-08-25	대차거래제도 폐지해주세요!!!!	자체종결
1542	2008-08-25	일자리 창출 하려고 해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도와 주질 않 습니다.	상담.안내
1543	2008-08-25	공기업의(자산관리공사)비리	자체종결
1544	2008-08-25	신용불량	상담.안내
1545	2008-08-25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뒷통수를 맞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	상담.안내
1546	2008-08-25	뉴스타트2008 프로젝트 국민연금납부자 신용불량구제의	상담.안내
1547	2008-08-25	개인회생값고5년후신용불량회생삭제건의	상담.안내
1548	2008-08-25	개인회생	상담.안내
1549	2008-08-25	대차거래 공매도 폐지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1550	2008-08-25	한국신용평정보이상한우표한다	자체종결
1551	2008-08-25	공제보험	자체종결
1552	2008-08-25	일반 단체(조합)에서의 대출 행위	상담.안내
1553	2008-08-25	부당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손실	상담.안내
1554	2008-08-26	불공정한 증권시장모니터링과 공시 제도를 고쳐주십시오...	상담.안내
1555	2008-08-26	제발 좀 도와주세요.아무곳이고 도움받을곳이 없네요!	상담.안내
1556	2008-08-26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안 건의	상담.안내
1557	2008-08-26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추가조치	상담.안내
1558	2008-08-26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보통엄마입니다	상담.안내
1559	2008-08-26	펀드 (미래신용정보회사)신용불량	상담.안내
1560	2008-08-26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561	2008-08-27	펀드판매(간접투자판매) 자격시험 응시자격관련 제안	해결
1562	2008-08-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563	2008-08-27	타인이 제명의로 대출을	상담.안내
1564	2008-08-27	금리 인하 해주세요	상담.안내
1565	2008-08-27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566	2008-08-27	보증인 해지요청	상담.안내
1567	2008-08-27	금융실명법 관련 재 질의	자체종결
1568	2008-08-27	부산 본사 기술보증기금 독자 존치 건의	상담.안내
1569	2008-08-28	신용보증기금 에서 제3자에게 채무누설	상담.안내
1570	2008-08-28	[개인파산/회생]者들에對한 규제완화	상담.안내
1571	2008-08-28	직장 퇴사의건	상담.안내
1572	2008-08-28	가정이 해체될 위기	상담.안내
1573	2008-08-28	채권자가 채무자 금융조회 제도화 요청건	해결
1574	2008-08-28	카드 수수료	해결
1575	2008-08-28	기술보증기금 기능 특화 발전 건의	상담.안내
1576	2008-08-29	서민들을 위해서 생계형대출을 해주세요.	상담.안내
1577	2008-08-29	질의	해결
1578	2008-08-29	주식시장 공매도제한요구	자체종결
1579	2008-08-29	불합리한 파산,면책자의 개인정보삭제 요청	상담.안내

1580	2008-08-29	物價上昇의 原因과 對策(物價上昇 및 景氣沈滯의 根源은 不動產去來 沈滯)	자체종결
1581	2008-08-29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반대	상담.안내
1582	2008-08-29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감면요청	상담.안내
1583	2008-08-29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의 이자감면 요청	상담.안내
1584	2008-08-29	어제는 더이상 공매도 때문에 건전한 주식투자를 할수없다..(공매도 제한조치요구함)	자체종결
1585	2008-08-29	아파트 매매 활성화 정책 시급	해결
1586	2008-08-29	석현농협 대출 문제	자체종결
1587	2008-08-29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고무인으로 대체	해결
1588	2008-08-29	2008년 8월 27일 범불교 대회	자체종결
1589	2008-09-01	저도 모르는 신용조회기록이 있습니다.	상담.안내
1590	2008-09-01	대통령님 제발 우리 증시 좀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1591	2008-09-01	보험사의 횡령 관련 청원	상담.안내
1592	2008-09-01	이자 감면 요청 탄원서	상담.안내
1593	2008-09-01	정부.전경련.방송국.통신사.언론사.전자회사.컴퓨터회사.은행에서.저와제가죽을.전자인간.만들어.인 체을조종할수 있는기계에연결해서.제가죽을24시간.조종감시하면서.죽음에인체생체실험돈놀이하면서.사람에모든것을조종방해하면	상담.안내
1594	2008-09-01	중국발서브프라임사태가 되면 대처방법있습니까?	상담.안내
1595	2008-09-01	공기업 선전화'는 '문어발식 낙하산인사'로부터?	상담.안내
1596	2008-09-01	신용회복을 위한노력을 했건만 소용없습니다.	상담.안내
1597	2008-09-01	신용 불량자 건	상담.안내
1598	2008-09-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은행금리좀 확 내려주세요	상담.안내
1599	2008-09-0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관하여	해결
1600	2008-09-02	lg파워콤 가입거부및 파산,면책에 등에관한 민원	상담.안내
1601	2008-09-02	투자금 회수	자체종결
1602	2008-09-02	허락없이 신용조회	상담.안내
1603	2008-09-02	불공평한 정부의 신불자 해결방안	상담.안내
1604	2008-09-02	한마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해결
1605	2008-09-02	이방법 분입니다.. π π	상담.안내
1606	2008-09-02	변액보험민원제기합니다	자체종결
1607	2008-09-02	신용회복 이후의 신용등급 규제완화	상담.안내
1608	2008-09-02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1609	2008-09-0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삭제의건	상담.안내
1610	2008-09-02	신탁부동산 유통화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11	2008-09-02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지원활성화 방안을 촉구합니다.	상담.안내
1612	2008-09-02	현행 주가 일일 상하한선동일의 문제점.	정책제안
1613	2008-09-02	너무 힘듭니다.	상담.안내
1614	2008-09-03	행정부나 이 사항을 다룰수 있는 기관의 답변 바랍니다	상담.안내
1615	2008-09-03	신용불량제도에 대하여	상담.안내
1616	2008-09-03	신용정보기록 사면에 대해서..	상담.안내
1617	2008-09-03	금융감독원의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1618	2008-09-03	개인회생제도에대한실제적혜택지원건	상담.안내
1619	2008-09-03	소액대출 희망	상담.안내
1620	2008-09-03	기업 은행과 산업은행은 통합 해야 한다.	상담.안내
1621	2008-09-03	임의단체 명의 변경시 단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서명날인 확인서 징구 방법 문의	자체종결
1622	2008-09-03	간절히 호소 합니다.	해결
1623	2008-09-03	예금지급	상담.안내
1624	2008-09-04	보험요~~	상담.안내
1625	2008-09-04	기술신용기금은 70노인을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상담.안내
1626	2008-09-04	예금자보호	자체종결
1627	2008-09-04	대출금리 좀 낮추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상담.안내
1628	2008-09-04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개인회사는 왜 법인처럼 법정관리란 제도를 이용치 못합니까~?	자체종결
1629	2008-09-04	외국인 대차거래(공매도)제도의 미비점 보완으로	자체종결
1630	2008-09-04	BPS상용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청(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해결
1631	2008-09-04	파생시장의 투기	상담.안내
1632	2008-09-04	부도난 금융기관 예치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633	2008-09-04	신용보증기금의채권 관리 업무 관련	상담.안내
1634	2008-09-04	악덕사채업자고발	상담.안내
1635	2008-09-04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 피탈기 공매도	자체종결
1636	2008-09-04	연대보증 교체요청 민원	상담.안내
1637	2008-09-05	질약	해결

1638	2008-09-05	질의	상담.안내
1639	2008-09-05	건의서	상담.안내
1640	2008-09-05	RE: 보증기관 채무 이자감면 특례조치 정책필요	상담.안내
1641	2008-09-05	산업은행의 리먼인수 전제조건적 환경	상담.안내
1642	2008-09-05	50프로 민영화 50%로 공기업작전	상담.안내
1643	2008-09-05	제가 잘못 찍은 겁니까?/경제대통령 이명박정부,	상담.안내
1644	2008-09-05	신용불량자 구제도	상담.안내
1645	2008-09-08	왜 증시불안하는가 대통령께 드리는말	상담.안내
1646	2008-09-08	보험계약 관련 자료 요청	상담.안내
1647	2008-09-08	사금융고이자 문제로 민원드립니다	상담.안내
1648	2008-09-08	힘든취업	상담.안내
1649	2008-09-08	희망모아 직원 박용춘 선세님의 전화에 관한 민원입니다	해결
1650	2008-09-08	파산에서복권원자의구제	상담.안내
1651	2008-09-08	증권선물시장 전산기능통합 추진이의	상담.안내
1652	2008-09-08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 평가 기준에 대하여	상담.안내
1653	2008-09-08	신용보증기금 신용도에 대하여,, 두번째	상담.안내
1654	2008-09-08	신탁법에 의해 보호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정 을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해결
1655	2008-09-08	서민이 눈물흘리지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상담.안내
1656	2008-09-08	금융사별채무금액현황	상담.안내
1657	2008-09-08	탈렌트안재환씨가 자살을 했다.사채업자에게 시달려서 죽 음을 택했다.	상담.안내
1658	2008-09-08	농신보 대출 관련 청원	상담.안내
1659	2008-09-09	실명확인증표 사본 고무인 대체2	해결
1660	2008-09-09	생보시험 합격자 교차 판매에 대하여	상담.안내
1661	2008-09-09	LTV는 지역지구 구분이 없는 균등적용이 타당하지 않나요?	상담.안내
1662	2008-09-09	사채빚	상담.안내
1663	2008-09-09	토지등기	해결
1664	2008-09-09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폭등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상담.안내
1665	2008-09-09	기억못하는,연대보증건에대해, 연대보증인에게 대납을 강 요하지말고 보증채무소멸처리요청.	해결
1666	2008-09-09	저축은행파산으로못받은돈빠리돌려주세요	상담.안내
1667	2008-09-09	13년의 세월이 흘러 소멸시효를 넘긴 채무의 종결처리요청.	해결
1668	2008-09-09	보증채무에 관해서.. 파일첨부도 꼭 읽어봐 주세요..	상담.안내
1669	2008-09-10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시지 마시고 국민은행에 넘겨야 합니다.	상담.안내
1670	2008-09-10	13년이지나, 소멸시효지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종결 처리요청.	해결
1671	2008-09-10	아직젊은 저에게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한번만 도와주실수 있나요...	상담.안내
1672	2008-09-10	고용문제 금융산업육성으로 해결하자.	자체종결
1673	2008-09-10	가드빚 면책	상담.안내
1674	2008-09-10	과도추심	상담.안내
1675	2008-09-10	*대부업체드의 불법(무단)신용조회로인한피해	상담.안내
1676	2008-09-10	오늘 민생 관련 정책을 보고	상담.안내
1677	2008-09-10	불법 계좌 이체	상담.안내
1678	2008-09-10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679	2008-09-10	농협에서 큰보장 중신 공제 재해보장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	상담.안내
1680	2008-09-10	케이불채널에서 하는 사채업 광고.....	상담.안내
1681	2008-09-11	공직자 조사 및 신불자 소멸시효	상담.안내
1682	2008-09-11	외환은행 인수 관련	해결
1683	2008-09-1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1684	2008-09-11	금융위원회 업무처리 관련	해결
1685	2008-09-11	우리나라에서 은행 이외 대출할수 있는 제도 없애주세요.	해결
1686	2008-09-11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87	2008-09-11	사채업자를 뿌리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1688	2008-09-11	부탁이니까 청와대비서실 및 국무총리비서실로 이 메세지 를 전달해 주세요.	상담.안내
1689	2008-09-11	웰컴이라는 사금융 때문에 .....	상담.안내
1690	2008-09-11	제3자 채무누설	상담.안내
1691	2008-09-1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692	2008-09-11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93	2008-09-11	고금리사채업자 양산하여 서민들을 죽이는 정부는 각성하	상담.안내
1694	2008-09-11	8.21 부동산대책 문의?	상담.안내
1695	2008-09-11	국내 증시시장 관련	상담.안내
1696	2008-09-11	DTI 완화요청	해결

1697	2008-09-11	DTI 적용대상에 규제 완화에 대해	해결
1698	2008-09-11	애플스토리지테크놀로지 감리 요청	상담.안내
1699	2008-09-12	파산,면책을 받은자로 신용에대하여	상담.안내
1700	2008-09-12	주식을 즈음하여 생계형 생활자금 대출에 관하여	상담.안내
1701	2008-09-12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702	2008-09-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회복 관련 이의	상담.안내
1703	2008-09-12	생보사의 주식상장 및 회계처리 관련	자체종결
1704	2008-09-12	금융결제원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행정처리를 고발하려 면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해결
1705	2008-09-12	사채와 포털사이트 댓글 엄격규제 방안 제안	상담.안내
1706	2008-09-15	이동걸 대포통장인지 조회접 부탁 드려요.	상담.안내
1707	2008-09-15	너무도 이해할수 없는 신용보증기금 직원들 때문에 억울함 을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1708	2008-09-16	국내 리먼브라더스증권 영업정지 요청	해결
1709	2008-09-16	원활한보상금지급	자체종결
1710	2008-09-16	궁금합니다. 7년?	상담.안내
1711	2008-09-16	죽어가는 서민들	상담.안내
1712	2008-09-16	환율과 파생상품 규제에 대하여	자체종결
1713	2008-09-16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재정부의 공식답변 요청	해결
1714	2008-09-16	사금융 쓰레기조직들 정리무탁합니다.	상담.안내
1715	2008-09-16	연대보증제 악용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1716	2008-09-16	제3금융	상담.안내
1717	2008-09-16	파산이후	상담.안내
1718	2008-09-16	펀드 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정책제안
1719	2008-09-16	신용정보법관련 질의	상담.안내
1720	2008-09-16	금융채무자 구제정책에 관한 건의	상담.안내
1721	2008-09-16	외부감사대상 축소와 관련된 제안입니다.	자체종결
1722	2008-09-1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723	2008-09-16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 강화 조건은	해결
1724	2008-09-16	알류이의	해결
1725	2008-09-17	9.11 e-모기지론 규정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1726	2008-09-17	9.11 e-모기지론 규정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1727	2008-09-17	"신경안써도 된다"라는 아버지의 말..	상담.안내
1728	2008-09-17	사채 이용	상담.안내
1729	2008-09-17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사채	상담.안내
1730	2008-09-17	신불자만이 경제활동 소외자는 아닙니다.	상담.안내
1731	2008-09-17	항소심	상담.안내
1732	2008-09-17	금융거래시 미성년자 나이	상담.안내
1733	2008-09-17	저와 저의처의 금융기록정보를 입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상담.안내
1734	2008-09-17	대출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1735	2008-09-17	황당 소액대출	상담.안내
1736	2008-09-17	한국금융시장의문제점과대책에관하여	상담.안내
1737	2008-09-17	입원일당 미지급건	상담.안내
1738	2008-09-17	신용정보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1739	2008-09-17	금융 투자운용 인력 관련 건의	정책제안
1740	2008-09-17	신용정보 판매와 적용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민원 (금융위원회)	상담.안내
1741	2008-09-18	신용보증기금은 각성하라.	상담.안내
1742	2008-09-18	금융거래	상담.안내
1743	2008-09-18	금융거래	상담.안내
1744	2008-09-18	면책후 특수기록 신용정보 금융규제 완화 및 폐지 건의안	상담.안내
1745	2008-09-18	9.11 e-모기지론 규정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1746	2008-09-18	9.11 e-모기지론 규정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1747	2008-09-18	카드발급 보증에 대한 가압류 청구건	해결
1748	2008-09-18	신용불량등록 등재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1749	2008-09-18	이행강제금 체납과 관련 채권(예.적금) 압류가능여부	해결
1750	2008-09-18	신용불량	상담.안내
1751	2008-09-18	KIKO관련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정책제안
1752	2008-09-18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안 실용화 요청	해결
1753	2008-09-18	대출이자선처요망	상담.안내
1754	2008-09-18	금융감독원에민원제기건	상담.안내
1755	2008-09-18	일시적 1가구 2주택 캠프 매각에 대하여	해결
1756	2008-09-18	신용정보 판매와 적용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민원 (기획재정부 이첩바람)	상담.안내

1757	2008-09-18	금융거래	상담.안내
1758	2008-09-18	보증인제도	상담.안내
1759	2008-09-18	제3자 채무누설	상담.안내
1760	2008-09-18	주식시장의국가적 대응방안수정촉구	상담.안내
1761	2008-09-19	신용카드 결제 관련	해결
1762	2008-09-19	환승론을 하긴 하나요?	상담.안내
1763	2008-09-19	사오정 세대를 구해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해결
1764	2008-09-19	로그지점	자체종결
1765	2008-09-19	정말 황당하네요	상담.안내
1766	2008-09-19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767	2008-09-19	한국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의견(공매도)	상담.안내
1768	2008-09-19	각국의 공매도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	상담.안내
1769	2008-09-22	은행 폐점 시간 앞당기자!!	상담.안내
1770	2008-09-22	세계 각국 폭락의 주범인 공매도 금지 조치	자체종결
1771	2008-09-22	허가받은 업체여부	상담.안내
1772	2008-09-22	부동산 경기에 대하여..	해결
1773	2008-09-22	1AA-0809-011675 관련입니다.	자체종결
1774	2008-09-22	파산은행 채무에 이자가 원금의 5배입니다. 탕감이 안된다고 하는데..	상담.안내
1775	2008-09-22	원금100만원인 채무자에게 사전예고통지없이 무작위 법적 절차 진행하여	상담.안내
1776	2008-09-22	65세이상 노인의 금융권 신용대출거부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777	2008-09-22	금융신불자구제	상담.안내
1778	2008-09-22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책의 건	상담.안내
1779	2008-09-22	외환은행매각건	상담.안내
1780	2008-09-22	산업은행	상담.안내
1781	2008-09-22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기능 통합 관련	상담.안내
1782	2008-09-22	금융법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안내
1783	2008-09-22	국내주식공매도 금지 여부	자체종결
1784	2008-09-22	PF금융주식회사와 SC스탠다드 캐파탈의 관계	자체종결
1785	2008-09-22	신용정보사이트 & 인터넷 사이트 제휴업체 정보제공의 한	상담.안내
1786	2008-09-22	파산재단 관련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1787	2008-09-23	신용회복요	상담.안내
1788	2008-09-23	저 좀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89	2008-09-23	핵 줄기... 대우	상담.안내
1790	2008-09-23	사람잡는 전국은행연합회	상담.안내
1791	2008-09-23	대부업체임의로신용조회	상담.안내
1792	2008-09-23	신용보증기금 채무정리 이외	상담.안내
1793	2008-09-23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한조치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1794	2008-09-24	주가 상하한선의 조정	상담.안내
1795	2008-09-24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 금지	자체종결
1796	2008-09-24	포스코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입찰관련	상담.안내
1797	2008-09-24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부당한조치에 대한 호소문	상담.안내
1798	2008-09-24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협박	상담.안내
1799	2008-09-24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유가증권 해당여부	상담.안내
1800	2008-09-24	신용정보 동의없이 조회기록	상담.안내
1801	2008-09-24	공매도 금지조치	상담.안내
1802	2008-09-24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인 하나 --파산자--	상담.안내
1803	2008-09-25	주택금융 위기 관련	자체종결
1804	2008-09-25	보험금 청구권 관련 질의	상담.안내
1805	2008-09-25	정리금융공사의 채권 관리 관련	자체종결
1806	2008-09-25	신용불량 구제 호소	상담.안내
1807	2008-09-25	신용보증기금 감사원(박철용)	상담.안내
1808	2008-09-25	보험료 수령에 대한 이외	자체종결
1809	2008-09-25	대통령님 경제는 언제살리실건가요????????????????	상담.안내
1810	2008-09-25	부산수영로교회 감수정 헤어포에마의 소원	상담.안내
1811	2008-09-25	주식시장 공매도제도	상담.안내
1812	2008-09-25	조건부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동이 있으면 국가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여?	상담.안내
1813	2008-09-25	기초수급자의 신용불량 구제 관련	상담.안내
1814	2008-09-26	LTV, DTI 완화요청	해결
1815	2008-09-26	카드수수료	해결
1816	2008-09-26	전자금융거래법 질의	자체종결
1817	2008-09-26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관련 문의(2008.09.12일자 개	상담.안내

1818	2008-09-26	신용보증기금(경기채권관리팀) 보증인의 강제경매	상담.안내
1819	2008-09-26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요청	해결
1820	2008-09-26	인천시의 금융지정지 선정의 부담함	상담.안내
1821	2008-09-26	자연 휴양림 현금 결제 관련 문의	해결
1822	2008-09-26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823	2008-09-26	연대보증채권추심	상담.안내
1824	2008-09-26	금융기관 피해	자체종결
1825	2008-09-27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1826	2008-09-27	부동산 정책 완화 에 관한건(DTI)	해결
1827	2008-09-27	인천시 금융중심지 선정 과정 이의 제기의 건	상담.안내
1828	2008-09-29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829	2008-09-29	희망모아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830	2008-09-29	정보열람 거부	자체종결
1831	2008-10-01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832	2008-10-01	이명박 대통령께..	상담.안내
1833	2008-10-01	신용회복위원회에 등재되면 아무것도 안되네요?	상담.안내
1834	2008-10-01	신용보증기금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관행 시정 및 피해 보상 요청	상담.안내
1835	2008-10-01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합니까?? 참으로 힘이듭니다.	상담.안내
1836	2008-10-01	청년창업특례보증	상담.안내
1837	2008-10-01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838	2008-10-01	신용회복지원신청	상담.안내
1839	2008-10-01	금융(은행인수)문제 건의	상담.안내
1840	2008-10-01	인천보증기금의 횡포- 기업체 망하게 하다	상담.안내
1841	2008-10-01	연대보증 변제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842	2008-10-01	신용사면에 관하여	상담.안내
1843	2008-10-01	악덕사채업자	상담.안내
1844	2008-10-01	DTI 완화 요청 합니다.	해결
1845	2008-10-01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1846	2008-10-01	LTV,DTI 완화 요청	해결
1847	2008-10-01	신불자는 죄인	상담.안내
1848	2008-10-01	예금자 보호	상담.안내
1849	2008-10-01	연대보증인 여부	상담.안내
1850	2008-10-01	부채 상환종결 요청	상담.안내
1851	2008-10-01	특수건물에 대한 수협의 화재공제 가입의 법률적 정당성	상담.안내
1852	2008-10-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감면 기준에 대하여	상담.안내
1853	2008-10-01	주택담보대출 규제 철폐 요구 합니다	해결
1854	2008-10-01	카드 발급보증(91년)으로 인한 아파트 가압류(2005년)관련	상담.안내
1855	2008-10-01	본인(자영업자) 세무회계 처리를 위한 사업용 결제계좌 정 보제공동의 관련 질의	해결
1856	2008-10-01	제2금융의 개인정보 유출	상담.안내
1857	2008-10-01	금융감독원 직원(감찰담당)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858	2008-10-01	비상장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상담.안내
1859	2008-10-01	신용회복위원회 민원건	자체종결
1860	2008-10-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감면 기준에 대하여	상담.안내
1861	2008-10-01	국무총리실 직속기관 금융위원회의 불합리한 금융중심지 지정선정방식...	상담.안내
1862	2008-10-01	증권 업무 제도 개선 요망	상담.안내
1863	2008-10-01	세제개편안따른 불합리에 대하여	해결-
1864	2008-10-01	개인파산면책이 된후 채무관계삭제요청 응하지않음	상담.안내
1865	2008-10-01	공무원들은 모든 휴대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나요???	상담.안내
1866	2008-10-01	세대개편안건에 대하여	해결
1867	2008-10-02	세무사 징계 관련	상담.안내
1868	2008-10-02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	정책제안
1869	2008-10-02	민원 이의제기	상담.안내
1870	2008-10-02	금리 좀 내려주십시오	해결
1871	2008-10-02	허위 공시 위반 관련 조사 요청	자체종결
1872	2008-10-02	콜옵선과 풋옵선 외가격 종목을 코시피 200기준 위아래로 15개종목으로 늘려 주십시오	상담.안내
1873	2008-10-02	비상장기업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진정서	상담.안내
1874	2008-10-02	비상장기업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진정서	상담.안내
1875	2008-10-04	불법추심	상담.안내
1876	2008-10-04	보험금 지급 적정성 여부 재파악 요청건	자체종결
1877	2008-10-04	청라금융지 지정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상담.안내
1878	2008-10-04	청라지구를 경제특구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1879	2008-10-04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880	2008-10-04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881	2008-10-04	청라의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1882	2008-10-06	공과금 전자 납부 개선안	해결
1883	2008-10-06	신용보증기금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한 피해 보상 요청	상담.안내
1884	2008-10-06	금융소외자 정책	상담.안내
1885	2008-10-06	개인 거래 내용 확인	상담.안내
1886	2008-10-06	주가 조작한 사람들의 형벌을 강력하게 실시하라	상담.안내
1887	2008-10-06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업무에 대하여	자체종결
1888	2008-10-06	국민경제 말아먹는 처분조건부대출 폐지	해결
1889	2008-10-06	처분조건부대출	해결
1890	2008-10-06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891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892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관련하여 정책오류를 바로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893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글입니다	상담.안내
1894	2008-10-06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주식시장안정화 제안	상담.안내
1895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건	상담.안내
1896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 청라여야 합니다.!!!	상담.안내
1897	2008-10-06	금융중심지 인천청라지구 선정에 관한 민원사항	상담.안내
1898	2008-10-06	청라지구 금융중심지 변경에 대한 건	상담.안내
1899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900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질문	상담.안내
1901	2008-10-06	금융중심지 관련 민원	상담.안내
1902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진정민원(청라)	상담.안내
1903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04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의 건	상담.안내
1905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글입니다...	상담.안내
1906	2008-10-06	청라 금융중심지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1907	2008-10-06	인천 청라국제금융도시에 대하여...	상담.안내
1908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건	상담.안내
1909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에 의한 예산 낭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1910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자체종결
1911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건	상담.안내
1912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글입니다	상담.안내
1913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14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	상담.안내
1915	2008-10-06	금융후보지 선정의 정책적 결점을 수정하라~	상담.안내
1916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상담.안내
1917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수정보완 바랍니다.	상담.안내
1918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 관련 민원.	상담.안내
1919	2008-10-06	국제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920	2008-10-06	국제 금융중심지 선정	상담.안내
1921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해	상담.안내
1922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23	2008-10-06	금융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 수정 바랍니다.	상담.안내
1924	2008-10-06	청라지구 금융중심지 정책 건	상담.안내
1925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 관련	상담.안내
1926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상담.안내
1927	2008-10-06	금융 중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 민원	상담.안내
1928	2008-10-06	인천 청라지구 금융중심지 지정 요청	상담.안내
1929	2008-10-06	금융.....	상담.안내
1930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건	상담.안내
1931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글입니다...	상담.안내
1932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1933	2008-10-06	국제금융도시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상담.안내
1934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상담.안내
1935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1936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의 건	상담.안내
1937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세요...	상담.안내

1938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 민원 글	상담.안내
1939	2008-10-06	금융 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상담.안내
1940	2008-10-06	국제금융도시는 이미 청라지구에서 개발중입니다.	상담.안내
1941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942	2008-10-06	[금융중심지선정관련 청라시민의 민원]	상담.안내
1943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정책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944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민원	상담.안내
1945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글입니다	상담.안내
1946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관련	상담.안내
1947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자체종결
1948	2008-10-06	금융중심지 관련...	상담.안내
1949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지정에 관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졸속 행정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950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51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상담.안내
1952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53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세요.	상담.안내
1954	2008-10-06	청라를 금융 중심지로 ...	상담.안내
1955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세요..	상담.안내
1956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57	2008-10-06	인천 청라지구 금융지선정제외에 다른 문제점	상담.안내
1958	2008-10-06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수정바랍니다.....	상담.안내
1959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관련 일관성	상담.안내
1960	2008-10-06	청라 금융도시 신청과 관련(인천) 및 전매제한 소급적용	상담.안내
1961	2008-10-06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1962	2008-10-06	금융 중심지 후보지 선정	상담.안내
1963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관련.....	상담.안내
1964	2008-10-06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965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66	2008-10-06	청라 금융중심지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1967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968	2008-10-06	청라 사기극이 될듯	자체종결
1969	2008-10-06	원래 개발계획대로 청라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십시오...	상담.안내
1970	2008-10-06	국제금융지구 선정 오류에 관하여	상담.안내
1971	2008-10-06	금융중심도시 후보지 선정건.	상담.안내
1972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정책적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상담.안내
1973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문제 바로 잡아주세요.....	상담.안내
1974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 관련 정책 오류 시정	상담.안내
1975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선정	상담.안내
1976	2008-10-06	금융지 선정 공정히 해주세요-청라	상담.안내
1977	2008-10-06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졸속행정	상담.안내
1978	2008-10-06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와 인천시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1979	2008-10-06	청라지구 국제금융도시 관련	상담.안내
1980	2008-10-0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1981	2008-10-06	금융중심지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1982	2008-10-06	인천시의 금융도시지정의 졸속행정을 바로잡아주시시오	상담.안내
1983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해서	상담.안내
1984	2008-10-06	인천의 금융중심지는 청라지구입니다.	상담.안내
1985	2008-10-06	처벌하라 처벌하라 주가조작 사형시켜라	상담.안내
1986	2008-10-06	폭탄제거의무와완스톱규제완화가절실합니다.	해결
1987	2008-10-06	상장기업의 규정 개정 요청	상담.안내
1988	2008-10-06	청라지구를 금융 중심지로	상담.안내
1989	2008-10-06	수출보험 공사를 통한 환보험 가입 중소기업 피해 지원책	상담.안내
1990	2008-10-06	주택 처분조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해주세요	해결
1991	2008-10-06	금융중심지 선정관련 민원	상담.안내
1992	2008-10-06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수기록정보에 대하여	상담.안내
1993	2008-10-06	채권추심	상담.안내
1994	2008-10-06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995	2008-10-07	'처분조건부대출' 대책 촉구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해결
1996	2008-10-07	숨방이 처벌을 바꾸라	상담.안내
1997	2008-10-07	개인파산자의 파산기록 관리기간에 대하여	상담.안내



1998	2008-10-07	채권추심원에 폭언으로 가족들 모두 공포에있습니다-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999	2008-10-07	시티파이낸셜이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상담.안내
2000	2008-10-07	처분조건부 대출 완화요구	해결
2001	2008-10-07	저금리 대출 선처	상담.안내
2002	2008-10-07	처분조건부 대출상환관련	해결
2003	2008-10-07	면책 결정 후의 불이익	상담.안내
2004	2008-10-07	비오는날 우산없는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규제	해결
2005	2008-10-07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상담.안내
2006	2008-10-07	불법채권추심	상담.안내
2007	2008-10-08	대통령각하 바쁘시더라도 한번만 읽어봐주십시오	상담.안내
2008	2008-10-08	일시적 1가구2주택	해결
2009	2008-10-08	주가 조작은 강력하게 형벌로 처하라	상담.안내
2010	2008-10-08	대출건	상담.안내
2011	2008-10-08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2012	2008-10-08	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상담.안내
2013	2008-10-08	'처분조건부 대출' 대책 촉구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하	해결
2014	2008-10-08	원더풀 김동환씨..독바로해요	상담.안내
2015	2008-10-08	처분조건 대출 완화	해결
2016	2008-10-08	신용카드 결제 관련	해결
2017	2008-10-08	금융거래 관련 질의	해결
2018	2008-10-08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가지고도 대출이 안되네요	해결
2019	2008-10-08	신용불량회복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2020	2008-10-08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상담.안내
2021	2008-10-08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상담.안내
2022	2008-10-08	파산한 금융기관의 2중가압류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2023	2008-10-08	신용점수라는거요	상담.안내
2024	2008-10-08	대출관련	상담.안내
2025	2008-10-08	금융관리의 안전관리 대응해주세요	상담.안내
2026	2008-10-08	웰컴크레디라인 불법추심에대해 민원드립니다	상담.안내
2027	2008-10-08	영세자영업자 보호법 개정 의 件	상담.안내
2028	2008-10-08	현정부의경제정책중금융부분에엄청난실책이있다	상담.안내
2029	2008-10-08	금융대응책 획일적인 드리구!!국정감사잘 대응하셈평균85 점이면 좋읍니다	상담.안내
2030	2008-10-09	문의좀 드립니다.	상담.안내
2031	2008-10-09	키코로인해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상담.안내
2032	2008-10-09	주식폭락의 현실	상담.안내
2033	2008-10-09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상을 정말 모르나요	상담.안내
2034	2008-10-09	은행 개인신용 불량 원상회복 요청	상담.안내
2035	2008-10-09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수도권 거주요건	해결
2036	2008-10-09	채권 추심관련...	상담.안내
2037	2008-10-09	신용보증기금 이자건에대하여	상담.안내
2038	2008-10-09	신용불량자 가족에게 불법추심 및 신용회복위원회 미승인 및 경매건	상담.안내
2039	2008-10-09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시한조정	해결
2040	2008-10-0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041	2008-10-09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2042	2008-10-09	처분조건부 대출 관련	해결
2043	2008-10-09	부정확한 업무처리, 허위금액 안내 및 구두 계약 및 계약 사항 위반과 허위 계약서 작성	상담.안내
2044	2008-10-09	1가구2주택 대출제한건	해결
2045	2008-10-11	명쾌한 답변 원합니다.	상담.안내
2046	2008-10-11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건가요?	해결
2047	2008-10-11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해결
2048	2008-10-11	부동산 제도를 자유경제말리고 완전히 공개념을 풀어주시시길바랍니다	자체종결
2049	2008-10-11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050	2008-10-11	경제의 축복과 신용 회복	상담.안내
2051	2008-10-11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합리화 시켜 주세요	해결
2052	2008-10-11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기준 완화	상담.안내
2053	2008-10-13	소멸시효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 불법추심행위 중지/와 /채무종결처리 요청/.	상담.안내
2054	2008-10-13	무능력을 이유로 /추심행위중지와 채무종결처리 요청.	상담.안내
2055	2008-10-13	미성년자인데 대출전화에 시달려요	상담.안내
2056	2008-10-13	일반회생인가후 은행연합회 연체기록삭제	상담.안내

2057	2008-10-13	연금 계약이전 제도문의	해결
2058	2008-10-1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문의 입니다	상담.안내
2059	2008-10-13	억울합니다...은행연합회..	상담.안내
2060	2008-10-13	주택거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이	자체종결
2061	2008-10-13	장래의 증권시장 안정과 국부유출 막기	상담.안내
2062	2008-10-13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상담.안내
2063	2008-10-13	신용회복받고 부도회사 사장이 되기까지는 당연한 절차였던것일까요.	상담.안내
2064	2008-10-13	처분조건부 대출 최종 폐기 당장 기한연장 요청	해결
2065	2008-10-13	처분조건부대출규제완화	해결
2066	2008-10-13	이래서 욕먹지	상담.안내
2067	2008-10-13	등기예규 제1107호에 관하여	상담.안내
2068	2008-10-13	보험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2069	2008-10-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려신용정보(주)?	상담.안내
2070	2008-10-13	사금융이자에대하여...	상담.안내
2071	2008-10-13	과다조회	상담.안내
2072	2008-10-13	과다조회	상담.안내
2073	2008-10-14	1년이내 처분조건부 대출폐기를 요청합니다요	해결
2074	2008-10-14	모순투성이 법을 고쳐주세요 자살하는 사람 심정이 이해감	상담.안내
2075	2008-10-14	신용정보조회	상담.안내
2076	2008-10-14	정부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이 담긴 제안서	해결
2077	2008-10-14	사금융대출이자 은행권저이자로 전환은 언제쯤되나요?	상담.안내
2078	2008-10-14	cd금리	상담.안내
2079	2008-10-14	처분조건부특약은 무효	해결
2080	2008-10-14	자꾸 올라가는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안내
2081	2008-10-14	최대주주 매도금지 서약서 관련	상담.안내
2082	2008-10-14	처분조건부 담보대출에 관한 건	해결
2083	2008-10-1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호소	상담.안내
2084	2008-10-14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호소	상담.안내
2085	2008-10-14	연체 한달이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상담.안내
2086	2008-10-14	물금리는 내리는데 왜 CD 금리는 계속 올라 가는 건가요?	상담.안내
2087	2008-10-14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연기 요청(상호저축은행)	해결
2088	2008-10-14	인천 금융중심지 후보 지정 관련	상담.안내
2089	2008-10-14	BNG 증권중개의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상담.안내
2090	2008-10-14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 줄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상담.안내
2091	2008-10-15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cd금리	상담.안내
2092	2008-10-15	처분조건부대출및 1가구 2주택 완화요청	해결
2093	2008-10-15	조속히처리바람	상담.안내
2094	2008-10-15	처분조건부대출제도 완화해주십시오 !	해결
2095	2008-10-15	신불자를 두번 죽이는 은행연합회	상담.안내
2096	2008-10-15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2097	2008-10-15	민원 재신청	상담.안내
2098	2008-10-15	제대로 된 계약을 하도록 금감위의 조치 부탁	자체종결
2099	2008-10-15	불법추심을 했습니다.	상담.안내
2100	2008-10-15	채무선처	상담.안내
2101	2008-10-15	신용보증기금의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상실 통보에 대한 부	상담.안내
2102	2008-10-15	신용보증기금의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상실 통보에 대한 부	상담.안내
2103	2008-10-15	싼이자로 돈 좀 빌려주세요	상담.안내
2104	2008-10-15	처분조건부대출 관련	상담.안내
2105	2008-10-15	한국이 미국의 전철을 안 밟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투기자들에게 주려면 .....	상담.안내
2106	2008-10-15	주식시장 개선방향	상담.안내
2107	2008-10-16	신규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잔금대출을 받게 해달라.	해결
2108	2008-10-16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해결
2109	2008-10-16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2110	2008-10-16	전세자금대출	해결
2111	2008-10-16	신용보증기금신청관련!	상담.안내
2112	2008-10-17	주택금융공사 대출 관련	해결
2113	2008-10-17	신용정보조회위반및 부당추심금이의	상담.안내
2114	2008-10-17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공유자 규정	상담.안내
2115	2008-10-17	기술보증기금 채권 추심에 따른 퇴사 위기에 관한 건	상담.안내
2116	2008-10-17	신용보증기금 채무 호소	상담.안내
2117	2008-10-17	즉시 CD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상담.안내
2118	2008-10-17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상담.안내

2119	2008-10-17	금융실명제위반사실확인	자체종결
2120	2008-10-17	온라인 사기꾼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법과 예금자 보호법	해결
2121	2008-10-17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추심	상담.안내
2122	2008-10-17	전화폭력	상담.안내
2123	2008-10-17	건의서	자체종결
2124	2008-10-17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125	2008-10-17	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경제안님들	정책제안
2126	2008-10-17	[법정]제발 살려주세요...한가정이 무너집니다.....	자체종결
2127	2008-10-17	금융기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운용기준을 점검해보자	상담.안내
2128	2008-10-17	주택처분조건완화조속한시일내처리해주세요	해결
2129	2008-10-17	주택연금 관련	해결
2130	2008-10-17	수직상승하는 cd금리 가만 두고만 볼 생각이십니까?	상담.안내
2131	2008-10-20	주택 폭락을 경계하면서	해결
2132	2008-10-20	미국공인회계사(국내활동)	자체종결
2133	2008-10-20	금융사면에 대하여.....	상담.안내
2134	2008-10-20	고가주택기준은 9억, 대출규제는 6억부터...영망진창 정책 처부간 협조가 시급	해결
2135	2008-10-20	고공행진 cd금리에 제동좀 걸어 주세요	상담.안내
2136	2008-10-20	지금이라도 부동산규제를 푸세요	해결
2137	2008-10-20	신용불량자 해지 요청	상담.안내
2138	2008-10-20	제3자에게 보증채무에 관해 고지하는게 적절한 추심절차인 지에 관해	상담.안내
2139	2008-10-20	중소기업 기업재무 담당 팀장입니다	상담.안내
2140	2008-10-20	항소심에서 신보측에 이겼으나 고통은 여전히...	자체종결
2141	2008-10-20	기술보증기금의 근거당 설정으로 인한 자금경색에 의한 신 기술을 보유한 우량중소기업의 도산위기	상담.안내
2142	2008-10-20	외화 투자 신청	상담.안내
2143	2008-10-20	대출금리를 낮추어야합니다	상담.안내
2144	2008-10-20	한국산업은행(국책은행)의 무리한 자금회수 조치에 대한 진 정 요청	상담.안내
2145	2008-10-20	불법추심(채권추심)	상담.안내
2146	2008-10-20	이자제한법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147	2008-10-20	아파트전세금 상환 융자를 받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해결
2148	2008-10-20	외국환 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 문의	해결
2149	2008-10-20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신용회복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2150	2008-10-20	금융거래 정보 제공 관련 질의	해결
2151	2008-10-21	대부업자상호간정보교환	상담.안내
2152	2008-10-21	진정서	상담.안내
2153	2008-10-21	**보증기금 상담과정 부실, 진실누락, 책임회피등	상담.안내
2154	2008-10-21	대구지방중소기업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2155	2008-10-21	달리가 주식시장에서 자꾸 빠져나가면 위험한 상황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2156	2008-10-21	이자탕감및 원금 분할상환 청원서	상담.안내
2157	2008-10-21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상담.안내
2158	2008-10-21	창업지원자금 의 부당한 정책	자체종결
2159	2008-10-21	서류	자체종결
2160	2008-10-21	신용회복과 불입금 면제요	상담.안내
2161	2008-10-21	신용조회!!	상담.안내
2162	2008-10-21	중소기업 제발 좀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163	2008-10-21	정기예금 과 MMF (경제 정책 )	상담.안내
2164	2008-10-21	유사수신 관련 질의	해결
2165	2008-10-22	개인회생및영세서민금지원에관한건	상담.안내
2166	2008-10-22	상담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상담.안내
2167	2008-10-22	동의없는 신용조회	상담.안내
2168	2008-10-22	투기목적자금의 대출범위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169	2008-10-22	신용 조회 기록 삭제건	상담.안내
2170	2008-10-22	이명박 대통령님 이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상담.안내
2171	2008-10-22	수도권주택투기지역 또는 대출규제 해제 바랍니다.	상담.안내
2172	2008-10-22	조속한 은행 CD 금리인하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요청합니	상담.안내
2173	2008-10-22	■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경기문제부터 해결 하여 야 합니다	상담.안내
2174	2008-10-22	■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경기문제부터 해결 하여 야 합니다	자체종결
2175	2008-10-22	지연처리	자체종결
2176	2008-10-22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안	해결
2177	2008-10-22	정리금융공사(나라신용정보)의 무책임한 원칙	상담.안내

2178	2008-10-22	주택금융공사가 처분조건부 대출 연장을 불이행중입니다.	상담.안내
2179	2008-10-22	1AA-0810-039498관련	자체종결
2180	2008-10-22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인 영어 성적 관련	상담.안내
2181	2008-10-22	공사비 지급 관련	자체종결
2182	2008-10-22	대출	상담.안내
2183	2008-10-23	어려운생활	상담.안내
2184	2008-10-23	은행 대출에 숨이 맥힙니다	상담.안내
2185	2008-10-23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186	2008-10-2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피해 예방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2187	2008-10-23	은행들...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나!! 억울하다... 일반국민으로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상담.안내
2188	2008-10-23	금융거래정보 관련 질의	해결
2189	2008-10-23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라	자체종결
2190	2008-10-23	산와머니 언어폭력 어쩌면 좋을까요..	상담.안내
2191	2008-10-23	대부업체들 정리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2192	2008-10-23	은행에서 외화 차입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마땅함	상담.안내
2193	2008-10-23	통신요금범죄가 재발하여 2007년에 확인하여준, 2023001의 미래신용정보 코드를 재문의합니다.	상담.안내
2194	2008-10-23	부동산 거래 좀 되게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195	2008-10-23	CD금리, 주택 담보대출 금리 관련	상담.안내
2196	2008-10-23	채권양도 제도개선	상담.안내
2197	2008-10-23	증권시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담.안내
2198	2008-10-23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넘 높아요 "ππ"	상담.안내
2199	2008-10-24	신용 평가 방법.변경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요청	상담.안내
2200	2008-10-24	증권시장중 파생시장의 규모를 축소 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2201	2008-10-24	대출자금 부당사용 고발 및 이에따른 채물불량자 등재 구제	상담.안내
2202	2008-10-24	16층이상 특수건물 아파트 화재보험, 농협.수협에 가입 관	상담.안내
2203	2008-10-24	주가 부양책은 도대체 왜 효과가 없습니까?	상담.안내
2204	2008-10-2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해결
2205	2008-10-24	금융감독원의 업무 처리 관련	해결
2206	2008-10-24	금융사(국민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정보 삭제에 대하여...	상담.안내
2207	2008-10-24	공매도로 피해본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상담.안내
2208	2008-10-24	신보,기보보증보험 2개기관 이용업체 보증서 발행 불가에 대한 시정요청건	상담.안내
2209	2008-10-24	중시 선물개선과제한	상담.안내
2210	2008-10-24	보험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2211	2008-10-24	정말 서민을 위하신다면..	상담.안내
2212	2008-10-25	산업은행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이해연씨	상담.안내
2213	2008-10-25	신용회복 되어도 언제까지 관리대상으로 묶어 두는가요..	상담.안내
2214	2008-10-27	아직도 이런 국책은행직원이 있네요...	상담.안내
2215	2008-10-27	증권시장 안정화 방안	상담.안내
2216	2008-10-27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2217	2008-10-27	대부업체4개사를고발합니다명의도용건으로	상담.안내
2218	2008-10-27	외국인 2700억 매도로 코스피110P 떨어져	상담.안내
2219	2008-10-27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 기관에 관한 질문	상담.안내
2220	2008-10-27	신용 회복자 에게 기회를	상담.안내
2221	2008-10-27	국민은행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환헛지)	자체종결
2222	2008-10-27	외국인 2700억 매도에 코스피110p 떨어진 원인 추정	상담.안내
2223	2008-10-27	부동산 강제경매를 당했습니다.	상담.안내
2224	2008-10-27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상담.안내
2225	2008-10-27	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상담.안내
2226	2008-10-27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범국민 주식 사모으기 운동" 제안	상담.안내
2227	2008-10-27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파생시장..	상담.안내
2228	2008-10-27	외자도입	상담.안내
2229	2008-10-27	증권회사 담보비를 하향해주세요	상담.안내
2230	2008-10-27	개인신용관리에대하여	상담.안내
2231	2008-10-27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점	상담.안내
2232	2008-10-27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의한 실명확인서류 인정여부(금융실명제 관련)	해결
2233	2008-10-27	주식과 펀드는대한민국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상담.안내
2234	2008-10-27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체종결
2235	2008-10-27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236	2008-10-27	신용불량 기록 삭제에 따른 금융거래 상의 혜택에 대한 민	상담.안내

2237	2008-10-27	살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238	2008-10-27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리는글	상담.안내
2239	2008-10-27	기준금리하락과 시중금리의 인상의 아이러니	상담.안내
2240	2008-10-27	주식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241	2008-10-27	에스엠테크의 공사비 관련	해결
2242	2008-10-27	국민의 세금으로 이룬 기업인데 걱정이 됩니다.	상담.안내
2243	2008-10-28	대출 협박으로 시달리고있어요 ㅠ ㅠ	상담.안내
2244	2008-10-28	구조조정 물건	상담.안내
2245	2008-10-28	WSJ...한국 IMF 위기맞다!!! 한국을 아예 대놓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담.안내
2246	2008-10-28	계열회사간 자금대여	상담.안내
2247	2008-10-28	채권 신고& 공장 가압류 이종으로 한것 풀려주세요	상담.안내
2248	2008-10-28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긴급 개선 요청 및 기업애로 상담	상담.안내
2249	2008-10-29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데요	상담.안내
2250	2008-10-29	합법적인 투자자 모집 회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251	2008-10-29	신용보증기금 민원	상담.안내
2252	2008-10-29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관련	자체종결
2253	2008-10-29	비거주 외국인계좌의 실명확인방법	해결
2254	2008-10-29	대출 중개 수수료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2255	2008-10-29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256	2008-10-29	신용불량자에게 월세대출금이라도.....	상담.안내
2257	2008-10-29	대출불가능	상담.안내
2258	2008-10-29	불법신용조회	상담.안내
2259	2008-10-29	신용조회이력	상담.안내
2260	2008-10-30	금융실명제폐지	해결
2261	2008-10-30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연장 관련	상담.안내
2262	2008-10-30	신용보증기금의 불법추심	상담.안내
2263	2008-10-30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련(은행 분쟁 관련)	해결
2264	2008-10-30	통장 압류로 인한 생활고통...	자체종결
2265	2008-10-30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치 관여자님께 --우리를 살려 주세요!!절규의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상담.안내
2266	2008-10-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의	해결
2267	2008-10-31	사채	상담.안내
2268	2008-10-31	은행 대출 문을 열어주세요	상담.안내
2269	2008-10-31	노인복지 역모기지 Loan(대출)에 관하여	상담.안내
2270	2008-10-31	농심보 대출신청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상담.안내
2271	2008-10-31	국민을 괴롭히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272	2008-10-31	금융투자회사지원 및 사모펀드모집청원	자체종결
2273	2008-10-31	기술보증기금잘못된업무처리	상담.안내
2274	2008-11-03	ㅎㅎㅎㅎㅎㅎ	자체종결
2275	2008-11-03	푸르덴셜투자증권 내부자료 위조	자체종결
2276	2008-11-03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이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277	2008-11-03	중기업 자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2278	2008-11-03	보험료 대납	자체종결
2279	2008-11-03	보증기관 보증서발급	자체종결
2280	2008-11-03	충북 진천 중부 상호저축 은행에 대한 사건	상담.안내
2281	2008-11-03	연대보증에 대한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282	2008-11-03	기술신용보증기금의IMF여파제조중소기업부도업체보증인에게 과도한월급압류행위시정요청	상담.안내
2283	2008-11-03	지금 시중 1은행권, 2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에 대하여!!	상담.안내
2284	2008-11-03	다른곳은 아니고요	상담.안내
2285	2008-11-03	자산 70억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으로 5천만원 지원 가능한 방안 제안.	상담.안내
2286	2008-11-03	증시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제안	상담.안내
2287	2008-11-03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인에게 고지없이 채납처리해서 막대한 피해.	자체종결
2288	2008-11-03	정부투자기업(코스콤)대표이사선임이의	자체종결
2289	2008-11-04	보통예금계좌 예금자보호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2290	2008-11-04	도대체누굴위한건지...	상담.안내
2291	2008-11-04	악덕고리사채를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상담.안내
2292	2008-11-04	대통령께 민초의 진심을 담아서드립니다	해결
2293	2008-11-04	향후 시중은행금리에대한 전망	상담.안내
2294	2008-11-04	증시를 통한 외환유출 관련	상담.안내
2295	2008-11-0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부산은행의 이자율)	해결
2296	2008-11-04	중소기업 지원 대책 수정 요청	상담.안내

2297	2008-11-04	신보의 어음 보험 관련	자체종결
2298	2008-11-04	중소기업 자금유용 의뢰	자체종결
2299	2008-11-04	상품권 판매를 하고자할때 등록 절차 방법	상담.안내
2300	2008-11-04	처분조건부 대출 연장 및 투기자력해제에 따른 조건부대출 특약 면제	상담.안내
2301	2008-11-04	카드결제시전화요금에대한문의	해결
2302	2008-11-05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303	2008-11-05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안내
2304	2008-11-05	무단 연체자등록	상담.안내
2305	2008-11-05	신용보증기금은 누굴위해서 일하는지여...???	상담.안내
2306	2008-11-05	연체이자 강제에 대한 내용	상담.안내
2307	2008-11-05	신용회복건	상담.안내
2308	2008-11-05	중소기업이 죽는법	상담.안내
2309	2008-11-06	T T T	자체종결
2310	2008-11-06	연체 한달이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상담.안내
2311	2008-11-06	실적좋은기업주가가반영되지않아마음고생.	자체종결
2312	2008-11-06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상담.안내
2313	2008-11-06	보험업법	상담.안내
2314	2008-11-06	보험업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2315	2008-11-06	지역중소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상담.안내
2316	2008-11-06	신용관련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317	2008-11-06	서민들의 els 만기를 가능하게	상담.안내
2318	2008-11-06	els 만기를 연장 가능토록	상담.안내
2319	2008-11-10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끔되어있나여?	자체종결
2320	2008-11-10	중소기업을 죽이는 기술신보에요 ....	상담.안내
2321	2008-11-10	신용 보증기금 이용 관련	상담.안내
2322	2008-11-10	경제자유구역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	정책제안
2323	2008-11-10	금리인하반응	자체종결
2324	2008-11-10	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질병정보 열람 입법예고	상담.안내
2325	2008-11-10	은행대출금리에 대해서..	상담.안내
2326	2008-11-10	공적자금 투입 우리은행 휴직자에게 급여지급 ...도적적해	상담.안내
2327	2008-11-10	e-모기지론에 관해...^^	상담.안내
2328	2008-11-10	e-모기지론에 관해...^^	상담.안내
2329	2008-11-10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 이자율 지속 상승에 관해	상담.안내
2330	2008-11-10	채무관계	자체종결
2331	2008-11-10	정확한 부채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자체종결
2332	2008-11-10	해동신용금고 대출관련...	자체종결
2333	2008-11-10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담.안내
2334	2008-11-10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해결
2335	2008-11-10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336	2008-11-11	대출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라져서 돈을 못받고있습니 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제발....	자체종결
2337	2008-11-11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
2338	2008-11-11	본인동의 없이 신용조회한 정수기회사	상담.안내
2339	2008-11-11	질병정보열람 정무위원	상담.안내
2340	2008-11-11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안내
2341	2008-11-11	보험업법	상담.안내
2342	2008-11-11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해주세요	상담.안내
2343	2008-11-11	제발 신용불량자 삭제해주세요	상담.안내
2344	2008-11-11	은행연합회 정말 이래도 됩니까.	상담.안내
2345	2008-11-11	전문경영인에 대한 강제적 보증 청구 등	자체종결
2346	2008-11-11	b2b 전자어음의 문제점	상담.안내
2347	2008-11-11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신보.기보의 보증확대건	자체종결
2348	2008-11-12	안녕하세요?	상담.안내
2349	2008-11-12	금융위원회에 바란다	상담.안내
2350	2008-11-12	금리인하,규제완화에도 돈 구경하기 힘듭니다. 정책을 내리 면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상담.안내
2351	2008-11-12	사업자 대출 받기 힘드네요.	상담.안내
2352	2008-11-12	수급자신용회복지원문제점	상담.안내
2353	2008-11-12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자체종결
2354	2008-11-12	접수한번 잘못으로 은행대출이 턱없이 높아졌습니다.	상담.안내
2355	2008-11-12	신용 보증기금 의 소극적인 업무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기 업 피해 발생건	상담.안내
2356	2008-11-12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전혀다른 국민은행 대출심사 담보 요구 하고 벤처기업자금 신청 불공정하게 거부함	상담.안내

2357	2008-11-12	벤처기업인 신용 회복 및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에 관한 건	상담.안내
2358	2008-11-12	신불 회복자에게 살길을 터주세요	상담.안내
2359	2008-11-12	면책결정에 대해서	상담.안내
2360	2008-11-12	부실금융기관의 구제	해결
2361	2008-11-12	주택금융공사 특별보증 대상자에 관하여	상담.안내
2362	2008-11-1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 자금 용도 변경 건	상담.안내
2363	2008-11-12	개인정보건	상담.안내
2364	2008-11-12	민원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여...??	상담.안내
2365	2008-11-12	금융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과 대출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담.안내
2366	2008-11-12	자산관리공사 고이율 부과 부당합니다	상담.안내
2367	2008-11-12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련 기관의 명확한 입장 및 불안감 조성 금지 요청	상담.안내
2368	2008-11-12	채권추심	자체종결
2369	2008-11-12	증권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상담.안내
2370	2008-11-12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 이의	자체종결
2371	2008-1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특별해지시 문제	상담.안내
2372	2008-11-12	인터넷쇼핑몰 사업시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
2373	2008-11-12	보증기금 지원 확대 요청	상담.안내
2374	2008-11-12	예금보험공사 채권 추심의의	자체종결
2375	2008-11-12	공장임대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속 불이행	자체종결
2376	2008-11-13	규제 폐지	상담.안내
2377	2008-11-1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관련	자체종결
2378	2008-11-13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379	2008-11-13	진정서	상담.안내
2380	2008-11-13	무단 신용조회에 고나한 신고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381	2008-11-13	재정부 B! 피쳐사의 한국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은 세계경기침체탓이다!!! 세계경기침체탓이 아니라...	상담.안내
2382	2008-11-13	재정부 B! 피쳐사의 한국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은 세계경기침체탓이다!!! 세계경기침체탓이 아니라...	상담.안내
2383	2008-11-13	벤처기업으로 공장설립자금 신청하였으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기술보증담보요구 거부함	상담.안내
2384	2008-11-13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의 운영과 관련한 건	상담.안내
2385	2008-11-13	보증연장 건	상담.안내
2386	2008-11-14	불법추심을 신고합니다.	자체종결
2387	2008-11-14	희망모아.....황포	상담.안내
2388	2008-11-14	KIKO피해 중소기업 특별보증 시행?	자체종결
2389	2008-11-14	은행연합회 전산 삭제 관련건	자체종결
2390	2008-11-14	신용회복에 관한건	상담.안내
2391	2008-11-14	주식시장 상하한가 비율 조정필요	상담.안내
2392	2008-11-14	대통령께서 하신말씀은 지켜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상담.안내
2393	2008-11-14	신용불량등록기간 단, 즉시 해제금액 상향건의	상담.안내
2394	2008-11-14	과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건	해결
2395	2008-11-14	신용보증기금 대통령말씀과 틀려서~	상담.안내
2396	2008-11-14	중소기업의 현실	상담.안내
2397	2008-11-14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관련	자체종결
2398	2008-11-14	금융실명제 폐지	해결
2399	2008-11-17	금융민원	자체종결
2400	2008-11-17	대출시 가족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왜 필요한가요?	상담.안내
2401	2008-11-17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등의 부실한 대주건설지원 절대 반대	자체종결
2402	2008-11-17	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 강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403	2008-11-17	제3자에게 채무사실고지	상담.안내
2404	2008-11-17	금융권 등	상담.안내
2405	2008-11-17	[업무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문의	해결
2406	2008-11-17	채무가 없는데도 채권추심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안내
2407	2008-11-17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담.안내
2408	2008-11-17	신용보증기금 채무이행 고지의 불합리성에 관하여	상담.안내
2409	2008-11-17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기록 삭제	상담.안내
2410	2008-11-17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담.안내
2411	2008-11-17	부모님 협박	상담.안내
2412	2008-11-17	임원 연임 제한 건	상담.안내
2413	2008-11-17	은행 파산시 수시입출금식 계좌	상담.안내
2414	2008-11-17	연대보증으로인한 신불자의 진정입니다	자체종결

2415	2008-11-17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법령 해석 문의(사모간접투자기구의 특례)	해결
2416	2008-11-17	넘 힘들어요	상담.안내
2417	2008-11-17	은행의 금융거래 제공 관련 질의	자체종결
2418	2008-11-17	증권시장 안정화 방안 건의	상담.안내
2419	2008-11-17	중소기업지원-기술신보 보증	상담.안내
2420	2008-11-17	금융채무 구제대책이 있는데 언제 시행하나요	상담.안내
2421	2008-11-18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상담.안내
2422	2008-11-18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 분할 요청	상담.안내
2423	2008-11-18	증권시장 관련 의견	상담.안내
2424	2008-11-18	1AA-0810-041645 번호의 민원내용중 기술보증기금민원은 취하하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2425	2008-11-18	신용정보 관리개선	상담.안내
2426	2008-11-18	채권압류(집행)용 금융권(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사용 계약 조화	상담.안내
2427	2008-11-18	신한카드이월수가..신용불량을 만드는데..어떡해	상담.안내
2428	2008-11-18	은행업계 개선	상담.안내
2429	2008-11-18	어려운 서민들 형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해결
2430	2008-11-18	증권선물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처리가 안됩니다.	상담.안내
2431	2008-11-18	채무및보증채무 유무 확인서	상담.안내
2432	2008-11-18	신용불량등재대하여	상담.안내
2433	2008-11-18	희망모아의 채권 추심 관련	자체종결
2434	2008-11-18	신용정보 관리 관련	상담.안내
2435	2008-11-18	민원인변경해주세요.	상담.안내
2436	2008-11-19	세상에 이런일이...	상담.안내
2437	2008-11-19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비례해 시중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읽고	상담.안내
2438	2008-11-19	금리 인하 요청	상담.안내
2439	2008-11-19	kb자산운용 'kb웰리안부동산8호'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미고지 및 미공지 외	상담.안내
2440	2008-11-19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모기지론 대출금리 인하를 해주세여!	상담.안내
2441	2008-11-19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해결
2442	2008-11-19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상담.안내
2443	2008-11-19	시중 은행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다??	상담.안내
2444	2008-11-19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의 무책임한 첩포	상담.안내
2445	2008-11-19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로 내려 주세요	상담.안내
2446	2008-11-19	신용회복이 되더라도 불편한점과 건의 사항...	상담.안내
2447	2008-11-19	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상담.안내
2448	2008-11-19	대출한도 정상화 바랍니다.	해결
2449	2008-11-19	담당자의 거짓채무고지와추심	상담.안내
2450	2008-11-19	직원 감사관련 신용정보 조회 가능여부	상담.안내
2451	2008-11-20	고금리의 사금융대출을 저금리의 은행권대출로 바꿀 수 있	상담.안내
2452	2008-11-20	기술보증기금 기업을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453	2008-11-20	중시안정대책의호소	상담.안내
2454	2008-11-20	신용불량자 관련법안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455	2008-11-20	신용보증 및 수출금융 의 애로 민원	상담.안내
2456	2008-11-20	사금융으로인한상담	상담.안내
2457	2008-11-20	신용보증기금 동해사무소의 첩포 관련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관련 압니다	자체종결
2458	2008-11-20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서 문제	자체종결
2459	2008-11-20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상담.안내
2460	2008-11-20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관한 비정상적인 상담	상담.안내
2461	2008-11-21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기한에 관하여	상담.안내
2462	2008-11-21	고객의 한 명의 신용을 무참히 짓 밟아버리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신한카드사.	자체종결
2463	2008-11-21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에 미치는영향에대한 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464	2008-11-21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무한연장건에 관하여	상담.안내
2465	2008-11-21	연대보증 채무 감액에 관한건	상담.안내
2466	2008-11-21	몰라요. 제통장을 해킹했어요.텔레파시가 와서 환청으로 해서 옷벗기고 피해 보상금도 안주네요...	자체종결
2467	2008-11-21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라고가처분이들어왔어요	상담.안내
2468	2008-11-21	외환은행부실채권2200억을 6.2%로 사서 원금이자다내라고 소송하는 에이원자산관리회사	상담.안내
2469	2008-11-21	중기업 자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2470	2008-11-21	불법추심행위	상담.안내



2471	2008-11-21	ELS피해	상담.안내
2472	2008-11-21	협박전화	상담.안내
2473	2008-11-23	이자 이의	자체종결
2474	2008-11-23	불법채권추심	상담.안내
2475	2008-11-23	사금융-프라임자산의 채권화수금액의 무당성에 대하여	상담.안내
2476	2008-11-23	대출관련	상담.안내
2477	2008-11-24	신성건설 회사채 개인투자자입니다.	상담.안내
2478	2008-11-24	사각지대의 아이템 살려 주세요	상담.안내
2479	2008-11-2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480	2008-11-24	신용불량과 4대보험..	상담.안내
2481	2008-11-24	건의사항	상담.안내
2482	2008-11-24	신용회복 건	상담.안내
2483	2008-11-24	제2 금융권 예금자보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484	2008-11-24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에 대한 건	상담.안내
2485	2008-11-24	공항공전소문제점	상담.안내
2486	2008-11-24	주부입니다	상담.안내
2487	2008-11-24	신용불량자 수에 관한 질문드릴게요.	상담.안내
2488	2008-11-25	민원 답변.	상담.안내
2489	2008-11-25	힘없고 억울한 민원인 입니다.	상담.안내
2490	2008-11-25	중소기업 지원대책 건의	상담.안내
2491	2008-11-25	보험	상담.안내
2492	2008-11-25	공적자금관리백서	상담.안내
2493	2008-11-25	냉각기간의 대상.보고	상담.안내
2494	2008-11-25	시중자금 흐름의 동맥 경화를 빨리 푸는방법	상담.안내
2495	2008-11-25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출 한도 관련	상담.안내
2496	2008-11-26	회신결과에대한 무성과의건	상담.안내
2497	2008-11-26	산업은행 민영화를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상담.안내
2498	2008-11-26	신용보증기금 키코관련 대출신청 불승인	상담.안내
2499	2008-11-26	급합니다.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보증서와 은행 융자에 대한 건의 건	상담.안내
2500	2008-11-26	대통령님께 긴급요청 합니다	상담.안내
2501	2008-11-26	기술신용보증기금연장에관한건	자체종결
2502	2008-11-26	대출사실을 제3자 에게알리는경우	상담.안내
2503	2008-11-26	신용평가기관에 5년간 남아있는 "채무불이행"딱지로 젊은 여사업가의 꿈을 접어야 하는가...	상담.안내
2504	2008-11-27	가혹한 불법추심에 관한 민원	상담.안내
2505	2008-11-27	자본시장 통합법 조항 질문 드립니다.	상담.안내
2506	2008-11-27	본인의각 은행 채무내역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안내
2507	2008-11-27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	상담.안내
2508	2008-11-27	1AA-0811-021231 민원 신청에대한취하건	자체종결
2509	2008-11-27	기초생활수급자..신용지원 관련 글입니다,	상담.안내
2510	2008-11-27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정책 등	상담.안내
2511	2008-11-27	개인 신용정보 기록 유지 기간 관련	상담.안내
2512	2008-11-27	경제 활동을 할수없습니다.	상담.안내
2513	2008-11-27	신용불량자 특별사면요청	상담.안내
2514	2008-11-28	해약 환불금 미지급	자체종결
2515	2008-11-28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상담.안내
2516	2008-11-28	건의서	상담.안내
2517	2008-11-28	자격증의 검정료등 일괄감독 강화요청	상담.안내
2518	2008-11-28	청와대에 드리는 호소문	상담.안내
2519	2008-11-28	새로 바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의 대출 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상담.안내
2520	2008-11-28	신회회복이후..오는조건에평등	상담.안내
2521	2008-11-28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2522	2008-11-28	이게 처리회신입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해결
2523	2008-11-28	금융정책건의	상담.안내
2524	2008-11-28	FAST TRACK 신청후 승인 부결 관련	상담.안내
2525	2008-11-28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상담.안내
2526	2008-12-01	금융지주회사의 최소자본금액에 대하여	해결
2527	2008-12-01	대부업체의괴롭힘	상담.안내
2528	2008-12-01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상담.안내
2529	2008-12-01	벌써,여러번 올린 민원..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여...???	상담.안내
2530	2008-12-01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하여	자체종결
2531	2008-12-01	전세자금 대출건으로 신문고를 찾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	상담.안내
2532	2008-12-01	주택규제완화를 통한 국민경기부양	해결

2533	2008-12-01	금융감독기관개편건의	해결
2534	2008-12-01	우리가죽에 파탄을 지켜주세요.	상담.안내
2535	2008-12-01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도움 요청입니다.	상담.안내
2536	2008-12-01	검표권 판매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담.안내
2537	2008-12-01	참 복잡하다 민원 접수 말라는 건가여..	상담.안내
2538	2008-12-01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글	상담.안내
2539	2008-12-01	(패스트 트랙) 유동성 긴급자금지원에 대해서.	상담.안내
2540	2008-12-01	개인 회생 신청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안내
2541	2008-12-01	과감한 금리인하 요청	상담.안내
2542	2008-12-01	직장인 신용불량자를 위한 삶의 희망	상담.안내
2543	2008-12-01	희망	상담.안내
2544	2008-12-02	서민 대출금리 고공 행진을 멈추고 실물 경제가 살아 나게 하는국단적 처방을	상담.안내
2545	2008-12-02	저축은행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조건	상담.안내
2546	2008-12-02	구조개혁기획단 문의	상담.안내
2547	2008-12-02	중소금융투자회사 지원 및 개인 사모펀드 허용 요청	해결
2548	2008-12-02	금융실명제 개선	해결
2549	2008-12-02	보험가입여부	상담.안내
2550	2008-12-02	전국은행연합회의 불친절하고태도, 리드코프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절차 그리고 친절한 직원 추천	상담.안내
2551	2008-12-02	주택금융공사의 처분조건부 대출 처분조건 완화요청	자체종결
2552	2008-12-0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553	2008-12-02	저소득계층을위한금융정책건	상담.안내
2554	2008-12-02	금융권이나 정부지원금	상담.안내
2555	2008-12-02	신용보증기금 업무초치 이의	상담.안내
2556	2008-12-03	금융정책건의	상담.안내
2557	2008-12-03	주택수요를 살리기 위해 드리는 제안	상담.안내
2558	2008-12-03	신용불량 양산 국가금융 에 조정올해주십시오	상담.안내
2559	2008-12-03	**대주단 **께 현장고발	상담.안내
2560	2008-12-03	고금리대부업이자 저금리로전환 시행에 관하여	상담.안내
2561	2008-12-03	금융실명거래 관련 질의	해결
2562	2008-12-03	중소기업유동성자금(fast track)건	상담.안내
2563	2008-12-03	제안(영농지주회사설립, 쌀직불금관련, 은행통폐합)	상담.안내
2564	2008-12-03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 문의	해결
2565	2008-12-03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 현황 및 중심지 지정 계획	상담.안내
2566	2008-12-03	신용회복 지원신청했는데 이래두 되는건지요...???????	상담.안내
2567	2008-12-03	주택대출금리 인하!!!	상담.안내
2568	2008-12-04	저녁6시경 5살7살딸아이만있는데 벨을자꾸눌렀습니다	상담.안내
2569	2008-12-04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문제 있습니다	상담.안내
2570	2008-12-04	서민의 위기를 구해주세요	상담.안내
2571	2008-12-0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2572	2008-12-04	핸드폰으로 최저이율로 최대한도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정선경탐장>라는 광고를 보며	상담.안내
2573	2008-12-04	금융정보공개	상담.안내
2574	2008-12-04	패스트트랙, 은행에서는 해준다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안된답니다.	자체종결
2575	2008-12-04	국민신문고.. 두드립니다...	상담.안내
2576	2008-12-04	무단 신용조회건~~(서명위조 포함)	상담.안내
2577	2008-12-04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체종결
2578	2008-12-04	대생상호신용금고의 업무처리 관련	해결
2579	2008-12-04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안내
2580	2008-12-04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2581	2008-12-05	대한민국의 신용보증은 무엇입니까?	상담.안내
2582	2008-12-05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583	2008-12-05	카드대금 일시납에 대하여	상담.안내
2584	2008-12-05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상담.안내
2585	2008-12-05	대통령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어려움을 호소합니	상담.안내
2586	2008-12-05	개인회생자들에게는 특별사면이란건 없는건가요?	상담.안내
2587	2008-12-0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헌법침해적 문제 제기	상담.안내
2588	2008-12-08	우리나라 증권사 중 괜찮은곳은 어디인지..	상담.안내
2589	2008-12-08	전세자금 대출 부결	자체종결
2590	2008-12-08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상담.안내
2591	2008-12-08	신분증의 범위	해결

2592	2008-12-08	채무자에게 이자탕감한다고하고나서 이자수령하는한마음 배드뱅크에게	상담.안내
2593	2008-12-08	진중권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가락시장에서 쇼를 하셨 다고 하는데 나라를 망치는 놈들	상담.안내
2594	2008-12-08	대통령이 직접 얻을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595	2008-12-08	대출금리 좀 내려주세요... 좀 살게...	상담.안내
2596	2008-12-08	억울한 중소기업자금 엔화	상담.안내
2597	2008-12-08	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 이의	자체종결
2598	2008-12-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2599	2008-12-08	기술보증기금의 불공정 심사 관련	상담.안내
2600	2008-12-08	금융결제원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601	2008-12-08	보증기관의 보증 관련	자체종결
2602	2008-12-08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동결	상담.안내
2603	2008-12-09	외부감사 법안통과에대해서	상담.안내
2604	2008-12-09	냉각기간의 대상 보고	자체종결
2605	2008-12-09	신용보증기금 시설보중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상담.안내
2606	2008-12-09	민원번호1AA-0810-033864번에대한 재심요구	상담.안내
2607	2008-12-09	탄 원 서	자체종결
2608	2008-12-09	예전 자료는 어떻게 열람할수있나요?	해결
2609	2008-12-09	제 명의로 된 은행지점과 통장을 전부 알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610	2008-12-09	국민장기실용카드발급제안	해결
2611	2008-12-09	인사이의	자체종결
2612	2008-12-0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의	해결
2613	2008-12-10	답변해주세요	해결
2614	2008-12-10	엔화환율상승으로 인한 유동성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업을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615	2008-12-10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616	2008-12-10	신용보증기금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상담.안내
2617	2008-12-10	부패사례입니다.	자체종결
2618	2008-12-10	외화자산 부채 환평가 회계특례 적용 확대 진위확인	상담.안내
2619	2008-12-10	높은 금리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620	2008-12-10	악덕 사채업자들	상담.안내
2621	2008-12-10	신협법 관련 질의	상담.안내
2622	2008-12-10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	상담.안내
2623	2008-12-11	냉각기간의 대상 보고	상담.안내
2624	2008-12-11	부동산 폭락방지 정책제안서	자체종결
2625	2008-12-11	금))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한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2626	2008-12-11	온비드 관련..매각결정 취소에 대하여	상담.안내
2627	2008-12-11	신용불량자 중 파산면책자들의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받게 해주세요	상담.안내
2628	2008-12-11	면책자도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안내
2629	2008-12-11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관련	해결
2630	2008-12-11	기술보증기금은 제발 기술품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자체종결
2631	2008-12-1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 인하 요청.	상담.안내
2632	2008-12-11	주택금융공사 금리 관련	상담.안내
2633	2008-12-11	ELW상품 508669에 대한 LP의 철회	자체종결
2634	2008-12-11	사채	상담.안내
2635	2008-12-11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기대출자 금리인하의 건	상담.안내
2636	2008-12-11	부동산폭락방지정책	상담.안내
2637	2008-12-11	금리관련 정책 제안	상담.안내
2638	2008-12-12	불법추심으로신고합니다.	상담.안내
2639	2008-12-12	[불쌍한 서초구 주민]·종부세 완화보다 6억 이하 역모기지 집행이 시급합니다.	상담.안내
2640	2008-12-12	보증기금 의 제도개선 요청건.	자체종결
2641	2008-12-12	보증업무에 대하여	상담.안내
2642	2008-12-12	건설업체와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 았으면 합니다.	상담.안내
2643	2008-12-12	증권업협회장이	상담.안내
2644	2008-12-12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분열병자 문제	자체종결
2645	2008-12-12	서민금리올리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변경불가	상담.안내
2646	2008-12-12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경매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2647	2008-12-12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상담.안내
2648	2008-12-13	연대보증인 대체 요청(건)	자체종결
2649	2008-12-13	대부업에 부당한 실태	상담.안내
2650	2008-12-15	KIKO 손실액 보증신청건	상담.안내

2651	2008-12-15	아파트매매활성화 신문고 여러차례 제안에 대한 불만민원	자체종결
2652	2008-12-15	사업자금지원	상담.안내
2653	2008-12-15	공매와 경매 처리기관의 협조체계 미구축으로 개인 재산권	상담.안내
2654	2008-12-15	신용보증기금보증제도	상담.안내
2655	2008-12-15	파산으로 면책복권된자에 대하여 금융 특별사면을	상담.안내
2656	2008-12-15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담.안내
2657	2008-12-15	보험업법 개정 관련	상담.안내
2658	2008-12-15	보험이의	상담.안내
2659	2008-12-16	주식관련 의견	상담.안내
2660	2008-12-16	대출 대부업체!	상담.안내
2661	2008-12-16	1AA-0812-006703 추가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2662	2008-12-16	사해행위 누명	상담.안내
2663	2008-12-16	보증기금이용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664	2008-12-16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있어요..	상담.안내
2665	2008-12-16	사채이자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네요..	상담.안내
2666	2008-12-16	IMF실직자, 재생의을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2667	2008-12-17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668	2008-12-17	신용회복기금 구제금융.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상담.안내
2669	2008-12-17	단 한건의 은행 3일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보증서 발급이 거 부 됩니다.	자체종결
2670	2008-12-17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671	2008-12-17	경매관련 도움요청	상담.안내
2672	2008-12-17	파산과면책후은행연합회의 횡포	상담.안내
2673	2008-12-17	나랏일	상담.안내
2674	2008-12-17	제안(금융실명제 폐지,양도세,유류판매정부정찰,대체농지 조성비 인하,직불금제도 개선)	해결
2675	2008-12-17	농협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2676	2008-12-1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관련	상담.안내
2677	2008-12-17	기업총수의 구속만은 면할수는 없는지요?	상담.안내
2678	2008-12-18	유망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기금 자금이 골고루 나누어 지게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679	2008-12-18	금융권 개인신용조회 등급하락?	상담.안내
2680	2008-12-18	금융권 개인신용조회 등급하락?	상담.안내
2681	2008-12-18	모기지론 금리	상담.안내
2682	2008-12-18	표준양식 찾아주세요.	해결
2683	2008-12-18	실효된 보험상품	상담.안내
2684	2008-12-18	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 이의	상담.안내
2685	2008-12-18	환승론문의	상담.안내
2686	2008-12-18	신용회복에 관하여	상담.안내
2687	2008-12-18	총리님께 드리는 호소문!	상담.안내
2688	2008-12-1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횡포(지나친 가압류)로 족게된 힘없는 소 기업의 애환입니다	상담.안내
2689	2008-12-19	카드사 연체기록 문의좀 드립니다.	상담.안내
2690	2008-12-19	이런 준공무원이	상담.안내
2691	2008-12-19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2692	2008-12-19	정부출연기금의 채권추심유예건	상담.안내
2693	2008-12-19	은행이자	상담.안내
2694	2008-12-19	청와대민원실에서 요청하신 추가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695	2008-12-19	청와대에 드리는 호소문	상담.안내
2696	2008-12-19	예금자보호	상담.안내
2697	2008-12-19	이거 불법추심에 속하는건가요??	상담.안내
2698	2008-12-19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지연건	상담.안내
2699	2008-12-19	좀 ..살려주세요..간절히 바랍니다..	상담.안내
2700	2008-12-22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건의	상담.안내
2701	2008-12-22	기초수급자의 사채 피해 호소	상담.안내
2702	2008-12-22	예금보험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2703	2008-12-22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04	2008-12-22	공직에 계신분들은 아직 서민의 마음을 모르시는것 같습니	상담.안내
2705	2008-12-22	너무한 신용정보	상담.안내
2706	2008-12-22	기술있어도 키울 수 없는 나라인가요?	상담.안내
2707	2008-12-22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2708	2008-12-22	보급자리론 대출	상담.안내
2709	2008-12-22	대부중개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	상담.안내
2710	2008-12-22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2711	2008-12-22	중소기업이 힘어듭니다	상담.안내

2712	2008-12-22	신용불량과전세아파트에대한건의	상담.안내
2713	2008-12-22	신용 보증 기금의 보증금 산정의 불명확한 기준의 문제에	상담.안내
2714	2008-12-22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2715	2008-12-22	금융기관 개인정보 관련 민원	상담.안내
2716	2008-12-22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해서 ..	상담.안내
2717	2008-12-22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민정책제안	상담.안내
2718	2008-12-22	호소문	상담.안내
2719	2008-12-22	기보,신보 보증기관에 관하여	상담.안내
2720	2008-12-22	우리도 신용카드 발급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2721	2008-12-22	외감대상축소	상담.안내
2722	2008-12-22	금융기관 구조조정	상담.안내
2723	2008-12-22	고금리대출환실행에 어려움	상담.안내
2724	2008-12-22	신용불량자 구제 신청	상담.안내
2725	2008-12-22	수급자를위한채무조정건에대한의견	상담.안내
2726	2008-12-22	호소문	상담.안내
2727	2008-12-22	오토금융이라는 곳 아세요?	상담.안내
2728	2008-12-22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대하여...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상담.안내
2729	2008-12-23	신용보증기금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상담.안내
2730	2008-12-23	금융위원회상담자를 물어봅니다.	상담.안내
2731	2008-12-23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건	상담.안내
2732	2008-12-23	농업지원	상담.안내
2733	2008-12-23	외화환산관련 회계제도 개선요청	상담.안내
2734	2008-12-23	채권추심 위임 업체 관련 질의	상담.안내
2735	2008-12-2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2736	2008-12-23	농신보의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737	2008-12-23	해도해도 안되는 대출	해결
2738	2008-12-24	러시엔캐시 채권팀에관하여	상담.안내
2739	2008-12-24	대출금리인하 건의	상담.안내
2740	2008-12-24	사금융 피해	상담.안내
2741	2008-12-24	원금보다이자가...	상담.안내
2742	2008-12-24	신용등급낮은데	상담.안내
2743	2008-12-24	대출이 없는데 대출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상담.안내
2744	2008-12-24	주택구매자금 거치기간연장	상담.안내
2745	2008-12-24	한국주택공사 가압류건	상담.안내
2746	2008-12-26	중소기업 선처	상담.안내
2747	2008-12-26	대통령각하의 결단. 신용회복	상담.안내
2748	2008-12-26	금융관련 자격증의 문제점	상담.안내
2749	2008-12-26	자산관리공사관련	상담.안내
2750	2008-12-26	주택금융공사의 폭리부분	상담.안내
2751	2008-12-26	개인 신용정보(등급) 관리 개선요청	상담.안내
2752	2008-12-26	뭇어죽지 않게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
2753	2008-12-26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비아냥 거리지 마세요!!	자체종결
2754	2008-12-29	대출광고 에 대하여	상담.안내
2755	2008-12-29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카드거래거부합니다.	해결
2756	2008-12-29	중소기업 지원 자금, 회사의 실질내용 파악후 결정해 주세요(서류상 부채비율 말고요)	자체종결
2757	2008-12-29	신용등급때문에대출이힘들어요	상담.안내
2758	2008-12-29	민원번호 1AA-0810-033864 및 1AA-0812-011639에 대	상담.안내
2759	2008-12-29	외부감사면제에 대한 조치	자체종결
2760	2008-12-29	어려운경기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주십시오	상담.안내
2761	2008-12-29	신용보증기금 정말 조심하세요.	상담.안내
2762	2008-12-29	신용보증기금은 이렇게 돈버나요???	상담.안내
2763	2008-12-29	법인회생관련	상담.안내
2764	2008-12-29	신용불량 상태인데..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는곳 없나요??	상담.안내
2765	2008-12-29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무통보없이 시골집에 가압류를했습니다	상담.안내
2766	2008-12-29	신용보증기금 이월수가...	상담.안내
2767	2008-12-29	신용회복	상담.안내
2768	2008-12-29	예금보험공사에 바란다.	상담.안내
2769	2008-12-29	개인신용정보 사용관련	상담.안내
2770	2008-12-29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2771	2008-12-29	희망모아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2772	2008-12-30	기보에서 보증시 가압류를 너무 중시합니다.	상담.안내

2773	2008-12-30	법령 유권 해석 관련	해결
2774	2008-12-30	신용불량~~~~~	해결
2775	2008-12-30	한마음금융 기간부활신청방법등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방 법문의	상담.안내
2776	2008-12-30	금융감독원 민원 조사는 안하는 이유	상담.안내
2777	2008-12-30	농어민특단대책	상담.안내
2778	2008-12-30	제4금융권 대출관련	상담.안내
2779	2008-12-30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점!!	해결
2780	2008-12-30	대우조선 매각 차질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상담.안내
2781	2008-12-30	정책자금 불공정 심사로 인하여 유동성자금 지원 하지 않는 일선 정부 직원들관행	상담.안내
2782	2008-12-31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에 관련하여.	자체종결
2783	2008-12-31	불법채무	상담.안내
2784	2008-12-31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말소	상담.안내
2785	2008-12-31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상담.안내
2786	2008-12-31	신용등급상향조정에대해서	상담.안내
2787	2008-12-31	어떻다면줄을까요	상담.안내
2788	2008-12-31	기술보증기금의 심사 관련	상담.안내
2789	2008-12-3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790	2008-12-31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91	2008-12-31	정리금융공사의 부당한 채무	상담.안내

## 2009.1 ~ 8월 금융위원회 민원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 제목	처리 내용
1	2009-01-05	긴급 !!!!!!!!!!!!!!! 신용보증기금 횡포 탄원서 !	자체종결
2	2009-01-05	신불자 대출 도움 요청	해결
3	2009-01-05	신불 처우에 대하여	해결
4	2009-01-05	저신용등급자 대출방안	해결
5	2009-01-05	도와주세요?	해결
6	2009-01-05	이추운겨울에	해결
7	2009-01-05	4대강정비, 주식시장활성화, 최저임금제 확대, 외교력강화	상담.안내
8	2009-01-05	연대보증기금	상담.안내
9	2009-01-05	은행의 실명 거래 관련 질의	자체종결
10	2009-01-05	사업재개로 인한 신용보증보험 가입 등의 제재..	상담.안내
11	2009-01-05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한다	상담.안내
12	2009-01-05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개인금융 지원 방법은 없나요?	해결
13	2009-01-05	신용보증기금 보증 건	상담.안내
14	2009-01-05	서민 은행돈좀 빌려 봅시다	해결
15	2009-01-05	자산관리공사의 통장 압류에 대하여	자체종결
16	2009-01-05	다중 채무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17	2009-01-05	민원인을 기망하여 가압류	상담.안내
18	2009-01-05	부동산 폭락에 대한 대책과 경매주택의 문제와 구제안	상담.안내
19	2009-01-05	저신용등급자 대출방안	해결
20	2009-01-05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1	2009-01-05	압류	상담.안내
22	2009-01-05	서민을 두번 울리지 마세요!	해결
23	2009-01-06	보증인에 대한 상환금액 번복청구에 따른 억울함 호소 **** 대출 원금 1300만원 - 주채무자와 통화시 800만원만 상환하면 채권소멸하기로했는데 이제와서 보증인에게 이자 금액 전액 포함된	자체종결
24	2009-01-06	현금지급기 운용방법 개선	해결
25	2009-01-06	기술신보의 구상권 관리등 신용보증과 관련된 채권은 원금만 100%회수된 경우 잔존채무탕감 규정 완화요구	상담.안내
26	2009-01-06	우리나라 서민들을 위해서..대부업과 여신업체를 불법단체로 만들어주세요..	상담.안내
27	2009-01-06	국유세 변상금 선처	상담.안내
28	2009-01-06	채무 관계로 고민 하고있습니다	상담.안내
29	2009-01-06	중자 돈 좀 빌려주세요.	상담.안내
30	2009-01-06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31	2009-01-06	경제를 살리려면	상담.안내
32	2009-01-06	창업한지 21년된 한 작은 회사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3	2009-01-06	금융결제원 세금계산서발행관련	해결
34	2009-01-06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지 처분 관련	상담.안내
35	2009-01-06	새희망네트웍 대출자격 건	해결
36	2009-01-07	원금상환및 이자상환과 급여압류에 대하여	상담.안내
37	2009-01-07	사금융으로 죽고싶은 가정	상담.안내
38	2009-01-07	신용보증기금관련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최준필님 접수 사항의 추가 진행사항	상담.안내
39	2009-01-07	정책제안	상담.안내
40	2009-01-07	기술보증기금 지원 이의	상담.안내
41	2009-01-07	은행비리 관련 청원	자체종결
42	2009-01-07	생활자금에관하여	상담.안내
43	2009-01-07	사금융 너무무서워요	상담.안내
44	2009-01-07	사금융추심 및 사채추심	상담.안내
45	2009-01-07	보증자리론(고정금리변환)호소	상담.안내
46	2009-01-07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지원인지 묻고싶습니다.	상담.안내
47	2009-01-07	산업은행 혁신필요	상담.안내
48	2009-01-07	기초수급자 채무 청구관련 이의	상담.안내
49	2009-01-07	증권 파생상품 (옵션투자 관련하여)	정책제안
50	2009-01-08	우리은행 2조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질의)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51	2009-01-08	변상금	상담.안내
52	2009-01-08	압류해제	상담.안내
53	2009-01-08	채권추심 이의	상담.안내
54	2009-01-08	직장 방문 채무독촉..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5	2009-01-08	금융결제원 인터넷자로 사이트 문제점	해결
56	2009-01-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57	2009-01-08	서민들에 소액 대출길을 열어주시 ! 기바랍니다	해결

58	2009-01-08	부동산 정책, 대출이자 인하	상담.안내
59	2009-01-08	불쾌한민원해결	자체종결
60	2009-01-08	희망모아 라고 아세요?	상담.안내
61	2009-01-08	파산후 면책자들한테 2증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62	2009-01-08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63	2009-01-08	아파트 공매통지서를받고서	상담.안내
64	2009-01-08	등기부압류금액차등적용	자체종결
65	2009-01-08	신용보증기금의 거짓공문	상담.안내
66	2009-01-08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67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8	2009-01-09	은행대출	상담.안내
69	2009-01-09	은행 장기대출 선처	상담.안내
70	2009-01-0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1	2009-01-09	일반서민위한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율 추가인하 요청 (연7%대 대출이율을 연5% - 연6%로 인하 요망)	상담.안내
72	2009-01-09	딱 1년 전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해결
73	2009-01-09	값아나가는원금만큼 이자가늘어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4	2009-01-09	은행 신용카드 절도범 잡기	해결
75	2009-01-0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76	2009-01-09	자산관리공사 채권 추심원의 부당한 대우	상담.안내
77	2009-01-09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78	2009-01-09	파산.면책을 받았는데요.	상담.안내
79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횡포에대하여	자체종결
80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횡포에대하여억울함을호소함	자체종결
81	2009-01-09	은행예금주의 진정서	상담.안내
82	2009-01-09	서민 죽이는 조회기록 3년은 넘 길어요?	상담.안내
83	2009-01-09	어울 왜 할인안되며 할인료가 사채 선이자 안가요	해결
84	2009-01-09	경제 파산자 구원 시스템 구성	해결
85	2009-01-09	강만수장관님께 공정거래위원회장님께 보내주세요	상담.안내
86	2009-01-09	2년이상 성실 개인회생 이행자 특수기록 삭제???	상담.안내
87	2009-01-09	불법대출업	상담.안내
88	2009-01-09	압류해제	상담.안내
89	2009-01-09	대책좀세워주세요...제발	상담.안내
90	2009-01-09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등 이의	자체종결
91	2009-01-09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92	2009-01-11	저의 빚(채무)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꼭 도와 두십시오!!!	상담.안내
93	2009-01-12	신용보증기금보증발행서에관한민원	상담.안내
94	2009-01-12	적십자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95	2009-01-12	독촉장발부	상담.안내
96	2009-01-12	금리격변기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배려 요청.	상담.안내
97	2009-01-12	서민에게는 대출도 안되는 대한민국 내조국!!!	상담.안내
98	2009-01-12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국민에게 울수있도록 법률개정을	상담.안내
99	2009-01-12	기술신용 보증	상담.안내
100	2009-01-12	주택대출 인하	상담.안내
101	2009-01-12	금융소외자 대책	해결
102	2009-01-12	높은 이자율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대책 마련해주세요..	상담.안내
103	2009-01-12	cd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상담.안내
104	2009-01-12	자산관리공사에서하는 환승론 시행언제하는지?	해결
105	2009-01-12	세상이 살벌해 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해결
106	2009-01-12	자금지원에대하여	상담.안내
107	2009-01-12	정부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에 관해	자체종결
108	2009-01-12	부실건설회사 퇴출과 관련해서 임대거주민의 임차비 보호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09	2009-01-12	신용정보조치를 하는것이 정당한 건가요?	상담.안내
110	2009-01-12	사금융 추심관한 신고입니다.	상담.안내
111	2009-01-12	신용보증기금보증발행서에관한민원	상담.안내
112	2009-01-13	기부금에 대한 금융 이체수수료 면제에 관한 의견	해결
113	2009-01-13	한국자산공사 철거명령 관련	상담.안내
114	2009-01-13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살린다고 떠들어도 실무는 아니네요...	자체종결
115	2009-01-13	난 믿었소???	상담.안내
116	2009-01-13	신용 기록 회생등 파산 터무니없는담변	상담.안내
117	2009-01-13	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상담.안내
118	2009-01-13	국민 애로사항건의	해결
119	2009-01-13	1차 부도가 난 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발행어음의 유통 개선점에 대하여.....	해결



120	2009-01-13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요망	상담.안내
121	2009-01-13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담당자 이름	상담.안내
122	2009-01-13	보증채무에 대한 규정해석을 임의로 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상담.안내
123	2009-01-13	변상금	상담.안내
124	2009-01-13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5	2009-01-13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6	2009-01-14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12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28	2009-01-14	실험 대출 아을	상담.안내
129	2009-01-14	새로출범한 비상경제상황실에 고함(주택자금대출금리 급상승 7.18%→8.4% 실태점검요)	상담.안내
130	2009-01-14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상담.안내
131	2009-01-14	연대보증관련 및 B2B자금 유용	상담.안내
132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3	2009-01-14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e-모기지론' 거치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4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5	2009-01-14	한국자산공사 부채로 인한 가압류 해제 요청	상담.안내
136	2009-01-14	고금리 대부업과 제 2금융권 대출이자 조정에 관한 건	상담.안내
13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8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39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0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1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2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3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4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5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6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7	2009-01-14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48	2009-01-14	신용보증서 발행에대하여...	상담.안내
149	2009-01-14	악덕사채업	상담.안내
150	2009-01-1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추진(제7조의2제9호)	해결
151	2009-01-15	증권 찾기	상담.안내
152	2009-01-15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53	2009-01-15	대출이 너무 힘듭니다	상담.안내
154	2009-01-15	본인도 모르는 신용 불량자 원상복귀..	상담.안내
155	2009-01-15	신용보증 기금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요구	상담.안내
156	2009-01-15	한국자산공사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을 낮추어 주십시오	상담.안내
157	2009-01-15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4금융때문에 질문좀...	상담.안내
158	2009-01-15	신용불량지도 아니고 연체자도 아닙니다. 근대 왜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이나 카드신청이 안될가요	상담.안내
159	2009-01-15	신용보증에대한 소원	상담.안내
160	2009-01-15	시급한 민생해결 긴급추구 건의문	자체종결
161	2009-01-15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해결
162	2009-01-15	불법추심(영업방해및심적인불안감과공포로생계유지불가능)	상담.안내
163	2009-01-15	불법 추심(너무나 불안해 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164	2009-01-16	채용시 이력서에 관해	상담.안내
165	2009-01-16	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인하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166	2009-01-16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지원	자체종결
167	2009-01-16	고금리	해결
168	2009-01-16	창업지원	상담.안내
169	2009-01-16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170	2009-01-16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中 보증확대 비상조치 시행 시기에 관	상담.안내
171	2009-01-16	사채 동결 해 주세요	상담.안내
172	2009-01-16	은행 이자 내기 넘힘드네요...	상담.안내
173	2009-01-1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처럼 동일 조건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담.안내
174	2009-01-16	은행 이자는 왜 꿈쩍도 안하고 오르기만 하나요?	상담.안내
175	2009-01-16	하나은행의 고객에 대한 참담함	자체종결
176	2009-01-16	모기지 대출금리	상담.안내
177	2009-01-16	채무사실 3차 불법고지	상담.안내
178	2009-01-18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섭고 겁나요...ㅠㅠ	상담.안내
179	2009-01-18	불법추심으로고통받고있어요	상담.안내
180	2009-01-19	독촉에 의한 시달림(두려움)	상담.안내

181	2009-01-19	신용불량등재에 관한 행위진정	상담.안내
182	2009-01-19	통장거래내역유출건	상담.안내
183	2009-01-19	은행대출금리	해결
184	2009-01-19	씨앤브이 채무관련	상담.안내
185	2009-01-19	중소기업 애로사항	자체종결
186	2009-01-19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야겠습니다	상담.안내
187	2009-01-19	대출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상담.안내
188	2009-01-19	법령에 대한 용어 해석 및 근거 법	상담.안내
189	2009-01-19	(주)빅스유니언의 익명조합원 모집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확인	상담.안내
190	2009-01-19	대통령님을 모시는 분들께....	상담.안내
191	2009-01-19	실질적중소기업(개인)보호기관필요	자체종결
192	2009-01-19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자체종결
193	2009-01-19	서민대출의 사각지대	해결
194	2009-01-19	사각지대의 정책소실과 명분의 허와실	해결
195	2009-01-19	구제금융의 허와실	해결
196	2009-01-19	정말 급박합니다.	상담.안내
197	2009-01-19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해결
198	2009-01-19	사금융 대출 사기 피해 건입니다..	해결
199	2009-01-19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은 형평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담.안내
200	2009-01-19	SK캐피탈 신고합니다.ㅠㅠ	상담.안내
201	2009-01-20	압류이의	상담.안내
202	2009-01-20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203	2009-01-20	연체이자계산시 남아있는 원리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담.안내
204	2009-01-20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허용안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205	2009-01-20	부친의 채무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	상담.안내
206	2009-01-20	신문을회복시켜주세요	상담.안내
207	2009-01-20	저리 금융대출 도움 요청	상담.안내
208	2009-01-20	중소기업 자금 대출 및 가계대출금 저리 전환에 대한 정책 건의	해결
209	2009-01-20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고발	자체종결
210	2009-01-20	'패스트트랙' 평가 B등급 업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지원거부에 대한 사항	상담.안내
211	2009-01-20	신용보증기금 대출 연장 요청	상담.안내
212	2009-01-20	주택담보대출이자언제쯤 내려갈까?	해결
213	2009-01-20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체종결
214	2009-01-20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에 관한 무주관청어 어디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15	2009-01-21	대한민국의 대통령 의지를 꺾는 작은 공직자의 한마디...	자체종결
216	2009-01-21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희롱당한 일..	자체종결
217	2009-01-21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18	2009-01-21	금융권 대출관련 신용정보조회 에 관해서	상담.안내
219	2009-01-21	은행에선 대출금리를 안내려요..	해결
220	2009-01-21	사채의 고금리가 ..1년간 모든채무를 유예해 주세요	상담.안내
221	2009-01-21	카드론 상환연장	해결
222	2009-01-21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불법 채권추심	상담.안내
223	2009-01-21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안내
224	2009-01-21	은행채무 탕감	상담.안내
225	2009-01-21	1AA-0811-036160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입	자체종결
226	2009-01-22	모기지론	상담.안내
227	2009-01-22	신용위원회 신용회복 후 이력관리에 대하여~~	상담.안내
228	2009-01-22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 건	상담.안내
229	2009-01-22	금융소외자 대책	해결
230	2009-01-22	정부의 자금 지원책 문제 있다	상담.안내
231	2009-01-22	대출 상담입니다.	상담.안내
232	2009-01-22	중소기업 지원금 에 관하여	자체종결
233	2009-01-22	현장의 소리	자체종결
234	2009-01-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담.안내
235	2009-01-22	채무자를 기망한 자산관리공사와 소극적인 민원처리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만	상담.안내
236	2009-01-22	채무해결 호소	상담.안내
237	2009-01-23	보증확대 비상조치..문제 있습니다.	상담.안내
238	2009-01-23	재민원]	상담.안내
239	2009-01-23	새롭게 일어 나고 싶습니다. 도와 줄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0	2009-01-23	정말로 실체가 있는 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상담.안내
241	2009-01-23	신용회복의 기회를 앞당겨 주십시오.(간절하마음으로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2	2009-01-23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지원금 정책은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자체종결
243	2009-01-23	운영자금 대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체종결
244	2009-01-23	민간어린이집은 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제한하는가요	상담.안내
245	2009-01-23	절박한 생계대책 ?	상담.안내
246	2009-01-23	청년창업대출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7	2009-01-23	청년창업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8	2009-01-23	청년창업대출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49	2009-01-23	애들과살수있게확인해보시고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50	2009-01-23	은행이 국가의 금리정책에 너무 역행하고 있습니다.	해결
251	2009-01-28	금융계좌 통보 안내	상담.안내
252	2009-01-28	말뿐인 특례신용보증(설날자금)	자체종결
253	2009-01-28	보증제도의 일선에서의 문제점 해결 요청	자체종결
254	2009-01-28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255	2009-01-28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	상담.안내
256	2009-01-28	기업지원	상담.안내
257	2009-01-28	독촉전화로 너무 힘들어요...	상담.안내
258	2009-01-28	무탁하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259	2009-01-28	한국 자산관리공사 채무에 관하여	상담.안내
260	2009-01-28	군대 입대에 따른 빚문제입니다.	해결
261	2009-01-28	이상합니다.	해결
262	2009-01-28	불공정 행위 신고	상담.안내
263	2009-01-28	금융의견	해결
264	2009-01-28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상담.안내
265	2009-01-29	도와주세요~급합니다	상담.안내
266	2009-01-29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요청	상담.안내
267	2009-01-29	빚보증때문에	상담.안내
268	2009-01-29	경매.....	상담.안내
269	2009-01-29	전화내용	상담.안내
270	2009-01-29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1, 2 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상담.안내
271	2009-01-29	자동차 처리건	상담.안내
272	2009-01-29	우경순씨의 민원 제기에 대한 담당 설계사의 억울함 호소	상담.안내
273	2009-01-29	한국자산공사	해결
274	2009-01-29	한국자산공사	해결
275	2009-01-29	가압류해제	상담.안내
276	2009-01-29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상담.안내
277	2009-01-29	중소기업 구제	자체종결
278	2009-01-29	도와주세요...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79	2009-01-29	전국버스조합, 금리, 국가지원, 국방부 행정컴퓨터 오류	해결
280	2009-01-2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예고관련 탄원서 제출	해결
281	2009-01-29	등기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담보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는 폐지 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282	2009-01-30	피를 말리는 불법추심..정말 죽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83	2009-01-30	불법 추심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네요	상담.안내
284	2009-01-30	중소기업을 올리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85	2009-01-30	힘없는 기업을 올리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286	2009-01-30	답답합니다	상담.안내
287	2009-01-30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애로	자체종결
288	2009-01-30	국민들 피를 빼는 은행계열 파이낸셜사 정리제안	상담.안내
289	2009-01-30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290	2009-01-30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거부에 대한 요청 사항	상담.안내
291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2	2009-01-30	보증서 대출 원금상환후 가압류 해지 요구시 원금상환 추가요구	자체종결
293	2009-01-30	도와 주세요	상담.안내
294	2009-01-30	설명절 전후 국민여론 동향보고 및 대책제안	상담.안내
295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6	2009-01-30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97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298	2009-01-30	실명확인증표 복사 규정 제공 요청	해결
299	2009-01-30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공사자금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300	2009-01-30	역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상담.안내

301	2009-01-30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보증제도	자체종결
302	2009-01-30	파산면책후 예금보험공사의 미등재 부채에 대한 부당한 추심	상담.안내
303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4	2009-01-31	협박과 욕설.. 잦은 전화문자로 업무방해, 공포심유발로:죽고싶습	상담.안내
305	2009-01-31	금융소외자 지원	해결
306	2009-01-31	퇴출된 대주건설(시행사-지에스) 에 건축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 행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307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8	2009-01-3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09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0	2009-02-02	퇴출된 대주건설 수분양자의 호소	상담.안내
311	2009-02-02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상담.안내
312	2009-02-02	신용불량제도 없애주시고 부도난 아파트 정비해서 좋은조건으로 분양해주세요	상담.안내
313	2009-02-02	과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당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	상담.안내
314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5	2009-02-02	산업은행은 공세피오레현장(대주건설, 지에스건설)에 대출을 중 지해 주세요	상담.안내
316	2009-02-02	한국주택금융공사마케팅	상담.안내
317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18	2009-02-02	답답	상담.안내
319	2009-02-02	법령및 기타질의	해결
320	2009-02-02	현금지급기개선	해결
321	2009-02-02	유동성자금 긴급지원요청을 위한 호소문	상담.안내
322	2009-02-02	신용불량조기회복건	상담.안내
323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건설사인 대주건설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4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5	2009-02-02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처분 이의	상담.안내
326	2009-02-02	개인의견(용산 철거민 화재 등)	해결
327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8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29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0	2009-02-0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1	2009-02-02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불공정 편파 심사 자 금거절당하여 심각한 경영위기 당함	상담.안내
332	2009-02-02	제 민원은 반드시 산업은행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333	2009-02-02	정부 퇴출건설기업인 대주건설 자금지원 중단요구	상담.안내
334	2009-02-02	자식들을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35	2009-02-02	패스트 트랙	상담.안내
336	2009-02-02	정리금융공사 관련	상담.안내
337	2009-02-03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 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38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 세요!!!	상담.안내
339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 세요!!!	상담.안내
340	2009-02-03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 세요!!!	상담.안내
341	2009-02-03	정책에 어긋나는 일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은 행, 부당한 유동성자금 심사거절당함	상담.안내
342	2009-02-0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자체종결
343	2009-02-03	생활을 못할정도로 불법추심행위를 받고 있습니다.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44	2009-02-03	사문서 도용 및 대부업체 불법 독촉행위	상담.안내
345	2009-02-03	공기업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입니다	상담.안내
346	2009-02-03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체종결
347	2009-02-03	대출상담	자체종결
348	2009-02-03	중소기업 지원 자금 받을수 없나요..	자체종결

349	2009-02-03	보증인이 변제해야할 원금 및 부당한 이자.	상담.안내
350	2009-02-03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안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351	2009-02-03	신용보증 기금의 문제점	자체종결
352	2009-02-03	질실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담.안내
353	2009-02-03	역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ㅠㅠ	상담.안내
354	2009-02-03	대출하기가 힘듭니다.	상담.안내
355	2009-02-03	보험합의금지급	상담.안내
356	2009-02-04	사기및 욕설	상담.안내
357	2009-02-04	기술보증기금의 불공정한 심사절차과 방식으로 부당한 유동성자금 지원거절당하여 심각한 경영악화위기	상담.안내
358	2009-02-04	영세중소기업 보증확대	자체종결
359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아파트 계약자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상담.안내
360	2009-02-04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한금의 문제점	상담.안내
361	2009-02-04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62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용인공세 피오레아파트 계약자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363	2009-02-04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 아파트 계약자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상담.안내
364	2009-02-04	서민금융 지원건	해결
365	2009-02-04	환승론규제완화부탁말씀	해결
366	2009-02-04	자산 관리공사	해결
367	2009-02-04	면책에 따른 문의	자체종결
368	2009-02-05	누굴위한 환승인가.....	해결
369	2009-02-05	채무건	상담.안내
370	2009-02-05	주택금융공사 업무 태만건	상담.안내
371	2009-02-05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채권 포기하기로 했으나 계속 채권	상담.안내
372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3	2009-02-05	패스트 트랙	상담.안내
374	2009-02-05	담보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구제 요청	상담.안내
375	2009-02-05	사채권 피해호소 및 장기저리금융 알선 요청	상담.안내
376	2009-02-05	신보대출	상담.안내
377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8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79	2009-02-05	신용보증기금 추가 보증서 신청건	자체종결
380	2009-02-05	호소문	상담.안내
381	2009-02-05	연대보증채무 관련 부당 경감 방안 마련 호소	상담.안내
382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3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4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5	2009-02-05	부동산매매	상담.안내
386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7	2009-02-05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수혈을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88	2009-02-05	전세대금 대출	상담.안내
389	2009-02-06	장기연체등재삭제	상담.안내
390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1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2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3	2009-02-06	업무범위 및 업무위탁 확대에 관하여	해결
394	2009-02-06	무단신용조회기록내용확인.삭제 거부	상담.안내
395	2009-02-06	은행권 대출 관계 건.	상담.안내
396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7	2009-02-06	1000 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재조정건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398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399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0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1	2009-02-06	월세를 사는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402	2009-02-06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자격 심사에 대한 문의.	자체종결
403	2009-02-06	신용보증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체종결
404	2009-02-06	개인회생진행자는 소상공위원회에서 대출을 못받는지요	상담.안내
405	2009-02-06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도움안되서 안타깝습니다.	자체종결
406	2009-02-06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07	2009-02-06	청와대에 드리는 진정서	상담.안내
408	2009-02-06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상담.안내
409	2009-02-06	대부업 불법추심	상담.안내
410	2009-02-06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채무면제방법	해결
411	2009-02-06	면책받았는데 계속 불법추심을 합니다.	상담.안내
412	2009-02-06	금융외견	상담.안내
413	2009-02-07	불법 추심에 관한건	상담.안내
414	2009-02-07	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주식매매위탁업에 대한 세부세칙 시행여	상담.안내
415	2009-02-09	금융거래불량자 등록된 건에 대하여 민원드립니다.	상담.안내
416	2009-02-09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417	2009-02-09	신용회복위원회의 미흡한 민원처리 과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418	2009-02-09	제발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의 아파트 공사를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419	2009-02-09	농신보 대출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데도 담보제공하게 만들어 전제산 압류당함	상담.안내
420	2009-02-09	앞서 보낸 민원 내용에 연관된 1차 민원내용	상담.안내
421	2009-02-09	투기지역해제 역전세대출	상담.안내
422	2009-02-09	불용물품중 관악기에 대한 입찰 정보 및 구매방법	상담.안내
423	2009-02-09	유체동산압류통지서 당분간 보류해 주십시오.	자체종결
424	2009-02-09	3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합니다.	해결
425	2009-02-09	기민원 관련(1BA-0902-001925)	해결
426	2009-02-09	신용보증기금 지원 요청	자체종결
427	2009-02-09	장애인의 신용불량...	상담.안내
428	2009-02-09	저희 외할머니의 집을 찾아주세요..	상담.안내
429	2009-02-09	신보의 고자세 방법좀 내주세요 제발...	자체종결
430	2009-02-09	부당하고 구제신청및 인권회복 탄원서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431	2009-02-09	신용회복기금전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결
432	2009-02-09	97년 당시 금모으기 운동 최초 제안자에 대해 제보합니다.	상담.안내
433	2009-02-09	특검미가입	정책제안
434	2009-02-09	파산,면책결정후 전산기록상 연대보증인 해제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상담.안내
435	2009-02-09	집 담보 대출 때문에 자살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436	2009-02-10	이 나라 국민이 할수있고 권익을 찾을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상담.안내
437	2009-02-10	퇴출기업 대주건설의 마지막 부실 졸작 아파트란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438	2009-02-10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수분양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439	2009-02-10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	상담.안내
440	2009-02-10	정부시행 환송론에 대한 문제점	해결
441	2009-02-10	신용보증기금 대출 불가 정책에 대한 청원	상담.안내
442	2009-02-10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	상담.안내
443	2009-02-10	면책 후 지원제도	상담.안내
444	2009-02-10	이거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나요?	상담.안내
445	2009-02-10	π π	상담.안내
446	2009-02-10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	정책제안
447	2009-02-11	신용카드 미가맹식당 관련	해결
448	2009-02-11	현실은 더힘들어요	해결
449	2009-02-11	익스프레스에서...	상담.안내
450	2009-02-1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애로사항	상담.안내
451	2009-02-11	금융소외자 대한 문의	해결
452	2009-02-11	창업자금 대출 호소	상담.안내
453	2009-02-11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급애로사항	상담.안내
454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5	2009-02-11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56	2009-02-11	아직도이런공무원이 창구에서 날선칼을 휘두르다니	상담.안내
457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8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59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60	2009-02-11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61	2009-02-11	산업은행의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말려주세요!!!	상담.안내
462	2009-02-11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자체종결
463	2009-02-11	신용보증기금이라는것이 이렇게해도 되나요?	상담.안내
464	2009-02-11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자체종결
465	2009-02-11	신용회복 도움요청	상담.안내
466	2009-02-11	신용회복	해결
467	2009-02-11	불법추심에 대해	상담.안내
468	2009-02-12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옵니다. 넘 힘들어요	상담.안내
469	2009-02-12	파산 면책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등록 및 채권추심.	상담.안내
470	2009-02-12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71	2009-02-12	산업은행은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상담.안내
472	2009-02-12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상담.안내
473	2009-02-12	대출금리에 대한문의.	해결
474	2009-02-12	국무총리실에 드리는 진정서	상담.안내
475	2009-02-12	퇴출건설사의 수분양자들을 살려달라!!!	상담.안내
476	2009-02-12	혹 여기서도 알수 있나요?	상담.안내
477	2009-02-12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소관)	해결
478	2009-02-12	정부투자기관의 횡포로	상담.안내
479	2009-02-12	신용조회 기록 삭제	상담.안내
480	2009-02-12	개인 신용관련 담당자 분께...	상담.안내
481	2009-02-12	상각분납을 하고자 허위사실을 알린점에대한 도움요청입니다.	상담.안내
482	2009-02-12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483	2009-02-12	개임제조 수출 자금 부탁해요.	상담.안내
484	2009-02-12	중소기업고객고사시키는신용보증기금직원을고발합니다	상담.안내
485	2009-02-12	동양케피탈 가압류해재권	상담.안내
486	2009-02-12	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건의	해결
487	2009-02-12	주택담보대출금리 관련 구제방법없나요...	해결
488	2009-02-12	중소기업 자금대출 지원 호소	상담.안내
489	2009-02-12	과도한 채권추심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490	2009-02-12	2007년6월 300만원대출 후 또다른문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법인	상담.안내
491	2009-02-13	독과점 주주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자체종결
492	2009-02-13	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의 개선 검토 요청 의 건	자체종결
493	2009-02-13	기준금리인하	해결
494	2009-02-13	금융관련 서비스업인데 금융업이라고 보증서 발급이 안됩니다	상담.안내
495	2009-02-13	프리보드를 활성화해서 경기부양을...(코스닥처럼...)	상담.안내
496	2009-02-13	협박전화	상담.안내
497	2009-02-13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대출	상담.안내
498	2009-02-13	살기좋은세상	상담.안내
499	2009-02-13	신용보증기금 시화지점	자체종결
500	2009-02-13	속도전이 맞는가?	상담.안내
501	2009-02-13	서민 긴급자금 지원제도, 경매집행, 근로감독관, 신불자 소액대출	해결
502	2009-02-13	보증서나 은행대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503	2009-02-13	자산공사 민원건	상담.안내
504	2009-02-13	소상공인줄살려주세요	자체종결
505	2009-02-13	융자 보증심사 기준에 대하여	자체종결
506	2009-02-13	신용회복관련..	상담.안내
507	2009-02-13	경매진행 선처요망	상담.안내
508	2009-02-13	국가신용회복...채무상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509	2009-02-13	한 가정의 하소연	상담.안내
510	2009-02-13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상담.안내
511	2009-02-13	산업은행의 퇴출 부실기업 대주건설에 피같은 수분양자의 공사자금 퍼주기를 말려주세요!!!!	상담.안내
512	2009-02-14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513	2009-02-14	심장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께 찾아와서 행패부림.	상담.안내
514	2009-02-14	금융자격증 시험에 관하여...	정책제안
515	2009-02-16	제3자 불법추심	상담.안내
516	2009-02-16	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체종결
517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황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18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항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19	2009-02-16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당성	해결
520	2009-02-16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불이익 규제 조항에 대	상담.안내
521	2009-02-16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522	2009-02-16	유사수신 관련 질의	해결
523	2009-02-16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상담.안내
524	2009-02-16	농신보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525	2009-02-16	부정 채권 추심	상담.안내
526	2009-02-16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주세요	상담.안내
527	2009-02-16	환승론(자산관리공사)의 혜택에서 소외	해결
528	2009-02-16	저 좀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529	2009-02-16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상담.안내
530	2009-02-16	퇴출 건설사 대주건설의 용인 공세피오레 아파트 부실공사 현장 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531	2009-02-16	중소기업 활성화방법과 기준변경	자체종결
532	2009-02-16	작금의 시중은행의 금리에 대한 정책제안	해결
533	2009-02-16	진정서	해결
534	2009-02-16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돈놀이를 하는가.....	상담.안내
535	2009-02-16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처분 관련	상담.안내
536	2009-02-16	호소문(부디 현상항만이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37	2009-02-16	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코드번호 1201 을 아시나요?	상담.안내
538	2009-02-16	회수보증(대위변제)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불이익 규제 조항에 대	상담.안내
539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체종결
540	2009-02-16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541	2009-02-16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간	자체종결
542	2009-02-16	대출이자 한시적 인하 원함	해결
543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보증거부 호소	상담.안내
544	2009-02-16	신용보증	자체종결
545	2009-02-16	개정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등록 여부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546	2009-02-16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547	2009-02-16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관련	상담.안내
548	2009-02-17	허위 자금문서(위조)와 과다중개수수료 및 사기횡령 악덕금융중	자체종결
549	2009-02-17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자체종결
550	2009-02-17	안녕하세요...핸드폰 연체때문에...해결좀빨리해주세요...	상담.안내
551	2009-02-17	대출요망	상담.안내
552	2009-02-17	어떻게 해야 대출가능한지요.	상담.안내
553	2009-02-17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입한 교재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해결
554	2009-02-17	경기활성화 위한 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0.5% 추가 인하 건의	상담.안내
555	2009-02-17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	자체종결
556	2009-02-17	수산업협동조합 과 신용보증기금의 변으로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안내
557	2009-02-17	존경하는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558	2009-02-17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자체종결
559	2009-02-17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입한 교재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해결
560	2009-02-17	신용보증기금과의 어이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쓰러져 가는 대창산 업을 구제해 주시길 탄원합니다.	상담.안내
561	2009-02-17	중소 기업 특별 지원자금 대출 건.	상담.안내
562	2009-02-17	자산공사 경매 연기 요청	상담.안내
563	2009-02-17	주택담보대출 또는 국민임대주택	상담.안내
564	2009-02-17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정책제안
565	2009-02-17	정부지원 저신용자 고금리 환승론	해결
566	2009-02-18	사채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대상인지	상담.안내
567	2009-02-18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완보증 제도개선 건의	상담.안내
568	2009-02-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569	2009-02-18	국민자산공사의 전환 대출에 관한 문제점	해결
570	2009-02-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제 완화의 요청글	자체종결
571	2009-02-18	기술보증기금보다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572	2009-02-18	은행신용의 잣대 (대통령께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안내
573	2009-02-18	화끈한 서민지원책요구.	해결
574	2009-02-18	면책자들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	상담.안내
575	2009-02-18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진상규명 및 조	자체종결
576	2009-02-18	복수거래에 대하여	자체종결
577	2009-02-18	자산관리공사의 부적절한 채무조정	상담.안내
578	2009-02-18	대통령께서 읽어주세요	상담.안내
579	2009-02-18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환승론) 관련 은행의 거부행사권 범위	해결



580	2009-02-1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581	2009-02-18	대부업 관련 질의	상담.안내
582	2009-02-18	개인 채무 워크아웃제도 에 대해서	상담.안내
583	2009-02-18	영터리 신용보증기금 에대하여	자체종결
584	2009-02-18	보증기금관련	상담.안내
585	2009-02-18	기술보증기금 문턱 철바통문. 중소기업기술 서민경제 등 돌리는	자체종결
586	2009-02-18	기술보증기금 문턱 철바통문. 중소기업기술 서민경제 등 돌리는	자체종결
587	2009-02-18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너무 다르네요..	자체종결
588	2009-02-18	중소기업지원	상담.안내
589	2009-02-18	특수기록 삭제 요망	상담.안내
590	2009-02-19	불법추심	상담.안내
591	2009-02-19	대출문자를 보고 주민번호를 알려줬어요	상담.안내
592	2009-02-19	체크카드 사용시 수수료	해결
593	2009-02-19	은행거래를 알수있나요.	상담.안내
594	2009-02-19	금융기관 경매관련	상담.안내
595	2009-02-19	사채 담보대출 은행금리로 전환해주세요,	해결
596	2009-02-19	신용보증서의 발행 조건	자체종결
597	2009-02-19	대통령이시면 국민의 아버지 맞나요?	상담.안내
598	2009-02-19	하급기관까지 전달 되지않는 대통령의정책	상담.안내
599	2009-02-19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600	2009-02-19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601	2009-02-19	불법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파해를 보았습니다.	상담.안내
602	2009-02-19	법령 해당 조항과 유권해석 요청	자체종결
603	2009-02-19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대출금, 많은 이자 감면조정 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체종결
604	2009-02-19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PG->쇼핑몰의 대금거래에 대한 문제점 (전자상거래 PG사 및 카드사 매매보호서비스 제안)	해결
605	2009-02-19	Fast tract 유동성자금 지원 심사기준과 실효성에 대하여	상담.안내
606	2009-02-19	너무하네요	상담.안내
607	2009-02-19	4금융권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608	2009-02-19	화보법	상담.안내
609	2009-02-19	억울한 신용등급	상담.안내
610	2009-02-19	외감기업의 중간재무제표 작성	상담.안내
611	2009-02-19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612	2009-02-19	주택금융공사의 역전세대출 관련	상담.안내
613	2009-02-19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완보증 제도개선 건의	상담.안내
614	2009-02-19	각 금융회사의 주소 요청	상담.안내
615	2009-02-20	농신보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16	2009-02-20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617	2009-02-20	호소문	상담.안내
618	2009-02-20	전환대출	해결
619	2009-02-20	며칠전 tv에서 청화대에서 도움을 주실수있다 하여 글올립니다	해결
620	2009-02-20	죽을 지경입니다..	상담.안내
621	2009-02-20	호소문 2	상담.안내
622	2009-02-20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완화 요청	상담.안내
623	2009-02-20	정부와 금융권은 반대다	자체종결
624	2009-02-20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호소	상담.안내
625	2009-02-20	민원처리 법률에 해당한 처리인지 문의	해결
626	2009-02-20	한국은행의 금리는 내리는데 시중은행담보대출은오르는이유는무엇입니까...	상담.안내
627	2009-02-20	신용보증기금 완화조치 관련 (관련 부처에 건의드립니다)	자체종결
628	2009-02-20	신용불량자 사면	해결
629	2009-02-20	국민연금 일시 반환, 역전세 대출	상담.안내
630	2009-02-21	현금서비스와 카드로	해결
631	2009-02-2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처리문제 개선건의	상담.안내
632	2009-02-21	농협직원의 직무유기	상담.안내
633	2009-02-23	한국산업은행 경비구역 재계약 갱신 기절에 대한 탄원	상담.안내
634	2009-02-23	합병으로 인한 변경인가시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상담.안내
635	2009-02-2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불량자 지원 관련	상담.안내
636	2009-02-23	불법채권추심에대해서	상담.안내
637	2009-02-23	신용에관하여	상담.안내
638	2009-02-23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의 환승론의 심사 자격 완화해주시요	해결
639	2009-02-23	이동통신사 횡포, 경기침체로힘든서민을 더욱힘들게 하는 카드	상담.안내
640	2009-02-23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641	2009-02-23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상담.안내

642	2009-02-23	에프유에셋이라는 금투자 주식회사관련 건입니다.	상담.안내
643	2009-02-23	정부정책과 현실의 벽	상담.안내
644	2009-02-23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645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지원 대책에 관하여...	자체종결
646	2009-02-23	신용불량자 ...	상담.안내
647	2009-02-23	.	자체종결
648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호소	상담.안내
649	2009-02-2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관련	상담.안내
650	2009-02-23	기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시 예탁원 의결권 요청 가능	자체종결
651	2009-02-24	리드코프 대부회사의 불법추심	상담.안내
652	2009-02-24	중소기업창업지원보증서 발급을 원합니다.	상담.안내
653	2009-02-24	정부 방침대로 중소기업(창업)기업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체종결
654	2009-02-24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655	2009-02-24	한국은행 금리는 내리는데 시중 은행 금리는 왜 안내리는가?	상담.안내
656	2009-02-24	썩 이자증	상담.안내
657	2009-02-24	신용등급에 대해서	상담.안내
658	2009-02-24	추심이 너무심하네요,,,옥설과 죽인다는멘트	상담.안내
659	2009-02-24	신용보증기금 업무 감사 청구	상담.안내
660	2009-02-24	현실과 정부 정책의 벽	상담.안내
661	2009-02-24	과도한 공권력으로 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662	2009-02-24	신용보증재단보증연장의 건	상담.안내
663	2009-02-2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자체종결
664	2009-02-24	신용보증기금이 은행보다 더욱 무섭다.	상담.안내
665	2009-02-24	보증 채무	상담.안내
666	2009-02-24	신용보증기금의 무성의한 답변과 형식적인 실사	상담.안내
667	2009-02-24	보험 예금전환, 교육자 복직, 물가관리	자체종결
668	2009-02-24	중기지원	자체종결
669	2009-02-24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된 서민들에 대한 신용회복 정책의 문제	상담.안내
670	2009-02-24	엔화사태와 허수아비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671	2009-02-25	감사드립니다.	상담.안내
672	2009-02-25	자영업자행으로 개인은 신용회계약이 되지않아 피해를 볼	상담.안내
673	2009-02-25	신용불량기록 삭제요청	상담.안내
674	2009-02-25	기보·신보 지원 요청	자체종결
675	2009-02-25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자체종결
676	2009-02-25	배드뱅크를 모두 상환했는데..	상담.안내
677	2009-02-25	영세기업도 보살펴 주세요....	자체종결
678	2009-02-25	기술신용보증회사 보증 건으로 탄원 올립니다.	자체종결
679	2009-02-25	신용보증기금의서비스개선 및 국가정책완화	자체종결
680	2009-02-25	기업을 도는 정부 출현 기관이지 서민들 죽이는 정부 출현 기관이	자체종결
681	2009-02-25	대출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해결
682	2009-02-25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683	2009-02-25	희망모아의 채권 추심원의 부당한 대우 관련	상담.안내
684	2009-02-25	새성북연립 재건축조합의 정리금융공사 소유 채무로 인한 어려움	상담.안내
685	2009-02-25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에 대한 질의	해결
686	2009-02-25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보증서 발급	상담.안내
687	2009-02-25	벼랑 끝 에서 //급// 도움을 요청 합니다.	상담.안내
688	2009-02-25	호소문	상담.안내
689	2009-02-25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690	2009-02-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사람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691	2009-02-26	가혹합니다	상담.안내
692	2009-02-26	개인신용정보법틀위반및 개인회생 추심명령	상담.안내
693	2009-02-26	민원처리 답변은 하지 않고 민원인을 조롱한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상담.안내
694	2009-02-26	살아갈 구멍을 만들어주십시오!!	자체종결
695	2009-02-26	은행 담보대출금리 7~8%로 서민어려움 극심	상담.안내
696	2009-02-26	금융위원회 일하시는분들은 다 그런가요?...	자체종결
697	2009-02-26	삼성카드가 캠프의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해결
698	2009-02-26	자본시장법 관련 질의	해결
699	2009-02-26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해고 관련	상담.안내
700	2009-02-26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701	2009-02-26	청년창업특례보증에 관해서	자체종결
702	2009-02-26	분할상환 보증채무의 상환시점 연기요청	자체종결
703	2009-02-26	보증기금의횡포	상담.안내
704	2009-02-26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말소	자체종결

705	2009-02-26	금융투자 시장 관련 건의	자체종결
706	2009-02-26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중개업자 등록 여부	상담.안내
707	2009-02-26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확대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체종결
708	2009-02-26	청년창업자금 신청하는데 왜!! 아버지신용을...	자체종결
709	2009-02-26	본인도 모르는보증으로인하여집이강제경매되어억울해서글을올	상담.안내
710	2009-02-26	보증채무에 대한 불법 통장 압류추심건	상담.안내
711	2009-02-26	대통령님께 올리는 마지막 읍소의 글	상담.안내
712	2009-02-26	호 소 문	상담.안내
713	2009-02-27	서울신용정보? 기타신용사?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 못하게 조치하	상담.안내
714	2009-02-27	2월 14일 만원 접수한 사람입니다	상담.안내
715	2009-02-27	기술 보증기금	자체종결
716	2009-02-27	금합니다^^	자체종결
717	2009-02-27	서민들 돈 모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결
718	2009-02-2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19	2009-02-27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업.2금융 전환대출은 빚좋은 개살구	해결
720	2009-02-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721	2009-02-27	중소기업 애로사항(신용보증서 관련)해결 요청	자체종결
722	2009-02-27	신용 위기에 몰린 채무자 구제 방안 적극 검토 해주시시 바랍니다	상담.안내
723	2009-02-27	은행이자 문제, 국민연금 이용 대출은행선택 및 미래 국가 비전사 업 제언	해결
724	2009-02-27	자산운용협회 신문기사 스크랩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해결
725	2009-02-27	제발살려주세요	자체종결
726	2009-02-27	I M F 이후 ... 처음으로 나라님께 하고싶은 말	상담.안내
727	2009-02-2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28	2009-02-27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729	2009-02-27	위법여부.	상담.안내
730	2009-02-28	신용보증기금의 설 특례보증 2.12보증확대 지원 지연처리에 관한	상담.안내
731	2009-03-02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32	2009-03-02	높은 은행 문턱과 기술신보 보증서 발급거절이유?	상담.안내
733	2009-03-02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자는 외로워....	상담.안내
734	2009-03-02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이로다	상담.안내
735	2009-03-02	너무힘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상담.안내
736	2009-03-02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한 역전세 대출....	상담.안내
737	2009-03-0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원합니다.	상담.안내
738	2009-03-02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상담.안내
739	2009-03-02	카드결제로인한손실	해결
740	2009-03-02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요청	상담.안내
741	2009-03-02	신용보증기금의 배당금 이익신청 검토 요망	상담.안내
742	2009-03-02	국민 숨통조여오는 대출금리 조정바람...	상담.안내
743	2009-03-02	중소기업 금융지원 애로 사항신고	자체종결
744	2009-03-02	단독세대주 저리 융자해주세요	상담.안내
745	2009-03-03	2를 연체했다고 하루에 문자를 포함 전화가 열통이 넘게 옵니다.	상담.안내
746	2009-03-03	예금자보호법	상담.안내
747	2009-03-03	사금융피해신고 금감원 신고완료후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는것임	상담.안내
748	2009-03-03	역전세대출 차별..	상담.안내
749	2009-03-03	서울신용정보? 기타신용사?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 못하게 조치하	상담.안내
750	2009-03-03	호소문	상담.안내
751	2009-03-03	사금융권에 대해	상담.안내
752	2009-03-03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자체종결
753	2009-03-03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754	2009-03-0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질의	상담.안내
755	2009-03-03	신용도가 나쁜 데 대출을 받을수 있을가요?	상담.안내
756	2009-03-0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등재 관련	상담.안내
757	2009-03-03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758	2009-03-03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해결
759	2009-03-03	정리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해결
760	2009-03-03	너무 힘이 듭니다...	해결
761	2009-03-03	iab-0901-003878	상담.안내
762	2009-03-04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63	2009-03-04	신용회복기금 관련	해결
764	2009-03-04	최근 영국계 HSBC가 증자를 통해 한국 증국등 아시아부분 인수 가능성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해결
765	2009-03-04	1000만원 좀 빌려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상담.안내
766	2009-03-04	법인 대출 에관하여	자체종결

767	2009-03-04	영국 HSBC가 증자를 통해 한국 중국등 아시아부문 인수 가능성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내은행이	해결
768	2009-03-04	신용보증 연장	자체종결
769	2009-03-04	신용보증기금 연장건	자체종결
770	2009-03-04	우리나라에 저축은행 종류가 몇개나 되지요?	상담.안내
771	2009-03-04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에 대한 민원사항	상담.안내
772	2009-03-04	분식, 시세조정 관련 진정	상담.안내
773	2009-03-0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774	2009-03-04	국민생활 법조항 이중 적용	상담.안내
775	2009-03-04	자산관리공사의연대보증 채무 관련	해결
776	2009-03-04	구체적이고 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	해결
777	2009-03-05	자동차접촉사고 처리	상담.안내
778	2009-03-05	제발도와주세요!!	상담.안내
779	2009-03-05	신용회복지원 결정이 난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기간 조정요청	상담.안내
780	2009-03-05	도움 요청	상담.안내
781	2009-03-05	3개월 미만 연체 20만 명, 만기 1년 연장 방안 추진에 대하여	상담.안내
782	2009-03-05	희망모아 채무재조정	상담.안내
783	2009-03-05	코스콤 인사 관련	상담.안내
784	2009-03-05	캠코의 신용회복기금프로그램	해결
785	2009-03-05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786	2009-03-05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언론플레이 하시는 겁니까??	상담.안내
787	2009-03-05	서민들은 위한답시고 언론플레이 하시는 겁니까??	상담.안내
788	2009-03-05	중소기업이 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담.안내
789	2009-03-05	기보는 당시의 보증평가의 평가과정 세부내용, 평가근거 등을 공개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상담.안내
790	2009-03-05	금융관련 정책 제언	자체종결
791	2009-03-06	중소기업지원건	상담.안내
792	2009-03-06	대출 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793	2009-03-06	독산동 산업은행이요	상담.안내
794	2009-03-06	[한국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에 대해	상담.안내
795	2009-03-06	자료요청합니다	상담.안내
796	2009-03-06	신용보증확대초처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체종결
797	2009-03-06	대출~	상담.안내
798	2009-03-0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개정안 일부 개정 건의	상담.안내
799	2009-03-0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	해결
800	2009-03-06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801	2009-03-06	보험개발원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802	2009-03-06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관련 질의	해결
803	2009-03-06	자산유동화 관련 질의	상담.안내
804	2009-03-06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추가 연장 제고바랍니다.	상담.안내
805	2009-03-06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만...	상담.안내
806	2009-03-06	신용보증기금에 관하여	자체종결
807	2009-03-06	존경하는 이 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808	2009-03-06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809	2009-03-09	청소년 주식투자	상담.안내
810	2009-03-09	1AA-0902-061883/1AA-0902-061884 제대로 처리 해라..	상담.안내
811	2009-03-09	신용보증사들의 폭리(도와주십시오)	해결
812	2009-03-09	대부업체대출의 은행권전환대출신청건에대하여	해결
813	2009-03-09	제 3자 에게 저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상담.안내
814	2009-03-09	영세업자 지원 요청	상담.안내
815	2009-03-0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816	2009-03-09	연체건으로 인한 보증서 발급불가	자체종결
817	2009-03-09	10년만에 날라온채무 소장	해결
818	2009-03-09	법령 질의	해결
819	2009-03-09	신용불량자들의 추심 면책율.	상담.안내
820	2009-03-09	사업자금 보증지원	상담.안내
821	2009-03-09	자산관리공사 채무 관련	해결
822	2009-03-09	금융실명법 과 유류분법 과 상속인-	해결
823	2009-03-09	꼭 좀 도와 주세요 (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 입니다)	자체종결
824	2009-03-09	은행의 채권매각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원회 반토막 신용	상담.안내
825	2009-03-10	2번의민원신청	상담.안내
826	2009-03-10	리드코프 불법추심관련	상담.안내
827	2009-03-10	금융법 위법 유무 문의	상담.안내
828	2009-03-10	장의주식 매매에 관해 문의합니다.	상담.안내
829	2009-03-10	연체 사실로 인한 보증서 발급 불가	자체종결

830	2009-03-10	미성년자 통장개설관련	해결
831	2009-03-10	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하고 억울한소송(사해행위)	상담.안내
832	2009-03-10	보험압류건	상담.안내
833	2009-03-10	펀드 자산운용사의 수익을 운용성과와 같이 연계시켜야 합니다.	해결
834	2009-03-10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835	2009-03-10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업무처리 너무늦다	상담.안내
836	2009-03-11	압류이의	상담.안내
837	2009-03-11	이자탕감선처	상담.안내
838	2009-03-11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 통보가 전혀 없어서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적용 받지 못하여 행정인의 고지의무를 고발하니	해결
839	2009-03-11	신용보증기금 횡포의 건	자체종결
840	2009-03-11	은행권의 대출금리 횡포	해결
841	2009-03-11	소기업 의 운영자금 신청의건	자체종결
842	2009-03-11	법령오류 지적	상담.안내
843	2009-03-11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누구??	상담.안내
844	2009-03-11	온누리에어의 거래정지는 소액주주를 죽이는 행위	상담.안내
845	2009-03-11	다중채권구제방안사전신청에 대하여	상담.안내
846	2009-03-11	온누리에어 애 관한 증권거래소측의 업무처리 (너무 다급하고 억울해요)오늘이 마지막날!!	상담.안내
847	2009-03-11	보험법 위반에 대한 유무사할	상담.안내
848	2009-03-11	보험이의	상담.안내
849	2009-03-11	억울하고 원통하네요	상담.안내
850	2009-03-11	서민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 이라면?	해결
851	2009-03-11	신용보증서 왜이리 늦어지는지?	상담.안내
852	2009-03-11	정책 실패와 규제로 아파트가 3년이나 안팔리니 국가가 사달라	해결
853	2009-03-11	악랄한 기업사채업자의 횡포에 완전히 무너진 생활	상담.안내
854	2009-03-11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855	2009-03-11	1AA-0903-014852 의 관련 민원 입니다 급합니다 ,	자체종결
856	2009-03-11	중소기업의 어려움	자체종결
857	2009-03-11	신용보증기금,국민은행,하나은행,롯데캐피탈등 연체자정보 등록 및 정정파일확인서	상담.안내
858	2009-03-11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들	상담.안내
859	2009-03-11	서민 대출 요망	해결
860	2009-03-11	정부,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통부재의 아쉬움	상담.안내
861	2009-03-11	신용보증기금의 연체자 등록정보와 정정 내용 확인서	상담.안내
862	2009-03-11	키코손실의 회계 처리 관련 질의	상담.안내
863	2009-03-11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864	2009-03-12	대한민국 법원,소송,법 (대한민국청년의글)	상담.안내
865	2009-03-12	정부와 보증기관과의 이중징대	상담.안내
866	2009-03-12	환승론, 대출관련	해결
867	2009-03-12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건	상담.안내
868	2009-03-12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869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은행 대출 DTI등 기타 규제 관련법 개정 입법처리	상담.안내
870	2009-03-12	진정한 희망의 디딤돌이 절실합니다	상담.안내
871	2009-03-12	정책제언	상담.안내
872	2009-03-12	개인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873	2009-03-12	한마음저축은행 미지급퇴직금 지급요청의 건	상담.안내
874	2009-03-12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875	2009-03-12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876	2009-03-12	온누리 에어 거래 정지에 대해서	상담.안내
877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78	2009-03-12	거래소의 만행으로 울고 있는 소액주주	상담.안내
879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0	2009-03-12	거래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살피주세요!!!!	상담.안내
881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2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3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4	2009-03-12	증권 거래소 탁상 행정 고발	상담.안내
885	2009-03-12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886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87	2009-03-12	소액주주로서 "온누리 에이"관련 부당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888	2009-03-12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889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890	2009-03-12	신용보증기금 이용건	상담.안내
891	2009-03-12	신용등급에관한민원입니다.	상담.안내
892	2009-03-12	불법추심 조사 및 처벌 요망	상담.안내
893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안내
894	2009-03-12	파산면책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기록정보때문	상담.안내
895	2009-03-12	정부의 2.12 대책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확대에 관한사	자체종결
896	2009-03-12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안내
897	2009-03-12	주택 전세자금 중개 센터 관련 건의	상담.안내
898	2009-03-12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899	2009-03-12	민원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900	2009-03-12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901	2009-03-13	개인회생대출	상담.안내
902	2009-03-13	온누리에어와 관련된 증권거래소측의 업무처리현황 (개인 투자자 들은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상담.안내
903	2009-03-13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904	2009-03-13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905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906	2009-03-13	대부업에 시달리고있는 나이먹은사람입니다	상담.안내
907	2009-03-13	한국증권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절차	상담.안내
908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자체종결
909	2009-03-1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910	2009-03-13	농신보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911	2009-03-13	개인회생	상담.안내
912	2009-03-13	고충처리	상담.안내
913	2009-03-13	부당한 배당 이의 신청	자체종결
914	2009-03-13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무소불위의 한국거래소 권력 남용 행태	상담.안내
915	2009-03-13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무소불위의 한국거래소 권력 남용 행태	상담.안내
916	2009-03-13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젯점	상담.안내
917	2009-03-16	온누리에어 상폐에 관하여...	상담.안내
918	2009-03-16	4,4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억울함 호소	상담.안내
919	2009-03-16	정말 황당합니다.....	상담.안내
920	2009-03-16	너무 억울하네요..	상담.안내
921	2009-03-16	창업자금신청하러갔는데말도안되는이유로거절부터하는안동신용 보증기금창구직원의회포	상담.안내
922	2009-03-16	거래소의 (주)온누리에어 실질심사에 대해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묻습니다.	상담.안내
923	2009-03-16	주식대출	해결
924	2009-03-16	신용보증기금설건급자금 말만건급자금	자체종결
925	2009-03-16	신용보증기금의 불친절	자체종결
926	2009-03-1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도에 관한 민원	자체종결
927	2009-03-16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의	상담.안내
928	2009-03-16	저금리 담보대출	상담.안내
929	2009-03-16	7년째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930	2009-03-16	우리은행의 8개 금융기관 공적자금 MOU이행 실태에 관하여	상담.안내
931	2009-03-16	내아이의웃음을 지켜주세요.조금만시간을주세요.	자체종결
932	2009-03-16	정부에서 파산면책 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	상담.안내
933	2009-03-16	신용 보증 기금이 김기종씨를 연체자로 등록하고도 부인하는 사 실을 고발 합니다.	상담.안내
934	2009-03-16	수급자중증장애인가용지원제도	해결
935	2009-03-1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 글	상담.안내
936	2009-03-16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937	2009-03-16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건	상담.안내
938	2009-03-16	영주권자 계좌개설(미성년자)시 실명확인방법	해결
939	2009-03-1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자체종결
940	2009-03-16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	상담.안내

941	2009-03-16	중소기업지원의 문제점	상담.안내
942	2009-03-16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남구 투기지역 해제 및 재건축 규제 관련법 입법처리는 언제나!!!	상담.안내
943	2009-03-16	대출 안내 요망	해결
944	2009-03-16	[온누리예어 사태] 대통령 보다 높은 한국거래소의 무소불위의 권력 분동이 터집니다..	상담.안내
945	2009-03-16	온누리예어	상담.안내
946	2009-03-16	온누리예어 거래정지 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947	2009-03-16	너무 급박합니다. 내일 결정난다는데.. 빨리 검토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래소의 행정을 고쳐주세요.	상담.안내
948	2009-03-16	불공정 공시 제발~도와주세요.	자체종결
949	2009-03-16	온누리예어 퇴출 역시 계획적이었군요....	자체종결
950	2009-03-16	온누리예어 퇴출관련 질차상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 호소	자체종결
951	2009-03-16	투명한 진행을	자체종결
952	2009-03-16	좀 도와 주십시오~~정말 긴급한 사항입니다	자체종결
953	2009-03-16	온누리예어 실질심사 과정에 대한 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자체종결
954	2009-03-16	4,4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의 억울함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955	2009-03-16	공기업에 횡포를 고발 합니다	자체종결
956	2009-03-16	온누리예어 상장 폐지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자체종결
957	2009-03-16	역전세금의 실태..	상담.안내
958	2009-03-16	신용카드 사용정지	자체종결
959	2009-03-16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960	2009-03-16	너무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61	2009-03-16	온누리예어 상장폐지 대상에 대한 건	자체종결
962	2009-03-16	온누리예어~	자체종결
963	2009-03-16	온누리예어 상폐결정에 따른 호소문입니다.	자체종결
964	2009-03-16	년간소득 인정범위	상담.안내
965	2009-03-16	나의메일을...	자체종결
966	2009-03-16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효율성 극대화하자.	상담.안내
967	2009-03-16	불법 여부 확인	해결
968	2009-03-16	서민소액대출	상담.안내
969	2009-03-16	투자 상담사 관련	상담.안내
970	2009-03-1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971	2009-03-1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자체종결
972	2009-03-16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73	2009-03-16	온누리예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절차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974	2009-03-16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975	2009-03-16	제일은행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976	2009-03-16	채권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민원 신고 합니다.	상담.안내
977	2009-03-17	거래소,코스닥본부에게..	자체종결
978	2009-03-17	대부업 불법추심신고	상담.안내
979	2009-03-17	호소문.	자체종결
980	2009-03-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없는 수수료 요구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상담.안내
981	2009-03-17	대출금 갖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982	2009-03-17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983	2009-03-17	금융 지원 방안	상담.안내
984	2009-03-17	온누리예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985	2009-03-17	어처구니없는 코닥신용보증기금 평택지사의 업무처리행태.	자체종결
986	2009-03-17	산업은행의 기술평가 심사 관련	상담.안내
987	2009-03-17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평가 관련	상담.안내
988	2009-03-17	보십시오. 1,000명의 소액주주들이..	자체종결
989	2009-03-17	대규모 해외공사 (20억 4천만불) 수의계약 체결	상담.안내
990	2009-03-17	거래소,코스닥본부에게..	자체종결
991	2009-03-17	개인회생자의 지원 호소	해결
992	2009-03-17	이자를 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993	2009-03-17	우리기업에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994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5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6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7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998	2009-03-18	증권 거래소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자체종결
999	2009-03-18	소액주주의 하소연	자체종결
1000	2009-03-18	외환거래(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1001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02	2009-03-18	펀드투자권유인의 실명확인권한에 대하여	해결
1003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04	2009-03-18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 관련	해결
1005	2009-0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06	2009-03-18	[온누리에어 사태] 대통령보다 높은 한국거래소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행태	상담.안내
1007	2009-03-18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거래소의 부당한 절차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1008	2009-03-18	신용회복 위원회 2년치 선납자도 불량기록 삭제	상담.안내
1009	2009-03-18	진 정 서	해결
1010	2009-03-18	[민원]대출상환에 있어서의 조기상환수수료가 금융업법(?) 위반 이 아닌지?	상담.안내
1011	2009-03-18	기업지원	상담.안내
1012	2009-03-18	소액투자자의 억울함	자체종결
1013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14	2009-03-18	한국증권 거래소는 책임져야 한다	자체종결
1015	2009-03-18	안경원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해결
1016	2009-03-18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17	2009-03-18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과로운 대부업의 세계..	상담.안내
1018	2009-03-18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업무방해	상담.안내
1019	2009-03-18	제발 !!!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020	2009-03-18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021	2009-03-18	금융지원	상담.안내
1022	2009-03-18	대출알선에 관하여...	상담.안내
1023	2009-03-18	불법채권추실행위조사해주세요	상담.안내
1024	2009-03-19	빛독촉 협박 제3자집에 방문	상담.안내
1025	2009-03-19	코스닥 실질심사제도 위법에 대해(온누리에어 사건)	자체종결
1026	2009-03-19	주식투자관련	자체종결
1027	2009-03-19	거래소 주식담당자.	자체종결
1028	2009-03-19	거래소의 부당한행위를 막아주세요	자체종결
1029	2009-03-19	연채	상담.안내
1030	2009-03-19	뽀뽀한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신청	자체종결
1031	2009-03-19	신용정보 무단조회	자체종결
1032	2009-03-19	희망오아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033	2009-03-19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34	2009-03-19	핸드폰구입도거절당한 신용불량자의 하소연	상담.안내
1035	2009-03-19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자체종결
1036	2009-03-19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37	2009-03-19	고금리 사채를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결
1038	2009-03-19	어제 이업종 사장들과의 금융감독위 비판보고 및 개선제안 ~	상담.안내
1039	2009-03-19	어제 이업종 사장들과의 금융감독위 비판보고 및 개선제안	상담.안내
1040	2009-03-19	저신용자영업자에살길은....	상담.안내
1041	2009-03-19	강제경매 후 에도 신용불량 등록 당한 불편함	자체종결
1042	2009-03-19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유권 해석	상담.안내
1043	2009-03-19	증권 거래소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자체종결
1044	2009-03-20	투자자 보호를 하라	자체종결
1045	2009-03-20	거래소이사장은 책임물져라	자체종결
1046	2009-03-20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047	2009-03-20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대상 및 조건	상담.안내
1048	2009-03-20	투자는 피눈물 흘린다	자체종결
1049	2009-03-20	도와주세요...제발요.....부탁입니다..	상담.안내
1050	2009-03-20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자체종결
1051	2009-03-20	개미투자자들을 죽인다	자체종결
1052	2009-03-20	사전동의없이 개인신용조회한것	상담.안내
1053	2009-03-20	한국증권 거래소는 책임져야 한다	자체종결
1054	2009-03-20	투자자 감독소홀 책임져라	자체종결
1055	2009-03-20	투자자 보호를 하라	자체종결
1056	2009-03-20	주택연금 신청 관련	상담.안내



1057	2009-03-20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058	2009-03-20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교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059	2009-03-20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제도적 모순과 재심요구	상담.안내
1060	2009-03-20	불법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 해음	상담.안내
1061	2009-03-20	중소기업 금융애로 자금신청	자체종결
1062	2009-03-20	보험관련여부	상담.안내
1063	2009-03-20	개인회생중인가입니다	상담.안내
1064	2009-03-20	예금피해	상담.안내
1065	2009-03-20	기술보증기금의 기업 회생 지원 관련	자체종결
1066	2009-03-20	금융위원회가 민원처리 안하고 종결합니다.	자체종결
1067	2009-03-20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068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 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69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 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70	2009-03-23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1071	2009-03-23	관리소홀 책임져라	상담.안내
1072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 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73	2009-03-23	투자상담사 관련 건의	상담.안내
1074	2009-03-23	왜이렇게늦나요	자체종결
1075	2009-03-23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자연 무능한 업무처리	상담.안내
1076	2009-03-23	이명박대통령님귀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077	2009-03-23	수 많은 직장인들을 구제 하고자 합니다	상담.안내
1078	2009-03-23	도와주십시오	해결
1079	2009-03-23	"소액자산소유자 대출"에 관해서...	상담.안내
1080	2009-03-23	불법추심	상담.안내
1081	2009-03-23	자산관리공사,3월4일민원	상담.안내
1082	2009-03-23	벤처기업인 경영재기	상담.안내
1083	2009-03-23	※즉석 쌀 보리 면류(국수면, 우동면, 떡볶이) 기계 신개발품에 대	상담.안내
1084	2009-03-23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상담.안내
1085	2009-03-23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진정민원	상담.안내
1086	2009-03-23	신용회복기금..	해결
1087	2009-03-2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088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 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89	2009-03-2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 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090	2009-03-23	써티파이낸셜(대표:이종명)의 불법추심행위 강력 고발합니다(사업자번호:미상)	상담.안내
1091	2009-03-23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체종결
1092	2009-03-23	온누리에서 상장폐자의 부당성	상담.안내
1093	2009-03-2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에 문제 있습니다.	상담.안내
1094	2009-03-24	너무급합니다. 사금융에서 집으로 찾아와요.	상담.안내
1095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096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097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098	2009-03-24	소액투자자의억울함(한국증권거래소의 횡포)	상담.안내
1099	2009-03-24	1AA-0903-025762와 관련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자체종결
1100	2009-03-24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집과 장모님집에 경매집행중	자체종결
1101	2009-03-24	기술보증기금 팝업창을 지워달라	상담.안내
1102	2009-03-24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103	2009-03-24	코딩신용보증기금 이용이 너무 어렵다.	상담.안내
1104	2009-03-24	소액투자자의 억울함(한국거래소의 횡포)	상담.안내
1105	2009-03-24	금융위 산업 금융과 와 서민 금융과 의 업무 처리 과정을 고발 함	상담.안내
1106	2009-03-24	저는 거래정지중인 온누리애어(현 뉴컴진시스템셀) 소액 주주입니	상담.안내
1107	2009-03-24	신용정보법 관련 질의	해결
1108	2009-03-24	실명법 및 사금융 관련 질의	해결
1109	2009-03-2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110	2009-03-24	온누리애어 상폐관련 민원내용	상담.안내
1111	2009-03-24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금융기관(은행,기보,신보)의 보수적이 며 제몫사리기식 창구 업무...	상담.안내

1112	2009-03-24	주택담보 노후연금지급제도완화	상담.안내
1113	2009-03-24	신용보증기금...1차서류심사건에관해....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1114	2009-03-24	국유재산 변상금	상담.안내
1115	2009-03-2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상담.안내
1116	2009-03-24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117	2009-03-24	신용보증기금의 번복된 업무처리	상담.안내
1118	2009-03-25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상담.안내
1119	2009-03-25	진동수 위원장의 공매도 재개 검토 발언 배경에 대해	상담.안내
1120	2009-03-25	온누리애어 상폐관련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1121	2009-03-25	한국거래소원포	상담.안내
1122	2009-03-25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거래소의 잘못된 행정을 알리려고 신문고에 접수했는데 거래소를	상담.안내
1123	2009-03-25	모든 보증기관 직원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강력추천합니다	자체종결
1124	2009-03-25	과거를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보고 도움은 줄수 없는지요...~~	자체종결
1125	2009-03-25	과거를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보고 도움은 줄수 없는지요...~~	상담.안내
1126	2009-03-25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127	2009-03-25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수금 실탁시 회계처리 방법	자체종결
1128	2009-03-25	주택전세자금 중개센터 관련 건의	상담.안내
1129	2009-03-25	신용보증서발급도 연차제를 적용한단 말인가?	자체종결
1130	2009-03-25	우유부단한금융위원회	상담.안내
1131	2009-03-25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관련	상담.안내
1132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봅니다!!!!	상담.안내
1133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봅니다!!!!	상담.안내
1134	2009-03-25	사금융피해신고	상담.안내
1135	2009-03-25	불법추심	상담.안내
1136	2009-03-25	파산 면책 정보의 금융기관 정보 보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137	2009-03-25	짚은 독촉	상담.안내
1138	2009-03-25	이런 행정때문에 참 살기 어렵습니다.	자체종결
1139	2009-03-25	온누리애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부당함.	상담.안내
1140	2009-03-25	1AA-0903-008871 민원사건의 엉망처리결과에 대하여 재촉구	상담.안내
1141	2009-03-25	대출에 따른 호소문	자체종결
1142	2009-03-25	사금융 대출자는은 개인회생이 않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1143	2009-03-25	제발 좀 도와 주세요.	해결
1144	2009-03-25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국가 임찰	자체종결
1145	2009-03-25	외국계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민간베드뱅크 참여에도 결국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안내
1146	2009-03-25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봅니다!!!!	상담.안내
1147	2009-03-26	왜 서민을 등치냐	상담.안내
1148	2009-03-26	한국 기업 현주소 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149	2009-03-26	한국 회사 현주소가 어디쯤인지 얼마나 신뢰할수 있는지?	상담.안내
1150	2009-03-26	도움을구합니다	상담.안내
1151	2009-03-26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봅니다!!!!	상담.안내
1152	2009-03-26	한국증권거래소 의 횡포	상담.안내
1153	2009-03-26	소상공인의 대출기준은?	상담.안내
1154	2009-03-26	열심히 일하는 조그만 중소기업 직원들이 도움을 청하여 보니	자체종결
1155	2009-03-26	증권 거래소의 코스닥 종목 상장폐지 남발할 때인가요?	상담.안내
1156	2009-03-26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봅니다!!!!	상담.안내
1157	2009-03-26	연합애플로 부터 날라온 체납 사실 통보	상담.안내
1158	2009-03-26	신용불량자 등재 삭제는 언제쯤	상담.안내
1159	2009-03-26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상담.안내
1160	2009-03-26	거래소의 잘못된행정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161	2009-03-26	갑자기 상장폐지라니... 이견말도 안됩니다. 이대로 죽고싶지만 가족때문에	상담.안내
1162	2009-03-26	개미들만 올리는 상장기업	상담.안내
1163	2009-03-26	증권 거래소 사장은 퇴진하라	상담.안내
1164	2009-03-26	연25%를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	상담.안내
1165	2009-03-26	(주)대우인터네셔널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 및 대금지급 최고장	해결
1166	2009-03-2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상담.안내
1167	2009-03-26	한국거래소 아무런 통보 공시 없이 갑자기 거래정지?	상담.안내

1168	2009-03-26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복원	상담.안내
1169	2009-03-26	채무 관련 도움 요청	해결
1170	2009-03-26	어린이집통장개설에 있어서...	해결
1171	2009-03-26	금융실명제 해석	해결
1172	2009-03-2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자체종결
1173	2009-03-26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 관련	자체종결
1174	2009-03-26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상담.안내
1175	2009-03-26	금융감독원의 민원업무 처리 관련	자체종결
1176	2009-03-27	마지막 희망으로	상담.안내
1177	2009-03-27	공적기관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간 묵혀둔 상속채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체종결
1178	2009-03-27	한국거래소	자체종결
1179	2009-03-27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180	2009-03-27	코스닥 기업 ( 엠트론 )	자체종결
1181	2009-03-27	온누리에어 상폐관련 민원내용 입니다	상담.안내
1182	2009-03-27	저 좀 도와주세요!!이러다가 정말 신세망치겠습니다.이렇게 빌어 봅니다!!!!	상담.안내
1183	2009-03-27	저는 거래정지중인 온누리에어(현 뉴캠진시스템) 소액 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184	2009-03-27	대부분 및 이자제한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185	2009-03-27	뉴캠진시스템(온누리에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186	2009-03-27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 설정 해지 요청	상담.안내
1187	2009-03-27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요청	상담.안내
1188	2009-03-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부 요청	자체종결
1189	2009-03-27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190	2009-03-28	황령.배임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검사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자체종결
1191	2009-03-30	1AA-0903-036469 재민원	상담.안내
1192	2009-03-30	답답한 신용보증기금 잔여리의대왕	상담.안내
1193	2009-03-30	사금융 불법추심 신고 (산와머니)	상담.안내
1194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안!	상담.안내
1195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안!	상담.안내
1196	2009-03-30	보증보험관련 도움요청	상담.안내
1197	2009-03-30	이사사람들을 칭찬해주세요	자체종결
1198	2009-03-30	이해하기 힘든 민원처리 완료건...?	상담.안내
1199	2009-03-30	제발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200	2009-03-30	개인신용정보관련	상담.안내
1201	2009-03-30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은 이자라도 감면시켜주세요.	상담.안내
1202	2009-03-30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20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4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5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06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07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08	2009-03-30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09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0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11	2009-03-30	온누리에어 거래정지에 대해	자체종결
1212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13	2009-03-30	뉴캠진시스템(온누리에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214	2009-03-30	뉴캠진시스템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215	2009-03-30	거래소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6	2009-03-30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217	2009-03-30	거래소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18	2009-03-30	소액투자자의 억울함	상담.안내
1219	2009-03-30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20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21	2009-03-30	억울합니다... 꼭 처리해 주세요...	자체종결
1222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23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	자체종결

1224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캡진스텔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25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26	2009-03-30	온누리 에어 상장폐지의 부당성	상담.안내
1227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28	2009-03-30	나라에서 제대로 하는게 있는건니까?	자체종결
1229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30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에 제발 법적 검토좀 해주세요...	자체종결
1231	2009-03-30	이명박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어거지정 책을 규탄한다.	자체종결
1232	2009-03-30	거래소의 횡포를 규탄한다... 제발 법 확인좀....	자체종결
1233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34	2009-03-30	그리고 주식시장의 모순을 몇가지 고치고자 제안도 해 봅니다.	상담.안내
1235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36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37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38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39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40	2009-03-30	힘 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체종결
1241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범위반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1242	2009-03-30	한국거래소의 국민의 대화 무차별 남용	자체종결
1243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44	2009-03-30	결혼자금이었습니 다... 죽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1245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캡진스텔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46	2009-03-30	결혼자금 다 날릴 거 같습니다... 제발....	자체종결
1247	2009-03-30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가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종결
124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49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0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종결
1251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52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3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54	2009-03-30	한국거래소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255	2009-03-30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256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57	2009-03-30	이렇게 황당할 수 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본법이란 말이나?	자체종결
125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캡진스텔(구 온누리 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59	2009-03-30	온누리 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60	2009-03-30	최없는 소액투자자의 눈물.	자체종결
1261	2009-03-30	횡령으로 인한 상장 폐지를 막아 주세요....	자체종결
1262	2009-03-30	코스닥 분부 분들께 드림	자체종결
1263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반	자체종결
1264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온누리 에어)	자체종결
1265	2009-03-30	온누리 에어 거래정지에 대해...	자체종결
1266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	자체종결
1267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캡진스텔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68	2009-03-30	온누리 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69	2009-03-30	뉴캡진스텔 (구온누리 에어) 대한 거래소측 행위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270	2009-03-30	증권 거래소의 부당함을 탄원합니다!!	자체종결
1271	2009-03-30	채무관련 도움 요청	상담.안내
1272	2009-03-30	한국거래소 행위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1273	2009-03-30	한국거래소 - 개선상황	자체종결
1274	2009-03-30	주식 개인투자자	상담.안내
1275	2009-03-30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관련	해결
1276	2009-03-30	온누리 거래정지의 부당함과 소액주주의 억울함	자체종결
1277	2009-03-30	뉴캡진스텔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27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79	2009-03-30	코스닥 시장 거래소의 온누리 에어 거래정지 관련 일련 진행상황을 보며....	자체종결
1280	2009-03-30	온누리 주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1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2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부당함을 고합니다..	상담,안내
1283	2009-03-30	불합리-중소기업금융지원	자체종결
1284	2009-03-30	어리석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285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286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287	2009-03-30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기존단골 대출금리부터 인하토록 제안!	상담,안내
1288	2009-03-30	저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지금 강금되었습니다.	자체종결
1289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0	2009-03-30	거래소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제발....	자체종결
1291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292	2009-03-30	온누리 에어 거래 중지 관련	자체종결
129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294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5	2009-03-30	우리 온누리에어	자체종결
1296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297	2009-03-30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298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299	2009-03-30	온누리 에어 거래 중지 관련	자체종결
1300	2009-03-30	한국증권거래소 뉴캠진시스템 매매중지건	자체종결
1301	2009-03-30	투자자 보호라 하는데...	자체종결
1302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03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04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05	2009-03-30	한국거래소로 부터 헌법의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306	2009-03-30	뉴캠진시스템 (구 온누리에어) 한국거래소측의 부당함을 호소함	자체종결
1307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08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부당함	자체종결
1309	2009-03-30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뉴캠진시스템 주권매매정지 및 상장폐지 진행 관련)	자체종결
1310	2009-03-30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311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12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13	2009-03-30	한국 코스닥 부당함을 호소합니다...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4	2009-03-30	한국거래소 부당함을 호소합니다...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5	2009-03-30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16	2009-03-30	한국거래소로 부터.. 부당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체종결
1317	2009-03-30	소액주주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318	2009-03-30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19	2009-03-30	한국거래소의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20	2009-03-30	공시보고 투자했는데.. 저의 재산권이 박탈 되었습니까?	자체종결
1321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거래소의 횡포에 울고있는 소액투자자들.]	자체종결
1322	2009-03-31	온누리에어 부당한 상장폐지..	자체종결
1323	2009-03-31	한국거래소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324	2009-03-31	"상장폐지실질심사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25	2009-03-31	구 온누리에서 상장폐지관련.	자체종결
1326	2009-03-31	정상적인 금융거래	상담,안내
1327	2009-03-31	이명박대통령 국민신문고귀하	상담,안내

1328	2009-03-31	부당한 보증채무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제하여주시시오	상담,안내
1329	2009-03-31	뉴캠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결정 취소 요청 민원	자체종결
1330	2009-03-31	죽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자체종결
1331	2009-03-31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뉴캠진시스템셀 주권매매정지 및 상장폐지 진행 관련)	자체종결
1332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33	2009-03-31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자체종결
1334	2009-03-31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35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336	2009-03-31	온누리에어 상장폐지에 대한.....	자체종결
1337	2009-03-31	기술보증기금을 상전으로 받들어야 기업하기 편한한이유	자체종결
1338	2009-03-31	뉴캠진시스템셀(온누리에어) 에대한 이해못할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로 인한 국민고충	자체종결
1339	2009-03-31	기보 자금 유용및 회사 자산 불법 소유권 이전	상담,안내
1340	2009-03-31	신용회복이 않되네요?	상담,안내
1341	2009-03-3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42	2009-03-31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1343	2009-03-31	전세보증금에대해서	상담,안내
1344	2009-03-31	믿음	자체종결
1345	2009-03-31	특수건물 손배책의 공제회 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 등	상담,안내
1346	2009-03-31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요청	해결
1347	2009-03-31	역전세대출관련 문의하고자합니다.	상담,안내
1348	2009-04-01	온누리에어 실질심사관련 - 가정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349	2009-04-01	온누리에어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자체종결
1350	2009-04-01	온누리에어에 대한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351	2009-04-01	국가가 불쌍한 국민을 헐뜯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352	2009-04-01	신용등급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3	2009-04-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54	2009-04-01	증권거래소 상장폐지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1355	2009-04-01	e-모기지론	상담,안내
1356	2009-04-01	한국 거래소의 어의 없는 행동	자체종결
1357	2009-04-01	한국거래소의 남용	자체종결
1358	2009-04-01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캠진시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자체종결
1359	2009-04-01	제발 살려주시시오... 결혼자금입니다....	자체종결
1360	2009-04-01	BHK주식 소액투자 죽이는 악질기업	상담,안내
1361	2009-04-01	어머니의 자식 사랑법	상담,안내
1362	2009-04-01	어머니의 자식사랑법	상담,안내
1363	2009-04-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체종결
1364	2009-04-01	주식	자체종결
1365	2009-04-01	전세자금 대출 중개센터 설치 제안서	상담,안내
1366	2009-04-0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관련	자체종결
1367	2009-04-01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고함	상담,안내
1368	2009-04-01	안내문없이 집을 가압류시킴.	상담,안내
1369	2009-04-01	파산신청자로 몰아가는 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370	2009-04-01	주택금융공사 민원 처리건 관련 재민원	상담,안내
1371	2009-04-01	신용보증기금이자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372	2009-04-01	정말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상담,안내
1373	2009-04-01	유사 수신행위에 질의....	상담,안내
1374	2009-04-01	대출보증관련	상담,안내
1375	2009-04-02	감사원에서 해결해주세요	상담,안내
1376	2009-04-02	한마음 금융	상담,안내
1377	2009-04-02	흑자 도산	상담,안내
1378	2009-04-02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 관련	자체종결
1379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0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1	2009-04-02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2	2009-04-02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업무 관련	상담,안내
1383	2009-04-02	1AA-0903-055578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재촉구	상담,안내
1384	2009-04-03	소비자파산후면책결정 빛좋은개살구!!	상담,안내
1385	2009-04-03	탄원서	상담,안내
1386	2009-04-0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387	2009-04-0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388	2009-04-03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 확인요청	해결
1389	2009-04-03	재달변 요망	상담.안내
1390	2009-04-03	빚때문에 너무힘듭니다. 신용회복기금으로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1391	2009-04-03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관리자도 사람입니다.	상담.안내
1392	2009-04-03	(주)기린	상담.안내
1393	2009-04-05	사람가지고 노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394	2009-04-06	1AA-0903-061690 질문 답 잘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1395	2009-04-06	일하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396	2009-04-06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담.안내
1397	2009-04-06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담.안내
1398	2009-04-06	죽고 싶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상담.안내
1399	2009-04-06	저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400	2009-04-06	준신용불량자 처리 검토	상담.안내
1401	2009-04-06	일반 캐피탈의 수수료가 넘 많은것같아서요 대출액의 몇프로인가	상담.안내
1402	2009-04-0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03	2009-04-06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상담.안내
1404	2009-04-06	법원개인회생자들은.....	상담.안내
1405	2009-04-07	언론보도 와 다른 프리워크아웃	상담.안내
1406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7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8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09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0	2009-04-07	신용회복및 신용보증의 보증서발급에 불합리	자체종결
1411	2009-04-07	보증기금 보증서 연장 건	상담.안내
1412	2009-04-07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안내
1413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4	2009-04-07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	상담.안내
1415	2009-04-07	채권관리	상담.안내
1416	2009-04-07	자영업자 경영안전 자금 지원에 관하여..	상담.안내
1417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18	2009-04-07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 발행	자체종결
1419	2009-04-07	도움요청의 건.	자체종결
1420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21	2009-04-07	전셋방	상담.안내
1422	2009-04-07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1423	2009-04-07	강제 집행에 대하여	상담.안내
1424	2009-04-07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해결
1425	2009-04-07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26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27	2009-04-07	불법 채권추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1428	2009-04-07	연대보증책임의 한도	상담.안내
1429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0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1	2009-04-07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2	2009-04-07	신용회복기금	해결
1433	2009-04-0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34	2009-04-08	행정절차 및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질문 (관인관련)	상담.안내
1435	2009-04-08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436	2009-04-08	주택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437	2009-04-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38	2009-04-08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39	2009-04-08	전 코스닥 상장기업 뉴켄시스템셀(구 온누리애어)에 투자하여 상장실질심사에 걸려 주권매매정지를 당하여	상담.안내
1440	2009-04-08	역전세자금 대출 문제점	상담.안내

1441	2009-04-08	금융관행 개선에 대한 건의	상담.안내
1442	2009-04-0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 하면 누가 죽나요?	상담.안내
1443	2009-04-08	어제 퇴근길 2009/04/06 지하철 여론동향보고 및 개선제안	자체종결
1444	2009-04-08	1AA-0903-065123 답변 자꾸 엉터리로 할래??	자체종결
1445	2009-04-08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공 관련	상담.안내
1446	2009-04-08	금융실명제위반여부	해결
1447	2009-04-09	용인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를 처벌해주세요	상담.안내
1448	2009-04-09	가압류 설정금액보다 원금이 늘어난 사유확인	상담.안내
1449	2009-04-09	대출이 불가능!	상담.안내
1450	2009-04-09	아직도 공무원의 고객응대 수준이 이렇다면 되겠습니까?	자체종결
1451	2009-04-09	KIKO관련 신용보증 제도개선요청의견	상담.안내
1452	2009-04-09	진정서 접수 의견	자체종결
1453	2009-04-09	구제금융	상담.안내
1454	2009-04-09	신용보증기금 규제 완화의 신청	상담.안내
1455	2009-04-09	개미들의 억울한 심정	상담.안내
1456	2009-04-0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57	2009-04-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담.안내
1458	2009-04-09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59	2009-04-10	내가 신용불량도 아니고 내 직원이 신용불량이라 안된데요.....이런.....+	상담.안내
1460	2009-04-10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일 ...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상담.안내
1461	2009-04-10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1462	2009-04-10	한국거래소의 불법과 탁상행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1463	2009-04-10	코스닥 (트라이콤) 상장폐지실질심사건에 대하여...	상담.안내
1464	2009-04-10	기술보증기금은 부동산담보 보증기금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상담.안내
1465	2009-04-10	신용회복기금에대해	상담.안내
1466	2009-04-10	강제 집행에 대하여	상담.안내
1467	2009-04-10	주택담보대출 약정변경신청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 민원호소	상담.안내
1468	2009-04-10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469	2009-04-10	사금융법 제정 등	상담.안내
1470	2009-04-10	맞벌이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1471	2009-04-10	민원실 담당자님께	자체종결
1472	2009-04-13	코스닥 시장 본부 실질대상 심사 합의서	상담.안내
1473	2009-04-13	신용회복기금	해결
1474	2009-04-13	신용보증심의 거절	상담.안내
1475	2009-04-13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476	2009-04-13	신용 불량자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상담.안내
1477	2009-04-13	추심 우편물 받지 안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478	2009-04-13	신용불량해제조건으로 채무일부변제후 재등록	상담.안내
1479	2009-04-13	금융실명제에 관하여..	자체종결
1480	2009-04-13	배드뱅크 신용불량처리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481	2009-04-1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82	2009-04-13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483	2009-04-13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의 거절에 관한 의견	자체종결
1484	2009-04-13	신청인의 아들 허중원의 부채확인서 송부 요청	상담.안내
1485	2009-04-13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1486	2009-04-13	민원 연기의 건	상담.안내
1487	2009-04-13	카드결제에관해서	해결
1488	2009-04-13	공적자금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의견	상담.안내
1489	2009-04-14	회사에서 받은 봉급도 대출에 통합	상담.안내
1490	2009-04-14	한국거래소의 법을 초월한 월권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자체종결
1491	2009-04-14	자배법을 지키지 않는 동부화재	상담.안내
1492	2009-04-14	코스닥종목의 자강이 상폐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상담.안내
1493	2009-04-14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안내
1494	2009-04-14	부채를 매각 시킨곳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요	상담.안내
1495	2009-04-14	개인 신용관리 요청	자체종결
1496	2009-04-14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금일(04/10) 점심시간 마포소공원 여론	정책제안
1497	2009-04-14	한국자산공사 채무 감면 요청	상담.안내
1498	2009-04-14	신용보증기금의 제대로 된 심사를 원합니다.	자체종결
1499	2009-04-15	거래소의 일방적인 공시위반에 따른 피해 민원	자체종결
1500	2009-04-15	서민과 개미 죽이는 클린코스닥 즉각 중지..	상담.안내
1501	2009-04-15	지일차주 금융지원	상담.안내
1502	2009-04-15	보증채무인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1503	2009-04-15	신용정보회사 , 금융권 신용거래 기록 보유 및 활용 개선요청	상담.안내



1504	2009-04-15	자동이체에 관한 건	해결
1505	2009-04-15	금융소외권자이면서도 해당이 되지 않아 사채를 써야할것 같습니다	상담.안내
1506	2009-04-15	산악마니 러쉬엔 캐쉬 등 사금융 업체들의 횡포	상담.안내
1507	2009-04-15	새마을금고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해준다기에 .....	상담.안내
1508	2009-04-15	금융감독원 민원 이첩 관련 조치 요청	상담.안내
1509	2009-04-15	민원 연기의 건	상담.안내
1510	2009-04-15	신용보증기금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체종결
1511	2009-04-15	엔화대출자의 정부 지원 호소	상담.안내
1512	2009-04-15	대출에 따른 호소문(2) 유광문	자체종결
1513	2009-04-15	핵심 국책에 관한 제언	상담.안내
1514	2009-04-15	신용회복	해결
1515	2009-04-15	답답한 부산 신용보증기금 배영기 팀장에대해..	상담.안내
1516	2009-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4대 임법목적인 포괄주의,기능별 규율체제,업무범위확대,투자자보호강화의 의미를 A4 용지 2장 정도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안내
1517	2009-04-16	신용평가에 대하여	상담.안내
1518	2009-04-16	1AA-0904-016437 책임자가 제대로 처리하고 연락해라...	상담.안내
1519	2009-04-16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건	상담.안내
1520	2009-04-16	정확한 현황 조사 및 상장유지 요청	상담.안내
1521	2009-04-16	주식투자에 관한 애로 사항	상담.안내
1522	2009-04-16	보증자리론 상환방식 변경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안내
1523	2009-04-16	신용보증기금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고발합니다.	자체종결
1524	2009-04-16	이 불가능 한 환경을 아주 조금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1525	2009-04-16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상품 판매범위에 대하여	정책제안
1526	2009-04-16	산업은행의 KAI 지분 매각 관련	상담.안내
1527	2009-04-16	금융투자업의 상급감사 자격 요건 관련 질의	자체종결
1528	2009-04-16	사기꾼을 위해서 일하는 신보는 없어야 마땅합니다...신용사회를 위해서	상담.안내
1529	2009-04-16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능력 재산조사	상담.안내
1530	2009-04-16	강남3 구투기지역해제 불가시 생계를 위한 용자의 길은 없는지요	상담.안내
1531	2009-04-16	신용회복	상담.안내
1532	2009-04-16	면책자 대책없으면 국민 우롱하지 마라	상담.안내
1533	2009-04-16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상담.안내
1534	2009-04-16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와 관련하여.....	해결
1535	2009-04-16	두기관(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끼리 싸움에 개인의 재산 상손실과 정신적 피해	상담.안내
1536	2009-04-16	동양파이낸셜 사채보다 더무섭다	상담.안내
1537	2009-04-16	주식 상장폐지	상담.안내
1538	2009-04-17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539	2009-04-17	대부업 명칭 변경시 고객들의 통지	상담.안내
1540	2009-04-17	상장기업 인수를 위한 펀드조성 방법 문의	해결
1541	2009-04-17	보증채무 이자면제기간중 공동 명의의 지분관계로 이자면제 면책(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1542	2009-04-17	개인신용평가에대하여...	상담.안내
1543	2009-04-17	희망모아 협박문건 관련	상담.안내
1544	2009-04-17	국민은행.주택금융공사의 부도덕성	상담.안내
1545	2009-04-17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546	2009-04-17	면책자들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안내
1547	2009-04-17	신용회복.....	해결
1548	2009-04-18	08년 8월26일 면책이 확정 되었으나 채무불이행기록을 삭제 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안내
1549	2009-04-18	신분증과 통장분실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지요..	상담.안내
1550	2009-04-18	사금융에 대한 피해	상담.안내
1551	2009-04-20	명확한 실질심사 요청	상담.안내
1552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 관련"진정서	자체종결
1553	2009-04-20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효력정지 및 해지에 관한진정	상담.안내
1554	2009-04-20	코스닥 상장회사 네오리소스	자체종결
1555	2009-04-20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제.	상담.안내
1556	2009-04-20	코스닥 네오리소스 상장회사	자체종결
1557	2009-04-20	대부업 등록 대상 여부 문의	상담.안내
1558	2009-04-20	대부업체의 부채중명서 발급거부?	상담.안내
1559	2009-04-2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종결
1560	2009-04-20	Synthetic CDO 후순위 보장을 위해 투입한 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자체종결
1561	2009-04-20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1562	2009-04-20	신용보증기금의 이기적인 남용고발	상담.안내
1563	2009-04-20	보증분쟁	상담.안내
1564	2009-04-20	자산관리공사의 바리밋 수협비리	상담.안내
1565	2009-04-20	도와주십시오	자체종결
1566	2009-04-20	지급보증요청	상담.안내
1567	2009-04-20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568	2009-04-20	정리금융공사의 채무 관련	상담.안내
1569	2009-04-20	사업경영 애로사항	상담.안내
1570	2009-04-20	연대보증에 대해	상담.안내
1571	2009-04-20	급여미지급청구	자체종결
1572	2009-04-20	저희가족 좀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573	2009-04-20	Mtron관련 실질심사대상에 대한 진정서	자체종결
1574	2009-04-20	코스닥업체 엠트론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주시요.,	자체종결
1575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 련" 진정서	자체종결
1576	2009-04-20	러시앤캐시 구리지점 담당자가 친정엄마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 습니다	상담.안내
1577	2009-04-20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 련" 진정서	자체종결
1578	2009-04-21	엠트론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체종결
1579	2009-04-21	불법추심 제재 좀 해주세여	상담.안내
1580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관	자체종결
1581	2009-04-21	(주)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결정관련 진 정서입니다	자체종결
1582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련 진정서	자체종결
1583	2009-04-21	코스닥 상장기업 MTRON의 실질심사 대상에 대해서...	자체종결
1584	2009-04-21	주식-상장폐지 실질심사중-MTRON	자체종결
1585	2009-04-21	신용보증기금 이용후기	상담.안내
1586	2009-04-21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587	2009-04-21	카드수수료와 대형슈퍼 문제	해결
1588	2009-04-21	"(주)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로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결정관 련" 진정서	자체종결
1589	2009-04-21	치욕스럽고 억울 합니다.	상담.안내
1590	2009-04-21	신용보증기금의 황포(보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건)	상담.안내
1591	2009-04-21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	해결
1592	2009-04-2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관련	상담.안내
1593	2009-04-21	산업은행의 기술 재심사 요청	상담.안내
1594	2009-04-21	코스닥 종목인 엠트론의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에 대해서	자체종결
1595	2009-04-21	엠트론 상장폐지에 관한 건	자체종결
1596	2009-04-21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효력정지 및 해지에 관한진정	상담.안내
1597	2009-04-21	코스닥 기업 MTRON 상장폐지 심사에 대한 진정	자체종결
1598	2009-04-21	고객을 기만하는 불법추심	상담.안내
1599	2009-04-21	주택담보연금	상담.안내
1600	2009-04-21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 출마자격 관련 질의	상담.안내
1601	2009-04-21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602	2009-04-21	입찰이행보증보험의 대표이사 보증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의 한계 성. 해결.	자체종결
1603	2009-04-21	벤사업체의 문제점과 국영기업에서 카드제한	해결
1604	2009-04-21	코스닥업체 엠트론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주시요.,	자체종결
1605	2009-04-21	금융지원건	상담.안내
1606	2009-04-21	보험감독업무 개선 관련	상담.안내
1607	2009-04-21	접수번호 1 a a - 0 9 0 4 - 0 0 0 9 8 1 민원 추가사항	상담.안내
1608	2009-04-21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상담.안내
1609	2009-04-22	(주)CLLCD의 부당한 감자를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1610	2009-04-22	농신보자금 변제에대한 요청	자체종결
1611	2009-04-22	엠트론(046320)관련	자체종결
1612	2009-04-22	금정장중인 중소기업을 목조르는 3가지 규제사항을 해결해주시	자체종결
1613	2009-04-22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사용에 대한 피해	자체종결
1614	2009-04-22	상장거래폐지되기에 너무 아까운 회사입니다	자체종결
1615	2009-04-2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상담.안내
1616	2009-04-22	저소득층 대출에 대하여	해결
1617	2009-04-22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자체종결
1618	2009-04-22	거래소에서 세계1위 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619	2009-04-22	가차명계좌 전면폐지 및 국가운영 신용카드사 설립 운영 관련 건	해결

1620	2009-04-23	진정 기업의 고충을 헤아리고, 듣고자 하시는 공무원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1621	2009-04-23	기업 활동 애로사항 건의	상담,안내
1622	2009-04-23	신용보증기금 심의 기준	상담,안내
1623	2009-04-23	엠트론 실질심사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자체종결
1624	2009-04-23	주택전세자금상환건	상담,안내
1625	2009-04-23	고충	자체종결
1626	2009-04-23	열받네!!!!!!	상담,안내
1627	2009-04-23	지방기업들이 상폐위기에 직면했다.정부는 무얼했는가?	자체종결
1628	2009-04-23	호소드립니다.	자체종결
1629	2009-04-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일부조항변경요구	상담,안내
1630	2009-04-23	대통령 각하 꼭 읽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체종결
1631	2009-04-23	임주자에게 반환할 전세금 대출 도움 요청	상담,안내
1632	2009-04-23	한민족(필독)	상담,안내
1633	2009-04-23	3soft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폐	자체종결
1634	2009-04-23	대부업체(고리사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제안	상담,안내
1635	2009-04-23	3soft 회사 상장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들.....	자체종결
1636	2009-04-23	무조건 상폐는 안됩니다.	자체종결
1637	2009-04-23	코스닥 상장폐지 잘못된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자체종결
1638	2009-04-23	갑작스런 3soft 상폐결정	자체종결
1639	2009-04-23	2009/04/23 /12:00-13:00 강남성모병원 민정여론보고 및 개선	상담,안내
1640	2009-04-23	신용등급회복요청	상담,안내
1641	2009-04-24	코스닥 포넷 (048270) 종목 상장폐지 결정 유보 요청 건	자체종결
1642	2009-04-24	하이렉스상폐종 안됐으면 합니다	자체종결
1643	2009-04-24	자칫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상장기업 실질심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	자체종결
1644	2009-04-24	3SOFT (주)상장폐지에 관하여	자체종결
1645	2009-04-24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등재가 정당하다는 회신이 맞는지?? 유권해석 요망...	상담,안내
1646	2009-04-24	파산면책자 특수기록정보 삭제에 대하여	상담,안내
1647	2009-04-24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탄핵합니다	상담,안내
1648	2009-04-24	신용보증기금 고양지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담,안내
1649	2009-04-24	신용보증기금 이럴수 있는가?	상담,안내
1650	2009-04-24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제20조의 2 등 위반 의심 및 서울 보증에 부당한 채권추심 지시	상담,안내
1651	2009-04-24	중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와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2	2009-04-24	중소기업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3	2009-04-24	정부정책으로 인한 상장폐지 (쓰리소프트, IC코퍼레이션, 쿨루	자체종결
1654	2009-04-24	신용조회기록	상담,안내
1655	2009-04-24	렌터카 회사에서 동의도 없이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상담,안내
1656	2009-04-24	중소 하청 건설업들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657	2009-04-24	2009/04/23 /12:00-13:00 강남성모병원 민정여론보고 및 개선	상담,안내
1658	2009-04-24	하이렉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재고요청	자체종결
1659	2009-04-24	이익상실로 인한 불이익 해소	상담,안내
1660	2009-04-24	무차별적인 기업퇴출	자체종결
1661	2009-04-24	기린 회사는 살리는데 투자한 주주는 죽인대요	자체종결
1662	2009-04-24	대한주택보증 공사 중도금 4월13일자부터 백프로 보증	상담,안내
1663	2009-04-24	저의소중한재산 지켜주세요.	자체종결
1664	2009-04-24	살아보려 몸부림을 치는 신용불량자의 고충을 살피 주세요	상담,안내
1665	2009-04-24	코스닥 상장 폐지에 따른 소액주주의 일방적 피해	자체종결
1666	2009-04-24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자체종결
1667	2009-04-24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에 서민만 죽는다"...소액주주들 반발 확산 (조선닷컴뉴스보도)	자체종결
1668	2009-04-24	이렇게 황당한 일이 !!!	자체종결
1669	2009-04-24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1670	2009-04-25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71	2009-04-25	일반법인(XX전자,XX택배 등)이 법인목적추가를 하여 XX은행처럼 새로운 법인 설립없이 은행업 겸업이 가능한가?	상담,안내
1672	2009-04-25	(주)포넷 상장폐지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673	2009-04-25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자산관리공사 고객만족팀이 무 손말입니까?	상담,안내
1674	2009-04-27	1201	상담,안내
1675	2009-04-27	소원증 들어주세요..	상담,안내
1676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77	2009-04-27	민원접수번호 1 a a -0 9 0 4 -0 0 0 9 8 1 추가사항	상담,안내
1678	2009-04-27	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당한 채무자 최돈희입니다.	상담,안내

1679	2009-04-27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1680	2009-04-27	신용보증기금 선처	상담.안내
1681	2009-04-27	자산관리공사의 횡포	상담.안내
1682	2009-04-27	상속채무에 관한 채무상속	자체종결
1683	2009-04-27	기술 신보 및 정부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상담.안내
1684	2009-04-27	C & 중공업을 살려주세요 !!!!!	자체종결
1685	2009-04-27	개인정보 이종으로 팔아쳐먹는거도 방지하고 대체 여기가 자유민 주국가 맞냐?	자체종결
1686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87	2009-04-27	대부업법 내용중?	상담.안내
1688	2009-04-27	사금융에서 벗어날수있나요....	상담.안내
1689	2009-04-27	허술한 대부업허가절차가 서민 불법대출 온상지 가속화...	상담.안내
1690	2009-04-27	중소기업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1691	2009-04-27	산자부가 소 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1692	2009-04-27	코스닥 상장 포넷 횡령 비리.. 고위공무원, 정치인 고발..	자체종결
1693	2009-04-27	서민을 물리는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694	2009-04-27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695	2009-04-27	통장분실	상담.안내
1696	2009-04-27	자산관리공사 실수로 아직도 신용불량자	상담.안내
1697	2009-04-27	억울한 신용불량 등재로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상담.안내
1698	2009-04-27	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당한 채무자 최돈희입니다.	상담.안내
1699	2009-04-28	불법채권추심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담.안내
1700	2009-04-28	자원개발 포넷 관련 산자부 각성하라..산자부 믿었다 소액주주다	자체종결
1701	2009-04-28	신용보증기금 연장 거부 관련	자체종결
1702	2009-04-28	상장폐지실질심사.. 너무 억울합니다.	자체종결
1703	2009-04-28	저신용등급자 지원제도가 너무 까다롭네요.모두 해당 되도록 해	해결
1704	2009-04-28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폭언과,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담.안내
1705	2009-04-28	C&중공업(주) 소수주주의 요청	자체종결
1706	2009-04-28	기술신용보증의 억울한 추심행위	상담.안내
1707	2009-04-28	증권거래소는 사기횡령 포넷 전대표 김진도를 도우지 말라	자체종결
1708	2009-04-28	포넷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탄원 진정서	자체종결
1709	2009-04-28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관련	해결
1710	2009-04-28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전액보중에 관하여	상담.안내
1711	2009-04-28	(주)포넷 관련 정치인, 고위공무원 비리 및 주가조작	자체종결
1712	2009-04-28	코스닥상장 포넷 횡령및 비리관련, 고위공무원및 정치인포함	자체종결
1713	2009-04-28	(주)포넷관련 정치인, 고위공무원 주가조작및 횡령 관련	자체종결
1714	2009-04-28	채권추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안내
1715	2009-04-28	코스닥 포넷 상장폐지 유예	자체종결
1716	2009-04-28	'포넷' 관련입니다.	자체종결
1717	2009-04-28	통보받지 못한 보증료에 부당한연체이자.	상담.안내
1718	2009-04-29	e-모기지론 이자 납입에 대한 질의	상담.안내
1719	2009-04-29	대부업체(리드코프)의 과다 추신행위에대해서	상담.안내
1720	2009-04-29	부채잔액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조치 요청	상담.안내
1721	2009-04-29	신용보증기금 정보 도움	상담.안내
1722	2009-04-29	부채 청산 문의	상담.안내
1723	2009-04-29	서민금융프로젝트??	해결
1724	2009-04-29	금융감독원 민원조사 중지된 사안	자체종결
1725	2009-04-29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726	2009-04-29	기업에 압류가 있어도 신용보증서 발급되도록 개선 요청	상담.안내
1727	2009-04-29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 뺏어가면	상담.안내
1728	2009-04-29	신용회복기금 자원에 대한 문의	해결
1729	2009-04-29	전세금 반환액 대출 요청	상담.안내
1730	2009-04-29	중고차 중사원의 할부 수수료에 관한 적법성 질의	상담.안내
1731	2009-04-29	정말이지 하루 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1732	2009-04-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일부조항변경요구	상담.안내
1733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34	2009-04-30	도와주세요. 3soft 경영진, 사기꾼입니다.	상담.안내
1735	2009-04-30	코스닥 상폐대란 관련하여..	상담.안내
1736	2009-04-30	제발 이번 초유의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1737	2009-04-30	대통령님 힘없는 지회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38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39	2009-04-30	3SOFT 소액주주-----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740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1	2009-04-30	이번에 상폐당한 3SOFT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742	2009-04-30	3soft란 기업....	상담.안내
1743	2009-04-30	코스닥 상폐대란 관련	상담.안내
1744	2009-04-30	대책없는 서민 죽이기	상담.안내
1745	2009-04-30	ic코퍼레이션 상장폐지된 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46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7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8	2009-04-30	이명박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1749	2009-04-30	증권사기범을 신고합니다..	상담.안내
1750	2009-04-30	상폐	상담.안내
1751	2009-04-30	혼자죽어 해결될까, 그렇다고 가족동반자살 해서 끝을볼까,	상담.안내
1752	2009-04-30	코스닥상장폐지기업 조사해주시요.	상담.안내
1753	2009-04-30	믿음에서 출발하여...파탄으로까지...	상담.안내
1754	2009-04-30	상장폐지 (펜텀엔터그룹) 소액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55	2009-04-30	검찰 수사 진행바랍니다	상담.안내
1756	2009-04-30	서민들좀 살려주세요....그리고 한을좀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1757	2009-04-30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상담.안내
1758	2009-04-30	상폐대란	상담.안내
1759	2009-04-30	상장폐지는 힘없는 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상담.안내
1760	2009-04-30	회사 상폐 # 관련	상담.안내
1761	2009-04-30	소액주주를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762	2009-04-30	엄벌 바랍니다	상담.안내
1763	2009-04-30	상장폐지 기업 철저히 조사하여 소액주주를 등쳐먹은 범죄자들 꼭 처벌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64	2009-04-30	쿨투 의도적 상장폐기 규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765	2009-04-30	쓰리소프트를 아십니까?	상담.안내
1766	2009-04-30	상폐관련... 피해 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1767	2009-04-30	상장폐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고 답답해서 해결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1768	2009-04-30	제발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1769	2009-04-30	수천명의 서민들이 울고있습니다(증권사기 피해신고)	상담.안내
1770	2009-04-30	키코관련 상장폐지 코스닥주 관련	상담.안내
1771	2009-04-30	상폐대란으로 힘없는 개미를 죽어나갑니다	상담.안내
1772	2009-04-30	자강 소액주주입니다.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773	2009-04-30	기관의 공정성과 일관된 업무처리-주식관련	상담.안내
1774	2009-04-30	코스닥 상장폐지대란, 수천명의 서민들이 가정경제 파탄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775	2009-04-30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관련한 대표이사 조사 요청 건(케이이엔지)	상담.안내
1776	2009-04-30	케이이엔지 소액주주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상담.안내
1777	2009-04-30	모빌링크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만행	상담.안내
1778	2009-04-30	상장폐지를 막아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1779	2009-04-30	부당하게 상폐당했습니다.3soft란 회사를 아십니까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80	2009-04-30	3soft주주입니다.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1781	2009-04-30	3soft 주주입니다.	상담.안내
1782	2009-04-30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783	2009-04-30	증권범죄 피해를 피해쳐 주세요!!	상담.안내
1784	2009-04-30	상장폐지..저는 힘없는 대학생입니다.	상담.안내
1785	2009-04-30	상장폐지에 대하여	상담.안내
1786	2009-04-30	수천명의 서민들이 가정경제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787	2009-04-30	3소프트 의 파탄	상담.안내
1788	2009-04-30	살려 주세요~	상담.안내
1789	2009-04-30	저신용자 대출 관련	상담.안내
1790	2009-04-30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791	2009-04-30	부당이자	상담.안내
1792	2009-04-30	면책 받은 자는 왜 금융기관 대출이 안 되는지?	상담.안내
1793	2009-04-30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자체종결
1794	2009-05-01	중국 회사 연합과기 상장	자체종결
1795	2009-05-01	개미 좀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796	2009-05-01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보증출발 박경호 팀장을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1797	2009-05-01	서민 소액대출에 대한 문의	해결
1798	2009-05-01	고금리 대출 환승론에 대해서	해결
1799	2009-05-01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상담.안내
1800	2009-05-01	거래소를 어케믿고 투자를하나요	자체종결
1801	2009-05-01	안녕하십니까 유승욱입니다.	상담.안내
1802	2009-05-04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하여	상담.안내

1803	2009-05-04	이명박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상담.안내
1804	2009-05-04	파산과 면책 후	상담.안내
1805	2009-05-04	5개월 만에 코스피종목 상폐에 관하여...	자체종결
1806	2009-05-04	신용불량자 회복	상담.안내
1807	2009-05-04	사금융 피해	상담.안내
1808	2009-05-04	2009/05/02/06:00-07:00 보라매공원 트렉 여론보고 및 개선제	상담.안내
1809	2009-05-04	명의를 빌려주고 그명의로타인이대출받은건	상담.안내
1810	2009-05-04	명의를빌려준건	상담.안내
1811	2009-05-04	노후 차량 교체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에 관하여	해결
1812	2009-05-04	보험관계정립	자체종결
1813	2009-05-04	공적자금관리	상담.안내
1814	2009-05-04	"MTRON반드시 상장 유지되어야 한다"	자체종결
1815	2009-05-04	"MTRON은 반드시 상장 유지 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816	2009-05-04	통장확인 건	해결
1817	2009-05-04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818	2009-05-04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상담.안내
1819	2009-05-04	감면 요청	상담.안내
1820	2009-05-04	선처바랍니다 2.	자체종결
1821	2009-05-04	도와주십시오	해결
1822	2009-05-04	과도한 신용조회에 대한 진정	상담.안내
1823	2009-05-04	신용정보	상담.안내
1824	2009-05-04	중산층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25	2009-05-04	사채업법	상담.안내
1826	2009-05-04	독촉전화가 너무 심한데요..	상담.안내
1827	2009-05-04	(주)아이비에스코리아 부채현황	상담.안내
1828	2009-05-04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상담.안내
1829	2009-05-04	사채때문에 제 목숨과도 같은 가게를 잃게생겼습니다...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30	2009-05-04	금융 계좌 조회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결
1831	2009-05-0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당	상담.안내
1832	2009-05-04	부동산강제집행부당	자체종결
1833	2009-05-06	엠트론은 상장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체종결
1834	2009-05-06	불법추심	상담.안내
1835	2009-05-06	신용보증기금	상담.안내
1836	2009-05-06	신용기금 압류?	상담.안내
1837	2009-05-06	관리종목, 상폐 기준	자체종결
1838	2009-05-06	공매낙찰 후 이해당사자로서 기본 권리인 열람을 하려 했으나, 열람 협조가 안됨	자체종결
1839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0	2009-05-06	불법사채로인한 급박함 입니다	상담.안내
1841	2009-05-06	대부업 이자율 적용에서 선수이자의 이율적요	상담.안내
1842	2009-05-06	연체어력으로 인한 금융대출 불가	상담.안내
1843	2009-05-06	기술보증기금 연체로 인한 채권보전 가압류 중지 요청	상담.안내
1844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5	2009-05-06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체종결
1846	2009-05-06	불법 사채업자	상담.안내
1847	2009-05-06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상담.안내
1848	2009-05-0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료 인상율이 너무 높습니다!!!!	상담.안내
1849	2009-05-06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상담.안내
1850	2009-05-06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1851	2009-05-06	강남구1가구1주택대출규제종결해주세요전세안빠져입주해야하는	상담.안내
1852	2009-05-06	대부업피해	상담.안내
1853	2009-05-06	정한성의 한국 및 세계경제 위기 극복 제안서(제 3차)	상담.안내
1854	2009-05-06	정한성의 한국 및 세계경제 위기 극복 제안서(제 3차)	상담.안내
1855	2009-05-07	구제금융을 받을수없는지요?	상담.안내
1856	2009-05-07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7	2009-05-07	불법사채로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8	2009-05-07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급박함 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1859	2009-05-07	불법사채업자에게 집을 경매 당하게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860	2009-05-07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관련	자체종결
1861	2009-05-07	신용회복 번째중 권저당 설정으로 이사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안내
1862	2009-05-07	저신용자대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자체종결
1863	2009-05-07	농신보 대출시 호적이 다른 사람의 입보로 인하여 전채산 압류, 경매위기	상담.안내
1864	2009-05-07	엠트론소액주주 설명서	자체종결

1865	2009-05-07	코스닥 상폐된 건	자체종결
1866	2009-05-07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 희망	상담.안내
1867	2009-05-07	저 신용자들을 두 번 올리는 은행의 작태	상담.안내
1868	2009-05-07	신용보증기금(테헤란로지점) 부동산가압류건	상담.안내
1869	2009-05-07	매입한 문종땅 전소유주의 ,보증으로 경매될상황입니다	자체종결
1870	2009-05-07	적법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자체종결
1871	2009-05-08	환승론 관련	해결
1872	2009-05-08	상장폐지에 대한 민원	자체종결
1873	2009-05-08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상담.안내
1874	2009-05-08	증권거래소 구조조정 추진 요청	상담.안내
1875	2009-05-08	신탁회사의 부동산관리 위탁의 위법성 여부	해결
1876	2009-05-08	이 대통령님, 중산층이 죽습니다.	상담.안내
1877	2009-05-0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건입니다.	상담.안내
1878	2009-05-08	신용보증기금 및 창고 임대 요청	상담.안내
1879	2009-05-08	해외 불법 송금	자체종결
1880	2009-05-08	13억 대출받고 24억을 설정하였다고 24억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상담.안내
1881	2009-05-08	주식매수청구-07년 12월	자체종결
1882	2009-05-11	신용보증기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련	상담.안내
1883	2009-05-11	파산자 대출	상담.안내
1884	2009-05-11	하이닉스 상생협력 자금 보증 관련	상담.안내
1885	2009-05-11	기업은행 과실로인한 손해	상담.안내
1886	2009-05-11	금융재산	해결
1887	2009-05-11	캐피탈사의 불법추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1888	2009-05-11	보증거절 관련..	상담.안내
1889	2009-05-11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관련	자체종결
1890	2009-05-11	보증에대한 효력상실	상담.안내
1891	2009-05-11	진짜 애가 아프다는데... 정말 화납니다	자체종결
1892	2009-05-11	신용보증기금 제심의 요청건	상담.안내
1893	2009-05-11	동아건설 진정서	자체종결
1894	2009-05-12	노후 차량 교체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에 관하여	해결
1895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6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7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898	2009-05-12	파산후면책에도신용불량	상담.안내
1899	2009-05-12	보증 잘못서 파산자가 원사람이 신용회복을 해서 사업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1900	2009-05-12	특수채권보유기록	상담.안내
1901	2009-05-12	자산공사 에서 시행하고있는 수급자 채무유예에 대한 모순점	상담.안내
1902	2009-05-12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 사항	해결
1903	2009-05-12	신용 보증기금 월권에 대해	자체종결
1904	2009-05-12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상담.안내
1905	2009-05-12	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906	2009-05-12	신용회복이후	상담.안내
1907	2009-05-13	정부의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상담.안내
1908	2009-05-13	전자금융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해결
1909	2009-05-13	[금융]전환대출에 대하여...	해결
1910	2009-05-13	정부에서 한다길래 믿고 대출받았던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 [모기지론]에 대한 ..신희부부의 피눈물.....	상담.안내
1911	2009-05-13	채권추심에아이들가슴에멍드는건	상담.안내
1912	2009-05-13	기술보증기금 보증 관련	자체종결
1913	2009-05-13	한마음금융 (대부신청 이자율)한국자산공사	상담.안내
1914	2009-05-13	신용보증기금 도움 요청	상담.안내
1915	2009-05-13	중소기업 지원 요청	상담.안내
1916	2009-05-13	신용카드 대금입금시 내역정보 표시	해결
1917	2009-05-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보공개항구 불합리한 운용	상담.안내
1918	2009-05-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나친 이자횡포	상담.안내
1919	2009-05-14	대부업....옐하비스트 ...산와머니!!! 잊지않겠습니다	상담.안내
1920	2009-05-14	불법 부동산 가압류 설정	자체종결
1921	2009-05-14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의 실질심사결과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1922	2009-05-14	부폐된 코스닥 &머니게임	상담.안내
1923	2009-05-14	보이스피싱을막을수있다	해결

1924	2009-05-14	특수건물(아파트)의 손해책 공제회 보험 가입 적정성 여부관련문의입니다	상담.안내
1925	2009-05-14	파산면책자 금융거래 관련	상담.안내
1926	2009-05-14	채권양도 거절	자체종결
1927	2009-05-14	신용보증기금관련고충	상담.안내
1928	2009-05-14	금융기관 연체이자 적용상 문제점 포괄 검토 요청	상담.안내
1929	2009-05-14	신용보증기금 보증 연장 관련	상담.안내
1930	2009-05-15	가너	자체종결
1931	2009-05-15	코스닥시장본부의직무유기	자체종결
1932	2009-05-15	왜 민원이 한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나요....?	상담.안내
1933	2009-05-15	1AA-0904-057269 이거 뭐냐?? 장난치냐? 처리한새끼는 대체	자체종결
1934	2009-05-15	CD기비밀번호노출방지	해결
1935	2009-05-15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지속적 추심 우편물 발송	상담.안내
1936	2009-05-15	코스닥 본부의 업무태만	자체종결
1937	2009-05-15	대출금리와 저축금리	해결
1938	2009-05-15	은행의대출금리 상한선에 대한생각.	해결
1939	2009-05-15	신용보증기금 피해	상담.안내
1940	2009-05-15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학점 미 인정 사유 및 시정조치 촉구	상담.안내
1941	2009-05-15	자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1942	2009-05-15	코스닥의 헤세나(036270)는 코스닥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합니다.	자체종결
1943	2009-05-18	기업사냥꾼들 때문에 서민들만 죽습니다	자체종결
1944	2009-05-18	은행연합회연체기록삭제기간 완화	상담.안내
1945	2009-05-18	주식 공매도제도 허용 할 예정이라는데...	상담.안내
1946	2009-05-18	코스닥의 헤세나(036270)는 코스닥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합니다.	자체종결
1947	2009-05-18	안녕하세요 전 소예소액주주 송중선입니다.	자체종결
1948	2009-05-18	신용을 해복해 주세요	상담.안내
1949	2009-05-18	공매도 허용를 막아 주십시오. 국민을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950	2009-05-18	지디코프(구:네오솔라) 주식 상장폐지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체종결
1951	2009-05-18	사업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려는데....	상담.안내
1952	2009-05-18	코스닥의 헤세나(036270)는 코스닥본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을 받고도 상폐합니다.	자체종결
1953	2009-05-1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변경으로 상장폐지	자체종결
1954	2009-05-18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독한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고발함	상담.안내
1955	2009-05-18	신용정보협회의 불친절한 전화대응	상담.안내
1956	2009-05-18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57	2009-05-18	카드 연체에 대해서	상담.안내
1958	2009-05-18	반대매수청구금액-회사미지급시에 관한 명문 규정화	상담.안내
1959	2009-05-18	신용회복을 한 사람을 위한 대출지원	상담.안내
1960	2009-05-1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련.	상담.안내
1961	2009-05-18	수수료 업주가 아닌 사용자 부담으로 법개정 요구합니다	해결
1962	2009-05-18	화재보험료 납부주체	상담.안내
1963	2009-05-19	자동차사고합의금	자체종결
1964	2009-05-19	소예를 살려주세요	자체종결
1965	2009-05-19	대손처리진행시업무처리절차에대한이의	상담.안내
1966	2009-05-19	대출조건한 알아봐도 신용이 떨어진다?	상담.안내
1967	2009-05-19	한국주택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1968	2009-05-19	2007년도에 유선으로 해결된 상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담.안내
1969	2009-05-19	동결된 은행계좌를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1970	2009-05-19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상담.안내
1971	2009-05-19	은행연합회기록삭제기간 완화 요청	상담.안내
1972	2009-05-19	프리워크 아웃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비 계좌 동결	상담.안내
1973	2009-05-19	IT 전문법인 설립 추진에 따른 법률 위반 여부 질의	상담.안내
1974	2009-05-19	공매도 재허용 관련	해결
1975	2009-05-19	예금보험공사 압류 관련	상담.안내
1976	2009-05-19	자산관리공사 과다 회수 관련	상담.안내
1977	2009-05-20	저축은행의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관련	상담.안내
1978	2009-05-20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1979	2009-05-20	정리금융공사이의	상담.안내
1980	2009-05-20	신용불량자 에게도 구제를....	상담.안내
1981	2009-05-20	무엇인가 잘못된 코스닥 퇴출제도..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	자체종결
1982	2009-05-2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83	2009-05-20	정리금융공사의 빚 분할상환 요청!	상담.안내



1984	2009-05-2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1985	2009-05-20	서민대출	상담.안내
1986	2009-05-21	TM 인터넷 뱅킹 해킹에 관련하여~~~	해결
1987	2009-05-21	1AA--0905--017516에 대한 질의문답	상담.안내
1988	2009-05-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소홀책임	자체종결
1989	2009-05-21	(주)쓰리웰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부정지점의 처사에 관한 탄원	상담.안내
1990	2009-05-21	신용보증기금건 탄원서입니다.	상담.안내
1991	2009-05-21	불법 대부업 사채 근절해 주세요,	상담.안내
1992	2009-05-21	서민대출제도	상담.안내
1993	2009-05-21	저신용자 대출 및 기초수급자 관련 건의	상담.안내
1994	2009-05-21	불법사금융 대책	해결
1995	2009-05-21	지들말로하는 국민은행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1996	2009-05-21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상담.안내
1997	2009-05-21	[주택청약종합저축] 영업점별 강제 가입 할당에 대한 피해 민원	자체종결
1998	2009-05-21	대부업체 관련 민원 처리 절차 문의	상담.안내
1999	2009-05-21	신용보증기금때문에 죽고싶습니다.	상담.안내
2000	2009-05-21	공매도 허용 철회	해결
2001	2009-05-21	신용회복중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안내
2002	2009-05-21	희망모아 애 대해서..	상담.안내
2003	2009-05-21	원금보다 많은 이자	상담.안내
2004	2009-05-21	신용보증기금의 불성실 행태	상담.안내
2005	2009-05-21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상장을 앓는이유	해결
2006	2009-05-21	상장폐지3soft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체종결
2007	2009-05-21	금융감독 당국 증권 공매도 금지 해제 발표의건	해결
2008	2009-05-21	저희 회사를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009	2009-05-21	신용보증기금 부당 처리 탄원서	상담.안내
2010	2009-05-21	신용보증기금 부정지점에 관한 탄원서	상담.안내
2011	2009-05-21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상담.안내
2012	2009-05-21	꼭 한번만이라도 읽어봐 주십시오!	자체종결
2013	2009-05-21	카드 발급정지에 대한 제도 문제점 (도와주세요)	해결
2014	2009-05-21	가압류 해제	상담.안내
2015	2009-05-21	공매도 제도 허용 반대	해결
2016	2009-05-2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	해결
2017	2009-05-21	제주시 애월수협 불법대출 검토의뢰건	자체종결
2018	2009-05-22	공매도금지 해제 결정과 관련하여	해결
2019	2009-05-22	증권 공매도 해제	해결
2020	2009-05-22	문의 드립니다.	해결
2021	2009-05-22	신용보증에 관하여....	자체종결
2022	2009-05-22	파산면책자들을 위해	상담.안내
2023	2009-05-22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감사의 부실	상담.안내
2024	2009-05-22	공매도를 실시하면 안됩니다	해결
2025	2009-05-22	무보증 공모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요청의 건(동산진흥주식회사)	자체종결
2026	2009-05-22	공매도 시행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지요?	해결
2027	2009-05-22	상장폐지...읽어주세요	자체종결
2028	2009-05-22	비울때 우산썼는 우리나라 은행	상담.안내
2029	2009-05-22	비울때 우산썼는 은행	상담.안내
2030	2009-05-22	비울때 우산썼는 우리나라 은행	상담.안내
2031	2009-05-22	연체기록 연합회에삭제요청 속히	상담.안내
2032	2009-05-22	제발 도와주세요...파렴치한 대주주로 인해 저희 가족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체종결
2033	2009-05-22	3soft 상장폐지에 관하여	자체종결
2034	2009-05-22	공매도 문제로 국민의 소리가 앓들립니까??	해결
2035	2009-05-22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네요..	상담.안내
2036	2009-05-22	전입대표 연대 보증금액 상환 요청에 따른 조정 요청	상담.안내
2037	2009-05-22	상장사 공시위반 감독의무 유기 고발	자체종결
2038	2009-05-22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39	2009-05-22	코스닥 거래정지 중인 종목의 거래재개	자체종결
2040	2009-05-22	주식반대매수청구관련	상담.안내
2041	2009-05-22	저신용자대출에대해서	상담.안내
2042	2009-05-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 처리 의 순서	자체종결
2043	2009-05-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처리건	자체종결
2044	2009-05-22	대부업 등록 및 재교부 신청 관련 문의	상담.안내
2045	2009-05-22	신용카드연체 및 개인회생	상담.안내
2046	2009-05-2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안내

2047	2009-05-25	정말 저같은 사람은....	상담.안내
2048	2009-05-25	이명박정부, 정말 여러 사람 죽인다.	해결
2049	2009-05-25	존경하는 금융위 위원장님! 너무 힘들어서 민원 제기합니다.	자체종결
2050	2009-05-25	민원 처리가 되었나요?	상담.안내
2051	2009-05-25	비영리법인 한국신용교육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상담.안내
2052	2009-05-25	말 바꾼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안내
2053	2009-05-25	강남3구 투기해제 안하려면 사업자들 부동산대출이라도 해주어야	상담.안내
2054	2009-05-25	은행이 신용불량자양산시키는곳, 직업도 못가지게 하는 곳입니까?	상담.안내
2055	2009-05-25	신용정보사의채권추심범위	상담.안내
2056	2009-05-25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관련	해결
2057	2009-05-25	공매도 허용의 배경은 청와대 지시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	해결
2058	2009-05-25	기술신용보증의 억울한 추심행위-어의없는 답변과 민원내용이해 부족한 금융위	상담.안내
2059	2009-05-25	서민의 금융 신용관리 평가	상담.안내
2060	2009-05-25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언제 되나요?	자체종결
2061	2009-05-25	저신용자 대출	상담.안내
2062	2009-05-25	저는 IMF때 빌딩신축하다 부도 났어요. 현재 파산면책까지 끝났는데 특수기록때문에...ㅠㅠ	상담.안내
2063	2009-05-25	이자율 문의(2건)	상담.안내
2064	2009-05-25	방법이 없나여?	상담.안내
2065	2009-05-25	파산면책후 대출	상담.안내
2066	2009-05-25	한국주택금융공사 사기	상담.안내
2067	2009-05-25	금감원 홈페이지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한번 보세요. 이번 증시대란의 주범 금융감독원	해결
2068	2009-05-25	중소기업은행의 공장담보 인정비용 상향조정 건의	상담.안내
2069	2009-05-25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해...	상담.안내
2070	2009-05-25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71	2009-05-25	연금저축 가입한도액 대한 질의	상담.안내
2072	2009-05-25	신용정보사와 희망모아의 잘못된 정보공개를 고발합니다	상담.안내
2073	2009-05-25	죽기직전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074	2009-05-25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075	2009-05-26	생활고 도움요청	상담.안내
2076	2009-05-26	자산관리공사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관련	상담.안내
2077	2009-05-26	정말 신용 회복 이래도 되나요?	상담.안내
2078	2009-05-26	채무 번재로 인한 마음에 상처는 어떻게 하실건지,.....	상담.안내
2079	2009-05-26	정리금융공사 채권추심에 대한 조사 요청	상담.안내
2080	2009-05-26	화재로 인한채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조치	상담.안내
2081	2009-05-26	채무불이행자 금융지원 관련	상담.안내
2082	2009-05-26	공매도 관련 의견 표명	해결
2083	2009-05-27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국세환수를 위한 공매처리시 공유자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감정평가이의	상담.안내
2084	2009-05-27	수표발행 수수료를 없애 주세요	상담.안내
2085	2009-05-27	서민 금융 정책	상담.안내
2086	2009-05-27	악덕사채	상담.안내
2087	2009-05-27	창업자금 대출 관련	상담.안내
2088	2009-05-27	채무잔액감면약속불이행	상담.안내
2089	2009-05-27	신용회복 위원회는 누구 위해 만든건지요	상담.안내
2090	2009-05-27	죄없는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자체종결
2091	2009-05-27	배드뱅크 회원이 이해못하는 처사들...	정책제안
2092	2009-05-27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행 조치 등	상담.안내
2093	2009-05-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자체종결
2094	2009-05-27	채무자관련하여 방치한 희망모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095	2009-05-27	대부업 벌금형으로인한 등록증 취소에 관하여	상담.안내
2096	2009-05-27	신용정보 삭제요청에 대한건	상담.안내
2097	2009-05-27	중소기업 어려움 극복 도움요청	상담.안내
2098	2009-05-28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099	2009-05-28	지급명령서	상담.안내
2100	2009-05-28	빛과 간난의 대물림을 막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2101	2009-05-28	신용회복과 관련사항	상담.안내
2102	2009-05-28	메신저 피해 해결방법 문의	해결
2103	2009-05-28	신용회복(대출가늌어부확인)	상담.안내
2104	2009-05-28	어떻게해야걱정있고궁금해요	상담.안내
2105	2009-05-28	개인회생중 추심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이 급니다.	상담.안내
2106	2009-05-28	신용 회복	상담.안내
2107	2009-05-28	주식시장 관련 제도 마련 요청	상담.안내

2108	2009-05-28	채권회수의 횡포	상담.안내
2109	2009-05-29	금융기관 이중 인출을 막아 주십시오.	상담.안내
2110	2009-05-29	존경 하옵시는 대통령각하	상담.안내
2111	2009-05-29	파산진행중 채무독촉관련건	상담.안내
2112	2009-05-29	채무 상환 문제	상담.안내
2113	2009-05-29	나도 좀 숨을 돌리수 있는 여유가?	상담.안내
2114	2009-05-29	금융권 대출관련	상담.안내
2115	2009-05-29	사채에 간해서	상담.안내
2116	2009-05-29	대부업 관련'행정처분 질의	상담.안내
2117	2009-05-29	방법좀알려주세요	상담.안내
2118	2009-05-29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19	2009-05-29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20	2009-05-29	한 면책자의 고충입니다.	상담.안내
2121	2009-06-01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규정의 불평등 조항	해결
2122	2009-06-01	주식공매도제도 시행 반대	해결
2123	2009-06-01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상담.안내
2124	2009-06-01	이건 도저히..	상담.안내
2125	2009-06-01	도움요청합니다	상담.안내
2126	2009-06-01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록이 2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상담.안내
2127	2009-06-01	기초수급자 신용회복기금 왜안대나요?	상담.안내
2128	2009-06-01	조정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129	2009-06-01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국제환수를 위한 공매처리시 공유자의 재산권보호및 감정평가에대한 이익	상담.안내
2130	2009-06-01	사전채무조정관련	상담.안내
2131	2009-06-01	기술신용보증기금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상담.안내
2132	2009-06-01	상장 폐지	해결
2133	2009-06-01	교보생명 관련 민원회신에 대한 의문제기	상담.안내
2134	2009-06-02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 양도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안내
2135	2009-06-02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136	2009-06-02	독촉...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137	2009-06-02	대출보증선치	상담.안내
2138	2009-06-02	신용평가부당	상담.안내
2139	2009-06-02	아파트 매각을 통하여 사업체 구조조정을 하려는데 진짜 안되는 것인지요	상담.안내
2140	2009-06-02	파산 면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	상담.안내
2141	2009-06-02	남을주신용협동조합 대출건	상담.안내
2142	2009-06-02	기술보증기금 채권 추심 관련(채민원)	상담.안내
2143	2009-06-02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144	2009-06-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상담.안내
2145	2009-06-02	이중가면의 무서움....	상담.안내
2146	2009-06-02	대출이자 과다	자체종결
2147	2009-06-02	궁금하고 도움 좀 청하려고요~!	상담.안내
2148	2009-06-03	투자권유대행인의 랩어카운트판매	상담.안내
2149	2009-06-0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 및 은행법 제38조 제5호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종결
2150	2009-06-03	고금리전환대출	상담.안내
2151	2009-06-03	기회 마지막 기회(대통령님 보세요)	상담.안내
2152	2009-06-03	자동차처리불만	자체종결
2153	2009-06-03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 요청의 건	상담.안내
2154	2009-06-0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해결
2155	2009-06-0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해결
2156	2009-06-03	대출을 하고싶어요	상담.안내
2157	2009-06-03	군동농협에서 농신보 보증인 을 임의로 세워서 채무자의 부채를 상환 받은건	자체종결
2158	2009-06-03	대부업으로 부터 불법추심의 모욕과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담.안내
2159	2009-06-03	납입금지금	자체종결
2160	2009-06-04	보증	상담.안내
2161	2009-06-04	불법추심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상담.안내
2162	2009-06-04	무등록 대부업 관련(고금리 사채이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163	2009-06-04	지방화와 신용회복	상담.안내
2164	2009-06-04	서민을 죽이는 시간	상담.안내
2165	2009-06-04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시정요청 및 고발	상담.안내
2166	2009-06-04	신용불량	상담.안내

2167	2009-06-05	범죄자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상담.안내
2168	2009-06-05	금융권을 떠도는 투자확인서에 대한 질문	해결
2169	2009-06-05	신용회복기금... 정말 꼭 필요합니다.	상담.안내
2170	2009-06-05	연대보증인 구제	상담.안내
2171	2009-06-05	연체기록 유지기간 단축 요청	상담.안내
2172	2009-06-05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조정 관련	상담.안내
2173	2009-06-05	공동주택 화재보험 관련	상담.안내
2174	2009-06-05	무슨제도가 이렇지....	상담.안내
2175	2009-06-05	호소합니다	상담.안내
2176	2009-06-05	하자이행증권	상담.안내
2177	2009-06-05	자산관리공사의 DTI규제규정을 재검토요망.	상담.안내
2178	2009-06-08	자동차 보험료 변경에 관하여...	상담.안내
2179	2009-06-08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2180	2009-06-08	인터넷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 문의	해결
2181	2009-06-08	증권거래법위반등	상담.안내
2182	2009-06-08	신용등급 적용의 불합리성	상담.안내
2183	2009-06-08	호소문	해결
2184	2009-06-08	네오리소스 정리매매 가처분청건	해결
2185	2009-06-08	신용보증기금의 Fast track 자금지원의 조속한 실시 요구	상담.안내
2186	2009-06-08	4금융권의 보증채무로 인한 만원	상담.안내
2187	2009-06-09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을 없앤것에 반대합니다.	해결
2188	2009-06-09	서민(저소득층및 생계형 사업자및 저신용자)들의 위한 정부정책 인 캠프의 환승론	해결
2189	2009-06-09	세계은행 창립 관련	상담.안내
2190	2009-06-09	서민전세자금대출,, 왜만든건지요...???...	상담.안내
2191	2009-06-09	대출	해결
2192	2009-06-09	동장을 압류해서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ㅠㅠ	상담.안내
2193	2009-06-09	은행거래내역에 관해서 ....	해결
2194	2009-06-09	금융질서문란자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2195	2009-06-09	금융질서문란자 기록 삭제 관련	상담.안내
2196	2009-06-09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꼭 보셔야 합니다 !	상담.안내
2197	2009-06-10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이첩한 사유(교보생명 보험 관련)	상담.안내
2198	2009-06-10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기록 삭제후 재기제 삭제요청	상담.안내
2199	2009-06-10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200	2009-06-10	자산관리공사 채무 유예	상담.안내
2201	2009-06-10	외감법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질의	해결
2202	2009-06-10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가 왔네요.	상담.안내
2203	2009-06-10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해결
2204	2009-06-10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	상담.안내
2205	2009-06-10	제2금융에 대출받은적이 없는데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안내
2206	2009-06-10	(주)코어세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공정시장과-851.2008.5.27일자)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207	2009-06-11	답장이 없어 다시 보냅니다.	상담.안내
2208	2009-06-11	중소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상담	상담.안내
2209	2009-06-11	주택 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2210	2009-06-11	개인정보 누출	자체종결
2211	2009-06-11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민원	상담.안내
2212	2009-06-11	기 제출 민원 관련(1BA-0906-015705 관련)	상담.안내
2213	2009-06-1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14	2009-06-11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15	2009-06-11	서민금융지원 관련	상담.안내
2216	2009-06-11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상담.안내
2217	2009-06-11	LED조명 방열기술에 관하여서는 세계 그 누구와도 견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2218	2009-06-12	주택금융공사 횡포	상담.안내
2219	2009-06-12	은행이의	상담.안내
2220	2009-06-12	채무조정에 관하여	상담.안내
2221	2009-06-12	산업은행의 출자 거부 관련	상담.안내
2222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 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3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 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4	2009-06-12	파산 면책자를 7년동안 묶어 두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상담.안내
2225	2009-06-12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상담.안내
2226	2009-06-12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인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27	2009-06-12	Fast track 자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상담.안내
2228	2009-06-12	소비자 현혹 후 신용 조회	상담.안내

2229	2009-06-12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상담.안내
2230	2009-06-12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장???	상담.안내
2231	2009-06-12	신용협동조합법 유권 해석 관련	상담.안내
2232	2009-06-15	한국주택금융공사회포	상담.안내
2233	2009-06-15	민원제기 합니다	상담.안내
2234	2009-06-15	금융감독위원님 보아주세요	상담.안내
2235	2009-06-15	대환대출이 가능한지요..	상담.안내
2236	2009-06-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상담.안내
2237	2009-06-15	공모증자시에도 ELS의 기준가조정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요청	해결
2238	2009-06-15	기술보증 신청 관련	상담.안내
2239	2009-06-15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관련	상담.안내
2240	2009-06-15	호소	자체종결
2241	2009-06-15	금융위원회 답변 똑바로 해라	상담.안내
2242	2009-06-1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43	2009-06-15	금융감독원 제재업무 공정여부 확인 요청	해결
2244	2009-06-15	부당한 직원행사 관련 진정서	상담.안내
2245	2009-06-16	탄원서를 올립니다.	상담.안내
2246	2009-06-16	ㅇㅇㅇㅇ	자체종결
2247	2009-06-16	의료실비 기존가입자 보장축소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2248	2009-06-16	예금보험공사의 압류 처분의 정당성 여부	상담.안내
2249	2009-06-16	체납세 계좌압류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요청 가능 여부 질의	해결
2250	2009-06-17	고금리전환대출시정	해결
2251	2009-06-1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장여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252	2009-06-17	법인에 대하여 대출실행시 고용대표이사 변경시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하여	상담.안내
2253	2009-06-17	모기자문 관련(실질적인 1주택자)	상담.안내
2254	2009-06-17	신용회복위원회의의 표리부동(황당함)	상담.안내
2255	2009-06-17	농림수산자산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2256	2009-06-17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고통지 관련	자체종결
2257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58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59	2009-06-17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관련	상담.안내
2260	2009-06-17	산업은행의 출자 협조 요청	상담.안내
2261	2009-06-17	주가 액면분할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정책제안
2262	2009-06-17	압류해제	상담.안내
2263	2009-06-18	전세자금 융자 지원건	상담.안내
2264	2009-06-18	학자금대출	상담.안내
2265	2009-06-18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빚좋은 개살구 II, II	상담.안내
2266	2009-06-18	신용보증기금 채무연장 거부 관련	상담.안내
2267	2009-06-18	신용보증기금 보증 해제 요청	상담.안내
2268	2009-06-18	민원내용의 보완	상담.안내
2269	2009-06-18	억울합니다.	해결
2270	2009-06-18	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271	2009-06-18	악독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 좀 막아주세요	상담.안내
2272	2009-06-18	PF 대출 건에관한사항	상담.안내
2273	2009-06-18	억울합니다.	해결
2274	2009-06-18	원원 쌍용 제일차 유동화회사	상담.안내
2275	2009-06-18	회사가 잘못하면 거래소에선 상장폐지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폐지하면 누가 죽나요?	해결
2276	2009-06-18	아래 사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상담.안내
2277	2009-06-19	공매처분 이의	상담.안내
2278	2009-06-19	긴급 탄원서	해결
2279	2009-06-19	생활자금대출	상담.안내
2280	2009-06-19	계좌추적 어떠한 절차로 진행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결
2281	2009-06-19	못 믿을 정부 금융정책	상담.안내
2282	2009-06-1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고 통지 관련	자체종결
2283	2009-06-19	채무불이행자로 몰고가려 하나요?...	상담.안내
2284	2009-06-22	보험업법 관련 문의	상담.안내
2285	2009-06-22	증권사 상장공모시 청약자격 차별 및 배정차별에 대한 문의	해결
2286	2009-06-22	키움증권사 hts프로그램 정보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자체종결
2287	2009-06-22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체종결
2288	2009-06-22	소액대출질문요	상담.안내
2289	2009-06-22	공무원분들 실적 올리기예 희생양이 된겁니까...	상담.안내
2290	2009-06-22	세상이 싫습니다...	해결

2291	2009-06-22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이참시키지말고 봐주세요 (네오리소	해결
2292	2009-06-22	총리님 꼭읽어주세요(네오리소스)	해결
2293	2009-06-22	네오리소스 상폐관련하여~~	해결
2294	2009-06-22	회사로전화하여서 급여압류한다고 협박및3자에게 채무사실을알리고 협박하네요.	상담.안내
2295	2009-06-22	엔화대출 업체입니다.	상담.안내
2296	2009-06-22	코스닥등록기업 네오리소스 주주입니다.	해결
2297	2009-06-22	은행 대출상품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회기록, 신용도 반영을 없애주세요	상담.안내
2298	2009-06-22	어려운 국민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희망모아'	상담.안내
2299	2009-06-22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한 승인 여부 확인 요청	해결
2300	2009-06-22	신용불량조회	상담.안내
2301	2009-06-22	가처분취소요청건	상담.안내
2302	2009-06-22	휴대폰단말기대금	상담.안내
2303	2009-06-23	선납보험료 취소!	자체종결
2304	2009-06-23	대출 보증 기한 연장	자체종결
2305	2009-06-23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 관련	상담.안내
2306	2009-06-23	소액금융대출	상담.안내
2307	2009-06-23	주식공매도 공개	상담.안내
2308	2009-06-23	금융자격증 취득과 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309	2009-06-24	채무구상금 손해액 구제신청	상담.안내
2310	2009-06-24	신용보증기금 보증인 교체 신청	상담.안내
2311	2009-06-24	예금보험공사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자체 내부 법령 위반 고발	상담.안내
2312	2009-06-24	저소득자대출	상담.안내
2313	2009-06-25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314	2009-06-25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는 지 궁금하군요..	상담.안내
2315	2009-06-25	기술보증기금 채무정리에 대한 변제순위 지정의회의 건	상담.안내
2316	2009-06-25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개선 건의	상담.안내
2317	2009-06-25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318	2009-06-25	대출문의건	상담.안내
2319	2009-06-25	금융실명법 위반행위란?	해결
2320	2009-06-25	수급자	상담.안내
2321	2009-06-26	신탁업 관련 법령 질의	해결
2322	2009-06-26	금융감독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하고 신용회복 조치 청원	상담.안내
2323	2009-06-26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담.안내
2324	2009-06-29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한 법령제정	상담.안내
2325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자체종결
2326	2009-06-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27	2009-06-29	실손의료비촉소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결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안내
2328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2329	2009-06-29	서민 대출 관련	해결
2330	2009-06-29	신용불량자 관련	상담.안내
2331	2009-06-29	대부업자의 부당이익금 계산	상담.안내
2332	2009-06-29	개인회생대출	상담.안내
2333	2009-06-29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334	2009-06-29	보험금 환급	자체종결
2335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	상담.안내
2336	2009-06-29	예금 보험공사 경매취하요청에 도움 주세요... 200여명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	자체종결
2337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 주영한 팀장과 정상훈 차장의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38	2009-06-29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변경요청	상담.안내
2339	2009-06-29	자산관리공사전환대출에관하여!!	해결
2340	2009-06-29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상에 문제점	해결
2341	2009-06-29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342	2009-06-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43	2009-06-29	채권수임 통지 및 채무상환	상담.안내
2344	2009-06-29	네오리소스소액투자자입니다.	해결
2345	2009-06-29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제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2346	2009-06-29	말로만신용불량을위하시느군요	상담.안내
2347	2009-06-3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348	2009-06-30	증권결제 시스템 문제점	해결
2349	2009-06-30	대봉신탁 관련	상담.안내

2350	2009-06-30	일본 돈 환산 지급 요망	자체종결
2351	2009-06-30	민원처리 연장관련	해결
2352	2009-06-30	신용불량자 가장을 위한 금융정책은 없는지요?	상담.안내
2353	2009-06-30	개인회생자 담보대출 은행이자 문제점	상담.안내
2354	2009-06-30	경제적 살인범들 잡아주세요	해결
2355	2009-06-30	억울한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해결
2356	2009-06-30	코스닥 사기 피해 도와 주세요	해결
2357	2009-06-30	단위농협업무처리	자체종결
2358	2009-06-30	감사보고서 적정여부 확인	해결
2359	2009-06-3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업무 처리 관련	상담.안내
2360	2009-06-30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입보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	상담.안내
2361	2009-06-30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입보로 인한 피해 방지 요청	상담.안내
2362	2009-06-30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불법추심에 관한 민원	상담.안내
2363	2009-06-30	질의	자체종결
2364	2009-06-30	대전둔산동 신용보증기금의 횡포에대한 고충	상담.안내
2365	2009-06-30	1AA-0906-032708 질의에 대한 불통보건	상담.안내
2366	2009-06-30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상담.안내
2367	2009-06-30	민원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상담.안내
2368	2009-06-30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불법추심에 관한 민원	상담.안내
2369	2009-06-30	면책자에 대한 완전복권	상담.안내
2370	2009-06-30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상담.안내
2371	2009-06-30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재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2372	2009-07-01	면책자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십시오!	상담.안내
2373	2009-07-01	제발 진상을 밝혀 주세요. 사기꾼들이 잘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해결
2374	2009-07-01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2375	2009-07-01	여기가 마지막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
2376	2009-07-01	도와주십시오 ..절망스럽습니다.	해결
2377	2009-07-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매각의 부당한 계약집행에 대한 민	상담.안내
2378	2009-07-01	자산관리공사에 집이 넘어갔는데 은행이자보 더 비싸네요..서민	상담.안내
2379	2009-07-01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위한 제도 개선 요망입니다.	상담.안내
2380	2009-07-01	은행연합회 전산기록 미삭제 관련	상담.안내
2381	2009-07-0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압류처분 및 구상금 청구 소	상담.안내
2382	2009-07-01	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압류처분 및 구상금 청구 소	상담.안내
2383	2009-07-02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에게 너무나 행정	상담.안내
2384	2009-07-02	신용회복지원자 대출에 대해서	상담.안내
2385	2009-07-02	서민금융	상담.안내
2386	2009-07-02	신용보증기금 채권 추심팀의 횡포	상담.안내
2387	2009-07-02	주택담보대출 규제	상담.안내
2388	2009-07-02	상장폐지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호소문	상담.안내
2389	2009-07-02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저희들 모두 힘을 뭉쳐 싸워 봅니다!!!	해결
2390	2009-07-02	솔로몬 캐피탈의 대출과정 업무처리 불량및 상담자 불친절	상담.안내
2391	2009-07-02	다시 일어설수 없는 파산 면책자의삶	상담.안내
2392	2009-07-02	질의	상담.안내
2393	2009-07-02	은행연합회 금융범죄자 코드는 언제쯤 없어 지나요.(금감위)	상담.안내
2394	2009-07-02	제3자에게 전화해 번제 요청	상담.안내
2395	2009-07-02	고객정보누락 및 고객정보유용	상담.안내
2396	2009-07-02	휴면 주식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해결
2397	2009-07-02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2398	2009-07-02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관련	상담.안내
2399	2009-07-02	상속의무 없는자에게 상속 주장하며 불법채권추심하는 연합에셋	상담.안내
2400	2009-07-02	(유) 고발	상담.안내
2401	2009-07-02	약8-9년전에해지한인터넷 아직 안넌돈이었다고 연락이계속옵니	상담.안내
2402	2009-07-02	공인회계사 부정행위 주장 관련 탄원서	자체종결
2403	2009-07-02	채권자에게 돈받고도 신용회복을 안시켜주세요	상담.안내
2404	2009-07-03	영세민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405	2009-07-03	창업 자금 지원 등급 심사 관련	상담.안내
2406	2009-07-03	저 소득층 지원과 신용정보건에 관하여....	상담.안내
2407	2009-07-03	민원제기로 인해 지연된 아파트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담.안내
2408	2009-07-03	협조 요청	상담.안내
2409	2009-07-03	억울하고 분통해서 한번더 글을올립니다 .... 한번만 도와주세	상담.안내
2410	2009-07-03	요..... 연락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11	2009-07-03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한번더 글을 올립니다 꼭한번더연락부탁	상담.안내
2412	2009-07-03	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2409	2009-07-06	일본 화폐 환산 지급 관련 진정	자체종결
2410	2009-07-06	과거 신용불량자는 신용을 회복해도 5 년동안 전과자 인가?	상담.안내
2411	2009-07-06	핸드폰 결제 유도(신용카드 결제 불가)	해결
2412	2009-07-06	보증 채무 관련	상담.안내
2413	2009-07-06	실손보험보장 축소	상담.안내
2414	2009-07-06	주식을 찾고 싶은데요	해결
2415	2009-07-06	대부업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416	2009-07-06	배우자에 대한 일상가사채무금 부당청구	상담.안내
2417	2009-07-06	신용회복 중인 사람의 문제점	상담.안내
2418	2009-07-06	실손의료비 보장금액 축소 반대	상담.안내
2419	2009-07-06	법외유연성	자체종결
2420	2009-07-06	공공기금의 가재도구 가압류의 부당성에 대하여	자체종결
2421	2009-07-06	택시기사입니다	상담.안내
2422	2009-07-06	기초수급자신용회복지원	상담.안내
2423	2009-07-06	LTV,DTI 확대시행시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	상담.안내
2424	2009-07-06	전세집이 자산공사로.....	상담.안내
2425	2009-07-07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에게 너무나 행정	상담.안내
2426	2009-07-07	파름 토하고 울화가 치밀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정말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상담.안내
2427	2009-07-07	stx그룹	해결
2428	2009-07-07	한국 주택공사직원 인지? 사채업자수준입니다..	상담.안내
2429	2009-07-07	저소득층 소액대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430	2009-07-07	금융위원회 점검 관련	상담.안내
2431	2009-07-07	기보, 신보 관련 연대보증 해제 요청	상담.안내
2432	2009-07-07	대부업체 대출 이자율 관련	상담.안내
2433	2009-07-07	교보생명보험사와의 분쟁 관련	상담.안내
2434	2009-07-08	생,손 통합장해분류표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상담.안내
2435	2009-07-08	파산신청이후	상담.안내
2436	2009-07-08	과거 신용불량자 조회삭제 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안내
2437	2009-07-08	소외계층대출	상담.안내
2438	2009-07-08	채무 변제	상담.안내
2439	2009-07-08	배우자신용정보조회	상담.안내
2440	2009-07-08	오페라하우스비상대책	상담.안내
2441	2009-07-08	손해사정사 선임의무	상담.안내
2442	2009-07-08	사채업자보다 더한 한나라 상호 저축은행에 만행에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체종결
2443	2009-07-08	사업자 신용불량	상담.안내
2444	2009-07-08	너무 억울합니다 희망모아에서 해달라는되로 해 주고도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상담.안내
2445	2009-07-08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관련의 건	상담.안내
2446	2009-07-08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제도 운영 관련	상담.안내
2447	2009-07-08	금융감독원에서 간접사건 피해자 와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회복 회생 조치 요망	상담.안내
2448	2009-07-08	상황을 해도 신용회복은 될수 없단 말입니까?!	상담.안내
2449	2009-07-08	신용회복기금의 횡포	상담.안내
2450	2009-07-08	서민을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베드뱅크의채권권리	자체종결
2451	2009-07-0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관한 단상	상담.안내
2452	2009-07-09	보험업법 제 185조	상담.안내
2453	2009-07-09	도와주세요 워크아웃부동의로 인한 민원신청입니다	상담.안내
2454	2009-07-09	예전 대환대출 정보 다른 신용회사에 남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상담.안내
2455	2009-07-09	질의	상담.안내
2456	2009-07-09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의 과다 부과 및 예치금	자체종결
2457	2009-07-09	보험업법 제4조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2458	2009-07-09	기보, 신보 연대보증 해지 관련	상담.안내
2459	2009-07-09	금융분쟁 재조정 신청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 시정 요청	자체종결
2460	2009-07-09	금융질서문란자...삭제기간완화	상담.안내
2461	2009-07-09	제목: 증권시장의 암적 존재 실제피악을 호소 합니다	해결
2462	2009-07-10	법령해석 요청	해결
2463	2009-07-10	주택담보대출규제 서민피해 고려해야.....	상담.안내
2464	2009-07-10	한국회계기준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의뢰	해결
2465	2009-07-10	금융거래 적법여부 질의	해결
2466	2009-07-10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문의(코스닥 베리맨모어(088810))	해결
2467	2009-07-10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간 신한카드값	상담.안내
2468	2009-07-10	저즘 살려 주세요 ㅠ.ㅠ	상담.안내



2469	2009-07-10	개인 신용 등급으로 인한 카드 발급 문제점	상담.안내
2470	2009-07-10	보험설계사 해고 관련	상담.안내
2471	2009-07-10	주관련 법령명	상담.안내
2472	2009-07-10	손해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및 실손의료비 혜택비율 인하조정 반	상담.안내
2473	2009-07-10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개정법령 이란...??	상담.안내
2474	2009-07-10	한마음 금융 채무변제에 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75	2009-07-10	채 무관련(2차)	상담.안내
2476	2009-07-10	국가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상담.안내
2477	2009-07-10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2478	2009-07-10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479	2009-07-10	BHK	상담.안내
2480	2009-07-13	자산관리공사이의	해결
2481	2009-07-13	개인의 금융실명거래 처벌 관계	해결
2482	2009-07-13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 여부	상담.안내
2483	2009-07-13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상담.안내
2484	2009-07-13	서민 무보증소액대출에대해서,	상담.안내
2485	2009-07-13	신용보증기금 보증거절에 대한 기가막힌 사연....	상담.안내
2486	2009-07-13	한국주택금융공사 연체료	상담.안내
2487	2009-07-13	탄원서	상담.안내
2488	2009-07-13	경매 관련 선처호소	상담.안내
2489	2009-07-13	(은행연합회).문의	자체종결
2490	2009-07-13	담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491	2009-07-13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상담.안내
2492	2009-07-13	사채업자때문에 죽음을부른사건에대한의논	상담.안내
2493	2009-07-13	간절한 마음!!!	상담.안내
2494	2009-07-14	가정파탄 권하는 사회	상담.안내
2495	2009-07-14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자체종결
2496	2009-07-14	실업자인데,,대출을 받을수가 없어서,,결국엔 금리 40% 사금융를 바라보게 되네요...	상담.안내
2497	2009-07-14	신용등급에대한 사면의건	상담.안내
2498	2009-07-14	500만원 대출 받기 힘드네요	자체종결
2499	2009-07-14	L.C.L	자체종결
2500	2009-07-1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등재 처사에 대하여	상담.안내
2501	2009-07-15	대출 관련	상담.안내
2502	2009-07-15	금융사 대출조치시	상담.안내
2503	2009-07-15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한 재산 조화 관련...	해결
2504	2009-07-15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한 예금압류 관련..	해결
2505	2009-07-15	대출을받고싶은 데 신용정보 때문에	상담.안내
2506	2009-07-15	신용회복 제도에 대하여	상담.안내
2507	2009-07-15	카드빚을 갚으려하였는데....	자체종결
2508	2009-07-15	신용 회복 요청	상담.안내
2509	2009-07-15	신용조회	상담.안내
2510	2009-07-15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회 가족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나가랍니	상담.안내
2511	2009-07-15	친권자와 은행	해결
2512	2009-07-15	예금보통공사에 긴급하고 간절한 진정 및 탄원 올립니다...[탄원	해결
2513	2009-07-1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대보증과 신용회복 및 원리금 갚면 건	상담.안내
2514	2009-07-16	전환대출 확대건...연체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2515	2009-07-16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채무 조정 에 관한 무성의 한 정책	상담.안내
2516	2009-07-16	가압류를 풀어주세요	상담.안내
2517	2009-07-16	지속만원(3차)	상담.안내
2518	2009-07-16	이명박대통령력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금융위	상담.안내
2519	2009-07-16	채무상환 관련	상담.안내
2520	2009-07-16	교환사채에 대해서	해결
2521	2009-07-16	정말 사기가 판치고 서민들은 살길이없네요.....	상담.안내
2522	2009-07-16	신용회복 관련	상담.안내
2523	2009-07-16	신용회복지원	상담.안내
2524	2009-07-16	법을잘모르는어머님의고통	상담.안내
2525	2009-07-16	대출 관련	상담.안내
2526	2009-07-16	지급보증특약해지시 신용보증기금의 사실확인	상담.안내
2527	2009-07-16	대통령각하	상담.안내
2528	2009-07-16	선물거래시 증거금제도가 꼭필요한건가?	해결
2529	2009-07-17	신용등급과 저신용자 대출	상담.안내
2530	2009-07-17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농,수협 가입 가능여부 문의	상담.안내
2531	2009-07-20	서민 신용대출의 공염불!	상담.안내

2532	2009-07-20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상담.안내
2533	2009-07-20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해결
2534	2009-07-20	위법행위 신고	해결
2535	2009-07-2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상담.안내
2536	2009-07-20	금융위원회에대한민원.	상담.안내
2537	2009-07-20	3금융권 대출이자에 대하여....	상담.안내
2538	2009-07-20	금융감독원의 최종입장	자체종결
2539	2009-07-20	민원접수 연장 처리기간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상담.안내
2540	2009-07-20	신용불량자도 대출좀 받을수없나요	상담.안내
2541	2009-07-20	녹색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관련	자체종결
2542	2009-07-20	빚을 갚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상담.안내
2543	2009-07-20	카드소액결제 안해주면신고한다?	해결
2544	2009-07-20	정부주도 저신용자지원	상담.안내
2545	2009-07-20	공적자금 백서 구입 관련 문의	상담.안내
2546	2009-07-21	생계지원 호소	상담.안내
2547	2009-07-21	여신전문 금융업상 등록회사와 전자금융업법상 등록회사간 결제 대행회사의 등록현황	해결
2548	2009-07-21	문자메세지에 속은 운전면허증 팩스사건	해결
2549	2009-07-21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550	2009-07-21	조금더 친절 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종결
2551	2009-07-21	*신용회복이 신용을 막는다	상담.안내
2552	2009-07-21	서민지원 말로만 하지말라!	상담.안내
2553	2009-07-21	저신용자 대출에 대하여.....	상담.안내
2554	2009-07-22	금융기관의 영세 상공인들 전세금 환불 탄원서	상담.안내
2555	2009-07-22	제3금융권 대출이자에 대하여....	상담.안내
2556	2009-07-22	대부업 등록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질의	상담.안내
2557	2009-07-22	자산관리공사이의	상담.안내
2558	2009-07-22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친의 상속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상담.안내
2559	2009-07-22	과태료 체납처분	해결
2560	2009-07-22	신용보증기금이의	자체종결
2561	2009-07-22	서민 죽이려는 한마을 금융	상담.안내
2562	2009-07-22	(구)증권업감독규정에 대한 질의	해결
2563	2009-07-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해결
2564	2009-07-22	자산관리공사 채무 조정 요청	상담.안내
2565	2009-07-22	예금보험공사이의	상담.안내
2566	2009-07-22	창업및 일자리창출사업이 실효성이 없는이유 현장에서 다시 소외 되는 이들	상담.안내
2567	2009-07-23	대출선처	상담.안내
2568	2009-07-23	도서 송부의뢰	상담.안내
2569	2009-07-23	부채상환카드도입제	해결
2570	2009-07-23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팀 채권관리 1팀의 채부자 가족의 불법 신용정보조화에 대한 민원제기	상담.안내
2571	2009-07-23	자산관리공사 채무 상환시일 연장 요청	상담.안내
2572	2009-07-23	2005년 파산면책후 아직까지도 채무상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2573	2009-07-23	정리금융감사실 직원의 기만적인 응대와 범비용증대	상담.안내
2574	2009-07-23	민원번호 1AA-0907-051149 추가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575	2009-07-23	제가 당하고 있는 채권추심이 정당한 것인가요?	상담.안내
2576	2009-07-24	인터넷뱅킹 ActiveX	해결
2577	2009-07-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을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법률해석 요청	해결
2578	2009-07-24	제산상속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담.안내
2579	2009-07-2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2580	2009-07-24	신용 정보 탑재	상담.안내
2581	2009-07-24	파산면책	상담.안내
2582	2009-07-24	대부업 대출 이자율 관련	상담.안내
2583	2009-07-24	무능한 예금보험공사	상담.안내
2584	2009-07-24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585	2009-07-24	대출관련	해결
2586	2009-07-24	거짓말만 하는 금융위원회	상담.안내
2587	2009-07-24	금융회사전체	상담.안내
2588	2009-07-24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힘없는 대학생입니다.	상담.안내
2589	2009-07-24	해피텔레콤(삐삐)요금납부에관한건	상담.안내
2590	2009-07-24	서민을위한 금융???	상담.안내
2591	2009-07-24	파산면책자를 위한 대출을 알려주세요	상담.안내

2592	2009-07-28	이 글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상담.안내
2593	2009-07-28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594	2009-07-28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왜이리 저한텐 해당사항이 없는지..	상담.안내
2595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그날까지	상담.안내
2596	2009-07-28	정리금융공사 감사실 직원의 오만불손한 응대와 과도한 법조처및 법비용발생	상담.안내
2597	2009-07-28	어느 수박장사꾼의 하소연	상담.안내
2598	2009-07-28	담당자의 기만 행위에 분노 하여....	상담.안내
2599	2009-07-28	서민들은 금감원의 실질적인 대부업 조치를 필요로합니다	상담.안내
2600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그날까지	상담.안내
2601	2009-07-28	한국주택금융공사 도둑놈들...	상담.안내
2602	2009-07-28	10년전에 종이장이 되어 버린 동화은행 주식을 찾아 주세요	해결
2603	2009-07-28	한국 증권 거래소의 보복행정 네오리소스 2번 상장 폐지	해결
2604	2009-07-28	나의제안	상담.안내
2605	2009-07-28	다중 채권 매각자의 신용 회복	상담.안내
2606	2009-07-28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607	2009-07-28	신용불량회복지원	상담.안내
2608	2009-07-28	살곳이 없습니다	상담.안내
2609	2009-07-28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시험 자격?	해결
2610	2009-07-28	1201특수코드가 없어지는그날까지	상담.안내
2611	2009-07-28	공제가입 시 '화보법'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인정에 관한 질의	상담.안내
2612	2009-07-28	무주택초회에 관해서	상담.안내
2613	2009-07-28	신용회복제도를 통하여 완제했는데도 신용회복은 불가능합니까?	상담.안내
2614	2009-07-28	세금채납자신용불량통보유예	상담.안내
2615	2009-07-28	현대 백화점에서 무단으로 제 주민 등록 번호로 자동차 보험 만기 일을 알아 봤읍니다.	상담.안내
2616	2009-07-28	전세권(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정분류 등 질의 민원	상담.안내
2617	2009-07-28	백화점 카드 만들때 약관에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점	상담.안내
2618	2009-07-28	베드뱅크의 가혹한 채권 추심이 절망을 부치기는데;;;	상담.안내
2619	2009-07-28	7월17일 어렵게 공공I-PIN 인증까지 받아서 민원을 올렸습시다만 아직까지도	상담.안내
2620	2009-07-28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삭제에 관한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621	2009-07-28	베드뱅크이라는데는 사채업인가????	상담.안내
2622	2009-07-28	민원번호 1AA-0907-047780의 추가 민원입니다.	상담.안내
2623	2009-07-28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상담.안내
2624	2009-07-29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625	2009-07-29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추심 관련	상담.안내
2626	2009-07-29	이동훈주무관님 <1AA-0906-066362> 민원처리 하지도 않고 "처리 완료"라고 하면 안됩니다.	상담.안내
2627	2009-07-29	민원업무처리 위반 등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 통보	자체종결
2628	2009-07-29	개인회생신청 불인가에따른 채무분납신청	자체종결
2629	2009-07-29	조회 기록때문에....	상담.안내
2630	2009-07-29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631	2009-07-29	주택연금 취급부서 및 전화번호 요망	상담.안내
2632	2009-07-29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 부담 및 부동산강제경매 문의	상담.안내
2633	2009-07-29	사업자 대출	상담.안내
2634	2009-07-29	금융감독원 간부비리 조사 요청	자체종결
2635	2009-07-29	저소득 담보대출증	상담.안내
2636	2009-07-29	주택자금 대출 분납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637	2009-07-30	상담원 안내 인지 부족으로 신용등급 하락	자체종결
2638	2009-07-30	신용에관하여	상담.안내
2639	2009-07-30	위법행위신고( 09.7.15. 1AA -0907-035048 호 와 관련입니다)	해결
2640	2009-07-30	제발 살려 주세요.	해결
2641	2009-07-30	가계수표제도개선	상담.안내
2642	2009-07-30	너무 힘듭니다.. T.T	상담.안내
2643	2009-07-30	또라이 집단 예금보험공사	자체종결
2644	2009-07-30	8.15특사때 포함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담.안내
2645	2009-07-30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보내주마	자체종결
2646	2009-07-31	신용상태 양호하나 임대 차(전대),사업자 신뢰감 부족등, 보증신 청반려 내용입니다.	상담.안내
2647	2009-07-31	신용대출에관하여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648	2009-07-31	^^ 도움의 손길	상담.안내
2649	2009-07-31	신용거래정보등제 삭제요청을 독살하고 있어요	상담.안내
2650	2009-07-31	너무 어렵고 힘든일 어디다 하소연 할 때 도 없어 이렇게..	해결

2651	2009-07-31	신용회복기금 채무 상환 절차 관련	상담.안내
2652	2009-07-31	보험업법감독계정과 보험청약거절	상담.안내
2653	2009-07-31	파산면책권	상담.안내
2654	2009-08-03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기준 여부	해결
2655	2009-08-03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 축소	상담.안내
2656	2009-08-03	장기전세주택 임주관련	해결
2657	2009-08-03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자체종결
2658	2009-08-03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미전환수수료 부과 이의제기	상담.안내
2659	2009-08-03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의 형평성에 관하여....	상담.안내
2660	2009-08-03	이번 사면은 신용관련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상담.안내
2661	2009-08-03	채무 어려움 호소	상담.안내
2662	2009-08-03	개인회생 후 모든 신용거래 불가!	상담.안내
2663	2009-08-03	이명박 대통령님께 호소하는글.(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결
2664	2009-08-03	금융위원회 위원님 제발 저의가족 모두를 살려 주십시오..	해결
2665	2009-08-03	진정서	해결
2666	2009-08-03	원드 스카이 소액주주	해결
2667	2009-08-03	(주)원드스카이를 살려주십시오	해결
2668	2009-08-03	(주)원드스카이 소액투자자입니다	해결
2669	2009-08-03	대통령님.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주)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진정서	해결
2670	2009-08-03	대통령 할아버지... 저희가족을 구해주세요	해결
2671	2009-08-03	명의 도용 관련	해결
2672	2009-08-04	의료실비 금감원에서 왜 90%로 내리라고 지시하고 난리야	상담.안내
2673	2009-08-04	마일리지 제도 활용방안 제안	해결
2674	2009-08-04	추가대출	상담.안내
2675	2009-08-04	신용회복을 통한 변제 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승인 거절.	상담.안내
2676	2009-08-04	면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차별정책	상담.안내
2677	2009-08-04	임대아파트 입주금 지원 요청	상담.안내
2678	2009-08-04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캠코 전환대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679	2009-08-04	살려주세요	상담.안내
2680	2009-08-04	저희 친정 큰댁어른들의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담.안내
2681	2009-08-04	개인신용등급을 표시하는 신용평가회사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인 근거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안내
2682	2009-08-04	대부업 제한사유 해당 여부 문의	상담.안내
2683	2009-08-05	신용회복을 위해서	자체종결
2684	2009-08-05	희망모아는 절망모아의 거짓된 이름인가	상담.안내
2685	2009-08-05	희망모아인지 절망모아인지	상담.안내
2686	2009-08-05	꼭 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상담.안내
2687	2009-08-05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 주세요	해결
2688	2009-08-05	억울합니다	해결
2689	2009-08-05	희망이 보이는 회사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해결
2690	2009-08-05	한국거래소에 관한 주식상장 폐지심사결정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결
2691	2009-08-05	주택자금 대출 분납관련입니다.	상담.안내
2692	2009-08-05	당신을 다해드세요	상담.안내
2693	2009-08-05	억울한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오	해결
2694	2009-08-05	강제집행 실행 관련	상담.안내
2695	2009-08-05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관련 조사 요청	자체종결
2696	2009-08-05	캠코환승에 대한 건 입니다.	상담.안내
2697	2009-08-05	저소득자대출문의	상담.안내
2698	2009-08-05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건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질의서	상담.안내
2699	2009-08-05	사금융 자동차 담보대출 때문에 글을 씁니다	상담.안내
2700	2009-08-06	국민우선주 제도 도입	해결
2701	2009-08-06	신용정보법 제 25조	상담.안내
2702	2009-08-06	원드스카이 소액주주입니다. 상폐심사관련해 하소연드립니다.	해결
2703	2009-08-06	개인파산 면책후 신불삭제	상담.안내
2704	2009-08-06	죽기전에 마지막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705	2009-08-0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에 대한건	상담.안내
2706	2009-08-06	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방법	해결
2707	2009-08-06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상담.안내
2708	2009-08-06	힘든 경제여건에 경매 남용 고충신고	상담.안내
2709	2009-08-06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저신용자 전환대출에 대해	상담.안내
2710	2009-08-06	장난질 하는 신용회복 기금 & 우리 은행	상담.안내
2711	2009-08-06	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결

2712	2009-08-06	선처해주세요	해결
2713	2009-08-06	개인의견	상담.안내
2714	2009-08-07	신용거래정보등록자는대출안됨	상담.안내
2715	2009-08-07	신용회복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지원대출이 안되어 막막하니	상담.안내
2716	2009-08-07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17	2009-08-07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토지 임차 관련	자체종결
2718	2009-08-07	저소득층 대출 지원 호소	상담.안내
2719	2009-08-07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처리 관련 불만	상담.안내
2720	2009-08-07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사건 조사 요청	자체종결
2721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횡포 영주	상담.안내
2722	2009-08-10	의료실비 축소정책에 관해	자체종결
2723	2009-08-10	실손의료(민간의료보험) 축소	자체종결
2724	2009-08-10	체크카드의 정의	해결
2725	2009-08-10	억울합니다	상담.안내
2726	2009-08-10	자동차보험 해지	자체종결
2727	2009-08-10	보험모집인의 직위	상담.안내
2728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재산 압류 처분 해지 요청	상담.안내
2729	2009-08-10	법인 통장번호 확인 요청	해결
2730	2009-08-10	대통령 할아버지께	상담.안내
2731	2009-08-10	신용보증기금의 발상의 전환요구	자체종결
2732	2009-08-10	인감도장과 증명서 를 빌려 드렸는데 사망 했어요	상담.안내
2733	2009-08-10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734	2009-08-10	신용카드	해결
2735	2009-08-10	우리나라 대출 이래두 되는건가요	상담.안내
2736	2009-08-11	도와주셔야합니다.법과제도가빈약하여일어나는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	해결
2737	2009-08-11	우이독경 공화국	상담.안내
2738	2009-08-11	"이자율"의 의미?	해결
2739	2009-08-11	엔화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담.안내
2740	2009-08-12	공인회계사 부정행위 주장 관련	해결
2741	2009-08-12	사채업자보다 더 지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안내
2742	2009-08-1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건	상담.안내
2743	2009-08-12	엔화 차입 관련	상담.안내
2744	2009-08-12	약정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745	2009-08-12	신용보증기금 순천지점 1팀장	자체종결
2746	2009-08-12	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요청	상담.안내
2747	2009-08-12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제기	해결
2748	2009-08-12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관련 조사 요청	자체종결
2749	2009-08-12	신용카드사용에대해서	해결
2750	2009-08-12	신불자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상담.안내
2751	2009-08-12	신용등급에관한건	상담.안내
2752	2009-08-12	신용회복 신청자 복권 및 신용카드 사용 건	상담.안내
2753	2009-08-13	카드연체이자탕감방법있나요	상담.안내
2754	2009-08-13	캠코 환승론의 향후 확대진행에 대한 신청	상담.안내
2755	2009-08-13	채무해결 관련	상담.안내
2756	2009-08-13	대통령님 제송합니다 너무힘드 부탁드립니다	상담.안내
2757	2009-08-13	과태료 분할납부가능여부및 소액대출관련문의입니다.	상담.안내
2758	2009-08-13	인터넷뱅킹에 대해 몇마디만 해주세요...	해결
2759	2009-08-13	대출관련	상담.안내
2760	2009-08-13	동부화재 신용정보법 제25조에 의거 자료 서면 화신 요구건	상담.안내
2761	2009-08-13	캠코 전환대출 문의..	상담.안내
2762	2009-08-13	영세민 소액대출	상담.안내
2763	2009-08-13	캠코 전환대출에 대해 민원 접수합니다.	상담.안내
2764	2009-08-13	'정부지원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자체종결
2765	2009-08-13	어이없는 채권추심	상담.안내
2766	2009-08-13	금융소외자 지원조정 에따른 문의	상담.안내
2767	2009-08-13	사채관련...	상담.안내
2768	2009-08-13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체종결
2769	2009-08-14	안녕 하세욤...	상담.안내
2770	2009-08-14	자필서명없는 연대보증인의 의무	상담.안내
2771	2009-08-14	화재보험 설계사좀 먹게살게 해주세요	상담.안내
2772	2009-08-14	거래소프트그램매매사전매매공시제도	해결
2773	2009-08-14	개인회생자 대출제도 마련시급	상담.안내
2774	2009-08-14	저의 신용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상담.안내

2775	2009-08-14	저의 신용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자체종결
2776	2009-08-14	가압류 해지 요망	상담.안내
2777	2009-08-14	전환대출에 관해서	상담.안내
2778	2009-08-14	FX마진거래 관련 금융위의 관리 범위 질의	해결
2779	2009-08-14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안과 우리은행 사기채권 대질 요	자체종결
2780	2009-08-14	전환대출 캠프 민원 신청합니다	상담.안내
2781	2009-08-14	저소득층 융자요청	상담.안내
2782	2009-08-14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중 법인의 실명확인 방법	해결
2783	2009-08-14	교보생명 관련 분쟁 민원	자체종결
2784	2009-08-14	개인회생자 절세정책	상담.안내
2785	2009-08-17	유치권 신고 공시 시정 조치의 건	상담.안내
2786	2009-08-17	채무통합/환승론	상담.안내
2787	2009-08-17	채권, 채무자의 구분 여부	자체종결
2788	2009-08-17	저신용자들을 위한 전환대출에 대해서.	상담.안내
2789	2009-08-17	금융기관의 낙전에 대한 개선	상담.안내
2790	2009-08-17	연채등록금액 조정건	상담.안내
2791	2009-08-17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면제 요청	상담.안내
2792	2009-08-1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으뜸 상호저축은행 회생 지원 건의	해결
2793	2009-08-17	면책기록	상담.안내
2794	2009-08-17	특수기록채권관련	상담.안내
2795	2009-08-17	면책 받았는데 왜 계속 감사 받아야 하나	상담.안내
2796	2009-08-17	특수기록 때문에 살수없다	상담.안내
2797	2009-08-17	생계형 서민대출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는 것이지요?	상담.안내
2798	2009-08-17	지속민원	자체종결
2799	2009-08-17	무조건 대출 된다고 하고 신용조회건수만 올리는 곳	상담.안내
2800	2009-08-18	대출금원납이 지난 후에도 채무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용이 하락되었습니다.	상담.안내
2801	2009-08-18	세금 탈루 관련	상담.안내
2802	2009-08-18	리모델링 공사시 화재보험 가입 여부	상담.안내
2803	2009-08-18	대부업등록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대상 범위	상담.안내
2804	2009-08-18	질의서	상담.안내
2805	2009-08-18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의 황당한 요구로 기업경영이 어렵습니다.	상담.안내
2806	2009-08-18	젊은이의 패기를 꺾는 기술보증기금	자체종결
2807	2009-08-18	대출이 필요해요	상담.안내
2808	2009-08-18	신용회복건	상담.안내
2809	2009-08-18	신용보증기금(제주)	상담.안내
2810	2009-08-18	개인 채무 확인요청	상담.안내
2811	2009-08-18	사이트에 오류가 많아 신고가 무척 어렵고 짜증납니다~!!!!	상담.안내
2812	2009-08-18	대출문의	상담.안내
2813	2009-08-18	윈드스카이 상폐결정	해결
2814	2009-08-18	살려주십시오	상담.안내
2815	2009-08-18	과연 이나라의 거래소는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지?????	해결
2816	2009-08-18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해결
2817	2009-08-18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818	2009-08-18	면책후 7년간의 특수기록	상담.안내
2819	2009-08-18	꼭좀부탁드려여	상담.안내
2820	2009-08-18	자산관리공사 채무 상환 요구 관련	상담.안내
2821	2009-08-18	연체 공유	자체종결
2822	2009-08-19	윈드스카이 상폐 결정에 관한 억울함	해결
2823	2009-08-19	윈드스카이상폐에 대한 부당함 진정	해결
2824	2009-08-19	윈드스카이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만행이다...	해결
2825	2009-08-19	종권 거래소만 믿다가 전재산 날렸습니다	해결
2826	2009-08-19	금융권 융자 요청	상담.안내
2827	2009-08-19	부동산 대출규제 건 개선안 요청및 연봉에따른 세제 혜택 건	상담.안내
2828	2009-08-19	거래소의 부정부패	해결
2829	2009-08-19	정말 돌아버릴정도로 너무하네요	상담.안내
2830	2009-08-19	한국거래소 서종남 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
2831	2009-08-19	거래소 공시 팀장은 너무 합니다. 2009년 반기 회계보고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결
2832	2009-08-19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거래소의 잣대에 여기 선량한 투자자들은 쓰러져 갑니다.	해결
2833	2009-08-19	개미 죽이는 코스닥 거래소 (윈드 스카이)	해결
2834	2009-08-19	상장폐지발표된 윈드스카이(052290)재고요청드립니다	해결

2835	2009-08-19	한국 거래소의 코스닥기업(원드스카이)상폐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결
2836	2009-08-19	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사유	해결
2837	2009-08-19	원드스카이 이렇게 거래소 마음대로 08년도 자료를 가지고 상폐시킬수 없는겁니다.	해결
2838	2009-08-19	거래소직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해결
2839	2009-08-19	(주)원드스카이 상장폐지 결과 이의 제기합니다.	해결
2840	2009-08-19	금융감독원 원장님 제발 이글 읽 어 보세요...	해결
2841	2009-08-19	증권 거래소를 신고 합니다.	해결
2842	2009-08-19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에 주주 한명입니다	해결
2843	2009-08-19	거래소의 상폐기준이 뭔가요.. 힘없는 개미 투자자 죽이기인가	해결
2844	2009-08-19	현 거래소의 횡포	해결
2845	2009-08-19	소액주주입니다.	해결
2846	2009-08-19	거래소의 어처구니 없는 심사에 분노합니다.	해결
2847	2009-08-19	주식회사 원드스카이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감사요청	해결
2848	2009-08-19	주식상장폐지에 대해 의혹	해결
2849	2009-08-19	"금융 거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의 거래 당사자 여부	해결
2850	2009-08-19	한국 증권거래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해결
2851	2009-08-19	코스닥 심사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52	2009-08-19	코스닥 심사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53	2009-08-19	거래소의 횡포가 분명합니다.	해결
2854	2009-08-19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조기상환 이자 관련 문의	상담.안내
2855	2009-08-19	원드스카이 상폐의 억울함 ....	해결
2856	2009-08-20	불합리한 신용보증기금부천지점	자체종결
2857	2009-08-20	저소득층 대출 관련	상담.안내
2858	2009-08-20	원드스카이 상장폐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합니다.	해결
2859	2009-08-20	예탁유가증권 전부명령	자체종결
2860	2009-08-20	국민은행 임대아파트 대출후 특수채권 편입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상권 채무	상담.안내
2861	2009-08-20	한국거래소 서종남 공시관리팀장을 직권남용및 직무유기혐의로 신고합니다	해결
2862	2009-08-20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에 주주 한명입니다	해결
2863	2009-08-20	(주)원드스카이 상장폐지심의 결과에 대해서..	해결
2864	2009-08-20	거래소의 상장폐지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보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해결
2865	2009-08-20	억울합니다.....서민을 죽이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
2866	2009-08-20	증권거래소의 불투명함을 신고합니다.	해결
2867	2009-08-20	저소득층 금융지원 요청	상담.안내
2868	2009-08-20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에 주주 한명입니다	해결
2869	2009-08-20	자산관리공사 업무처리 관련	상담.안내
2870	2009-08-20	소액투자 관련	해결
2871	2009-08-20	거래소의 부정한 상폐심사결정	해결
2872	2009-08-20	증권 거래소의 상장폐지 잣대	해결
2873	2009-08-20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지급관련인 등록 이의제기	상담.안내
2874	2009-08-20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관련 조사 요청	자체종결
2875	2009-08-20	유사 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질의	상담.안내
2876	2009-08-20	## 원드스카이가 말도 안되는 거래소의 전봇대로 인해 죽어갑니다	해결
2877	2009-08-20	원드스카이 재평가 부탁 드립니다.	해결
2878	2009-08-20	중복된 채권압류로 인한 피해	자체종결
2879	2009-08-20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
2880	2009-08-20	신용보증기금시화동지점신해인대리	상담.안내
2881	2009-08-20	2009년 증권거래소의 (주) 원드스카이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해결
2882	2009-08-20	원드스카이 소액주주로서 상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2883	2009-08-21	상장폐지 실질심사	해결
2884	2009-08-21	신용보증기금의 분할상환계약파기의 부당함에 대한처리요청	상담.안내
2885	2009-08-21	거래소의 그릇된 판단과 만행을 고발 합니다.	해결
2886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887	2009-08-21	파산면책자신용불량자 보다못한 삶	상담.안내
2888	2009-08-21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거래소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해결
2889	2009-08-21	거래소 서종남팀장의 주관적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890	2009-08-21	원드스카이 상장폐지에 대해	해결

2891	2009-08-21	한국거래소의 횡포	해결
2892	2009-08-21	한국 거래소는 청와대 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해결
2893	2009-08-21	거래소 횡포!! 정말 억울하고!! 이가갈리고!! 피가 역류합니다.	해결
2894	2009-08-21	개인회생제도	상담.안내
2895	2009-08-21	신용등급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상담.안내
2896	2009-08-21	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해결
2897	2009-08-21	증권거래소와원드스카이	해결
2898	2009-08-21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해결
2899	2009-08-21	증권 거래소의 행포에 서민들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도와 주세	해결
2900	2009-08-21	(주)원드스카이의 위법한 상장폐지심사	해결
2901	2009-08-21	코스닥위원회의 전횡	해결
2902	2009-08-21	거래소에말도안되는 상폐진단 조사해주세요	해결
2903	2009-08-21	거래소의 만행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해결
2904	2009-08-21	거래소에서 상반기 재무보고서도 보지않고 상폐시킨 종목에 주주 한명입니다	해결
2905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 의혹 감사(원드스카이)	해결
2906	2009-08-21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해결
2907	2009-08-21	직권남용 코스닥거래소	해결
2908	2009-08-21	저소득 생계대출 희망	상담.안내
2909	2009-08-21	대한민국 기술이 유출될수도 ...	해결
2910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11	2009-08-21	으뜸상호저축은행 회생 지원 건의	해결
2912	2009-08-21	한국증권거래소의 잘못된 업무	해결
2913	2009-08-21	이럴순없습니다	해결
2914	2009-08-21	앞 뒤 좌우 사방팔방도 모르는 거래소 직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결
2915	2009-08-21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대해 민원 올립니다.	해결
2916	2009-08-21	한국 거래소는 청와대 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해결
2917	2009-08-21	국내 대리인이 해외 체류자에게 대리.인출.송금하는 절차(제안)	상담.안내
2918	2009-08-21	원드스카이(상장사)에 대한 거래소의 만행 폭로	해결
2919	2009-08-21	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 원드스카이	해결
2920	2009-08-21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21	2009-08-24	건물매각으로 인한 분쟁	상담.안내
2922	2009-08-24	7월말 손해보험 보장을축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백지화 or 유예기간 연장 요망	상담.안내
2923	2009-08-24	일수.또는 대부업체	상담.안내
2924	2009-08-24	7월말 손해보험 보장을축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상담.안내
2925	2009-08-24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탕감 및 분할상환 청원에 관한 건	상담.안내
2926	2009-08-24	신용불량해제	상담.안내
2927	2009-08-24	한국 거래소 공지 위반입니다...	해결
2928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렇게 위법하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해결
2929	2009-08-24	(주)한국거래소의 불법적인 (주)원드스카이 상장폐지 시도를 무효화 해 주십시오	해결
2930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주)원드스카이와 주주들에 대한 위법행위 일정내역표	해결
2931	2009-08-24	동일채권에 대한 이중채권행사에 관한 피해	상담.안내
2932	2009-08-24	원드스카이 상장폐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해결
2933	2009-08-24	보험계약에 대한 해제요망	상담.안내
2934	2009-08-24	신용불량자(연체자)에게도 금융권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배려를 하여주십시오.	상담.안내
2935	2009-08-24	(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원드스카이에 한 만행을 파악하여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	해결
2936	2009-08-24	거래소- 상장폐지에 관해	해결
2937	2009-08-24	저당차량 소유로 폐차를 못해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	상담.안내
2938	2009-08-24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압류로 인한 피해	상담.안내
2939	2009-08-24	상장회사 원드스카이 의 억울함, 분통함...	해결
2940	2009-08-24	각하 단 한번만이라도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해결
2941	2009-08-24	전세자금 대출 관련 신용불량 문제	상담.안내
2942	2009-08-24	의료실비보험 적용 규정에 대해서..	상담.안내
2943	2009-08-24	거래소 횡포!! 정말 억울하고!! 이가갈리고!! 피가 역류합니다.	해결
2944	2009-08-25	거래소에서 상폐이유를 공시하지도 않고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해결
2945	2009-08-25	파산 후 면책받은 사람들에게도 서민소액대출 기회를 주세요	상담.안내
2946	2009-08-25	국민제안	상담.안내



2947	2009-08-25	코스닥 공시됨 상폐 면제 기업과 윈드 스카이 비교.	해결
2948	2009-08-25	코스닥 주 윈드스카이관련 거래소의 상폐결정에 대한 민원	해결
2949	2009-08-25	신용회복원합니다	상담.안내
2950	2009-08-25	이게 문제 해결인가요?	상담.안내
2951	2009-08-25	잘 부탁 드립니다	자체종결
2952	2009-08-25	부동산으로 돈버는건 좋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해결
2953	2009-08-25	공매도 관련주 유일엔시스 관련	해결
2954	2009-08-25	[파산면책]을받은특수기록소유자에게도저소득전세자금대출의길을열어주시기를..	상담.안내
2955	2009-08-25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오송준씨 보십시오!	상담.안내
2956	2009-08-25	신용조회및 추심관련	상담.안내
2957	2009-08-26	차상위 계층으로 긴급 지원을 바랍니다	상담.안내
2958	2009-08-26	5년동안 한번도 연체 사실 고지 않던채 지연이자를 내라고 한 경	상담.안내
2959	2009-08-26	5년 동안 한번도 연체 사실 고지 하지 않은채 지연이자 배상요구	상담.안내
2960	2009-08-26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에 관한 건!	해결
2961	2009-08-26	거래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
2962	2009-08-26	항암제 세라젠	해결
2963	2009-08-26	특수건물인 경우 수험공제에 화재보험가입가능여부 질의	상담.안내
2964	2009-08-26	지속민원	자체종결
2965	2009-08-26	윈드스카이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부당성	해결
2966	2009-08-2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업종별 차이의 구체적 이유	해결
2967	2009-08-26	부당한 채무액에 대한 민원신청합니다.	자체종결
2968	2009-08-26	서민 사금융대환대출 꼭!!!!해주세요	상담.안내
2969	2009-08-26	윈드스카이 주주입니다	해결
2970	2009-08-26	연대보증인 처우에 관하여	상담.안내
2971	2009-08-26	플러스상호저축은행직원들	상담.안내
2972	2009-08-26	전세값상승을 대출규제로 잡겠다니?	상담.안내
2973	2009-08-26	채권 추심 때문에 그러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상담.안내
2974	2009-08-26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조회	상담.안내
2975	2009-08-26	한국 증권거래소 의 만행	해결
2976	2009-08-26	영업정지된 금융기관과 그 업무 인수 금융기관	상담.안내
2977	2009-08-26	차명계좌의 채무이행책임 관련 문의	해결
2978	2009-08-26	오래된 통장의 돈을 찾기도 어렵고, 50%가 넘는 추징금을 왜 물어야하나요?	해결
2979	2009-08-26	자산공사 직원 직불금 수령 징계 관련	자체종결
2980	2009-08-26	과 시성 소비행태를 억제하고 실질 저축을 높이자 (강화하자)!	상담.안내
2981	2009-08-26	코스닥 공시됨 상폐 면제 기업과 윈드 스카이 비교.	해결
2982	2009-08-26	윈드스카이 상폐건에 대한 서툼장에 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해결
2983	2009-08-26	억울 합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해결
2984	2009-08-26	한국거래소는 윈드 스카이 회사를 협박 하고 있습니다...	해결
2985	2009-08-26	한국거래소 공지 위반 입니다.....	해결
2986	2009-08-27	해지된 고객 대출계약서 스캔보관도 가능여부 질의입니다.	상담.안내
2987	2009-08-27	정말 없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상담.안내
2988	2009-08-27	박물관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까?	상담.안내
2989	2009-08-27	파생결합증권 관련 문의사항	해결
2990	2009-08-27	- 민영의료화 정책 변경 시행 결정후 줄속시행의 문제점	상담.안내
2991	2009-08-27	- 민영의료화 정책 변경 시행 결정후 줄속시행의 문제점.	상담.안내
2992	2009-08-27	재무보고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관련 질의	상담.안내
2993	2009-08-27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건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한국자산관리공사 공개질의서(2)	상담.안내
2994	2009-08-27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개질의서(2)	상담.안내
2995	2009-08-27	우리은행과 한국저축은행건에 대한 공개 질의(자산관리공사 관	자체종결
2996	2009-08-27	워크아웃건설사업활동지원건의	상담.안내
2997	2009-08-27	대부업 법 위반인지여부	상담.안내
2998	2009-08-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담.안내
2999	2009-08-27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제니비오믹스를 꼭 봐주세요 제발!!	해결
3000	2009-08-28	민원처리 관련	상담.안내
3001	2009-08-28	탄원서	상담.안내
3002	2009-08-28	질의내용	상담.안내
3003	2009-08-28	투자금 상환책임 확인 요청	해결
3004	2009-08-28	거래소는 상폐이유 없는 회사를 상폐시키려 합니다.	해결
3005	2009-08-28	금융감독원 간부 비리 및 우리은행 사기채권 조사 요청	자체종결
3006	2009-08-31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매매된 아파트에 대한 가치분 신청	자체종결
3007	2009-08-31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상담.안내

8. 최근 5년간 직원 해외 연수비, 연수내용, 연수  
일정

☐ 금융위원회 주관 직원 해외연수 실적 없습니다.

9. 성과급 지급 현황  
10. 퇴직금 지급 현황

1)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지 급 금 액
2009년(9월말 현재)	591,852

2)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지 급 금 액
2008년	604,363
2009년(9월말 현재)	263,139

## 1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 임금, 비정규직 근무자 중 해직자 수와 해직사유

### ○ 비정규직 현황

년도	비정규직 비율*	월평균임금	퇴직현황		비고
			인원	사유	
'08년말	13% (28명)	130만원	2	의원면직	
'09년7월	16% (35명)	130만원	9	의원면직	

\*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정원('08년말: 205명, '09.7월 : 220명)대비 비율

## 12. 금융위 출범 후 정책연구용역 내역(내용, 금액,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

### □ 정책연구용역 내역

구 분	내 용	금 액 (백만원)	수의계약 건 수	수의계약 비율(%)	비 고
2008년	금융관련 정책연구과제 12건	358	7건(6건*)	58.3(50*)	
2009년	금융관련 정책연구과제 11건	346.3	9건(6건*)	81.8(54.5*)	09.30 기준

\* 경쟁입찰하였으나,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된 연구용역 제외시

### 13. 임원 업무추진비 금액 및 세부내역

☐ 별첨 참조

##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8,725	
소 계		14건	5,33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월 7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60	
	3월11일	금융현안 관련 자문	490	
	3월12일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협의	188	
	3월14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1,412	
	3월15일	금융현안 관련 협의	326	
	3월17일	금융현안 관련 자문	125	
	3월17일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350	
	3월18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146	
	3월19일	금융현안 관련 자문	208	
	3월21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330	
	3월24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320	
	3월26일	홍보 관계자 간담회	442	
	3월27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475	
	3월31일	금융정책 관련 회의	459	
소 계		4건	1,094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3월 7일	현안점검회의	11	
	3월10일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816	
	3월26일	현안점검회의	37	
	3월28일	업무보고 관련 회의	230	
소 계		2건	2,0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3월14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00	
	3월27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00	
소 계		1건	3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18일	위원장실 운영비	300	

##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5건	7,667	
소 계		11건	5,27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월 1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613	
	4월 2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375	
	4월 4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920	
	4월 8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363	
	4월 8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82	
	4월10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533	
	4월11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432	
	4월14일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168	
	4월24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774	
	4월25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307	
	4월30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410	
소계		2건	351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4월 6일	금융현안 관련 협의	105	
	4월13일	방미수행 관련 회의	246	
소 계		1건	239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 7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239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10,819	
소 계		12건	5,67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월 1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253	
	5월 2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242	
	5월 7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531	
	5월 8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401	
	5월13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659	
	5월14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442	
	5월14일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688	
	5월16일	금융정책 관련 협의	309	
	5월16일	금융정책 관련 자문	420	
	5월19일	금융정책 관련 협의	1,033	
	5월21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79	
	5월22일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316	
소계		6건	1,245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5월 3일	금융현안 관련 협의	350	
	5월 5일	금융현안 관련 자문	150	
	5월12일	금융정책 관련 회의	315	
	5월16일	금융정책 관련 회의	60	
	5월21일	금융정책 관련 회의	60	
	5월24일	IOSCO 총회 참석 관련 회의	310	
소 계		3건	2,101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월 2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501	
	5월14일	‘스승의 날’ 장애인학교 방문 격려금	750	
	5월29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850	5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9건	13,990	
소 계		16건	6,82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월 4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59	
	6월 5일	금융정책관련 협의	699	
	6월 9일	금융정책 자문그룹 간담회	510	
	6월 9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57	
	6월10일	거시정책 관련 간담회	440	
	6월11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37	
	6월16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47	
	6월16일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 관련 간담회	231	
	6월18일	홍보관계자 간담회	353	
	6월20일	금융정책 자문그룹 간담회	1,315	
	6월21일	금융소외자지원방안 관련 간담회	250	
	6월24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51	
	6월25일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390	
	6월25일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추진상황 점검회의	260	
	6월26일	금융규제개혁 방향 점검 간담회	405	
	6월30일	진입규제방향 관련 정책 협의	524	
소 계		9건	3,011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6월 1일	신용회복지원 관계자 간담회	242	
	6월 7일	세계증권업총회 관련 회의	96	
	6월 8일	중국출장 관련 간담회	261	
	6월15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회의	248	
	6월17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관련 간담회	474	
	6월19일	ICGN 연차총회 참석 관련 회의	530	
	6월22일	MOU 체결 현황 점검회의	330	
	6월23일	FIU 소관 법령 점검회의	350	
	6월27일	상반기 금융정책 점검회의	480	
소 계		3건	2,351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월 4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501	
	6월18일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격려금	1,000	
	6월27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850	6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건	15,209	
소 계		18건	9,14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월 1일	자산운용정책수립 관련 간담회	499	
	7월 2일	홍보전문가 간담회	328	
	7월 3일	하반기 금융정책방향홍보 관련 간담회	443	
	7월 4일	하반기 금융시장 관련 점검회의	410	
	7월 7일	금융시장동향 의견수렴 간담회	425	
	7월 8일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관련 간담회	519	
	7월 9일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개정안 설명 간담회	432	
	7월15일	제재제도 선진화 관련 간담회	333	
	7월16일	홍보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377	
	7월17일	민원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436	
	7월21일	금융규제개혁 관련 간담회	462	
	7월22일	IOSCO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	436	
	7월23일	금융관련 법령개정안 설명 간담회	573	
	7월23일	금산분리 관련 학계전문가 간담회	513	
	7월25일	거시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694	
	7월25일	출입기자 간담회	877	
	7월28일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간담회	944	
	7월29일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정책설명 간담회	447	
소 계		2건	844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7월 5일	금융분야 고유가대책 간담회	220	
	7월10일	금융위 회의운영 관련 간담회	624	
소 계		4건	3,417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7월 9일	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1,000	
	7월 9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820	7월누계
	7월15일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1,000	
	7월22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597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7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10,963	
소 계		18건	7,41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월 4일	민간금융위원회 초청 간담회	1,094	
	8월 4일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241	
	8월 5일	8월 금융시장동향점검 간담회	195	
	8월 6일	금융투자협회 설립 관련 간담회	402	
	8월 7일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260	
	8월 7일	금융현안 관련 당정협의	741	
	8월 8일	공적자금 현안 관련 간담회	409	
	8월11일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387	
	8월13일	홍보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315	
	8월14일	금융현안 관련 금융자문그룹 간담회	594	
	8월18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간담회	424	
	8월19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간담회	150	
	8월20일	하반기 금융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홍보 간담회	342	
	8월21일	지통법시행령 개정 관련 간담회	186	
	8월22일	거시금융상황 점검 간담회	561	
	8월26일	거시정책 협의회	40	
	8월26일	홍보전문가 간담회	601	
	8월27일	증시 동향 관련 간담회	473	
소 계		2건	542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8월12일	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330	
	8월14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점검 간담회	212	
소 계		2건	1,206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8월11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406	
	8월22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800	8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8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건	8,977	
소 계		11건	3,12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9월 3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170	
	9월 4일	대부업 관련 정책 홍보 간담회	260	
	9월 8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70	
	9월 9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177	
	9월16일	거시경제정책협의회	640	
	9월17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190	
	9월22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399	
	9월24일	서민금융활성화 관련 간담회	389	
	9월25일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설명 간담회	180	
	9월29일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	143	
	9월29일	국내 금융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	308	
소 계		4건	1,382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9월10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간담회	269	
	9월12일	금융위원회 위원 간담회	523	
	9월1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수립 간담회	340	
	9월29일	9월 금융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250	
소 계		3건	2,669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9월 4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669	
	9월 5일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금	1,000	
	9월30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00	9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9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10,225	
소 계		14건	5,33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월 2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598	
	10월 6일	10월 금융상황 점검 간담회	273	
	10월 6일	공적자금 현안 관련 간담회	140	
	10월 7일	거시정책관련 회의	560	
	10월 7일	금융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328	
	10월 8일	금융정책수립 관련 업무협의	631	
	10월 9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간담회	405	
	10월10일	금융관련 법률제개정 사항 홍보 간담회	469	
	10월17일	한국자본시장 IR 관련 간담회	328	
	10월21일	거시정책관련 간담회	25	
	10월21일	국내 금융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	308	
	10월21일	서민금융활성화 관련 정책협의	299	
	10월29일	APRC회의 관련 간담회	580	
	10월31일	금융정책 자문 그룹 간담회	390	
소 계		6건	1,755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10월 2일	제1차 사무관과의 대화	426	
	10월10일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간담회	260	
	10월13일	주무관과의 대화	374	
	10월14일	제2차 사무관과의 대화	480	
	10월28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간담회	105	
	10월31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110	
소 계		2건	1,336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0월 8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286	
	10월31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50	10월말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0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건	10,186	
소 계		17건	5,49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1월 4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265	
	11월 5일	워싱턴저널 특파원 간담회	221	
	11월 5일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업무 간담회	176	
	11월 6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111	
	11월10일	국제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96	
	11월12일	파이낸셜타임즈 서울대표 간담회	176	
	11월12일	국제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525	
	11월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206	
	11월13일	AP통신 기자 간담회	198	
	11월13일	금융시장안정화 정책설명을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	900	
	11월14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784	
	11월20일	채권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260	
	11월20일	금융정책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352	
	11월24일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	163	
	11월25일	국내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26	
	11월27일	소액보험 지원 관련 간담회	385	
	11월28일	로이터통신 특파원 간담회	246	
소 계		6건	1,488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11월 3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융대책 간담회	176	
	11월17일	11월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150	
	11월21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간담회	176	
	11월24일	사무관과의 대화	260	
	11월24일	09년도 금융위 예산수립 관련 간담회	460	
	11월30일	기업재무개선 점검 간담회	266	
소 계		2건	1,408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월 4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358	
	11월30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50	11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1월 3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2,126	
소 계		15건	6,81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월 3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SBS출입기자 간담회	622	
	12월 3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81	
	12월 5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MBN기자 간담회	363	
	12월 8일	09년 금융위 예산관련 간담회	974	
	12월 9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MBC기자 간담회	649	
	12월11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390	
	12월16일	4/4분기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260	
	12월16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연합뉴스기자 간담회	580	
	12월17일	거시 금융 상황 점검 간담회	300	
	12월19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한국경제기자 간담회	154	
	12월19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KBS기자 간담회	700	
	12월22일	채권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263	
	12월23일	시장안정정책 설명을 위한 서울경제기자 간담회	447	
	12월24일	국내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440	
	12월26일	예보채상환기금 관련 간담회	387	
소 계		4건	1,078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12월 2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융대책 간담회	310	
	12월18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간담회	222	
	12월26일	기업재무개선 점검 간담회	189	
	12월30일	금융위원회 표창대상자 간담회	357	
소 계		4건	2,438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2월 4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334	
	12월23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케익 구입	454	
	12월30일	연말연시 독거노인 방문 위문금	600	
	12월30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1,050	12월누계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2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11,583	
소 계		16건	6,19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월 2일	공정위와의 업무간담회	143	
	1월 5일	증권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364	
	1월 7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439	
	1월 8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90	
	1월 9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234	
	1월12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56	
	1월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679	
	1월13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120	
	1월14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508	
	1월15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15	
	1월16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572	
	1월20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524	
	1월21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262	
	1월22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	493	
	1월24일	국내 금융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375	
	1월30일	기업재무개선 점검 간담회	423	
소 계		4건	2,486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1월 3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420	
	1월19일	09년 금융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1,593	
	1월28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관련 간담회	341	
	1월28일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간담회	132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2월 2일	경조사 화환비	1,100	1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6,746	
소 계		9건	2,82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월 5일	청년취업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	276	
	2월 9일	기업구조개선관련 업무간담회	490	
	2월11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36	
	2월13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264	
	2월17일	중소기업대출 점검을 위한 업무감담회	407	
	2월18일	UBS필그램 부회장과의 간담회	273	
	2월19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297	
	2월23일	은행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업무간담회	241	
	2월25일	산업은행법 개정관련 간담회	340	
소 계		3건	1,022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2월 6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300	
	2월12일	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413	
	2월12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간담회	309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3월 3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2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10,226	
소 계		19건	6,92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3월 1일	국회대비 금융위 현안안전 간담회	132	
	3월 2일	은행건전성 관련 간담회	414	
	3월 3일	저축은행관련 업무간담회	110	
	3월 4일	증권시장동향 점검 관련 간담회	429	
	3월 5일	신용회복지원 설명을 위한 간담회	602	
	3월 6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간담회	264	
	3월 6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191	
	3월 9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	385	
	3월 9일	예금자보호법 관련 업무간담회	320	
	3월10일	G20 현안점검 업무 간담회	66	
	3월11일	금융정책현안 업무간담회	932	
	3월11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운영개선 간담회	298	
	3월12일	산업은행법 개정관련 간담회	200	
	3월12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	413	
	3월13일	금융정책 현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	668	
	3월19일	금융정책설명 업무 간담회	194	
	3월20일	금융정책설명 업무 간담회	475	
	3월24일	금융정책 총리보고를 위한 간담회	680	
	3월31일	금융시장 점검 간담회	150	
소계		1건	303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3월 2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303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 7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건	9,169	
소 계		14건	5,38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4월 1일	금융기관 인턴직원 애로사항 간담회	87	
	4월 3일	증권시장 동향 업무 간담회	485	
	4월 8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간담회	503	
	4월10일	금융정책 입법 관련 업무간담회	253	
	4월10일	기업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385	
	4월14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80	
	4월15일	보험산업 관련 업무간담회	139	
	4월16일	한국은행법 등 개정을 위한 업무 간담회	499	
	4월17일	산업은행 법 개정을 위한 업무 간담회	435	
	4월20일	예금자보호법관련 업무관련 간담회	65	
	4월24일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 간담회	1,343	
	4월28일	금융관련 법률통과를 위한 간담회	508	
	4월29일	금융위 주요 업무 각계 의견 청취	344	
	4월30일	금융위 주요 업무 각계 의견 청취	263	
소계		3건	880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4월 2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399	
	4월23일	대부업법 관련 정책간담회	260	
	4월27일	금융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	221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 7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1,692	
소 계		22건	8,79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5월 1일	금융기정책 입법관련 간담회	175	
	5월 1일	출입기자 간담회	460	
	5월 1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30	
	5월 4일	국회 법안관련 담당자 간담회	412	
	5월 6일	금융정책 공조를 위한 간담회	393	
	5월 6일	금융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	310	
	5월 7일	금융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	310	
	5월 7일	금융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	645	
	5월 8일	금융정책 현안점검 간담회	500	
	5월11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199	
	5월12일	금융정책 입법 관련 간담회	325	
	5월12일	기업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458	
	5월13일	채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445	
	5월13일	금융통화위원 정책간담회	506	
	5월14일	금융정책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설명회	617	
	5월20일	증권업무 간담회	111	
	5월20일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464	
	5월21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언론인 업무 간담회	525	
	5월22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언론인 업무 간담회	382	
	5월27일	금융정책 설명 관련 간담회	235	
	5월27일	금융관련 입법 간담회	920	
	5월28일	금융정책 홍보관련 간담회	170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월 1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10,697	
소 계		21건	7,99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6월 1일	금융정책 설명 의원 간담회	154	
	6월 1일	금융정책 설명 언론 간담회	611	
	6월 3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61	
	6월 3일	금융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 간담회	875	
	6월 4일	금융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	413	
	6월 4일	기자단 업무 간담회	572	
	6월 5일	주요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476	
	6월 5일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511	
	6월10일	금융정책 국회의원 등 설명회	379	
	6월10일	채권시장 점검 간담회	190	
	6월11일	금융정책 설명 홍보 간담회	581	
	6월17일	수출입 금융관련 업무 간담회	145	
	6월18일	하반기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간담회	636	
	6월19일	증권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	342	
	6월21일	금융정책 점검을 위한 업무간담회	300	
	6월23일	자본시장법 발전을 위한 간담회	450	
	6월24일	금융정책 기자 간담회	130	
	6월25일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334	
	6월27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43	
	6월28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87	
	6월30일	금융정책수립 관련 간담회	107	
소 계		1건	9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월 2일	경조사 화환비	9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4,092	
소 계		21건	3,08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월 6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51	
	3월 7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설명	456	
	3월1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61	
	3월11일	금융위 주요 업무 현황 설명	81	
	3월11일	금융위 주요 정책 논의	250	
	3월12일	금융감독 주요 정책 설명	86	
	3월1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08	
	3월14일	금융위 주요 현안 논의	105	
	3월17일	금융 정책 관련 의견 청취	66	
	3월18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95	
	3월18일	금융위 업무 보고 관계 협의	335	
	3월1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94	
	3월2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44	
	3월21일	경제 정책 의견 청취	141	
	3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논의	30	
	3월23일	금융시장 동향 파악	129	
	3월25일	금융 정책 의견 청취	176	
	3월26일	세계 금융 시장 동향 파악	179	
	3월27일	금융 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50	
	3월31일	금융위 주요 정책 설명	119	
	3월31일	금융위 주요 현안 논의	131	
소 계		1건	205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3월29일	청와대 업무보고 관계 협의	205	
소 계		1건	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3월18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축의금	500	
소 계		1건	3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18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300	

##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건	5,347	
소 계		21건	3,54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월 2일	경제금융상황 점검 회의	396	
	4월 2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71	
	4월 3일	금융 정책 관련 의견 청취	235	
	4월 4일	증권 시장 동향 파악	60	
	4월 7일	금융시장 및 금융정책 의견 청취	136	
	4월1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81	
	4월1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55	
	4월11일	금융 허브 정책 협의	159	
	4월14일	금융업계 동향 파악	152	
	4월14일	경제 정책 조율	321	
	4월14일	업계 동향 파악	24	
	4월15일	채권 시장 동향 파악	21	
	4월15일	자본 시장 동향 파악	108	
	4월16일	금융 정책 관련 의견 청취	70	
	4월17일	금융위 인사 관계 협의	448	
	4월18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75	
	4월2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34	
	4월28일	금융권 주요 현안 의견 청취	74	
	4월2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03	
	4월29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의견 청취	360	
	4월30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의견 청취	64	
소계		2건	279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4월 8일	금융위 · 증선위 합동 간담회	120	
	4월19일	청와대 보고자료 업무 협의	159	
소 계		1건	1,0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30일	직원 및 유관기관 조의금 · 축의금	1,000	
소 계		1건	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800	



##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6건	4,036	
소 계		14	2,48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월 2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121	
	5월 2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협의	431	
	5월 6일	금융위 주요 정책 설명	105	
	5월 8일	증권시장 동향 파악	55	
	5월12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50	
	5월13일	금융위 주요 정책 방향 설명	204	
	5월14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32	
	5월15일	금융위 주요 정책 설명	55	
	5월16일	금융 정책 관련 의견 청취	125	
	5월19일	금융 정책 관련 의견 청취	249	
	5월19일	금융위 주요 현안 논의	602	
	5월20일	금융위 주요 정책 방향 설명	56	
	5월22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52	
	5월29일	금융 정책 방향 논의	49	
소 계		1건	7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월14일	‘스승의 날’ 장애인학교 방문 위문금	750	
소 계		1건	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800	

##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건	4,361	
소 계		16건	3,27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월 5일	증선위 주요 현안 설명	368	
	6월 5일	금융위 주요 정책 설명	321	
	6월 8일	금융정책 방향 관계 의견 청취	138	
	6월 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65	
	6월12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92	
	6월13일	증권선물거래소 발전방향 논의	93	
	6월14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189	
	6월16일	금융감독 주요 현안 논의	292	
	6월17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146	
	6월17일	한국 금융시장 동향 논의	272	
	6월18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288	
	6월20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285	
	6월20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55	
	6월21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211	
	6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36	
	6월25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20	
소계		1건	90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6월 1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90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27건	6,904	
소 계		26건	5,90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월 3일	금융정책 관련 재계 의견 청취	326	
	7월 4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53	
	7월 7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521	
	7월 7일	행정인사업무 부처 협의	295	
	7월 8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95	
	7월 8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529	
	7월 9일	경제상황점검회의 참석	462	
	7월10일	금융정책 관련 재계 의견 청취	117	
	7월10일	부처간 업무협의	470	
	7월11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간담회	124	
	7월12일	국제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115	
	7월13일	부처간 업무 협의	180	
	7월18일	부처간 업무 협의	72	
	7월18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간담회	257	
	7월19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87	
	7월2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42	
	7월21일	보험업 주요 현안 논의	140	
	7월22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68	
	7월23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238	
	7월25일	금융법률 간담회	150	
	7월28일	국제금융동향 설명 간담회	253	
	7월28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230	

	7월29일	자산운용 관련 업계 의견 청취	132	
	7월30일	부처간 업무 협의	94	
	7월31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449	
	7월31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205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7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건	3,583	
소 계		14건	2,58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월 2일	금융·경제 정책 업무 협의	250	
	8월 4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88	
	8월 4일	금융위 주요 현안 기자 간담회	385	
	8월 5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4	
	8월 8일	금융시장 동향 파악	245	
	8월 8일	금융 정책 관련 주요 현안 설명	323	
	8월11일	금융위 주요 현안 기자 간담회	88	
	8월11일	금융·경제 동향 논의	544	
	8월15일	금융위기 관련 학계 의견 청취	78	
	8월18일	한국 금융시장 동향 설명	92	
	8월19일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개최	244	
	8월20일	금융위 주요 현안 논의	144	
	8월23일	금융위기 극복관련 학계의견 수렴	25	
	8월23일	금융위기 관련 업무협의	6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8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8건	5,873	
소 계		27건	4,87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9월 2일	금융위 관련 법안 설명	110	
	9월 2일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234	
	9월 2일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40	
	9월 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385	
	9월 5일	정책 금융 관련 업무 협의	74	
	9월 7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논의	30	
	9월 7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5	
	9월 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24	
	9월 9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54	
	9월10일	금융감독정책 관련 업무 협의	40	
	9월10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439	
	9월12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333	
	9월16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3	
	9월16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4	
	9월17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608	
	9월18일	금융시장 동향 파악 청취	82	
	9월18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06	
	9월20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66	
	9월21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59	
	9월23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68	
	9월23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561	
	9월24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08	
	9월24일	금융·통화 정책 업무 협의	52	

	9월28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25	
	9월28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협의	26	
	9월29일	국제금융 관련 학계 의견 청취	247	
	9월30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20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9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5,507	
소 계		18건	4,50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월 1일	금융 주요현안 설명	114	
	10월 5일	외환시장 동향 분석 논의	206	
	10월 6일	금융 주요현안 설명	262	
	10월 7일	금융·경제정책 관련 업무 협의	217	
	10월 7일	금융·통화정책 관련 업무 협의	19	
	10월 7일	채권시장 관련 동향 논의	203	
	10월12일	국정감사 대비 금융정책 점검	87	
	10월13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48	
	10월13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54	
	10월14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224	
	10월17일	금융 주요현안 설명	58	
	10월18일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논의	91	
	10월21일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26	
	10월22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7	
	10월24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127	
	10월24일	금융감독 제도개선 기자간담회	81	
	10월26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협의	285	
	10월30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1,239	
	10월30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93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0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7건	4,932	
소 계		15건	3,93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1월 4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논의	420	
	11월 5일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93	
	11월 6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1,297	
	11월 7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100	
	11월12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논의	42	
	11월13일	보험업 동향 파악 및 정책 논의	279	
	11월16일	금융·통화 정책 업무협의	309	
	11월19일	서민금융 정책 의견 청취	175	
	11월22일	금융·통화 정책 업무협의	189	
	11월22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320	
	11월25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협의	353	
	11월26일	증권업 관련 정책 논의	98	
	11월27일	금융정책 관련 학계 의견 청취	67	
	11월28일	금융정책 주요 현안 논의	33	
	11월29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100	
	11월30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57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1월 3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8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건	4,595	
소 계		15건	3,59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월 1일	증권시장 주요 현안 논의	77	
	12월 2일	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55	
	12월 2일	금융위 법안 관련 설명	241	
	12월 4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95	
	12월 4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37	
	12월 5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43	
	12월1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5	
	12월11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53	
	12월12일	금융정책 관련 시장 동향 파악	517	
	12월12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128	
	12월15일	한국 금융시장설명	670	
	12월16일	금융위 법안 관련 설명	299	
	12월23일	금융정책 관련 의견 청취	323	
	12월24일	금융위 법안 관련 설명	302	
	12월26일	금융정책 관련 각계 의견 청취	410	
	12월29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112	
	12월29일	금융감독 주요 현안 논의	118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2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4건	5,226	
소 계		13건	4,22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월 2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275	
	1월 2일	금융정책 의견 청취 간담회	363	
	1월 5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438	
	1월 8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15	
	1월 8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85	
	1월 9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419	
	1월 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476	
	1월 12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52	
	1월14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82	
	1월18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343	
	1월2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82	
	1월2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54	
	1월21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42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월 3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5,275	
소 계		13건	4,27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월 3일	주요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410	
	2월 5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94	
	2월 9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480	
	2월13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90	
	2월13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571	
	2월15일	주요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27	
	2월16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105	
	2월17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99	
	2월17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244	
	2월18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01	
	2월19일	금융정책 관련 정무위 공청회 참석	855	
	2월1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업무 설명	70	
	2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2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3,820	
소 계		13건	2,82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월 2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84	
	3월 2일	주요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290	
	3월 3일	금융정책 현안 논의	430	
	3월 5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93	
	3월 7일	IR 설명 기자 간담회	41	
	3월 7일	IR 설명 기자 간담회	182	
	3월16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64	
	3월17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55	
	3월19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342	
	3월2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50	
	3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492	
	3월30일	서민금융정책 의견 청취	397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5,988	
소 계		21건	4,98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월 3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222	
	4월 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470	
	4월 8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46	
	4월 8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39	
	4월 9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149	
	4월14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6	
	4월14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400	
	4월15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709	
	4월16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140	
	4월16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27	
	4월1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5	
	4월20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70	
	4월21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77	
	4월22일	금융정책 재계 의견 청취	360	
	4월24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70	
	4월26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4	
	4월2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540	
	4월27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357	
	4월28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364	
	4월29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540	
	4월30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2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6,833	
소 계		22건	5,83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월 1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143	
	5월 1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645	
	5월 4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434	
	5월 6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865	
	5월 7일	금융정책 재계 의견 청취	47	
	5월 8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96	
	5월12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381	
	5월13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28	
	5월13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84	
	5월14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46	
	5월15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74	
	5월15일	금융정책 업무 논의	440	
	5월18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880	
	5월22일	금융정책 의견 청취	181	
	5월22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3	
	5월24일	금융감독정책 운용 방향 설명	24	
	5월25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0	
	5월25일	금융정책 관련 설명	512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1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3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57	
	5월30일	금융법률 관련 설명회	22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2009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건	7,549	
소 계		24건	6,54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월 1일	세계금융시장 동향 논의	237	
	6월 1일	한국 경제금융 상황 논의	980	
	6월 3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111	
	6월 3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610	
	6월 4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566	
	6월 9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기자 간담회	536	
	6월10일	금융법률 관련 업무 협의	63	
	6월11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25	
	6월11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86	
	6월15일	금융선진화 방향 논의	260	
	6월15일	감독정책 운용 협의	204	
	6월17일	감사업무 협의	490	
	6월19일	해외금융시장 동향 자문	357	
	6월19일	금융위 안건 협의	329	
	6월22일	금융위 예산안 협의	59	
	6월23일	금융법률안 협의	180	
	6월24일	한국 금융시장 현안 설명	42	
	6월24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설명	240	
	6월24일	한국 금융시장 현안 설명	353	
	6월25일	감독정책 운용 협의	183	
	6월26일	세계금융시장 동향 논의	106	
	6월28일	금융정책 각계의견 청취	30	
	6월29일	금융정책 각계의견 청취	9	
	6월30일	한국 금융시장 동향 설명	49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 14. 민간 파견 근무자 내역

☐ 민간 파견 근무자 내역 : 해당 없음

15. 최근 5년간 내부 비리 적발 건수와 적발 내용,  
처리 상황

☐ 해당사항 없음

## 16. 직원 징계 건수와 징계 사유

### □ 직원 징계 건수와 징계 사유

처분일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2009.02.27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2009.03.23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2009.03.23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 17.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수와 비율

### □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수와 비율

구분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명수(비율)	6명(2.7%)	41명(18.6%)	일반직 4명(1.8%)

\* 공무원 정원('09년 7월말 현재 220명) 대비 비율

18. 금융투자업 접수 및 인가 현황(09.2월 이후)

19. 금융투자회사 신설현황(09.2월 이후)

☐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09.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금융투자업 접수 및 인가 현황(기존 금융투자업의 업무추진 현황)

회원구분	회원	인가유형	업무구분	접수일	진행상황	인가일
증권사	한국증권중개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1)	1단계	09.4.3	인가	09.7.16
증권사	부은선물	증권 투자중개업(2-1-1)	1단계	09.4.3	예비인가	09.7.16
증권사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2)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6	예비인가	09.7.16
증권사	KIDB채권중개	국채등 투자매매업(1-111-2) 채무증권 투자중개업(2-11-2)	1단계	09.4.8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LIG투자증권	증권 투자매매업(1-1-1)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10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도이치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2)	1단계	09.4.14	예비인가	09.7.29
증권사	키움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14	예비인가	09.7.29
증권사	리딩투자증권	증권 투자매매업(1-1-1)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14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대신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17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1	예비인가	09.7.16
증권사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2	예비인가	09.7.16
증권사	굿모닝신한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3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하나대투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3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대우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8	예비인가	09.7.16
증권사	현대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9	예비인가	09.7.16

회원구분	회원	인기유형	업무구분	접수일	진행상황	인가일
증권사	IBK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29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SK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30	철회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4.30	예비인가 (본인가 심사중)	09.7.16
증권사	한맥투자증권	채무증권 투자매매업(11-11-1) 지분증권 투자매매업(11-12-2)	1단계	09.4.30	철회	
증권사	부국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6.1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메리츠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6.18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한화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6.24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KTB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7.10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7.13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한양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7.13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솔로몬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7.21	예비인가 심사중	
증권사	교보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2-1)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2-1)	1단계	09.8.7	예비인가 심사중	
자산 운용사	현대스위스자산운용	법229조3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3-13-1)	1단계	09.4.1	인가심사중	
보험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법229조1·5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3-11-1)	1단계	09.7.15	인가심사중	
증권사	HMC투자증권	법103조1~7호 신탁재산 신탁업(4-1-1)	1단계	09.3.30	인가심사중	

## 2. 09.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금융투자회사 신설 현황

회원구분	회원	접수일	진행상황	인가일
자산운용사	현대자산운용	09.2.4	인가	09.6.17
자산운용사	아시아자산운용	09.3.25	인가	09.4.15
자산운용사	노무라자산운용	09.4.2	예비인가	09.7.16
자산운용사	ING부동산자산운용	09.4.29	인가	09.6.17
자산운용사	벅쿼리삼천리자산운용	09.5.6	인가	09.6.3
자산운용사	아센다스자산운용	09.6.25	인가	09.7.29
자산운용사	에스크베리타스	09.7.23	예비인가 심사중	
자산운용사	제이퍼트러스트 자산운용	09.7.31	인가심사중	
증권사	노무라금융투자	09.7.31	예비인가 심사중	
신탁사	새한자산신탁	09.6.9	인가심사중	
신탁사	무궁화신탁	09.8.6	인가심사중	



## 20. 국내 PEF 설립 현황

(‘09. 8. 31. 현재, 단위 : 억원/\$만)

구분	등록일	사원		비고
		GP	LP	
1	미래에셋 파트너스일호	'04.12.27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	8인
2	우리제1호	'04.12.27	우리은행	- '05.10.7(해산)
3	대본서	'05. 2.15	대본서코리아	- '09.8.26.(해산)
4	마르스제일호	'05. 3. 7	우리투자증권	2인
5	칸서스제1호	'05. 3.29	칸서스자산운용	- '06.3.14(해산)
6	KDB 밸류 제1호	'05. 5. 9	산업은행	4인
7	기업은행케이티비제1호	'05. 5.31	기업은행, KTB투자증권	6인
8	보 고	'05. 9. 2	보고인베스트먼트	14인
9	신한-국민연금제1호	'05. 9. 8	신한 PE	7인
10	엠비케이	'05. 9. 8	MBK파트너스	1인
11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05. 9.26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23인
12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05. 9.26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파트너스	9인
13	KTB2005	'05. 9.29	KTB투자증권, 케이티비자산운용	9인
14	미래에셋 파트너스이호	'05. 9.29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	1인
15	에이치앤큐 국민연금 제1호	'05.11. 2	한국 H&Q AP	5인
16	FG10	'05.12.27	파이낸스그룹텐	- '06.11.6(해산)
17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1호	'06. 3. 7	중소기업은행, 기보캐피탈	1인
18	KTB-SB	'06. 4. 6	케이티비자산운용	7인
19	우리	'06. 7. 6	우리 PE	9인
20	코너스톤제일호	'06. 8. 4	코너스톤PE파트너스	3인
21	미래에셋 파트너스삼호	'06. 9.11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	12인
22	KTB2006	'06.10. 2	KTB투자증권	7인
23	KDB 밸류 제2호	'06.11. 2	산업은행	9인
24	아이비케이 제3호	'06.11. 7	기업은행	1인
25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제1호	'06.11. 7	기업은행, SK증권	3인
26	유진자산제1호	'06.11.28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4인
27	스카이라이프글로벌인큐베스트사모 투자전문회사제일호	'06.12.13	스카이라이프	20인
28	제일호과학기술	'06.12.28	한화기술금융	1인
29	국민유선방송투자이호	'07. 2. 7	MBK파트너스	1인
30	르네상스제일호	'07. 2.22	웅진캐피탈, 대우증권	7인
31	마르스제이호	'07. 3. 2	우리투자증권	1인
32	미래에셋 파트너스사호	'07. 4.10	미래에셋캐프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14인

구분		등록일	사원		비고
			GP	LP	
33	디지털컨버전스바이아웃	'07.4.26	티스톤	13인	
34	KDB 벤처캐피탈에이	'07. 5.25	산업은행	4인	
35	솔로몬	'07. 6.13	솔로몬상호저축	9인	
36	주피터	'07. 6.13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6인	
37	CF인베스트먼트제1호	'07. 7.13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11인	
38	아이스텀레드	'07. 7.13	아이스텀 파트너스 아이스텀 투자	7인	
39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2호	'07. 8. 3	기업은행, 기보캐피탈	2인	
40	스카이라이프글로벌인큐베스트사모 투자전문회사제1호	'07. 8. 3	스카이라이프	10 인	
41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 제2호	'07. 8. 3	기업은행, SK증권	1 인	
42	NH애그리베스트	'07. 8.27	농협중앙회, NH증권	2 인	
43	교원나라제일호	'07. 9.18	교원나라기술	3 인	
44	KTB2007	'07.10.18	KTB투자증권	13 인	
45	리딩밸류	'07.11. 1	아이더블유엘	4 인	
46	프리모리스	'07.11.22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4 인	
47	제2호과학기술	'07.12. 3	한국기술투자	2 인	
48	엔플러스일호	'08. 1. 2	엔조이플러스	10 인	
49	엔에이치아이비케이제일호	'08. 1.15	NH투자증권, 기업은행	5 인	
50	KTB2007-2	'08. 1.22	KTB투자증권	2 인	
51	클라우드	'08. 1.31	코아에프지	1 인	
52	국민유선방송투자일호	'08. 2.21	MBK 파트너스	3인	
53	튜브	'08. 3. 1	튜브투자자문	1 인	09.6.26(해산)
54	마르스제3호	'08. 3. 7	우리투자증권	1 인	
55	한국케이블	'08. 3. 7	액웨어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5 인	
56	아이비케이제팔호	'08. 3.10	기업은행	1 인	
57	대선	'08. 3.31	코너스톤PE파트너스	6 인	
58	씨이피제일호	'08. 3.31	코너스톤PE파트너스	4 인	
59	SHCF 인베스트먼트	'08. 4.11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10 인	
60	인헤리턴스	'08. 4.25	메리츠증권	7 인	
61	리더스	'08. 5.2	SK증권, 산은캐피탈	8 인	
62	마르스제사호	'08. 5.13	우리투자증권	1 인	
63	엔브이에쿼티펀드1호	'08. 5.22	유진자산운용	9 인	
64	티스톤2호	'08.7.3.	티스톤	21인	
65	지앤에이	'08.7.8.	(주)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	4인	
66	케이쓰리코리아일호	'08.7.14.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	2인	
67	신한제2호	'08.7.14.	신한프라이빗에쿼티	8인	
68	국민연금케이비아이씨제일호	'08.7.23.	케이비창업투자(주)	1인	

구분	등록일	사원		비고
		GP	LP	
69	아이엠엠로지골드	'08.8.1.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	9인
70	네오플렉스제1호	'08.8.7.	주식회사 네오플렉스	3인
71	미래에셋파트너스오후	'08.8.7.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7인
72	에이치앤큐제이호	'08.8.11.	에이치앤큐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9인
73	대신편가수스제일호	'08.9.11.	대신평권, 페사수스프라이빗에쿼티(주)	5인
74	씨이피제이호	'08.9.11.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주)	4인
75	지엘에이	'08.9.19.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주)	4인
76	스카이라이프글로벌인큐베스트제3호	'08.9.23.	스카이라이프인큐베스트	2인
77	케이디비밸류제상호	'08.9.23.	한국산업은행	2인
78	파이낸셜밸류	'08.10.13.	이밸류(주), SK증권	3인
79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08.11.18.	엠비케이파트너스	1인
80	퓨처제일호	'09.1.30.	미래에셋파트너스 교보증권	6인
81	케이디비턴어라운드	'09.5.7.	한국산업은행	2인
82	마이어제일호	'09.5.8.	마이어자산운용	2인
83	아시아클린에너지	'09.5.26.	KT투자증권	4인
84	코아에이치에스비	'09.5.27.	코아에프지	2인
85	티앤지일호	'09.6.29.	티아이피파트너스 지지에이치유니트라	2인
86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1호	'09.6.3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4인
87	오가닉그로스제일호	'09.6.30.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	3인
88	스탁코리아신성장동력첨단융합	'09.7.30.	스탁인베스트먼트	7인
89	케이디비밸류제육호	'09.7.30.	한국산업은행	1인
90	에스브이제일호	'09.7.30.	에스브이창업투자	1인
91	에이치에스에이제1호	'09.8.5.	현대스위스자산운용	1인
92	뱅크드	'09.8.11.	KT캐피탈, 아시아밸류인베스트	4인
93	글로벌소프트웨어기업육성	'09.8.24.	중소기업은행, SK증권	5인
94	스톤브릿지드레스덴	'09.8.26.	스톤브릿지캐피탈	2인



# 조 윤 선 의원



## 1. 자산물품 취득원장

- 별첨 참조

- 966 -



[illegible]

- 968 -

[illegible]

- 970 -

- 971 -

- 972 -

- 973 -



- 974 -



- 975 -

- 976 -

- 977 -



- 979 -



[illegible]

.....

– 982 –



[illegible]





[illegible]

- 987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994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2-1.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 일자별 진행과정

### 1) 법안 변경 내용

① 정부안	② 김영선 의원안	③ 최종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영화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고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민영화 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성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신 설>	第2條(성격 등) ①·② (정부안과 같음)    <신 설>	第2條 (성격 등) (개정안 제1항과 같음) <삭 제>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

		<p>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5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p>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안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2분의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9조(임원) (의원안과 같음)

1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8. (생략)

제18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과반수가 되어야 ---.

제18조(업무) (정부안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정부안과 같음)

제 1 8 조 (업 무)

1. (정부안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3.~8. (정부안과 같음)

제 18 조 의 2 (외 화 표 시 채 무 에 대 한 보 증)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서 한국산업은행이 비거주자(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및 현지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외화(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 <신 설>

② 정부가 제50조에 따른 산은지주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간 중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은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는 보증하는 조치 등(이하 “조치

#### <신 설>

②·③ (정부안과 같음)

----- 부  
담하는 외화표시 채무  
(상환기간이 1년 이상  
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  
-----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  
가 상환을 보증하는  
원리금은 국회가 승인  
한 한도 이내여야 한  
다.

③ 정부(정부가 자본  
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  
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50조에----- 지배(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  
는 기간 중-----

----- 새로 부담  
하는 외화표시 채무는  
-----  
-----

정부 또는 정부출자법  
인(정부가 자본금의 2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조치등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條(産業金融債券  
의 發行)  
<신 설>

①·② (생략)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현행  
과 같음)

② 한국산업은행은

第25條(産業金融債券  
의 發行)  
<신 설>

①·② (정부안과 같  
음)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현행  
과 같음)

② -----

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각  
각 보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  
은 정부가 보증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상환  
이 곤란한 경우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第25條(産業金融債券  
의 發行)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대출, 지급 보  
증 등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자금  
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③ (정부안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의원안과  
같음)

회계연도마다 수입  
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편성하여 회계연도  
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  
계연도마다 자산의 감  
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처리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 이  
상의 이익금은 출자자  
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이사회 의  
결로 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第44條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

1. (현행과 같음)

2. -----  
-----  
-----주주총회의-----  
-----

<후단 삭제>

②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 (정부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후문 삭제>

② (의원안과 같음)

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填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資本金에 轉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설립)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

-----  
-----  
----- 보전한 후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0조(설립)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

③ (현행과 같음)

(의원안과 같음)

제50조(설립) ① -----  
-----  
-----  
----- 「상법」 -----  
-----  
-----  
-----  
-----

용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경우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후단 삭제>

②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②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안 제2항과  
같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  
거가 되는 법령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대  
주주 변경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본다.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  
거가 되는 법령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대  
주주 변경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50조의2(성격) 산은  
지주회사가 한국산  
업은행을 산은지주  
자회사로 편입시키  
는 경우에는 「금융  
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  
되, 같은 법 제16조  
· 제18조 및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④ 제1항에 따라 산  
은지주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

-----  
-----  
-----  
-----

제50조의2(성격) ----

-----  
-----  
-----  
-----  
-----  
-----  
----- 제16조  
및 제18조-----  
-----

<신 설>

<신 설>

제50조의6(민영화이  
행점검위원회의 설  
치 및 기능) ① 한  
국산업은행의 원활  
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  
사 내에 민영화이행  
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  
각계획 및 추진상  
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  
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의  
하여 설립된 금융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

2.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

3. 한국정책금융공  
사의 사장

4.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  
원장이 그 소속 공  
무원으로서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

5.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금융담당  
전문위원 1명

6. 금융, 경제, 법

를, 회계 분야에 관  
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금  
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추  
천을 받아 위촉하  
는 자 3명

가. 「민법」 제32  
조에 따라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  
단법인 전국은행  
연합회 회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  
른 한국금융투자  
협회 회장

다.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  
장

④ 위원장은 제3항  
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3 조 ( 「 한국 은 행

제53조(다른 법률과의

⑤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⑦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 등의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2호, 동법 제54조 내지 제67조, 동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와 「은행법」 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의 적용은 제18조제7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

관계) ① 「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5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산업은행에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민영화 준비행

위) ① 한국산업은  
행의 원활한 민영  
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  
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  
다. 위원회의 위원  
은 정부위원 및 산  
은지주회사의 대표  
이사와 한국산업은  
행장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밖에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산은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  
제2항은 「한국정  
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  
공사가 설립한 날  
부터 시행한다.

<삭 제>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  
상황, 한국산업은행  
의 수신기반 확충  
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  
무 중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  
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  
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  
이 산은지주회사 설  
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유주식의 처  
분에 따른 이 법의

제3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정부안과 같음)

제4조(보유주식의 처  
분에 따른 이 법의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정부안과 같음)

제3조(보유주식의 처  
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

폐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  
-----  
-----  
-----

-----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

폐지) ①·② (의원안과 같음)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

1. 대표이사 1명: 금융  
위원회의 제청에 따  
라 대통령이 임명
2. 상임이사(감사위원  
회 위원을 포함하  
여 2명이내): 대표  
이사의 제청에 따  
라 금융위원회가  
임명

1. 대표이사는 금융  
위원회의 제청에 따  
라 대통령이 임명한  
다.

2. 대표이사를 제외

1. ----- 금융  
위원회 위원장---  
-----  
--.

2. (의원안과 같음)

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의 지  
분을 100분의 51이  
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  
표이사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되었을 때에  
는 금융위원회 위원  
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  
는 명령 또는 정관  
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  
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  
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

② -----  
산은지주회사를 지  
배-----

1.~5. (의원안과 같  
음)

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③ -----  
---- 산은지주회사를 지배-----  
-----  
-----  
-----  
-----  
-----  
-----  
-----  
-----  
-----  
--.

제6조(외국자본의 차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비거주자(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및

제7조(외국자본의 차입에 관한 특례)  
(정부안과 같음)

제6조(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  
-----  
-----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

현지 법인을 포함  
한다)로부터 새로  
외국자본을 차입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  
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  
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  
사로, 감사는 감사  
로 각각 이 법에 따  
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제8조(임원에 대한 경  
과조치) (정부안과  
같음)

제7조(임원에 대한 경  
과조치) ① · ② (정  
부안과 같음)

만료될 때까지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  
라 최초로 사외이사  
를 선임하는 경우에  
는 「은행법」 제22  
조제3항 후단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③ -----  
-----  
-----  
-----  
-----  
----- 후문 -----  
-----

제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  
례) ① 산은지주회  
사가 한국산업은행  
을 산은지주자회사  
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  
은지주자회사로 편  
입될 당시에 소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  
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p><u>하고 산은지주회사</u>  <u>는 한국산업은행을</u>  <u>산은지주자회사로</u>  <u>편입한 날로부터 5</u>  <u>년 이내에 「금융</u>  <u>산업의 구조개선에</u>  <u>관한 법률」 제24</u>  <u>조에 따른 주식소</u>  <u>유·승인요건을 충</u>  <u>족하여야 한다. 다</u>  <u>만, 「중소기업기본</u>  <u>법」 제2조에 따른</u>  <u>중소기업의 주식을</u>  <u>소유하는 경우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0조(최초 정관변경  에 관한 경과조치) 제  5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p>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p>“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한 날부터”로 하고,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p> <p>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인</p>
--	---



## 2) ① 정부안 → ② 김영선 의원안으로 변경된 사유

정부안	김영선 의원안	변경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고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민영화 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분명치 아니함 ▶동법이 산은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 등 <u>차질 없는 민영화이행을 지원하기</u> 위한 것임을 명시함
제5조(정관)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5조(정관) ①(현행과 같음)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u> 얻어야 한다.	▶산은의 지분은 산은지주가 형식상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산은지주 지분매각 전까지 실제 정부가 100% 소유하며, 개정산은법에 따라 바뀐 정관의 내용을 주주인 정부가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감안, 현행규정 유지
제9조(임원) ①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u>2분의 1</u>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u>과반수</u> 가 되어야 한다.	▶은행법(§22②)도 사외이사수를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수를 과반수로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형평이 맞지 않음 ▶향후 은행법도 사외이사 '과반수'로 변경 필요 (부처협의중 법무부도 같은 의견제출)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②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②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u>보고</u> 하여야 한다.	▶산은지주의 지분매각 전까지 사실상 대주주가 정부인 상황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정부에 제출·보고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

<p>(신설)</p>	<p>부칙 제2조(민영화 준비행위) ①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위원 및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와 한국산업은행장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충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정부위원과 산은지주회사 및 산은의 임원들로 구성된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을 통해 ▶산은지주의 지분매각 계획 및 상황, 산은 수신기반확충, 산은의 비은행업무 수행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토록 함으로써 ▶민영화 조기이행을 독려하고 조속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토록 함</p> <p>(좌와 같은 부칙제2조 신설)</p>
<p>부칙3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부칙4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p>	<p>▶정부제출안과 같이 할 경우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폐지법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당기간에 국회 회기 중이 아닌경우 임시회가 다시 열려야 하는 등 절차상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에 의해 정부가 지배지분을 상실한 경우 법 폐지시까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의 신규취급을 제</p>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폐지범률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함
<p><u>부칙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선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이사 1명: 금융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li> <li>2. 상임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2명이 내):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li> </ol> <p>(신설)</p>	<p><u>부칙제6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li> <li>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li> </ol> <p><u>②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li> <li>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li> <li>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li> <li>4. 심신의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li> <li>5. 경영성파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li> </ol>	<p>▶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선임 뿐만 아니라 해임에 있어서도 종전 산은법 규정(현행법 제48조)에 준하여 임원의 해임 사유와 방법을 규정함</p> <p>▶사외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에 대하여 금융위가 임명권 행사</p> <p>▶정부안에서 삭제된 산은법 48조 조항을 수정안에서 부활</p>

(신설)	③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 은지주회사의 지분을 100분 의 51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 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 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 하여 이를 해임한다.	▶해임사유 추가
------	---	----------

3) ② 김영선 의원안 → ③ 최종 법률안으로 변경된 사유  
 :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사록(기 제출)

## 2-2.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산은지주사 주식 출자 규모를 당초 49%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

□ 리먼사태 등 경제상황 변동으로 산은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 보다 자기자본 이전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고,

- ① 자기자본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자본조정항목이 감소하여 07년말(18.6조원) 대비 1.5조원(09.8월 예상 17.1조원) 감소
  - 08.12월 0.5조원(현물출자), 09.1월 0.9조원(현금출자) 등 그간의 추가 출자 효과 1.4조원 감안시 사실상 2.9조원 감소
- ② BIS비율도 07년말 17.9%에서 13.1%(09.8월 예상)로 대폭 하락

○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기업주식을 전부 이전함에 따라 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추가 출자하게 된 것임

### < 49% 출자안 및 100% 출자안 비교 >

구 분	49% 출자안	100% 출자안
분할시	- 산은지주사 주식 49% 공사 출자(정부 51% 소유)	- 산은지주사 주식 100% 공사 출자
분할 후	- 공사는 산은지주사 당기순이익 49%만 인식 - 정부는 산은지주사로부터 직접 배당수익 실현	- 공사는 산은지주사 당기순이익 100% 인식 - 정부는 공사를 거쳐 산은 지주사 배당수익 간접 실현

### 3. 직원 징계 현황 관련

-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 최근 3년간 피의자 신분 및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된 직원 현황

#### 1. 직원 징계 현황 관련

-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 최근 3년간 피의자 신분 및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된 직원 현황 : 해당 없음

# 허 태 열 의 원





## 1. 감사원 처분요구서 (최근 3년간)

### □ 감사원 처분요구서

○ 우리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 있음

## 2. 최근 2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 별도첨부

#### ○ 2008 자체감사결과보고서 1부

\* 2009년은 아직 미 실시

#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 개요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부문별 총평]**

###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 비율	비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부위원장·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 〈별표2〉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 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 나. 물품 관리 실태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 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 · 업무량 · 업무난이도 · 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중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정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정부 금융정책국		구 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 등 여부
구 금 영 정 책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
	금융법령 · 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
	총공거래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지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773,800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최근 1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  
· 제재를 받은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4.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 선정 향후 계획

-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심의로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세부개발계획은 관계부처협의,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확정하기로 결정
- 이에따라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 구성, 관계부처협의 등 필요절차를 진행중이며
  -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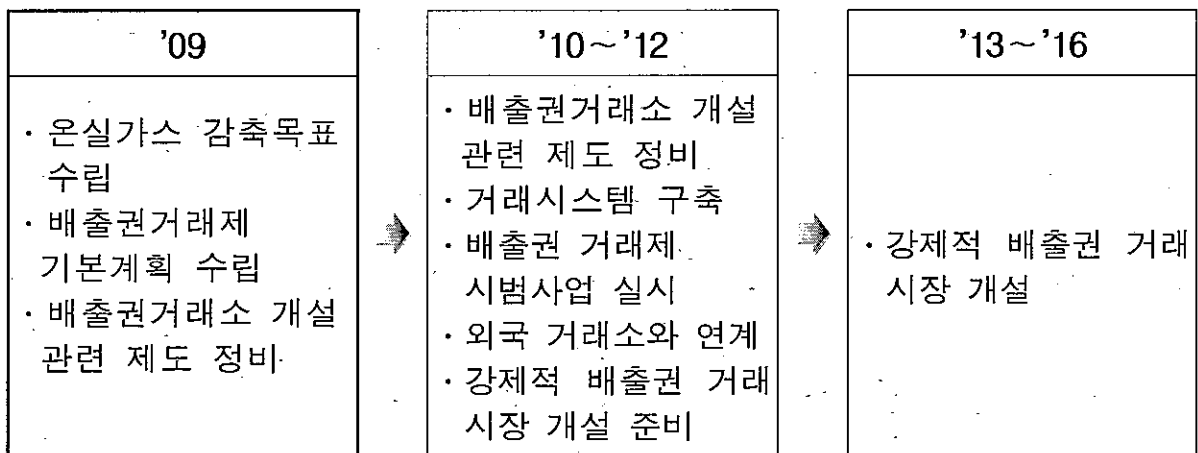
## 5.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향후 계획(안)

□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선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육성

- 산업계 협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와도 연계
- 향후 외국거래소와도 연계하고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배출권시장 개설은 향후 녹색금융시장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배출권 획득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투자사업 촉진
- 배출권 확보 및 가격 헷징을 위한 파생 녹색금융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관련 등록소, 컨설팅, 정보판매·분석회사 등 활성화



## 6.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현황

### □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발생분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2	4	14	4	24	3
농협중앙회	1,066	154	1,389	151	1,254	268
신한은행	940	240	550	120	689	102
우리은행	2,018	137	1,184	110	1,124	87
SC제일은행	1,276	98	295	52	557	76
하나은행	646	93	871	114	682	95
기업은행	658	65	768	78	706	69
국민은행	2,057	129	2,122	69	1,772	65
외환은행	638	70	538	76	528	72
한국씨티은행	555	58	190	28	283	25
수협중앙회	55	10	41	10	39	6
대구은행	101	31	75	29	95	11
부산은행	374	45	360	49	330	48
광주은행	235	13	-	-	114	5
제주은행	10	0.4	9	0.4	3	0.2
전북은행	84	12	78	10	73	11
경남은행	105	6	131	9	146	10
총 계	10,830	1,165.4	8,615	909.4	8,419	953.2

<첨부 2>

##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84	874	64	1,826	57	447
알리안츠	85	136	48	167	23	129
삼성	200	1,718	176	3,447	146	1,729
흥국	53	197	51	247	41	92
교보	184	1,325	149	5,891	110	456
우리아비바	4	8	5	8	5	11
미래에셋	59	97	66	144	52	65
금호	30	39	39	47	43	55
동부	3	9	6	11	11	19
동양	12	64	91	249	125	82
메트라이프	11	35	12	46	15	33
푸르덴셜	15	19	13	22	13	35
신한	72	79	58	82	50	72
PCA	2	2	6	4	9	5
뉴욕	2	3	1	3	1	3
ING	25	93	26	97	33	75
SH&C	—	1	1	10	1	15
녹십자	4	25	4	21	3	9
라이나	98	36	100	41	81	34
AIG	59	41	66	45	80	56
하나HSBC	2	1	4	2	5	3
KB	1	3	1	7	1	9
총 계	1,005	4,805	987	12,417	905	3,434

<첨부 3>

##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보험사명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8.9	35.4	24.4	71.0	47.2	45.4
한화	5.0	17.1	5.1	18.3	12.4	21.9
롯데	3.0	11.0	2.0	9.5	2.1	5.3
그린	1.8	6.2	1.6	6.0	2.0	5.4
흥국쌍용	9.6	14.6	7.3	12.4	17.2	16.0
제일	20.5	16.4	21.3	23.6	25.9	21.4
삼성	66.2	380	65.8	733	76.8	320.3
현대	18.2	60.5	13.7	31.1	38.0	44.5
LIG	17.9	71.3	22.9	93.0	29.8	88.7
동부	19.9	59.7	25.9	78.2	46.4	61.3
총 계	171.0	672.2	190.0	1,076.1	297.8	630.2

## 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세부계획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08.12.29)한  
은행법 개정안에 설립근거를 마련

○ 실제 도입 여부는 은행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검토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 8. 헤지펀드 정의, 유형, 도입 세부 계획안

□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가 가해지는 공모펀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①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②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투자집합체

\* 다양한 투자대상(주식, 파생상품, 통화 등)에 자유로운 투자전략(레버리지 투자 등)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운용

※ 헤지펀드가 법적 개념이 아닌만큼 헤지펀드의 유형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단계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제249조의2 신설, '09.2.3 시행)한 바 있습니다.

○ 한편, 헤지펀드 출현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은 도입 여부는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9.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의 유형  
별 과징금 부과내역

- 시장별 구분, 상품별 구분, 운영별 구분, 관련  
대상자의 국적별 현황
- 최근 1년간 건별 사건개요, 피해내역, 자체인지  
및 신고접수 구분

☐ 과징금 부과내역은 별도 제공해 드린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별도 제공 파일에 기재된 내용은 특정 회사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영업상 비밀유지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상 외부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에서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02년 42조원에서 '08년 6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성장

○ 이에 따라 '08년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 여·수신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 중 2위를 차지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새마을금고 추이(조원, %)

	'02(a)	'03	'04	'05	'06	'07	'08(b)	증감률 (=(b-a)/a)
총자산	41.5	43.9	47.6	52.5	58.5	60.0	64.5	55%
수 신	35.8	38.0	41.9	45.8	51.1	50.8	56.2	57%
여 신	19.7	24.0	24.8	25.1	26.1	29.3	34.2	74%

\*\* 08년말 기준 상호금융기관별 비교(조원)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총자산	30.9	204.2	13.4	3.1	64.5
수 신	26.5	158.0	10.1	2.1	56.2
여 신	20.3	134.3	8.8	1.7	34.2

□ 그러나,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유사성격의 농·수협 등과 달리 건전성 감독을 포함한 모든 감독권\*을 주무부처(행안부)가 단독행사\*\*함으로써 전문적인 금융감독에서 배제

○ 그 결과 거시적·미시적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애로 초래

\* 신용사업, 공제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인가권, 검사권, 제재권 등)

\*\*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계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포괄적 감독	금융위	농식품부	농식품부	산림청	행안부
건전성 감독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행안부

□ 따라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인가, 검사, 제재 등 포괄적 감독권을 계속 행사하되,

○ 금융위는 금고와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한하여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 검사요청권, 자료제출요청권 및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같은 건전성 감독방법은 농·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농·수협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가 '검사요청권'이 아닌 '검사권'을 가짐

○ 다만, 새마을금고의 수('08년말 1,518개)가 많아 검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충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현 경 병 의 원



# 1. 2008.10월~2009.8월까지의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및 해명보도자료 목록

## □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20081001
2	2008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001
3	서울경제(08.10.2 인터넷판), 「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06
4	은행장 간담회 말씀자료 송부	20081006
5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결과	20081006
6	2008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20081006
7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요 현안 설명자료	20081007
8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결과	20081007
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08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009
11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임명	20081010
12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81010
13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20081013
1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개최식 축사	20081013
15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침 확정)	20081014
16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 방안	20081015
17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81016
18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20081019
19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추진	20081019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21
21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20081021
22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20081021
23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20081022
24	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중 협력 관계 강화	20081022

25	네스테크㈜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022
2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022
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022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24
29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자료	20081024
30	외신기자 간담회	20081027
31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	20081028
32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1029
33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주재.참석(10.30.회의 당일)	20081029
34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 강화	20081029
35	24개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20081030
36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아태지역위원회(APRC)회의결과	20081030
37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님 기조연설	20081031
38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심사 실시	20081103
39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20081103
40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1104
41	공중합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081104
42	2008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105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5
44	2008.11.5 연합뉴스 '내달부터 금융소외자 빚부담 덜어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20081105
45	㈜포이보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105
46	오바마 후보 당선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20081105
47	11.5(水) 주요 은행장 조찬 간담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20081105
48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20081106
49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50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	20081107
51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081110
52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20081110
53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10
54	Financial Times(11.11,火, 04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인터뷰 기사 보도	20081111



5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20081112
56	신성건설 관련 대응방안(보도 참고자료)	20081112
57	11.12(水) 증권·자산운용 CEO 조찬 간담회 결과	20081112
58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20081113
59	위원장님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20081113
60	업무현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	20081114
61	한국시장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IR’ 개최	20081117
62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은행 현장 방문	20081117
63	권혁세 증선위원 「아시아 채권 시장 전망」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1118
64	금융위, 런던·뉴욕 국가 IR (Korea Investors	20081119
65	김용환 금융위원 「채권시장 정책 심포지엄」 축사	20081119
6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119
67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 개정	20081121
68	하나대투증권(주)과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	20081121
69	도이치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1121
70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20081124
7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24
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73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74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오찬 연설자료(국문)	20081125
75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설립	20081126
7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액보험 지원금 교부 및 보험증권 전달식 축사	20081127
77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81128
78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20081201
79	2008. 12. 1. 헤럴드보험대상 축사	20081201
80	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203
81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20081203
82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20081203

8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UBS Korea Conference 오찬 기조 연설	20081204
84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20081204
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1205
86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1208
87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20081209
88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209
89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1209
90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0081209
91	'08년 2차 P-CBO 2,500억원 발행	20081210
92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081210
93	(주)파로스이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1210
94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영업 일부정지 조치 연장	20081212
95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	20081212
96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20081212
97	추가 출자·재원 확보 현황	20081215
98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1218
99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환승론 본격 시행 및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개통	20081218
100	제8차 한·일 금융당국 고위급 연례회담, 서울에서 개최	20081219
101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20081222
102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81222
1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106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20081222
107	신증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20081223

108	『실물금융종합지원단』(가칭) 구성을 위한 지경부·금융위간 협의	20081224
10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224
11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224
111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	20081224
112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226
113	(전북)전북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1226
114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등 개정	20081226
115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20081230
1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감독 대상」 시상식 축하	20081230
117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20081230
118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20081231
119	2009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20090102
120	09년 금융권 인턴사원 채용 계획	20090105
121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20090105
122	2008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107
123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0108
124	국내은행, 기업 설자금으로 9조 1천억원 지원예정	20090109
125	금융위, 금강원 공동 「IFSB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	20090112
126	제28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112
127	「이슬람금융 세미나」 대통령 축하(금융위원장 대독)	20090113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0113
129	매경 증권인상 축하	20090114
130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	20090114
131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20090114
13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115
13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동향	20090115
134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20090116
135	설 대비, 「원스톱 현장 중기 금융지원반」 운영	20090119

136	中小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20090119
137	권혁세 증선위원,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 축사	20090120
138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120
139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20090120
140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0090121
14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121
142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20090121
143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20090121
14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추진 계획	20090122
145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20090122
146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8231;개정	20090128
147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128
148	한맥선물(주) 및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090129
14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129
150	2008년 12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20090129
151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20090130
152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202
153	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20090202
154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완료	20090202
155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 강구	20090204
156	금융공공기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 실시	20090205
157	09.1월 중기지원 실적	20090205
158	2008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205
159	권혁세 증선위원, 부산 금융중심지 토론회 기조연설	20090209
160	Moody's, 국내은행 장기외화부채 신용등급 변경의 의미	20090209
161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20090212
162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안내	20090212
1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통일 등	20090212
164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임명	20090212
165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샵 개최 계획	20090213

166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논의결과	20090216
167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20090218
168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20090218
169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218
170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90218
171	에스신용정보(주)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20090218
172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20090219
173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 개혁”관련 UCC 제작	20090219
17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223
175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224
176	수출입 기업 환해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	20090224
177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20090225
178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225
179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90225
18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225
181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20090226
182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90227
183	「은행 자본확충 펀드」 신청 현황	20090227
184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20090304
185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304
186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20090305
187	Wall Street Journal(Asia版)(3.6,金, 11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기고문 보도	20090306
188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20090309
189	09.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20090309
190	서민 고통분담에 금융위 공무원 동참	20090310
191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20090310
192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영국 및 미국 출장	20090311
193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20090311

194	㈜아이씨엠 등 2개사 및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311
195	Fitch社の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보도참고자료)	20090313
196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20090313
197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20090316
19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을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316
199	금융위원회 영국 런던 현지 금융·경제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16
20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17
201	2009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317
202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금융기관 방문 실시	20090318
20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318
204	은행자본확충펀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20090320
205	금융위·금감원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20090323
20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324
207	금융위기극복 관련 추경 편성	20090324
208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24
209	글로벌파이낸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	20090325
210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현황(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326
2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326
212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327
213	“금융위기 극복 워크숍”개최	20090327
214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090330
2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31
216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	20090331
217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20090401
218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090401
219	0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시	20090402

220	금융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403
221	북한 로켓발사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0406
22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407
223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090406
224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20090408
225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0408
22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408
227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판매중단 위기」 보도내용 관련	20090408
22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20090409
229	2009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409
230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20090409
231	정무위 업무보고	20090413
232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415
233	리먼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090415
234	금융투자업 인가	20090415
23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90422
236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20090421
237	위기를 기회로 활용,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20090423
238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지원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최 -	20090423
239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90428
240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20090429
241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20090430
242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04
24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4
244	제2차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090506
245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본)허가	20090506
246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	20090506
247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508

248	'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20090512
249	2009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513
250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극복'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개설	20090513
251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513
252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20090513
25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20090514
254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0090514
255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20090515
256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20090515
257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20090518
258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518
259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20090520
260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20090520
261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090526
262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20090526
26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527
26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27
265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090527
26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20090529
267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초청연설)	20090529
268	축사(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20090603
269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03
27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605
27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20090609
272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20090611
273	'09.5월 중기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20090612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608
275	2009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616
27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20090617



277	(가칭)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 인가 등	20090617
278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617
279	SH&C생명보험(주) 및 KB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20090617
280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17
28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090617
282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617
28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618
284	한국의 금융정책(2009 중앙데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청연설)	20090619
285	보험범죄 근절대책	20090619
286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20090622
287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20090623
288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 참석	20090623
289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 주최 HongKong Business Forum 기조연설)	20090624
290	(주)씨모텍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624
29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624
292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0625
293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20090629
294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진출 및 FSB 창립총회 주요 결정사항	20090629
29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090630
296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 개시	20090701
297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701
29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01
299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	20090701
300	위원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20090703
301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20090703
302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20090706
303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20090707
304	(주)윈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708

305	디도스 공격 관련 금융권 비상 대응체제 가동	20090709
306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0709
307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20090710
308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20090710
309	금융위원회 외부 금융전문인력 채용 확대	20090710
310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예정(7.13일)	20090713
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90714
312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90715
313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716
314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20090716
31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16
316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분·예비인가 의결	20090716
317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716
318	0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20090717
319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0090722
32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722
3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722
322	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722
323	금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90722
32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723
325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20090728
326	금융투자업 인가 및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20090729
327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90729
328	국제회계기준(IFRS) 기초연설문	20090729
329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0730
330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090730
331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20090805
332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90806

33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90811
334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20090813
335	산은·기은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할 계획	20090817
336	200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817
337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최초로 영문 블로그 개설	20090818
338	제 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20090820
339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20090824
340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20090825
341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0826
342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090826
343	금융투자업 인가	20090826
3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90827
34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8
346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90831
347	금융위원회, 외부전문가 채용 비율 10% 초과	20090831
34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	20090831

## □ 해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09
2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13
3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20081013
4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20081014
5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맨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023
6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27
7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LTV 더	20081028

	문다」 제하의 기사 관련	
8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03
9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20081104
10	경향신문 제21면 「‘뒷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뒷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20081106
11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3
12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20081117
13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118
14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20081118
15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9
16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20081120
17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굶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21
18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126
19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127
20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201
21	「연합뉴스‘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203
22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20081205
23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4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을 2% 밀돌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5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26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 땀 강제 구조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211
27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20081216
28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20081216
29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20081231
30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31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32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33	이데일리, 「금감원장 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34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35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36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37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38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39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40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41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42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43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자료	20090216
44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45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46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47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48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49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50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51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52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53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54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55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56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57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58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59	주택담보대출 LTV · 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60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61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62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63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 2.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별첨 참조

(별첨)

##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3) KIKO(키코) 피해 관련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 KB금융지주의 김중화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li> <li>○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li> <li>○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마련 발표('09.2.19)</li> <li>○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li> <li>○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li> <li>○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li> <li>○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li> <li>○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27)</li> <li>○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li> </ul>
(1)-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6.1)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p>
<p>(1)-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p>	<p>□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p> <p>□ 향후에는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p>
<p>(1)-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p>	<p>□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p> <p>※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소기업금융지원조치</p> <p>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p> <p>* '09.8월말까지 KIKO손실기업 5.3조원 포함 총 20.4조원 지원</p> <p>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09.1.8)</p> <p>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2.12)</p> <p>*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2.19)</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p> <p>*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계획) 44조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경기회복,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p>
(1)-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 '09.4.28~ 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제재 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p>
(1)-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p>□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p>
(1)-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말) (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1)-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 '08.11월~'09.3월간 매월 1/5(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2)-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li> </ul>
(2)-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한-일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불로 증액 <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를 2차례 연장('10.2월까지)
(2)-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공기관 평가시 기반영중인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p> <p>※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p>
<p>(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li> <li>-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li> </ul>	<p>□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정보 DB 구축</li> <li>·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li> <li>· 금융사 내부통제강화·시스템리스크 방지: 장기성과등을 감안하도록 파생거래성과보수체계개선, 장내통화선물리모델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개선 추진 등</li> </ul> <p>□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p> <p>□ 특히 파생상품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p>□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p> <p>○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 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p>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p>□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p> <p>○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p>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신용카드의 부채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 제한 관련</p> <p>○ 신용카드의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09.4.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p> <p>* 동 개정안에서 체크·직불카드는 고객의 결제성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되어 과소비 우려 등이 없으므로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지 않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별화 관련</p> <p>○ 최근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재위 논의과정에서 폐기</p> <p>* ('08)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20%→30%)하는 개정안을 김효석·이용섭 의원이 제출</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 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여, 그 외 업무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6조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li> <li>* 제307조 :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 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p>(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p>○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p>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p>○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p> <p>○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p>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li> </ul>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li> <li>□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li> <li>○ 또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제출 ('09.4월, 권택기 의원)</li> <li>□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li> <li>□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li> </ul> <p>*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 ('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p>
<p>(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08.11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수립하고,</li> <li>○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수립 및 '10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 추진</p>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p> <p><input type="checkbox"/>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금감원, 08.12)</p>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CP발행이 불가능하였음</p> <p>○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포함하여 제출('09.2.10 제출, 정무위 계류중)</p>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p><input type="checkbox"/>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 3. 내 외부 감사 관련

- 08.9월 09.8월 내외부 감사 수행내역(완료, 진행포함), 감사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 완료된 감사의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 보고서 (담당기관 및 수행장 연락처 포함)

#### ☐ 별도 첨부

- 2008자체감사, 2008신용보증기금감사, 2009여신금융협회감사 결과보고서 각1부

####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 II 감사 실시 결과

### 1. 총 평

-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부문별 총평]**

###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0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회가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장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 나. 물품 관리 실태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정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구 재정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에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급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 · 업무량 · 업무난이도 · 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사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특 등 여 부
국 무 부 재 정 부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x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x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x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x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x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x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x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비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x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x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x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x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x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x	x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금 감 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계					773,800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 4.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 1) 금융위 임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

- 별첨 참조

(별첨)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정완규	1.13~19	뉴욕, LA	Global Public Policy Symposium 참가	3,511
이승우 변영한	2.7~14	뉴욕, 워싱턴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미국 워싱턴)'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11,569
이종화	3.25~29	캐나다	'제 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2,682
이종화	4.1~4.4	인도 뉴델리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1,768
김경률	4.7~13	노르웨이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3,126
전광우 김주현 이현철 오화세	4.15~4.21	뉴욕, 워싱턴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16,874
윤상기	4.23~26	싱가포르	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1,331
이종화	5.5~5.15	제네바, 브뤼셀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3,949
전광우 홍영만 이현철 이명순 이수영 빈현준 장인선	5.25~5.30	프랑스 파리, 영국런던,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42,615
임승태	5.26~29	북경	ADB 워크샵 참석	1,453
이명호	5.27~30	베이징, 칭다오	방중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1,457
김용환 손성은	6.1~5	영국 런던	한·영 미래포럼 참석	8,547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집행액
전광우 유재훈 이현철 고상범 오화세 김태훈	6.12~13	베이징, 상하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8,293
임승태	6.17~6.22	뉴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2,447
박재훈	6.17~22	샌프란 시스코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3,268
이종구	6.18~6.22	런던, 프랑크 푸르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여비 지급	1,988
유재훈	6.25~29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3,142
이종화	6.27~6.29	홍콩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참석	2,994
오화세	7.29~7.31	뉴델리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1,768
김건영	8.23~8.30	호주, 싱가폴, 홍콩	주요국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노력 현지조사	4,116
김현수	8.24~9.2	룩셈부르 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4,205
전태원	8.25~9.1	핀란드, 스웨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3,059
오유정	8.28~9.5	홍콩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3,147
김선문	8.30~9.7	영국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3,857
홍영만 최유삼	9.15~19	스페인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9,495
김성조	9.20~27	남아공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을 위한 국 외 출장	1,177
권혁세	9.24~26	홍콩	CLSA 홍콩 Investors'forum에 참석	935
최윤정	9.28~10.5	일본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기관 과정 참가	141
이종구 주홍민	10.13~19	헝가리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13,883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진웅섭	10.13~25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10,319
박재훈	10.20~22	동경, 홍콩	한국경제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	2,843
유재훈 조충행 이명호	10.21~22	북경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3,703
전광우 이현철 고상범 신재형	10.22	중국 베이징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자 간 회담	6,293
이창용 이동훈 오화세	10.23~25	싱가폴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개최 참석	7,549
전광우 홍영만 최유삼 고상범	10.31~11.1	발리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8,220
이창용 최훈 오화세	11.2~6	뉴욕, 보스톤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13,668
김동환	11.10~13	북경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1,581
이호형	11.10~15	파리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3,533
목정민	11.13~21	런던	Glo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4,057
전광우 최훈 이명순 이수영 오화세 신재형	11.16~20	뉴욕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의 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20,508
이종구 이현철	11.16~19	런던	한국경제 IR 참석	11,194
김주현	11.25~26	동경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워크 샵 참석	1,779
이종구 박영춘 오화세	12.1~3	홍콩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7,021
이현철	12.14~16	홍콩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1,506
김동환	12.15~19	비엔나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담 참석	2,994

# □ 2009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사유	지출비용
조인강	1.15~17	동경	제4차 고위공무원정책과정 참석	143
이창용	1.28~2.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포럼) 참석	6,692
김동환	2.16 부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부임에 따른 여비	4,933
박진애	2.27~3.2	도쿄	제10차 동경 라운드테이블 참가	2,073
이종구, 신재형	3.11~21	뉴욕,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설명회 참석	14,547
이창용, 신현준, 오화세	3.11~15	런던	영국 IR 참석	10,739
전수한	3.10~11	동경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552
이창용 신현준 류근하	3.24~26	홍콩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가	5,673
이종석	4.26~5.3	런던	런던집합연수 참석	4,054
임승태, 서재홍	4.27~5.4.	산티아고	세계저축은행 총회 참석	16,283
김선문	4.25~5.1	바젤	국제회계감독기구 6차 정기회의	3,503
김종훈	4.26~5.3	런던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4,048
김승민	5.6~8	싱가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연차총회참석	1,769
김건영	5.10~16	페루	한-페루 FTA 협상	3,259
신현준	5.17~21	호주	한-호주 FTA 협상	2,505
김광수 유영준	5.17~5.21	런던	글로벌금융 시스템개혁 상호협력방안 논의	4,459
진선영	5.17~23	파리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3,467
이종구 신현준 김승민	5.25~29	스위스 프랑스 홍콩	FSB 오리엔테이션 및 관계자 면담	16,598
진동수	6.24~27	스위스	매경포럼 및 FSB 창립총회 참가	30,717

김홍식 신현준 김승민 오화세		프랑스 홍콩		
추경호 김태훈	6.29~7.4	프랑크푸르트 파리	선진국 정책금융공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 기 대응 현황 파악	10,979
류근하	6.30~7.02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가	903
송현도	7.6~9	싱가폴	해운시장 동향 파악, 국외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홍보 관련 참가	1,335
이한진	7.7~7.12	브리스번	제12차 APG 연차총회 참석	2,436



## 5. 직원 징계 현황 관련

### □ 직원 징계 현황 관련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 6. 임직원 민형사 처벌 관련

- 임직원 민형사 처벌내역(처벌일,처벌받은 임직원, 처벌사유 및 내용, 이후 조치사항)
-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

☐ 별도 제출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처분 통보서 1부

## 7.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규모와 실적

□ 프리 워크아웃 확정자 수(기준일자 : 2009.8.31)

(단위 : 건)

구 분	'09.6	'09.7	'09.8	합 계
프리워크아웃 확정자	1,050	2,436	1,075	4,561

□ 프리 워크아웃 확정자 4,561명에 대한 업권별 인원수  
(1인당 평균 채무기관수 : 3.7개)

(단위 : 건)

업 권	업권별 인원수	업 권	업권별 인원수
은행	5,387	신용보증재단	7
농협/축협	264	상호저축은행	878
수협	5	산림조합	1
카드	7,481	새마을금고	46
할부금융	22	신용보증기금	1
생보	424	신용협동조합	39
손보	7	캐피탈	2,263
보증보험	4	합 계	16,829



## 홍영표의원



1, 2. 08년, 09년 예산서

□ 08년, 09년 예산서 : 기제출

### 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08년~09년 6월)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08년 ~ 09년 6월)

(단위 : 천원)

연 월	금 액	비고
2008. 3월	24,944	
2008. 4월	42,662	
2008. 5월	53,699	
2008. 6월	45,193	
2008. 7월	53,792	
2008. 8월	91,992	
2008. 9월	44,330	
2008.10월	65,267	
2008.11월	44,142	
2008.12월	65,194	
2009. 1월	50,987	
2009. 2월	43,309	
2009. 3월	52,544	
2009. 4월	51,422	
2009. 5월	51,439	
2009. 6월	58,166	



#### 4.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포함)등 각종 감사 결과 보고서

- ☐ 우리위원회 설립(08.3월) 이후 외부(감사원)감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이 09.5.28 ~ 7.17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내부절차를 거쳐 처리중에 있음
- ☐ 2008자체감사, 2008신용보증기금, 2009여신금융협회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첨부

#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 개요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 **[부문별 총평]**

###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장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 (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08예산 현액 (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계		2,693,330	1,424,557		52
기본경비	소계	2,137,330	1,091,779		51
	일반수용비	950,900	이사비용	31,359	15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78,000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22,062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8,984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2,200	
			소계	142,605	
	임차료	475,986	사무실 임차료	280,786	62.5
			차량 임차료(3~5월)	16,547	
			소계	297,333	
	시설장비유지비	211,823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223,305	105
	시설비	339,325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246,699	87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33,000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10,23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868	
			소계	295,797	
	자산취득비	159,296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132,739	83
정보화 지원사업	소계	556,000	332,778		60
	일반수용비	9,650	-	-	
	연구개발비	193,00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55,800	29
	자산취득비	353,350	전산실 이전	195,938	78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15,967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49,060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16,013	
			소계	276,978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차종 (차량번호)	기사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 (km)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에쿠스 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2,397		2,324
체어맨 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2,200		1,885
그랜저 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368		845
SM5 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511		1,062
SM5 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511		1,257
SM5 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434		1,112
SM5 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636		1,385
아반떼 01모7285		04.04.20	14,040	휘발유			192	163	277	632		1,013
계							2,278	2,765	2,646	7,698		

## 나. 물품 관리 실태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예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제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본 부				F I U		
	채용월	성 명	근무부서	연 봉*	채용월	성 명	연 봉
2001	7월		의사운영팀	15,248	5월		15,876
	11월		대 변 인 실	15,248	7월		15,876
2002	-		-	-	6월		15,876
2003	6월		중소서민과	14,998	-		-
	7월		혁신행정과	14,998			
	11월		구조개선과	14,998			
2004	12월		사무처장실	14,877	12월		14,364
	12월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14,877			
2005	-		-	-	5월		12,852
2006	7월		보 험 과	14,139	-		-
	11월		정책홍보팀	14,139			
	12월		공정시장과	14,139			
2007	3월		법무담당관	14,139	-		-
	4월		자산운용과	14,139			
2008	4월		위 원 장 실	13,530	7월		12,24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4월		운전원	23,400			
	5월		증선위원실	13,530			
	5월		혁신행정과	13,530			
	5월		글로벌금융	13,530			
	5월		운전원	23,400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본 부				FIU
근무기간	기본급	정근수당	연봉액	연봉액
1년미만	1,127,500	미지급	13,530,000	연봉계약서에 따름
1년~2년	1,168,500	58,425 × 2회	14,138,850	
2년이상	1,209,500	120,950 × 2회 ~	14,755,900~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근무년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재정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과 명	과 제 명	계약자	계약 방식	기간	계약금 (천원)	현황 누락	특 등 여 부
국 무 부 청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	07. 2. 9 - 5. 8	14,250	x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수의	07. 7.25 - 8.24	28,500		x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수의	07. 8. 3 - 11. 2	23,750		x
	금융법령·법규 영문화		수의	06.12.11 - 5.10	150,000		x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수의	07. 6.26 - 8.25	19,000		x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수의	07. 9.21 - 12.20	28,500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수의	07.10.19 - 12.18	28,500		x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수의	07.10.12 - 12.11	28,500		x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경쟁	07.10.26 - 12.11	38,000		x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경쟁	07.10.29 - 12.13	28,500	x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경쟁	07.11.2 - 12.17	19,000		x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수의	07.11.5 - 12.20	33,000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수의	07.11.15 - 12.20	25,000		x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수의	07.11.19 - 12.24	29,000		x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쟁	07.11. 7 - 12. 7	7,800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수의	07.10.25 - 12.14	21,800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수의	07.12.20 - 08.2.19	30,000	x	x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경쟁	07. 7.30 - 12.14	33,200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경쟁	07. 9. 5 - 12.20	38,000		○
FIU	지분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28,500		○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쟁	07.10. 5 - 12.20	33,000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수의	07.10.19 - 08.3.4	45,000		○
금 감 위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수의	07. 9. 7 - 12.20	21,000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의	07. 7.24 - 10. 8	22,000		○
계					773,800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 **2009년 여신금융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9.**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여신금융협회 현황**

### **I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부적정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라. 규정 부적정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 I

## 감사 개요

### < 목 적 >

◇ 여신금융협회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1.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7.6~7.17 (2주간) (예비조사 : '09.6.29(월)~7.3(금))
- ☐ 감사대상업무 : 기관운영 전반 (조직, 인사, 예산, 사업 부문을 포괄)
- ☐ 감사대상기간 : 06.7.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 \* 여신금융협회는 재경부 종합감사('99) 이후 감사 미실시
- ☐ 감사반원 : 6명 (감사담당관 포함 5, 금융결제원 직원 1)

### 2. 감사 방향

- ☐ 여신금융협회가 소규모의 장기 미수감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통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
  - 관련 규정의 완비 및 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정부위탁 업무 및 자율규제 기구 역할 수행 실태

##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98.3월 설립)

###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

### □ 회원사 : 39개사 (카드(5), 리스금융(15), 할부금융(16), 신기술금융(3))

- '09.5월 현재 여신금융사는 총 55개사(협회 가입율 70.9%)

### □ 정원 : 40인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및 직원 38명, 회장 : 비상근)

### □ 주요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지도·권고 등\*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조사·연구, 이용자 민원의 처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 □ 재원조달 및 지출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수입(a)	수입 총액		4,706	5,686	6,587
	회비	카드사	2,765	3,507	3,330
		리스사	732	909	1,093
		할부금융사	819	995	1,293
		신기술금융사	168	188	235
	전기잉여금		222	87	636
지출(b)	지출 총액		4,471	5,328	5,665
	인건비		1,843	2,840	2,316
	홍보비		182	473	269
	용역비		277	197	380
	업무추진비		168	246	321
	회의비		224	293	277
	카드정보관리비		507	623	707
	기타(전산비 등)		1,270	656	1,395
차이(c=a-b)			235	358	922

### Ⅲ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 최근 10여년간 장기미수감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의 경영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함
-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탁업무(경영정보공시),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금융위 정책집행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 감사결과 위탁업무 등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요한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경비집행, 카드관련정보 관리·통제에 일부 문제점 발견
- 주요 발견 위규사항인 IT관련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건의 경우 협회는 금융위의 감사실시계획 통보('09.5) 이후 IT회계의 위규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행함
  - \* '07.10월경 現부회장이 IT사업 회계 위규사항 인지
  - '07.12.28 IT사업 수입·지출 중단 결정
  - '09.2.11 '08년도 결산 이사회에 IT사업 현황 보고
  - '09.6.9 " 신용카드사장단 회의 보고
  - '09.6.16 " 이사회 추가 보고 (관련 임직원 징계)
  - '09.6.23 " 총회 보고('09년 이후 IT사업 수입·지출·양여금 처분 승인)
- 장기 미수감 비영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위규관행을 시정하여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감사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금융위 감사로 인해 협회의 예산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보완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 마련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 관련 수입·지출을 총회 승인 없이 편성·집행하고 관련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② 예산편성 및 집행부문의 경우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 지급한 후 지출증빙 미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누락, 예산 집행 후 사후전용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③ 근거규정이 없거나 미흡·불명료한 상태에서 고문·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고 계약조건에 없는 경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
- ④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의 경우 사용자 PC공유 폴더 정보노출 및 DB내 중요정보 암호화 미비 등이 발견되었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IT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협회는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을 인지한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하자를 치유했음을 금융위 감사 착수 이후 보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감사하게 됨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IT 관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 실시

#### 〔Ⅲ〕 감사 결과

##### <현황>

- 협회가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 위탁하였던 전산업무를 '03.8.1 협회가 직접 담당하면서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신용카드가맹점공동망운영사업(신용카드사 결제망 공동사용에 대한 중개수행)  
국세청용역사업(신용카드영수증복권 자료처리용역 수행)  
외환전산망운영사업(여신금융회사와 한국은행간 외환전산망 연결작업 대행)

- 협회는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잉여금 2.9억원은 차기 아월)
-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 인지 이후 IT 관련사업 수입의 지출 중단 결정('07.12.28)한 뒤, 자체조사 실시
  - 이사회·신용카드사장단 회의 보고를 거쳐 IT 관련사업 수입·지출·잉여금에 대하여 총회 승인('09.6.23)을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행함

## <지적사항>

### ① 총회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및 결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예산총계주의)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03.6.13 신용카드사장단회의에서 IT 관련사업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한 이후, 협회 경영진은 '07년말까지 별도의 총회 승인 없이 IT 관련사업 예산을 운영('03.8~'07년말)함에 따라 「정관」 제36조를 위반함

### ② 수입금 집행 시 예산전용절차 등 미준수 및 방만한 운영

-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협회 예산은 회계간 전용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함

- '03.8~'07년말까지 IT 관련사업 예산 수입 22.6억 중 19.7억원을 부회장 전결로 집행하였으며, 그 중 8.5억원\*을 일반회계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용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함

#### <전용금액의 사용 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고문료	사무실이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총계
4.8억	1.9억	1.0억	0.4억	0.2억	0.2억	8.5억

### ③ 금융위에 예·결산서 미보고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에 의하여 협회는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주무관청인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협회는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 <미보고 내역>

연 도	미보고 사항
'04	결산서
'05	예산서, 결산서
'06	예산서, 결산서
'07	예산서, 결산서

### <조치요구사항>

- 향후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 전용시 이사회 승인 등 전용절차를 준수하시고
-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정관」 제36조 ② :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결산은 매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u>이사회</u>

-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나**

###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산운영에 대해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음
  - 그러나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바,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집행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이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여타 부문에서도 발생 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필요성 존재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예산과목별 편성 및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감사인원과 시간의 제약상 업무와 무관한 사용개연성이 존재하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소비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감사

#### **〔Ⅲ〕 감사 결과**

**1****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대내·외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 및 기밀비'로서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함
- 업무추진비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인건비와 달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므로 사용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지적사항>**

- 이사회('03.12.11)에서 임원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기 전까지 임원은 주로 업무용 신용카드(기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옴
- 이사회 의결 이후, '04년부터 매월 상근부회장에 200만원, 상무 이사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5년간 1억 8천만원 지급
-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증빙 없이 처리함에 따라 사용용도 검증이 불가능해짐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시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산출근거 명시)를 작성해야 함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의 팀별 세부내역(간담회, 대국회업무 등) 및 산출근거가 없이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만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편성이 세부항목별 수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

###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건별 세부명세를 작성하시고 세부건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9조 【예산의 작성】 ① 해당 팀장은 제8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

- 「예산회계규정」 제13조는 예산집행시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lt;지적사항&gt;

- '06년~'07년 회의비, 홍보비, 여비교통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부족 금액을 3차례에 걸쳐 사후에 전용

전용일	구분	초과집행내역
2006.07.01	일반회계 회의비	2006.06.30 현재 44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06.30 현재 12백만원 초과집행
2006.11.01	일반회계 구독료	2006.10.31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복리후생비	2006.10.31 현재 3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10.31 현재 8백만원 초과집행
2007.10.25	일반회계 용역비	2007.09.30 현재 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여비교통비	2007.09.30 현재 0.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구독료	2007.09.30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 예산편성은 총회의 승인(정관 제36조)을 거쳐야 하는 반면, 목간  
전용은 부회장 전결(위임전결규정)로 가능하므로 사후 전용이 남용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우려가 존재

## &lt;조치요구 사항&gt;

- 분기나 월별 결산을 통해 향후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의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13조 【집행원칙】 예산집행은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며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정관 제36조 ②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이사회
	나. 관간 전용	02-04-02	회장		이사회
	다. 항간 전용	02-04-03	회장		이사회
	라. 목간 전용	02-04-04	부회장		

- 협회 특성상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 경우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집행임
- 이에 따라 여비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여비지급규정」 제7조는 식비 등 국외출장시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 경비 일부를 보조시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

### <지적사항>

- 現 부회장의 베이징올림픽 초청행사 참가 출장('08.8.7~11)시, 타 기관 (비자인터내셔널 코리아리미티드)이 숙식 등을 포함한 초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외출장의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
- 따라서, 체재비의 30%인 \$750(\$150×5일)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차감 없이 체재비 전액인 \$2,500(\$500×5일)을 지급하여 「여비지급규정」 제7조 위반
- \* 출장일이 동 규정 신설('08.8.1) 이후임에도, 규정 신설일 이전에 행한 출장 품의('08.6.26)에 따라 체재비 삭감 없이 지급

### <조치요구 사항>

- 여비차감지급 규정을 준수하시어 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여비지급규정」 제7조 【차액여비】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실제 보조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규정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규정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
- 협회는 소규모기관이므로 대규모기관에 비해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바,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근거규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거규정 존재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검토
- 특히 채용에 있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위(고문, 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인사 관련규정에 근거하는지를 살핌
- ☐ 아울러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 유무 및 위배 여부, 부적정 존재 여부, 필요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

### **[III] 감사 결과**

□ 임명,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의적인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에 따라야 함

- 협회의 채용은 정관, 인사규정 등 근거규정을 따르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용해야 함

### <지적사항>

□ 협회의 「직제규정」 제3조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에는 사무직원(부장, 팀장, 선임조사역, 조사역)과 별정직원(주임, 연구위원, 연구원)이 있음을 규정

- 따라서 고문, 수석전문위원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인사관련 규정에 채용근거가 없음

\* 여타기관(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정관에 고문임명 근거규정 존재, 수석전문위원은 유사사례 없음

□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승인,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 등을 통해 임명

- 협회는 000 前 부회장이 임기 종료 후 퇴임하면서 이사회('07.3) 결의를 거쳐 임기 1년의 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외홍보활동을 위해 임기 1년의 수석전문위원을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07.1.29)를 거쳐 임명한 바 있음



- 임명계약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자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하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연봉 3천만원, 업무활동비 월 2백만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고문, 수석전문위원 현황>

직위	성명	재직기간	임용사유	임명절차	1년간 소요경비
고문	○○○	2007.4.9~ 2008.4.8	경영자문	이사회승인(2007.3.28)	자문료 연6천만원 업무용차량 리스료
수석 전문위원	○○○	2007.2.13~ 2007.3.12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수석 전문위원	○○○	2007.3.13~ 2007.9.30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비계획적인 인사 운영을 초래하고

- 고문, 수석전문위원의 신분(임직원 여부)이 모호하게 되어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초래
- 향후 직위 과다 운영 등 자의적인 인사 운영 가능성 우려

### <조치요구 사항>

- 향후 자의적인 인사 운영 및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고문, 수석전문위원 등 채용 및 인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정관, 예산회계규정, 「신용카드관리요령」(업무추진비), 「복리후생제도규정」(복리후생비) 등 근거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면 근거규정에 준하는 기준 (예:임명계약조항)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 고문임명계약('07.4.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결)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지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음

### <지적사항>

#### ①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법인카드 제공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던 바, 임원(기명법인카드), 부서장(기명법인카드), 부서장 미만 직원(공용법인카드), 고문(기명법인카드)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줌
- ☐ 000 前 고문은 부회장 재임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퇴임 후 고문에 임명('07.4)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재직기간(1년) 동안 업무추진비 1263만원 사용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임명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지급근거 없는 행위

## ②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 협회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자녀학비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 지원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지급대상자는 非명시)

□ 협회는 「복리후생제도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해 온 바, '07.9.000 前 고문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상무이사 전결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396만원)

□ 「복리후생제도규정」은 지급대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규정의 해석을 통해 지급대상자에 고문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복리후생제도규정」의 근거규정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취업규칙 제1조),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직원임

- 고문이 전직 임원이라는 점, 임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문은 「인사규정」 제8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고문은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이 아닌 바,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

○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임명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여타 협회(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고문에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이며, 이는 「복리후생제도규정」이 명시적으로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됨

### **<조치요구 사항>**

- 고문 등에 대해 근거규정·임명계약조건 등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복리후생제도규정」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편향된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여타협회의 경우(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심의

□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를 행할 것을 규정함

### <지적사항>

□ 협회는 現 부회장 부임이후, 고문에 대한 업무카드 제공을 이유로 당시 000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주의'조치('08.12.10)

○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은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08.12.10)에 따라 경영지원팀장을 징계조치

○ 「인사규정」 해석상 징계시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

-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목적, 진행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체했다고 볼 수도 없음

\* 인사규정 제22조(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취지는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조치요구 사항>

-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징계 실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직제규정」 제3조 【구성원】 협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집행이사 포함)와 직원을 둔다.
- \* 「취업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인사규정」 제8조 【채용기준】 직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1. 사무직원 : 대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2. 별정직원 : 기사, 비서,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석사이상학력소지자)등

②전항에 불구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 「인사규정」 제21조 【표창 및 징계의 실시】 ①표창 및 징계는 이사가 상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회장이 이를 행한다.
- \* 「인사규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감사대상에는 근거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근거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조직관리, 예산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되, 특히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예산집행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협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협회 규정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하여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타 기관에 비해 「여비지급규정」이 현저히 과도한 여비를 규정하는지 여부를 검토

## 〔Ⅲ〕 감사 결과

- 「여비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여비(통신비, 접대비)로 구성되며, 교통비와 숙박비, 기타여비는 실비로 지급
- 식비를 별도로 실비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재비의 주된 용도는 식사 소요비용으로 판단됨

- 협회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단체식사 소요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체재비의 주된 용도는 개인식사 소요비용에 한정

- 「여비지급규정」 별표2는 체재비와 준비금을 직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체재비(일별 \$500), 준비금(\$1200)을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사항>

- 체재비와 준비금 용처를 고려시 「여비지급규정」 별표2의 임원에 대한 체재비와 준비금 책정금액은 과다함
  - (체재비) 체재비의 용처가 단체식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개인식사 소요비용임을 감안하면 일별 \$500은 과다
  - (준비금) 여권 및 입국사증 등 출국수속비(여비지급규정 제16조)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금의 용처가 별로 없음
- 임원에 대한 체재비와 준비금이 여타 협회와 비교시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여행경비가 필요이상으로 지급\*됨

\* '06~'08년간 여행준비금, 체재금 지급액이 부회장(4,910만원), 상무(2,090만원)

### <협회별 체재비, 준비금 현황>

(단위:\$)

	체재비(일별) * 일비, 식비 포함	준비금	계 (5일 출장 기준시)
여신금융협회	500	1200	3700
은행연합회	290	600	2050
손해보험협회 (부회장기준)	130	750	14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10	600	1150



### **<조치요구 사항>**

-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시어 임원의 체재비, 준비금 금액을 여타 협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 **1 중요정보 유출 관련사항 점검**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및 주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DDoS공격 등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정보 관리실태 및 전산 시스템 보호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 존재
-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실태점검 시행(2008.5)'과 관련하여 협회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에 명시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사용자PC 내에 저장된 중요정보의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요정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내부 사용자PC 점검 및 서버의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PC에 대하여 샘플링(10%)검사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 : CoolCheck Desktop v.181(개인정보검색 프로그램)
  - 검사대상 : 직원 5명(협회 내 직원 10% 선정)
  - 검사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서 다른 사용자PC로의 공유폴더 접근을 통해 패스워드 설정여부 및 파일실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파일 송수신 및 DB저장시 중요정보 데이터의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샘플링(10%) 검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의 대량 데이터는 PC에 존재하지 않았음

\* 협회보유 중요정보의 과거 유출여부 파악은 개인 이메일 검사 등이 필요한 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대량 보유여부 검사로 갈음

#### <중요정보 보관 여부 검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주민등록 번호	법인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기타	계
사용자 A	0	0	2	5	2	0	9
사용자 B	0	0	0	11	0	0	11
사용자 C	0	0	5	0	2	0	7
사용자 D	0	0	0	3	0	0	3
사용자 E	0	0	0	3	0	1	4
계	0	0	7	22	4	1	34

## <지적사항>

### ① 사용자PC 개인정보 검색 및 공유폴더 점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협회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 접속된 사용자PC(35대)의 공유폴더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사용자PC에서 공유폴더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파일이 실행되는 등 정보 노출이 있음

## <조치요구 사항>

- 향후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치 않도록 하며, 필요시 정보 공유폴더에 대해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3. 개인용컴퓨터(PC)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사유·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 승인을 받을 것)

## ② DB 저장시 중요정보 암호화 미적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1항 3호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화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신용카드 정보 및 가맹점 정보 등 업무처리시 협회와 참가기관간 정보송수신의 경우 VPN장비를 통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으나,
- DB 저장 데이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

### <조치요구 사항>

- DB 저장시 중요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해킹 방지대책)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내부사용자에 의한 대량의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관리대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 허가되지 않은 외부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신망 보안대책의 점검 필요성이 있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협회의 「전산업무규정 및 관련 전산보안지침」(2008.12월)의 보안대책 사항에 대해 적절성 확인 및 실시여부 점검
- ☐ 무선공유기 및 자동 무선네트워크 설정 기능에 의한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접속하여 점검 실시

### 〔Ⅲ〕 감사 결과

- ① 사용자PC의 USB, 외장형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통제기준이 없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제 받지 않고 사용 가능
- ② 외주용역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외주용역보안관리 대책이 미비함

③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선 LAN사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

- 이에 따라 현재 자동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노트북 등 일반 사용자PC에서 별도의 유선LAN 연결 없이도 무선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 <지적사항>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내부 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치요구 사항>

- 내부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관련 규정 및 지침**

-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2008년 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2.**

**금 용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 감사개요**

### **II . 신용보증기금 현황**

1. 일반현황
2. 신용보증 지원현황

### **I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라. 정/ 현원 운용 부적정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 개요

### < 목 적 >

- ◇ 산하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1. 감사개요

- ☐ 감사 기간 : '08.11.17 ~ 28 (2주간)
- ☐ 감사반 구성(9명) : 감사담당관실(과장외 3명), 의사운영정보팀(1명),  
외부기관(4명 : 금감원·예보·캠코·기은 각1명)
- ☐ 감사방법 : 실지 감사

## 2. 감사대상 부서, 기간 및 업무범위 등

- ☐ 대상부서 : 본부 (비서실, 감사실, 경영지원 및 채권관리부서 등)
- ☐ 대상기간 및 업무범위 : '06~'08.10. 기간중 처리 업무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현황
  - 예산편성·집행현황
  - 인력운영의 적정성
  -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

※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통제(감사) 제도 운영 및 구상채권 관리 등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

## Ⅱ 신용보증기금 현황

### 1. 일반현황

#### □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 조직 및 인원 ('08년 11월말 현재)

##### ○ 조 직

- 본 부 : 5 부문·1 본부·1 연구소
- 영업점 : 9 영업본부, 86 영업점

- 인원(현원) : 총 2,172명 (임원 8명, 직원 2,164명)

#### □ 업 무

-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 등이 있으며 그 중 신용보증업무가 주업무

#### <기금관리 계정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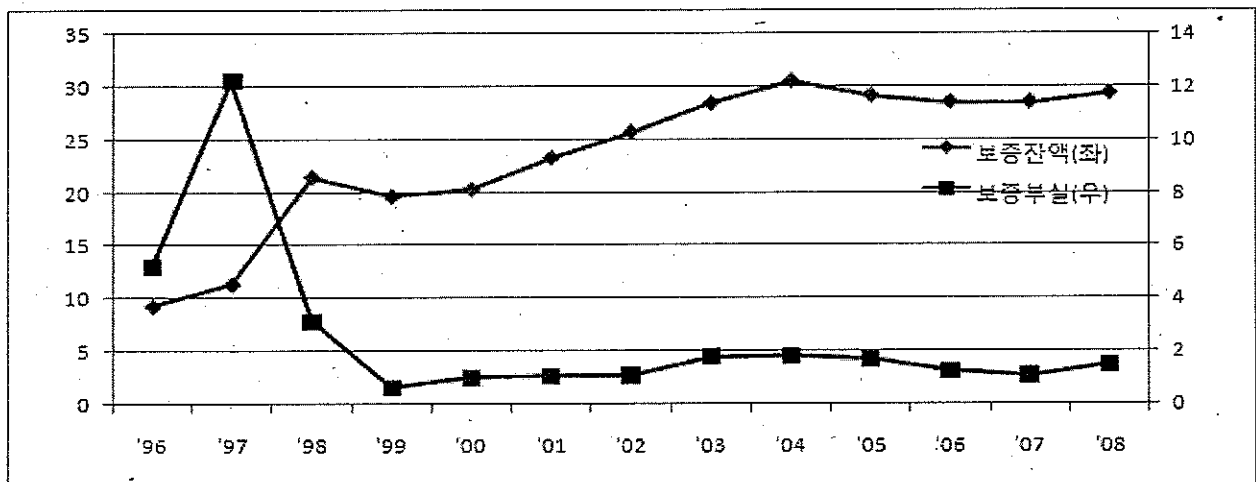
구 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업무감독권	금융위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관리과)
정원(명)	2,141	127	14
보증잔액(억원)	293,583	36,763	9,355

## 2. 신용보증 지원현황

-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보증 지원확대에 따라 보증규모가 급증( 21.5조원('98)→ 30.5조원('04))
- '05년 이후 장기·고액·중복보증의 축소를 통해 보증규모를 축소(30.5조('04)→28.5조('07))
- '08.6월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증공급 규모 확대 노력

<신용보증 잔액 및 부실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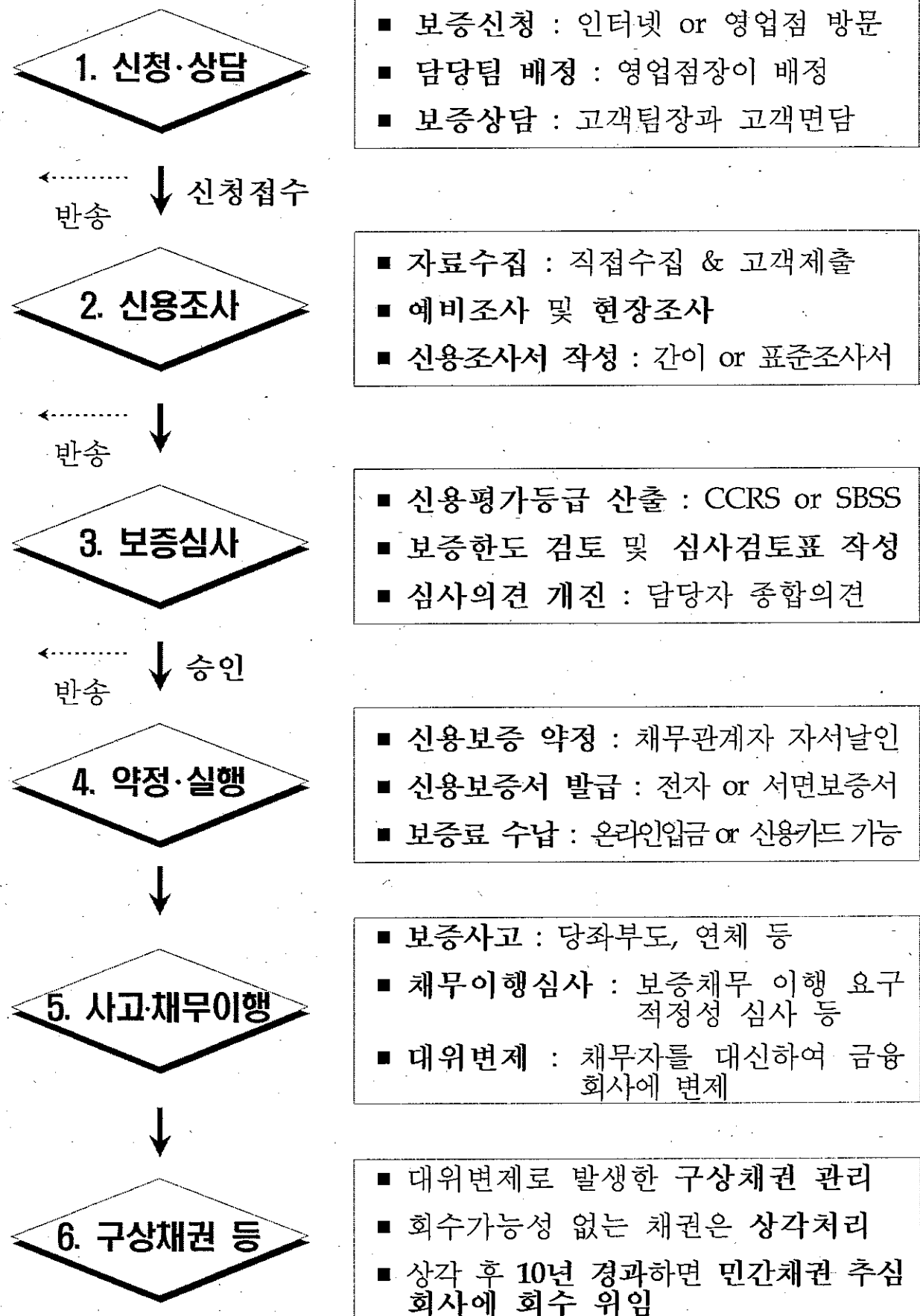


- '08.11월말 현재 보증잔액 29조 3,583억원(전년말대비 +2.9%)중 대출보증이 24.6조원(83.9%)임
- 보증업체수 : 직접보증 184,778개, 위탁보증 5,321개, 재보증 1,126개
- 평균보증비율<sup>1)</sup>은 83.5%, 보증한도<sup>2)</sup>는 95%이며, 평균보증료율은 1.36% 수준 ('08.11월 기준)

1) '보증금잔액 / 대출금잔액' (100% 전액보증 대상(이행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제외)

2) '08.11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85%에서 95%로 확대

## 〈참고〉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



### Ⅲ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국회 공기업 특위('08.8월)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 내부통제시스템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코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공공기관 監事 직무평가결과('08.6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용보증기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및 P-CBO 발행 등 신용보증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예산집행부문과 구상채권 관리부문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 監事가 취임초기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② 예산집행부문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잘못된 자금지출,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문제가 있었음
- ③ 인력운영 부문의 경우 현원 대비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잉여인건비를 급여인상에 반영하는 등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며
- ④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의 경우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보증채무 이행 관련 양도 담보물 관리의 부적정 등이 발견되었음

## 2. 부문별 감사결과

###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금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내용중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감사직무의 독립성, 감사실 운영, 자체감사 실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실적 등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

#### [Ⅲ] 감사 결과

- ☐ 신용보증기금은 監事의 직무 및 감사실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예산·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기준 마련 또는 감사(감사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연수·감사원 특정 감사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자체감사의 경우 '07년 41회, '08년(6월말현재) 24회 실시하였는 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됨
    - 감사원 등 외부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
  - 다만, 監事가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했던 것은 감사직무 독립성 등을 훼손한 행위가 있었음



##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신용보증기금의 監事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결과, 연기금 부문(12개 기관)에서 1위를 획득한 바 있음 ('08.6월)
- 따라서 監事의 직무수행 실적이 다른 금융공기업에 전파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監事가 취임초기 신보 노조에게 취임 1년 경과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을 인지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감사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신용보증기금 監事는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임명 ('06.12.1)\*을 받은 후 신보 노동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자, '1년후 중간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조에게 제출하고 출근을 시작하였음

\* 신용보증기금 감사 임면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었으나(신보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7.4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공운법 제26조제4항)하도록 변경

- 신보 노조는 監事 취임 1년 후('08.2.18~20) **확약서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監事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 결과, 모집단 2,046명(임원, 임금피크제 및 휴직자 제외)중 1,064명이 응답 (응답률 52.0%)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60%를 상회하고, 긍정적 응답은 10% 미만

- 신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음('08.6월)

- 평가결과 총 67.5점을 획득(100점 만점)하였는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부문에서 우수(B<sup>+</sup>)하였고,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부문이 저조(C<sup>0</sup>)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평가 결과

구분	기관 수	1위 점수	평균
1분류 기관 (검사 및 문화·국민 부문)	9	76.2	67.4
2분류 기관 (산업 및 교육·연구 부문)	10	80.7	68.8
3분류 기관 (신보 등 연기금 부문)	12	67.5	56.6

- 신보 노조는 '08.9.22부터 **노조전임자(6명)** 주도하에 감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감사실 출입을 봉쇄

- 신보 경영진은 노조에게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監事의 정상적 직무수행에 협조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촉구**

\* 일부 노조원이 노조 전임자에 동조하여 감사퇴진을 위한 궤기대회 등에 참여하였으나, 일과 전·후 등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은 발견치 못함

- 신보 외부에서 직무를 수행해 오던 監事는 금융위 감사가 실시 되면서부터 노조의 출근저지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재개

## <지적사항>

□ **(확약서 제출 행위)** 監事는 재경부장관에 의하여 신보의 상임감사에 임명되었음에도 임면권자가 아닌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확약한 것은 **법에 의한 임면권자의 고유권한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음

□ **(확약서 제출의 영향)** 노조에게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노조의 여론이나 반발을 염려해야 하는 등 **감사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도 **유발**하는 결과 초래

\* 監事는 감사기준(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유지 등)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야 함 (공운법 제32조,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제8조)

○ 노조의 정당하지 못한 의견표출을 정당화시켰으며 향후 임원인사시에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신보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여타 신보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

□ **(監事の 태도)** 감사반은 監事에게 확약서의 작성 여부·경위·내용 등과 이로 인한 감사의 독립성 훼손 등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의견을 묻는 질문서를 송부했으나,

○ 監事は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는 의미는 아니었다”, “확약서 원본이 없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만을 계속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아니 하였음

□ (종합 결론) 監事는 감사직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신보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감사 취임 직후 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에게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 노조의 단체행동을 유발하여 임직원과의 마찰을 초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현 상황으로 보아 監事는 노조뿐만 아니라 신보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 신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으나, 監事 문제가 기관역량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국회(공기업 특위)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었음
- 감사원이 '08.3~4월중 신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가급적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신보가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한 바 있어, 동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의 개선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과목별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는바 특히 소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중 감사
- 또한, 법인카드 사용관행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실시 이후 '08.6~8월(3개월)중 본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전표와 사용 목적·장소·일시·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Ⅲ〕 감사 결과

#### ① 예산과목에 부적합한 용도로 예산 집행

- 신용보증기금 예산운용요령 제4조제2항 별표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집행 용도를 달리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 대외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 경비
- 회 의 비 : 운영위원회, 부점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간담회 등 통상적인 대내외 회의비

- 신용보증기금은 '07.1.1~'08.8.31 기간중 업무추진비는 5,904건 1,18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비는 동 기간중 5,434건 1,13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7년		'08.1~8말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업무추진비	3,791	780	2,113	403	5,904	1,183
회의비	3,551	741	1,883	394	5,434	1,135
계	7,342	1,521	3,996	797	11,338	2,318

#### <지적사항>

- 예산집행은 예산운용요령에 명시된 예산과목별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바, '07.1.1~'08.8.31 기간동안의 업무추진비 총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 영업부·서부기업지원단·강남영업본부 등은 부서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회식 등 회의비 성격의 경비 268건 20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업무추진비 총건수의 4.5%, 총집행액의 1.3%)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현황

(단위:건, 백만원)

본점		영업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	2	240	18	268	20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②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7조제3호는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최근의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분할결제 사례 516건, 103백만원을 적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음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신용보증기금) 제8조에 의하면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 신보는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실명 미서명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음
- 신보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의 분할결제 행위 및 실명 미서명 관행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8.6.1~'08.8.31(3개월) 기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 실시

### <지적사항>

- ① (분할결제) 동일장소에서 동일시간에 집행한 금액\*을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한 사례가 87건(분할결제전 37건, 11백만원) 발견되었음

\* 계정이 다르거나 예산과목이 다른 지출을 동일카드로 사용한 사례는 제외

- 본점(10건)보다는 주로 지점(77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아직도 일선기관에서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



② (실명 미서명)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 2과목에 대하여 본점의 법인카드 전표를 조사한 결과,

- 실명 미서명 사례\*가 전체건수의 1/4을 상회하고 있어 자체감사 실시전(5월)과 비교시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인재개발부, 신보, Kodit 등으로 서명

-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체감사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직원들의 규정준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미서명 현황

(단위: 건, %)

구분	'08.5월	'08.6월	'08.7월	'08.8월
법인카드 결제건수(A)	432	497	446	502
실명 미서명 건수(B)	135	138	115	123
실명 미서명 비중(B/A)	31.3	27.8	25.8	24.5

\*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집계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향후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동일건에 대하여 분할결제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통보)
- 법인카드 전표에는 반드시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토록 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

###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일반지침 제9호 : 구매카드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 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 **◀ 법인카드 사용기준 (신용보증기금)**

- 제7조제3호 : 1건의 거래를 여러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해서는 안됨
- 제8조제1항 : 법인카드 사용자는 매출전표에 본인의 실명으로 서명해야 함

## **라. 정/현원 운용 부적정**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초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인 신보의 인력운용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신보용보증기금의 정/현원 운용의 적정성 및 정/현원 차로 발생하는 남은 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정/현원 인력운용 현황 및 인건비 예산편성과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정/현원 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의 집행 및 부서별 인력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감사

### **[Ⅲ] 감사 결과**

#### **□ 정/현원 개요**

- 정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는 인력운용 한도로서 조직신설·통폐합 등의 경우 총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됨
  - 현원은 실제운용하고 있는 정규직 인원
  - 비정규직은 정원외로 운용되는 한시적근로자 등 계약직을 말함
- 정/현원 현황: 정원 2,141명, 현원 2,005명, 差 136명
  - 정/현원 차이를 살펴보면 본부와 영업본부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반면, 연수·파견·휴직과 영업지점은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용

(‘08.10말 기준, 신용보험 및 SOC보증 제외)

		본 부	영업본부	연수·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채권추심팀, 소송지원 팀 포함)
정원(A)	2,141	303	62	71*	1,705
현원(B)	2,005	307	63	56	1,579
差(B-A)	△136	4	1	△15	△126

\* 연수 30명, 파견 9명, 휴직 21명, 별정직 현원 미충원 11명

## □ 인건비 편성 및 집행

○ 정부는 05년 이후 기금의 총인건비를 전년도 총인건비예산의 일정률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

- 기금(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기금과 협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 04년까지(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이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함

## <연도별 정/현원 및 인건비 편성·집행 추이>

	정원	현원	정/현원 차이	인건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1인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순증(%)	잔액
04년	2,147	2,085	△ 62	120,952	120,669	57.9		283
05년	2,131	2,030	△101	130,106	130,026	64.1	10.7	80
06년	2,131	1,999	△132	132,579	131,249	65.7	2.5	1,330
07년	2,141	2,003	△138	138,879	138,787	69.3	5.5	92
08.10월	2,141	2,005	△136	137,941	113,007	56.4	-	24,934

\* 퇴직급여 및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임

\*\* 08년 1인당 평균임금(4급 25호봉) 69.6백만원

## <지적사항>

□ (현원대비 정원의 과다채정 운용 문제) 신보는 05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예산을 정부의 가이드라인(04년도 인건비예산 총액의 3%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 정원 2,131명보다 101명 적은 현원 2,0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 05년도 1인당 임금증가율이 10.7%에 달하게 됨

- 이후에도 07년까지 현원 27명을 추가로 감축<sup>1)</sup>하면서도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05~ 07년 기간중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총 7%증가하였으나, 1인당 집행된 인건비는 총 18.7%인상<sup>2)</sup>되었음

1) 정규직 퇴직/채용: 31/0명(06년), 31/35(07년)

2)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3.0%(05년), 2.0%(06년), 2.0%(07년) 증가해 운데 비해 1인당 집행인건비는 10.7%(05년), 2.5%(06년), 5.5%(07년) 증가

- 이러한 정/현원 및 인건비 운용의 결과 감사일 현재 인건비 예산은 여유분이 없는 상태이나, 정원은 현원에 비해 과다 채정하여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보는 감사일 이후 경영효율화를 위해 09년부터 12년까지 정원의 13.3%(304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중(08.12월, 경영효율화 방안)

□ (영업지점 인원부족) 또한, 신보의 주요사업이 보증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점의 인원을 정원보다 100명이상 적게 운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

\* 영업지점(정/현원): 05년(1,717/1,547), 06년(1,695/1,533), 07년(1,709/1,540),  
08년(1,705/1,579)

본 부(정/현원) : 05년(329/340), 06년(330/333), 07년(323/326), 08년(303/307)

연수·파견·휴직(정/현원): 05년(34/89), 06년(35/68), 07년(37/66)

08년(71/56) : 08년 육아휴직 및 임금피크제 전직예정인원 등  
증가에 따라 정원 증원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수감으로 인한 보증지원업무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보증기업의 부실로 인해 기금이 기업을 대신해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구상채권의 관리업무와 관련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대위변제 현황, 구상채권(상각채권 포함) 현황 및 구상채권 회수금의 회계처리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고, 상각채권 관리의 적정성, 대위변제 시기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집중 감사

### **〔Ⅲ〕 감사 결과**

#### **①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상각채권 관리 개요

- (개념) 상각채권은 기금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적어 상각 처리한 채권

- 상각기준 :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 구상채권(자산)에서 상각되는 채권은 재무제표상 주식으로 표기

- 「직제규정」에서는 용어를 '상각채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상권관리규정」에서는 '특수채권'으로 사용

- (상각채권 현황) 08.10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는 354조원, 보증사고금액은 21.5조원이며, 대위변제한 금액은 21.9조원으로 동 금액만큼 채무자에 대해 구상채권을 소유

- 구상채권을 상각한 상각채권규모는 12.4조원으로 기본재산 (3.7조원)의 약 3.4배에 이르며 매년 1조원 수준씩 증가 추세

(조원, 08.10말 현재)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구상채권 잔액	상각채권 잔액
354	21.5	21.9	6.8	3.0	12.4

\* 06년 1.3조원, 07년 1.4조원, 08년 1.0조원 상각 처리

- 채권규모증가와 더불어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라 채무상환 기피 분위기가 나타나고, 채무관련자도 계속 증가

	2005년 (명)	2006년 (명)	2007년 (명)	08.10월말 (명)
계 (전년대비 증가)	318,024	330,489 (12,465)	337,044 (6,555)	340,224 (3,180)
주채무자	155,712	161,879	165,007	166,346
연대보증인	162,312	168,610	172,037	173,878



- (상각채권 회수체계) 신보는 상각채권 사후관리업무를 영업점과 채권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이중 상각채권 회수업무는 상각 후 1년간은 영업점에서, 그 이후 10년까지는 채권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최근(08.2월)에는 상각처리 후 10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고 있음

1단계		⇒	2단계		⇒	3단계	
시기	상각 후 1년		상각 후 평균 10년			상각 후 11년 이후	
관리	영 업 점		채권관리팀(21개)			위임 (4개 신용정보회사) (고려, 나라, 미래, 솔로몬)	
규모	3조원		7조원			2조원	
회수	148억(06), 293억(07)		858억(06), 914억(07)			19억(08)	

### <지적사항>

- (회수부진) 상각채권 회수는 12조원(07년말 11.5조원)의 채권 중 연간 1천억원 수준을 회수(회수율 1.0%수준)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위임을 통한 회수는 2조원의 채권 중 연 19억원(회수율 0.1%수준) 회수에 그치고 있음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다수의 상각채권을 장기간 보유·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채원의 비효율적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용어혼용) 신보는 '상각채권'과 '특수채권'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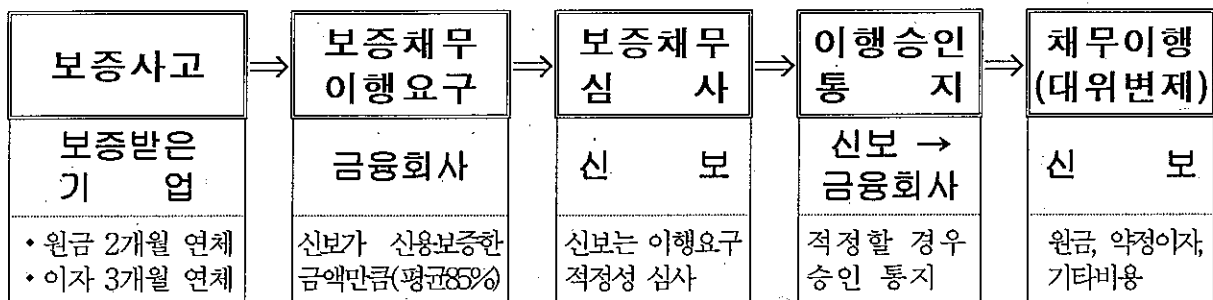
### <조치요구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구상채권을 상각한 채권을 '상각채권'과 '특수채권'으로 혼용하고 있는 바, 용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②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 <보증채무이행 절차>

-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신보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 신보는 자체심사를 거쳐 승인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



### <지적사항>

- 2007.1.1. 이후 신보가 보증채무이행 승인일(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일까지 10일 이상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한 사례(최장 53일)는 33건 3,972백만원임
- 이중 우편물발송을 지연하여 이행승인통지를 지연한 것은 20건 3,510백만원이며, 이로 인해 약정이자 약 10백만원 추가 부담
- \* 신보는 보증사고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494억원) 부담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약정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채무이행을 승인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

#### **<양도담보물 관리 개요>**

- (개념) 양도담보물은 신보가 보증사고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인수한 기계시설 등 동산
- (회계처리)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은 '양도담보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분보증\*일 경우,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

\* 통상 보증금액의 85%는 신보가 보증, 나머지는 취급금융기관이 신용보증

#### **<지적사항>**

- 2006.1.1 이후 신보가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아 매각한 감정가액 30백만원 이상 양도담보물은 78건
-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을 이전계약서상의 정산예정일보다 7일 이상 지체하여 정산한 경우가 20건이 있었음
- \* 사례) 시화지점 (주)○○○관련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이전계약서상 정산예정일보다 196일 경과 정산 (운용수익 약 158만원)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는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 정산이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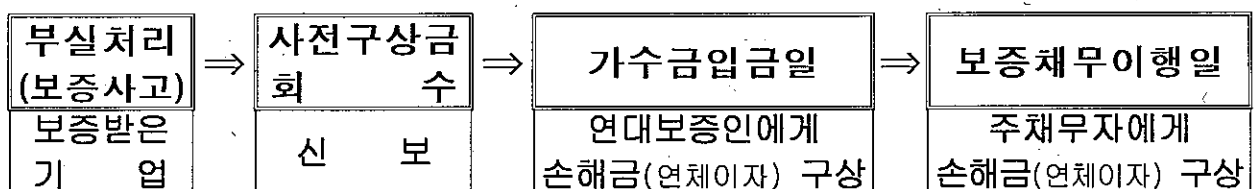
#### ④ 사전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 <가수금 회계처리 개요>

- 가수금은 출납과잉금, 유형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 중 일부 수입금 등 정당계정 처리를 보류하는 일시수입금(신보 회계처리기준 제57조)
- 신보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 이행과 동시에 구상채권 등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 바,

\* 주채무 이행의무위반, 폐업, 3개월이상 휴업 등의 사유가 생긴 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금액만큼 사전상환의무 부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 연대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였다가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부터 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를 가수금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반면,
-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약정이자를 보증채무이행일자에 회계처리함



##### <지적사항>

- 2006.1.1 ~ 2008.10.31 채무관계자로부터 입금된 가수금 중 1천만원이상 1개월이상 경과(최장 2년9개월) 정리된 가수금은 185건 85억원(평균 4,600만원/건)이며, 동 가수금이 정리되기까지 신보는 여유자금으로 운용 회계처리 (평균금리 07년 4.54%, 08년 5.67%)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사전상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동일성과 형평성을 결여

○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면제한 사례

(주)△△△산업개발(대표 ○○○)의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개발(주)로부터 2006.1.25. 965,393,064원을 가수금계정에 입금하고, 2007.3.26. 동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당초 가수금입금일자로 기산일 처리하였음 (원금상환일로 처리했을 경우  $168,613,172\text{원} = 965,393,064\text{원} \times 425\text{일} / 365\text{일} \times 15\%$ )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부과한 사례

(주)☆☆☆상사(대표 □□□)의 구상권 회수와 관련하여 2006.6.8. ◇◇◇으로부터 42,000,000원을 회수하여 당일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였고, 91일 경과한 2006.9.7. 동 가수금으로 보증채무 원금 37,725,025원과 대지급금 4,274,975원을 정리하였으며, 보증채무 원금상환에 충당된 가수금 37,725,025원에 대하여도 원금상환일인 2006.9.7.까지 주채무약정이자 ( $1,410,810\text{원} = 37,725,025\text{원} \times 91\text{일} / 365\text{일} \times 15\%$ )를 부과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2항)

※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 처리하였다가 주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로 주채무 약정이자를 회계처리

###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한 사전구상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구상채권 등에 충당할 경우, 가수금 입금일로부터 보증채무상환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채무관련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참고>

##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일련 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1	<p>◇ 監事の 처신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임면권을 침해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초래</li> </ul>
2	<p>◇ 예산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p> <p>①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집행용도가 상이함에도 이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 (통보)</p> <p>②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을 2~3개의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법인카드 사용시 동일건 분할 결제 금지 (통보)</p> <p>③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사용시에는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서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p> <p>⇒ 법인카드 사용시 사용자의 실명을 서명 (통보)</p>
3	<p>◇ 정/현원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대비 현원을 과소(정원의 6.3%)하게 운영하고 그 잉여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인력을 운용</li> </ul> <p>⇒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마련 (권고)</p>

일련 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4	<p>◇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p> <p>① 상각채권 규모는 12조원이나 되는 반면, 연간 회수는 1천억원 수준에 불과(회수율 1% 수준)</p> <p>⇒ 상각채권의 회수증대 방안 강구 (권고)</p> <p>② 동일한 채권을 직제규정은 상각채권으로, 구상권관리규정은 특수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용어상 혼란을 야기</p> <p>⇒ 혼용 사용하는 용어(상각채권과 특수채권)를 정비 (권고)</p>
5	<p>◇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 부적정</p> <p>- 보증채무 이행사유가 발생시 약정기한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불필요하게 연체이자 부담</p> <p>⇒ 보증채무 이행 업무의 적시처리 (통보)</p>
6	<p>◇ 보증채무 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p> <p>-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지체 없이 채권기관과 정산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p> <p>⇒ 양도담보물 정산업무를 적시 처리 (통보)</p>
7	<p>◇ 구상권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p> <p>- 구상권 가수금 처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약정 이자를 가수금 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 하는 반면, 주채무자에게는 보증채무 이행일자로 회계처리 하여 형평성 결여</p> <p>⇒ 사전 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 개선 (권고)</p>



###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통보사항은 즉시조치

나. 권고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5. 소속 직원 징계현황

### □ 소속 직원 징계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처분결과
○○○	서기관	음주운전	견책
○○○	서기관	청렴의무위반	감봉2월
○○○	사무관	음주운전	견책

## 6. 비정규직 고용현황

### < 비정규직 고용현황 >

(단위 : 천원)

직군	성명	생년월일	월평균 지급액	계약일	비고
사무보조	한**	77.10.03	1,323	01.05.03	
사무보조	길**	78.10.02	1,209	01.07.05	
사무보조	최**	79.04.10	1,323	01.07.16	
사무보조	김**	79.04.07	1,209	01.11.03	
사무보조	양**	78.03.15	1,323	02.06.24	
사무보조	장**	78.12.14	1,209	03.06.10	
사무보조	박**	82.02.14	1,209	03.11.03	
사무보조	이**	85.10.02	1,209	04.12.06	
사무보조	박**	81.05.03	1,209	04.12.06	
사무보조	도**	74.08.15	1,197	04.12.07	
사무보조	전**	80.08.30	1,209	05.02.19	
사무보조	유**	85.06.23	1,209	06.07.03	
사무보조	유**	81.04.26	1,209	06.11.07	
사무보조	이**	79.01.04	1,209	06.12.14	
사무보조	장**	83.01.18	1,209	07.04.06	
사무보조	유**	80.10.06	1,168	08.04.07	
사무보조	윤**	79.01.26	1,168	08.05.06	
사무보조	이**	86.02.22	1,168	08.05.13	
사무보조	강**	82.05.08	1,020	08.07.01	
사무보조	장**	86.08.28	1,127	08.08.19	
사무보조	이**	85.10.11	1,127	09.02.20	
사무보조	유**	85.10.18	1,127	09.03.09	

직군	성명	생년월일	월평균 지급액	계약일	비고
사무보조	박**	86.03.01	1,020	09.04.27	
사무보조	박**	88.04.07	1,127	09.05.14	
사무보조	신**	82.08.18	1,127	09.05.26	
사무보조	김**	90.01.16	1,127	09.07.01	
속기사	배**	79.07.04	1,892	08.01.01	
속기사	은**	82.08.01	1,892	08.01.01	
운전원	곽**	65.10.30	1,950	08.04.11	
운전원	진**	65.04.25	1,950	08.04.11	
운전원	오**	78.01.20	1,950	08.05.26	
행정인턴	박**	87.01.30	1,000	09.07.13	
행정인턴	박**	83.09.24	1,000	09.07.13	
행정인턴	조**	85.12.09	1,000	09.07.13	
홍보전문	지**	77.07.15	2,910	09.02.09	

## 7. 과장급 이상 퇴직자 현황

### □ 과장급 이상 퇴직자 현황

성명	직급	퇴직일시	재취업기관
이OO	부위원장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이OO	일반직고위공무원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양OO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문
한OO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 8.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 붙임참조

<붙임>

## 외부기관 위탁 연구용역 목록(2008~2009.현재)

### □ 2008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08.8.29	19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22~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08.8월~08.9월 (2개월)	20	한국금융연구원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08.11.4	46	(사)국제금융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효율화 방안	08.8.13~08.12.12	40	언스트앤영어드 바이저리(주)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편	08.10.31~08.12.20	29.5	(주)사이버이메지 네이션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08.12.26	25.1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 조사	08.12.12~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 □ 2009년 정책연구용역 목록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행기관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4.13~	30	자본시장연구원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12.15	45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 효과 분석	09.6.1~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	3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6.1~8.3	28.8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16~10.15	3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12.2	32	자본시장연구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8.28~12.31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시스템 설계 방향	09.9.16~11.15	20	자본시장연구원



## 9. 금융기관별 DDos 관련 금융기관 피해현황

### 10. DDos 등 유사 사례발생에 대비한 위원회의 대응 방안

- '09.7.7~9일 3일간 진행된 1, 2차 디도스 공격을 받은 7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는 했으나,

\* 외환, 신한, 농협,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 금융정보 유출·불법이체 등의 금융사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금융시스템 위기대응체계 확립 및 통합보안관제센터 확대 구축하고 중·소형 금융회사 사이버보안 감독 강화

- ①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및 위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민·관 공동의 금융IT분야 고위급 협의체 운영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이버테러 대응, 재난대비 백업체계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 및 금융IT 현안 협의·조정

- ② 증권 및 저축은행·카드사 등 인터넷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통합보안관제센터 확대 구축 추진

\* 우선적으로 증권사를 대상으로 통합보안관제를 실시

- ③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정기검사외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도

11-1.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자격증명, 보유자, 응시자, 합격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명	등록자 (‘09.8.31. 현재)	제2차시험 응시자수	최종 합격자수
공인회계사	12,3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3,173명</li> <li>· ‘08년: 3,053명</li> <li>· ‘07년: 2,706명</li> <li>· ‘06년: 2,252명</li> <li>· ‘05년: 2,93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936명</li> <li>· ‘08년: 1,040명</li> <li>· ‘07년: 830명</li> <li>· ‘06년: 1,007명</li> <li>· ‘05년: 1,004명</li> </ul>

## 11-2.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

### □ 한국 FPSB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자격명	시행 시작 년도	실시 횟수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시험 응시 전형료	비고
AFPK (재무 설계사)	2007	9	108,510	84,880	23,931	28.2%	전과목응시 : 5만원 모듈1 응시 : 3만원 모듈2 응시 : 3만원	07년 6월 공 인 후 연 4회 시행중

### 11-3.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자격증명, 보유자, 응시자, 합격자)

□ 현재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 한국금융연수원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한국금융연수원 배유나 계장 3700-1645)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분석사	2002	14	6,933	4,653	991	21.3%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 동일시험 2회 접수시 응시전형 료 30% 감면, 3 회 이상 접수시 응시전형료 50% 감면적용
여신심사역	2002	9	322	257	121	47.1%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국제금융역	2002	7	940	560	141	25.2%	전과목응시 : 5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3만원	
신용위험분석사 (CRA)	1차	7	3,457	1,967	920	46.8%	6만원	
	2차	7	1,170	861	123	14.3%	7만원	
자산관리사 (FP)	2002	16	49,030	31,250	7,375	23.6%	전과목응시 : 4만원 1부 응시: 2만원 2부 응시: 2만원	
계		60	61,852	39,548	9,671	24.5%		

\*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은 1차시험 합격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시험 합격자가 최종합격자임.

## 신용정보협회 공인 민간자격 시행 현황

(담당자 : 신용정보협회 기경민 국장 3775-2761)

자격명	시행 시작년도	실시횟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시험응시전형료	비고
신용관리사	2006	6	27,675	15,899	4,556	28.7%	06년 30000원, 07년 35000원, 08년 40000원	06년 공인후 연2회 시행중

## 11-4.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현황

(자격증별 보유자, 합격자, 응시자)

(단위 : 명)

자격시험 종류	보유자 <sup>1)</sup>	응시자 <sup>2)</sup>	합격자 <sup>3)</sup>
증권투자상담사	92,425	22,026	4,49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6,572	20,530	2,304
일임투자자산운용사	32,018	10,108	1,918
집합투자자산운용사	8,789	4,989	1,117
재무위험관리사	1,784	2,830	386
금융투자분석사	63	1,098	63
투자상담관리사	23	63	23
증권분석사	181	-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74,078	57,646	15,819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51,328	81,533	51,328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59,308	88,291	59,308
합계		289,114	136,759

1) 09.7월말까지 누적

2) 09.1 ~ 7월까지(응시료 접수 기준)

3) 09.1 ~ 7월까지

※ 자료제공 : 금융투자 협회

## 12. 금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단기, 장기대책 구분)

- 정부는 금융산업의 핵심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을 마련하고,
  - 2013년까지 ‘실무금융전문인력사업’을 통해 1,300명, ‘금융전문대학원(금융 MBA)지원’을 통해 1,500명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
- 실무금융전문인력사업의 경우 ’09년에는 금융관련 협회 3개 연수원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마케팅, 자산운용관리 등 금융실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금융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연수 실시중
- 금융전문대학원(금융MBA) 지원의 경우 KAIS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중



1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금융회사별(보험사 등 포함) 출연금액 변동 현황

- 2008. 최초 출연일 기준, 2009. 최초 출연일로부터 1년뒤 기준, 2009.9월 25일 기준

□ 전체 현황 (자료출처 : 휴면예금관리재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연금		합계
	2008년	2009년 (9월 25일 기준)	
은행	176,643	89,405	266,048
보험사	91,918	26,646	118,564
상호저축은행	1,851	325	2,176
합계	270,412	116,376	386,788

○ 은행별

(단위 : 백만원)

번호	금융회사	출연금		
		2008년	2009년	합계
1	우리	16,579	6,457	23,036
2	기업	11,487	4,781	16,268
3	부산	3,021	2,009	5,030
4	경남	1,213	562	1,775
5	제주	73	32	105
6	산업	746	224	970
7	전북	2,000	479	2,479
8	수협	2,158	413	2,571
9	신한	24,222	7,354	31,576
10	SC제일	9,630	7,434	17,064
11	하나	20,227	3,887	24,114
12	광주	530	520	1,050
13	국민	35,850	26,371	62,221
14	농협	27,213	20,118	47,331
15	대구	4,641	1,048	5,689
16	씨티	4,032	2,332	6,364
17	외환	12,911	5,309	18,220
18	HSBC	110	75	185
합계		176,643	89,405	266,048

○ 보험사별

- 생명보험회사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회사	출연금		
		2008년	2009년	합계
1	메트라이프	589	370	959
2	ING	1,472	1,238	2,710
3	AIG	684	453	1,137
4	라이나	1,293	617	1,910
5	PCA	67	67	134
6	SH&C	43	353	396
7	대한	10,647	2,606	13,253
8	하나HSBC	23	109	132
9	알리안츠	6,409	1,859	8,268
10	푸르덴셜	125	146	271
11	KB	43	107	150
12	우체국	미출연	1,107	1,107
13	뉴욕	45	30	75
14	금호	3,119	1,274	4,393
15	녹십자	628	128	756
16	삼성	16,530	4,031	20,561
17	교보	10,483	3,174	13,657
18	신한	5,138	미출연	5,138
19	미래에셋	5,194	"	5,194
20	동양	2,239	"	2,239
21	동부	1,176	"	1,176
22	홍국	3,925	"	3,925
23	우리아비바	655	"	655
합계		70,527	17,669	88,196

- 손해보험회사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회사	출연금		
		2008년	2009년	합계
1	롯데	1,333	130	1,463
2	삼성	4,942	3,473	8,415
3	제일	1,578	239	1,817
4	동부	2,030	1,420	3,450
5	현대	1,976	1,287	3,263
6	메리츠	3,287	497	3,784
7	한화	1,416	346	1,762
8	LIG	2,765	1,283	4,048
9	그린	1,055	302	1,357
10	홍국	1,009	미출연	1,009
합계		21,391	8,977	30,368

○ 상호저축은행별

(단위 : 백만원)

번호	금융회사	출연금		번호	금융회사	출연금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1	부림	58	1.4	28	전일	311	미출연
2	한신	63	0.9	29	금화	77	"
3	예가람	17	11.4	30	민국	5	"
4	참앤씨	20	0.7	31	고려	4	"
5	솔로몬	6	3	32	경남제일	85	"
6	삼신	12	25.2	33	아산	13	"
7	대영	9	8.4	34	유니온	0.9	"
8	삼성	28	0.3	35	토마토	3	"
9	화승	14	0.09	36	전북	33	"
10	신민	미출연	139	37	국제	27	"
11	센트럴	11	14.2	38	경기솔로몬	73	"
12	남양	3	3	39	오성	1	"
13	스카이	5	0.5	40	평택	19	"
14	대성	2	0.3	41	한성	20	"
15	SC 스탠다드	2	6	42	한주	1	"
16	인성	135	0.02	43	에이스	9	"
17	인천	0.003	24.2	44	모아	85	"
18	제일	5	4	45	현대스위스1	0.4	"
19	예한울	미출연	0.9	46	현대스위스2	0.3	"
20	프라임	39	3	47	미래	250	"
21	한일	20	2.2	48	삼화	26	"
22	새누리	49	36	49	흥국	15	"
23	스타	25	2.3	50	부산솔로몬	6	"
24	으뜸	175	5	51	구미	2	"
25	삼정	9	13.1	52	진흥	1	"
26	동양	3	0.7	53	호남솔로몬	14	"
27	보해	57	20	54	용창	3	"
합계		2008년		1,851			
		2009년		325			
		계		2,176			

